

# 龍仁市史

현대사회

I

5

*Acc* YONG-IN 용인시립도서관



EM97004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여

백

龍

5 권  
현대사회  
I

仁市史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여

백

1990년에 『용인군지』가 발간된 이후 어느덧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용인은 군에서 시로 승격(1996년 3월 1일)되는 한편,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2005년 11월에는 다시 처인·기흥·수지 등 3개의 구청이 동시 개청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인은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수도권 남부의 핵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듯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과 더불어 국내·외 모두의 관심을 용인으로 집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우리 고장 선열들의 빛나는 충효 정신과 우수성이 뛰어난 유적을 비롯한 역사의 흔적들이 우리 고장 곳곳에 어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던 고유문화가 급속한 도시개발 앞에서 그 빛을 차츰 잃어버리고 있는 것 또한 고개 숙여지는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행히도 용인시사편찬위원회가 발족되어 우리 고장 용인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하여 왔고, 이제 그 결실을 하나로 모아 『용인시사』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용인이 초인류도시로 발돋움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역사 속에 산재되어 있던 자료들을 발굴, 정리하여 『용인시사』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화의 수준이 곧 그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문화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 기다림과 각고의 노력 끝에 발간된 『용인시사』는 문화인류 도시를 지향하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양적인 성장 중심으로 용인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질적인 면에서 시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발전에 주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귀중한 책자가 우리 역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료의 수집과 편찬에 애써 주신 편찬·편집위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5월

용인시장

우리 용인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해 온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용인지역의 유서, 즉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까닭과 내력을 알기 쉽고 올바르게 정리하여 『용인시사』로 편찬·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용인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개발을 중심으로 한 외적 성장에 치우쳐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고장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절차탁마(切磋琢磨)의 노력으로 발굴하고 정리하여 대대손손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자료로 엮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노고가 헛되지 않고 후대 자손들에게 전해져 찬란히 빛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지역은 21세기 출발을 전후로 하여 모든 분야에서 급속하게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정보산업의 발달, 도시화로 지역 문화의식이 소홀해지고 있는 시기에 고장의 역사와 문화유산, 시대별 선조들의 정서, 선열들의 사상과 학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훌륭한 정신적 자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며, 이러한 정신적 자산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지역사회에서 같이 호흡하고 생활하는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발간되는 『용인시사』가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길 바라고, 지방화시대에 향토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꽃피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용인시사』 발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모든 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5월  
용인시의회 의장

용인지역은 예로부터 명현의 유적이 많은 곳입니다. 전국 유림(儒林)의 표상으로 추앙되는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생을 비롯하여 조선 중종조의 기묘명현(己卯名賢) 가운데 7명의 유적이 용인에 산재해 있습니다. 조광조(趙光祖) 선생과 함께 사은정(四隱亭)에 뜻을 남긴 조광보(趙光輔)·조광좌(趙光佐)·이 자(李耜)·김세필(金世弼)·이성동(李成童) 선생 역시 충절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신 분들이며, 조선후기 기호학파(畿湖學派)의 맹주로 추대되는 이재(李穡) 선생은 용인에서 전국의 유림과 교류하신 대학자입니다. 이렇듯 현인들이 많은 지역임에도 용인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저 명당이 많은 고장 정도로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수지·기흥·구성 등지에 들어서면서 용인은 살기 좋은 곳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용인의 총인구수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1996년에 이르러서야 군에서 시로 승격될 수 있었던 용인은 이제 그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서기에 이르렀습니다. 용인이 경기도를 이끌어갈 핵심 도시로서 부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시점에 『용인시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0년에 『용인군지』를 간행한 바 있으나, 그 내용도 소략할뿐더러 지난 10여 년간 용인의 급격한 변화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용인시사』가 역사·문화·사회·경제·자연 등 여러 분야를 두루 다루면서 총 8권으로 간행된다는 점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21세기에 접어든 지금은 가히 지방화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이번 『용인시사』가 간행됨에 따라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민문화의 창달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ACE 용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용인시사』가 간행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시사편찬위원 및 집필위원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인시사』가 ‘용인 백과사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5월

용인문화원장

홍재수

# 정치와 경제



용인군수선거 합동연설회(1995년)

국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1996)





선거유세를 듣고 있는 유권자들

내사면 3대 면의회 의원(1951년)

## 정치와 경제



제2회 용인군의회 개원식

용인군의회 정기회



용인군의회 의원 음면 순회간담회(19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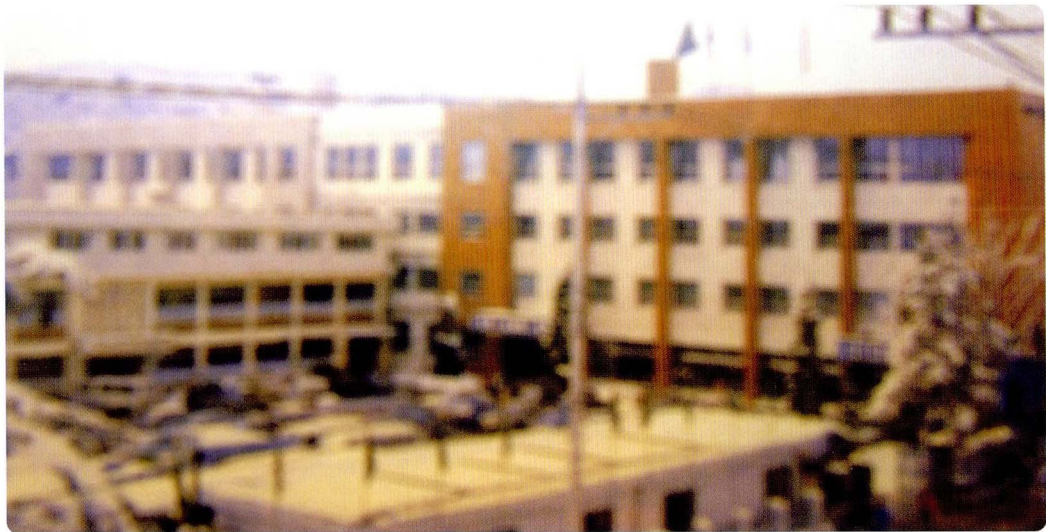
# 정치와 경제



용인시청 현판식 | 시 승격 플래카드

용인시 문화행정복합타운





용인군청(1962년)

용인군청(1985년)

용인시청(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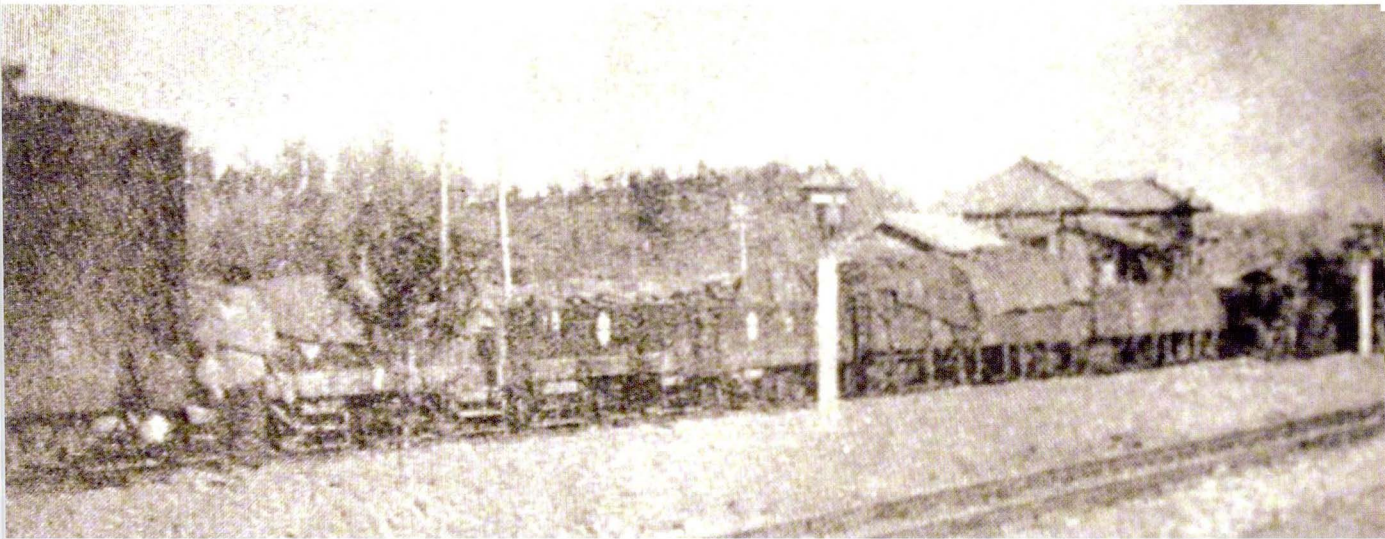


## 정치와 경제



이동군청(1992년)

유림동 청사 준공 및 이전기념식(1999년)



양지역 개통(1930년)

남사우체국 개국(1963)

구호물자 배급(6.25 직후)

수해복구활동

# 정치와 경제



초등학생 시정참여교실

도지사와 주민과의 대화

지자체 실시 공무원 직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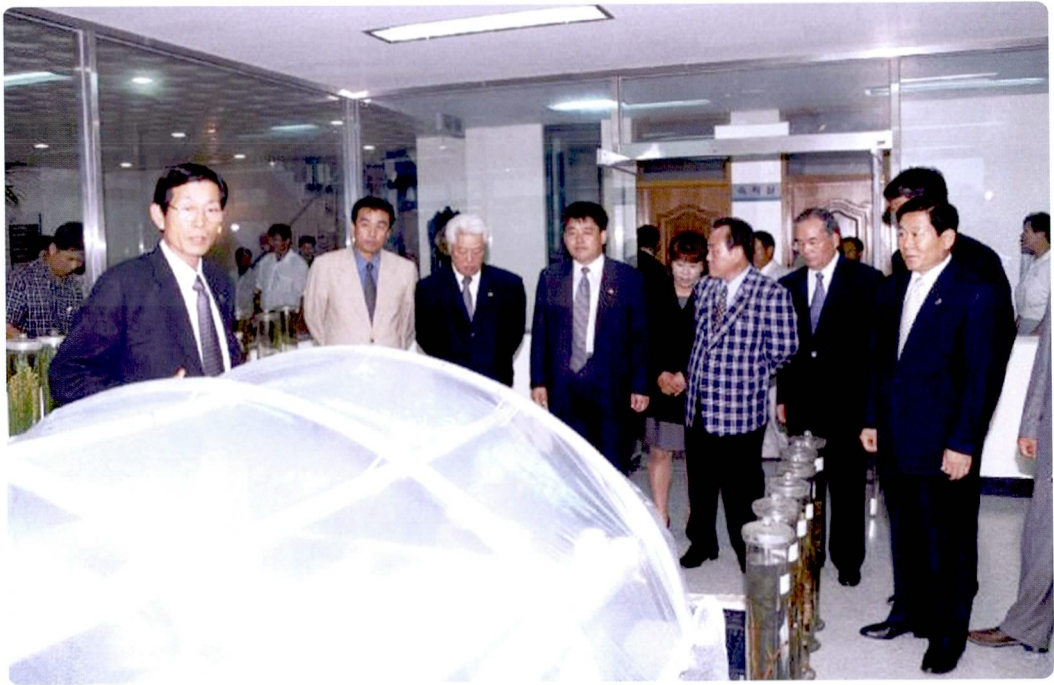


중국 양주시 대표단 방문

용인시 · 강남대학교 협동협약 조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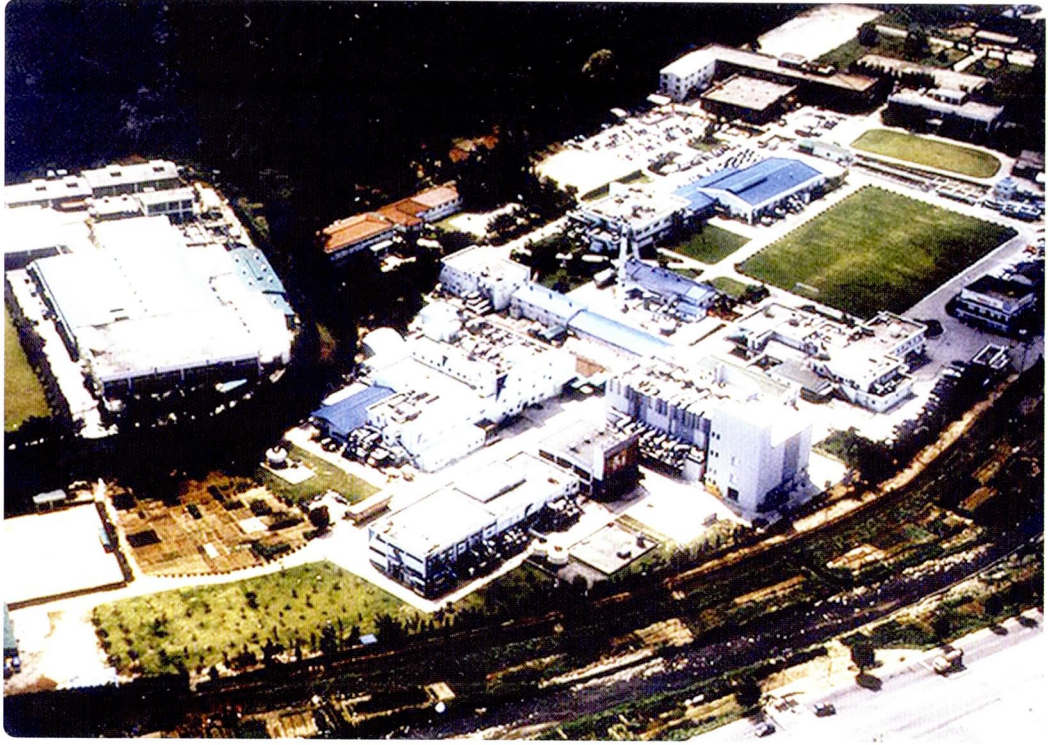
용인시 중소기업 EC 인프라 구축사업 조인식

## 정치와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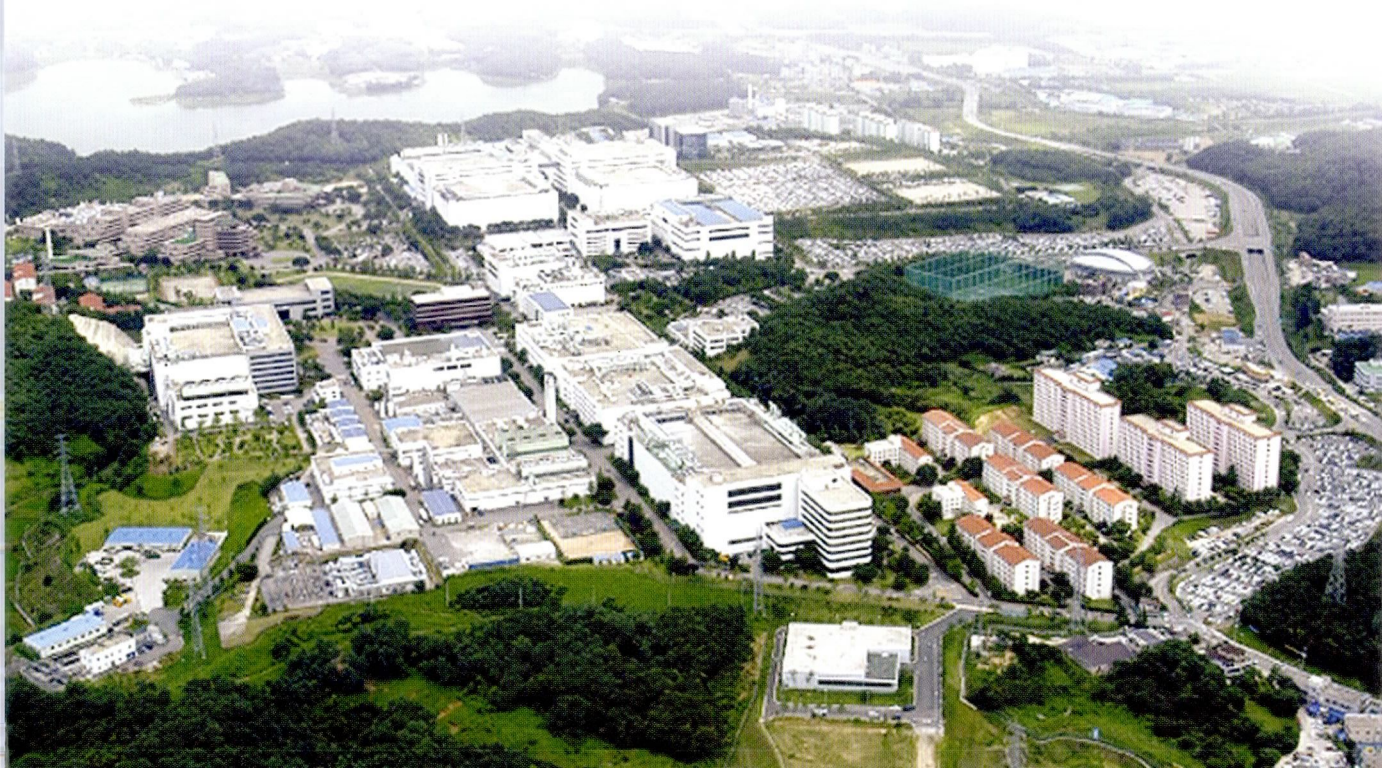
용인 돼지인공수정센터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주)녹십자

삼성반도체 기흥단지



# 정치와 경제



순지오이

남사면 화훼단지

백암순대





에버랜드

양지파인리조트

## 제1편 정치

<b>제1장 지방자치의 의미</b> .....	27
제1절 지방의 논리 .....	27
제2절 헌법상의 지방자치 .....	31
제3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	34
제4절 지방자치의 개념 .....	40
제5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 .....	46
<b>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의회</b> .....	49
제1절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	49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	55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	61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 .....	71
<b>제3장 용인시 의회</b> .....	75
제1절 용인시 의회의 연혁 .....	75
제2절 용인시 의회의 조직 .....	76
제3절 용인시(군) 의회의 역대 의원 .....	77
제4절 용인시(군) 의회의 활동 .....	79
<b>제4장 정당과 선거</b> .....	121
제1절 정당 .....	121
제2절 역대 선거, 투표 개관 .....	141

## 제2편 행정



<b>제1장 행정구역</b> .....	209
제1절 용인시 행정구역 변천과정 .....	211
제2절 용인시 행정구역 현황 .....	216
<b>제2장 행정조직</b> .....	217
제1절 용인시 행정조직의 개편과정 .....	217
제2절 용인시 행정인력 현황 .....	232
제3절 용인시 행정조직의 특성 .....	236



<b>제3장 재정구조</b> .....	239
제1절 용인시 재정행정 구조 .....	240
제2절 용인시 재정현황 .....	241
<b>제4장 용인시 2001년 시정개요 및 시정 장기발전계획</b> .....	251
제1절 2001년 시정 개요 .....	251
제2절 용인시 장기발전계획 .....	260
<b>제5장 주요행정 현황</b> .....	283
제1절 일반행정 .....	283
제2절 재무행정 .....	289
제3절 도시, 건설, 건축행정 .....	291
제4절 정보통신행정 .....	297
제5절 보건, 위생, 환경행정 .....	302
제6절 사회복지행정 .....	306
제7절 문화공보행정 .....	311
제8절 지역경제 행정 .....	315
제9절 농축산 행정 .....	319
제10절 포상 .....	321
제11절 읍·면·동 행정 .....	330
<b>제6장 행정기구의 운영과 기능(기구와 사무분장)</b> .....	355
제1절 분청 .....	355
제2절 직속기관 .....	383
<b>제7장 사법, 치안, 소방</b> .....	391
제1절 사법 .....	391
제2절 치안 .....	399
제3절 소방 .....	406
제4절 용인 우체국(정부기관) .....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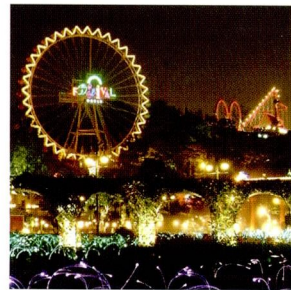
## 제3편 경제

제1장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	415
제1절 지역내총생산 .....	415
제2절 물가 .....	428
제3절 고용 .....	433
제2장 용인시 산업경제의 특성 .....	437
제1절 산업구조의 특성과 추이 .....	437
제2절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과 추이 .....	445
제3장 용인시 첨단산업 현황과 분석 .....	449
제1절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449
제2절 용인시의 첨단산업체 .....	455
제4장 용인시 첨단산업 현황과 분석 .....	467
제1절 농업의 역사 .....	467
제2절 용인시 농업환경 .....	471
제3절 용인시 농산물 생산현황 .....	479
제4절 기타 .....	491
제5장 축산업 .....	493
제1절 용인시 가축사육 추이 .....	493
제2절 가축위생 및 방역 .....	501
제3절 용인시 축산업 지원성과 .....	504
제6장 임업 .....	507
제1절 일반 현황 .....	507
제2절 목재 공업 .....	513
제3절 임업구조개선사업과 산림보호 .....	517
제7장 광공업 .....	523
제1절 광업 .....	523
제2절 제조업 .....	527
제3절 용인시 주요 제조업체 .....	539
제8장 건설업 .....	561





제1절	일반 현황	561
제2절	용인시 택지개발사업	567
<b>제9장 상업</b>		575
제1절	용인의 시장분포	576
제2절	도소매업 현황	580
제3절	향후 전망	582
<b>제10장 금융</b>		583
제1절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583
제2절	용인지역의 금융기관	587
제3절	용인시 금융산업 추이	596
<b>제11장 교통·물류</b>		599
제1절	교통시설 현황	600
제2절	교통수단 현황	607
제3절	용인시 물류산업 현황	613
<b>제12장 통신</b>		619
제1절	정보통신의 의미	619
제2절	용인시 통신업의 산업구조적 특성	623
제3절	용인시 정보통신업의 현황	626
제4절	정보통신 발전계획과 과제	636
<b>제13장 관광·레저</b>		647
제1절	관광현황	648
제2절	관광자원	653
제3절	용인지역관광 발전계획	668
<b>제14장 산업경제 발전전략</b>		675
제1절	산업구조	676
제2절	유통·물류	681
제3절	관광·문화	683
제4절	공간구조	686



## 일러두기

### 1. 편찬 기본방향

이 책은 용인의 역사와 문화유산, 사람과 마을,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포함한 현대사회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료집의 성격으로 1990년~2000년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나타난 용인과 관련한 이모저모를 정리·수록하였다.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 '역사와 문화유산 I', 제2권 '역사와 문화유산 II', 제3권 '사람과 마을 I', 제4권 '사람과 마을 II', 제5권 '현대사회 I', 제6권 '현대사회 II', 제7권 '용인 현대사 연표 I', 제8권 '용인 현대사 연표 II'로 이루어져 있다.

### 2. 서술대상지역과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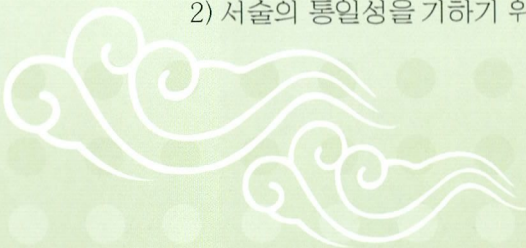
서술대상지역은 현 행정구역상 용인시를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용인이 탄생한 1914년 이전 시기의 경우 당시 용인에 편제되어 있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용인지역에 편제되었다가 분리된 지역의 내용도 일부 실었다. 서술대상시기는 선사시대부터 2000년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단 행정구역의 연혁과 관련해서는 2003년 12월까지를 서술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집필자에 따라 집필시기의 차이로 인해 2001년 12월말까지를 서술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 3. 본문서술

- 1) 본문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유명사나 전문용어 등 부득이하게 한자를 써야할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併記)하였는데, 각주나 참고문헌은 예외로 하였다.
- 2) 연대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역사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왕력을 쓰고 괄호 안에 서기를 병기(併記)하였다.
- 3) 이 책은 고등학교 졸업자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4) 설화·민요 등 구비전승과 각종 증언 등의 채록은 화자(話者)가 발음한 내용을 가능한 그대로 수록하였다.
- 5) 집필자의 성명은 집필내용의 말미 하단에 기재하였다.

### 4. 기타

- 1) 이 책에 수록된 집필자의 의견은 '용인시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 2) 서술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원고 가운데 일부를 수정한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제1편  
**정치**

여

백



## 제1장 지방자치의 의미

### 제1절 지방의 논리

‘모든 것은 지방으로부터 시작한다’, ‘지방이 있으니까 중앙이 있다’,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된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 한다’라는 등의 표현은 이제까지 국가경영이 중앙 정부 내지 국가 중심에서 이루어지던 것을 이제는 지방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방의 논리’의 표현이다.

‘지방’이란 ‘어느 한 방면의 땅’ 또는 ‘서울 밖의 시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이는 사방의 중심이 되는 곳을 ‘중앙(中央)’이라고 한 개념과 대칭되고, 한 나라의 정치적 중심지인 ‘수도’를 제외한 모든 곳을 일컫기도 하는 지역적 위치 개념이다.

중앙의 개념은 중앙이 지방에 우선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반면, 지방이라는 용어는 중앙과 대비하여 비하·격하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권력·물자·인재 등 모든 자원이 중앙, 중앙

정부, 국가에 집중되어 왔었고, 지방은 중앙의 하부구조로서 중앙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경제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된 사회에서는 과거처럼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중앙집권의 하향식 국가관리, 그리고 지금까지 공급자인 중앙정부의 논리에 의하여 추진된 지역개발정책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관주도의 국가 경영은 그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보다 주민이, 중앙보다 지방이 우선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그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하는 논리가 '지방의 논리'이다.

지방의 논리가 중앙의 논리를 제압하고 지방의 효율이 중앙의 비효율을 보완하고, 지방의 다양성이 중앙의 획일성을 수정하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제 '중앙의 논리를 전환하고 유능한 인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복귀하여 재배치되고 자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지방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이것이 모여 국가적 시책과 방향이 설정되는 지방으로부터의 발상 내지 지방에서의 반란이 일어나야 지방화가 되고 지방자치를 성공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으로부터 반란을 일으켜 지방의 시대를 성공시킨 '비(鄙)의 논리'의 주인공으로는 일본 이즈모시(出雲市)의 이와꾸니 데쓰도(岩國哲人) 시장과 구마모토현(熊本縣)의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지사, 그리고 일촌일품운동(一村一品運動)을 주창한 오이타현(大分縣)의 히라마쓰(平松守彦) 지사가 있다.

'지방의 시대'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 시대'는 지방분권, 지방화,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및 시·군·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통치체제를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여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이 그들의 역량과 책임 하에 처리하고 국가나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역이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또한 각자 다양한 자치를 하는 다양성과 경쟁이 있는 사회를 지방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의 시대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이다. 주민이 참여하

1) 이와꾸니 데쓰도(岩國哲人),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지음/김재환 옮김, 1991, 《지방의 논리》, 지방행정연수원.

고 스스로 노력하며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체제이다. 보통시민이 주인이 되어 자주·자립·자조의 정신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공동체를 책임 운영하는 것이다.

냉전체제의 붕괴로 정치의 주된 관심은 이데올로기나 제도보다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로 옮겨가,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존중하고 다양한 욕구와 이해를 충족시키려면 중앙집권으로는 해결이 안되고 지방지치가 되어야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

자치는 내 주변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개방화시대에는 정부나 중앙만이 뛰어서는 안되고 지방과 주민이 함께 뛰어야 한다. 정보화가 진행되면 정부의 일방통행식은 더 이상 안 통하고 쌍방교류가 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구축해 가는 가운데 중앙이 아닌 지방이 중심이 되어 경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이 변화의 시원(始源)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주민부터 성숙한 자치의식이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방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중앙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는 가운데 그 안의 구성원인 국민은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삶 같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된 지금은 과거처럼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국가 운용방식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모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 그리고 창의가 없으면 지속적인 국가의 성장은 어렵다. 지역 간의 선의의 경쟁, 즉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중앙에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자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개발 독재기의 기존 관료제를 대체하는 21세기형 새로운 관료제의 틀, 국가 모형이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이 각각 자아를 실현하고 발전시키는데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문화와 여가생활을 최대한 향유하는 사회, 양질의 교육을 받는 사회, 환경 공해로부터 해방된 사회라야 선진 복지사회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지역적으로 균형 발전시키려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자율과 경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패러다임이 지방화이다. 지방자치는 행정의 수직관계를 재편하고 정치와 경제의 분권화에서부터 대기업, 중소기업의 재조정까지 정치·사회제도의 다양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개인이나 조직, 국가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도 지방화와 결부되지 않으면 허구에 불과하다.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지역적으로만 바라보는 지방의 관습과 규칙만으로는 안되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수용하고 적응하는 '범세계적 지방화(Glocalization)'가 필요하다.<sup>2)</sup>

2) '범세계적으로 생각하되 지방적으로 행동하라'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국제지방자치단체연합(IULA) 총회에서 채택된 슬로건이다.



## 제2절 헌법상의 지방자치

우리 헌법은 제8장 제117조 및 제118조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통치구조가 요구하는 기능적 권력 통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통치구조상 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제도로서,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상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역주민에 의한 대표의 선출은 지방자치단체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원리에 입각한 전체의사의 우월성이 전체의사와 부분의사의 균형 아래 구축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지역주민의 부분의사를 국민의 전체의사 속에 적절하게 수렴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불가결하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의 본래 목적은 주민자치를 구성 원리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주민생활에 밀접한 생활권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는 국가보다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책임이 존재한다고 해석된다.

지방자치권은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이다. 현대의 지방자치권은 주민의 기본권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권능을 헌법상 지방자치의 본질로서 보장한 것이다.

지방자치권은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실현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큰 몫을 한다. 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적인 지방분권적 권력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고무하고 중앙집권주의를 경계하기 위한 지방분권주의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정당(政黨)국가적 경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사무를 독자적으로 교육하여 경제·사회·문화 등 정부의 정책을 분권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국가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상하관계나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헌법상 병립적 관계로서 기능 분립의 입장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방의 실정을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주민의 민주주의식을 제고하고 그 자유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방식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분권적 방식을 적극적으로 병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보완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권한과 의무를 가져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기능 배분의 원리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헌법상의 한계로써 기능한다.

통치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함으로써 주민을 구속·강제할 수 있는 공권력인 지방자치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국민주권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은 권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원리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권력분립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 원리에 따라 국가 권력을 수평적으로 입법권·행정권·사법권 등으로 나누고 수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의 분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지방자치권을 보장받음으로써 독자성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권력은 국가 내의 지역적 영역에 적용되는 주권 원리의 존재형태로서 국가단위의 통치단체인 정부가 국민주권원리를 근거로 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면 지역단위의 통치단체인 각급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자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력을 행사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권한을 헌법 제8

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회·정부·법원과 동등한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권력은 단순한 제도보장이 아니라 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력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대등·병립적이므로 공동·협력 관계에 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력은 주민에게 권리의 제한과 의무의 부과를 강제할 수 있는 공권력인 이상 국민주권이 정당성을 인정한 국가 권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헌법제정권력을 가진 주권자가 국가통치권력의 견제와 균형 및 효율성의 증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를 실정화한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 권력을 단순한 제도보장이 아니라 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권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는 법령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권력은 법령의 수권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력이므로 헌법보장설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1) 김성호, 1994,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권력>,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5~164쪽.

### 제3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한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 국가권력을 어떻게 배분하여 행사하고 국가의 사무를 누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의 불법과 남용을 줄이기 위해 수평적으로는 삼권의 분립을, 수직적으로는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을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자 제일의 과제로서 지방분권의 제도적 장치인 지방자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현대적 국가는 대부분 그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으며 그 기능과 업무량이 복잡 다양하여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권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국가권력 내지 행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조직형태인 중앙집권제는 독재 내지 전제군주국이나 개발도상국가 또는 작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여기서 중앙은 정치권력, 즉 통치권이 막강하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자주성과 독립성이 약하다. 반면 국가권력 내지 행정권한을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분산시키는 조직형태인 지방분권제는 지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강하다.

현대국가에서 절대적인 중앙집권제를 채택하는 국가나 절대적으로 지방분권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 모든 정치권력이나 행정권한은 중앙정부가 완전히 독점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지방에 맡길 수만도 없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역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상대적 보완관계에 있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국가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으로의 경제력 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한다. 지방에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서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특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정이다. 지방분권화란 서울 일극 집중의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분권적 분산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권체제로부터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체제로, 집행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중체제로부터 집행권이 지방정부에 있는 분산체제로 체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즉, 지방분권사상은 중앙정부가 자기 권능의 일부를 지방단체에 넘겨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자기 영토 내의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하여 독자적인 행정처리 능력을 지니는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지방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단체자치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국가가 스스로 주권의 일부 중에서 지방주민의 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서 주민자치를 하도록 하는 정치적, 행정적 분권으로서 지방자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헌법 제9장과 지방자치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적인 단체자치사상은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이 전체군주의 수중에 있었던 프랑스, 독일과 같은 대륙계 국가에서 발전하였는데, 지방단체의 자치권을 국가 권력의 제4권으로서 고유한 것이라는 자연법을 기초로 한 지방권 사상을 배경으로 많은 학자들이 지방자치의 실시를 주장하게 되자 전체군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에 대해 일찍 경험한 바 있다. 양반에 한정되긴 했지만 향회(鄕會)라는 것이 있어 공론(公論)을 모으는 구실을 했다. 마을 제사에서 음복(飮福)을 하거나 지신(地神)밧기 등을 할 때 마을의 어른을 선출했던 것 또한 우리의 오랜 민주선거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다. 1900년대 자강운동(自強運動)을 폈던 지도자들은 이 나라에서 자치제의 발달이 서구식 의회제도의 확립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다. 신채호(申采浩)선생은 일찌기 자치의 역사를 “동양사 중에서도 특색된 자치”라고 단언한 바 있다. 선생은 훨씬 앞서 고대문화에서 지방자치가 더 발달했고 오히려 조선시대는 그 여진만 남은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안확(安廓)선생은 그 반대로 진화론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조선시대(朝鮮朝)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조선의 지방사회가

자치적 운영방식으로 발달시킨 촌회(村會), 향회(鄉會), 그리고 유회(儒會) 등을 높이 평가하고, “동양 여러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오직 우리 조선정치의 발달이 체현된 것이기 때문에 근세정치의 원기는 이 향회(鄉會)에 있는 것”이라고 설파했다.<sup>1)</sup>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없었다고 보아도 된다. 즉 지방행정의 중앙집권적 관료화로 주민의 참여와 통제기능은 차단되고, 행정의 현지성을 무시한 획일적 지시와 통제로 인한 능률의 저하는 물론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지방분권을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자기권능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겨 주어서 지방단체의 독자적인 행정처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권능을 떼어 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떼어 주는가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상대적 개념으로 중앙이 지방에 권능을 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즉 모든 국가 권능은 중앙에 있고 그 권능의 일부를 지방에 주느냐, 준다면 어느 정도로 주느냐 하는 것에 관한 결정은 오직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창설, 감독, 폐지는 오직 중앙의 권능에 속하고 지방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는 중앙이 부여한 범위에 그치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이 자기권능의 일부를 지방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지방이 독자적으로 자기권한 하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떼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은 중앙이 가지고 집행책임만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행정적 분권이 아니고 독립적 분권이다.

그렇다면 왜 지방분권이 효율적인가?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에나 바람직한 분권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영토나 인구, 그리고 경제규모 면에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스위스와 같은 소국에서 분권을 통해 국가와 지역을 발전시켜가고 있지 않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독재 시절에 발휘된 중앙집중의 효율이 사라지고 그 비효율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경제규모가 작고 사회가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에는 중앙집중이 효율적이었지만, 경제규모

1) 한말과 일제시대에 걸쳐 일생을 보낸 안화 선생은 당파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테면, “당파로 인하여 청년적 활기가 정치무대를 장식하고...”, “...가부불 상토(相討)하는 중에서 중정(中正)의 도(道)를 얻어 결국 (정치가) 초월적 진보를 행한다”고 하였다. 파당으로 인해 오늘날 이 나라가 어려운 국면에 당면하고 있는데, 이 어지러운 정치사정에도 빛대어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정도를 넘어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로 인해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해석조차 가능해 진다.

가 엄청나게 커지고 고도로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는 오늘날, 각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방분권이 효율적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 된다. 원래 복잡하고 규모가 큰 시스템에서는 분권적 의사결정이 보다 효율적이게 된다.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에 시스템이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분권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요컨대 국민경제시스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21세기 세계사의 흐름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준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화와 정보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싸여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지구촌 전역에 자본과 정보가 광속도로 흐르고 있는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국가발전의 새로운 주체로서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앙정부인 국민국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본과 정보가 지역과 지역 사이에 직접 이동하는 것이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글로벌화와 함께 진전되고 있는 지방화에 따라 자본과 정보의 흐름에 대한 국민국가의 영향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 아울러 WTO체제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민국가의 약화는 지역사회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줄 것이다.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호막과 규제장치가 동시에 걷히고 있는 상황은 지역의 성장과 쇠퇴에 양면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보호막과 규제가 제거되면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과 혁신능력이 풍부한 지역은 성장하는 반면 그것이 빈약한 지역은 급속히 쇠퇴하여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서울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서 서울에 집중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지역의 자원이 풍부해지고 혁신능력이 향상될 때, 글로벌화와 지방화는 지역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여기서 경제력의 지방분산과 지역혁신 없는 지방분권은 지역간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지방분권이 공평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 점에서 지방분권은 반드시 서울에서 지방으로의 경제력 분산 및 지역혁신과 결합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으로의 경제력이 분산되려면 지방에도 경제활동의 핵심적 구상기능과 사회운영의 중추 관리기능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인재를 양성되고 결집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분권은 교육, 의료, 육아, 양로 등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현물급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의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주지하는 바대로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가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실업급부금과 생활보조금 지급과 같은 화폐급부를 행하는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개혁과제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선진국이 경험한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여 수준 높은 사회복지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여 현물급부에 의한 사회안전망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방분권은 '복지국가'에서 '복지공동체'로 나아가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지방분권은 참여민주주의와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고 복지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복지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지방분권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패권주의와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력과 경제력, 그리고 문화자원이 모두 중앙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타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지역패권주의가 나타났고 그 결과 지역갈등이 심화되어온 것이 아니었던가.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중앙권력의 쟁취를 위해 각 지역이 사활을 걸고 패권을 다툴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통일 이후 새로운 한국의 발전은 지방분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남북정상이 합의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7천만 민족구성원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계층간 분열과 함께 지역간 분열을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데, 지역간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족통일이 정치통합과 경제통합, 그리고 사회통합이라고 한다면 지방분권은 통일한국의 발전모델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sup>2)</sup>

2) 김형기, 2001,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월례토론회 발표 자료집》(2001.1.12).

## 제4절 지방자치의 개념

### 1. 지방자치의 의미

지방자치란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하는 법인격을 지닌 단체가 자치권을 행사하여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일, 즉 사무를 주민들의 책임 아래 주민들이 선임한 기관을 통하여 실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개념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자기권능의 일부를 지방단체에 분양해주는 지방분권사상과 지방단체 내에서 주민들이 자기들의 일을 자기들의 책임 하에 자기들의 손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사상이 뒷받침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를 단체자치(團體自治), 후자의 경우를 주민자치(住民自治)라 하며, 이러한 두 가지 사상이 결합하여 지방자치의 성립한다.

지방자치의 개념을 그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자치권이 있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단체를 인정하고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조직형태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행정기관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지방 '단체(the collective)'라 하고, 영국·미국은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지방 '정부(the government)'라고 한다. 명칭이 어떻든 국가가 독립된 자치체(自治體)를 인정하고 독립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전제국가에서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군주의 권력적 지위에 있는 하방으로서의 지분국가와 구분된다.

둘째, 이러한 단체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한다. 즉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라는 특정한 한정구역과 그 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주민 즉 시·도·군·구민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따라서 공공법인 또는 공공조합 등과 구분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지역주민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권 즉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을 갖는다. 자치단체는 그들 스스로 필요한 기관, 기구를 구성하는 입법활동을 하며 맡겨진 사무를 집행하는 한편,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해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경비를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에 의한 행정을 수행한다는 뜻에서 중앙 정부에서 하급기관, 지역 일선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임하는 행정적 분권과는 다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지역적, 지방적 사무 즉 고유사무를 처리하고 예외적으로 행정적 분권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무를 일부 위임받아 처리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는 그 지역주민이 직접 그 지역 대표를 선출하고 지방정치, 지방행정에 참여한다. 주민은 선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고 직접 또는 이익단체, 시민단체를 통하여 지방행정에 관여한다. 즉 간접참정은 물론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 직접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지방자치는 정치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각각 갖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모태로 하여 발달하였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중앙의 간섭과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역주민이 스스로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제도로서 주민은 본래적으로 자치권이 있고, 이를 토대로 자치행정을 수행하며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천하는 정치적 개념이다.

그리고 단체자치는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지위와 자치권을 부여받아 가급적 국가의 감독과 관여를 받음이 없이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법률적 의미의 개념이다.

주민자치에 있어 자치권은 지역주민의 천부적, 고유적 권한이므로 국가의 감독·관여가 거의 없고,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의 국가

또는 지방사무의 구분이 없지만, 단체자치에서는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부여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도 국가 및 지방사무로 나뉘고, 국가사무의 비중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지방자치 형태이다.

### 3. 지방행정

지방자치는 정치행정제도에 기초한 개념이며 지방행정은 행정관리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에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고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그들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과 활동을 말하며, 지방행정은 일정지역에 한정된 사무를 처리하는데 중점을 둔 행정관리적 개념이다. 지방행정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인데, 가장 넓은 의미는 그 행정주체가 누구냐를 불문하고 ‘일정지역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행정, 지방자치 단체에 국가가 위임한 위임행정 그리고 국가가 지방에 그 하급기관을 설치하여 실시하는 행정까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지방행정을 일반적, 보편적 개념으로 지방행정과 위임행정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으로 보는 견해와 ‘지역주민들이 그들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하는 행정’으로 보는 입장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을 지방행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러한 지방행정은 지역주민, 그들의 대표와 지방공무원이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하는 자치행정, 일정지역을 기초로 그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하는 지역행정, 그 지역의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포괄적인 다양한 행정을 모두 통괄하는 종합행정, 그리고 국가적 존립목적이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아닌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생활행정이 그 특색이다.

#### 4. 지방자치의 필요성

국가가 자기권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할애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책임하에 처리하게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가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권의 수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실현 또는 민주정치 발전의 지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다음과 같은 장점, 가치 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택하는 것이다.

첫째, 중앙의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독재를 막고 주민의 자유를 보장시켜 준다. 지방분권을 통해 권한의 집중을 막아 국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권한의 집중에서 발생하는 독재 내지 전제정치를 방어해주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각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지방의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그 지방의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존중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또는 지역특수사정에 부응하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다. 모든 지역은 각각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도 각각 다르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 가까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는 지방의 현지 실정에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책임행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정이 이루어져 지방행정의 모든 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두어지고 그 수행과정은 주민에 의하여 통제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뽑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민선단체장과 그 소속공무원이 집행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만족시켜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줄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학교”라고 하거나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거나 이에 피선됨으로써 민주정치 훈련의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는 “지방자치의 주목적은 건전한 정치적 상식을 길러 주는데 있다”고 하는 말들은 지방자치가 주민들로 하여금 민주정치의 교육훈련을 쌓고 실현하는 장(場)을 의미한다 하겠다.

지역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공공심, 협동심, 자치능력 등을 길러주고, 시민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에 대하여 정치교육을 시킨다. 예컨대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치적 수업을 쌓은 후 대통령, 국회의원 등 중앙의 정치무대로 진출하는 기회가 많고 성공하는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는 시민들에게 지방정부의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참여를 확대시키고 정치적 권리를 신장시켜 준다. 사실상 규모가 큰 중앙정부에 주민들이 참여하기는 어렵고 지방자치에서 보다 많이 정치, 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다.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자기 고장의 정책과 사업결정에 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유대의식, 일체감, 응집력 등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여섯째, 지방자치는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킨다.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정당을 조직하여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여 주민의 신임을 얻으려 노력하는 등 지방정당 활동이 활성화되고 지방선거가 거듭될수록 지방정치가 선진화된다. 또한 지역적 기반을 구축한 지방정치인의 영향력이 커져 이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고, 정당들은 스스로 당내 민주화를 지방분권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선거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훨씬 많이 제공하게 되어 지방화를 맞아 주민들이 더욱 바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민주정치의 발전인 것이다.

일곱째,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정권교체에 의한 행정의 전국적 혼란을 방지하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방적 이해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고 국가적 관심사에만 전념케 할 수 있다. 현대적 민주국가에서 정권교체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인사나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와 정치, 경제, 사회,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이러한 혼란이나 충격이 지방까지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비판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 즉, 지방자치는 국가전체의 정치적 통일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곤란하고 행정의 전국적 통일수준을 유지하고 강력성과 능률성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를 실시한 결과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참여율이 매우 낮고, 사실상 오늘날 대부분의 행정서비스는 보다 광역적으로 제공될 때 그 능률성이 향상되며 때로는 지방자치가 지역간 편차,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지역간 불균형,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교통 및 통신의 발달, 주민생활 및 경제권의 확대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균등한 혜택의 요구 등으로 전통적인 지방자치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신중앙집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제5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1995년 7월 1일을 기하여 전면적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남북대립의 안보상황과 경제성장의 국가적 과제 등을 이유로 군사개발독재라고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을 뿐 지방자치는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수호와 민주화에 대한 욕구는 막을 수 없어 국가 전반에 걸친 민주화와 더불어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의 조화, 균형있는 지역발전 및 국가의 민주화에의 공헌이라는 지방자치 목적의 실현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일극(一極) 중심의 국가경영체제에서 정치, 경제, 사회, 행정의 다양성과 경쟁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다.

지방주민이 주인이 되어 그 지역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선출하여 주민참여의 길을 열고 지방특성에 맞는 행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많은 의식과 행태를 민주화하고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적 시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갈등현상이 증폭되며 자칫 지역편중 및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 저질 지방의회의원의 양산으로 지방의회의 존재 의미를 감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 선심성 행정이 나타나며, 소속직원들을 사당화(私黨化)하는 경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는 종래 임명제 단체장 시대와 크게 차별화되고 모든 행정을 주민위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인정되나, 표를 의식한 인기행정으로 무리한 사업선정과 추진,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부실재정운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파탄을 초래할 지경에 이른 지방자치단체



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과 각종 제도가 지방의 필요나 수요 등 지방의 입장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논리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의 입장에서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자립할 수 있는 지방 재원의 확보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획기적으로 지방 재정력을 향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중앙국가 사무가 70%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는 무의미하므로 중앙 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사무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많은 우려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대한 수준의 지방자치는 실현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많은 긍정적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지적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신중양집권의 주장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지방의 주민, 의회의원, 단체장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 논리가 착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자주, 자조, 자립의 정신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

백

##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 제1절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 1. 지방의회의 개념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그 개념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각국에 공통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규정하여 보면 “지방의회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서 구성된 합의제의 의사기관이다”고 하는 정도이다.

국회가 현대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필수적 통치기관의 하나이듯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 지방통치기관의 하나이다. 이런 개념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비교하면서 요소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영향력의 범위로 한다. 이 점에서 전국을 영향력의 범위로 하는 국회와 구별된다. 지방의회에서는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복지향상, 기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 주요의제가 되지만 국회에서는 전국적인 차원의 정책과 법률이 주요 관심사가 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도 지역주민에 한정되는 점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모든 국민에 있는 것과 다르다.

둘째,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이다. 합의제의 의사결정은 기관구성원의 능력과 가치가 같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게 되는데, 이 점에서는 국회의 운영방식과 다름이 없다.

셋째, 지방의회는 의사기관이다. 즉 지역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적어도 관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기관이라는 것이다. 국회는 전국에 걸쳐 이런 권능을 행사한다. 의사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구체적 영향력은 의결권과 집행권을 가지는 경우, 의결권 이외에 집행과정에 견제권을 가지는 경우, 단순히 자문적 권능만 가지는 경우 등 다양하다.

넷째, 지방의회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서 구성된다. 즉 선거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로 인정된 사람들로 구성되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이다. 이점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 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지방의회의 법적 또는 사회적 지위는 지방의회의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갖는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듯이 지방의회는 자치규범인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폐폐'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국

회가 입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입법 이외 다른 작용을 하고 있듯이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이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활동 이외에 다른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흔히 국회나 지방의회를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작용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다른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이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 2)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국회가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그리고 행정책임자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고의 청취를 통하여 국가의 행정을 감시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통하여 집행과정을 감시·감독한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동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이 바로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에 해당한다.

지방의회의 집행감시권은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이나 제정된 입법, 그리고 심의·의결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 3)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헌법 제118조 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지방의원을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나 지방의회는 이와 같이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여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보며, 오늘날의 대중민주주의사회에서는 국민 또는 주민의 정치와 행정과정에 대한 직접적 참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의기관의 대표적 역할이 불가피하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미는 주민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그대로 따르거나 특정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4)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이 규정하는 조례 또는 주요정책을 의결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다. 즉 정책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의 의사를 의결을 통하여 확정하는 기관이다. 여기서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나 자문과 달리 확정력을 갖는다.

지방의회가 최종적 의결기관이라고 하여 의결된 규범이나 예산안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대개는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의안이 확정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집행기관장의 재심의 요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 3. 한국 지방의회의 연혁

조선시대 이후 일제시대까지에도 우리나라에는 지방의회와 유사한 주민의 대표기관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지방의회는 한국정부가 수립되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설치·운영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를 자치초기, 휴지기, 부활기의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자치초기의 지방의회

우리나라에 근대적 지방의회제도가 채택된 것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에 의하여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제도가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1952년이 처음이다. 그 동안에 민족상잔의 한국전쟁이 발생하여 지방선거를 실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특별시와 도 및 시·읍·면에 각각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 법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1952년 1대로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세차례였으며, 3대는 1961년 5·16쿠데타의 발발로 인하여 1년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제1대: 1952~1956년 (4년)

제2대: 1956~1960년 (4년)

제3대: 1960~1961년 (1년)

## 2) 지방의회의 휴지기

1961년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해산된 지방의회는 1991년까지 3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및 선거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1961년의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8호’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여러 가지의 법률은 상급행정관청과 지방행정관청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였던 것이다.

법률에 의한 지방의회의 미구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자 1972년 12월 27일의 제7차 개정에서는 헌법 부칙 제10조에서 아예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뜻을 박고 말았다. 그러나 이 규정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자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정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동법 부칙 제10조)라고 구성시기에 대하여 탄력성을 부여하였다. 제5공화국에서는 한 때 이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구성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협상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어떤 결실도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에서 지방자치의 유보에 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였고,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전문개정이 이루어진 신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 선거를 법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복잡한 정치적 여건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 3) 지방의회의 부활기

지방의회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빛을 본 것은 결국 1991년이였다. 제6공화국 말기인 1991년 3월 26일에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뒤이어 같은 해 6월 20일 서울특별시, 직할시, 그리고 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하여 제4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이 땅에 30년만에 다시 지방의회가 부활된 셈이다.

오랜만에 지방자치의 실험을 거친 한국정부에서는 1995년 제5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원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장까지 한꺼번에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5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와의 간격을 고려하여 3년으로 조정하였다.



##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 1. 지방의회의 구성

#### 1) 지방의회의 규모

지방의회의 규모는 의원의 정수를 어느 정도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지방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데는 일반적 원칙이나 기준을 두기 어렵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물론이고, 인구의 수와 인구밀도, 구역의 크기, 그리고 사회경제적 구조, 정치문화 등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정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의 정수를 결정하고, 지방의회의 규모를 정하는데 국가 간에 다소의 차이는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유럽의 각국에서는 대개 다수의 정원에 따른 대규모 의회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소수의 정원을 두는 소규모 의회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향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 시·읍·면 의회의 의원정수는 9명 내지 69명이나 파리시는 무려 163명이며, 미국의 경우도 지방의회의원의 정수가 2명에서부터 41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대규모 의회제도와 소규모 의회제도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대규모 의회제도는 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기회가 증대하고, ② 지역과 이익집단의 이익을 고루 대변할 수 있으며, ③ 의사처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① 의원의 자질이 저하되기 쉽고, ② 의사처리가 지연되기 쉬우며, ③ 의회의 운영경비가 증가되는 단점이 있다. 소규모 의회제도에서는 대체로 대규모 의회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바뀌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증감이 반복되었지만, 대개 대규모 의회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예컨대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경우 제1대에서는 15~20명, 제2대에서는 15~61명, 제3대에서는 13~15명, 그리고 제4대에서는 7~50명을 선출한 바 있다. 지방의원의 정수는 지역인구가 변하거나 선거구의 변경을 가져오는 자치구역 및 행정구역의 폐지·분합 또는 신설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2)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지방의회에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원 전체로서 구성되는 전체회의 이외에 위원회, 의장단, 그리고 사무조직 등을 둔다.

### ① 위원회

지방의회에 설치된 위원회란 의안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소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회의체이다. 전체회의는 많은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많은 의안을 깊이있게 토론하고 신중하게 심의할 수가 없다. 특히 지방행정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증대하고 업무의 성격도 점차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항이 많아져가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일반적 경향이기 때문에 전체회의로서 이를 감당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위원회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보편적 경향이다.

지방의회의 유형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전자는 상설조직으로서 의회소관사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수개를 두는 것이며 분과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후자는 특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전형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권한은 기관구성형태에 따라 다르다. 기관대립형 자치구조 아래에서는 위원회가 본회의의 예비적 심의권만을 가지는 반면에 기관통합형의 자치구조 하에서는 독자적 결정권을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대개 지방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기관통합형 자치구조의 경우는 외부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두는 경우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두가지를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 지방의원의 수가 13인 이상이 되는 지방의회에서만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50조). 상임위원회의 종류는 자치단체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가장 일반적인 것을 보면 운영·내무·농림수산·산업·건설·보건환경·문화교육 등을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외없이 조직된다.

## ② 의장단

의장과 부의장을 중심으로 의회를 지휘·통솔하기 위하여 의회간부들로 구성된 것이 의장단이다. 의장의 선출방법과 지위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기관대립형 국가에서는 의회대표로 그치는데 비하여 기관통합형 국가에서는 의장이 자치단체의 대표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의회에서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그리고 시·군·구의회의 경우는 의장, 부의장 각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42조 12항).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동법 제42조 2항),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가운데 최연장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거하여 그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한다(동법 제42조 2항, 제46조, 제48조).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동법 제48조).

## ③ 사무조직

지방의회에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조직이 있다. 사무조직의 위치, 기능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규모에 따라 사무조직의 크기를 달리하고 있다.

시·도의회에는 사무처를, 시·군·구의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직원을 해당 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82조, 제83조).

## 2. 지방의회의원

### 1) 의원의 지위

#### ① 의원의 임기

지방의원의 임기는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대개 2년이며, 말레이시아는 3년, 영국, 일본, 미국 일부와 태국은 4년, 그리고 독일은 5년이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6년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4년 임기제로 되어 있다. 1956년 법개정에서 한 때 지방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였으나 1958년에 다시 4년제로 환원하였다. 그리고 1994년 법개정에서는 1995년 당선자에 한하여 지방선거시기의 조정 때문에 3년을 임기로 규정하였다.

임기를 길게 잡거나 짧게 잡을 경우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길게 잡을 경우는 선거경비가 절약되고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안정성, 전문성이 확보되나, 주민참여의 기회와 통제를 통한 민주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임기가 짧을 경우는 반대의 장단점이 나타날 것이다.

#### ② 의원의 권리

지방의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내외에서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제39조, 제55조, 제58조, 제65조, 제75조).

첫째,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에 출석하고 발언할 권리가 있다.

둘째,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의원은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넷째, 의안에 동의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의회의장, 부의장, 임시의장 등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여섯째, 모욕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있다.

일곱째, 청원을 소개할 권리가 있다.

여덟째, 의정활동기간에 있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아홉째,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

금을 지급받는다.

이상의 권리와 별도로 대만과 같이 지방의원에 대하여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체포·구금된 지방의원이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이 의회의장에게 지체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통보제를 두고 있다(동법 제34조의 2).

### ③ 의원의 의무

지방의원은 겸직금지와 더불어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첫째, 지방의원은 공무원직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동법 제33조). 이는 지방의원이 직무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의원의 겸직금지에 대한 태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의원의 신분이 명예직인 나라에서는 겸직금지의무가 엄격하지 않은데 비해, 유급직으로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금지의무가 엄격한 것이 보통이다. 금지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면 의원의 청렴성, 직무의 공정성과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유능하고 다양한 인사의 의회진출을 억제할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하였지만 겸직금지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① 국회의원, 또는 다른 지방의회의원,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④ 교육위원회 위원, 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⑥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⑦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 ⑧ 농협·축협·수협·농지개량조합·임업협동조합·업연초생산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연합회 회장 및 상근 임·직원, ⑨ 정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등은 모두 지방의원이 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둘째, 지방의원은 일정한 거래가 금지된다. 즉, 지방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34조 3항).

셋째, 지방의원은 회의에 출석하고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동법 제 78조).

넷째, 지방의원은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 1항).

다섯째, 지방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청렴하여야 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 2항).

## 2) 지방의원의 역할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지방의원은 의회의 역할에 부응하여 여러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몇 가지로 묶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입안자로서의 역할이다. 지방의원은 조례안을 입안하며 그외 지방자치단체의 장·단기 개발계획이나 주민복지사업, 기타 각종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정책심의자로서의 역할이다. 지방의원은 조례 또는 예산안을 심의하며, 그 외에도 연간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그 내용의 적법 타당성을 질의·질문과정을 통하여 심의하게 된다.

셋째, 행정감시자로서의 역할이다. 지방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그리고 집행과정에 대한 질문이나 질의를 통하여 행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감시하게 된다.

넷째, 민의수렴 및 해결자로서의 역할이다. 지방의원은 주민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들의 정책에 관한 여론을 수집하고,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행정홍보자로서의 역할이다. 지방의원은 주민들에게 지역정책의 방향이나 주요시책프로그램을 알려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정부의 시책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도 한다.

##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나라마다 같지 아니하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의결권, 행정통제권, 청원수리·처리권, 선거권, 내부자율권의 다섯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 1. 의결권

#### 1) 의결권의 범위

의결권이라고 함은 표결의 결과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개괄주의와 제한주의가 있다. 개괄주의는 자치단체의 주요사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는 것인데 비하여 제한주의는 법규에 규정된 특정사항에 한하여 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동조 2항에서 다시 조례로서 1항의 의결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열거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것이다.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자치입법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① 예산의 심의·확정은 물론이고, ② 결산의 승인, ③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④ 계속비의 설정, ⑤ 예비비 지출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셋째, 지역의 주요재정정책에 관한 것이다. ①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 ②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③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 ④ 법령과 조례에 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⑤ 지방채무 및 채권의 관리, ⑥ 일시 차입금, ⑦ 지방세의 감면 등은 지방의회 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넷째, 통제권의 발동에 관한 것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② 행정협의회의 구성,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임원의 선임, ④ 행정협의회 임원의 선임, ⑤ 의장·부의장의 선임, ⑥ 감사위원의 선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의결권의 한계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규범상 또는 사실상의 한계가 있다. 전자는 주로 조례나 규칙을 의결하는데 관련되며 후자는 전반적인 의결사항에 거의 모두 적용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규범상의 한계

첫째, 지방의회의 의결은 법체계상 상위규범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먼저 지방의회의 의결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하급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은 상급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정책 또는 예산 및 기타 소관사항에 관한 의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의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할 때와 벌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할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 ② 사실상의 한계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개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조례나 규칙의 형식과 내용의 주요 골자를 정하여 지침이나 준칙이라는 형태로 제시할 경우 이를 무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권위주의가 행정을 지배하여 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0년대 초기에는 조례와 규칙을 재정비하면서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되는 지침을 많이 내려주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상당한 제약을 받은 바 있다.

그 이외에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원들이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상당히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료주도적 행정국가에서는 의원들이 그런 지식과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의원들이 명예직으로 봉사해야 할 경우는 전문성의 부족과 시간의 제약이 의결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요인이 된다.

## 2. 행정통제권

지방행정에 대하여는 조직 내외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관대립형 자치형태에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방의회의 행정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자료요구, 그리고 자치단체의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의 통제방법이 가능하다.

###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① 사무감사 및 조사의 의의

집행기관의 사무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법령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행정사무감

사 또는 조사라고 한다. 사무감사와 조사는 행정의 적법타당성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전반적 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비하여, 조사는 특정 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는 점에서 통제대상, 절차 등에서 다를 뿐이다.

이와 같은 행정통제가 중시되는 이유는 행정권의 확대·강화에 따른 권력의 남용이나 비능률 등을 방지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타당성을 확보하자는데서 찾을 수 있다. 감사를 통한 행정통제는 지방의회가 아니더라도 국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행정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행정통제장치를 마련하는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행정통제권을 주는 경우라도 개별적 조사권만 부여하지 일반적인 감사권을 주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영국, 프랑스, 타일랜드, 대만 등이 이런 경향을 따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의회가 감사권을 갖기는 하지만 감사의 청구라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때 감사권을 부여하다가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조사권으로 대체하였으나, 1989년 법개정에서는 다시 감사권과 조사권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다.

## ② 범위와 한계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물론이고 위임사무도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임사무의 경우는 제약이 따른다. 즉,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항 중 국회와 상급자치단체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배제된다(지방자치법 제36조 3항). 여기서 말하는 위임사무에는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가 모두 포함되며, 조사에 대하여는 명문상의 규정이 없으나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위임사무에 관하여는 과거에 명백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전반적으로 배제된다는 해석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1994년

법개정에서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지방의회가 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라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나 수사 중인 사건 및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의 6장).

### ③ 주체와 객체

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한다. 본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실시되기도 하지만 감사 및 조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동법 제36조 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다만 교육과 체육에 관한 사무의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그 보고로 갈음하게 할 수도 있다(동법시행령 제17조의 31항 제3호).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때는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적 또는 회피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참여시키지 아니한다(동법시행령 제17조의 7항).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해당지방자치단체,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교육·체육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제3섹터,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수탁기관 및 단체 등이 그것이다.

### ④ 절차와 방법

사무감사는 매년 1회 정기회의 회기 내에 행하며, 시·도에서는 10일 시·군·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조사는 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동법 제36조 2항, 동법시행령 제16조 2항).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7조의 2항).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 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또는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동법시행령 제17조의 9 항). 그러나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7조의 8항).

#### ⑤ 결과의 처리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감사 또는 조사결과 필요한 때에는 해당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처리를 이첩하며, 이 때에 그 요구 또는 이첩을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지방의회의 감사지적이나 결과처리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감사 지적사항 중에는 수감기관 소관사항이 아닌 것도 있고, 지적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항도 있으며,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도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정요구에 대하여 원상회복만 할 뿐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징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2) 관련자료의 요구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35조의 2항). 그리고 이런 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5조의 3항).

이와 같은 자료제출의 요구는 그 주목적이 의안의 심의를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정책의 결정과 행정과정에 관련되는 자료를 확인·점검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이것이 행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3) 보고와 질문·응답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또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응답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7조 1항, 2항).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상황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관련서류를 검토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의문스러운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응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업무보고와 질문에 대한 응답은 지방의원의 행정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라는 단순차원을 넘어서 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의 권력남용이나 비능률적 업무집행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 3. 청원수리 및 처리권

지방의회는 청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헌법 제25조, 제65조,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요구사항 또는 불만을 진술하고, 그것의 구현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청원의 형식과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단,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고, 청원서에 청원자의 주소·직업·연령을

기재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65조).

청원의 대상은 피해구제, 비위, 공무원처벌, 법령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청원법 제4조). 그러나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 등은 청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청원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66조).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에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사항도 적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의 물결에 편승하여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들도 없지 않다.

청원을 접수한 지방의회는 이를 성실·공정하고 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청원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67조). 수리한 청원이 그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며, 이 경우 자치단체장은 그 청원의 처리상황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68조).

지방의회는 청원이라는 형식 이외에 진정이라고 하는 형식의 민원도 상당히 제기된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제도개선, 지역사회복지, 민생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청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처리절차도 청원에 준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선거권

지방의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관 또는 기관의 구성원을 선거할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회는 선거권의 범위는 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와 방법에 따라 다르다. 대개는 기관통합형국가, 특히 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을 취하는 국가에서 선거대상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진다.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 기관구성형태를 지니고 있어 선거권의 범

위가 그다지 넓지 못한데, 구체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선임되는 자리는 의장·부의장·임시의장(동법 제42조, 제46조), 분과위원회 위원(동법 제50조 3항), 감사위원(동법 제125조) 정도이다.

## 5. 내부자율권

지방의회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조직을 구성하고, 의사를 진행하며, 의원신분에 관하여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1) 내부조직권

지방의회는 의장·부의장·임시의장 등의 의장단을 스스로 구성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제46조, 제49조). 그리고 지방의회는 조례로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한다(동법 제50조 1항, 2항, 3항).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사무조직을 설치한다. 시·도에 있어서는 사무처,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고 그 직원을 조례로써 정한다(동법 제82조, 제83조).

### 2) 의사자율권

지방의회는 회의 및 의사진행을 자율적으로 행한다. 의사진행, 징계 등에 관한 회의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하고(동법 제63조), 회의의 개시와 폐회여부도 독자적으로 정한다. 회의일수에 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개회·휴회·폐회 등에 대하여는 의회가 임의적으로 결정한다(동법 제41조).

그리고 회의의 공개여부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방议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동법 제57조).

### 3) 의원신분사정권

지방의회는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며, 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이 그 허가를 대행한다(동법 제69조). 그리고 의원의 자격유무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한다(동법 제71조, 제72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하여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동법 제75조, 제78조).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이 있으며,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동법 제80조).

### 4) 의원경찰권

지방의회는 의장을 통하여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74조 1항). 그리고 이런 명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장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동법 동조 2항).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동법 동조 3항).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안된다(동법 제76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데,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으며, 방청인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동법 제77조 1항, 2항, 3항).



##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

### 1. 지방의회의 소집

지방의회의 소집과 운영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의회의장에 의하여 소집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는데 정기회는 시·도의 경우 매년 11월 20일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동법 제38조).

임시회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와 일반적인 임시회가 있는데, 전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하고, 후자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요구가 있을 후 15일 이내에 의회의장에 의하여 소집된다(동법 제39조 1항, 2항).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 전에, 시·군·자치구의 경우 집회일 5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동법 동조 3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동법 제40조).

### 2. 지방의회의 회기

지방의회의 회기란 개회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동법 제41조 1항). 지방의회의 회기는 길게 잡을 수도 있고, 짧게 잡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의회의 기능은 강화되나 의원운영과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쉽고, 후자의 경우 의회운영경비와 시간이 절약되지만 민의반영과 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되기 쉽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원이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함을 고

려하여 비교적 회기를 짧게 규정하고 있다. 즉 정기회의의 경우 시·도는 40일 이내, 시·군·자치구는 3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시회의의 경우는 15일 이내로 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시·도의 경우는 120일,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8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3. 지방의회의 회의

#### 1) 발의

의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원이 하며, 예산안에 대한 발의는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있다. 의원이 발의할 경우는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하게 된다(동법 제58조).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상의 용어인 발의와 별도로 현실적으로는 제안, 제출, 제의 등이 혼용되는 사례도 없지 아니하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발의와 별 다름이 없다.

#### 2)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의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게 되며, 회의 중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이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동법 제55조).

의사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56조).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나라에 따라서는 의장에게 캐스팅보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3) 의사진행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는 지방자치법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첫째, 회의 공개의 원칙이다. 지방의회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가 있고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동법 제57조).

둘째, 회기계속의 원칙이다.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59조).

셋째,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다. 지방의회에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동법 제60조).

넷째, 위원회 선결의 원칙이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 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동법 제61조 1항).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의안은 폐기된다(동법 동조 2항).

### 4) 회의록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의 진행과정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해서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4조).

여

백

## 제3장 용인시 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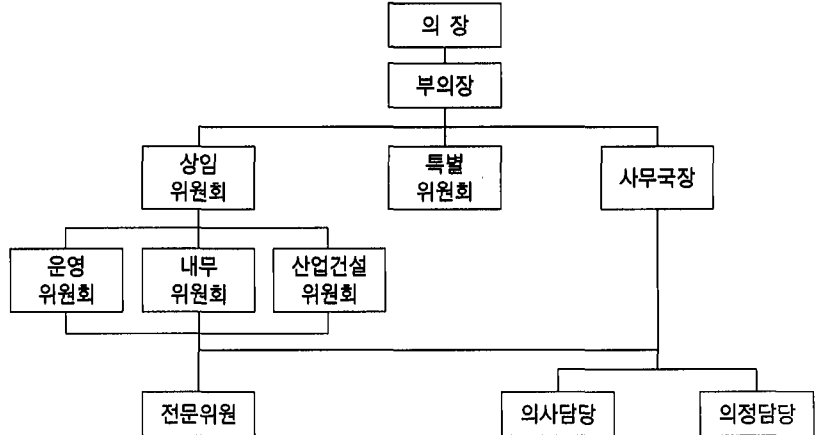
### 제1절 용인시 의회의 연혁

1991년 3월 부활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구성된 용인시(군) 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용인군 의회 제1대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함께 시작되었고, 1996년 용인시로 승격된 후 3차례의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거쳐 2003년 1월 현재 제3대 용인시 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연 도	내 용
1991. 3. 26	제1대 지방의회 의원선거(의원정수 14명)
1991. 4. 15	제1대 용인군의회 개원
1995. 6. 27	제2대 지방의회 의원선거(의원정수 16명)
1995. 7. 11	제2대 용인군의회 개원
1996. 3. 1	용인시 승격으로 제1대 용인시의회 개원
1998. 6. 4	제3대 지방의회 의원선거(의원정수 14명)
1998. 7. 9	제2대 용인시의회 개원
2002. 6. 13	제4대 지방의회 의원선거(의원정수 21명)
2002. 7. 8	제3대 용인시의회 개원

## 제2절 용인시 의회의 조직

### 1. 의회의 조직



### 2. 의원의 직무

직 위	직 무
의장	시의회를 대표, 의사의 정리, 회의장의 질서유지, 외회사무의 감독
부의장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사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이 제의, 결의안에 의해 구성됨, 임기는 심사한 사건이 본 의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동일, 직무는 특정한 사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됨.
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총괄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안전을 심사
내무위원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사항, 기획실, 행정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의 안전을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 도시국, 건설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의 안전을 심사
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의 지원(의안검토, 심사보고서 작성 등)
의정담당	의정업무총괄, 의원등록관리 사항, 총인사, 예산, 의회기본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보안/관인 관리, 의회 물품 및 청사관리 총괄
의사담당	의사업무총괄, 정기/임시회 소집운영, 진정/청원서 처리, 보도/홍보 자료 수집 및 조사, 인터넷 사이트 민원처리, 속기 및 각종 회의록 작성/관리

## 제3절 용인시(군) 의회의 역대 의원

### 1. 용인군의회 제1대의원

(1995. 4. 15 ~ 1995. 6. 30)

의원명	남용희	이정문	조원행	박용중	김대숙	김화수	임기현
	안영희	오용근	최원영	황신철	구본설	양승학	최준성

### 2. 용인시의회 1대의원

(1995. 7. 1 ~ 1998. 6. 30)

의원명	김준태	김장호	장석영	박경호	김용규	이종재
	양승학	이양구	장익순	이재승	송주식	조명길
	이종만	심노진	김대숙	이재완		

### 3. 용인시의회 2대의원

(1998. 7. 1 ~ 2002. 7. 7)

의원명	양승학	이우현	성윤석	심노진
직위/소속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
선거구	중앙동	원삼면	유림동	기흥읍
의원명	조창희	이재완	황신철	김지홍
직위/소속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선거구	이동면	구성면	양지면	남사면
의원명	박경호	이종재	이보영	이건영
직위/소속	산업건설위원장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선거구	백암면	포곡면	수지출장소	모현면
의원명	조성욱	양충석		
직위/소속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선거구	역삼동	동부동		

### 4. 용인시의회 3대의원 (2002. 7. 8 ~ 2003. 1. 현재)

의원명	이우현	이종재	양충석	안영희
직위/소속	의장	부의장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선거구	원삼면	포곡면	동부동	구성읍
의원명	심우인	주경희	심노진	김순경
직위/소속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선거구	양지면	기흥읍	기흥읍	구성읍
의원명	이건영	이찬재	조창희	이상철
직위/소속	산업건설·의회운영위원회	산업건설·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선거구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백암면
의원명	김희배	이동주	김재식	이우현
직위/소속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선거구	중앙동	유림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의원명	조선미	박순옥	이보영	박현수
직위/소속	산업건설·의회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내무·의회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선거구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동
의원명	조성옥			
직위/소속	내무·의회운영위원회			
선거구	역삼동			



## 제4절 용인시(군)의회의 활동

### 1. 용인군의회 안건처리현황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1회 91.4.15 ~4.16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부의장 선거</li> <li>• 군정에 관한 보고</li> </ul>	
제2회 91.5.15 ~5.18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li> <li>• 공유재산관리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지택지개발지구 매각(가결)</li> <li>-외사면 구청사부지 매각(부결)</li> <li>-대체재산부지 매각(가결)</li> <li>-철도기지창부지 매각(가결)</li> <li>-국공유교환부지 매각(부결)</li> <li>-약수터공원부지 매입(가결)</li> <li>-군청사 확장부지 매입(가결)</li> <li>-이동면청사부지 매입(가결)</li> <li>-용인소방서부지 매입(가결)</li> <li>-군립도서관부지 매입(가결)</li> <li>-용인권역공동쓰레기매립장부지 매입(가결)</li> <li>-국·군유지 교환 매입부지 매입(부결)</li> </ul> </li> </ul>	
제3회 91.7.10 ~7.11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사면구청사부지매각계획안 의결 (부결)</li> <li>• 수해예방 및 복구대책에 대한 보고 및 질문</li> <li>•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 답변</li> </ul>	
제4회 91.7.25 ~7.26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가결)</li> <li>•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결)</li> <li>•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 의결</li> <li>• 91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li> <li>•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li> </ul>	
제5회 91.8.30 ~9.2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li> <li>• 제2회 차기경정예산안 심의·의결</li> <li>• 군정에 관한 보고 및 질문</li> <li>• 유류비축기지설치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이장자녀장학자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보류)</li> <li>• 용인군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가결)</li> <li>• 용인군 에너지사용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가결)</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5회 91.8.30 ~9.2 (4일)		• 용인군 지방세입포상금지 급 조례 중 개정조례(가결)
제6회 91.10.18 ~10.22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비축기지설치에 따른 조사특별 위원회 보고 및 건의안 의결</li> <li>• 90회계년도 용인군결산심사위원 선임</li> <li>• 91년도 정수물품추가책정 승인</li> <li>•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li> </ul>	• 용인군 이장자녀장학자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가결)
제7회 91.11.15 ~11. 19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정수물품취득 승인(가결)</li> <li>•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13건 중 가결 9건, 부결 4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가결)</li> <li>• 용인군 노동복지회관 설치 조례(가결)</li> <li>• 용인군 노동복지회관사용 조례(가결)</li> <li>• 용인군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 조례(가결)</li> <li>• 용인군 주차장특별회계설 치 조례 중 개정조례(가결)</li> </ul>
제8회 91.12.2 ~12. 30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세입세출결산서 승인</li> <li>• 92세입세출예산 심의·의결</li> <li>• 92세입세출수정예산 심의·의결</li> <li>• 91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li> <li>•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 의결·재해 대책특별위원회 운영</li> <li>• 유류비축기지설치에 따른 조사특별위원 회 운영</li> <li>• 군정에 관한 보고</li> <li>•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li> <li>• 용인군 청소년수련시설건립계획안(가결)</li> <li>• 용인군 보훈회관건립계획안(가결)</li> <li>• 용인군 여성회관건립계획안(보류)</li> <li>• 용인군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건립계 획안(보류)</li> <li>• 용인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지방양여금특별회 계설치 조례(가결)</li> <li>• 용인군 풍수해 등의 피해 에 대한 지방세(농지세) 감면안(가결)</li> <li>• 용인군 주차장에 대한 군 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가결)</li> <li>• 용인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결)</li> <li>• 용인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 일과세에 관한 조례(가결)</li> <li>• 용인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전쟁기념사업회에</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8회 91.12.2 ~12.30 (29일)		<p>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법인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8회 91.12.2 ~12.30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가결)</li> </ul>
제10회 92.4.27 ~4.28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정수물품추가책정 승인요청안</li> <li>• 용인군 도시계획세부과지역 고시안(가결)</li> <li>• 용인군 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보류)</li> <li>• 용인군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부결)</li> <li>• 용인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수정가결)</li> <li>• 용인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가결)</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10회 92.4.27 ~4.28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제11회 92.5.25 ~5.27 (3일) 92.6.8. ~6.13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수해복구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li> <li>• 91수해복구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li> <li>• 92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li> <li>•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하수종말처리사업 소설치 조례안</li> <li>• 용인군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조례안</li> </ul>
제12회 92.6.23 ~6.24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과보고서의 결의건</li> <li>•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li> </ul>	
제13회 92.7.13 ~7.16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li> <li>• 수해피해자에 대한 재산세감면안(가결)</li> <li>•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li> <li>•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부결)</li> <li>•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이장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제14회 92.9.15 ~9.18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li> <li>• 91수해복구공사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요구처리결과 보고의 건</li> <li>• 군정에 관한 보고</li> <li>• 수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 건(가결)</li> <li>• 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건</li> <li>• 군정질문에 관한 질문·답변</li> </ul>	
제15회 92.10.28 ~11.4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li> <li>• 용인군 여성회관건립계획안(부결)</li> <li>• 용인군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계획안(부결)</li> <li>• 용인군 여성회관 및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가결)</li> <li>•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결)</li> <li>•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 건(가결)</li> <li>•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15회 92.10.28~11.4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정수물품질특승인의 건(가결)</li> </ul>	
제16회 92.11.25~11.24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보고</li> <li>• 93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li> <li>• 91결산승인의 건</li> <li>• 91예비비지출승인의 건</li> <li>• 감사계획서승인의 건</li> <li>• 군정에 관한 보고</li> <li>•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li> <li>• 용인군 문화발전기금적립계획안</li> <li>• 용인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li> <li>• 93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li> <li>• 용인군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li> <li>•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li> <li>• 92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li> <li>• 92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도서관설치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수도사업설치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건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결(가결)</li> <li>• 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수정가결)</li> <li>• 용인군제중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가결)</li> </ul>
제17회 93.2.18~2.19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결)</li> <li>• 93정수물품질특승인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17회 93.2.18 ~2.19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건축조례안(가결)</li> </ul>
제18회 93.4.12 ~4.13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부의장 선출</li> <li>•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li> <li>• 용인군 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하수종말처리사업 시설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부결)</li> </ul>
제19회 93.5.14 ~5.20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li> <li>•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li> <li>• 용인군 지방채발행안(가결)</li> <li>• 용인군 구성면청사신축계획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보건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제20회 93.7.10 ~7.13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하반기군정보고</li> <li>• 수해대책상황보고</li> <li>•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li> </ul>	
제21회 93.9.3 ~9.8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li> <li>•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결)</li> <li>•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가결)</li> <li>• 용인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가결)</li> <li>• 화사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가결)</li> <li>• 용인군 군민의 날 행사개선계획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화재예방조례폐지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 조례안(가결)</li> </ul>
제22회 93.10.27 ~11.4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li> <li>•레이크사이드승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지명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리장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군세조례 중 개정</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22회 93.10.27 ~11.4 (9일)		조례안(가결) • 용인군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 • 용인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 • 용인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 • 용인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 • 용인군 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 • 용인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 • 용인군 수도사업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 • 용인군 보훈회관설치조례안(수정가결) • 용인군 채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 • 용인군 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가결)
제23회 93.11.25 ~12.24 (30일)	• 군청 및 의사당신축공공시설설치계획안(가결) •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에 대한 정부대책촉구결의문 채택 • 정부의 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문 채택 • 92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청취 • 93행정사무조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청취 •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 92세입세출결산승인 • 92예비비지출승인 • 9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승인	• 용인군 지명위원회설치조례폐지 조례재의안(부결) • 용인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가결) • 용인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 • 용인군 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 • 용인군 도축장설치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수정가결) • 용인군 다목적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가결) • 용인군 도로점용료징수조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23회 93.11.25 ~12.24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승인</li> <li>• 93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li> <li>• 93행정사무감사: 12. 6~12. 18(3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중 개정 조례안(가결)</li> </ul>
제24회 94.2.15 ~2.19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결)</li> <li>• 용인군 분뇨처리시설설치계획안(가결)</li> <li>• 용인군 착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계획안(가결)</li> <li>• 군정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고문번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이장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짙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 조례 제정안(가결)</li> <li>• 용인군 위생처리장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가결)</li> <li>• 용인군 특정건축물정리에 따른 과태료산정기준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제25회 94.3.25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가결)</li> <li>•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가결)</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p>제25회 94.3.25 (1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시험수당지급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의회포상규칙안(가결)</li> <li>• 용인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 및 건물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한 재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가결)</li> <li>• 용인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p>제26회 94.4.30 ~5.13 (14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li> <li>•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명예참사조례폐지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지방세감면조례폐지 조례안(가결)</li> </ul>
<p>제27회 94.7.25 ~7.26 (2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행정구역조정건외에 따른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li> <li>•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가결)</li> <li>•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27회 94.7.25 ~7.26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하수도사용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중수도운영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4H후원회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가결)</li> </ul>
제28회 94.9.23 ~9.28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li> <li>•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li> <li>• 상임위원회구성 및 위원장선출의 건</li> <li>•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결)</li> <li>•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문화발전육성기금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시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29회 94.10.14 ~10.25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안(반대)</li> <li>• 대규모공사추진현황 및 각종인허가사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li> </ul>	
제30회 94.11.25 ~12.29 (3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결)</li> <li>• 93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청취</li> <li>• 94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청취</li> <li>•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li> <li>• 93세입세출결산승인</li> <li>• 93예비비지출승인</li> <li>• 9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li> <li>• 95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승인</li> <li>• 94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리명칭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이장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군세감면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일반폐기물관리예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문예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제31회 95.1.26 ~1.27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li> <li>• 용인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li> <li>• 용인군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li> </ul>
제32회 95.2.2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 및 의장직에 대한 사직서수리의 건</li> </ul>	
제33회 95.2.13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선출의 건</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34회 95.2.24 ~2.28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군정 주요업무보고</li> <li>•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35회 95.3.21 ~3.28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 조사활동계획서조사의 건</li> <li>•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li> <li>•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li> <li>•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li> <li>• 수원시화장장 이전설치에 따른 주민진정 건 및 용인을 유방리 성인빌라 인허가건, 수지면자동차학원 인허가건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고문번호사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li> <li>• 용인군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li> </ul>
제36회 95.4.13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부의장 선출</li> </ul>	
제37회 95.5.13 ~5.16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건설위원장선출의 건</li> <li>•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li> <li>•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민자유치사업심의 위원회운영조례안</li> <li>• 용인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군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li> <li>• 용인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38회 95.6.29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39회 95.7.11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부의장 선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제40회 95.7.2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위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li> <li>• 군정보고청취</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회계연도 결산 감사위원 선임</li> <li>• 도교육위원 후보자 추천</li> </ul>	
제41회 95.9.1 ~9.6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가결)</li> <li>• 95지방채발행승인안(가결)</li> <li>• 95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승인</li> <li>• 95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승인</li> <li>•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교육문화발전육성 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수정가결)</li> <li>• 용인군 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제42회 95.10.24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복합시승격에 따른 의견서채택의 건</li> </ul>	
제43회 95.11.6 ~11.13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공업특별회계결산승인(가결)</li> <li>• 94예비비지출승인</li> <li>• 용인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가결)</li> <li>•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결)</li> <li>• 용인도시계획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안(부결)</li> <li>• 95주요투자사업집행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95.11.10~11.12(3일간)</li> <li>•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가결)</li> <li>• 용인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공유재산조례 중 개정조례안(수정가결)</li> <li>• 용인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송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제44회 95.11.25 ~12.29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지방채발행동의안(가결)</li> <li>• 96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세입세출예산안(수정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도서관 및 독서진</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44회 95.11.25 ~12.29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수정가결)</li> <li>• 95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li> <li>• 95수도사업공기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가결)</li> <li>•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수정가결)</li> <li>• 96용인군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용계획안(가결)</li> <li>•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가결)</li> <li>• 도농복합형태의 용인시법정 및 행정동설치에 관한 의견서채택의건</li> <li>• 95행정사무감사실시: 95.11.27~12.2(6일간)</li> <li>•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실태조사 및 위문 계획서의결의 건: 95.12.23~12.26(4일간)</li> <li>•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li> <li>• 군정보고청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위원회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 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소금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공공시설물설치조례안(가결)</li> </ul>
제45회 96.2.22 ~2.28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가결)</li> <li>• 96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li> <li>•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li> <li>• 일본의 독도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 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군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가결)</li> <li>• 용인군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가결)</li> </ul>

## 2. 용인시의회 안건처리현황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1회 96.3.1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의회위원회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의회공인 조례제정안(가결)</li> <li>• 용인시 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기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시민의 날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고문번호사운영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공인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조례안(가결)</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1회 96.3.1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 회운영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가결)</li> <li>• 용인시 법정동·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가결)</li> <li>•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안(가결)</li> <li>• 용인시 통리반설치 조례안</li> <li>• 용인시 시세 조례안</li> <li>•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안</li> <li>• 용인시 국내여비 조례안</li> <li>• 용인시 의료보험기금특별 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li> <li>• 용인시 의료보호심의위원 회 조례안</li> <li>• 용인시 의료보험운영지원 을 위한 조례안</li> <li>•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li> <li>•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운 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안</li> <li>•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안</li> <li>• 용인시 공수의 조례안</li> <li>• 용인시 가로명에 관한 조 례안</li> <li>•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설 치 조례안</li> <li>•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li> <li>• 용인시 건축 조례안</li> <li>• 용인시 의회직제규칙제정안</li> <li>• 용인시 의회포상규칙제정안</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1회 96.3.1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제정안(수정가결)</li> </ul>
제2회 96.4.22 ~4.26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가결)</li> <li>•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수렴</li> <li>• 시정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제증명수수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수정가결)</li> <li>•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제3회 96.6.24 ~6.29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가결)</li> <li>• 수해대책 및 오·폐수시설가동실태조사 계획서승인의 건(가결)</li> <li>• 수지·기흥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가결)</li> <li>• 시정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21세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수정가결)</li> <li>• 용인시 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가결)</li> <li>• 용인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종합운동장설치운영 조례안(수정가결)</li> <li>•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소하천점용료징수 조례안(가결)</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취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li> </ul>
제4회 96.7.22 ~7.23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결산검사위원선임</li> <li>• 96수해대책 및 오페수시설 가동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li> <li>• 수지, 기흥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제5회 96.9.2 ~9.4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제6회 96.10.10 ~10.22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회 시민의 날 행사관련 재발방지 결의문 채택의 건</li> <li>• 노인치매병원건립에 따른 건의 서채택의 건</li> <li>• 96각종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선택의 건</li> <li>• 96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정예산안(수정가결)</li> <li>• 96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li> <li>• 양로시설운영에 따른 협약안 중 수정안(보류)</li> <li>• 용인시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안(보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보류)</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청소년수련마을운영 및 이용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도시가스요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보류)</li> <li>• 용인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보류)</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7회 96.11.6 ~11.12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가결)</li> <li>• 양로시설설치협약동의안(가결)</li> <li>•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가결)</li> <li>• 시정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제정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 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사무위임조례개정 조례안</li> <li>• 용인시 청소년수련마을운 영 및 이용조례안</li> <li>• 용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호적과태료부과징 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도시가스수요가기 금설치 및 운용조례안</li> <li>• 용인시 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li> <li>• 용인시 노인가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 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토지평가위원회설 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 조례안</li> </ul>
제8회 96.11.25 ~12.28 (34일) (정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가결)</li> <li>•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 (가결)</li> <li>• 95예비비지출승인의 건(가결)</li> <li>•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li> <li>• 97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 정안(수정가결)</li> <li>•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결)</li> <li>• 97기금운용계획승인안(가결)</li> <li>• 96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가결)</li> <li>• 96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 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국민건강증진법관 련과태료과징수에 관한 조 례제정안</li> <li>• 용인시 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시립도서관관리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공공시설 내의 매 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li> <li>• 용인시 수방단운영조례 중</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8회 96.11.25 ~12.28 (34일) (정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추가경정예산안(가결)</li> <li>•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선택의 건(가결)</li> <li>• 시정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li> <li>•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9회 97.1.6 ~1.10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단선거(의결정족수 미달로 부의되지 않았음)</li> </ul>	
제10회 97.1.30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li> </ul>	
제11회 97.3.24 ~3.27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결정안 의견청취</li> <li>• 신갈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 의견청취</li> <li>• 취수 및 도수설비공동개발부담협약안(가결)</li> <li>•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반대 결의문 채택</li> <li>• 시정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제정안</li> <li>•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부결)</li> <li>• 용인시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li> <li>• 용인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설치제한조례안(부결)</li> </ul>
제12회 97.1.30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13회 97.5.13~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산담배추방결의문 채택</li> <li>• 집단민원해소를 위한 현지조사위원회 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공보발행조례안</li> <li>•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중</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 5.15~5.20(6일)</li> <li>• 시정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14회 97.6.26 ~7.4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li> <li>• 97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가결)</li> <li>•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가결)</li> <li>• 용인시 신성지구, 죽전지구 등 대단위택지개발에 따른 반대청원채택</li> <li>• 시정질문·답변</li> </ul>	
제15회 97.7.25 ~7.26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시기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16회 97.9.6 ~9.12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채무보증의결안(가결)</li> <li>• 97수의계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97.9.9~9.11(3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li> <li>• 용인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16회 97.9.6 ~9.12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li> </ul>
제17회 97.10.23 ~10.28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결)</li> <li>• 97 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li> <li>• 시정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통리장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제중명동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법정통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18회 97.11.25 ~12.29 (3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가결)</li> <li>•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가결)</li> <li>• 96예비비지출승인안(가결)</li> <li>• 98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수정가결)</li> <li>•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18회 97.11.25 ~12.29 (35일)	<p>안(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가결)</li> <li>• 97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가결)</li> <li>• 98기금융운계확승인안</li> <li>•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li> <li>•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li> <li>• 97행정사무감사: 12.2~12.8(6일간)</li> <li>• 시정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부업대학생고용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li> <li>• 용인시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li> <li>• 용인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19회 98.3.18 ~3.20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가결)</li> <li>• 시정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법정동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재의 요구안</li> <li>• 용인시 자활·자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수정가결)</li> </ul>
제20회 98.4.14 ~4.16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가결)</li> <li>• 신갈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보훈회관설치운영</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20회 98.4.14 ~4.16 (3일)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설치운영 조례안 •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4H후원회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1회 98.5.11 (1일)	• 운영위원장 선출의 건 • 용인시 자활자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출의 건	
제22회 98.6.16 ~6.20 (5일간)	•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 규약안(가결) • 98 제1회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용인시 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2회 98.6.16 ~6.20 (5일간)	• 98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가결) • 시정질문·답변	• 용인시 제중명동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어비조례중개정조례안 •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3회 98.7.9 ~7.11 (3일)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의 건 • 각종위원회위원 추천의 건 • 시정보고의 건	
제24회 98.7.22 ~7.23 (2일)	•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가결)	• 용인시 공보발행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5회 98.8.24 ~8.31 (8일)	• 98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지역내수변	•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용인시 청소년수련마을운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25회 98.8.24 ~8.31 (8일)	<p>구역지정반대결의문 채택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질문·답변</li> </ul>	<p>영 및 이용조례개정안(수정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li> <li>• 용인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26회 98.9.19 ~10.1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산천수계하수통합처리부담협약서안(가결)</li> <li>• 97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가결)</li> <li>•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가결)</li> <li>•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가결)</li> <li>•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승인의 건(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재의의 건(부결)</li> <li>•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시립도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26회 98.9.19 ~10.1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환경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폐지 조례안</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li> </ul>
제27회 98.10.31 ~11.5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li> <li>•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li> <li>• 신갈도시계획시설(광장, 도로) 변경결정안</li> <li>•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p>제28회 98.11.25 ~12.29 (3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 견수령안</li> <li>• 98 제2기 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가결)</li> <li>• 99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수정가결)</li> <li>• 99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가결)</li> <li>• 98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가결)</li> <li>• 98 제2회 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가결)</li> <li>• 99기금운용동의안(수정가결)</li> <li>• 시정질문·답변</li> <li>• 98행정사무감사: 98.11.27~12.3(7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li> <li>•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li> <li>•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취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수정가결)</li> <li>• 용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교육문화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 조례안</li> <li>• 용인시 자활·자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남은 음식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li> <li>•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29회 99.1.15 ~1.19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 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설치 조례폐지조례안</li> <li>• 용인시 통리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통리장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li> <li>•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청소년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안</li> <li>• 용인시 청소년수련마을운영 및 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소비자보호조례안</li> </ul>
제30회 99.3.11 ~3.19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가결)</li> <li>• 시정질문·답변</li> <li>• 용인시 행정구역 내 수원도시계획편입지역이관촉구결의</li> <li>• 수도권순환철도노선연장 건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민자유치사업의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 조례안</li> <li>• 용인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공유재산관리조례</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30회 99.3.11 ~3.19 (9일)		<p>중 개정조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li> <li>• 용인시 마을기금 및 관리 조례폐지 조례안</li> <li>• 용인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조례안</li> <li>• 용인시 시세조례개정 조례안</li> <li>•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자활자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회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설치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폐지 조례안</li> <li>• 용인시 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폐지 조례안</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30회 99.3.11 ~3.19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li> <li>• 용인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폐지 조례안</li> <li>•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 조례안</li> <li>• 용인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운용기금관리조례안</li> <li>• 용인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 조례안</li> <li>• 용인시 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li> <li>• 용인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 조례안</li> <li>• 용인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30회 99.3.11 ~3.19 (9일)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1회 99.4.21 ~4.22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행정구역(기흥읍 영덕리)수원시편입반대결의안 채택</li> <li>• 용인시 행정구역 중 수원시편입지역(영통, 이의, 하동) 반환건의안 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li> <li>• 용인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공수의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32회 99.5.3 ~5.8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결)</li> <li>• 이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li> <li>• 99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li> <li>• 99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회계추가경정예산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li> <li>• 용인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 조례안</li> <li>• 용인시 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li> </ul>
제33회 99.7.2 ~7.5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제·C개설건의안 채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소비자보호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34회 99.10.4 ~10.15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li> <li>• 99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결)</li> <li>• 98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원안승인)</li> <li>•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원안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34회 99.10.4 ~10.15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승인)</li> <li>• 99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li> <li>• 99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가결)</li> <li>• 시정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기계류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35회 99.11.1 ~11.5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안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지방행정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36회 99.11.25 ~11.29 (35일) (정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용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가결)</li> <li>•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결)</li> <li>• 환경기초시설(소각장·자동집하시설)민간 위탁동의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저소득주민등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제36회 99.11.25 ~11.29 (35일) (정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당~신갈간 전철사업조기시행 및 용인경전철산업국고지원건의안 채택의 건(가결)</li> <li>• 99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li> <li>• 99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회계추가경정예산안(가결)</li> <li>•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가결)</li> <li>• 200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수정가결)</li> <li>• 2000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가결)</li> <li>• 시정질문·답변</li> <li>• 용인서북부지역 광역신도시개발건의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li> <li>• 용인시 시민의 날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li> <li>• 용인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조례폐지 조례안</li> <li>•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li> <li>•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36회 99.11.25 ~11.29 (35일) (정기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오수·분노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7회 2000.1.25 ~1.28 (4일)	• 200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용인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제37회 2000.1.25 ~1.28 (4일)	• 200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용인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 용인시 지방행정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통리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통리장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8회 2000.3.15 ~3.17 (3일)	•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가결) •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가결)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건의안 채택의 건(가결)	• 용인시 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의회에서 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38회 2000.3.15 ~3.17 (3일)		개정조례안 • 용인시 행정기구관련조례 의정비조례안 •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 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제39회 2000.3.24 (1일)	• 이정문의원 의장 및 의원직 사직의 건	
제40회 2000.4.7 (1일)	• 용인시 의회의장 보궐선거의 건	
제41회 2000.4.18 ~4.22 (5일)	• 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수정가결) • 2000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 가경예산안(수정가결) • 2000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가결)	•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용인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2회 2000.5.22 ~5.26 (5일)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간 및 기 간결정의 건 •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시정질문·답변 • 구지역사태관련건의안 채택의 건 •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 용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 한 조례안 •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제43회 2000.6.15~ 6.30(16일) 제1차 정례회	• 상임위원회위원 추가선임의 건 •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 승 인의 건 •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지정질문·답변 • 용인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에 따 른 의견청취의 건 • 포곡면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에	• 용인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 장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 치운영조례안 •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부결) • 용인시 환경기본조례안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43회 2000.6.15~ 6.30(16일) 제1차 정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른 의견청취의 건</li> <li>• 2000년 행정사무감사:6.22~ 6.28(7일)</li> </ul>	
제44회 2000.7.4 ~7.5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광역도시권 지정 추진반대건의안 채택의 건</li> <li>•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선출의 건(의결 정족수부족으로 부의되지 않았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안</li> <li>• 용인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 조례안</li> </ul>
제45회 2000.7.8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선출</li> </ul>	
제46회 2000.8.1 6~8.17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해상황보고의 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li>• 용인시 농지 내 행위제한 조례안(부결)</li> </ul>
제47회 2000.9.1 9~9.23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 변경의 건</li> <li>•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li> <li>• 수해항구복구대책(계획)보고의 건</li> <li>•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수정가결)</li> <li>• 2000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청소년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200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수정가결)</li> <li>• 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남은 음식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47회 2000.9.1 9~9.23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가결)</li> </ul>
제48회 2000.10. 31~11.1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통리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통리장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안(가결)</li> </ul>
제49회 2000.11.22 ~11.25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li> <li>•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중간활동결과 보고의 건</li> <li>•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제50회 2000.12.1 ~12.19 (19일) 제2차 정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li> <li>•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결)</li> <li>• 시정연설의 건</li> <li>•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수정가결)</li> <li>• 200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가결)</li> <li>•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li> <li>•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li> <li>• 시정 질문·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소비자보호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50회 2000.12.1 ~12.19 (19일) 제2차 정례회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 • 용인시 지방공무원수당지 급조례중개정조례안(가결) • 용인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 지 조례안(가결) • 용인시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조례 중 개정조 례안(가결) • 용인시 자활자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가결) • 용인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가결) • 용인시 토지평가위원회설 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 결) • 용인시 4-H후원회기금설 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 례안(가결) • 용인시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가결) • 용인시 지방공무원복무조 례 중 개정조례안(가결) • 용인시 시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가결) •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
제51회 2000.12.21 ~12.27 (7일)	•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가결) • 200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3 회 추가경정예산안(가결) • 200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결)	• 용인시 여성발전기금설치 운용조례안(수정가결) • 용인시 저소득주민등지원 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가결) • 용인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51회 2000.12.21 ~12.27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숙박시설건축에 대한 결의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 자금지원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가결)</li> </ul>
제52회 2001.2.22 ~2.24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갈도시계획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견제시 반대)</li> <li>• 신성취락지구개발계획시설(준용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견제시 찬성)</li> <li>•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원안 채택)</li> <li>•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립소녀합창단설치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건축조례개정 조례안(원안가결)</li> </ul>
제53회 2001.4.10 ~4.20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가결)</li> <li>• 건설환경 및 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안가결)</li> <li>•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원안가결)</li> <li>• 건설환경 및 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ul>
제54회 2001.5.25 ~5.31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li> <li>•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통리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통리장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새마을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안가결)</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54회 2001.5.25 ~5.31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수정가결)</li> <li>•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ul>
제55회 2001.7.5 ~7.14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안가결)</li> <li>•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안가결)</li> <li>•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li> <li>•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원안가결)</li> <li>•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원안가결)</li> <li>•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가결)</li> <li>•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원안가결)</li> <li>•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수정 촉구결의안(원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li> <li>• 용인시 중소기업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ul>
제56회 2001.8.14 ~8.16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li> <li>•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li> <li>•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원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민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축구센터건립기획단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57회 임시회 2001.9.21 ~9.28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li> <li>•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li> <li>•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원안가결)</li> <li>•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원안가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안(당초안가결)</li> </ul>
제58회 임시회 2001.10.22 ~10.24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보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의회의원공무국의 여행규칙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자활자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문예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21세기발전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해자부담금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li> <li>• 용인시 교통안전대책위원</li> </ul>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58회 임시회		회조례안(수정가결)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부결)
제59회 임시회 2001.11.1 ~11.3 (2일)	•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안(원안가결)	• 용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 조례안(원안가결)
제60회 제2차 정례회 2001.11.26 ~12.20 (4일)	•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수정가결) •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수정가결) •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원안가결) •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원안가결)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가결)	• 용인시 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법정동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통리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통리반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자연경관보전 및 도시경관형성조례안(부결) • 용인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회기	안건 처리 현황	조례 제·개정 현황
제60회 제2차 정례회		및 등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 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 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 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 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수 정가결) • 용인시 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61회 임사회 2001.12.21 ~12.27 (6일)	• 2001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 안가결) •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200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원안가결)	• 용인시 농업인품목별생산 조직체 및 전문농업인육성 기금설치운영조례안(수정 가결) •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농촌용수구역관리 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62회 임시회 2002.1.21 ~1.22(1일)	•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여

백

## 제4장 정당과 선거



### 제1절 정 당

#### 1. 정당정치 의미

1945년 해방 후 출현한 우리나라의 정당들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정당이란 국가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국민을 조직하고 동원하며, 모든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영속적인 정치결사이다. 정당은 선거와 더불어 존재한다. 민주정치에 정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선거를 치룸에 있어 후보자를 내고 선거의 쟁점을 제시하며,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권하며 당선된 뒤에 책임정치를 하는 등 그 모든 일을 정당이 관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대적인 정당 출현은 해방 이후부터이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가 수립되어 정당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명문화되고 구체화되면서 근대적인 정당활동이 시작되었다. 건국 초에는 정당과

역대 총선 결과

선거시기	정 당 별 득 표 율							투표율
1대 48-05-10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대동청년당	조선민족청년당	대한노동총연맹	기타	무소속	95.5
	24.6	12.7	9.1	2.1	1.5	12.0	38.0	
2대 50-05-30	대한국민당	민주국민당	국민회	대한청년당	대한노동총연맹	기타	무소속	91.9
	9.7	9.8	6.8	3.3	1.7	5.5	62.9	
3대 54-05-20	자유당	민주국민당	국민회	대한국민당		기타	무소속	91.1
	36.8	7.9	2.6	1.0		3.8	47.9	
4대 58-05-02	자유당	민주당	통일당	국민회		기타	무소속	90.7
	42.1	34.2	0.6	0.6		1.1	21.5	
5대 60-07-29	민주당	사회대중당	자유당	한국사회당	한국독립당	기타	무소속	84.3
	41.7	6.0	2.8	0.6	0.3	1.8	46.8	
6대 63-11-26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주당	국민의 당	자유민주당	기타		72.1
	33.5	20.1	13.6	8.8	8.1	15.9		
7대 67-06-08	민주공화당	신민당	자유당	민주당	대중당	기타		76.1
	50.6	32.7	3.6	3.0	2.3	6.1		
8대 71-05-25	민주공화당	신민당	국민당	민중당	통일사회당	대중당		73.2
	48.8	44.4	4.1	1.39	0.9	0.5		
9대 73-02-27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무소속	71.4
	38.7	32.5	10.1				18.6	
10대 78-12-12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무소속	77.1
	31.7	32.8	7.4				28.1	
11대 81-03-25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민권당	신정당	기타	무소속	78.4
	35.6	21.6	13.2	6.7	4.2	7.9	10.7	
12대 85-02-12	민주정의당	신한민주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신정사회당	기타	무소속	84.6
	35.2	29.3	19.7	9.2	1.5	2.0	3.3	
13대 88-04-26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신한민주당	기타	무소속	75.8
	34.0	23.8	19.3	15.6	0.2	2.3	4.8	
14대 92-03-24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당	공명민주당	민중당	무소속	71.9
	38.5	29.2	17.4	1.8	0.1	1.5	11.5	
15대 96-04-11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통합민주당	무당파국민연합	기타	무소속	63.9
	34.5	25.3	16.2	11.2	0.9	0.1	11.8	
16대 00-04-13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	민주노동당	기타	무소속	57.2
	38.9	35.8	9.8	3.6	1.1	1.1	9.7	

사회단체가 각급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아직 민주정치에 대한 혼란이 쌓이지 않은 상태여서 정당이나 사회단체로 출마한 자보다는 오히려 무소속 입후보자가 더 많이 당선되었다. 또 정치인보다 직업

을 가진 자가 더 많은 당선율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민주정치의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의 민주정치도 정당정치에 기반을 두게 되었고, 또 전문 정치인이 의회에 진출하는 일이 늘어났다. 따라서 정당의 추천이 없이는 모든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헌법상 국민의 피선거권은 실질적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은 극소수로 제한되었다. 1954년 3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정당추천제가 실시되었다. 1963년 이후에는 법에 의하여 무소속 출마가 금지됨으로써 정당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점점 정당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다. 한국의 정당은 계층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의 어떠한 계층이나 세력을 대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인물중심이어서 당수와 함께 정당의 흥망이 좌우되었다. 정치인들도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에 동조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고, 자리나 공천 등에 연연하여 입당하는 사례가 많았고, 당과 당사이의 이합집산도 심하였다.

## 2. 한국 정당의 역사

### 1) 제1공화국

#### (1) 민주국민당

1949년 2월 10일 조직되어 약칭으로 국민당이라 불렀으며, 위원장에 신익희, 부위원장에 김도환, 이영준을 선출했다. 제헌국회에서 의원의석 29석을 차지한 한국민주당은 이승만을 형식상의 국가수반으로 하고 행정의 수반을 자당에서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여 의원내각제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의 대통령제를 고집하여 내각책임제로 되어 있던 헌법초안을 대통령제로 바꾸려고 하였다. 한국민주당은 이것도 불만인데다가 각료조각에도 실망을 하였다. 때문에 1949년 2월 10일 대한국민회와 대동청년단세력과 합당하여 당명을 민주국민당으로 고치고 이승만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정강은 민족의 권리확보, 만민평등의 민주정치 실현, 자유경제수립,

민족문화양양, 세계평화의 수립 등이었다.

창당 초부터 강력한 야당으로 출발하여 수차에 걸친 개헌파동, 거창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국회의원 소환운동, 국제구락부사건, 뉴델리사건, 사사오입개헌 등 난관과 억압을 겪으며 꾸준히 성장하여 오다가 1955년 9월 19일 민주당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2대 국회 때에는 24명, 3대 국회에서는 15명의 의원을 당선시켰을 뿐이다.

## (2) 자유당

2대 정·부통령선거를 1년 앞둔 1951년 피난 중인 임시수도 부산에서의 국회의석 분포는 민주한국당을 위시한 야당측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당시 헌법에는 정·부통령선거를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건가능성이 희박함을 알고 자신을 위한 신당조직과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정·부통령선거를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해 8월 15일 기념식 석상에서 자신이 이끌 정당의 필요성을 표명하자 기왕에 협조하고 있던 국민회, 대한부인회, 대한청년단, 대한노동조합총연맹, 대한농민조합총연맹 등 5개 단체가 즉각 호응하고 뒤이어 대한국민당과 국회의원 70명이 호응하고 나섰다. 결성과정에 원외파는 정·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고, 원내파는 간선제를 주장하여 타협이 되지 않은 채 이 해 12월 23일 원내, 원외가 각각 자유당을 결성하여 2개의 자유당이 생겼다. 그러나 차츰 원내파가 원외파에 합동하여 1952년 7월 4일 정·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1954년 3월 제 5차 전당대회에서 당을 재건하고 기구를 개편하여 이승만 총재 밑에 이기봉 총무부장이 당의 실무에 대한 전권을 장악하였다. 이 해 5월 20일 총선거에서는 야당인 국민당이 15명의 당선자를 낸 반면, 자유당은 116명의 당선자를 내어 대승을 거두고 무소속 의원까지 영입하여 137석을 확보하였다. 이로부터 자유당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4년 11월 29일 소위 사사오입(四

捨五入) 계표방식에 의해 이승만 대통령 종신연임 가능 및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권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1958년 보안법 및 언론통제법의 강화로 야당탄압 기도 등 갖은 횡포와 위법을 다하다가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소위 3인조, 9인조, 올빼미표, 피아노표 등 신조어를 창출해 내면서 100% 지지를 만들어 내려다 분노한 국민들의 규탄 앞에 당과 정권 모두 잃고 말았다.

### (3) 대한국민당

1948년 11월 12일 조직된 정당이다. 제1차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의 집결체로 신정동지회, 민정동지회, 국민구락부, 노동의 일부가 일민주의(一民主義)의 구현을 당시(黨是)로 하여 창당하였다. 최고위원으로 윤치영, 이인을 선출하였다. 계급과 지역, 성별을 초월하는 민족완전통일, 정치·경제·교육의 균등, 민족정의와 문화의 발양을 통한 세계평화애의 공헌 등을 내걸고 초기에는 국회 내에서도 상당한 세력을 가졌으나 점차 쇠퇴하여 1958년 7월 16일 해체되었다.

### (4) 민주당

1955년 9월 19일 민주국민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정당이다. 자유당의 횡포가 심해지자 야당국회의원들은 1954년 12월 30일 호헌동지회를 구성하여 원내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신당조직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그 해 5월 19일 흥사단 계통과 자유당 탈당의원들을 영입하여 민주당을 결성하였다. 집단지도체제를 실시하여 대표최고위원에 신익희, 최고위원은 장면, 조병옥, 곽상훈, 박순천으로 하였다.

정강은 독재주의의 배척과 민주주의의 발전, 공정한 자유선거에 의한 대의정치와 내각책임제의 구현, 자유경제 원칙하에서의 공정한 분배와 근로대중의 복지향상, 민족문화의 육성, 민주우방과의 제휴 등이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 각각 후보지를 지명하였으나, 5

월 5일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급서하는 바람에 대권도전이 무산되고 장면은 부통령에 선출되었다. 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199명의 후보를 내세웠으나 79명을 당선시켜 겨우 호헌선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후보로 조병옥, 부통령후보로 장면을 공천하였으나 조병옥은 병사하고, 선거는 전반적인 부정선거로 4·19가 일어나 선거무효가 되고 말았다.

### (5) 기타 정당

진보당 : 1956년 1월 26일 조봉암 등이 창당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1956년 11월 10일 결당대회를 열어 조봉암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하지만 그 뒤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이 간첩 접선 혐의로 구속되었고, 정부가 1958년 2월 25일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진보당은 해체되었다.

통일당 :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준연은 민주당 내 동조당원을 규합하여 1957년 11월 16일 통일당을 창당하였다. 위원장에 김준연을 뽑았다.

## 2) 제2공화국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시대는 끝나고 제2공화국시대가 열렸다. 1960년 7월 29일 제5대 민의원 선거와 초대 참의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의 입후보 및 당선자 수를 보면(괄호안은 후보자 수), 민의원은 민주당(301) 175석, 자유당(52) 2석, 무소속(977) 49석, 사회대중당(121) 4석, 한국사회당(18) 1석, 통일당(1) 1석, 한국독립당(12) 0석 등이었다.

이미 4·19의거가 정당의 판도를 가름하여 놓았지만, 야당이던 민주당이 전의원 정수의 58.1%에 해당하는 175명의 당선자를 내어 굴지의 제1당이 되고, 여당이던 자유당이 불과 2명의 당선자를 내는 군소정당의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참의원의 후보자 및 당선자 수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입후보자



수). 민주당(60) 31석, 자유당(11) 4석, 무소속(115) 20석, 사회대중당(7) 1석, 한국사회당(2) 1석, 한국독립당(1) 0석.

이때 민주당은 선거에 대승리를 거두었으나 소위 신파·구파로 나뉘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둘러싸고 심한 알력을 빚었다. 그러다가 결국 구파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되어 국무총리 지명을 자파의 김도연으로 하였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신파의 장면이 지명을 받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조각을 신파 중심으로 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구파가 신파와 결별하고 1961년 2월 20일 새정당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신민당이다. 이 밖에 2공화국 시기의 정당으로는 우익의 조선민주당, 한국독립당, 공화당이 있었고, 중간정당으로는 한국사회당, 통일사회당 등이 있었다.

### 3) 제 3·4 공화국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제2공화국정부를 쓰러뜨렸다. 5·16의 주체는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 군사혁명으로 정당·사회단체는 해체되는 동시에 1960년 7월 29일 총선을 통하여 수립된 제2공화국은 헌정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63년 정치활동의 재개와 함께 정당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 (1) 민주공화당

5·16 이념을 계승하여 궁극적으로 정치풍토를 개선하고 세대교체를 단행할 정당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사전에 창당조직을 은밀히 추진해 왔다. 혁명위원들을 비롯하여 재건동지파, 학술단체 및 각 계각층의 구정치인들도 포섭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1963년 2월 2일 민주공화당의 창당을 보게 되었다. 민주공화당은 총재에 박정희, 당의장에 정구영을 추대하고 핵심부서는 대부분 군장성·장교 출신들이었고, 일부는 유력인사들을 영입하여 이원적 조직구조를 구축하였다.

## (2) 신한민주당

1967년의 6대 대통령선거와 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분열된 보수 야당세력을 통합하여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목표로 1967년 2월 7일에 창당되었다. 그 동안 이합집산을 거듭하여 왔던 보수야당세력이 다시 통합된 것이다.

신민당은 반독재와 평화적 정권교체 등 2대 투쟁목표를 내걸고 제 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여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정치투쟁을 전개하였다. 1967년, 1971년 두 차례의 대통령선거전과 7~1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물론, 1969년의 3선개헌 저지투쟁을 벌였다.

1972년의 10월유신 이후의 체제비판과 민주회복투쟁 등 수많은 정치투쟁과 여야격돌로 많은 우여곡절과 정치파동이 유발되었고, 그 때마다 당내에도 적지 않은 파동이 일어났다. 1971년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김대중이 대선후보가 되어 여당의 박정희와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다. 그 뒤 유진산계와 반대세력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었고, 1974년 4월 유진산이 죽자 8월에 김영삼이 총재가 되었으나 당내파동으로 실권하고, 1976년 5월 이철승이 당권을 장악하여 대여 온건노선을 지향하였다.

1978년 12월 12일 실시한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신민당이 유효득표수에 있어 여당인 민주공화당보다 1.1%나 앞서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약 3년만에 다시 당권을 잡은 김영삼은 더욱 대여 강경노선을 취하여 국회의원 제명처분을 받았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의 사망으로 김대중이 복권되자, 신민당 내부는 김영삼계와 김대중계로 분열 대립하는 와중에서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다른 정당과 함께 자동해체되었다.

## 4) 제 5·6 공화국

10·26 사태 이후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정국은 불안해진 다. 1979년 12월 6일 유신헌법을 적용한 대통령을 선출하였는데, 최

규하가 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다음 정권에 도전하려는 공화당 총재 김종필, 신민당 총재 김영삼, 재야의 김대중, 이들 3김은 자파세력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대학가는 대학가대로 민주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군부세력은 5·17을 기점으로 기왕에 내려진 비상계엄을 확대해서 시위와 집회를 엄금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대학에는 휴교령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광주시민들은 이 같은 정치군인들의 정치개입에 반발하여 광주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 이를 진압한 군부세력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으로 전두환이 들어섰다.

최규하 대통령이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전두환을 11대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리고 헌법 개정에도 들어갔다.

### (1) 민주정의당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세력이 중심이 되어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한 가운데 1981년 1월 15일 창당하였다. 당의 5대 이념으로 민족·민주·정의·복지·통일을 내걸고, 주요 기구로 전국대의원대회·중앙집행위원회·사무국·시도위원회 등을 두었다.

그 해 3월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곧이어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제5공화국의 집권여당이 되었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신민당 돌풍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일명 6월 항쟁)으로 창당 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으나, 대표위원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위기를 수습하고,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299석 중 125석을 차지해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불안정한 정국을 맞이하였다. 결국 민주정의당은 1990년 2월 9일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의 소위 '3당합당'을 통해 해체되었다.

## (2) 한국국민당

1980년 10월 27일 개정헌법이 공포·발효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한 후 옛 여당 소속 10대 국회의원 일부가 결속, 1981년 1월 23일 창당하였다. 80년의 새 헌법 부칙에 따라 그 이전의 모든 정당 및 정치단체의 활동이 금지되었다가 11월 22일부터 새 정당의 결당을 위한 정치활동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서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유정회) 소속 10대 국회의원들 일부가 민주공화당 당무위원 김종철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창당발기준비위원장으로 김종철을 추대하였다.

1981년 1월 23일 창당대회를 열고 당명을 ‘한국국민당(국민당)’으로 결정하는 한편, 김종철을 당총재로 추대하는 동시에 제12대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2월 11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결과 국민당후보는 정수의 0.9%인 48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3월 25일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지역구에서 18석, 전국구에서 7석, 도합 25석(의원정수 276석의 0.9%)을 확보하였으며, 민정당의 151석, 민한당의 81석에 이어 제3당이 되었다.

창당발기취지문에서 지난날 제3·4공화국에서의 여당이었던 자신의 위치를 자성하는 자세를 강조하여, 야당으로서 전환해야 할 자신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부각·인식시키려고 애썼다. 1984년 총재 김종철이 사임하자 부총재였던 이만섭이 총재권한대행이 되었고, 1985년 총재로 추대되었다. 1987년 10월 김종필 중심의 신민주공화당이 결성되자 국민당에 속해 있던 구공화당계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이에 흡수되면서 당은 해체되었다.

## (3) 통일민주당

1980년 11월에 공포된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묶여 정치활동이 규제되다가 해금된 김영삼(金泳三)·김대중(金大中)이 중심이 되어 창당하였다. 이들은 신한민주당(약칭 신민당) 총재 이민

우의 내각제를 전제로 한 ‘이민우 구상’에 반발하여 1987년 4월 8일 이민우 계열만 신민당에 남겨둔 채 그들을 추종하는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74명을 탈당하게 하여, 범민주세력을 통합하는 신당을 목표로 창당하였다.

1987년 69명의 현직의원이 “대통령중심 직선제개헌 추진, 비폭력적·평화적 민주화투쟁, 진정한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선명하고도 강력한 국민적 정당을 창건하겠다”는 창당발기 취지문과 함께 김영삼을 총재로, 김대중을 고문으로 선출하였다.

통일민주당은 6월항쟁에서의 주도적 역할로 6·29선언을 이끄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후보가 되려는 양김씨의 분열로 김대중이 그해 10월 말 탈당하여 12월 평화민주당(평민당)을 창당하였다.

결국 통일민주당은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을 후보로 내세워 28.0%의 득표율을 획득하였으나, 36.6%의 노태우후보에게 패배하였다. 1988년 4월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의석을 59석밖에 얻지 못하여 평화민주당에 이어 제2야당으로 전락하였다. 이후 1990년 소위 ‘3당합당’으로 자동해체되었다.

#### (4) 신민주공화당

새로이 해금된 유신정권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정당이다. 민주공화당의 전통을 잇고자 민족중흥동지회를 결성하였고 이후 1987년 회칙을 개정, 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해 10월 창당대회 겸 대통령후보지명대회에서 김종필을 당총재 및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대통령후보로 나선 김종필은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8.1%의 득표율을 획득하여 4위를 기록하였다. 198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35석을 획득한 신민주공화당은 원내교섭단체를 결성하여 제4당으로서 여소야대 국회의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쥐게 되었다. 1990년 3당합당으로 해체되었다.

### (5) 평화민주당

1987년 5월 1일 김영삼과 함께 신민당을 와해시키고 통일민주당을 창당한 김대중이 대내외의 후보단일화 압력을 뿌리치고 제13대 대통령후보 출마를 결심함에 따라, 그해 10월 29일 민주당 내 동교동계 의원을 탈당시키고 분당을 선언, 11월 12일 창당대회를 열고 출범하였다. 창당대회에서 김대중을 총재 및 대통령후보로 추대하고, 선거대책본부 체제로 당을 운영, 제13대 대통령선거전에 임하였다. 그러나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에 이은 3위에 그쳤다.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고 야권통합의 압력 속에 양순직·유제연·김현수·김성식·장기욱 등의 탈당으로 위기에 빠진 평민당은 1988년 2월 목사 문동환 등 재야인사 98명을 영입하여 당을 재정비하였다. 4월 26일 총선거에서 호남지방의 37개 선거구를 석권하고, 서울특별시에서도 다른 당을 압도하는 17석을 획득하여 전국구 16석을 포함, 모두 71석을 차지함으로써 원내 제2당,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총선 후 총재 김대중, 부총재 문동환·박영숙·최영근·조운형·손주향·박영록 체제로 진용을 쇄신하고, 원내에서의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및 해결 등 5공청산에 역점을 두고 대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른바 '5공청산' 후, 1989년 1월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야권을 이탈,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여당에 참여함으로써 바뀌어 버린 여대야소의 원내 판도 속에서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91년 4월 신민주연합당(약칭 신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9월 10일 민주당 잔류파인 이기택과 재야입당파인 이부영 등의 민주당과 합당하여 '민주당'을 출범시키고 해체되었다.

### (6) 민중당

1980년대 후반 재야운동권에서는 기존의 장외투쟁과 병행하여 제도정치권 내부에서 기층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혁신정당(革新政黨)을 건설하자는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1989년 11월 20일 이우재·장기표 등은 '민중의 당'과 '한겨레민주당'을 이끌어온 인사들을 주축으로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1990년 4월 '민주연합추진위원회'에 참가하였으나 선(先)야권통합을 주장하는 이부영 등과 의견대립을 보이다가 결국 11월 10일 독자적으로 민중당을 창당하였다.

민중당은 상임대표위원 이우재, 정책위원장 장기표, 사무총장 이재오, 교수위원장 오세철 등의 중앙지도부와 51개 지구당으로 구성되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6공화국의 실정(失政)을 비판하고,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것을 약속하며 활발한 선거운동을 벌였으나,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여 정당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 5)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6공화국의 문을 연 노태우 정부와 군정종식이라는 차별화를 강조해 문민정부로 불렸다. 정부 엘리트의 충원구조에서도 군사학교 출신이 대폭감소하고 오랜 정치적 대립구도였던 민주대 반민주 구도를 희석시켰으며 철저적 민주주의가 신장됐다. 정권 초기에는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 공직자 재산공개를 비롯한 인적·제도적 개혁 등 각 영역에 걸쳐 개혁이 추진되었고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한껏 받았다. 그러나 남북관계, 지역문제 등에서 오히려 퇴행적 모습을 보여주고, 대통령 아들의 구속·수감으로 이어진 부패하고 왜곡된 권력행사로 점차 궁지에 몰렸다. 정권 말기에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인한 반대여론과 총파업, 그리고 대책없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환란까지 일어나 결국 'IMF 체제'에 접어들며 임기를 마무리했다.

1997년 12월 18일 선거에 승리해 이듬해 2월 25일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사상 최초의 수평적·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정치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영남권의 권력 독점에 막을 내리고 배제, 차별, 소외로 상징되던 호남이 정치적 중심으로 진출했다는 의미도 있다. 그럼에도 이념적 지향을 달리하는 자민련과의 공동정부 구성으로 인한

국정 난맥, 그리고 무엇보다 IMF 체제의 성공적 관리라는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처지에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민간 정부 시기 동안 여러 정당의 부침이 있었다. 그것은 주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소위 3김씨의 세력재편과 맞물려 있었으며, 더 넓게는 한국 정당의 지역적 기반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 (1) 민주자유당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선거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되자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여소야대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보수연합구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위로부터의 정계개편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0년 1월 22일 민정당의 노태우 대통령,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재가 3당합당을 선언함으로써 거대보수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하였다. 약칭은 민자당이다. 3당합당의 요인으로는 당시의 상황적 요인과 더불어 보수정당이라는 이념적 동질성, 대중적 기반이 취약한 엘리트정당, 최고지도자 개인에게 집중된 당권 등의 구조적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3당합당으로 민자당은 국회에서 개헌선인 2/3를 넘는 218석을 확보하고, 지역에 기반한 4당 구조를 보수 대 혁신의 양당 구조로 바꾸어 놓았다.

초기에 민자당은 민주·번영·통일을 이념으로 내걸고, 총재 1인(노태우)과 대표위원 3인(김영삼·김종필·박태준)의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계파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공천 및 당직배분으로 당내갈등이 지속되고,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으로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299석 중 149석을 얻는데 그쳐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다.

5월 19일 전당대회에서 김영삼 대표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이종찬·박태준·박철언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탈당하였다.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후보가 41.4%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됨으로써 민자당은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민자당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을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정계·민주계·공화계 3계파간의 갈등만 증폭시켰다.

1993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전·현직 국회의장 김재순과 박준규, 국회의원 유학성·김문기·임춘원·정동호가 정계를 은퇴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민자당을 탈당하였다. 이어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당대표를 역임하였던 공화계의 김종필 대표도 민주계의 배척운동으로 인해 1995년 2월 9일 공화계를 이끌고 탈당하였으며, 당내의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동요하여 박준병 등이 탈당하였다.

이후 민자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였으며, 그 결과 내분은 증폭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11월과 12월 두 전직 대통령 노태우와 전두환이 구속되면서 12월 6일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 (2) 자유민주연합

민주자유당 내의 민주계를 중심으로 한 여권 핵심부가 공화계의 김종필 대표의 2선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1994년 말부터 본격화하자 김종필은 1995년 2월 공화계의 동조세력을 이끌고 탈당하여 3월 30일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였다. 5월 31일 김복동 대표체제 하의 군소정당인 신민당과 합당하여 기존의 지지기반인 충청권에 대구·경북 지역을 보탤다.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을 휩쓸고 강원도에서 도지사를 당선시켜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나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자민련은 민주자유당 내에서 동요하고 있던 민정계 의원을 영입하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5·18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한편, 의원내각제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분할 구도 속에서 충청권에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진 자민련이 살아 남기 위한 교육책이었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 국민회의와 연합하여 김대중 후보를 당선 시킴으로써 정국운영의 중요한 열쇠를 쥐게 되었다.

### (3) 새정치국민회의

1995년 9월 5일, 당시 김대중의 주도 아래 창당했다. 1987년 11월 창당한 평화민주당의 구성원과 그 해 12월 대통령선거 때 김대중 후보에 대해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취했던 재야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고 은퇴했던 김대중이 1995년 7월 18일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자신의 계파를 중심으로 민주당을 탈당시켜 창당한 정당으로서, 창당과 동시에 원내 의석 53석을 차지해 제1야당이 됨으로써, 정계는 1여 3야의 구도로 재편되었다.

서민 대중을 위한 국민정당을 표방하면서도, 보수 중산층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중도보수노선을 채택하였다.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40.3%의 득표율로 당선됨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평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였고,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여당이 되었다. 그러나 집권 이래 국민의 개혁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역정당이라는 한계에 갇혀있다는 평가와 함께 ‘개혁성’을 부각시키고,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한다는 차원에서 2000년 1월 2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재창당된다.

### (4) 한나라당

1997년 11월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창립했다. “분열부패의 구정치 구도와 행태를 청산하는 정치혁신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선진 민주정치를 구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인류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21세기 위대한 선진 한국을 창조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하였다.

전통적 여당의 후신인 만큼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 표적 세무조사 남용방지책 마련, 특별검사제 상설화, 부정부패방

지법 제정,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 법제화 등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 16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21명, 지역구 112명을 포함해 총 133명의 의원을 보유하여 국회 다수당이 되어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고 있다.

### (5) 새천년민주당

2000년 1월 20일, 기존의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를 확대 개편해 창당하였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를 3대 이념으로,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개혁을 4대 개혁으로, 전면적 개혁의 완성과 지식정보화 촉진, 생산적 복지의 정착, 국민 대화합 실현, 남북 화해 협력, 민족 상생 구현을 5대 목표로 삼고 있다.

16대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19명을 포함해 총 115명이다.

## 3. 용인지역에서의 정당활동

선거구는 1948년 3월 17일 미군정법령 제175호로 공포된 전문 57조의 선거법에 의해 제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법은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부(府)와 군, 서울시의 구(區)를 단위로 인구 15만 미만은 1개구, 인구 15만 이상 25만 이하는 2개구, 35만 미만은 3개구, 45만 미만은 4개구로 획정하였다.

제헌의회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내 정당 지구당은 없었다. 다만 이승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 유기수와 지청천을 중심으로 만든 대동청년단의 민경식이 출마, 당선되어 제헌국회에 진출했다.

1950년 5월 30일의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8명의 후보자가 경선했다. 7명은 무소속이었고, 제헌의원인 민경식만 국민당으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무소속 유기수가 당선되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었다. 그리고 1952년에는 용인군 12개면에서 139명의 면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는데, 그 정당별 당선자를 보면 무소속이 59명, 대

한청년단이 50명, 국민회가 24명, 자유당이 5명, 국민당이 1명이었다. 이와같이 면의회 의원선거에도 당이 게재되었다면 적어도 군단위의 조직은 있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1954년 5월 20일, 3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모두 4명이 출마했는데, 3명이 무소속이고 신의식 1명만이 자유당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자유당원이 많이 당선되었다. 이는 무소속이 많이 당선된 1952년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와 대조적이다. 점차 정치경쟁의 중심에 정당들이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56년 면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별 당선자를 보면 용인군 12개면 의원정수 134명 중에서 자유당이 106명, 무소속이 18명, 민주당이 5명, 국민회 3명, 농민회 1명, 경우회 1명이 당선되었다.

1958년 5월 2일 4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자유당, 민주당이 지구당을 내고 각각 신의식, 구철회 후보를 공천했다. 결과는 민주당 구철회의 승리였지만 후일 자유당으로 당적을 바꾸었다.

1960년 7월 29일 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용인시지구당 위원장 김윤식, 자유당 지구당 위원장이었던 이상법 등 총 10명이 경선했는데 그 중 8명이 무소속이었다. 김윤식 후보가 당선되었다.

1963년 11월 26일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가 확대개편되면서 안성과 합쳐져 경기도 제8선거구로 편입되었다. 이때는 등록요건에 정당공천을 의무로 해 자유민주당의 최봉관, 국민의당의 이교선, 민주당의 김윤식, 민정당의 유광준, 추풍회의 오재영, 민주공화당의 서상린이 경합한 결과 서상린이 당선되었다.

1967년 6월 8일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신의식, 민중당의 이재우, 정의당의 최봉관, 신민당의 강희갑, 민주공화당의 서상린, 한국독립당의 조재형이 경합하여 서상린이 재선되었다.

1971년 5월 25일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기도 8선거구에서 9선거구로 변경되었다. 공화당의 서상린, 신민당의 조종익, 국민당의 장웅선이 출마해 서상린이 당선되었다.

유신헌법에 의해 4공화국이 들어서 처음 실시되는 9대 선거는 전체 73개 선거구에서 2인씩 선출했으며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등 3개 정당만이 참여하였으며 오랜만에 무소속 출마도 허용되

었다. 9대 선거는 선거구가 변경되어 평택·용인·안성으로 재조정되었다. 이때부터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선거구당 2명의 당선자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민주공화당의 서상린, 신민당의 유치송, 민주통일당의 유태형, 무소속의 2명의 후보가 출마해 서상린과 유치송이 당선되었다. 1978년 12월 12일 치뤄진 10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5명의 후보가 출마해 유치송이 1위가 되고 서상린이 2위로 당선되었다.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였던 유신체제가 1979년 10·26 사태로 막을 내리고 1980년 5·17조치로 신군부가 등장하자 기존정당들은 해체되고, 10대 국회도 1년 7개월만에 해산됨으로써 정당정치는 또다시 동결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개정된 새 정당법에 의해 각 정당이 창당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1981년 3월 25일 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때는 다시 선거구가 바뀌면서 경기도 7선거구로 용인·이천·여주가 선거구가 되었다.

1981년 3월 25일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시 여당이 민주정의당의 정동성, 제1야당이던 신한민주당의 조종익, 민주사회당의 이찬구와 무소속 3인이 출마했다. 민정당 정동성 후보와 민한당의 조종익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1985년 2월 12일 12대 선거에서는 민주정의당 정동성, 신한민주당 구재춘, 민주한국당 조종익이 출마해 민주정의당의 정동성과 민주한국당의 조종익 후보가 다시 당선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5공화국이 물러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1988년 3월 8일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이 통과됐다. 1988년 4월 26일 14개 정당이 참여한 총선에서 민주정의당의 이웅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1991년 6월 20일 실시한 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제1선거구의 조영희 당선자만이 무소속이고, 2선거구 김학규, 3선거구 곽만식 모두 민자당 소속이었다.

1992년 3월 24일 치뤄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의 이웅희, 민주당의 나진우, 무소속의 김정길 등이 출마해 민주자유당의 이웅희후보가 재선되었다.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 동시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약진하였다. 용인지역에서도 경기도 의원으로 뽑힌 3명 중 2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제1선거구에서 민자당 홍영기 후보가 당선되었고, 제2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이성근, 제3선거구는 같은 당 이강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용인군수로는 민자당 윤병희 후보가 민주당 나진우 후보를 3,000여표 차이로 이겼다.

1996년 4월 11일 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신한국당의 이용희, 새정치국민회의 김정길, 통합민주당의 나진우, 자유민주연합의 김학규 등이 출마해 신한국당의 이용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1998년 6월 4일 지방자치선거에서는 도의원 의석이 하나 줄었다.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 모두 전임자인 홍영기, 이성근 후보가 당선되었다. 용인시장 선거에서는 많은 진통이 있었다. 애초에 전직 군수인 한나라당 윤병희 후보가 국민회의 김정길 후보를 근소한 차로 이겼으나 취임 이후 소위 '경성사건'으로 전격구속되고 나서 자진 사퇴했다. 이로 인해 1999년 9월 9일 보궐선거가 치뤄졌다. 이때 한나라당은 용인지구당과 중앙당 간의 마찰이 있었다. 지구당에서는 자민련 용인지구당위원장 서리였던 김학규를 후보로 내정하였으나 중앙당에서는 당 부대변인인 백암면 출신 구범희를 공천하였다. 이로 인해 지구당 위원장 이용희 의원이 탈당하고 200여 당직자가 동반 탈퇴하였다. 그리고 김학규 후보를 무소속으로 출마시켰다. 국민회의에서도 지역기반을 다져온 김정길 지구당 위원장 대신 현직 부시장 예강환이 낙점되었으나 김정길이 승복해 이런 사태로 번지지 않았다. 덕분에 예강환은 2위 김학규를 제치고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2000년 4월 13일의 16대 총선에서는 용인시 갑, 을 선거구 모두 민주당의 남궁석, 김윤식 후보가 당선되었다. 현재 용인지역에서 선출된 민주당 이외에도 한나라당(갑구 위원장: 박승웅, 을구 위원장: 김본수), 자민련(갑구 위원장: 홍재구, 을구 위원장: 김용규) 등이 지구당을 운영하고 있다.

## 제2절 역대 선거, 투표 개관

### 1. 대통령 선거

#### 1) 초대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1948. 7. 20)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制憲國會)가 개원되었다. 이승만이 의장으로 선출되고 7월 17일 정부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7월 20일 헌법 제53조에 의해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다.

재적의원 198명 가운데 이승만이 180표를 얻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부통령은 재적의원 중 133표를 얻은 이시영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1951년 5월 14일 이시영 부통령이 사임해서 5월 15일 보궐선거를 실시했는데, 재적의원 210명 중 152명이 참가하여 김성수, 이갑성 두 후보 중 78표를 얻은 김성수가 2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 2) 제2대 대통령 및 제 3대 부통령 선거(1952. 8. 5)

1951년 7월 18일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정·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실시하게 되었다. 1952년 실시된 선거에서 전국 선거인수 중 75.3%를 득표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당선 용인지역에서는 80%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다음 표를 보면 이승만은 경기도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실시된 제3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함태영이 3백만표 가까이 얻어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지명도가 훨씬 높았던 이범석은 1백만표 이상의 차이로 지고 말았다. 이는 대중성이 높은 이범석이 부담스러웠던 이승만이 같은 당 출신임에도 견제하고 나선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용인군에서는 자유당으로 출마한 전 국무총리 이범석이 함태영보다 2천표 이상 더 얻었다.

시도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계
			후보자별 득표수				
			무소속	자유당	무소속	무소속	
조봉암	이승만	이시영	신홍우				
계	8,259,428	7,275,883	797,504	5,238,769	764,715	219,696	7,020,684
서울	282,585	258,989	25,631	205,300	14,883	3,923	249,737
경기	912,299	775,808	44,967	657,174	34,704	12,891	749,736
용인군	48,253	40,218	2,661	33,186	1,906	891	38,644
여주군	41,985	35,317	1,981	29,750	1,617	579	33,927
이천군	41,231	34,398	1,515	29,754	1,686	473	33,428
안성군	55,747	46,031	2,086	39,730	1,762	768	44,346
평택군	48,505	39,793	2,182	33,748	1,781	738	38,44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데이터베이스 <http://www.nec.go.kr/sinfo/sinfo.htm>  
 (검색일: 2002. 1. 13) 이하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모든 통계는 상동.

	계	이윤영	함태영	이갑성	조병옥	임영신	백성옥	정기원	정진한	이법석
전국	7,133,297	458,483	2,943,813	500,972	575,260	190,211	181,388	164,907	302,471	1,815,692
경기	762,268	42,083	347,799	35,154	27,776	13,195	10,547	12,593	21,076	252,090
용인군	39,306	2,316	14,070	2,057	1,480	987	863	715	1,101	15,7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1968 참조.

### 3) 제3대 대통령 및 4대 부통령 선거(1956. 5. 15)

본래 헌법에는 초대 대통령의 경우 3선까지로 연임제한을 두었다. 자유당은 이승만을 다시 옹립하려는 의도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했고 이것이 유명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이다. 민국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했지만, 자유당은 1956년 3월 5일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이승만, 이기붕을 정·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개헌반대세력 중에서 혁신계는 배제한 채 민주당이 창당되었고, 혁신계는 진보당으로 뭉쳤다. 진보당은 1956년 12월 22일 전국추진대표자회의를 통해 조봉암, 박기출을 정·부통령 후보로 뽑았다. 민주당은 신익희(정), 장면(부)을 내세워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유명한 구호를 내걸고 선전하였지만, 신익희 후보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급서하였다. 진보당의 박기출 후보는 야당 단일화를 내세우며 사퇴했다.

조봉암은 한국전쟁 직후 경색된 이데올로기 국면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30% 이상의 인상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경기지역은 상대적으로 조봉암에게 인색했고 용인군은 13% 정도가 지지했다.

부통령에는 장면 후보가 46.4%을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자유당이 기봉보다 20만표나 앞선 수치이다. 하지만 용인지역에서는 이기붕이 더 많은 득표를 했다. 이는 여주, 양평, 이천 등 인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 전체로는 장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은 걸 보면 용인을 둘러싼 지역이 자유당에 대해 호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도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소속	자유당			
			조봉암	이승만			
계	9,606,870	9,067,063	2,163,808	5,046,437	7,210,245	1,856,818	539,807
서울	703,799	608,741	119,129	205,253	324,382	284,359	95,058
경기	1,119,859	1,058,971	180,150	607,757	787,907	271,064	60,888
용인군	43,516	41,659	3,640	26,520	30,160	11,499	1,857
여주군	43,266	42,301	4,582	29,119	33,701	8,600	965
이천군	40,386	38,385	3,578	24,236	27,814	10,571	2,001
안성군	49,225	46,899	5,668	31,140	36,808	10,091	2,326
평택군	52,861	50,498	7,863	27,708	35,571	14,927	2,363

	계	장면	이기붕	윤치영	이윤영	백성옥	이법석
전국	8,642,494	4,012,654	3,805,502	241,278	34,926	230,555	317,579
경기	1,002,565	450,140	424,104	40,270	6,768	25,216	55,621
용인군	40,308	15,751	20,845	1,119	137	855	1,6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1968 참조.

#### 4) 제4대 대통령선거(1960. 3. 15)

유명한 3·15 부정선거다. 선거 결과에 격앙된 국민들의 저항으로

이승만은 해야했고, 국회는 의회책임제로 개헌하고 해산했다.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 정도로 변모하게 되었고 국회의 간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기로 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1960년 8월 12일 참의원 및 민의원 양원합동회의에서 민주당 윤보선을 선출하였다.

시도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소속	자유당			
			이승만	조병옥			
계	11,196,490	10,862,272	9,633,376	0	9,633,376	1,228,896	334,218
서울	1,035,916	948,339	684,146	0	684,146	264,193	87,577
경기	1,343,318	1,308,328	1,139,927	0	1,139,927	168,401	34,990
용인군	47,216	45,065	40,578	0	40,578	4,487	2,064
여주군	50,125	49,389	43,081	0	43,081	6,308	736
이천군	45,799	44,012	40,165	0	40,165	3,847	1,787
안성군	56,528	55,790	50,775	0	50,775	5,015	738
평택군	69,762	67,012	61,116	0	61,116	5,896	2,750

5) 제5대 대통령 선거(1963. 10. 15)

5·16 쿠데타 이후 군정 아래서 실시된 1962년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제로 복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원칙적으로 대통령 직선제이나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실시된 선거의

시도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계
			후보자별 득표수								
			신흥당	자유민주당	민주공화당	추풍회	민정당	국민의당	정민회		
			장이석	송요찬	박정희	오재영	윤보선	허정	변영태		
계	12,985,015	11,036,175	198,837	0	4,702,640	408,664	4,564,614	0	224,443	10,081,198	
서울	1,676,262	1,298,460	10,537	0	371,627	20634	802,052	0	26,728	1,231,578	
경기	1,492,207	1,281,166	27,554	0	384,764	54,770	661,984	0	34,775	1,163,847	
용인군	48,997	42,425	1,160	0	16,658	2,840	16,372	0	1,058	38,088	
여주군	51,054	43,847	1,474	0	16,001	2,488	17,889	0	1,353	39,205	
이천군	80,389	66,371	1,547	0	18,409	3,435	35,540	0	1,841	60,772	
안성군	59,728	51,453	1,549	0	17,268	2,415	23,250	0	1,718	46,200	
평택군	64,795	55,680	1,053	0	18,370	5,443	24,064	0	1,180	50,110	

쟁점은 '5·16 세력 민정참여의 정당성 여부, 군정기간에 대한 평가, 민주주의 정착' 등이었다.

선거결과 박정희가 민정당 윤보선 후보에게 20만표 차이로 승리하였지만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윤보선이 훨씬 많이 득표하였다. 그런데 용인군은 특이하게도 박정희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다.

## 6) 제6대 대통령 선거(1967. 5. 3)

1966년 12월 14일 대통령 선거법이 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1967년 6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법개정은 국외거주 부재자에 관한 내용 등 지역적인 부분에서만 이뤄져 별 차이가 없었다. 공화당은 1967년 전당대회를 갖고 박정희를 후보로 추대했고, 야권은 후보 단일화 노력을 통해 신민당을 구성했다. 후보로 윤보선을 지명했다. 공화당은 주로 농촌과 중소도시를 겨냥해 선거운동을 폈고, 어느 정도 적중해 상당히 안정적인 다수로 당선되었다.

시도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계
			후보자별 득표수							
			정의당 이세진	한국독립당 전진한	신민당 윤보선	대중당 서민호	민중당 김준연	민주공화당 박정희	통한당 오재영	
계	13,935,093	11,645,215 -43,290	98,433	232,179	4,526,541	0	248,369	5,688,666	264,533	11,058,721
서울	2,043,573	1,363,388 -7,823	7,635	14,242	675,716	0	13,142	595,513	11,447	1,317,695
경기	1,601,160	1,355,758 -5,863	11,029	25,306	674,964	0	23,248	525,676	22,383	1,282,606
용인군	47,972	41,808 -189	380	1,041	20,305	0	915	14,552	986	38,179
여주군	52,172	45,461 -160	536	1,232	24,358	0	925	14,160	823	42,034
안성군	70,501	56,266 -213	581	1,670	29,792	0	1,156	18,836	1,744	53,769
평택군	87,232	72,679 -328	430	1,459	40,939	0	1,209	24,191	1,093	69,321
이천군	51,651	44,510 -155	410	1,334	24,027	0	1,045	14,121	821	41,758

박정희는 관권, 금권 선거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이만한 격차로 당선된 것을 보면 경제개발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윤보선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용인과 그 주변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용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당을 더 많이 지지했다.

### 7) 제7대 대통령 선거(1971. 4. 27)

민주공화당에서는 박정희 말고는 후보대상자가 있을 수 없었다. 반면 야당에서는 40대 소장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서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김대중은 신민당에서 2차에 걸친 투표 끝에 후보로 지명되어 바람을 일으켰다. '대중경제론', '4대국 안전보장안' 등 혁신적 구호를 내세워 지지를 확대했다. 이에 비해 "이번이 마지막"

시도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계
			후보자별 득표수								
			민주공화당 박정희	신민당 김대중	국민당 박기출	대중당 서민호	민중당 김준연	정의당 진복기	통일사회당 김철		
계	15,510,316 -42,623	12,417,816 -41,350	6,342,828	5,395,900	43,753	0	17,823	122,914	0	11,923,218	
서울	2,891,806 -8,218	2,066,406 -7,492	805,772	1,198,018	4,811	0	1,426	6,881	0	2,016,908	
경기	1,792,128 -4,851	1,457,087 -4,662	687,985	696,582	6,547	0	2,995	13,770	0	1,407,879	
용인군	47,121 -140	38,496 -140	18,942	16,035	227	0	112	546	0	36,862	
이천군	48,696 -121	41,105 -120	22,045	16,288	246	0	114	633	0	39,326	
여주군	49,449 -121	40,944 -121	18,796	19,147	228	0	115	665	0	38,951	
양평군	60,261 -152	52,488 -152	26,244	22,214	304	0	169	929	0	49,860	
안성군	64,152 -154	52,680 -152	23,595	25,651	290	0	116	877	0	50,529	
평택군	99,590 -248	77,482 -237	38,095	36,226	352	0	126	676	0	75,475	

이라며 지지를 부탁하는 박정희는 수세적으로 보였다.

선거결과는 박정희의 박빙의 승리였다. 부정선거와 지역감정의 동원 등을 감안하면 승리라고 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곧이은 총선에서의 패배까지 겹쳐져 공화당 정권은 정권유지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경기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김대중에 대한 지지가 높았지만 용인 주변지역은 박정희를 지지하는 표가 더 많아 여권지지 성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8) 제8대 대통령 선거(1972. 12. 23)

1972년 11월 21일 확정된 유신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이 회의의 의장이었던 박정희는 단독출마하였다. 12월 23일 장충체육관에서 선거가 열렸고 대의원 2,359명 가운데 99.9%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제8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1972년 12월 15일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인총수는 15,802,435명이었는데 이 중에 투표인은 선거인총수의 70.4%인 10,283,79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6.9%인 9,960,601표가 유효표였다. 용인군에서는 총인구 99,166명 중 선거인수는 48,759명이었다. 이 중 투표자수는 선거인수의 77.8%인 37,950명이었다. 이는 전국의 투표율 70.3%에 비하면 7.5%나 높은 비율이다.

전국적인 대의원입후보자 등록상황을 보면, 마감일인 12월 2일까지 등록한 입후보자수는 총6,164명으로 이 중에 280명이 중도에 사퇴하고 8명이 등록무효가 되어서 실후보자수는 5,876명으로 줄어 들었다. 이 가운데서도 84개선거구의 89명이 무투표 당선자이고,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 다시 입후보사퇴자가 나와서 405명이 탈락하고 등록무효도 37건이 생겨 선거에 임한 후보자수는 모두 5,434명이 셈이다. 무투표당선도 206개 선거구에서 225명으로 늘어났다(1972년 12월 17일자 《조선일보》 참조).

용인군에서는 42명의 후보자가 나와서 평균 약 4:1의 경쟁률을 보

였다. 용인군 통일주체 국민회의대의원 당선자의 인적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본 적	주 소	학력 및 경력
용인	임승빈 (任承彬)	남	46	내사면 평창리243	용인면 김량장리 254번지	대졸, 교사3년, 건설업14년
포곡	홍종은 (洪鍾恩)	남	61	포곡면 전대리178	포곡면 전대리 178번지	국졸, 공무원6년, 사원10년
모현	정운구 (鄭運求)	남	43	모현면 갈담리521	모현면 갈담리 521번지	중졸, 면농협장4년
구성	윤용운 (尹龍雲)	남	58	구성면 청덕리268	구성면 청덕리 268번지	중졸, 공무원7년, 면농협장13년
수지	이원보 (李源輔)	남	37	수지면 풍덕천리165	수지면 풍덕천리 165번지	고졸, 농촌자원지도자13년
기흥	최명호 (崔明鎬)	남	61	기흥면 신갈리57	기흥면 신갈리 57번지	대졸, 공무원8년, 강사2년
남사	김진호 (金鎭鎬)	남	40	안성군 대덕면 보통리370	남사면 진목리 19번지	대중퇴, 공무원10년
이동	심현옥 (沈賢玉)	남	50	이동면 어비리691	이동면 송전 685번지	고졸, 공무원9년, 자문위원5년
원삼	허재욱 (許在旭)	남	40	원삼면 가좌리62	원삼면 가좌리 62번지	대졸, 농촌정책지도원3년
외사	김덕환 (金德煥)	남	46	외사면 박곡리260	외사면 백암리 426번지	국졸, 한의사14년, 자문위원2년
내사	류성수 (柳聲秀)	남	43	내사면 송문리297	내사면 송문리 355번지	고졸, 육군장교8년, 재향군인회분회장6년

\* 《용인군통계연보》, 1973~78년 및 《조선일보》, 1972년 12월 17일자 참조.

### 9) 제9대 대통령 선거(1978. 7. 6)

1978년 7월 6일 전대와 마찬가지로 장충체육관에서 선거를 치렀다. 재적대의원 2,581명 중 2,578명이 출석하여 2,577명의 찬성으로 당선되었다. 무효는 1표였다.

제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가 1978년 5월 18일에 실시되었다. 이번 대의원선거에는 전국 1,665개

선거구에서 처음에는 5,577명이 후보등록을 하여 평균 2.16: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으나 투표일 전날까지 125명이 사퇴하고 35명의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5,417명으로 줄어 2.09:1이 된 셈이다. 그 가운데는 제1대 대의원을 지낸 후보도 1,498명이 있어서 제1대의 전체 대의원 2,238명의 67%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상황을 보면 선거인이 2,304,247명이었는데, 이 중 236개 선거구의 선거인을 제외한 선거인수 16,877,089명의 79%인 13,323,758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이는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때보다 8.6%가 높은 편이다.

용인군은 11개 선거구에서 31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약 2.6:1의 경쟁을 보였다. 선거상황을 보면 총유권자 58,764명 중 48,958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투표율이 83.9%를 나타내어 전국 79%, 경기도 78.2%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용인군의 당선자 인적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선거구	성명	연령	직업	투표수	학력 및 경력	비고
용인	김정근(金正根)	48	의료업	2,787	서울대졸, 용인청년회의소회장, 금란섬유공업사대표	
용인	최영철(崔永喆)	54	상업	2,384	경성법정학교졸업, 육군중령예편, 한국반공연맹용인지부장	
포곡	진인기(陳寅基)	56	농업	1,361	김량장공립보통학교졸업, 면의용소방대장, 군행정자문위원	
모현	정재화(鄭在和)	38	양조업	1,344	성균관대중퇴, 용인경찰서자문위원,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이보길(李普吉)	41	농업	1,624	수원고교졸, 구성면사무소 근무	
수지	이원보(李源輔)	41	농업	2,748	수원농림고등학교졸업, 용인군농촌지도자연합회의장, 초대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재선
기흥	최명호(崔明鎬)	65	농업	1,955	보성전문중퇴, 기흥면장, 초대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재선
남사	김진호(金鎭鎬)	44	농업	2,436	홍익대학 3년수로, 지방공무원 9년, 초대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재선
이동	심현옥(沈賢玉)	54	양조업	무투표 당선	보인상업학교 졸업, 교통부근무, 초대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재선
원삼	임준혁(任俊赫)	41	농업	1,869	동국대학교 2년수로, 지방공무원 9년	
외사	최완영(崔完榮)	39	농업	2,667	서울대학교행정대학과 2년수로, 외사면개발자문위원	
내사	류성수(柳聲秀)	47	농업	2,098	서울공업고등학교졸업, 육군대위예편, 초대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재선

\* 통일주체국민회의, 《제2대 대의원명감》, 1979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3, 1980 및 1979년 5월 18일자 《조선일보》참조.

### 10) 제10대 대통령 선거(1979. 12. 6)

1979년 10월 26일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되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시나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었고 10대 대통령 선거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치르게 되었다. 1979년 12월 6일 최규하가 단독출마하여 찬성 2,465명, 무효 84명으로 당선되었다.

### 11) 제11대 대통령 선거(1980. 8. 27)

신군부 세력에 의한 12·12사태 이후 전두환이 국가보위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정권을 장악했고, 최규하는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소집되었고 전두환이 단독출마하였다. 1980년 8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출석 대의원 2,540명 가운데 2,524명의 찬성으로 당선되었다. 반대는 없었다.

### 12) 제12대 대통령 선거(1981. 2. 11)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해산되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투표하는 간접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1981년 2월 11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인 선거가 전국 11,61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총유권자 19,967,287명(무투표지역 유권자 976,747명 제외) 중 15,599,25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78.2%의 투표율을 나타내었다.

이 투표율은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때의 78.9%와 거의 같은 것이다(1981년 2월 12일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참조).

선거인단수는 5,278명인데, 후보자는 9,479명이 출마하여서 약 1.8:1의 비율을 보였다. 그 중에서 288명이 무투표당선자이다(《경기도



사)권2 참조). 용인군의 선거상황을 보면 총선거인수는 75,062명이었는데 투표자는 59,903명으로 78.8%의 투표율을 보였다. 용인군의 선거인단정수는 23명으로 45명의 후보자가 나와서 약 2:1의 비율을 보였다. 용인군 대통령선거인단 당선자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구명	소속정당	성명	주소	직업	성별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득표수
용인읍	민정	남중열(南重烈)	유방리 476-1번지	상업	남	36.10.5	중앙대학교	이장1년	2,093
	민정	박락환(朴樂煥)	김량장 103-3번지	상업	남	35.5.15	서울농대중퇴	요식업조합장	2,196
	민정	조원행(趙源行)	김량장리 254-98번지	상업	남	35.2.25	수원농고졸	공무원3년	2,039
포곡면	민정	채영묵(蔡榮默)	삼계리 466번지	농업	남	34.10.4	용인고중퇴	면의용소방대	2,197
	민정	권영주(權榮周)	둔전리 360번지	농업	남	35.1.25	태성고졸	이장2년	1,442
모현면	민정	임기현(林箕鉉)	일산리 210번지	농업	남	35.3.20	신생농고졸	군행정자문위원	1,312
	민정	변해봉(邊海鵬)	왕산리 789번지	농업	남	33.5.18	모현고졸	군정화위원	986
구성면	민정	한창수(韓昌洙)	상하리 114번지	농업	남	31.11.7	중앙대졸	군행정자문위원	1,697
	민정	김영식(金榮植)	마복리 515번지	농업	남	40.9.21	서울중앙고졸	이장4년	1,302
수지면	민정	심언목(沈彦睦)	이의리 116번지	농업	남	38.1.9	서울농대졸	공무원	1,419
	민정	한상진(韓相鎭)	하리 400번지	농업	남	51.1.4	중앙대졸	수지면예비군중대장	1,503
기흥면	민정	김학규(金學奎)	신갈리 63번지	상업	남	47.12.14	수원고졸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2,802
	민정	김용기(金龍基)	보라리 426-42번지	농업	남	32.2.9	수원농림고졸	용인단위 조합부참사	2,094
남사면	무	홍승혁(洪承赫)	아곡리 449번지	농업	남	43.10.19	수도공업초급대2년졸	남사국민학교사	1,097
	무	이찬재(李贊宰)	봉무리 36번지	농업	남	46.6.14	수원삼일고졸	남사에비군중대장	1,328
이동면	민정	홍신표(洪震杓)	송전리 592-10번지	상업	남	42.2.4	중앙대졸	약종상14년	1,902
	민정	홍희표(洪喜杓)	천리 237번지	농업	남	30.7.10	용인국졸	군행정자문위원	1,608
원삼면	민정	조만형(趙萬衡)	고당리 33-3번지	농업	남	35.3.14	동북고졸	원삼면예비군중대장	1,781
	민정	설상헌(薛相憲)	고당리 33-3번지	상업	남	19.5.10	동양의학전문사료	원삼면의회의원	1,042
외사면	민정	김덕환(金德煥)	백암리 426번지	한의	남	28.2.10	한의대졸	군행정자문위원	2,979
	민한	김영하(金永河)	近三面 834번지	건축업	남	28.4.1	한문수학2년	외사면의회의원	1,156
내사면	민정	이우은(李愚銀)	남곡리 344번지	농업	남	35.3.2	국민대2년중퇴	재향군인회용인분회이사	979
	민정	이윤영(李潤榮)	양지리 316-3번지	농업	남	38.11.15	덕수상고졸	내사면예비군중대장	965

\* 경기도,《대통령선거인 당선자 명부》1981 및 《중앙일보》,《동아일보》1981년 2월 12일자 및 《서울신문》1981년 2월 13일자 참조.

같은 해 2월 2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정당 전두환 후보가 4,755표를 획득, 7년 단임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밖에 민한당의 유치송 404표, 국민의당 김종철 85표, 민권당 김의택 26표였다.

### 13) 제13대 대통령 선거(1987. 12. 16)

1987년 '6월 항쟁' 결과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 임기도 5년단임제로 복귀되었다. 16년만의 직선제여서 의미가 깊은 선거였던 탓에 투표율도 매우 높았다. 전국적으로 89.2%에 달했다. 해방 이후 또

한번의 ‘정치열풍’ 이 분 썬이다.

민정당에서는 노태우가 후보로 나왔고, 야권은 오랜 진통 끝에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김영삼, 김대중이 모두 출마하였다. 노태우는 역대 당선자 중 가장 낮은 지지로 당선되었다. 이때부터 선거에서의 지역균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민주화 세력이 지지의 자원을 출신지역에 의존하게 되면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대신에 지역구도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경기지역은 서울에 비해 여당인 민정당 노태우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용인, 이천 등지도 이런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후보 순으로 지지한 것이다.

시도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민정당	민주당	평민당	공화당	사민당	일민당	한국당	무소속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홍승자	김선적	신정일	백기완			
계	25,127,158 -812,832	23,066,419 -826,191	8,282,738	6,337,581	6,113,375	1,823,067	0	0	46,650	0	22,603,411	463,008	2,060,739
서울	6,332,346 -154,-364	5,717,805 -151,426	1,682,824	1,637,347	1,833,010	460,988	0	0	4,560	0	5,618,729	99,076	614,541
경기	3,270,127 -82,427	2,962,014 -80,453	1,204,235	800,274	647,934	247,259	0	0	5,621	0	2,905,323	56,691	308,113
용인군	95,113 -1,971	85,543 -1,914	37,331	23,977	14,261	7,704	0	0	218	0	83,491	2,052	9,570
여주군	60,253 -1,983	54,863 -1,927	29,866	14,650	5,832	2,771	0	0	212	0	53,331	1,532	5,390
이천군	79,629 -2,310	73,782 -2,268	36,691	21,381	9,288	4,655	0	0	241	0	72,256	1,526	5,847
평택시	45,661 -1,495	42,364 -1,450	17,214	12,345	7,402	4,602	0	0	69	0	41,632	732	3,297
평택군	71,515 -2,121	65,087 -2,073	31,777	17,237	9,314	5,059	0	0	186	0	63,573	1,514	6,428
안성군	76,937 -2,992	71,450 -2,831	35,162	20,070	9,110	5,163	0	0	252	0	69,757	1,693	5,487

14) 제14대 대통령 선거(1992. 12. 18)

14대 대통령 선거는 30여년만에 민간인 대통령을 뽑는 역사성이

있었다. 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생긴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 민주당의 김대중, 국민당의 정주영, 새한당의 이종찬, 신정당의 박찬중 등이 출마했다. 서울에서 야당이 우세, 경기에서 여당이 약간 우세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 인상적인 것은 경기지역에서 기업인 출신 정주영에 대한 지지가 꽤 높다는 것이다. 김대중에 육박하거나 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용인은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순으로 일반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시도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민자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국민당 정주영	새한국당 이종찬	신정당 박찬중	정의당 이병호	무소속 김옥선	무소속 백기완			
계	28,676,547 -746,111	24,095,170 -713,736	9,977,332	8,041,284	3,880,067	0	1,516,047	35,739	86,292	238,648	23,775,409	319,761	4,581,377
서울	7,235,830 -158,724	6,021,311 -154,293	2,167,298	2,246,636	1,070,629	0	381,535	4,797	13,098	67,784	5,951,777	69,534	1,214,519
경기	4,270,726 -83,545	3,502,774 -80,134	1,254,025	1,103,498	798,356	0	239,140	6,299	13,685	36,392	3,451,395	51,379	767,952
용인군	116,272 -2,449	95,175 -2,333	34,577	25,552	25,043	0	6,534	242	535	1,100	93,583	1,592	21,097
여주군	62,382 -1,523	51,498 -1,427	18,634	12,503	14,922	0	3,204	215	280	752	50,510	988	10,884
이천군	93,361 -1,951	78,302 -1,863	27,852	15,266	27,850	0	4,601	248	368	868	77,053	1,249	15,059
안성군	78,926 -2,064	66,090 -1,979	25,018	16,937	17,368	0	4,169	237	435	644	64,808	1,282	12,836
평택시	56,764	46,189	17,247	12,287	11,526	0	3,678	90	200	467	45,495	694	10,575
평택군	74,045 -1,970	61,219 -1,873	20,568	17,546	17,042	0	3,799	172	327	631	60,085	1,134	12,826

## 15) 제15대 대통령 선거(1997. 12. 18)

14대 선거가 최초의 민선정부의 의의가 있다면 15대는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의의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여당인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는 최초의 여당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되어 높은 지지를 받으

며 선거운동을 시작했지만,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에 시달리며 점차 쇠락해갔다. 게다가 외환위기로 인한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 이인제의 경선불복과 대선출마 등의 악재가 겹치며 정계에 복귀한 김대중에게 39만여표 차로 졌다. 경기지역에서도 김대중에 대한 지지가 이회창보다 약간 높았는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용인주변지역에서 이인제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는 점이다.

시도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국민승리21	공화당	바른정치	한국당	계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	허경영	김한식	신정일			
계	32,290,416	26,042,633	9,935,718	10,326,275	4,925,591	306,026	39,055	48,717	61,056	25,642,438	400,195	6,247,783
	-80,130	-775,458										
서울	7,358,547	5,926,743	2,394,309	2,627,308	747,856	65,656	5,432	8,978	5,234	5,854,773	71,970	1,431,804
	-176,163	-172,450										
경기	5,707,087	4,600,005	1,612,108	1,781,577	1,071,704	47,608	7,077	8,035	7,415	4,535,524	64,481	1,107,082
	-115,163	-111,459										
용인시	201,487	159,750	53,141	57,844	43,985	1,412	320	319	307	157,328	2,422	41,737
	-3,885	-3,776										
이천시	115,312	90,750	27,314	27,099	33,487	860	207	168	264	89,399	1,351	24,562
	-2,261	-2,177										
안성군	90,028	72,252	21,908	24,995	22,558	716	210	204	269	70,860	1,392	17,776
	-1,957	-1,895										
평택시갑	112,008	89,333	22,470	33,378	25,211	1,481	173	162	157	88,032	1,301	22,676
	-2,038	-1,959										
평택시을	125,297	100,120	31,407	36,796	27,389	2,352	222	219	224	98,609	1,511	25,177
	-2,888	-2,781										
여주군	70,436	55,399	16,079	14,867	22,272	443	199	125	243	54,228	1,171	15,037
	-1,655	-1,605										

## 2. 국회의원 선거

### 1) 제1대 국회의원 총선거(1948. 5. 10)

단일민족국가 성립이 좌절되고 남측에서만 유엔의 관리 아래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좌익계와 남북협상파가 불참한 가운데 치러졌지만 선거인명부에 자진등록한 사람은 전체 유권자의 96%를 상회했다. 전국 200개의 선거구에서 49개 정당 및 사회단체에서 948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결과는 무소속이 전체 당선자의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용인군이 속한 선거구에서는 출마자 전원이 무소속이라 이채롭다. 이 선거에서는 민경식이 당선되었다.

선거구명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제23선거구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37,131	-	0
	유기수	박영조	민경식			
	12,870	1,793	22,468			

## 2)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1950. 5. 30)

제헌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이라 1950년에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제헌국회의원 선거가 미군정 하에서 치러진 걸 감안하면 한국 정부에서 치러진 최초의 선거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40개 정당, 사회단체에서 2,209명의 후보가 난립했고 무소속이 전체 당선자의 60%에 육박했다. 용인군이 속한 경기 제15선거구에서는 민국당 민경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소속 출마자였고, 유기수가 당선되었다.

선거구명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제15선거구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민국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38,126	-	0
	유기수	목성표	정기섭	구철회	신용철	민경식	장기용	최인술			
	8,649	8,578	2,276	6,758	5,243	4,451	1,789	382			

## 3) 제3대 국회의원 총선거(1954. 5. 20)

3대 총선에 들어 집권당인 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국당이 각각 자당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천제도를 도입했다. 정당제도가 진일보한 것이다. 선거결과는 자유당 114석, 민국당 15석, 무소속 67석이었

다. 용인군이 속한 14선거구에서도 자유당의 공천을 받은 신의식이 당선되었다.

선거구명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제14선거구	무소속	자유당	무소속	무소속	38,676	-	0
	목성표	신의식	구철회	손주석			
	5,933	18,345	13,691	707			

#### 4) 제4대 국회의원 총선거(1958. 5. 02)

1952년 ‘발췌개헌안’은 국회를 양원으로 나누도록 해 민의원과 참의원 각각에 대한 투표를 하도록 했다. 4대 총선에서 참의원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선거과정에서는 유례없는 부정이 횡행하여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10건을 넘었다. 선거결과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하면서 명실상부한 야당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으며, 양당제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용인군이 속한 선거구에서도 재선을 노리는 신의식을 누르고 민주당 구철회가 당선되었다.

선거구명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자유당	민주당	계		
제14선거구	자유당	민주당	40,939	-	0
	신의식	구철회			
	18,876	22,063			

#### 5) 제5대 국회의원 총선거(1960. 7. 29)

4·19로 제1공화국이 해체되고 과도정부 하에서 실시되었다. 이번에는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모두 치러졌다.

민议원의 경우 민주당이 총 의석수 233석 중 175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고, 자유당은 2석에 그쳐 대조적이었다. 혁신계의 사회대중당이 4석, 무소속이 49석. 용인이 속한 15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김윤식이 당선되었다.

참의원 선거의 경우, 도단위로 의원정수를 2~8명으로 하는 대선

거구제여서 입후보자는 최소 7명에서 34명까지 나왔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기호 1번이 당선되어 정치의식을 엿보게 한다. 경기도에서는 1부, 2부로 나뉘어 정원이 6명이었는데, 20명이 출마해 각축을 벌였다.

○ 당선자

제1부: 여운홍, 정낙필, 신의식/ 제2부: 김용성, 이교선, 하상훈

선거구명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제15 선거구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41,857	-	0
	유기수	목성균	백홍기	최규현	조성우	이원균	신용철	유철수	정해적	이상범			
	8,649	6,881	4,319	940	6,616	1,780	6,309	2,027	4,158	1,084			

## 6) 제6대 국회의원 총선거(1963. 11. 26)

쿠데타로 집권한 군정은 민정체제 전환을 원하는 여론에 못이겨 1963년 일련의 법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한다. 이때 전국구를 두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에 비해 낮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는 무엇보다 정치활동이 극도로 억압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용인과 안성이 합쳐져 경기 제8지역구를 이뤘는데, 공화당의 공천을 받은 서상린이 당선되었다.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제 8 지역구	122,148	90,278 -3,555	자민당	국민의당	민주당	민정당	추풍회	공화당	76,364	13,914	31,870
			최봉관	이교선	김윤식	유광준	오재영	서상린			
			1,965	15,309	15,096	4,676	12,543	26,775			

## 7)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1967. 6. 08)

집권당인 공화당은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를 내세웠고, 신민당을 비

롯한 야권은 민주주의 훼손, 굴욕적 한일국교정상화, 월남전 파병문제, 부정부패, 불균형적 성장 등을 들고 나왔다.

선거결과 공화당은 50% 이상을 득표하여 전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다수당의 위치를 굳혔다. 경기 제8지역구에서는 서상린이 재선되었다.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자유당	민중당	정의당	신민당	공화당	한독당			
제 8 지역구			자유당 신익식	민중당 이재우	정의당 최봉관	신민당 강희갑	공화당 서상린	한독당 조재형			
	122,557	101,363 -5,011	9,674	1,386	2,010	13,839	65,108	1,458	93,475	7,888	24,194

### 8) 제8대 국회의원 총선거(1971. 5. 25)

8대 선거들어 전체 투표율 중 유효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해 최고치를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신민당이 주목할만한 도약을 보여주었다. 전체 의석의 43.6%를 차지하였는데 집권당의 조직력, 물력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승리나 다름없었다.

용인·안성은 제9지역구로 변경되었는데, 서상린이 다시 당선되었다. 하지만 전번 선거에 비해 차점자와의 격차가 매우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민주공화당	신민당	국민당			
제9지역구			민주공화당 서상린	신민당 조종익	국민당 장용선			
	115,038	86,007 -3,503	42,717	38,377	545	81,639	4,368	29,031

### 9) 제9대 국회의원 총선거(1973. 2. 27)

유신헌법 하에서 치러졌다. 71년 선거에서 위협을 느낀 집권세력은 선거구 1곳에서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제도를 바꾸었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 219명 중 73명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게 하고 이들을 '유신정우회'라 불렀다.

용인군은 평택, 안성과 함께 경기 제5선거구로 재배치되었는데, 이번에는 서상린 후보가 낙선하고 민주당의 유치송이 당선되었다.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제 5 선거구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무소속	무소속			
			서상린	유치송	유택형	서성태	이윤용			
	212,809	162,051	51,134	64,895	19,638	9,646	14,661	159,974	2,077	50,758
	-5,777	-2,636								

### 10)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1978. 12. 12)

9대 선거와 비슷한 제도로 치러졌다. 선거결과 유정희 의원을 제외하면 공화당은 61석을 얻은 신민당에 불과 7석 앞섰다. 득표율에서는 오히려 신민당이 1%가량 앞섰다. 독재가 오래 지속되면서 피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셈이었다.

신민당 유치송이 다시 당선되었다. 용인지역에 국한시켜보면 유치송과 서상린에 대한 지지가 엇비슷했다.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제5선거구			민주공화당	신민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서상린	유치송	정진환	조종익	한민수	한재은			
	276,808	201,583	52,197	71,267	26,755	19,022	24,014	5,746	199,001	2,582	75,225

### 11)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1981. 3. 25)

1979년 '10·26사태'와 뒤이은 신군부의 등장이 있었다. 제5공화국 아래서 치러진 첫 총선거였다. 지역구·전국구 제도와 함께 지역구마다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용인은 이천, 여주와 함께 묶여 경기 제9지역구에 속하게 되었다. 민정당 정동성, 민한당 조종익이 1, 2위를 차지해 당선되었다. 용인지역은 이천, 여주에

비해 조종익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제9선거구			민사당	민정당	민한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찬구	정동성	조종익	윤성만	이재영	금병훈		
			193,253	154,883	17,912	58,322	26,408	15,034		

### 12)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1985. 2. 12)

이번 선거에서는 신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정권의 ‘유화조치’로 해금된 정치인들이 신민당을 결성했고, 창당한지 한달도 안 돼 치른 선거에서 30% 가까운 득표율로 확고한 제1당의 자리에 올라섰다. 경기 제7지역구에서는 정동성, 조종익이 재선되어 신민당 돌풍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용인군의 경우 국민당 박창희에 대한 지지가 유독 높아 이채롭다.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여주군			국민당	민정당	신민당	민한당			
이천군			박창희	정동성	구재춘	조종익			
용인군			221,121	186,290	23,530	84,862			28,578

### 13)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1988. 4. 26)

87년 ‘6월 항쟁’의 결과 직선제 투표를 통해 6공화국이 들어섰다. 새로운 선거법에서는 지역구·전국구 제도는 유지하면서 지역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했다.

선거결과 집권 민정당은 34%에 못미치는 득표율로 과반 획득에 실패하여 ‘여소야대’ 정국이 구성되었다. 또한 민정당은 대구·경북, 민주당은 부산·경남, 평민당은 광주·전북·전남, 공화당은 충남 지역의 의석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지역에 기반한 정당체제가 뚜

렸이 나타났다.

단일 선거구가 된 용인군에서 민정당 이웅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민정당 이웅희	민주당 조종익	공화당 박창희			
용인군	96,778 -1,666	72,282 -1,633	30,127	24,029	17,206	71,362	920	24,496

#### 14)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1992. 3. 24)

민정당, 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간의 '3당합당' 있는 후 치러진 선거이다. 민주자유당은 과반수에 하나 모자란 의석을 차지하여 '여소야대' 상황이 재연되었다. 용인에서는 이웅희 후보가 재선을 노리고 전국구 의원 출신의 김정길과 신예 나진우가 출마하였다. 결과는 이웅희의 승리였다.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민자당 이웅희	민주당 나진우	무소속 김정길			
용인군	114,312	83,765	31,457	21,885	29,077	82,419	1,346	30,547

#### 15)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1996. 4. 11)

집권 신한국당은 과반수에 11석이 모자라는 139석을 얻어 '여소야대'가 이어졌다.

이번에 용인은 시로 승격된 후 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14대 출마자 전원에 자민련에서 김학규가 출마하여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이웅희는 또다시 당선되었지만 김학규, 김정길에게 근소한 차의 승리였다. 투표율이 54% 대로 낮은 것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그만큼 변화에 대한 기대가 적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용인시			이용희	김정길	나진우	김학규			
	167,348	103,710	30,826	28,236	12,599	29,227	100,888	2,822	
	-3,242	-3,023						63,638	

### 16)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2000. 4. 13)

16대 총선은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천·낙선 운동으로 큰 파장이 있었다. 투표율도 57%에 머물렀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한나라당이 133석을 얻어 과반수에 4석 모자란 위치에 올라섰다. 민주당 115석, 자민련 17석, 민국당 2석, 한국신당 1석, 무소속 5석.

용인은 동부지역인 포곡면,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과 중앙동, 동부동, 역삼동, 유림동을 묶어 갑(甲) 선거구로 하고, 기흥읍, 구성면, 수지출장소를 묶어 을(乙) 선거구로 하였다.

갑구에서는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남궁석이 민주당으로 나왔고,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다 밀려난 홍재구는 자민련으로 출마했다. 한나라당은 이용희 지구당 위원장이 탈당하면서 박승웅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 출마하게 됐다. 선거결과 남궁석이 무난히 당선되었다. 을구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2파전 양상이 뚜렷했고, 민주당 김윤수가 당선되었다.

## 3.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의회선거

### 1) 제1차 지방자치단체 선거

#### (1) 면의회의원 선거

1952년 4월 25일 용인군 12개면 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는 이날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선출된 각 면의원은 다음과 같다.

### ① 용인면의회

성명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조성우(趙成雨)	54	상업	중대 중퇴	무소속
남상학(南相學)	34	공업	정미업	무소속
이상범(李尙範)	49	농업	면서기	국민회
이희식(李晦植)	54	상업	소학교졸	한청
신현택(申鉉澤)	47	농업	영농	한청
나복용(羅福龍)	44	상업	세무서	무소속

성명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허균(許均)	48	농업	식량서기	국민회
송요동(宋堯童)	35	농업	면서기	무소속
이학린(李學麟)	47	상업	법전졸	무소속
김갑선(金甲善)	55	상업	약종상	무소속
민세식(閔世植)	58	농업	영농	한청
김희춘(金熙春)	33	농업	영농	한청
김현봉(金顯鳳)	48	농업	면서기	한청

### ② 기흥면의회

성명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김원규(金元圭)	49	농업	영농	무소속
김학천(金學天)	44	농업	회사원	국민회
최명호(崔明鎬)	46	농업	보전졸	무소속
이종영(李鍾英)	33	농업	중졸	자유당
이영식(李榮植)	28	농업	영농	국민회
김성규(金成圭)	28	농업	영농	국민회
김영기(金英基)	51	농업	중졸	무소속
조성진(趙成震)	49	농업	중졸	무소속
오항영(吳恒泳)	37	농업	명대졸	한청
이학규(李鶴珪)	33	농업	영농	무소속
황윤기(黃潤基)	35	농업	영농	무소속
금병의(琴秉義)	45	농업	영농	한청

③ 포곡면의회

성명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이기련(李起連)	51	농업	농회기수	한청
박용대(朴容大)	26	농업	영농	무소속
김항근(金恒根)	38	농업	영농	무소속
이석주(李錫柱)	26	농업	영농	무소속
이근성(李根成)	50	농업	부면장	한청
심우승(沈愚承)	42	농업	부면장	무소속
이현구(李賢求)	47	농업	영농	무소속
이완동(李浣東)	55	농업	영농	무소속
이건충(李建忠)	58	농업	영농	한청
이원경(李源庚)	33	농업	면서기	국민회
이선상(李善相)	48	농업	영농	한청

④ 모현면의회

성명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이홍렬(李洪烈)	44	농업	영농	자유당
백춘기(白春基)	30	농업	영농	무소속
신희삼(申熙三)	32	농업	영농	국민회
이학권(李學權)	36	농업	영농	국민회
정창영(鄭昌泳)	47	농업	영농	무소속
이중희(李重熙)	49	농업	군고원	무소속
남규원(南圭元)	31	농업	중졸	한청
이병규(李秉珪)	52	농업	중졸	한청
한은성(韓銀成)	46	농업	영농	한청
오성춘(吳盛春)	45	농업	영농	한청
원보의(元輔義)	27	농업	영농	무소속

⑤ 구성면의회

성명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김경문(金慶文)	39	농업	영농	무소속
문삼선(文三善)	44	농업	면협의회원	무소속
최병상(崔秉相)	56	농업	중졸	무소속
서인수(徐仁壽)	42	농업	전문졸	무소속
강주봉(姜周奉)	39	농업	면서기	한청
박래기(朴來基)	36	농업	면서기	무소속
한석면(韓錫冕)	41	농업	면협의회원	무소속

성명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박영현(朴永軒)	30	농업	영농	무소속
이영순(李泳淳)	39	농업	영농	국민회
노안당(盧安堂)	38	농업	영농	무소속
이항묵(李恒默)	41	농업	영농	자유당
이윤진(李允鎭)	34	농업	면장	무소속

## ⑥ 수지면의회

성명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한용석(韓龍錫)	54	농업	농회기수	무소속
이풍상(李諷相)	54	농업	영농	한청
장기관(張基寬)	39	농업	영농	무소속
이형구(李亨九)	44	농업	영농	한청
박인영(朴麟泳)	33	농업	영농	무소속
이선각(李善珪)	48	농업	면서기	무소속
권태용(權泰用)	41	농업	영농	국민회
이원천(李源天)	43	농업	영농	한청
김완묵(金完默)	46	농업	종졸	무소속
심진택(沈震澤)	27	농업	종졸	무소속
한영수(韓榮洙)	48	농업	면서기	한청

## ⑦ 남사면의회

성명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구만회(具萬會)	33	농업	영농	국민회
한청석(韓昌錫)	44	농업	영농	한청
노재훈(盧載勳)	59	농업	면서기	국민회
류근영(柳根英)	56	농업	영농	국민회
한재석(韓載錫)	56	농업	영농	한청
김형식(金亨植)	53	농업	영농	한청
구준서(具俊書)	40	농업	영농	국민회
최영원(崔泳院)	46	농업	영농	한청
박종목(朴鍾穆)	41	농업	영농	한청
진복흥(陳福興)	42	농업	영농	무소속
김영식(金英植)	57	농업	종졸	한청
박세영(朴世永)	49	농업	종졸	한청

⑧ 이동면의회

성명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어관우(魚寬愚)	46	농업	영농	한청
송학식(宋學植)	45	농업	면서기	한청
여운학(呂運鶴)	35	농업	영농	무소속
심응봉(沈應鳳)	38	농업	양조업	무소속
김진규(金振珪)	39	농업	중졸	국민회
이오성(李昨性)	51	농업	영농	한청
목흥균(睦興均)	41	농업	면서기	무소속
류중주(柳鍾周)	48	농업	영농	한청
이현태(李鉉泰)	44	농업	경농졸	무소속
박승규(朴勝奎)	20	농업	영농	무소속
박용원(朴容遠)	42	농업	국교장	한청
신순봉(申舜鳳)	42	농업	영농	국민회

⑨ 고삼면의회

성명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한동준(韓東峻)	50	농업	중졸	한청
김석렬(金錫烈)	49	도정업	중졸	무소속
최재형(崔載亨)	33	무직	중졸	무소속
윤 헌(尹 憲)	49	농업	중졸	한청
최승철(崔承哲)	52	농업	면서기	국민회
조제원(趙濟源)	44	농업	소학교졸	국민회
안춘택(安春澤)	43	인쇄업	소학교졸	무소속
이문주(李文周)	47	농업	소학교졸	국민회
류해옥(柳海玉)	41	농업	중졸	한청
김기경(金己慶)	52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⑩ 원삼면의회

성명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목성균(睦聖均)	58	농업	중졸	한청
이관희(李寬會)	28	농업	면협의회	무소속
윤기모(尹起模)	48	농업	영농	한청
송윤식(宋允植)	48	농업	영농	국민회
목은상(睦殷相)	50	농업	영농	한청
민병훈(閔丙勳)	52	농업	소학교졸	무소속
허 숙(許 熟)	40	농업	면서기	무소속



성명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송준식(宋峻植)	42	농업	소학교졸	무소속
오덕영(吳德泳)	48	농업	소학교졸	무소속
오형근(吳亨根)	52	농업	면서기	한청
오효영(吳孝泳)	30	농업	소학교졸	무소속
최종악(崔鍾岳)	35	농업	회사중역	무소속

## ⑪ 의사면의회

성명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윤사희(尹士熙)	37	농업	소학교졸, 소방대장	한청
이동찬(李東燦)	52	농업	소학교졸, 구장	국민회
고성희(高聖儀)	41	농업	중졸, 면서기	한청
이종섭(李鍾燮)	44	농업	소방대장	국민회
백흥기(白興基)	55	농업	경농졸, 산림기사	무소속
강석영(姜錫英)	44	농업	세무서	국민회
신태원(新泰元)	21	농업	소학교졸, 구장	국민회
황동하(黃東夏)	43	농업	소학교졸, 구장	국민회
박한흥(朴漢興)	57	농업	소학교졸, 면서기	한청
구태회(具泰會)	42	농업	농림졸, 수조서기	한청
박한기(朴漢綺)	47	농업	소학교졸, 구장	한청
정은용(鄭殷容)	45	농업	소학교졸, 반민특위부장	한청
임헌규(林憲圭)	44	농업	소학교졸, 청년단장	자유당

## ⑫ 내사면의회

성명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이병민(李丙玟)	44	농업	면서기	한청
류기준(柳基俊)	45	농업	면서기	무소속
한영규(韓榮圭)	45	농업	영농	무소속
이영희(李英熙)	49	농업	소학교졸	한청
고제은(高濟殷)	49	농업	소학교졸	한청
임석빈(林碩彬)	50	농업	영농	무소속
송기현(宋綺憲)	41	농업	중졸	한청
임성도(林性道)	56	농업	전문졸	한청
최기성(崔基星)	44	농업	부면장	무소속
송계영(宋啓榮)	38	농업	순경	무소속
구자덕(具滋德)	50	농업	면서기	자유당

\* 위의 자료는 전국지방의원명감편 회편, 《전국지방의원명감》, 1953에서 발췌.

## (2) 도의회의원 선거

1952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와 9개도 중 2개도(경기도, 강원도)를 제외한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에서 처음으로 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인명부 등재자는 당해구역의 인구 14,836,791명의 43%에 해당하는 6,358,383명이었으며, 투표자수는 선거인 총수의 81%에 해당하는 5,165,226명이었고 유효투표는 총투표자수의 97%에 해당하는 5,013,524표였다.

## 2) 제2차 지방자치단체 선거

### (1) 면장 선거

1956년 8월 2일 용인군 12개면 면장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이날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 시·읍·면장선거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당선된 용인군 각 면 면장은 다음과 같다.

용인면면장 최영진	고삼면면장 한동준
기흥면면장 오환영	모현면면장 이홍렬
내사면면장 임현규	이동면면장 이도영
수지면면장 이영수	포곡면면장 심우승
원삼면면장 오준영	남사면면장 구자철
구성면면장 박래기	외사면면장 최기성

\*《합동연감》, 합동통신사, 1959 참조

### (2) 면의회의원 선거

1956년 8월 8일 용인군 12개면 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이날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① 용인면 의회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김학천(金學天)	남	27	농업	대학졸, 교원	무소속
남운희(南雲熙)	남	31	상업	소학교졸, 상업	무소속
이조령(李祖寧)	남	44	농업	소학교졸, 공무원	
김희춘(金熙春)	남	42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국민회
이희식(李晦植)	남	36	상업	면의원	민주당
허정경(許正慶)	남	44	농업	소학교졸, 상업	민주당
민세식(閔世植)	남	30	농업	중졸, 면의원	민주당
남순우(南舜祐)	남	37	농업	중졸, 공무원	자유당
최창재(崔昌載)	남	34	인쇄업	중졸, 상업	무소속
박낙출(朴樂出)	남	37	농업	중졸, 운수업	무소속
박규남(朴圭南)	남	45	농업	중졸, 상업	무소속
음석준(陰石俊)	남	62	농업	중졸, 공무원	자유당

## ② 기흥면의회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이민영(李敏榮)	남	52	농업	고졸, 면의원	자유당
김성규(金成圭)	남	60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자유당
박정구(朴鼎九)	남	35	농업	중중퇴, 회사원	자유당
최명호(崔明鎬)	남	44	농업	전졸, 면의원	자유당
맹두섭(孟斗燮)	남	46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자유당
박도순(朴道淳)	남	52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자유당
김영기(金英基)	남	39	농업	고졸, 면의원	자유당
장기관(張基寬)	남	51	상업	소학교졸, 상업20년	
김낙영(金洛泳)	남	40	농업	소학교졸, 상업20년	자유당
유찬목(俞贊穆)	남	56	농업	국해, 상업20년	자유당
박린영(朴麟泳)	남	57	농업	한수	자유당
윤인혁(尹仁赫)	남	47	농업	한수	자유당
이쾌균(李快均)	남	56	농업	한수	자유당
김동수(金東洙)	남	47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김경회(金慶會)	남	47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심관택(沈觀澤)	남	55	농업	중졸, 부면장1년	자유당

③ 포곡면의회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박용대(朴容大)	남	64	농업	한수, 면의원	자유당
김항근(金恒根)	남	52	농업	한수, 면의원	자유당
이석주(李錫柱)	남	61	농업	한수, 면의원	자유당
이기연(李起連)	남	39	농업	소학교졸, 공무원, 면의원	자유당
정상보(鄭尙溥)	남	37	농업	중중퇴, 이장6년	자유당
이근성(李根成)	남	40	농업	소학교졸, 공무원, 면의원	자유당
이현구(李賢求)	남	43	농업	소학교졸, 이장, 면의원	자유당
정연호(鄭然鎬)	남	42	농업	중중퇴, 면의원	자유당
이찬영(李燦榮)	남	34	농업	소학교졸, 이장10년	자유당
이건원(李建元)	남	41	농업	한수	자유당
이선상(李善相)	남	41	농업	한수, 면의원	자유당

④ 모현면의회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이학권(李學權)	남	54	농업	한수, 면의원	자유당
백춘기(白春基)	남	60	농업	한수, 면의원	자유당
이홍렬(李洪烈)	남	49	농업	한수, 면의원	자유당
이중혁(李鍾赫)	남	53	농업	중졸, 면자유당위원장	자유당
신희삼(申熙三)	남	58	농업	한수, 면의원	자유당
이완희(李完熙)	남	43	농업	소학교졸, 면서기8년	자유당
정봉해(鄭鳳海)	남	39	농업	소학교졸, 이장	자유당
이중희(李重熙)	남	41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자유당
강훈식(姜勳植)	남	47	농업	소학교졸, 면이장	자유당
정연실(鄭然高)	남	37	농업	소학교졸, 면서기3년	자유당
오성춘(吳盛春)	남	45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자유당

⑤ 구성면의회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오유환(吳有煥)	남	53	대서업	소학교졸, 면서기	자유당
이윤진(李允鎭)	남	56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자유당
김교철(金敎哲)	남	34	농업	소학교졸, 면서기2년	국민회
김형원(金炯元)	남	31	농업	소학교졸, 면서기2년	무소속
김경문(金慶文)	남	50	농업	면의원	자유당
이순철(李順哲)	남	41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공석근(孔錫根)	남	58	농업	소학교졸, 면서기	자유당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이항묵(李恒默)	남	49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무소속
한석면(韓錫冕)	남	49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자유당
심협중(沈協鍾)	남	43	농업	소학교졸, 면서기, 순경	무소속
박영현(朴永軒)	남	57	농업	면의원	자유당

## ⑥ 수지면의회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이풍상(李諷相)	남	36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자유당
안민수(安菴洙)	남	42	농업	한수	자유당
조철원(趙喆元)	남	41	농업	고졸, 이장2년	자유당
이학규(李鶴珪)	남	57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자유당
황대기(黃大基)	남	45	농업	중졸, 농업기술원	자유당
금세영(琴世永)	남	40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2년	자유당

## ⑦ 남사면의회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류진영(柳鎭永)	남	39	농업	소학교졸, 경찰 7년	무소속
노재훈(盧載勳)	남	31	농업	중중퇴, 면의원	무소속
조병두(趙炳斗)	남	27	농업	중졸, 영농	자유당
구자욱(具滋郁)	남	33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민주당
최영국(崔泳國)	남	42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이치복(李致馥)	남	54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구연벽(具然璧)	남	49	농업	중졸, 경찰1년	자유당
서규석(徐奎錫)	남	33	농업	소학교졸	무소속
김준식(金俊植)	남	41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박세영(朴世永)	남	41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자유당
장태영(張泰榮)	남	52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 ⑧ 이동면의회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어관우(魚寬愚)	남	44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자유당
여운학(呂運鶴)	남	55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자유당
김진규(金振珪)	남	51	농업	중졸, 면의원	자유당
이오성(李晔性)	남	39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자유당
송학식(宋學植)	남	45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무소속
이현태(李鉉泰)	남	46	농업	중졸, 면의원	자유당
목흥균(睦興均)	남	49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무소속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류중주(柳鍾周)	남	42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자유당
박승규(朴勝奎)	남	71	농업	중졸, 면의원	자유당
신무봉(申舞鳳)	남	48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자유당
박용원(朴容遠)	남	48	농업	중졸, 면의원	자유당

⑨ 고삼면의회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안기승(安琦承)	남	62	농업	중졸, 공무원	자유당
최재형(崔載亨)	남	57	농업	중졸, 공무원, 면의원	자유당
한일환(韓一煥)	남	47	농업	한수	자유당
조철제(趙喆濟)	남	47	농업	소학교졸, 상업	자유당
윤정헌(尹正憲)	남	44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김동식(金東植)	남	42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김기경(金己慶)	남	48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조예제(趙禮濟)	남	44	농업	소학교졸, 공무원5년	자유당
이문주(李文周)	남	43	농업	한수, 면의원	자유당
오경환(吳慶煥)	남	42	농업	대졸, 공무원4년	자유당
이병상(李秉常)	남	39	농업	소학교졸, 회원4년	자유당

⑩ 원삼면의회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한영원(韓永源)	남	41	농업	소학교졸, 이장	자유당
오진영(吳珍泳)	남	39	농업	소학교졸, 이장	자유당
염인호(廉仁鎬)	남	40	농업	소학교졸, 이장2년	자유당
윤기모(尹起模)	남	47	농업	소학교졸, 이장, 면의원	자유당
박해정(朴海晶)	남	49	농업	소학교졸, 이장2년	무소속
송준식(宋尊植)	남	48	농업	소학교졸, 이장, 면의원	자유당
최종악(崔鍾岳)	남	55	농업	전졸, 검찰, 상업	자유당
송찬규(宋燦奎)	남	44	농업	소학교졸, 면서기, 이장	자유당
오형근(吳亨根)	남	38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이장	자유당
오효영(吳孝泳)	남	56	농업	국해 면의원, 이장	자유당
오덕영(吳德泳)	남	62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이장	국민회

⑪ 의사면의회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윤사희(尹士熙)	남	52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함승길(咸承吉)	남	41	농업	소학교졸, 공무원	민주당
전봉근(全鳳根)	남	33	상업	소학교졸, 상업	자유당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박병린(朴炳麟)	남	31	농업	소학교졸	전우회
이동찬(李東燦)	남	39	농업	소학교졸	국민당
황동하(黃東夏)	남	47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박상홍(朴相弘)	남	32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이종헌(李鍾憲)	남	37	농업	소학교졸, 공무원6년	
박한정(朴漢楨)	남	38	농업	소학교졸	농민회
정찬근(鄭瓚根)	남	36	농업	소학교졸, 정미업	자유당
강호성(姜虎成)	남	39	농업	중졸	자유당
이순회(李順會)	남	39	농업	중졸, 상업10년	자유당
안지형(安址炯)	남	24			
박완선(朴完善)	남	43			
이규봉(李圭鳳)	남	36			
박재원(朴在遠)	남	42			

## ⑫ 내사면의회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
김진수(金振洙)	남	39	농업	소학교졸, 구장10년	자유당
이병민(李秉玟)	남	46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이장	무소속
류기준(柳基俊)	남	45	농업	소학교졸, 구장, 면의원	자유당
박기창(朴基昌)	남	42	농업	소학교졸, 소방대장	자유당
유병철(俞秉哲)	남	41	농업	소학교졸, 면서기	무소속
김정필(金正弼)	남	61	농업	소학교졸, 소방대장	자유당
이영희(李英熙)	남	41	농업	중졸, 기수, 면의원	무소속
이선구(李宣九)	남	47	농업	중졸, 이장	자유당
김동일(金東一)	남	41	농업	소학교졸, 이장	자유당
박성도(朴性道)	남	37	승려	전졸, 면의원	자유당
류석형(柳錫馨)	남	63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 이관진·이영두, 《지방의원명감》, 1952 및 합동통신사, 《합동연감》, 1960 참조

## (3) 도의회의원 선거

1956년 8월 13일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날 「수복지구임시정부조치법」에 의하여 경기도 여천군, 강원도 철원군, 금화군, 양구군, 이제군, 고성군, 양양군의 8개 군과 선거를 연기한 경기도 용진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 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용인군 선거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당시 출마하여 당선한 나

복룡의 증언에 의하면 용인군을 1·2구로 나누어서 1구에 1명씩 선출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1구는 용인·수지·기흥·구성·포곡·모현면, 2구는 남사·내사·외사·원삼·이동·고삼면이었다고 한다.

당시 입후보 상황을 보면 제1선거구에서 2명이 출마하였고, 제2선거구에서는 3명이 출마하여 경쟁한 결과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나복룡후보가 9,447표로 당선되었고, 제2선거구에서는 김정순후보가 자유당으로 출마하여 9,925표로 당선되었다.

각 후보자별 인적사항 및 득표수는 다음과 같다

선거구명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정당 단체	득표수	비고
제1 선거구	나복룡 (羅福龍)	남	45	용인읍 김량장리 163번지	상업	경성제2고교졸, 경기도지방서 기, 세무서, 면의원, 면장	민주당	9,447	당선
	이학린 (李學麟)	남	34	용인읍 김량장리 98번지	상업	경성법전졸, 식산은행장대리, 회사감사역	자유당	7,417	차점
제2 선거구	김정순 (金正舜)	남	35	기흥읍 구갈리 414-2번지	정미업	경농졸, 정미소경영, 구지방기수, 군농민회회장	자유당	9,925	당선
	신용철 (申用澈)	남	45	원삼면 좌항리 182번지	농업	일본중대법학부졸업, 면장	민주당	9,135	차점
	이종권 (李鍾權)	남	28	원삼면 사암리 497번지	무직	서울대학교공과대학졸업, 공군대령	무소속	813	

\*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상황》, 1956 참조.

### 3) 제3차 지방자치단체 선거

#### (1) 도의회의원 선거

1960년 12월 12일 경기도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이 날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의회 의원선거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먼저 전국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선거인수는 1955년 9월 1일 현재로 조사한 인구수 21,526,374명의 53.4%에 해당하는 11,263,445명이었으며, 투표자수는 선거인총수의 67.4%에 해당하는 7,595,762명이었고, 유효투표수는 총투표자수의 95.1%에 해당하는 7,222,376명이었다. 정당·단체별 당선자 상황을 보면 무소속이 의



원정수 487명의 44.4%에 해당하는 216명이었고, 민주당이 의원정수의 40%에 해당하는 195명, 신민당이 70명, 사회대중당이 2명, 기타가 4명이었다. 용인군 선거상황은 자료관계로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용인군에서 선출한 도의회 의원은 용인 제1지구(용인, 수지, 기흥, 구성, 포곡, 모현)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던 이학린이, 제2구(남사, 내사, 외사, 원삼, 이동, 고삼)에서는 신민당으로 출마하였던 신용철이 각각 선출되었다 (1960년 12월 14일자 《인천신문》 및 합동통신사, 《합동연감》, 1961 참조).

## (2) 면의회의원 선거

1960년 12월 12일 용인군 12개면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이날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의 하나로 실시된 것이다. 자료 유실로 그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고 다만 외사면 의회의원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약 력	비고
의 장	윤사희(尹士熙)	1905.12.8	백암리 393	국졸, 면의원	
부의장	박재원(朴在遠)	1914.3.29	옥산리 1033	국졸, 면의원	
의 원	이명순(李明淳)	1927.10.2	백암리 374	국졸, 운수업	내무위원
의 원	박재환(朴在煥)	1922.1.23	백봉리 1193	국졸, 이장	내무위원
의 원	정찬근(鄭瓚根)	1921.10.3	웅천리 551	국졸, 면서기	내무위원
의 원	박상홍(朴相弘)	1925.4.12	근삼리 589	국졸, 면의원	내무위원
의 원	김영하(金永河)		근삼리 834	국해, 목공	산업위원
의 원	강성호(姜聲鎬)	1938.4.2	박곡리 90	국졸, 면서기	내무위원장
의 원	이동찬(李東燦)	1918.12.5	박곡리 536	국졸, 면의원	산업위원
의 원	이규창(李奎昌)	1925.4.4	고안리 743	국졸, 농업	내무위원
의 원	이규봉(李圭鳳)	1920.5.7	장평리 294	국졸, 면의원	내무위원
의 원	김덕환(金德煥)	1928.2.10	백암리 426	국졸, 의사	산업위원장

\* 외사면의회, 면의원명부 및 면의회의원상임위원명단 참조.

## (3) 면장 선거

1960년 12월 26일 용인군 12개면 면장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이날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 시장·읍장·면장선거의 하나로 이루어

어진 것이다. 이날 당선된 각 면 면장은 다음과 같다.

- 용인 심재혁(沈載赫) 무소속    • 포곡 이기련(李起連) 무소속    • 고삼 김정수(金正洙) 무소속
- 모현 이홍렬(李弘烈) 무소속    • 구성 박래기(朴來基) 무소속    • 내사이영희(李英熙) 민주당
- 수지 이도상(李道相) 민주당    • 기흥 최명호(崔明鎬) 민주당    • 원삼이규남(李圭南) 무소속
- 남사 박세영(朴世英) 무소속    • 이동 이도영(李道英) 무소속    • 외사임현규(林憲圭) 무소속

\* 1960년 12월 28일 《인천신문》 및 합동통신사, 《합동연감》, 1961 참조

#### (4) 도지사 선거

1960년 12월 29일 경기도지사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이날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선거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경기도의 선거상황을 보면 선거인수는 1955년 9월 1일 현재 인구 2,363,660명의 54.0%인 1,254,453명이었으며 투표자는 선거인 총수의 32.8%에 해당하는 411,348명이 참여하였고, 유효투표는 선거인 총수의 94.8%에 해당하는 391,728명이었다.

경기도 도지사에 입후보한 사람은 모두 9명이었다. 선거 결과 민주당후보인 신광균(경기 개풍출신, 1960년 12월 29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경기도 제8대 도지사로 재직)이 당선되었다.

### 4) 지방자치제선거 부활(1991. 3. 26)

#### (1) 용인군의회의원 선거

5·16으로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하여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30년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실시되었다. 군의회 의원과 도의회의원으로 나뉘어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되었다.

1991년 3월 26일에 실시된 군의회 의원은 용인군 관내 11개 읍·면에서 14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는 바 의원수는 용인읍에서 3명, 기흥읍에서 2명이며 그 외의 면에서는 1명씩을 선출하였다. 용인군 관내에서 군의회 의원 후보로 나선 사람은 모두 38명으로서 평균 3.6:1의 경쟁률을 보였다.

1991년도 용인군의회의원 당선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용인읍: 조원행(趙源行), 박용중(朴勇仲), 양승학(梁承學)
- 기흥읍: 이정문(李正文), 김대숙(金大淑)
- 포곡면: 남용희(南龍熙)
- 모현면: 박기현(朴箕鉞)
- 구성면: 안영희(安永熙)
- 지 면: 김화수(金和洙)
- 남사면: 구본설(具本尙)
- 이등면: 최춘성(崔春星)
- 원삼면: 오용근(吳裕根)
- 내사면: 황신철(黃愼澈)
- 외사면: 최종영(崔宗榮)

\* 각면, 읍단위 후보자 등록상황과 선거결과 참고

## (2)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1991년 6월 20일 실시되었다. 당시 용인군에서는 3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용인읍·포곡면·모현면 등 3개 읍면으로 이 지역에 4명의 후보가 등록하였고 제2선거구는 수지·구성·기흥 권역으로서 이 지역에서는 2명의 후보자가 나섰고 제3선거구 남사·이동·이동·원삼·외사(백암)·내사(양지) 지역에서 3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각축전을 벌였다.

투표 결과 제1선거구에서 투표인 26,025명 가운데 36.4%의 득표율을 보인 무소속 조영희 후보가 9,490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2선거구에서는 민주자유당 김학규 후보와 신민주연합 김학수 후보가 1:1의 경쟁을 벌여 투표인 21,245명 중 13,167표를 획득한 김학규 후보가 당선 되었다. 한편 제3선거구에서는 투표수 가운데 9,025표를 얻은 곽만식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경기도의회의원 후보자별 인적사항(용인군)

\* 제선거구에 대한 선거결과 첨가

선거구명	기호	소속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용인군 제1선거구	1	민주자유당	허윤(許倫)	남	53.3.6	용인군 용인읍 김량정리 309-4번지 목련빌라102호	상업	동방불교대수료 (연구과정)	용인군청년회의소회장, 용인군태권도협회회장	9,120	
	2	신민당	김응환(金應煥)	남	43.8.5	용인군 용인읍 유방리 780번지	상업	용인고졸	용내농협이사, 신민당경기도중소상공 문제특별위원	5,678	
	3	무소속	오승훈(吳承薰)	남	52.3.20	용인군 용인읍 김량정리 122-3번지	의사	중앙대의과 대학원졸	용인순천향병원 원장, 용인군의사회 총무이사	1,340	
	4	무소속	조영희(趙榮熙)	남	52.11.26	용인군 포곡면 전대리 191-7번지	농업	고려대경영 대학원수료	성림농장, 주간용인복간 준비위원회위원장	9,490	당선

선거구명	기호	소속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용인군제2선거구	1	민주자유당	김학규 (金學奎)	남	47.12.14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49-23번지	정비업	조지워싱턴대 행정경영대학원 수료	민주자유당 용인지구당 부위원장, 경기 제9지구 의료보험 조합대표이사	13,167	당선
	2	신민당	김학수 (金學洙)	남	42.4.30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70-3번지	상업	서울통신고졸	신민당 용인지구당부위원장, 신민당경기도 도시서민문제특별위원	7,643	
용인군제3선거구	1	민주자유당	곽관식 (郭晩植)	남	48.7.5	용인군 내사면 양지리 462-2번지	건축업	경기대행정대학원수료	용인군 청소년선도위원, 용동중학교 육성회장	9,025	당선
	2	신민당	김용석 (金容昔)	남	54.8.29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 636번지	상업	한양대졸	국방과학연구소(선임기술원), 신민당정책위원회 농수산분과 정책위원	6,469	
	3	무소속	박세환 (朴世煥)	남	56.3.18	용인군 외사면 백봉리 211번지	농업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재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부회장, 한국농축수산유통연구원 이사	5,317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결과(제2선거구)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민주자유당 김학규	신민주연합 김학수	계	무효수	기권수	투표율(%)	
용인군제1선거구	계	36,228	21,245	13,167	7,643	20,810	435	14,983	41.4
	소계	20,589	11,912	7,367	4,346	11,713	199	8,674	42.1
	제1투표구	4,821	2,807	1,700	1,053	2,753	54	2,014	41.8
	제2투표구	2,542	1,563	966	572	1,538	25	979	38.5
	제3투표구	2,987	1,447	888	532	1,420	27	1,540	51.6
	제4투표구	562	394	242	149	391	3	168	29.9
	제5투표구	1,937	1,154	747	392	1,139	15	783	40.4
	제6투표구	3,351	2,032	1,383	617	2,000	32	1,319	39.4
	제7투표구	1,632	1,002	608	377	985	17	630	38.6
구성면	제8투표구	2,754	1,513	833	654	1,487	26	1,241	45.1
	소계	6,950	4,239	2,584	1,556	4,140	99	2,711	39.0
	제1투표구	3,284	1,967	1,131	784	1,915	52	1,317	40.1
	제2투표구	2,683	1,647	1,067	545	1,612	35	1,036	38.6
수지면	제3투표구	983	625	386	227	613	12	358	36.4
	소계	8,090	4,519	2,932	1,483	4,415	104	3,571	44.1
	제1투표구	2,594	1,426	927	469	1,396	30	1,168	45.0
	제2투표구	2,732	1,510	872	598	1,470	40	1,222	44.7
부재자합계	제3투표구	2,764	1,583	1,133	416	1,549	34	1,181	42.7
	합계	602	575	284	258	542	33	27	4.5

## 경기도의원 선거결과(제3선거구)

구 분	선거인수	투표수	민자당 곽만식	신민주연합당 김용석	무소속 박세환	계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계	6,448	4,577	2,689	1,402	418	4,509	68	1,871	71
제1투표구	2,111	1,578	954	491	115	1,560	18	533	74.8
제2투표구	1,005	700	434	190	69	693	7	305	69.7
제3투표구	324	255	180	40	32	252	3	69	78.7
제4투표구	1,292	912	579	184	132	895	17	380	70.6
제5투표구	1,716	1,132	542	497	70	1,109	23	584	66.0

## 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6. 27)

1995년 6월 27일 실시되었다. 사상 최초로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자치단체선거로서 시군의회의원·도의원·시장·군수·도지사 등을 선출하였다.

당시 용인군의 유권자수는 156,263명으로서 이 가운데 66%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인군 투표현황

위원회명	선거인수	부재자선거인수	부재자투표수	총투표자수	투표율(%)
용인군	156,263	3,005	2,875	103,065	66.0

## (1) 용인군의회의원 선거(기초의원)

1995년 6월27일 실시되었다. 용인군 전체 16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이 선거에서 57명의 후보자가 출마함으로써 평균 3.5:1의 경쟁률을 보였다.

1995년도 의회위원 당선자 명단

- 용인읍 : 조명길, 이재승, 양승학
- 기흥읍 : 김대숙, 심노진, 이양구
- 포곡면 : 이종재      • 모현면 : 장익순
- 구성면 : 이재완      • 수지면 : 김용규

- 남사면 : 김준태
- 원삼면 : 송주식
- 내사면 : 이종만
- 이동면 : 김장호
- 외사면 : 박경호

**선거구별 후보자등록현황과 당선자현황**

선거구명	기 호	정당명 / 성명	성별	나이	직업 / 학력	경 력
용인읍	1	무소속 / 이재학	남	44	기타 / 대졸	용인불교신도회총무
	2(당선)	무소속 / 조명길	·	55	운수업 / 고졸	(주)명진택시대표이사
	3	무소속 / 최운영	·	55	농업 / 고졸	용인군새마을협회회장
	4(당선)	무소속 / 이재승	·	50	기타 / 고졸	전 용인읍장
	5	무소속 / 정지현	·	48	기타 / 고퇴	민자당중앙상무위원
	6	무소속 / 남문우	·	57	상업 / 대학원수료	반공연맹옹인지회장
	7(당선)	무소속 / 양승학	·	42	기타/ 고졸	군의회의원
	8	무소속 / 박창웅	·	50	출판업 / 중졸	민족통일용인협의회장
	9	무소속 / 이진희	·	37	상업 / 대학원졸	민주당기획실장
	10	무소속 / 유오희	·	62	농업 / 고졸	용인민주산악회지도원
용인읍	11	무소속 / 이정웅	·	52	기타 / 대학원수료	민주산악회옹인지부장
	12	무소속 / 조원행	·	60	기타 / 고졸	군정자문위원, 군의회의원
	13	무소속 / 한봉기	·	53	회사원 / 고졸	용인JC특우회회장, 용인문화원이사
	14	무소속 / 박용중	·	47	건설업 / 대졸	현 군의원
	15	무소속 / 김희배	·	41	출판업 / 고졸	용암로타리클럽회장
	16	무소속 / 박장명	·	52	기타 / 고졸	한강환경영예감시위원
기흥읍	1(당선)	무소속 / 김대숙	·	34	정당인 / 대졸	용인군의회의원
	2	무소속 / 김시래	·	57	상업 / 대졸	용인경찰서청소년선도위원
	3	무소속 / 윤치열	·	39	기타 / 고퇴	민주당 대의원
	4(당선)	무소속 / 심노진	·	45	건설업 / 고졸	신갈농협이사 신갈중육성회장
	5(당선)	무소속 / 이양구	·	58	농업 / 고졸	전 기흥읍장
	6	무소속 / 김학수	·	53	상업 / 고졸	민주동우회 부지회장
포곡면	1	무소속 / 이진우	·	50	농업 / 고졸	태성고등학교 총동창회이사
	2(당선)	무소속 / 이종제	·	51	기타 / 초졸	축산업
	3	무소속 / 이광섭	·	50	농업 / 고졸	유운1리장
모현면	1(당선)	무소속 / 장익순	·	54	농업 / 고졸	모현면장
	2	무소속 / 정기화	·	52	건설업 / 고졸	민자당중앙상무위원
	3	무소속 / 유환섭	·	53	농업 / 중졸	모현새마을협의회회장
	4	무소속 / 최동석	·	63	기타 / 고졸	민주당수석부위원장
이동면	4	무소속 / 어윤강	·	49	기타 / 대학원수료	용인신문이사
	5(당선)	무소속 / 김장호	·	46	건설업 / 고졸	용인청년회의소장

선거구명	기 호	정당명 / 성명	성별	나이	직업 / 학력	경 력
이동면	6	무소속 / 김영인	남	54	기타 / 대퇴	이동면장
원삼면	1(당선)	무소속 / 송주식	"	46	건설업 / 대학원수료	용인신문이사
"	2	무소속 / 오용근	"	44	농업 / 고졸	용인군의회의원
"	3	무소속 / 신호철	"	60	기타 / 고졸	용인군새마을지회장
외사면	1	무소속 / 오효근	"	40	기타 / 대학원수료	외사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	2	무소속 / 최원영	"	56	농업 서울대통계행정학과 2년수료	용인군의회의원
"	3(당선)	무소속 / 박경호	"	45	기타 / 고졸	외사청년협의회장
내사면	1(당선)	무소속 / 이종만	"	47	농업 / 고졸	내사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	2	무소속 / 황신철	"	42	기타 / 고졸	용인군의회의원

## (2)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광역의원)

1995년 6월 27일 동시에 실시된 4대 지방선거 중 도의원 선거는 용인군에서 3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후보자는 3개 지역에서 모두 10명이 출마하여 평균 3.3: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 실시결과 제1선거구인 용인읍, 포곡, 모현면에서는 민자당 홍영기, 민주당 곽동구, 무소속 정운영 등 3명이 출마하였다.

제1선거구 선거인수 55,520명 가운데 65.7%인 36,447명이 투표하였고 이 중에서 24.4%인 13,586표를 획득한 홍영기가 당선되었다.

제2선거구인 기흥, 구성, 수지읍 지역에서는 민자당 구자역, 민주당 이성근, 자민련의 김덕영, 대민당의 유한희, 무소속 김성태 등 5명이 경선을 벌여 투표자 41,218명 중 27%인 11,169표를 얻은 이성근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편 제3선거구인 남사, 이동, 원삼, 백암, 양지 지역에서는 이강우, 곽만식, 심규홍 등 3인이 각축을 벌여 민자당의 이강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후보자 등록현황과 당선현황

선거구명	기 호	정당명 / 성명	성별	나이	직업 / 학력	경 력
용인군제1	1(당선)	민자당 / 홍영기	남	41	회사원 / 고졸	용인군체육회전문이사 용인신탁이사
"	2	민주당 / 곽동구	"	44	정당인 / 대졸	(주)유한양행근무
"	3	무소속 / 정운영	"	63	농업 경기대행정대학원 수료	모현농협조합장 용인인삼협동조합장
용인군제2	1	민자당 / 구자역	"	56	약사, 의사 / 대졸	용인군체육회부회장 민자당용인군부위원장
"	2(당선)	민주당 / 이성근	"	36	기타 / 대학원졸	지방경제연구회수석연구원
"	3	자민련 / 김덕영	"	55	상업 / 동국대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신갈소핑센타대표 자민련용인지구당
"	4	대민당 / 유한희	여	28	기타 / 대학원졸	방송통신대학 강사 한국여성연구회가족분과장
"	5	무소속 / 김성태	남	36	기타 / 고졸	한국청년회의소기흥JC회장
용인군제3	1	민자당 / 곽만식	"	46	건설업 / 경기대행정대학원 수료	현도의원
"	2(당선)	민주당 / 이강우	"	61	기타 / 대졸	용인군농촌지도소근무
"	3	무소속 / 심규홍	"	37	기타 / 대학원졸	미캔사스주립대교과

1995년 경기도 의회의원 제2선거구 선거결과(기흥·구성·수지)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민자당 구자역	민주당 이성근	자민련 이덕영	대민당 유한희	무소속 김성태	계	무효	기권	투표율
계	67,108	41,218	11,169	12,111	7,787	4,269	39,782	1,436	25,890	25,890	61.4
기흥읍	29,682	18,099	5,133	4,915	3,825	1,462	2,055	17,390	709	11,583	61.0
구성면	8,498	5,744	1,718	1,450	1,400	468	473	5,509	235	2,754	57.6
수지면	27,785	16,261	4,011	5,424	2,436	2,231	1,736	15,840	421	11,524	58.5

1995년 경기도 의회의원 제3선거구 선거결과(남사·이동·원삼·외사·내사)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민자당 곽만식	민주당 이강우	무소속 심규홍	계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계	33,635	25,411	8,601	9,853	5,873	24,327	1,084	8,224	75.6
남사면	5,153	3,918	1,365	1,511	869	3,745	173	1,235	76.6
이동면	8,437	6,169	1,443	1,829	2,653	5,925	244	2,268	73.1
원삼면	5,141	4,038	1,495	1,589	784	3,868	170	1,103	78.6
외사면	7,083	5,277	1,287	3,104	671	5,062	215	1,806	74.5
내사면	7,176	5,391	2,785	1,621	722	5,128	263	1,785	75.1



### (3) 용인군수 선거(자치단체장)

1995년 6월 27일 제4대 지방선거로 동시 실시되었다. 제1기 민선 군수를 뽑는 선거에서는 3개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했다. 민자당에서는 현역 군수였던 윤병희를 내세웠고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용인지구 당위원장 나진우를 공천했으며 자민련에서는 용인·이천 부군수를 지낸 이범상을 공천하였다. 선거 결과 유권자수 156,263명 중 66%에 해당하는 103,056명이 투표를 실시 하였고 투표인 가운데 38%의 득표율인 39,919표를 획득한 윤병희가 초대 선출직 군수로 당선되었다.

차점자는 민주당의 나진우 후보로 자민련의 이범상 후보를 제치고 36,922표로 35.8%의 지지표를 획득하였으나 당선자 윤병희와는 2,997표 차를 나타내 보였다. 대체로 서부지역(수지)에서는 야당 우세현상을 나타냈으나 동부지역에서의 여당 우세로 당락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용인군수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록현황과 당선현황

기호	정당명 / 성명	성별	나이	직업 / 학력	경력
1 (당선)	민자당 윤병희	남	52	정당인 대학원졸	전 용인군수 전 김포군수
2	민주당 나진우	남	48	정당인 대졸	민주당용인군 지구당위원장
3	자민련 이범상	남	58	정당인 대학원졸	전용인군부군수 전이천군부군수

#### 1995년 용인군수 선거결과(용인군)

선거인수	투표인수	민자당 윤병희	민주당 나진우	자민련 이범상	계	무효	기권	투표 율
156,263	103,056	39,919	36,922	23,414	100,255	2,801	53,207	66.0

### (4) 경기도지사 선거(광역단체장)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4대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민자당의 이인제, 민주당의 장경우, 자민련 김문원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무소속의 임사빈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투표 결과 당시 용인군에서는 투표인수 103,065명 가운데 이인제 후보가 37.7%의 득표율인 39,953표를 얻어 1위가 되었고 차점자는 민주당의 장경우 후보로서 27,206표, 3위는 임사빈 후보로 22,372표, 4위는 자민련의 김문원 후보로 11,849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후보별 인적사항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 등록현황과 당선현황**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 성명	성별	나이	직업 / 학력	경력
경기	1(당선)	민자당 이인제	남	46	정치인 서울대법대졸	대전지방법원판사 제13,14대 국회의원
경기	2	민주당 장경우	남	53	정치인 고려대경영학과졸	민정당 부대변인 제11,13,14대 국회의원
경기	3	자민련 김문원	남	54	정치인 서울대정치학과졸	제11,13대 국회의원 신민주공화당 대변인
경기	4	무소속 임사빈	남	59	정치인 대졸	경기도지사 제14대 국회의원

**광역단체장(경기도지사) 선거결과(용인군)**

선거인수	투표자수	민자당 이인제	민주당 정경우	자민련 김문원	무소속 인사빈	계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 율
156,263	103,065	38,953	27,206	11,849	22,372	100,380	2,685	53,198	66.0

## 6)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6. 4)

1998년 6월 4일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종전의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됨으로서 시장, 시의원으로서 호칭이 바뀌었다.

용인시 관내 유권자 수도 1995년도 6·27 선거 때의 156,263명보다 48,208명이 늘어나서 204,471명이 되었다. 6·27로부터 6·4선거까지 3년여 기간 동안 무려 30%를 상회하는 유권자의 증가율을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투표율에 있어서 6·27선거에서는 66%의 투표 참여율을 나타내 보였으나 이 당시의 6·4지방선거에서는 54.9%의 참여율을 나타내어 주민의 정치참여 의욕이 하향하는 경향이 드러나기도 하

였다.

### 광역단체장(경기도지사) 선거결과(용인시)

의원회명	선거인수 (부재자)	7시	9시	11시	12시	13시 (부재자)	15시 (부재자)	17시 (부재자)	18시 (부재자)	총투표자 수	투표율 (%)
용인시	204,471 (3,954)	24,007	25,846	49,703	62,176	71,365 (3,679)	91,147 (3,679)	103,940 (3,679)	112,463 (3,679)	112,463	55.0

#### (1) 용인시의회의원 선거(기초의원)

1998년 6월 4일 실시되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 4대선거에서 용인시 관내 유권자수는 204,471명으로 1995년 6·25지방선거 때의 156,263명보다 48,208명이 증가하였다. 투표율에 있어서는 1995년도 6·25지방선거 때의 용인군 평균 참여율 66%보다 낮은 54.8%의 참여율을 나타내보였다.

용인시 관내 2읍 8면 4동에서 각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원수는 종전 15명에서 1명이 줄어들었다. 14개 읍면동에서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모두 41명으로서 평균 2.9: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용인시 관내 당선자 및 선거현황은 다음과 같다.

#### 1998년도 시의회의원 당선자

- 기흥읍 : 이정문
- 포곡면 : 이종재
- 구성면 : 이재완
- 이동면 : 조창희
- 백암면 : 박경호
- 중앙동 : 양승학
- 율림동 : 성운석
- 수지읍 : 김용규
- 모현면 : 이건영
- 남사면 : 김지홍
- 원삼면 : 이우현
- 양지면 : 황신철
- 역삼동 : 조성욱
- 동부동 : 양충석

후보자 등록현황과 당선현황

선거구명	기 호	정당명 / 성명	성별	나이	직 업 / 학 력	경 력
기흥읍	1	무소속 심노진	남	48	서비스 용인고 졸업	용인시의회의원 제2대 용인시 장애인협회 후원회장
"	2	무소속 주경희	여	27	정치인 경희대 원예학과 졸업	용인청년일꾼들 신갈지부장 용인어린이날 큰잔치 준비위원장
"	3(당선)	무소속 / 이정문	남	51	사업 / 용인고 졸업	용인시의회 의장 기흥읍 체육회장
"	4	무소속 김대숙	"	37	용인시의회 의원 한신대학원 TH.M 3학기 수학	용인시의회 의원 유신교교 교사
"	5	무소속 나종남	"	40	대학교수 한양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두산건설 근무 KOREA C.C 근무
수지읍	1(당선)	무소속 김용규	"	42	수지철강대표 수원농림고 졸업	용인시 4H 연합회 회장 용인시의회 의원
"	2	무소속 김영현	"	38	(주)신영건설 대표이사 삼일실고 졸업	수지초등학교 37회 동창회장 수지중학교 학부모회 회장
"	3	무소속 박순옥	여	49	주부 진주교대 졸업 부동산 중개인	초등학교 교사 새정치국민회의 용인지구당 여성부위원장
포곡면	1	무소속 이계준	남	48	태성중 설립 축산업	포곡초교 체육진흥회장 포곡중학교 초대육성회장
"	2(당선)	무소속 이종재	"	54	포곡초교 졸업	제2대 용인시의회의원 포곡면 지역개발협의회장
모현면	1	무소속 / 최동석	남	66	상가 임대업 / 청주농고 졸업	육군대위예편 용인군 행정자문위원
"	2(당선)	무소속 / 이건영	"	46	농업 / 왕산초교 졸업	모현면 이장협의회장, 모현면 축산계장
구성면	1	무소속 최해식	"	46	의료용구제조업 수원농생고 졸업	언남리장 구성초교 운영위원장
"	2(당선)	무소속 이재완	"	61	용인시의회 의원 구성초교 졸업	용인시의회의장 용인시의회 의원
"	3	무소속	"	40	농업 / 수원공고 졸업	구성면 체육회장, 구성초교 체육진흥회장
남사면	1	김순경 무소속	"	39	농업 / 안성산업대 축산 학과 3년중퇴	사)한농연 경기도연합회 부회장 사)한농연 용인시연합회 회장
"	2	윤 환 / 무소속	"	47	사업 / 수원삼일고 졸업	남사면 체육회장, (주)석현건설 대표이사
"	3	김규원 무소속	"	51	농업 / 수원삼일고 졸업	예비군 남사면중대장 5대 대통령선거인단 당선
"	4(당선)	이찬재 무소속	"	46	농업 / 용인고 3년 자퇴	완장1리 이장6년 역임 제1회 지방선거 후보출마

선거구명	기 호	정당명 / 성명	성별	나이	직 업 / 학 력	경 력
이동면	1	무소속 김장호	남	48	성일산업(주)대표이사 태성고졸업	용인시의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용인시부위원장
"	2(당선)	무소속 조창희	"	40	농업 안성산업대졸업	경기도 4H연합회 회장 용인시 영농후계자 연합회장
원삼면	1	무소속 송주식	"	49	용인시의회의원 원삼고등공민학교 졸업	용인시의회 의원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
"	2(당선)	무소속 이우현	"	41	임대업 선인중 졸업	원삼면 자유총연맹지도위원장 원삼면 축구협회장
백암면	1(당선)	무소속 박경호	"	48	상업 환일고 졸업	평화통일자문위원 용인시의회 내무위원장
"	2	무소속 오효근	"	43	축산업 죽산중 졸업	한국영농법인 중야회장 태원 영농법인 대표이사
"	3	무소속 정만화	"	46	사업 동국대 화학과 졸업	백암초교 41회 동창회장 장학회고문 백용산업대표
양지면	1(당선)	무소속 황신철	"	45	사업 태성고 졸업	용인시의회 의원 내무위원장 국민회의 용인시지구당 부위원장
"	2	무소속 송철재	"	45	상업 수원농고졸업	용인군 4H연합회 부회장 미도파관광(주)관악컨트리클럽 관리부차장
"	3	무소속 심재호	"	39	건설업 한국방송대 행정학과 재	거성건설운영, 자민련 양지면 청년회장
"	4	무소속 윤문노	"	44	농업 영등포공고졸업	용인씨중협회 전무이사 용동중학교 육성회장
중앙동	1	무소속 / 유만희	"	50	농업 / 태성중 졸업	국회의원 보좌관 한나라당 전국위원
"	2	무소속 박용중	"	50	건설업 인하대 토목공학과 졸업	용인군청 건설과 농지계장 용인군의회 의원
"	3(당선)	무소속 양승학	"	45	용인시의회 의원 경기상고 졸업	용인시의회 의원 새정치국민회의 부위원장
"	4	무소속 신재철	"	43	자영업 태성고졸업	김량장동 현대아파트 대표회장 태성중고 육성회 기별회장
역삼동	1	무소속 고광업	"	45	농업 인천선인고 졸업	삼가동 새마을지도자 이장책임 자민련용인시지구당 부위원장
"	2	무소속 이진희	"	40	법무사무소 근무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졸업	용인기독서점운영 새정치국민회의용인시지구당상무위원
"	3(당선)	조성욱 무소속	"	39	농업 경기대 회계과 졸업	한국농업경영인, 용인시연합회장 용인성산영농조합 대표이사

선거구명	기 호	정당명 / 성명	성별	나이	직 업 / 학 력	경 력
유림동	1	무소속 허만갑	남	45	화가 동양공고 졸업	예총부지부장 새정치국민회의 부위원장
"	2(당선)	무소속 성윤석	"	49	농업 신천초교 졸업	유림민간기동순찰대장 유림동 통장협의회회장
"	3	무소속 조승행	"	43	건설업 태성고 졸업	용인군청 행정계 근무 용성산업 대표이사
"	4	무소속 이동주	"	35	농업 연성공고 졸업	고림3통장, 한농연 용인시연합회위원
동부동	1(당선)	무소속 양총석	"	41	자영업 태성중 졸업	용인청년회의소 31대회장 용인축량설계공사 대표
"	2	무소속 류종희	"	58	농업 서울농대 농공학과 졸업	농촌지도사 새정치국민회의 상무위원

**\* 용인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2000년 6월 8일 실시되었다. 2000년 4월경 용인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던 기홍읍 출신 이정문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하였고 뒤이어 수지읍 김용규 의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이에 따라 기홍읍 지역에서는 주경희(여), 최근용, 김재영, 윤명호, 심노진(남) 등 5명이 경합을 벌인 결과, 투표인 8,118명 가운데 36.3%인 2,947표를 얻은 심노진이 당선되었다. 한편 수지읍에서는 김영현과 이보영이 격돌을 벌인 끝에 이보영이 득표인 수 6,620표 가운데 54.8%인 3,631표를 얻어 시의원에 당선되었다. 선거구별 투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홍읍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호1번 주경희	기호2번 최근용	기호3번 김재영	기호4번 윤명호	기호5번 심노진	계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41,172	8,118	2,549	1,633	550	360	2,947	8,039	79	34,054	19.2

**수지읍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호1번 김영현	기호2번 이보영	계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75,254	6,620	2,877	3,631	6,508	112	68,634	8.8

## (2)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광역의원)

1998년 6월 4일 동시 실시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는 전회의 6·27선거에서는 3개 선거구에서 3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으나 98년도 6·4지방선거에서는 제3선거구였던 이동, 남사, 백암, 양지, 원삼 등 5개 면을 종전의 제1선거구인 중앙동, 동부동, 유림동, 역삼동과 포곡, 모현면 지역과 통합하여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한편 기흥, 구성, 수지읍 등 3개 읍면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개 선거구로 하고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선거인수 분포를 보면 동부지역인 제1선거구는 106,117명, 서부지역 제2선거구는 98,354명으로서 제1선거구에 비하면 7,763명이 적은 수치이나 동부지역 7개면 4개동이 라는 행정구역의 비율로 본다면 대등한 수치이다. 10년 전인 1988년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의 용인군 선거인수가 98,444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1998년의 6·4지방선거의 도의원 선거는 1개 선거구가 10년 전의 국회의원 선거규모를 능가하거나 맞먹는 유권자의 수치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제1선거구에는 한나라당에서 홍영기, 국민회의 곽동구, 자민련 김광희를 후보로 내세웠으나 홍영기가 당선되었으며,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에서는 장석영을 국회의원회의에서는 이성근을 후보로 내세웠는 바 이성근이 당선되었다.

## 후보자 등록현황과 당선현황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 성명	성별	나이	직업 / 학력	경력
용인시제1	1(당선)	한나라당 홍영기	남	44	경기도의회 의원 용인고졸업	용인청년회의소 회장 용인신용협동조합 이사
용인시제1	2	국민회의 곽동구	"	47	임대업 건국대 경제학과 졸업	(주)유한양행 근무 민주당부위원장
용인시제1	3	자민련 김광희	"	46	농림농장대표 명지대 무역과 중퇴 임대업	자민련 용인시지구당 부위원장 자민련 창당 발기인
용인시제2	1	한나라당 장석영	"	48	수원삼일실고 졸업 경기도의회 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용인시의회 운영위원장
용인시제2	2(당선)	국민회의 이성근	"	39	아주대 대학원 경제 학과 박사과정	(사)지방경제연구회 수석연구원 평택공대 교수(겸임)

##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결과(제1선거구)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한나라당 홍영기	국민회의 곽동구	자민련 김광희	계	무효수	기권수	투표율
계	106,117	64,210	28,086	25,909	8,592	62,587	1,623	41,907	60.5
포곡면	13,351	7,395	3,237	3,251	726	7,214	181	5,956	55.3
모현면	11,549	5,935	2,640	2,494	651	5,785	150	5,614	51.3
남사면	5,566	3,891	1,512	1,718	552	3,782	109	1,675	69.9
이동면	9,245	5,753	2,534	2,334	720	5,588	165	3,492	62.2
원삼면	5,553	4,117	1,682	1,448	824	3,954	163	1,436	74.1
백암면	7,542	5,173	1,474	1,624	1,938	5,036	137	2,369	68.5
양지면	8,257	5,759	2,756	2,002	868	5,626	169	2,462	70.1
중앙동	13,917	7,837	3,830	3,283	595	7,708	129	6,080	56.3
역삼동	10,308	5,789	2,645	2,464	563	5,672	117	4,519	56.1
유림동	11,325	6,126	2,781	2,651	581	6,013	113	5,199	54.0
동부동	7,352	4,363	2,053	1,853	370	4,276	87	2,989	59.3

##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결과(제2선거구)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한나라당 장석영	국민회의 이성근	계	무효수	기권수	투표 율
계	98,354	48,143	20,002	26,988	46,990	1,153	50,211	48.9
수지읍	45,779	20,811	9,966	10,421	20,387	424	24,968	45.4
기흥읍	36,228	17,938	6,141	11,314	17,455	483	18,290	49.5
구성읍	14,545	7,773	3,179	4,390	7,569	204	6,772	53.4

## (3) 용인시장 선거(자치단체장)

1998년 6월 4일에 실시되었다. 제2기 민선시장 후보로는 한나라당에서 윤병희,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김정길, 국민신당에서 이정기를 후보로 내세웠으며 무소속 김학규와 무소속 박승웅이 입후보하여 경쟁을 벌였다.

무소속의 김학규는 자민련 용인지구당 위원장이었으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공천이 지역 정서를 참작치 않은 불합리한 공천이었음을 사유로 자민련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 무소속의 박승웅 후보는 전국구 국회의원의 경력자로서 한나라당에서 경선없이 윤병희를 공천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투표결과 투표인수 112,253명 중 33.5%인 37,639표를 얻은 윤병희 후보가 당선되었고 국회의원회 김정길 후보는 36,587표를 얻어 윤병희 후보와 1,052표 차로 차점자가 되었다.

### 후보자 등록현황과 당선현황

기호	정당명 / 성명	성별	나이	직업 / 학력	경력
1(당선)	한나라당 윤병희	남	55	용인시장 경희대 경영대학원 졸업	김포군수 용인군수
2	국민회의 김정길	"	62	정당인 용인초 졸업	대호산업(주) 대표이사 제13대 국회의원
4	국민신당 이정기	"	48	정상전력(주) 대표이사 단국대 전기공학과 졸업	삼성종합건설(주) 해외지사 근무 ROTC 총동문화 용인지회장
5	무소속 김학규	"	50	자영업 수원고 졸업	경기도의원 15대총선출마
6	무소속 박승웅	"	52	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제14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서울시지부 사무처장

### 용인시장 선거결과(용인시)

선거 인수	투표자수	한나라당 윤병희	국민회의 김정길	국민신당 이정기	무소속 김학규	무소속 박승웅	계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 율
204,471	112,253	37,639	36,587	4,180	26,004	3,616	108,026	4,227	92,218	54.8

#### \* 용인시장 보궐선거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기 용인시장 선거에서 윤병희 현직 시장이 재당선되어 동년 7월 1일 취임식을 가졌다. 그러나 윤시장은 소위 경성사건에 연루되어 취임 6일만에 수원지검에 전격 구속되었고 1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치다가 시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1999년 8월 24일 후보 등록이 실시되어 1999년 9월 9일 용인시전역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윤시장이 사퇴하자 무려 10여 인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최종 후보자 등록은 한나라당에서 구범희 후보와 새정치국민회의에서 현직 부시장이던 예강환을 후보로 내세웠고 김학규 후보와 박세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공천과정을 살펴보자면 한나라당 용인지구당에서는 당초 자민련 용인지구당 위원장 서리였던 김학규 후보를 전격 영입하여 후보로 내정하고 공천해 줄 것을 중앙당에 요청하였으나 중앙당에서는 지구당의 의견을 배제하고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서 백암면 출신인 구범희 후보를 용인시장 후보로 공천하였다.

이와 같이 낙하산식 후보 공천에 불복하여 한나라당 용인지구당 위원장 이용희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을 탈당하였고 이에 동조하여 2백여 용인지구당 당직자가 동반 탈퇴한 후 김학규를 무소속 후보로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지역정서를 무시한 한나라당 중앙당의 실책은 구범희 후보의 득표 결과로 나타났으며 적전 분열로 참패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았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 용인지구당 김정길 위원장은 윤시장 유고 이후 착실하게 지지기반을 다지면서 보궐선거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예강환 후보가 공천을 받게 되자 깨끗하게 승복한 후 정계 은퇴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만약 김정길 위원장 역시 중앙당의 처사에 불복 입후보에 나섰다면 국민회의 용인지구당도 분열되어 예측 불허의 혼전으로 엉뚱한 결과가 빚어졌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정길 후보가 자제하고 이를 포기함으로써 이점이 예강환 후보에게 있어서는 행운이었고 “용인지역 출신이 아니다”라는 최대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특히 예강환 후보의 서민적이고 원만한 성격에 대하여는 내부 공직자들로부터 신뢰기반이 구축되어 있었고 생소한 시장의 등장으로 동요를 원치 않는 공직사회의 조직생리가 안전운행을 선호했을 것이라는 점이 촌평이 되기도 한다.

한나라당 공천이 김학규 후보에게 돌아갔다면 이용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당의 조직력과 김학규의 지지기반이 융합되었을 경우 예측 불허의 백병전이 되었거나 확실한 우위를 점했을 것이라는 점이 중론이 되고 있다.

1998년의 6·14지방선거 때의 선거인수는 204,471명이었고 투표율이 54.8%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1999년 9월 9일의 보궐 선거인수는 1년여만에 30,321명이 많아진 234,79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투표인수는 72,299명으로 30.8%의 투표율 수준을 나타내었다.

## 1999년 용인시장 보궐선거 결과(용인시)

선거인수	투표인수	한나라당 구범희	국민회의 예강환	무소속 김학규	무소속 박세호	계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 율(%)
234,792	72,299	18,622	26,524	24,256	2,211	71,613	686	162,193	30.7

## (4) 경기도지사 선거(광역단체장)

1998년 6월 4일 4대 지방선거로 치뤄진 경기도지사 선거는 한나라당에서는 손학규를 후보로 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임창열을 후보로 내세워 양당 대결 구도로 선거전이 전개 되었다.

선거 결과 임창열이 당선되었으며 용인시에는 투표인수 112,338명 가운데 51.4%의 지지율을 획득한 57,761표로서 손학규후보의 52,585표 보다 5,176표를 앞섰던 것으로 나타난다.

## 후보자 등록현황과 당선현황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 성명	성별	나이	직업 / 학력	경력
경기	1	한나라당 손학규	남	50	정당인 영국옥스포드대 정치학 박사	제14,15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경기	2(당선)	국민회의 임창열	남	54	정치인 윌리엄스칼리지 개발경제학과 졸업	통상산업부장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용인시)

선거인수	투표인수	한나라당 손학규	새정치국민회의 임창열	계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204,471	112,338	52,585	57,761	110,346	1,992	92,133	54.9

## 7)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6.13)

2002년 6월 13일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이라면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모두 5번 기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98년 2기 지방선거 때까지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4표를 행사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광역의원선거에 한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기 때

문이다. 즉 종전에는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별도의 투표는 하지 않고,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서 자기당 공천후보자가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정당에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는 시·도의회가 지역구선출의원과 비례대표선출 의원(지역구시·도의원 정수의 10%)으로 구성되는데, 지역구시·도의원을 뽑는 투표와 별도로 비례대표시·도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1표를 추가로 투표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용인시 관내 유권자수는 335,187명으로 98년 지방선거 때의 204,471명보다 130,716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투표율에 있어서는 95년 선거이래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95년 66%, 98년 54.8%였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46.2%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6.13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전국 16개 시·도지사 선거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곳을 석권한 것을 비롯, 모두 11개 지역에서 승리하는 등 압승을 거뒀다.

특히 용인지역에서도 용인시장을 비롯한 4개 선거구의 도의원까지 한나라당 후보가 석권했고, 사실상 공천은 없지만 한나라당 소속 기초의원들도 상당수 의회 진입에 성공했다.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 갑·을 지구당에서 각각 5명씩 모두 10명이 당선, 전체 당선자 21명 중 절반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은 일부 기초의원 후보만 당선된 것으로 확인, 용인지역도 한나라당의 장악과 민주당 참패라는 대세를 거스르지 못했다.

이 같은 현상은 48%대의 낮은 투표율과 월드컵 열기 속에서 유권자들에게 형성된 정치불신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인시 투표현황**

의원회명	선거인수 (부재자)	7시	9시	11시	12시	13시 (부재자)	15시 (부재자)	17시 (부재자)	18시 (부재자)	총투표자 수	투표율 (%)
용인시	335,187 (6,232)	10,683	29,302	59,503	76,915	91,292 (5,802)	120,532 (5,802)	138,999 (5,804)	147,699 (5,804)	154,959	46.2

(1) 구시군의원 선거

이우현 시의회 부의장이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된 것을 비롯, 이종재 후보(포곡면)가 3선 고지에 올랐으며 4명이 출마해 혼전이 예상됐던 상현동과 남사면에서는 박헌수 후보와 이찬재 후보가 각각 접전 끝에 당선되어 4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됐다.

또한 이번 기초시의회 선거에서 획기적인 결과 가운데 하나는 여성 후보들이 당선된 것으로 용인시의회 역사상 여성 당선자가 단 한 명도 없었으나 이번 선거를 통해 무려 3명의 여성 시의원이 탄생했다. 주경희씨(기흥읍 제1선거구), 박순옥씨(죽전2동), 조선미씨(죽전1동)가 바로 그들이다. 4명의 여성 후보자 가운데 서북부 지역에서 출마한 3명은 모두 당선된 반면 남사면 김태옥씨가 낙선한데 대해 보수적인 지역성향이 한 몫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명의 당선자 전부가 3:1의 경쟁률을 뚫고 4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해, 상대 남성 후보들과 확연한 표 차를 드러내며 당선을 거머쥐었다.

#### 2002년 용인시의회의원 당선자

- 기흥읍 : 주경희, 심노진
- 구성읍 : 안영희, 김순경
- 포곡면 : 이종재
- 모현면 : 이건영
- 남사면 : 이찬재
- 이동면 : 조창희
- 원삼면 : 이우현
- 백암면 : 이상철
- 양지면 : 심우인
- 중앙동 : 김희배
- 유림동 : 이동주
- 동부동 : 양충석
- 풍덕천1동 : 김재식
- 풍덕천2동 : 이우현
- 죽전1동 : 조선미
- 죽전2동 : 박순옥
- 동천동 : 이보영
- 상현동 : 박헌수
- 역삼동 : 조성욱

## 후보자 등록현황과 당선현황

선거구명	기 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학 력	경 력
기흥읍제1	가	선성규	남	61.09.19	광진토건(주) 대표이사	경희대 영어영문과 졸업	경희대 총학생회장 역임
"	나(당선)	주경희	여	71.01.01	정치인	경희대 원예학과 졸업	민주노동당 용인시을지구당 부위원장
"	다	김재영	남	63.10.15	무역업	광주대 신문방송 학과 졸업	인천일보기자
기흥읍제2	가	김완래	남	54.08.02	운덕주택건설 대표	경희대산업정보 대학원 석사과정	경희대대학원석사과정 총학생회장
"	나	김현철	"	61.04.01	정당인	용인상고 졸업	한국철도 수원관리역지부 위원장
"	다(당선)	심노진	"	49.11.11	용인시의회 의원	용인고 졸업	한나라당 용인시을지구당 부위원장
구성읍제1	가(당선)	안영희	"	52.01.14	농업	수원농생고 졸업	용인시의회 초대의원
"	나	박근식	"	56.09.20	토목, 건설업	수원농림고 2년 중퇴	구성농협이사
구성읍제2	가(당선)	김순경	"	57.12.14	농업	수원공고 졸업	바르게살기운동 구성읍위원장
"	나	최해식	"	52.05.01	자영업	협성대 4년 재학중	구성농협감사
포곡면	가(당선)	이종재	"	44.04.28	용인시의회 의원	포곡초교 졸업	한국도로공사 근무
"	나	이계준	"	49.08.30	중개업	태성중 졸업	새천년민주당 포곡면협의회장
모현면	가(당선)	이건영	"	52.01.15	용인시의회 의원	왕산초교 졸업	용인시의회 의원
"	나	오윤환	"	62.07.31	농업	안성산업대 식물 자원과학과 졸업	한국농업경영인 용인시연합회장
"	다	정만화	남	48.10.19	농업	광주농고졸업	민족통일협의회 용인대의원
남사면	가	김태옥	여	65.02.08	연수원강사	경희대 병설간호 전문대 졸업	아곡보건진료소장
"	나	김지홍	남	51.09.02	용인시의회 의원	용인고중퇴	용인시의회 운영위원장
"	다	윤 환	"	58.08.14	농업	한경대 축산과2년 중퇴	농업경영인 용인시회장
"	라(당선)	이찬재	"	46.06.14	농업	삼일상고졸업	예비군중대장
이동면	가	지희천	"	54.08.05	농업	송전농고졸업	한나라당 용인시갑지구당 산업자원특위 위원장
"	나(당선)	조창희	"	58.03.29	용인시의회 의원	안성산업대졸업	용인시의회의원
원삼면	가(당선)	이우현	"	57.01.03	용인시의회 의원	인천제물포통신 고 2년 재학중	용인시의회부의장

선거구명	기 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학 력	경 력
백암면	가(당선)	이상철	♂	57.06.10	농업	한경대2년재학	(사)용인시농업경영인 연합회장
"	나	김재관	♂	55.12.27	축산업	백암고중퇴	백암면체육회장
양지면	가	황신철	♂	52.08.05	시의원	태성고졸업	새정치국민회의 용인시지구당 부위원장
"	나	심재호	♂	59.05.25	자영업	한국방통대 행정학과 졸업	양지초교운영위원장
"	다(당선)	심우인	♂	45.11.12	양지신용협동 조합 이사장	서울시립대농업 대학 졸업	양지면체육회장
중앙동	가	이재승	♂	45.06.04	승용건설(주) 대표이사	용인고졸업	제3대용인읍장
"	나(당선)	김희배	♂	53.11.03	광고업	태성고졸업	한나라당 용인시갑지구당 부위원장
역삼동	가(당선)	조성욱	남	59.01.21	용인시의회 의원	경기대회계학과 졸업	한국농업경영인용인시연합회장
"	나	박장기	남	68.08.30	(주)티엠지 대표이사	연세대학교원 체육교육과 석사졸업	오산대학 강사
유림동	가	한동섭	♂	46.08.17	농업	성동고졸업	태성고육성회 이사
"	나	성윤석	♂	49.05.29	용인시의회 의원	신천초교졸업	용인시의회 의원
"	다(당선)	이동주	♂	63.02.10	농업	연성공고졸업	바르게살기운동 유림동위원장
동부동	가(당선)	양충석	♂	56.11.04	용인시의회 의원	태성중졸업	용인시소비자물가위원회위원
"	나	유중희	♂	39.06.07	농업	서울대농공학과 졸업	용인시농촌지도소축산계장
"	다	고인관	♂	52.04.10	자영업	태성고졸업	바르게살기운동본부동부동위원장
풍덕천1동	가	임한수	♂	46.01.30	자영업	경원대법학과1년 재학	삼성 세무서공정과세협의회회원
"	나(당선)	김재식	♂	57.08.29	사회복지사	강남대사회복지 대학원졸업	수지농협토월지점장
풍덕천2동	가(당선)	이우현	♂	64.03.27	건설업	수성고 부설방송 통신고3년재학중	수지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	나	나종남	♂	57.09.23	대학교수	한양대대학원건 축공학과졸업	한양대총동문회이사
죽전1동	가	이만호	♂	60.10.25	자영업	경기대환경공학 과1년 재학	주거환경보존회분과위원장
"	나(당선)	조선미	여	67.12.01	정당인	한국방송통신대 가정학과졸업	한나라당 중앙당 차세대여성포럼 운영위원
"	다	김중식	남	61.02.22	농업	수원공전기계과졸업	용인시 새마을지도자 죽전1동협의회회장

선거구명	기 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죽전2동	가	김장옥	남	65.03.20	에이플러스 가구대표	춘천농고졸업	웅인그린체일리운동연합 상임의장
"	나	김진률	"	63.03.24	농업	유신고졸업	죽전2리이상5년역임
"	다(당선)	박순옥	여	48.10.22	주부	진주여고졸업	죽전2동새마을지회총부녀회장
동천동	가	이남영	남	57.09.03	건축업	서울동양중 졸업	한나라당동천협의회장
"	나	장세옥	"	58.03.03	국토정책 연구원	고려대정책대학 원석사4학기재학	고려대정책대학원총학생회수석부회장
"	다(당선)	이보영	"	54.12.27	농업	수원농고졸업	한국 국악협회 용인시지부장
상현동	가	김연신	"	59.03.15	인권운동가	경희사이버대 NGO과1년재학중	경기도의회의원성남시제8선거구후보
"	나(당선)	박현수	"	52.02.10	기업인	고려대경영학과 졸업	(주)하나텍대표이사
"	다	김광열	"	43.03.29	무직	성균관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졸업	한국서민연합회상임고문
"	라	윤병옥	"	42.07.12	농업	수원농림고1년 중퇴	(사)바르게살기운동 상현동위원장

## (2) 시도의원 선거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 없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간 양자대결로 치러진 도의원 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이었다. 세 번째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제1선거구(중앙·역삼·유림·동부동·이동·남사면)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선 홍영기 후보가 1만 9512표(55.5%)를 얻어 1만 4764(42.0%)표를 얻은 민주당 광동구 후보를 4천여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이 확정됐다. 농업경영인연합회 중앙간부 출신끼리 맞붙은 제2선거구(포곡·모현·양지·원삼·백암면)에서도 한나라당 조봉희 후보가 1만 6438표(56.9%)를 차지해 1만 1670표(40.4%)를 얻은 민주당 박세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제3선거구(기흥·구성읍) 역시 2만 4025표(58.9%)를 얻은 한나라당 김대숙 후보가 1만 5833표(38.8%)를 차지한 민주당 김성태 후보를 물리치고 도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제4선거구(풍덕천1·2동, 죽전1·2동, 동천·상현동)에서도 한나라당 우태주 후보가 3만 1713표(63.3%)를 차지해 1만 7372표(34.8%)에 그친 민주당 유장철 후보를 2배에 가까운 표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 후보자 등록현황과 당선현황

선거구명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용인시제1 선거구	1(당선)	한나라당	홍영기	남	53.09.25	경기도의회 의원	용인고 졸업	경기도의회 4,5대 의원
"	2	민 주 당	곽동구	남	50.07.02	자영업	건국대 경제학과 졸업	새정치국민회의 상임고문
용인시제2 선거구	1(당선)	한나라당	조봉희	남	56.11.16	축산업	고려대 자원대학원 식량경제과 수료	한나라당 중앙당 부위원장
"	2	민 주 당	박세환	남	56.03.18	이내식품 대표	국립한경대 2년 재학중	(현) 이내식품 대표
용인시제3 선거구	1(당선)	한나라당	김대숙	남	61.04.04	정당인	한신대학원 수료	용인시의원
"	2	민 주 당	김성태	남	58.12.05	정당인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4년 재학중	기흥청년회의소 초대회장
용인시제4 선거구	1(당선)	한나라당	우태주	남	48.03.08	(주)라이텍 대표이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	국회의장 민원비서관
"	2	민 주 당	유장철	남	49.08.27	세무사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제23회 행정고등고사 합격

##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결과(용인시)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득표수(득표율)			무효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홍영기	민주당 곽동구	계		
용인시제1 선거구	72,223	35,165	19,512 (56.93)	14,764 (43.07)	34,276	889	37,058
용인시제2 선거구	55,701	28,910	16,438 (58.48)	11,670 (41.52)	28,108	802	26,791
용인시제3 선거구	94,499	40,763	24,025 (60.28)	15,833 (39.72)	39,858	905	53,736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득표수(득표율)			무효투표수	기권수
용인시제4 선거구	112,764	49,985	한나라당 우태주	민주당 유장철	계		
			31,713 (64.61)	17,372 (35.39)	49,085	900	62,779

### (3) 구시군장 선거

행정 관료 출신과 정치인 출신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용인시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정문 후보가 총 투표자 15만4624명(부재자 5716명 포함) 가운데 8만5236표(55.1%)를 얻어 6만6901표(43.2%) 득표에 그친 민주당 예강환 후보를 1만 8335표 차이로 여유있게 따돌려, 비관료 출신 첫 시장이 탄생했다. 이정문 후보는 19개 읍·면·동 중 기흥읍을 비롯해 구성읍·모현면·양지면·중앙동·수지 6개 동 등 11곳에서 고루 우세한 득표력을 보여줘, 당초 지역 대결 양상 우려를 씻어냈다.

#### 후보자 등록현황과 당선현황

선거구명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용인시	1(당선)	한나라당	이정문	남	47.03.14	기흥주류 상무	강남대 행정학과 3년 재학중	용인시의회 2,4대 의장
용인시	2	민주당	예강환	남	40.09.27	공무원 (용인시장)	명지초급대학 행정 실무과 졸업	용인군수

#### 용인시장 선거결과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득표수(득표율)			무효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이정문	민주당 예강환	계		
용인시	335,187	154,681	85,236 (56.03)	66,901 (43.97)	152,137	2,544	180,506

### (4) 시도지사 선거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한나라당의 손학규, 민주당의 진념, 민주노동당의 김준기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경기지사 선거는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가 61.29%를 득표해 34.27% 득표에 그친 민주당 진념 후보를 27.02% 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 후보자 등록현황과 당선현황

시도명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경기	1(당선)	한나라당	손학규	남	47.11.22	정당인	영국옥스포드대 정치학박사 졸업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	2	민주당	진 념	남	40.12.02	정당인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부총리겸 재경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장관
경기	3	민주노동당	김준기	남	38.09.29	정당인	서울대 농과대학 졸업	민주노동당 고문

## 경기도지사 선거결과

구시군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득표수(득표율)				무효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손학규	민주당 진념	민주노동당 김준기	계		
용인시	335,187	154,700	93,848 (61.29)	52,478 (34.27)	6,797 (4.44)	153,123	1,577	180,487

## 4. 국민투표

## 1) 1962년 국민투표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하고 여기서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은 헌법을 대신하는 기본법으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민정이양까지 최고통치기관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군사정부는 민정이양을 앞두고 개헌에 관한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을 1962년 10월 10일 통과시키고 10월 12일 법률 제1166호로 국민투표방안을 공포하였다.

이것은 대통령책임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으로 1962년 12월 17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국민투표인수는 1962년 11월 10일의 인구 26,278,025명의 47.23%에 해당하는 12,412,798명이었으며, 투표자는 투표인총수의 85.28%에 해당하는 10,585,918명이었다. 투표결과 찬성이 8,339,333표, 반대가 2,008,801표, 무효가 237,864표, 기권이 1,829,800표로 투표자수

에 대한 찬성률 78.78%로 가결되었다.

## 2) 1969년 국민투표

이 국민투표의 내용은 대통령의 연임은 3기에 한하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수를 250명 이내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었다.

여야간에 격론을 거친 끝에 이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인구는 1969년 9월 23일 현재로 인구 31,536,109명의 47.4%에 해당하는 15,048,925명이었으며 참가한 투표인은 투표인 총수의 77.1%에 해당하는 11,604,038명이었다.

그 결과 찬성이 7,553,655표, 반대가 3,636,369표, 무효가 414,014표, 기권이 3,444,887표로 투표자수에 대한 찬성률 65.1%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용인군의 선거상황을 보면 총투표인 50,247명 중에서 찬성이 26,759명, 반대가 12,747명, 무효가 2,149명이었으며 기권자도 8,592명이나 되었다. 용인군의 투표율은 82.9%이며, 찬성률은 64.2%이다. 찬성률은 전국의 수준을 밑도는 지수를 나타내었다.

## 3) 1972년 국민투표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특별선언으로 해산된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비상국무회의가 설치되었다.

10월 17일 비상조치 제3항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을 공고하여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소위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회부하였던 것이다. 투표인수는 1972년 9월 30일 현재의 인구수 31,536,109명의 49.7%인 15,676,395명이었다.

참가자는 선거인 총수의 91.9%에 해당하는 14,410,714명으로 찬

성이 13,186,559표, 반대가 1,106,143표, 무효가 11,012표, 기권이 1,265,681표로 투표자수에 대한 찬성이 91.5%로 유신헌법안이 통과되었다(《대한민국선거사》제2집 및 《경기도사》제2권, 1972년 11월 22일자 《조선일보》 참조).

용인군내에서의 투표인구는 49,115명이었는데, 이 중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47,186명으로 투표율 96.1%를 나타냈으며, 찬성은 43,867표, 반대는 3,159표로 찬성률 93.0%를 나타냈다.

이것은 전국의 찬성률에 비하여 1.5%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 4) 1975년 국민투표

1973년 이래 구헌법의 복귀를 요구하며 유신헌법반대시위가 일어났다. 1974년 일부단체에서는 개헌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나섰고, 다른 단체에서는 자유민주체제의 복귀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자 정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1, 2, 3호를 발표하면서 유신헌법의 비판을 금지시켰다. 그러다가 1975년 1월 22일 대통령의 담화를 통하여 유신헌법의 찬반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유신헌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1975년 2월 12일에 실시되었다. 전국의 투표인수는 16,788,839명으로 이 중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총투표인수의 79.8%인 13,404,245명이었다. 유효투표수는 98.3%인 13,170,286표였고, 유효투표 중 유신헌법에 찬성은 73.1%인 9,800,201표, 반대는 3,370,085표, 무효는 233,959표였다(《경기도사》제2권 참조).

용인군에서는 총투표인수 53,426명에서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45,192명으로 투표율 84.6%를 나타내었으며, 찬성이 34,108표, 반대가 10,422표로 찬성율이 75.5%를 나타내었다. 이는 전국의 찬성률보다 2.4%나 높은 편이다.

#### 5) 1980년 국민투표

제5공화국 헌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로 우리나라 선거

사상 유례가 없는 91.6%득표율을 기록한 선거가 1980년 10월 22일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전국 12,173개 투표구에서 총유권자 20,373,869(부재자 661,955명 포함) 가운데 19,457,664명이 참가하여 95.5%라는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총투표수는 19,453,926표 중 찬성이 17,829,354표, 반대 1,624,572표로 통과선인 과반수(9,726,954)를 8,102,390표나 상회하였다. 결국 유례없는 찬성을 91.6%를 기록하여 제5공화국 헌법이 확정되었다(1981년 《동아연감》 참조).

한편 용인군은 총유권자 74,000명 중 71,04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 96.0%를 기록하였으며 개표 결과 찬성 66,640표, 반대 3,463표, 무효 939표로 찬성이 93.8%를 기록하였다(《조선일보》 1980년 10월 23일자 참조).

## 6) 1987년 국민투표

1985년 2·12총선은 제5공화국 정부의 정통성 시비와 기존야당에 대한 국민의 외면으로 신당인 신한민주당이 대도시에서 압승을 거둬 제1야당으로 탄생하였다.

신민당이 재야정치세력들과 연대하여 집요한 개헌투쟁을 전개하자 전두환 대통령과 민정당도 개헌 의사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헌협상을 벌였으나,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개헌안은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야권인 신민당과 국민당은 민정당의 의원내각제안에 반대하는 대통령직선제안을 관철시키고자 장외투쟁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가 1987년 4월 민주화 조치를 전제로 한 민정당의 의원 내각제안 수용이라는 이른바 ‘이민우 구상’을 발표하였고, 이는 신민당의 고문으로 있던 양 김씨를 중심으로 하는 신민당내 강경주도세력과 재야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그뒤 1987년 이른 봄부터 시작된 인권침해 사례가 폭로되면서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되었고, 이와 함께 신민당내 지도노선 등의 차이로 4월 8일 신민당 소속의원 74명이 대거 탈당함으로써

결국 이민우 총재체제가 붕괴되고 그해 5월 1일 통일민주당이 창당되어 김영삼 총재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4월 13일 대통령특별담화로 4·13호헌 조치를 발표하였다. 4·13호헌조치는 즉각 야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커다란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고, 6월에 접어들면서는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6·10대회, 6·26 평화대행진 등의 국민저항운동을 벌여 나갔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자 정부에서는 ‘6·29 민주화선언’을 발표하여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개헌협상이 본격 전개되었다.

1987년 9월 18일 국회재적의원 272명 중 여·야의원 264명의 공동발의로 헌법개정안이 제안되었고, 9월 21일 헌법개정안 공고가 있었다. 그뒤 10월 12일 국회재적의원 272명 중 254명의 여·야의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며, 10월 27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주요 골자는 ①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명시(제5조), ②국회의원선거법에서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로 채택, ③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제61조), ④대통령직선제(제67조 1항), 5년 단임(제70조), ⑥일반 법관의 대법원장 임명(제104조 3항), ⑦헌법재판소 신설, ⑧지방자치에 관한 규정 등이다. 투표 결과 총투표수 25,619,648표 중 찬성 93.1%, 반대 5.5%로 헌법개정안이 헌법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용인군에서는 총유권자 96,112명 중 87,85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 91.4%를 기록하였으며 개표 결과 찬성 81,596표, 반대 4,971표, 무효 1,284표로 찬성률 92.9%를 보였다.

- ☞ 박수형(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 유영록(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 ☞ 허석재(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참고 문헌 ]

- 中央選舉管理委員會, 《歷代國會議員選舉狀況》, 1967
- ", 《地方自治團體의 選舉狀況》, 1956
- ", 《第5代民議院 初代參議員當選者名簿》, 1960
- ", 《第7代國會議員選舉投票區別政黨 및 候補者得票狀況》, 1967
- ", 《國民投票의 投票區別投票狀況》, 1969
- ", 《大韓民國選舉史》3, 1980
- ", 《大韓民國選舉史》2, 1973
- ", 《第12代國會議員選舉總覽》, 1985
- ", 《大韓民國政黨史》, 1973
- 京畿道誌編纂委員會, 《京畿道誌》上·中, 1956
- 京畿道史編纂委員會, 《京畿道史》2, 1982
- 全國地方議員名鑑編纂委員會, 《全國地方議員名鑑》, 1953
- 李寬鎭·李永斗, 《地方議員名鑑》, 1952
- 통일주체국민회의, 《제2대대의원명감》, 1979
- 경기도, 《대통령선거인단당선거명부》, 1981
- 合同通信社, 《合同年監》, 1961
- 合同通信社, 《合同年監》, 1959
- 大韓年監社, 《大韓年監》, 1957
- 東亞日報社, 《東亞年監》, 1981
- 東亞日報社, 《東亞年監》, 1985
- 聯合新聞社, 《京畿年監》, 1972
- 平澤郡誌編纂委員會, 《平澤郡誌》, 1984
- 利川郡誌編纂委員會, 《利川郡誌》, 1984
- 龍仁郡, 《龍仁郡統十年報》, 1973~1978
- 龍仁郡, 《鄕土文化와 傳統》, 1982
- 內務部地方局, 《地方行政十年史》, 1958
- 俞尙根, 《韓國官僚制度史》, 明知大出版部, 1971
- 孫在植, 《現代地方行政論》, 博英社, 1980
- 鄭世煜, 《地方行政學》, 法文社, 1980
- 外四面議會, 《面議員名簿》, 1952, 1956, 1960
- 外四面議會, 《面議會議員常任委員名簿》, 1952, 1956, 1960
- 용인우체국, 《沿革錄》
- 반공위령탑건립 및 묘소성역화 팸플릿
- 《조선일보》, 1962.12.7, 1969.10.18, 1971.5.28, 1972.11.22
- 1972.11.19, 1978.12.14, 1980.10.22,
- 1980.10.23, 1981.3.27
- 《동아일보》, 1981.2.12
- 《인천신문》, 1980.12.28



제2편  
**행정**

여

백

## 제1장 행정구역



21세기를 맞이한 지금의 세계는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칠 변화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출현이다. 지식·정보화란 지식과 정보의 생산·가공·처리 등이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는 사회로 우리 주변에서는 일찍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드웨어’의 시대를 넘어서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자본이 중시·존중되는 시대로의 변화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사회는 정부조직 특히 지방행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중앙정부가 커야할 필요가 없어지고 민간과 지방에 많은 권한이 이양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창조적 행정력’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또한 주목해야할 점으로 세계화·국제화의 문제이다. 지구촌에 살아야할 우리로서는 세계화의 흐름을 거역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낙오자가 되기를 자초하게 되므로, 냉엄한 국제사회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임을 명심하며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세계로 넓혀서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스스로가 '세일즈맨'이 되어 지역의 생산품과 특히 우리 고유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사안들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구(조직면)와 인적요소(공무원)를 유효 적절하게 구성·배치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누가 뭐라해도 공직자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존재로 그 지역발전의 주체세력이다. 그들은 중앙이나 상급기관에서 시달하는 공문서를 전달하고 집행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책을 입안하는 자질(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직자는 항상 공부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공복 정신에 투철하며 고객인 주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제1절 용인시 행정구역 변천과정

용인시는 본래 용구현(龍駒縣)과 처인현(處仁縣)을 합치고, 용구(龍駒)에서 ‘용(龍)’자와 처인(處仁)의 ‘인(仁)’자를 합쳐 용인현(龍仁縣)이라고 칭하다가 후에 양지군(陽智郡)을 합쳐 오늘의 용인시(龍仁市)가 되었다. 시대(연대)별로 행정구역의 폐지·분합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백제시대

백제시대의 용인지방은 부족국가시대 이래 광주지방(廣州地方)과 깊은 관계를 맺어 왔다. 일찍이 온조왕(溫祚王)이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서 즉위한 이후 계속 백제(百濟)의 영토에 속하였다.

### 2. 고구려시대

용인지방이 용구현이란 명칭으로 기록상에 나타난 것은 475년(장수왕 63년)이며 이것이 최초이다. 이 해에 고구려 제20대 장수왕은 3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정(南征)하여 백제의 왕도인 한성을 점령하고 아단산성(阿旦山城 : 현 위커희호텔 일대)에서 백제 제21대 개로왕을 죽였다. 이때 고구려는 새로운 점령지인 용인지방을 중앙집권적 군·현 제도에 따라 구성현(駒城縣)으로 명명하고 자국의 영토로 귀속시켰다.

용구현을 일명 멸오현(滅烏縣)이라 했던 것이 기록상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백제 때의 용인 지명으로 우리말의 “말야”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이며, 고구려가 편입한 새로운 영토를 구성(駒城)으로 한 것도 “말야” 또는 “말”은 마루(宗)와의 동의어로서 크다(大)와 높다(上)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풀이할 때 구성은 큰 성(大城)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3. 신라시대

삼국이 통일되어 백제에서 신라의 통치를 받게 된 용인은 757년(신라 경덕왕 16년)에 1주(州) 1소경(小京) 28군(郡) 46현(縣)을 한주(漢州 : 현 廣州)의 영현(領縣)으로 할 때 용인을 이에 속하게 하였고, 구성을 거서(巨黍)로 고쳤다. 이때에도 크다는 뜻의 “말아”를 거(巨)로 표기하였다.

### 4. 고려시대

신라가 망하고 고려 태조가 즉위하자 광주를 대도독부(大都督府)로 하고 전국의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의 명칭을 고칠 때 용구현이라 하였다.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용인을 광주목(廣州牧) 임내(任內)에 두었다. 이로부터 154년이 경과한 1172년 명종 2년에 와서야 광주에서 분리하여 감무(監務)를 두고 현감(縣監)으로 보직(補職)하였다. 처인현은 본래 수원부(水原府)에 속해 있던 부곡이었는데, 처인이란 명칭은 이미 고려 현종 때에도 그렇게 불리워졌다. 처인부곡(處仁部曲)은 당시 용구현 남쪽 25리에 있었던 곳으로 조선조 태조 6년인 1397년에 와서야 현령으로 보직되었다.

### 5. 조선시대

양지현(陽智縣)은 본래 수주(水州 : 現 水原)의 양량촌부곡(陽良村部曲)이었다가 조선 정종 2년(서기 1399)에 양지현으로 승격되었으며, 태종 13년(서기 1413) 광주부(廣州府) 관할구역인 추계향(秋溪鄉 : 현

秋溪里)으로 치소(置所)를 옮겼다.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태종 13년(1413)에 용구현과 처인현을 합쳤다. 이때 용구의 ‘용(龍)’자와 처인의 ‘인(仁)’자를 합쳐 용인현이라 하였다. 용인현의 방리(坊里)는 16면으로 다음과 같다.

읍내면(邑內面) 4방 3리, 동변면(東邊面) 현 동쪽 10리, 서변면(西邊面) 현 동쪽 10리, 구흥면(駒興面) 현 남쪽 10리, 수진면(水眞面) 현 서쪽 25리, 지내면(枝內面) 현 서쪽 25리, 기곡면(器谷面) 현 남쪽 30리, 수여면(水餘面) 현 동쪽 30리, 포곡면(蒲谷面) 현 동쪽 30리, 모현촌면(慕賢村面) 현 동쪽 30리, 현내면(縣內面) 현 남쪽 30리, 도촌면(道村面) 현 남쪽 45리, 남촌면(南村面) 현 남쪽 50리, 상동촌면(上東村面) 현 남쪽 40리, 하동촌면(下東村面) 현 남쪽 50리, 서촌면(西村面) 현 남쪽 45리

그 후 세종 때까지 광주진(廣州鎭)의 관할구역으로 계속되었는데 방면이 6방에 불과하였으므로, 당시 현감 양원(梁瑗)이 상계(狀啓)한 결과 1470년 죽주(竹州)의 고안(高安), 대곡(大谷), 목악(木岳), 제촌(蹄村) 등 4부곡을 영현(領縣)으로 하고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내속(來屬)되었다. 고종 32년(1895) 4월 지방관제의 개혁에 따라 용인현 용인군으로 개칭되었고 다음해인 1896년 경기도의 4등군(等郡)이 되었다. 인 1896년 양지군으로 되었다가 1914년 용인군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른다. 이때 합치기 전 양지군으로 방리는 다음과 같다.

읍내면(邑內面 : 7개): 관사리(管舍里), 서촌(西村), 등촌(藤村), 남촌(南村), 용곡(龍谷), 학현(學峴), 암곡(岩谷)  
 주동면(朱東面 : 6개): 금곡(金谷), 도창(道倉), 평촌(平村), 추계(秋溪), 식송(植松), 공세(貢稅)  
 주서면(朱西面 : 9개): 송동(松洞), 김량(金良), 마전(麻田), 신평(新坪), 어득운(魚得雲), 해곡(海谷), 식금(植金), 학촌(鶴村), 정문(旌門)  
 목악면(木岳面 : 5개): 후동(後洞), 고안곡(高安谷), 학일(學日), 신기

(新其), 목악(木岳)

박곡면(朴谷面 : 3개): 청계(淸溪), 신창(新倉), 기안(機安)

고안면(高安面 : 5개): 중상(中上), 백동(柏東), 봉리(峰里), 주천(注川), 입동(笠東)

제촌면(蹄村面 : 3개): 능동(菱洞), 국동(菊洞), 당촌(唐村)

고동면(古洞面 : 8개): 쌍령(雙嶺), 평촌(坪村), 봉황(鳳凰), 기동(基洞), 향촌(香村), 화산(花山), 월동(月洞), 삼은(三隱)

고서면(古西面 : 5개): 대평(大坪), 하갈(下葛), 상갈(上葛), 주곡(朱谷), 창리(倉里)

고북면(古北面 : 4개): 상가(上佳), 하가(下佳), 유역(柳驛), 염치(鹽峙)

1914년 4월 1일 전국 부, 군, 면의 폐합에 따라 양지현을 폐지하고 용인군으로 합하였다. 이때 죽산군(竹山郡)의 원일(遠一), 원삼(遠三), 근일(近一)·이(二)·삼(三)면을 용인군으로 이관했으며, 군의 치소를 현 구성면 소재지에서 수여면(水餘面)으로 하였다. 이때 용인군은 다음과 같이 12면으로 개편되었다.

수여면 : 수여면, 내포곡면(內蒲谷面), 주서면(朱西面), 내서면(內西面)과 원삼면(遠三面)의 두 지역을 합친 구역

포곡면 : 수여면의 어매곡(魚梅谷) 금천리(金川里)와 포곡면 일원을 합친 구역

모현면 : 모현면 일원

읍삼면(邑三面) : 서변면 동변면 수지면(水枝面)의 죽전동(竹田洞), 구흥면의 역촌일부 촌내를 관통하는 오산가도(烏山街道) 서쪽 지역을 합친 구역

수지면 : 수지면 죽전동 일부와 지내면 영통지역 일부를 합친 구역

기흥면 : 지내면 영통지역과 기곡면 일원 구흥면의 내읍삼면 일부 지역을 합친 구역

남사면 : 서촌면 일원과 도촌면, 일원을 합친 구역

이동면(二東面) : 상동면 하동면, 일원을 합친 구역



고삼면(古三面) : 고동면(古東面), 고서면(古西面), 고북면(古北面)  
일원을 합친 구역

내사면 : 주동면(朱東面), 주북면(朱北面), 주서면(朱西面), 마북리  
(麻北里), 신평리(新坪里), 정문리(旌門里), 반정리(盤亭里),  
송동(松洞), 양지군 읍내면 일원을 합친 구역

원삼면 : 원일면, 원이면, 목악면, 일원과 주서면 광곡리 일원을 합친 구역

외사면(外四面) : 고안면(高安面), 박곡면(朴谷面) 일원과 근(近) 1,  
2, 3면을 합친 구역

- 1937년 수여면을 용인면으로 개칭하고 읍삼면을 고구려 때의 초명이던 구성면으로 고쳤다.
- 1963년 1월 고삼면이 안성군(安城郡)으로 편입되어 11면이 되었다.
- 1979년 5월 1일 용인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용인군은 1읍 10면이 되고 108법정동(法政洞) 321행정동(行政洞) 369자연(自然)마을 709반(班)으로 되었다.
- 1983년 2월 15일 수지면의 하리(下里)와 이의리(二儀里)가 수원시(水原市)로 편입되고 남서면(南西面) 진목리(眞木里)의 월경(月境)마을이 평택시(平澤市)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른다. 이때 외사면 가좌리(加佐里) 일부가 원삼면으로 편입되면서 가좌월리(加佐月里)가 되었다.
- 1985년 10월 1일 기흥면이 기흥읍으로 승격되었다.
-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되었다. 이때 용인읍을 폐지하고 중앙동(中央洞), 역삼동(驛三洞), 유림동(柳林洞), 동부동(東部洞)의 4개동을 신설했으며 수지면은 수지읍으로 승격되었다. 한편 외사면은 백암면(白岩面)으로 내사면은 양지면으로 개칭되었다. 이로써 용인시는 2읍 8면 4동(종전의 용인읍) 107법정리·동 504행정리·통 363자연부락 1461반이 되었다.
- 2000년 9월 1일 구성면에서 구성읍으로 승격됨.
- 2001년 12월 24일 수지읍이 수지출장소로 승격. 6개 동사무소가 신설되어 1출장소 2읍 7면 10개동의 행정체제인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제2절 용인시 행정구역 현황

면적 : 59,162km<sup>2</sup>로 전국면적 9,943,456km<sup>2</sup>의 0.59%에 해당되며, 경기도면적 1,018,924km<sup>2</sup>의 5.8%에 해당된다.

### 1. 용인시 행정구역

행정구역	관할 구역
수지출장소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동
기흥읍	신갈리, 구갈리, 상갈리, 하갈리, 보라리, 지곡리, 공세리, 고매리, 농서리, 서천리, 영덕리
구성읍	언남리, 마북리, 청덕리, 동백리, 중리, 상하리, 보정리
포곡면	삼계리, 금어리, 둔전리, 영문리, 마성리, 전대리, 유운리, 가실리, 신원리
모현면	왕산리, 갈담리, 초부리, 일산리, 매산리, 동림리, 능원리, 오산리
남사면	봉무리, 북리, 통삼리, 봉명리, 진목리, 원암리, 전궁리, 방아리, 창리, 아곡리, 완장리
이동면	송전리, 어버리, 묘봉리, 화산리, 시미리, 덕성리, 묵리, 천리, 서리
원삼면	고당리, 사암리, 좌향리, 맹리, 미평리, 가재울리, 두창리, 독성리, 줄능리, 묵신리, 학일리, 문촌리
백암면	백암리, 박곡리, 백봉리, 고안리, 옥산리, 장평리, 석천리, 용천리, 근삼리, 근창리, 근곡리, 가창리, 가좌리
양지면	양리지, 남곡리, 평창리, 제일리, 추계리, 식금리, 정수리, 대대리, 주북리, 송문리
중앙동	김량장동, 남동
역삼동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고림동, 유방동
동부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자료 : 제 5 회 용인통계연보, 용인시

## 제2장 행정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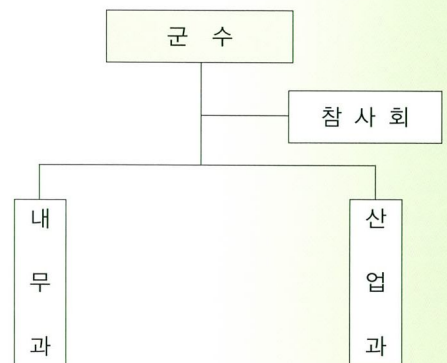
### 제1절 용인시 행정조직의 개편과정

정부수립 이전의 군기구는 1934년 2월 ‘부·군·도(島) 사무분장 표준에 관한 건’에 의하여 군에 내무과와 산업과를 두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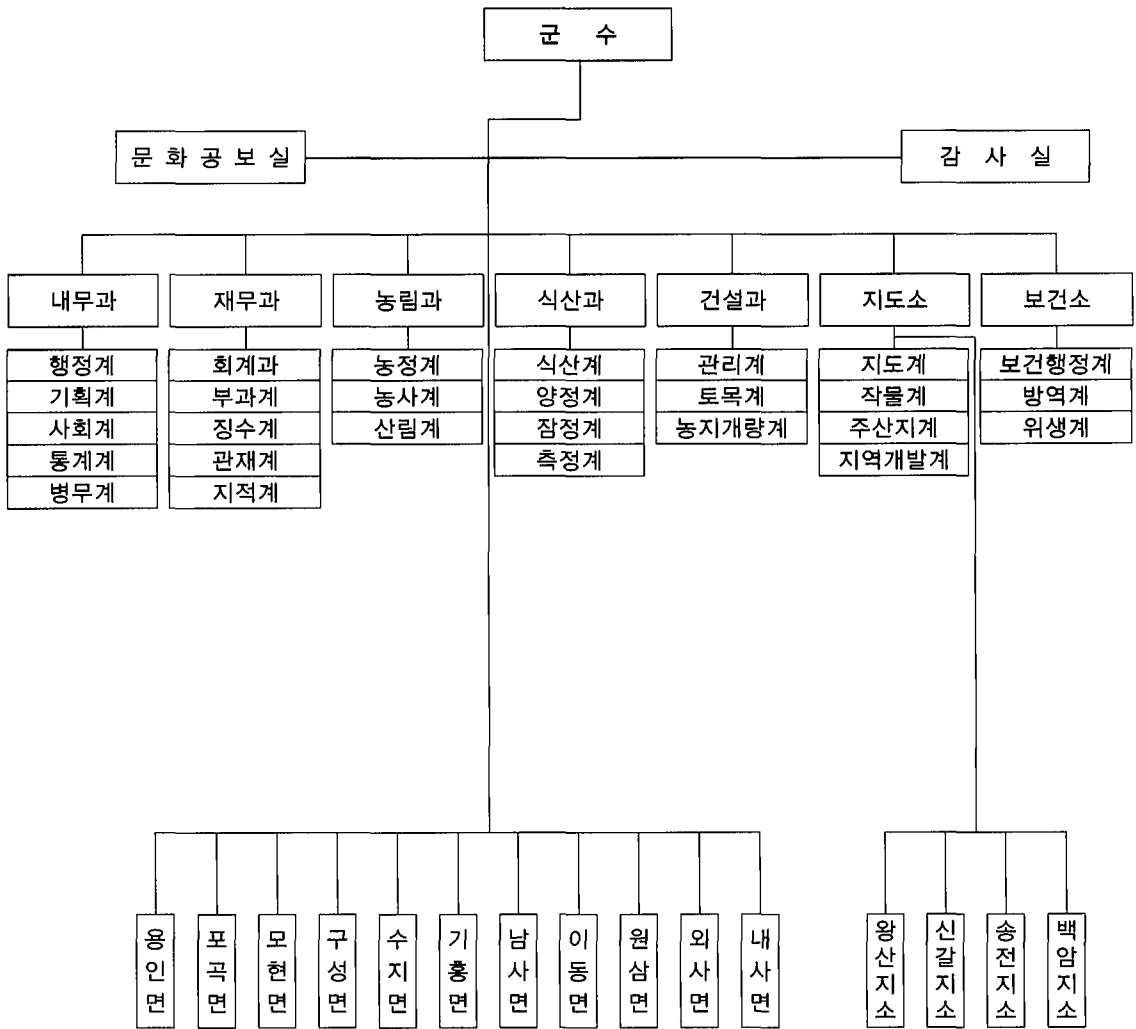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 11월 17일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어 이때의 군의 직제는 <지방행정기관 직제 제34조> 그대로 내무과와 산업과(권업과)로 지속되었다.

참사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두었으며, 산하에 내무과와 산업과(권업과) 2과만 두고 군행정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기구는 행정수요의 확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변천을 거듭하였다. 이 변천 과정을 군 시대였던 1960년대부터 살펴보면 다음



▲ 1959년 당시 행정기구표



▲ 1970년 당시 행정기구표

과 같다.

1963년의 용인군 기구를 보면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교육과, 산업과, 건설과, 보건소(62. 9.4 설치), 농촌지도소(62.3.29 설치) 등 1실 5과 2소 22계 11면이 있었다. 여기서 특기사항은 교육과가 1961년 10월 10일자로 군수 산하에 설치되었다가 교육자치제 실시 요청에 따라 1964년 2월 11일자로 분리되어 군교육청이 설치되었다.

1964년 이후에는 교육과가 없어졌다. 그 후 담임제는 1967년에 계직제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확대 발전해 왔는데 60년대말인 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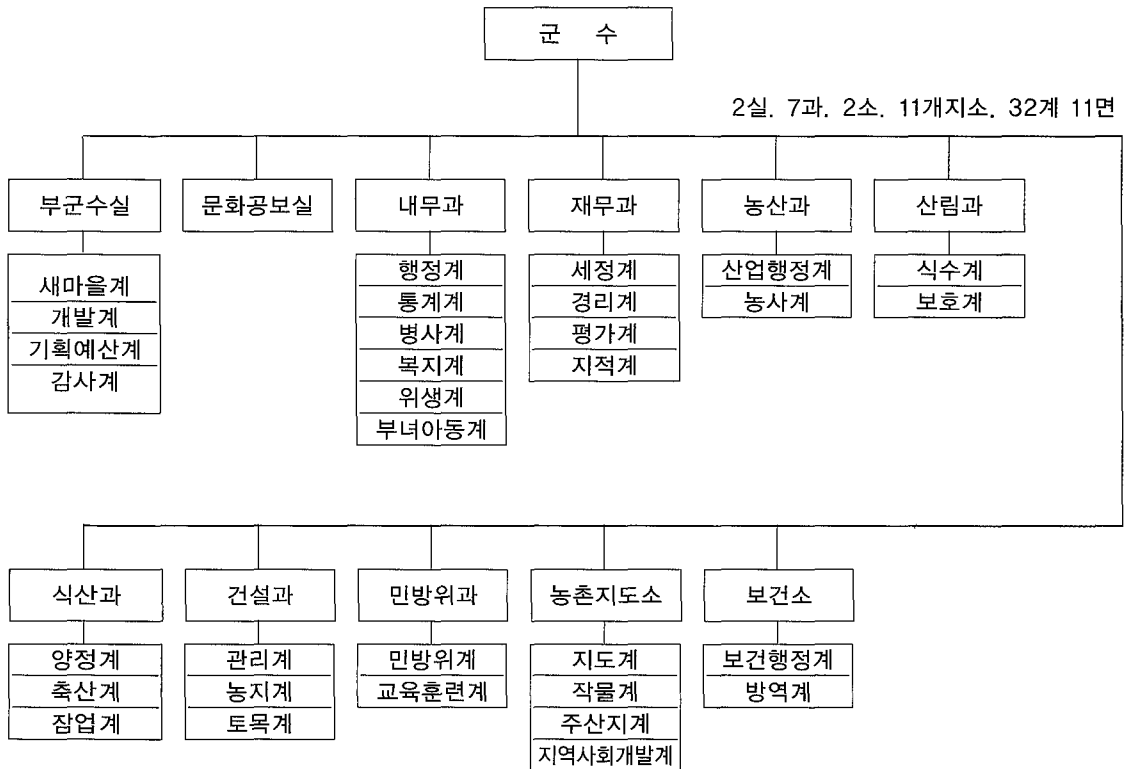
도의 기구를 보면 감사실이 신설되어 8개 실·과·소로 증가하고 본청 25계, 11면, 지도소의 4개지소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 시대의 기구표를 보면 앞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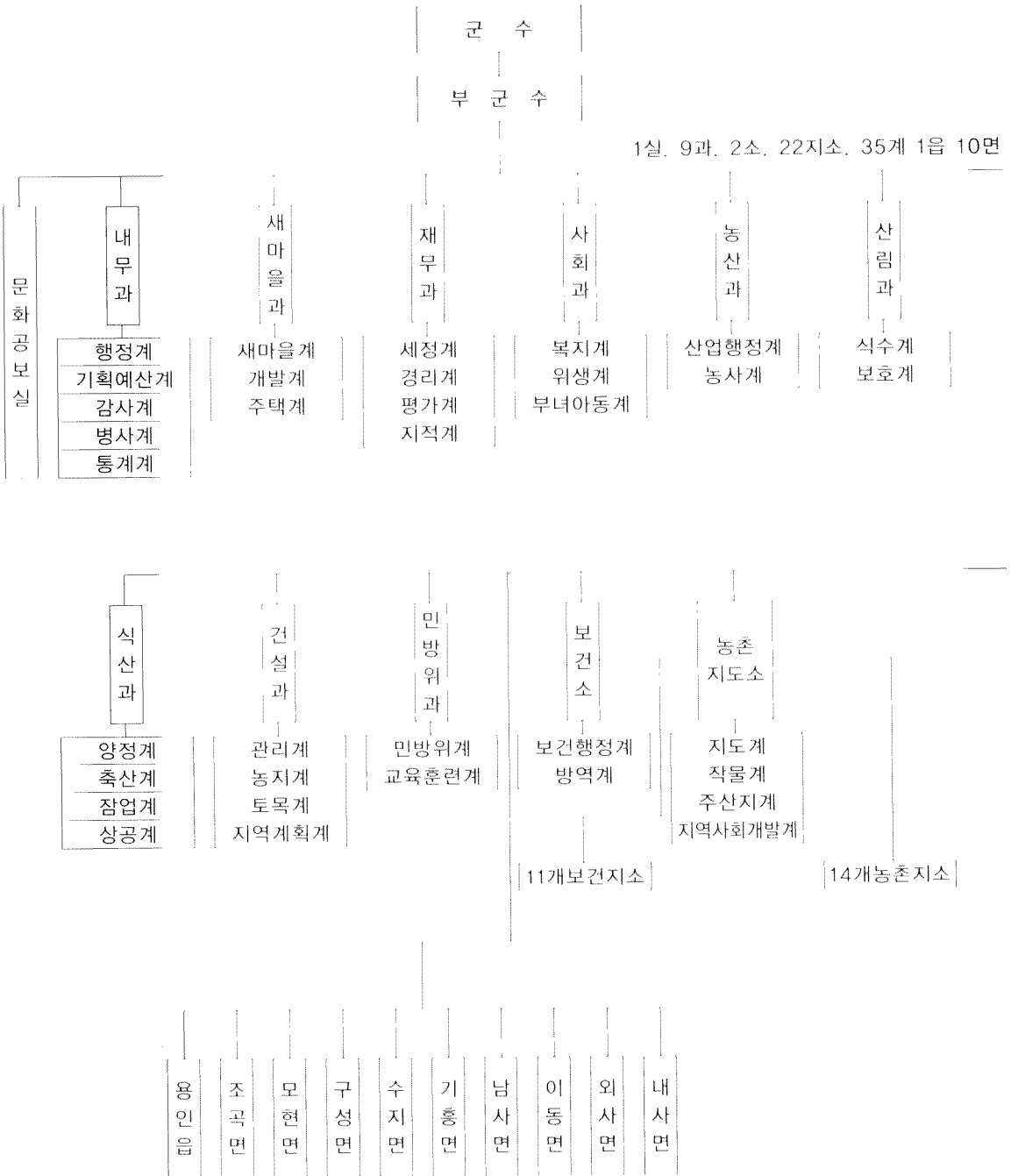
69년 2월 22일 설치했던 감사관 제도를 72년 6월 1일 폐지하고 73년 2월 1일 내무과에 새마을계를 두었고 73년 9월 1일 산림과를 신설하였고 농촌과를 농산과로 개편하였으며, 74년 12월 27일 새마을담당 부군수제를 신설하고 새마을계, 개발계, 주택계, 기획예산계, 감사계를 두는 대신 부군수제 신설과 동시에 새마을과를 폐지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군수제 운영방침을 시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재직 중인 부군수가 퇴직하거나 부군수 이외의 타직으로 절충하면 당군의 부군수는 폐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사지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농촌지도소 아래 용인지도소의 10개 지도소를 설치했다.

1976년 균형정기구는 아래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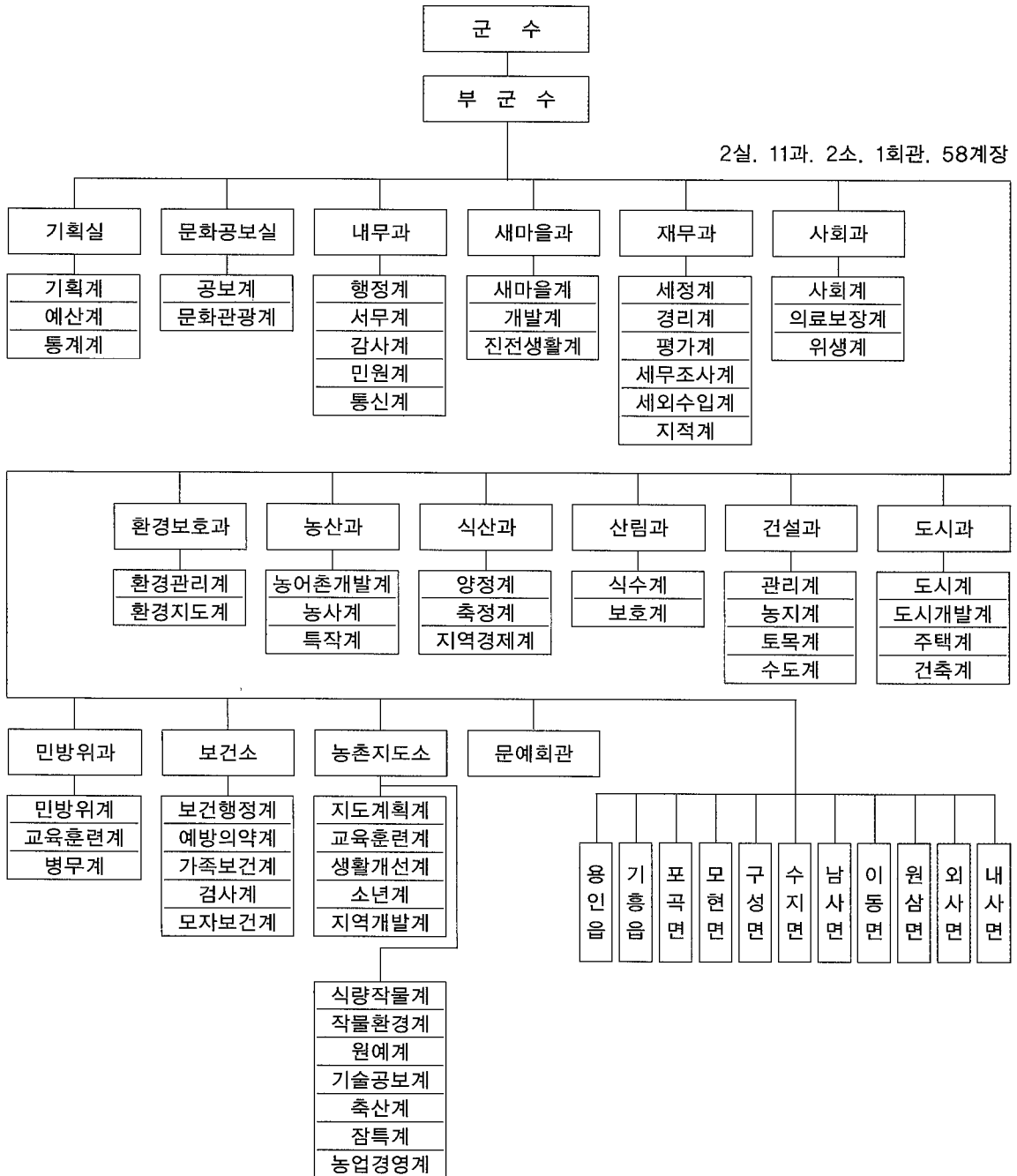
1979년 군 기구는 새마을담당 부군수제에서 부군수제로 독립됨에





▲ 1978년 군행정기구표

따라 종래의 새마을계가 새마을과로 승격 설치되고, 사회과가 신설되었고 11개 보건지소가 신설되었으며 또한 1979년 4월 7일 용인면



▲ 1989년 용인군 기구표

이 용인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군의 기구는 1실 9과 2소 22지소 35계 1읍 10면이 되었다.

1989년에는 기획실(3계)이 증설되고 환경보호과(2계)와 도시과(4계)의 2과가 증설되었으며, 기흥면이 1985년 10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되어 2실 11과 2소 1회관 2읍 9면으로 되었다.

1994년에는 1989년에 비교하면 5개과(지적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주택과, 축산과)가 증설되었고, 종전의 재무과를 세무과로 농산과를 산업과로 명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환경사업소(2계)와 상수도사업소(2계), 노동복지회관, 군립도서관, 의회사무과(1계) 등이 증설되어 2실 16과 2소 2사업소 3관 63계장으로 계장만도 5명이 늘고 있다. 여기서 특기사항은 군의회에 사무과가 신설된 것이다.

1996년 3월 1일자로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되어 기구가 대폭 확장되어 국 단위의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및 의회사무국 등 5개 실·국이 되었으며, 기획실 아래 과 단위의 3개 담당관실(기획담당관실 3개계, 문화공보담당관실 2개계, 감사담당관실 3개계) 총무국 아래 총무과(5개계), 시민과(4개계), 세무과(7개계), 회계과(3개계), 민방위재난관리과(4개계), 사회산업국 아래 지역경제과(4개계), 사회복지과(3개계), 환경위생과(4개계), 청소과(3개계), 산업과(4개계), 축산과(2개계), 건설 도시국 아래 건설과(5개계), 도시과(4개계), 주택과(4개계), 교통행정과(3개계), 녹지과(3개계), 지적과(4개계) 그리고 농촌지도소는 사회지도과(3개계), 기술보급과(5개계), 보건소(5개계), 환경사업소(4개계), 시립도서관(2개계), 상수도사업소(2개계)와 계조직이 없는 청소년수련마을, 문예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등이 설치되었다.

또한 시의회 사무국이 설치되어 내무산업건설, 운영위원회의 3개 위원회에 의정계와 의시계의 2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79년에 읍으로 승격됐던 용인읍이 폐지되고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및 동부동 등 4개동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상수도사업소, 문예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등의 사업소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이상과 같이 시 기구가 명실공히 크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시 기구는 종전의 국 단위의 기획실이 폐지되고 총무국이 행정지원국으로 바뀌고 사회산업국이 시민생활국과 경제환경국으로



나뉘어졌고 건설도시국은 그대로 존치되었으며 종전의 기획실에 속했던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었고, 1958년 1월 10일 발족하여 40여년 동안 농촌을 지도해 왔던 농촌지도소가 그 이름을 바꾸어 '농업기술센터'로 새로이 발족되어 사회지도과와 기술지도과의 2과에 7개계를 두었다.

과 단위로는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과하여 재정확보 면에 주력하였고 경제환경국 아래 환경위생과(4개계)를 환경과(6개계)로 강화하여 날로 심화하는 환경면에 대처하였으며, 사회진흥과가 종전의 새마을과에 대신하여 신설되었고 환경사무소, 시립도서관, 문예회관, 청소년수련마을, 공설운동장 및 다목적 복지회관 등을 관할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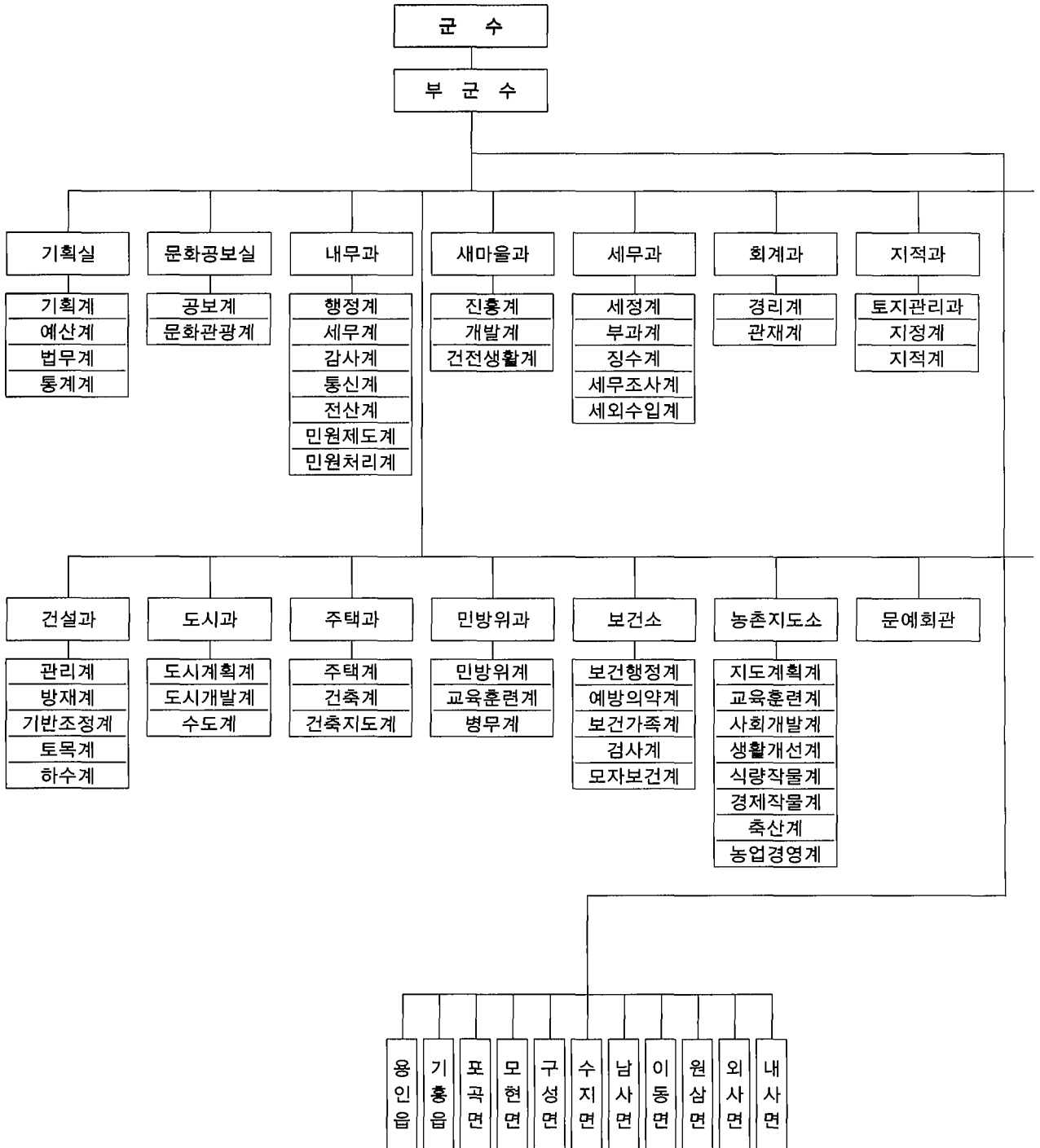
보건소도 종래에 없던 보건위생과와 의료지원과가 설치되고 각과 공히 8개계를 가지고 있다. 시 의회의 사무국은 상임위원회로 3개 위원회를 두었는 바 ①내무상임위원회 ②산업·건설상임위원회 ③운영위원회이며 의정·의사 양계를 두고 있다.

2000년 시 기구는 99년까지의 것을 보면 불과 1년 사이에 크게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전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체없이 시정하는 것이 옳지만, 사전에 충분히 연구·검토를 거쳐 일단 결정한 것은 자주 바꾸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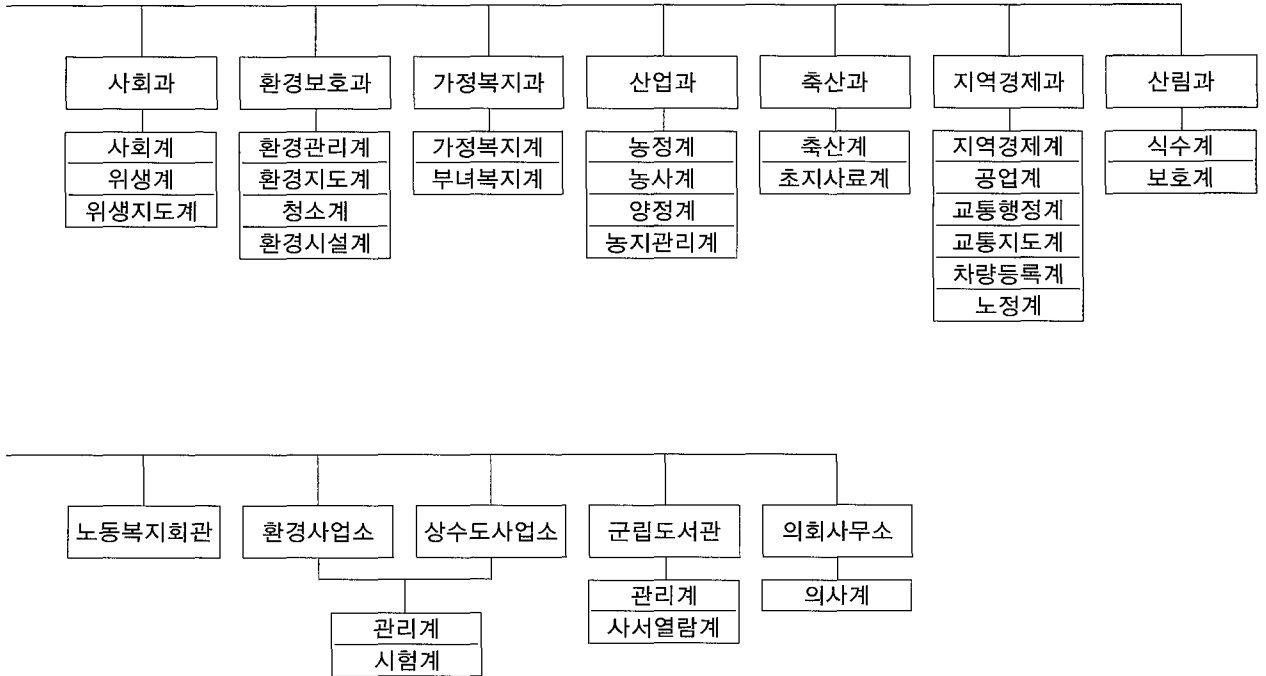
96년 시로 승격 당시 설치했던 국 단위의 기획실이 3년 후인 99년에 폐지가 되고, 2000년에 들어와 기획실이 부활되었고 행정지원국이 행정국으로, 시민생활국과 경제환경국이 경제산업국으로, 건설도시국이 도시국과 건설환경국 등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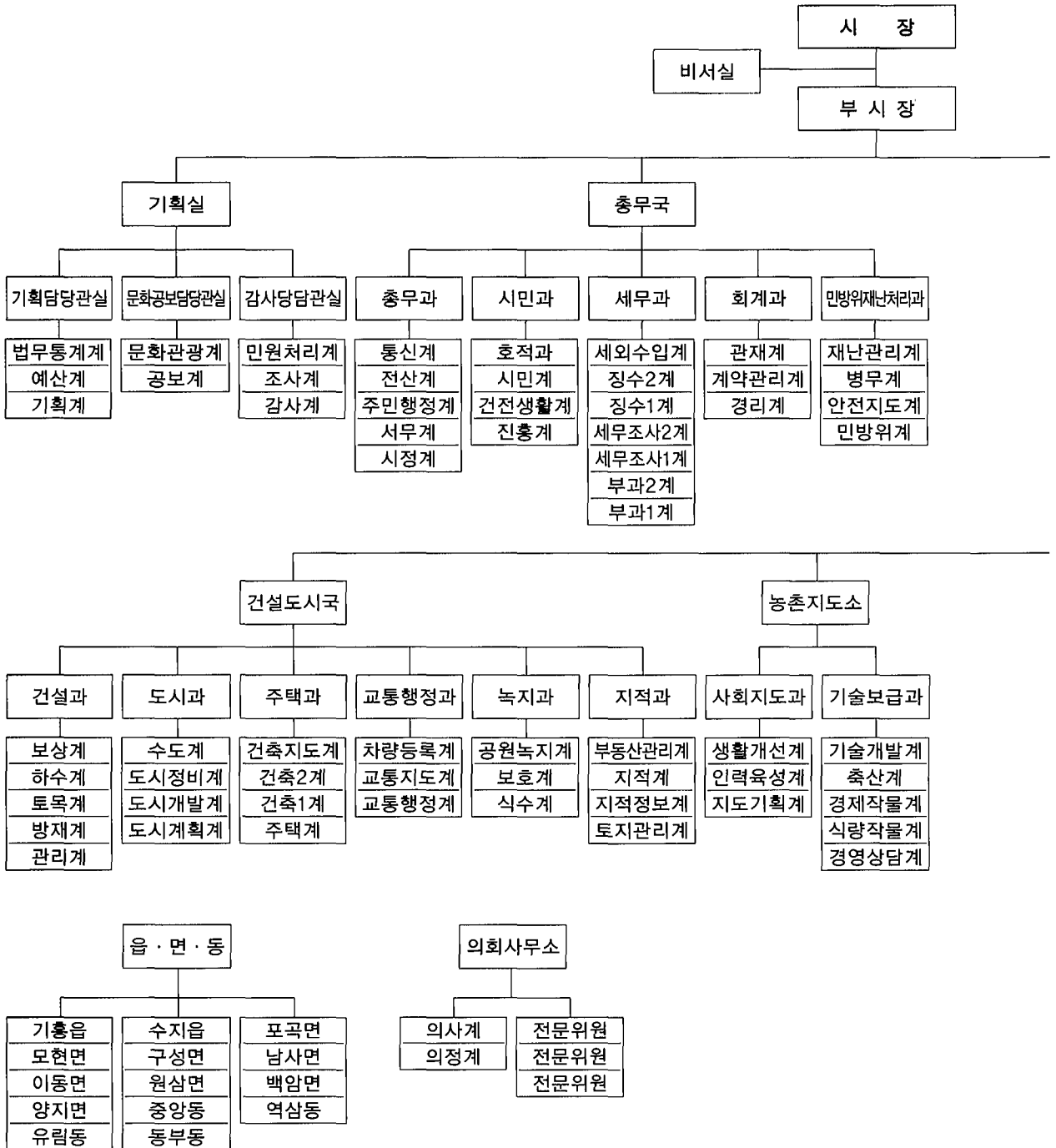
부활된 기획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새로이 생긴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요즈음 각과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정보통신, 전산개방, 정보기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관심사로 부상하는 여성정책문제에 있어 여성정책, 가정복지, 청소년 및 시설복지문제 등을 취급케 하고 있다. 건설환경국에서는 주로 도로관리, 환경관리, 폐기물관리와 오수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다. 농업센터와 보건소는 99년대의 기구와 대동소이하다.

과 단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가 행정과로, 세무1과와 세무2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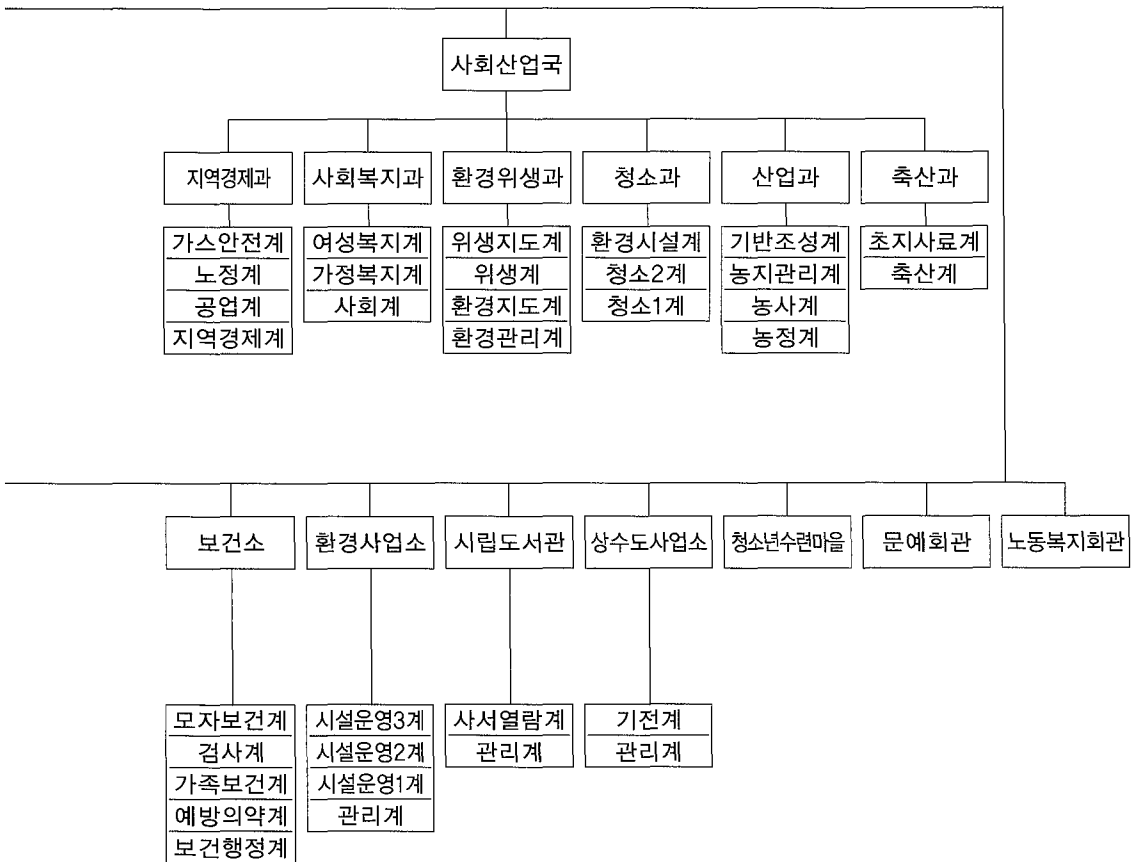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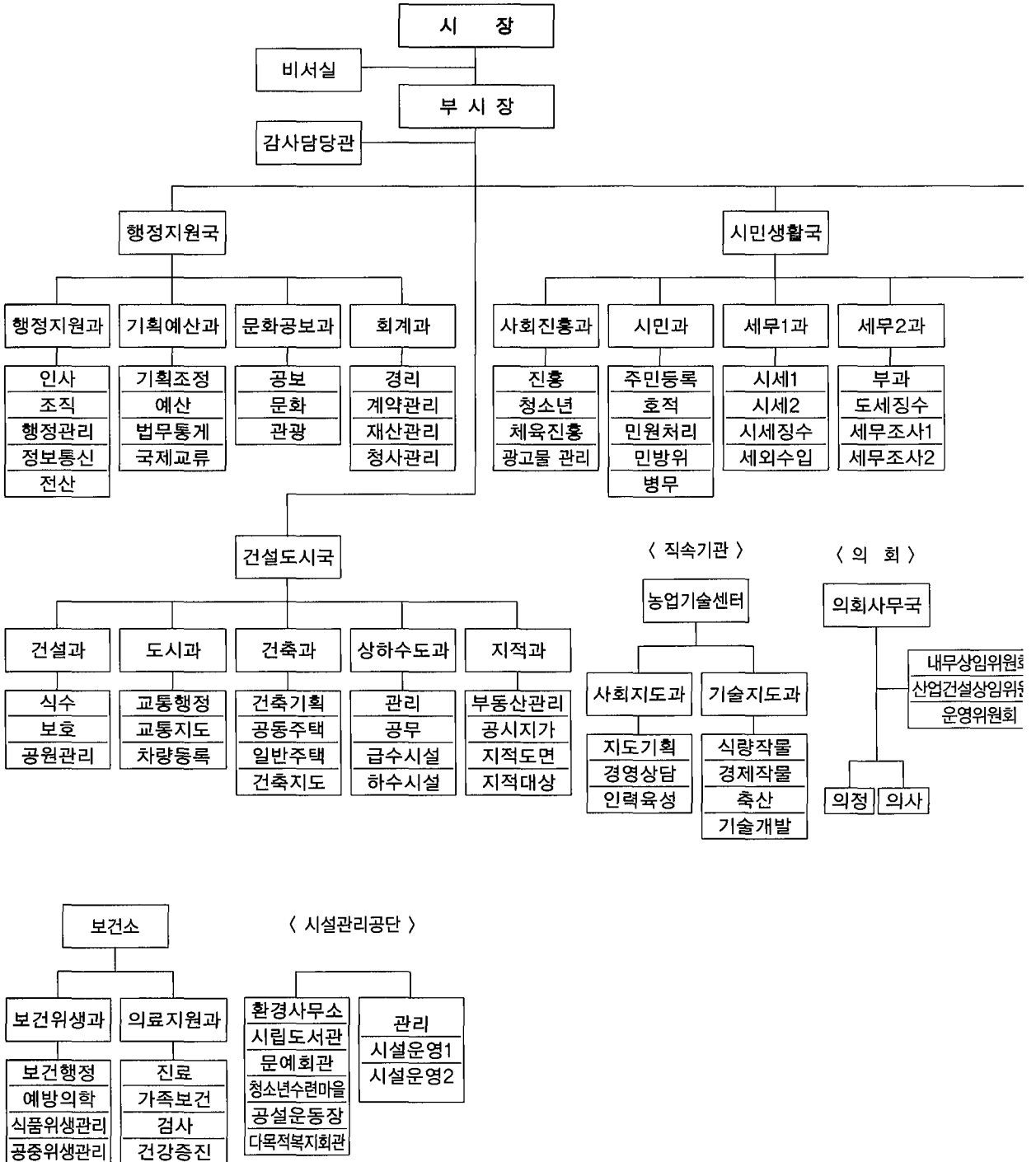
2실, 16과, 2소, 2사업소, 3관, 63계장, 2읍, 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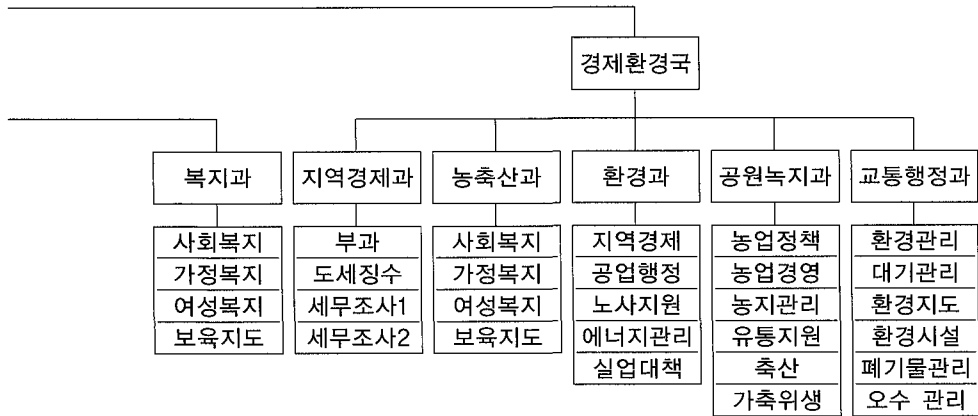


1실, 3국, 3소, 3관, 19과, 2사업소, 1청소년수련마을, 94계, 2읍, 9면, 4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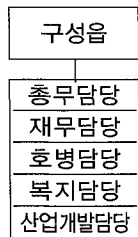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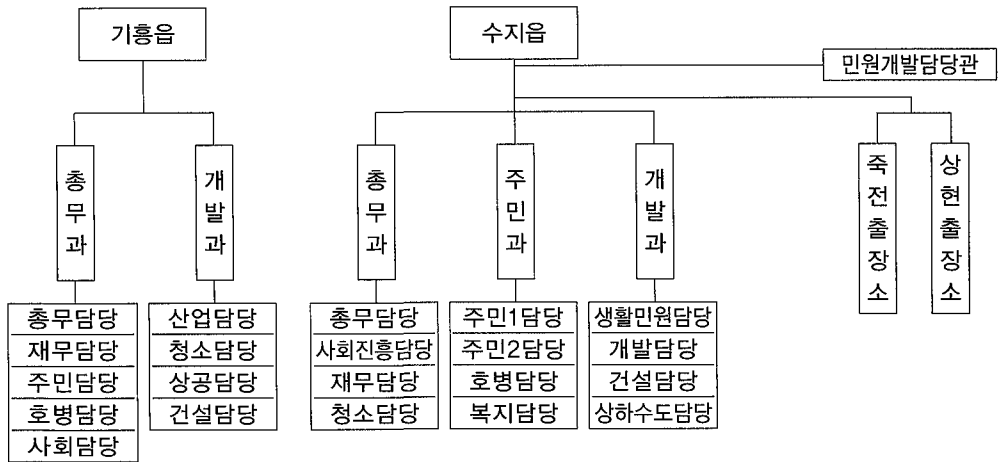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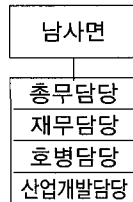
5국, 1농업기술센터, 1보건소, 6사업소, 31과, 99계장, 2읍, 8면, 4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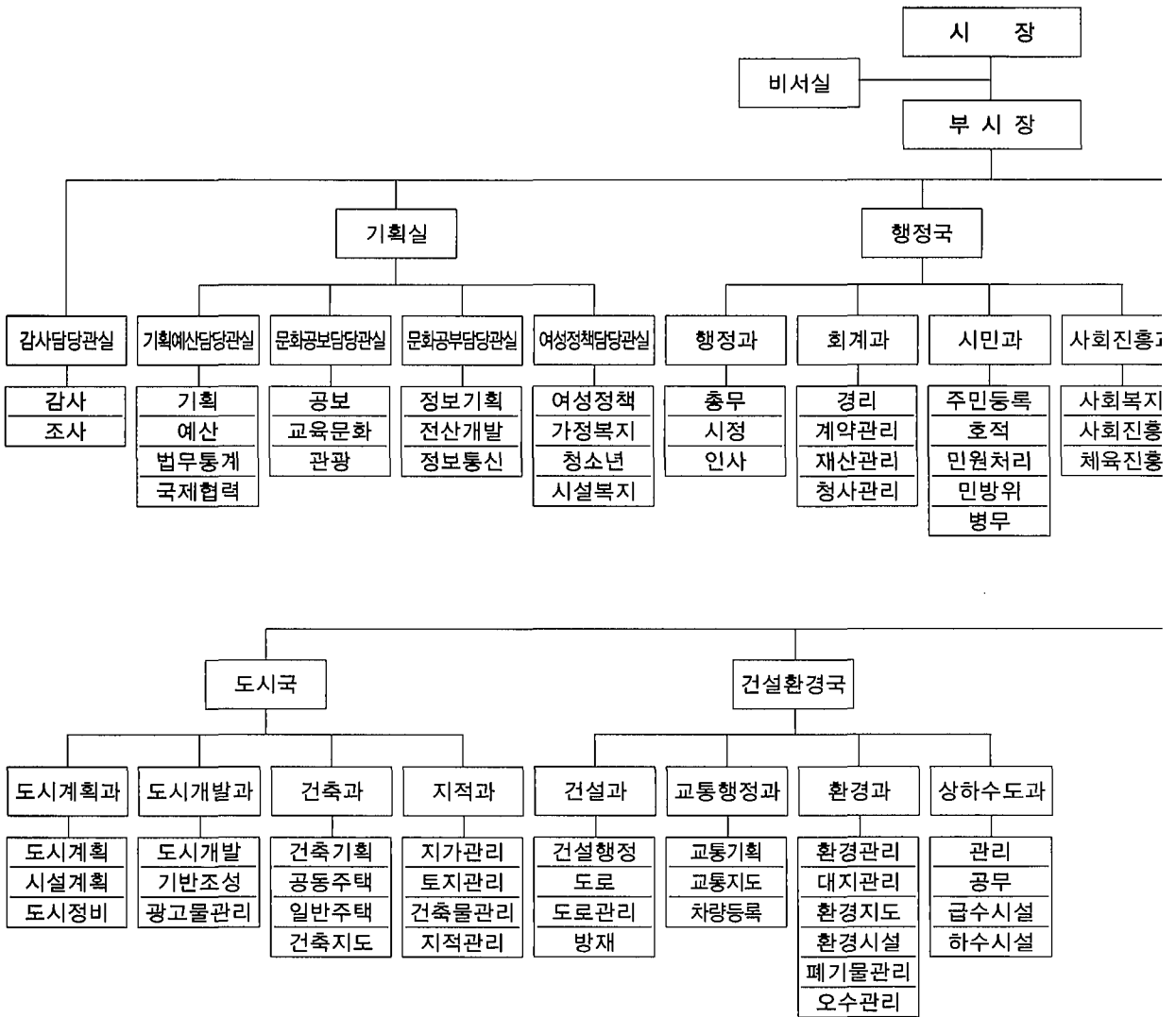
〈 읍·면·동 〉



○ 포곡면, 모현면, 이동면, 양지면은 구성읍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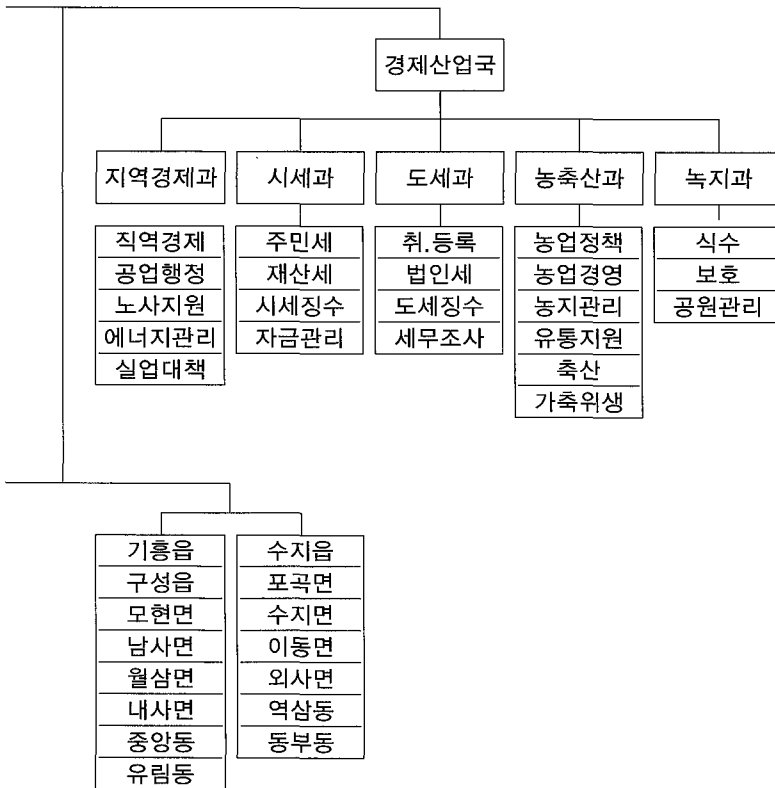
○ 원삼면, 백암면은 남사면과 동일하다.



시세과와 도세과로 각각 명칭을 바꾸었고 농업센터와 보건소의 기구에는 큰 변동이 없다. 2000년도 시 행정기구는 위의 표와 같다.



1실. 4국. 5실. 12과. 84담당. 2읍. 9면. 4동



▲ 2000년 용인시 기구표

## 제2절 용인시 행정인력 현황

### 1. 공무원 정원의 추이

1963년에는 군청 공무원 67명, 읍·면 공무원 125명으로 총 192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60년대 말에는 256명으로 130%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60년대에 비하여 70년대 말에는 군청 187명, 읍·면 246명으로 총 433명, 87년에는 군청 306명, 읍·면 351명으로 총 657명에 이르러 증가율을 보면 60년대 말보다 70년대 말에는 169%, 87년에는 257%가 증가하여 방대한 조직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국가직은 60년대 말에 비하여 70년대 말에 110%, 87년에 117%정도 증가하였으나 지방직은 70년말 188%, 87년에는 241%나 증가되어 지방행정기관의 업무증가는 물론 지방화 시대에 따른 비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공무원 정원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소방공무원은 1988년부터 채용되었음).

공무원 정원 추이

연도	군			읍·면	소방공무원	의 회	합 계
	국가	지방	소계				
1963	38	29	67	125	-	-	192
1964	40	27	67	156	-	-	223
1965	31	30	61	171	-	-	232
1966	-	-	-	-	-	-	-
1967	69	40	109	144	-	-	253
1968	64	46	110	146	-	-	256
1969	64	49	113	143	-	-	256
1970	63	58	121	159	-	-	280
1971	65	52	117	166	-	-	283
1972	69	58	127	193	-	-	320
1973	67	62	129	193	-	-	322
1974	61	61	122	207	-	-	329
1975	61	66	127	229	-	-	356
1976	62	78	140	237	-	-	377

연도	군			읍·면	소방공무원	의 회	합 계
	국가	지방	소계				
1977	69	98	167	231	-	-	398
1978	72	102	174	237	-	-	411
1979	71	116	187	246	-	-	433
1980	73	117	190	242	-	-	432
1981	73	159	232	283	-	-	515
1982	74	160	234	289	-	-	523
1983	74	161	235	305	-	-	540
1984	75	160	235	314	-	-	549
1985	84	191	275	321	-	-	596
1986	75	199	274	330	-	-	604
1987	75	231	306	351	-	-	657
1988	72	206	278	365	62	-	705
1989	70	256	326	366	62	-	754
1990	69	272	341	394	62	-	797
1991	71	336	407	397	62	-	866
1992	67	388	455	420	83	11	969
1993	58	377	435	383	83	11	912
1994	52	444	496	400	83	11	990
1995	52	485	537	388	71		996
1996	385	286	671	409	95		1,175
1997	386	311	697	426	95		1,218
1998	385	214	599	344	95		1,038
1999	400	199	599	353	95		1,047

자료 : 2000, 2001년 자료추가 행정과

## 2. 역대 간부 명단 (군수, 시장, 부군수, 부시장)

### 1) 역대 군수·시장 명단

대수	직명	성 명	재 직 기 간	비 고
1	군수	고주현(高周鉉)	1948. 01. 01 ~ 1949. 03. 01	1년 2월
2	군수	조병준(趙炳浚)	1949. 03. 18 ~ 1949. 12. 30	9월
3	군수	이하재(李夏載)	1949. 12. 30 ~ 1950. 06. 25	6월
4	군수	김태근(金泰根)	1950. 06. 25 ~ 1950. 12. 25	6월
5	군수	유인상(柳寅相)	1950. 12. 25 ~ 1953. 01. 15	3년 1월

대수	직명	성명	재직기간	비고
6	군수	이승화(李承和)	1953. 01. 15 ~ 1954. 03. 16	1년 2월
7	군수	채민석(蔡民錫)	1954. 03. 16 ~ 1954. 04. 15	1월
8	군수	박태근(朴泰根)	1954. 04. 15 ~ 1956. 04. 16	2년
9	군수	이승열(李承烈)	1956. 04. 16 ~ 1958. 08. 09	2년 4월
10	군수	이주진(李州鎭)	1958. 08. 09 ~ 1959. 10. 23	1년 3월
11	군수	이규복(李圭複)	1959. 10. 23 ~ 1960. 05. 23	7월
12	군수	한영수(韓英洙)	1960. 05. 23 ~ 1961. 04. 23	11월
13	군수	정운창(鄭雲昌)	1961. 04. 23 ~ 1961. 07. 20	3월
14	군수	천정근(千貞根)	1961. 07. 20 ~ 1962. 08. 01	1년 1월
15	군수	윤자순(尹滋舜)	1962. 08. 01 ~ 1964. 01. 31	1년 6월
16	행정사무관	장용순(張容淳)	1964. 02. 01 ~ 1965. 03. 26	1년 2월
17	행정사무관	김명식(金明植)	1965. 03. 27 ~ 1967. 12. 09	2년 9월
18	행정사무관	이상직(李相直)	1967. 12. 10 ~ 1968. 09. 25	10월
19	행정사무관	문일수(文逸秀)	1968. 09. 26 ~ 1970. 01. 19	4월
20	서기관	이건우(李建雨)	1970. 01. 20 ~ 1971. 08. 20	1년7월
21	서기관	오호선(吳好善)	1971. 08. 21 ~ 1973. 05. 06	1년 9월
22	서기관	윤병하(尹秉夏)	1973. 05. 07 ~ 1976. 08. 04	3년 3월
23	서기관	계창희(桂昌希)	1976. 08. 05 ~ 1979. 04. 18	2년 9월
24	서기관	조동환(趙東煥)	1979. 04. 19 ~ 1980. 07. 30	1년 4월
25	서기관	박명서(朴明緒)	1980. 08. 01 ~ 1982. 05. 31	1년10월
26	서기관	이재천(李在天)	1982. 06. 01 ~ 1983. 04. 10	11월
27	서기관	최병호(崔炳鎬)	1983. 04. 11 ~ 1983. 12. 26	9월
28	서기관	김상호(金相鎬)	1983. 12. 27 ~ 1985. 03. 10	1년 3월
29	서기관	송인식(宋仁植)	1985. 03. 11 ~ 1986. 03. 10	1년
30	서기관	박계민(朴桂敏)	1986. 03. 11 ~ 1988. 06. 11	2년 3월
31	서기관	예강환(芮剛煥)	1988. 06. 12 ~ 1989. 10. 19	1년 5월
32	서기관	김학규(金學珪)	1989. 10. 20 ~ 1991. 01. 13	1년 3월
33	서기관	진용관(陳庸寬)	1991. 01. 14 ~ 1993. 03. 28	2년 3월
34	서기관	우종오(禹鍾五)	1993. 03. 29 ~ 1994. 01. 02	10월
35	서기관	윤병희(尹秉熙)	1994. 01. 03 ~ 1995. 03. 28	1년 3월
36	서기관	이병선(李炳宣)	1995. 04. 12 ~ 1995. 06. 30	3월
37	정무직(군수)	윤병희(尹秉熙)	1995. 07. 01 ~ 1996. 02. 29	8월
1	시장	윤병희(尹秉熙)	1996. 03. 01 ~ 1998. 06. 30	2년 4월
2	시장	윤병희(尹秉熙)	1998. 07. 01 ~ 1999. 07. 20	1년 1월
3	시장	예강환(芮剛煥)	1999. 09. 10 ~ 2002. 06. 30	2년 3월
4	시장	이정문(李正文)	2002. 07. 01 ~ 현재	

군수 직급은 갑지와 을지로 구분되며 갑지에는 서기관을, 을지에는 사무관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던 것을 1971년 1월 18일부터는 갑을지 구분없이 서기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군수는 36대 이병선 군수가 1995년 6월 30일까지 재임하였고 윤병희 군수가 선거에 의해 정무직으로 37대 군수로 8개월 동안 재임(1995.7.1~1996.2.29)하다가 1996년 3월 1일자로 시 승격에 따라 2년 4월간(1996.3.1~1998.6.30) 초대시장으로 재임하였다. 이어서 2대 시장으로 1년 1월간(1998.7.1~1999.7.20) 재임하던 중 구속으로 자진사퇴하고, 3대 시장으로 예강환 부시장이 1999년 9월 10일에 선출되어 2002년 6월 30일까지 재임하였다, 제4대 시장으로 이정문(李正文) 사장이 2002년 7월 1일자로 부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 2) 역대 부군수·부시장 명단

대수	성명	재직기간	비고
초대 부군수	김남두(金南斗)	1975. 01. 10 ~ 1976. 04. 07	1년 3월
2	차준오(車濬五)	1976. 04. 08 ~ 1978. 06. 12	2년 2월
3	이재석(李載錫)	1978. 06. 16 ~ 1981. 07. 02	3년 1월
4	방지환(方智煥)	1981. 07. 03 ~ 1985. 04. 16	3년 9월
5	김달옥(金達玉)	1985. 04. 17 ~ 1986. 03. 19	11월
6	김학록(金學祿)	1986. 03. 20 ~ 1988. 03. 02	2년
7	박찬원(朴贊遠)	1988. 03. 08 ~ 1988. 06. 20	3월
8	박건양(朴建陽)	1988. 06. 21 ~ 1990. 01. 05	1년 6월
9	송영호(宋榮鎬)	1990. 01. 06 ~ 1991. 01. 15	1년
10	이범상(李範相)	1991. 01. 16 ~ 1992. 03. 19	1년 2월
11	남기천(南基天)	1992. 03. 20 ~ 1994. 05. 18	2년 3월
12	이성섭(李聖燮)	1994. 05. 19 ~ 1995. 06. 30	1년 1월
초대 부시장	최학현(崔學賢)	1995. 07. 29 ~ 1997. 04. 14	1년 9월
2	박승훈(朴勝薰)	1997. 04. 15 ~ 1998. 09. 28	1년 5월
3	예강환(芮剛煥)	1998. 09. 29 ~ 1999. 08. 11	11월
4	한석규(韓錫圭)	1999. 08. 12 ~ 2000. 11. 07	1년 3월
5	여인국(余仁國)	2000. 11. 07 ~ 2001. 07. 28	9개월
6	송영건(宋永健)	2001. 07. 28 ~ 현재	

## 제3절 용인시 행정조직의 특성

무릇 시의 행정조직은 당해 시의 인구를 위시한 각종 행정수요와 환경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불만을 사게 된다.

### 1. 용인시 행정환경의 변화와 양상

용인시는 1996년 3월 1일자로 군에서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한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전지역에 걸쳐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행정수요 전반에 걸쳐 행정력이 충분히 못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준도시 행정체제로 운영해 오던 기흥, 구성, 수지 등의 서북부 지역의 택지조성 사업이 종합적이 아닌 국지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입지 형태의 교통, 환경영향평가만 시행되고 있어 주변 인접도시와의 교통체계, 정주생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및 수질보전문제 등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반사업 시행이 마구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총체적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인력을 감축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도시행정조직으로의 전환과 행정인력 보강을 통하여 도시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용인시는 서울특별시, 수원시, 성남시와 인접한 수도권지역으로 교통의 요충지이며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과 주택난 해소에 의해 택지개발이 계속되는 도·농복합 형태의 고장이고, 도시화 추세로 인구와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개발도상지역이다. 따라서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로 도시행정의 구현책으로 신중하고도 먼 장래를 바라보는 알찬 개발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파괴 문제를 방지하는 친

환경적인 면에도 관심을 두어 이에 대처할 기구의 신설 또는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행정수요의 요구에 부응한 기구

여기에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요구에 부응한 기구의 대강을 살펴보면

○현행 건설도시국을 도시국과 건설환경국으로 분리하여 도시국의 기능을 보강하였고 도시국에 도시과를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리하여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개발 분야를 신설하였고

○서부지역의 택지개발과 관련해 건축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과에 '공동주택담당'을 신설하여 대규모 시설에 대한 인·허가와 사후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민선자치시대 지역행정의 변화상: 지역 이기주의(NIMBY)의 심화로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적극 기피해 반대하는가 하면 자치단체 상호 간에도 이해, 양보가 부족하여 비협조로 시책 수행이 중지 또는 지연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은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상호 간에 협의회(가칭) 같은 것을 조직하여 대국적인 견지에서 꼭 필요한 행정수요의 충족을 가능케 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시 행정조직(Hardware)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무릇 모든 일이 완전무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시 나름대로의 특성을 심분고려해서 기구의 신설 또는 폐지를 단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너무 빈번하게 행정기구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실무경험을 토대로 결정지워져야 할 것이다.

이

백



## 제3장 재정구조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중요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는 아무리 법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유능하고 성실한 인물을 뽑았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나갈 재원이 부족하다면 지방자치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여부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자주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의 운영과 채무부담행위 및 채권의 관리 등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제1절 용인시 재정행정 구조

시의 재정행정구조는 먼저 예산업무를 다루는 기획실의 기획예산 담당관실과 세수입과 세외수입업무를 다루는 경제산업국의 시세과와 도세과 등이 있다.

그리고 시의 재정사무는 시장의 집행에 맡겨져 있는 이른바 '관리 집행권'에 속하지만 이의 집행은 '민주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기관은 이를 분립시켜서 상호견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그 예로써 예산·결산·재산의 처분 등의 중요한 재무행위는 시장의 전권 하에 두지 않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은 수지에 관한 명령권만 가지고 이에 관한 '징수관', '경리관' 등을 따로 두어 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회계기관은 시장에 의해 임명되는 보조기관이고 그 감독 하에 있지만 재무의 집행에 관하여서는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즉 '경리관'은 장의 명령없이 지출을 할 수 없지만 지출명령이 지출원인행위가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되지 않는가의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있으며, 장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으로부터 임명된 보조기관이 독자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는 사실상 가능한지 생각해볼 일이다.

## 제2절 용인시 재정현황

### 1. 용인군 재정현황과 용인시 승격 이후의 재정상황 비교

#### 1) 조세수입면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별	합계	내 국 세						
		계	직 접 세					
			소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1994	334,790	309,831	134,165	68,794	55,930	9,224	217	-
1995	480,871	439,770	246,420	139,331	91,115	13,429	1,290	1,255
1996	528,470	479,945	275,890	168,639	86,846	16,550	3,071	784
1997	520,108	483,143	293,583	165,196	112,704	13,653	2,030	-
1998	466,111	444,761	320,131	165,477	142,220	10,062	2,137	235
1999	438,526	415,254	250,521	158,964	73,691	16,630	1,165	71

구분 연별	내 국 세								방위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
	간 접 세											
	소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전화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1994	176,799	85,216	90,450	1,125	8	-	-110	-1,023	382	24,577	-	-
1995	183,949	72,880	109,701	1,167	201	-	129	9,272	681	33,388	-	7,032
1996	199,149	68,438	128,928	1,609	174	-	14	4,892	882	39,358	-	8,285
1997	181,173	77,827	101,527	1,638	181	-	103	8,284	109	31,235	-	5,621
1998	116,488	77,620	37,245	1,338	235	-	60	8,082	29	12,346	-	8,975
1999	143,835	102,551	39,635	-	1,215	434	24	20,874	33	13,913	-	9,326

자료 : 경인지방국세청

- 국세징수
- 국세징수 추이

군 자치시대인 1994년부터 95년까지의 국세징수는 94년에 3,347억9천만원(내국세 = 직접세 + 간접세 + 방위세 + 교육세 등), 95년

에는 4,808억7,100만원이었던 것이 96년 시로 승격된 후에는 476억9백만원이 증가한 5,284억7천만원으로 되었다. 이후 97년에는 5,201억8백만원으로 475억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98년에는 4,661억1,100만원으로 539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99년에는 4,885억2,600만원으로 275억8,50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와 같이 시승격 96년도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96년 5,284억7천만원 → 99년 4,385억2,600만원) 되어간 것은 경제침체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소득감소와 시민의 납세의욕의 감퇴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 지방세징수 (표 - 별도)
- 1999년도 읍·면·동별 징수액 (표 - 별도)
- 지방세징수 추이

1천8억4천588만6천원에 불과했던 것이 95년에 1천834억6천437만4천원으로 증가했고 시 승격 연도인 96년에는 2천75억2천618만1천원으로 경총 증가한 후, 97년에는 96년보다 3백80억3천989만5천원이 증가한 2천4백55억6천607만6천원이 되었으며 98년에는 쪽 늘어 오던 징수액이 2천3백95억1천151만4천원으로 줄었다가 또다시 99년에는 6백22억2천638만3천원이 증가한 3천17억3천789만7천원이 되었다. 지난 93년에 비하면 실로 약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시 관내에서 징수되는 99년도 세수 총액은 약 7천4백2억6천3백만원으로 국세가 4천385억2천6백만원, 지방세가 3천17억3천737만원으로 국세가 약 1천367억8천만원이나 더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 99년도 읍·면·동별 징수액

14개 읍·면·동 중에서는 2002년 출장소로 승격된 수지출장소가 단연 많아서 1천28억4천212만8천원으로 1위이고 다음이 기흥읍으로 6백25억8천384만3천원이며 최하위권은 12위인 원삼면이 45억8천312만1천원이고 13위가 동부동이 44억2천400만1천원이며 최하위가 백암면으로 34억1천56만8천원이다. 읍·면·동 중 최고인 수

지출장소의 1천28억4천212만8천원에 비해 최하위인 백암면은 34억 1천56만8천원은 자그만치 1천25억156만원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별	구분	1인당 부담액(원)	세대당 부담액(원)
1995		752,566	2,320,836
1996		767,147	2,278,955
1997		816,730	2,429,471
1998		752,251	2,277,072
1999		844,906	2,514,566
	기흥읍	1,019,929	2,953,461
	수지읍	1,011,071	3,053,417
	포곡면	431,801	1,295,350
	모현면	455,849	1,343,156
	구성면	1,339,122	3,829,142
	남사면	1,082,980	3,223,176
	이동면	814,976	2,399,027
	원삼면	618,370	1,796,206
	백암면	326,401	988,570
	양지면	739,025	2,251,276
	중앙동	1,187,032	3,461,844
	역삼동	408,600	1,254,359
	유림동	368,644	1,135,369
	동부동	378,833	1,155,093

## (2) 지방세 1인당, 세대당 부과액

1인당, 세대당 지방세 부담액은 1인당에 있어서는 95년에 75만2천 5백66원에서 97년에는 81만6천730원으로 올랐다가 99년에는 84만 4천906원까지 올랐다.

세대당 부담액은 95년에 232만836원이었다가 97년에 2백42만9천471원으로 올랐다가, 99년 2백51만4천566원으로 1인당 부담액과 동일비율로 상승·하락을 같이하고 있다.

다음 읍·면·동에 있어서의 1인당, 세대당 부담액은 부과액과 인구수에 좌우되는데 1인당 부담액에 있어 기흥, 수지, 구성, 남사면,

중앙동 등은 1천만원대가 되는가 하면 백암면은 32만6,401원에 불과하며, 세대당에서 보면 3백만원대가 중앙동이 3백461만1천844원을 위시하여 수지출장소, 기흥읍, 구성읍, 남사면 등이 있고 2백만원대가 2개면, 1백만원대가 나머지 면이며, 백암면은 98만8천570원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 2. 재정 자립도

재정 자립도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두 가지 자체수입의 합계액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채입금, 기타 수입 등의 세입총액에서 점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frac{\text{지방세수입} + \text{세외수입}}{\text{세입총액(예산액)}} \times 100 = \text{재정자립도}$$

### 1) 시·도 재정 자립도

시·도 중 자립도가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 95.6%로 가장 높고 다음이 경기도로 78.0%이고 인천광역시가 77.7%, 울산광역시가 76.4%, 대구광역시가 75.3%이며 전라남도가 불과 22.0%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으며, 전라북도가 27.7%, 강원도 29.8%, 충청남도가 30.5%를 나타내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편에 속하였다.

### 2) 경기도 시·군 재정 자립도

다음의 표와 같이 과천시 마진세 수입(96.3%)으로 단연 1위이고 2위가 성남시로 89.7%이며 용인시가 3위로 88.7%를 차지하고 있다. 용인시가 용인군(1990년대)이었을 때에는 81.3%로 군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최고를 차지한 바 있다.

구분 시군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 순위						
	합계						
시명	자립도(%)	순위	비고	시명	자립도(%)	순위	비고
수원시	86.0	6		오산시	45.1	24	
성남시	89.7	2		시흥시	72.6	11	
의정부시	72.7	10		군포시	77.7	9	
안양시	86.4	5		의왕시	62.1	17	
부천시	80.6	8		하남시	49.0	23	
광명시	72.1	12		용인시	88.7	3	
평택시	58.6	18		파주시	53.2	21	
동두천시	49.2	20		이천시	55.8	20	
안산시	81.6	7		안성시	36.2	25	최하
고양시	87.8	4		김포시	64.2	15	
과천시	96.3	1	최고	화성시	69.8	13	
구리시	56.0	19		광주시	65.6	14	
남양주시	63.8	16					
군명	자립도(%)	순위	비고	군명	자립도(%)	순위	비고
양주군	54.2	1	최고	포천군	46.3	3	
여주군	33.8	4		가평군	32.8	5	
연천군	25.1	7	최하	양평군	31.4	6	

### 3) 인건비 미해결 단체

재정 자립도와 관련해서 고려해야할 점은 당해 단체에서 채용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 조달이 지방세 징수로 충당되지 못하는 시·군·구가 232개 지구 중에서 무려 146개(63%) 시·군·구나 되며, 72개시 중에서 18개시(25%, 1/4)이고 91개군 중에서 75개군이(81.4%)이며 69개 자치구 중에서 53개 자치구(76.8%)가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자체수입에 의한 미해결단체는 29개 시·군·구로 1개시, 27개군, 1개 자치구로 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 대비 미달군은 연천군과 가평군의 2개군 뿐이고, 인천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이 해당되는데 이 양개군은 인천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역시 경기도에 속해 있었다.

#### 4) 시 승격 전후의 자립도 추이

년도	자립도(%)	년도	자립도(%)
1995	83.52	1999	85.90
1996	91.55	2000	71.60
1997	90.75	2001	88.70
1998	90.10		

시 승격 이전까지도 용인군의 재정 자립도는 비교적 높은 83.52%였고 시승격 연도(1996년)에는 91.55%라는 최고의 자립도를 기록하다가 97, 98 양년에 90.00%대로 내려갔고 99년에 85.90%로, 2000년에는 71.60%로 내려갔다가 2001년에 다시 상승하여 88.7%를 나타내고 있다.

#### 5) 재정 자립도에 관한 문제점

여기서 이와 같은 재정 자립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구역을 폐지·분합해서 수용비를 감소시키고 주민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종 사업을 보다 많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즉, 협소한 행정구역을 합병하여 광역화함으로써 기관장, 의회위원의 감축, 공무원 수의 감소로 인한 예산을 지역사업 수행에 전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빈푸대는 설 수가 없는 것이다.

### 3.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예산대 결산비율%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1995	205,008	100	217,817	100	106.3
1996	253,190	100	268,338	100	106.0
1997	312,441	100	322,032	100	103.0
1998	329,512	100	349,746	100	106.1
1999	260,236	100	362,340	100	139.2



## 1) 99년도 과목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예산대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결산비율%
지방세	106,046	40.7	116,912	32.3	110.2
세외수입	103,198	39.7	194,354	53.6	188.3
지방교부세	2,676	1.0	2,676	0.7	100.0
지방양여금	2,631	1.0	2,631	0.7	100.0
보조금	36,185	13.9	36,267	10.0	100.2
지방재원	9,500	3.7	9,500	2.6	100.0

\*자료 : 회계과

일반회계의 1965년 이후의 세입결산을 보면 1995년 예산현액 2,050억800만원에 결산액이 2,178억1,700만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이 106.3% 이었던 것이 시 승격 년도인 1996년에 증액되어 2,351억9천만원으로 97년, 98년 연속하여 98년에 3,295억1,200만원으로 결산은 3,497억4,600만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이 106.1%나 되던 것이 99년에는 692억7,600만원이나 감소한 2,602억3,600만원으로 내려갔다. 이는 96년 시 승격 당시에 상승하다가 99년에 이르러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경기불황과 소득감소의 세원감소는 우리나라 역시 이의 영향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 한 바 이에 대책이 요구된다.

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보면,

- 지방세 - 1천60억4천6백만원으로 40.7%,
- 세외수입 - 1천31억9천8백만원으로 39.7%
- 보조금 - 3백61억8천5백만원으로 13.9%
- 지방교부세 - 26억7천6백만원으로 1.0%
- 지방양여금 - 26억3천1백만원으로 1.0%
- 지방재원 - 95억원으로 3.7% 이다.

일반회계의 세입항목을 보면 지방세가 40.7%인 1천60억4천6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9.7%인 1천31억9천8백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보조금이 13.9%인 3백61억8천5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재원 등은 각각 1%, 그리고 3.7%에 불과하다.

## 4.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예산대 결산비율%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1995	205,008	100	138,062	100	67.3
1996	253,190	100	169,337	100	66.9
1997	312,441	100	184,624	100	59.1
1998	329,513	100	230,796	66	70.0
1999	260,236	100	230,233	100	88.5

### 1) 99년도 과목별 내역

구분 연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예산대 결산비율%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일반행정비	41,977	16.1	37,182	16.1	88.6
사회개발비	150,124	57.7	127,193	55.2	84.7
경제개발비	61,758	23.7	63,269	27.5	102.4
민방위비	851	0.3	672	0.3	79.0
지원 및 기타경비	5,526	2.1	1,917	0.8	34.7

자료 : 회계과

일반회계의 1965년 이후의 세출 결산액을 보면 1995년의 예산현액 2천50억8백만원에 결산액이 1천3백80억6천2백만원으로 예산대결산비율이 67.3%이었던 것이 시 승격 연도인 1996년에는 예산현액 2천5백31억80천만원에 대한 예산대 결산비율이 66.9%로, 96년에는 59.1%로 하락하다가 98년에 70.0%로, 그리고 99년에는 88.5%로 상승되었다.

1999년도 예산현액과 과목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4백19억7천7백만원으로 16.1%, 사회개발비가 1천5백1억2천4백만원으로 57.7%로 단연 많으며, 경제개발비가 6백17억5천8백만원으로 23.7%, 민방위비가 8억5천1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5억2천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정비인 일반행정비가 사회개발비보다 아주 적은 35.7%의 비율을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개발비는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비목이기 때문이다.

## 5. 용인시 채무운영 현황

### 1) 경기도 시·군의 부채

지난해 말 현재 경기도 시·군의 부채는 2조3천334억원이라 한다. 이와 같은 부채액은 예산의 28%에 해당하며 이자지불액은 연간 1,200억원으로 도민 1인당 23만3천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채는 일부 일선 자치단체장들이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치 않고 선심성, 낭비성 행사와 웅장한 청사의 신축 등 전시성 대규모 사업 등이 지방재정 악화의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자료 : 행정자치부

### 2) 용인시 지방채무 운영현황

단위 :천원

· 현재 채무액(2001. 11. 8)	111,976,978
원금	81,493,154
이자	30,483,824
· 2000년말 채무 잔액	118,798,581
원금	83,318,684
이자	35,479,897
· 2001년도 발행액(1년간)	291,281
원금	250,000
이자	41,281
· 2001년도 상환실적(1년간)	7,112,884
원금	2,075,530
이자	5,037,354
· 현재 채무 잔액	111,976,978
원금	81,493,154

이자	30,483,824
회계별 차입형태	
· 공기업 특별회계(증서차입)	62,814,438
원금	45,585,170
이자	17,229,268
· 기타 특별회계(증서차입)	33,362,457
원금	24,307,784
이자	8,931,673
· 일반회계	15,800,084
원금	11,477,300
이자	4,322,884

용인시는 부천시(1위)의 2천661억1천9백만원, 수원시(2위)의 2천142억2천1백만원, 평택시(3위)의 1천909억9천2백만원, 성남시(4위)의 1천773억4천4백만원, 의정부시(5위) 1천557억2천5백만원에 이어 광주시가 1천212억2천만원으로 6위, 그리고 용인시가 111,976,978백만원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 현재 채무액의 차입형태는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등의 증서차입 이다.

지방채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재정수요면에 쓰여지기 위한 것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너무 지나친 채무는 원금과 더불어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게 되어 궁핍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 제4장 용인시 2001년 시정 개요 및 시정 장기발전계획



### 제1절 2001년 시정 개요

#### 1. 8대 역점시책

- 전자정보 행정체계 구축을 통한 지식기반 경쟁력 강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범적인 시정 구현
- 우수한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푸른 환경 '새용인 21'을 위한 환경친화적 도시기반 구축
- 체계적인 광역교통망의 확보의 지역균형발전 도모
- 훈훈한 사랑이 넘치는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
-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업 육성
- 문화·관광·생활체육의 진흥을 통한 문화관광도시의 위상 정립

▶8개 역점사업 내용

① 전자정보 행정체계 구축을 통한 지식기반 경쟁력 강화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앞서나가는 지방자치단체 조성을 위해 행정에 전자결재시스템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각종 문서생산을 위한 인력비용절감과 결재시간 단축, 원거리 결재 도입 등 신속한 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음.
-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행정에 관한 자료 및 정보가 시민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새로운 행정패러다임 형성으로 시민의 욕구충족에 만족하는 차별화된 정보의 갱신과 제공으로 대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 모두가 지식정보를 빠르고 쉽게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이버환경 조기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음.
- 지상 및 지하의 방대한 도시기반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를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하는 GIS를 도시지역부터 구축해 나가겠음.
- 도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자정보자료실 운영과 영상음향 자료 구비를 통해 전자정보도서관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②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범적인 민주행정 구현에 주력해 나가겠음

-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과대읍 특례적용으로 기구정원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안정된 행정조직을 실현하고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4~5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5급 공무원 승진심사제를 운영하여 연공서열이 아닌 일하는 직원이 대우도 받고 승진도 하는 인사제도를 확충해 나가겠음.
- 또한 여성 공무원의 증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일시 배치하는 인력은행을 운영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음.

- 행정타운 건설 및 포곡면, 동부동의 청사 신축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 복합청사의 건립을 통한 다양한 문화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음.
- 친절서비스 교육 등 직장교육과 으뜸공무원 선발로 신상필절을 통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음.
- 민생행정과 행정질서가 조화롭게 부합될 수 있도록 각종 부조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도 노력해 나가겠음.
-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과 상습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PDA단말기를 이용한 체납처분 강화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 및 시 예치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통해 건설한 지방재정을 이루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겠음.
- 지방행정도 앞서서 기다리는 소극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행정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음.

### ③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음

- 우리 경제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경제구조 개혁으로 9%의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외환 보유고를 927억 달러까지 끌어 올렸으며, 또한 일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실업율이 증가하는 면도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 등으로 실업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와 구조조정의 이완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조속히 완결해야만 하겠기에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에 중소기업의 육성과 수도권 국제완화에 주력하겠음.

-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한편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관내 대학 및 연구소가 중소기업의 공동연구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학·연의 공동기술체계를 구축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해야 함.
- 우리지역의 우수 유망 생산품을 인터넷사이트 개설을 통해서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도 주력하는 등 중소기업체의 취약점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 특히 우리 용인시가 벤처 발전축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W 지원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음.
- 대형 유통업체의 상권 확산으로 경쟁이 열악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점포의 시설정비 및 상품의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과 대학 소비문화와의 연계를 통한 자주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시장의 접근성과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등기소에서 슬막다리간 2차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음.
- 에너지 절약은 국제수지 개선과 경제의 안정성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 및 절약형 산업구조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음.
- 수도권외의 국제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를 도모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흥하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음.
- 현재 실업률은 실업이 장기화되고 임시·일용직이 증가하는 등 고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전문기능인력의 양성과 공급으로 취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구인구직 알선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재취업의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음.
- 그 동안 실업자를 감소시키고 이들의 공익성이 높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안주하려는 일부 참여자들의 의식전환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음.
- 노사개혁을 뿌리내리기 위한 법과 질서가 준수되는 원칙 하에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 및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음.



## ④ 푸른 환경 '새용인 21'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의 조성

-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운 균형을 무시한 일반적인 중앙정부의 밀어부치기식 개발논리에 의해 우리 용인은 개발의 이익보다는 지역 간의 불균형, 주민 간의 정서적 갈등, 환경파괴 등 손해가 더 컸던 것이 사실임.
- 우선 21세기 용인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개발의 전략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 '용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용인도시계획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개발수요를 계획적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는 등 시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토록 하겠음.
- 서북부지역에 대해서는 부족한 공공시설 공급과 장래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서북부지역 전체를 광역신도시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음.
- 각종 도시기반시설 등이 주위의 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적 특성을 가진 개발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 산발적인 공동주택 개발을 방지하고 민간주도 하에 추진되는 계획적인 신성지구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대상 제외지역에 대한 취약지구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음.
- 죽전지역 난개발 해소를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자인 토지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도심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음.
-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인 환경보존을 위하여 내년에는 환경보존 중·장기 종합계획 및 오염 총량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 그 동안 지연되고 있는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으며 소각시설,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에는 항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시설유치를 요청하는 시대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음.

-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확대 추진하여 토양 오염방지에 힘쓰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에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 시민들에게 넉넉하고 편안한 녹지공간 제공 및 체력증진 도모를 위해서 개발에서 제외된 묘지 등을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고 주요 관광지 진입로에 꽃길을 조성하는 등 도심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음.

⑤ 체계적인 광역교통망의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의 추진

- 급격한 도시화와 서북부지역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이에 반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상습 정체 구간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쟁력 저하를 우려할 단계에 봉착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내 교통문제의 진단 및 광역교통체계의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으며, 대중교통의 확대를 위하여 버스노선을 신설토록 하고 아울러 교통량을 조사해서 택시 증차를 실시함으로써 교통난 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음.
- 교통오지에 대하여는 공영버스의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2000년도에 이어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과 지속적인 보수를 통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공용주차장 특히 여성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수지출장소 주차빌딩 건축은 원활한 교통환경에 기여할 것임.
-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불법주·정차 단속 등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음.
- 간선도로망 확충은 지역간 균형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도로 확·포장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대중교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재원조달 미확정 및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다소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

지만 국고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음.

#### ⑥ 소외계층을 위한 생산적 복지행정의 실시

기존의 복지정책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구휼의 입장이었으나 이제 복지는 구휼보다는 자립의지를 키우고 사회의 갈등을 완화시키며, 개발과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여 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생산 지향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음.

- 소외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자활사업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재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고령동에 건립된 재활작업장의 운영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소외받고 외로운 노인을 위해서 이미 확보된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인 인력은행의 개설운영으로 전문인력을 관리하여 경로당을 “역사와 충효의 장”으로 변모시킴은 물론 노인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 21세기는 여성의 자상함과 섬세한 감각이 요구되고 발휘되는 시대인 만큼 여성들의 사회진출 기회제공을 위하여 각종 협의회,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반영 및 여성참여 프로그램의 확대운영 등 여성인력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음.
-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각종 질병에 대한 자가 예방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의료비 경감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음.

#### ⑦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업의 육성

- 농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써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제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화농업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어야 함.
- 농촌을 이끌어 나갈 전문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전문 기술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고 첨단농업 생산시설과 농산물 직거래장 조성 등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 공사, 수리시설 보수 등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음.

-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농촌의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으며, 화훼, 돼지 등 수출유망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개선 및 수출비용 지원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음.
- 고품질 용인 백옥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고품질 다수성 품종 확대 보급 및 기상재해 예방교육, 항공방제 등을 실시하고 쾌적하고 매력있는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의 하수도 정비 사업과 농촌 노후불량 주택개량,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에도 보다 큰 관심을 갖도록 하겠음.

#### ⑧ 문화·관광·생활체육의 진흥을 촉진

- 문화관광사업은 정보통신, 생명산업 등과 더불어 향후 10년 내에 초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21세기 주요 전략사업으로 이러한 문화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동면 서리 상반 백자 요지에 대한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사업 등을 통해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문화유적 관광상품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 용인시는 많은 관광자원과 뛰어난 교통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나 관광상품화가 부족하여 지역경제에는 실속도 없이 교통체증만 유발시킨다는 말을 자주 들어 왔는 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과 누구나 쉽게 가서 즐길 수 있는 국민관광지 개발 등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용인 관광비전 21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문화재 CD-ROM제작 및 관광식당을 지정 주방, 화장

실, 식탁 현대화와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친절교육 실시 등 관광서비스 여건의 개선을 통해 우리 시민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실내체육관 건립 및 학교체육관 건립비 일부를 지원하여 관내 주민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한편, 체육 꿈나무들을 발굴, 집중 육성토록 체육진흥기금을 증액 육성하고, 시민 한가지 스포츠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체육이 우리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시정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설명한 바 이와 같은 용인시정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력, 제도개선과 재원확보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시민의 민생과 직결된 현안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쳐나가고 민원을 줄이며,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료 :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 시행계획, 기획예산담당관실

## 제2절 용인시 장기발전계획

### ▶ 시책 1. 전자정보 행정체계 구축으로 지식기반 경쟁력 강화

#### 1-1. 작고 효율적인 전자시정 구축

- 시민들의 욕구수준에 부응하여 차별화된 정보의 갱신과 제공으로 대민 서비스 개선
- 초고속 통신망 관련기관 및 민간사업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전자결재로 전환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 변동자료 및 정보의 지속적인 보완
  - 자료관리 담당자 및 관리자의 지정운영
  - 신규 사이트의 개발 및 정보 업데이트를 위한 장비 확충
- 초고속 통신망의 조기구축 지원
  - 통신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용인시의 초고속 통신망의 지속적인 확대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기반 확립
  - 직원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교육 실시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 각 부서 자료관리자의 관심부족으로 변동자료의 업데이트 미비
  - 증가하는 정보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장비(D/B서버) 확충 시급
- 초고속 통신망의 조기구축 지원
  - 사업추진 기관이 한국통신 등 외부기관이므로 초고속 통신망의 조기구축에 한계
  - 간담회를 통한 독려나 가입을 촉구하는 홍보활동만으로는 미흡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기반 확립
  -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적극성 및 의지 부족으로 기존대로 수기 처리를 고수하려는 사례가 있어 가능한 모든 업무에 대해 본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독려 및 홍보 필요

## 1-2. 정보화 마인드를 통한 신뢰시정 구현

- 정보화 교육의 일원화를 통해 단계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능력별, 계층별 교육실시
- 행정정보화 촉진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신뢰성 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체제 구축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정보화교육의 일원화
  - 계층별 과정별 주민전산교육 확대
-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 상하수도 시설물 탐사 및 조사
  - 기존자료 수집하여 D/B 작업
  - 상하수도 운영환경 구축
- 지방행정 종합정보화사업의 확대 추진
  -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11개 사업 추진(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재난재해, 호적, 수산)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정보화 교육의 일원화
  - 주민 정보화 교육의 확대에 따른 전담 직원 및 예산 부족
  - 중급 및 전문반 등 심화과정 개설시 대상자 부족으로 교육중단 사태 발생 우려
-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 지리정보 추진기반의 미비

- 지리정보추진 통합관리체계 미비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장비(7종)를 위한 공간 협소
- 국·도비 지원이 없이 막대한 예산 소요
- 지방행정 종합정보화사업의 확대 추진
- 민원발급 대상인 모든 자료의 정확한 대사가 요구

▶ 시책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범적인 시정구현

2-1. 지속적인 정책 형성능력 제고

- 조직과 개인의 능력을 조화시켜 행정서비스의 효과를 증대
-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접목시킴으로써 경쟁력 있는 21세기 시정의 재정립 구현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시정발전 연구과제 공모
  - 지속적인 시정발전연구과제 공모를 통한 시정발전방향 모색
  - 시정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모색
- 우수 발전행정시책 포상제
  - 우수 발전시책의 지속적인 발급 및 인센티브 제공
- 2002년 해외벤치마킹 팀 운영
  - 해외벤치마킹 팀의 성과결과를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
- 제안제도 활성화
  -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안건을 실무에 반영
- 주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추진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로 강력 억제
  -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부당적 규제의 지속적인 검색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시정발전 연구과제 공모
  - 과중한 업무에 따른 참여의식 소홀



## 2-2. 시민 본위의 현장행정 추진

-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함으로써 친근한 행정 이미지를 구현
- 민생분야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감사 제도
  - 2002년도 정기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주요사례 공개
  -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확대 운영
  - 시민감사모니터 요원의 내실있는 운영
- 가스·전기 사용시설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 정기검사 안내문 사전 발송 지속적 추진
- 시정 참여교실 확대 운영
  - 시정 참여교실의 확대 및 전문강사의 초청 운영
-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강화
  - 사업량 : 20건(소규모 생활불편사업)
  - 사업비 : 1,800 만원(시비)
  - 세부추진내역
    - 도로소파 보수 등 소규모 사업 : 20건 5,000만원
    - 보안등 수리 및 맨홀뚜껑 자재구입 등 : 13,000만원
- 모범 리·통장 선진지 견학
  - 모범 리·통장 자질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확대 운영
- ‘우리고장 바로 알기’ 시민운동 전개
  -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 확대추진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공개감사제도 적극 운영
  - 공개감사제 및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시민감사 모니터요원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참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
- 생활 민원처리반 운영 강화

- 생활 민원처리반(6명)의 전문인력 부족

### 2-3. 건전한 자주재원의 확보

-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 완벽한 세원관리와 재원의 계획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건전하게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 자주재원의 확보는 절대적인 조건으로 지방세수의 증대는 물론 효율적인 재정운영도모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의 소득감소와 부도 및 개인의 퇴직 및 실업 등으로 주변 경제여건 악화

#### ▶ 시책 3.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3-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 우수 중소기업자들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조성
- '산·학·관'의 공통기술 개발체계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중소기업 경영활동 정상화를 위해 운전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2001년도 기술개발지원업체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지원방향

모색

-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운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도 담보여력이 없어 용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시 총 지원규모 370억의 20%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담보여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요구됨.

## 3-2. 수도권 벤처사업의 기지화

- S/W 지원센터를 건립 유망한 S/W 관련 창업보육 및 신기술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정보사회 기반 구축
- 저렴한 비용의 창업공간 제공 및 우수한 벤처기업을 유치

### 1) 2002년 추진계획

- S/W 지원센터 건립
  -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 위탁관리
- 운영
  - 벤처집적시설 건립 추진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S/W 지원센터 건립
  - 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과 연계
  - 시 건축위치 조정이 불가피함.

## 3-3.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고용정보 제공

- 최근 경기악화로 실업률의 증가함에 따라 고용정보 제공을 통

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 및 사회안정에 기여

- 고용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취업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취업정보센터 운영
  -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알선 지속 실시
  - 시청, 읍·면·동사무소 노동복지회관 창구 마련(전담요원 4명 배치)
  - 취업센터운영에 따른 예산(300만원) 확보
-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실시
  -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전문기능요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실직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현장과 연계하여 각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 및 기능인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고용촉진 도모
-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 실업률 및 계절적인 요인 등 경기회복정도에 따라 신축적 운영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취업정보센터 운영
  - 구인업체의 상당수가 3D 업종으로 구인·구직 알선이 어려움.
-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실시
  - 4인이하 사업장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대상자 모집이 어려움.
  - 주부, 여성 위주로 고용촉진훈련이 이루어질 경우 훈련실적의 저하 예상
-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 사업비 대폭감소로 기존 사업규모 축소운영이 불가피
  - 상반기에 사업비 70% 집행으로 하반기 사업차질 우려

### 3-4. 에너지절약 및 절약형 산업구조 마련

- 에너지절약이 국가경제 위기극복 및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에너지절약 기구 설치로 에너지 절감 도모
- 시설원예재배 농가의 난방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에너지 수입에 따른 외화 절약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신축공공기관 축냉식 냉방기 설치
  - 사업대상 : 용인여성회관, 용인 실내체육관
- 에너지 절감으로 원예·특용작물 안정적 생산
  - 자체사업으로 확대 추진

#### 2)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공공기관 ESCO 사업 추진
  - ESCO 사업 타당성이 없는 공공기관은 자체예산을 확보 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부담이 존재
- 에너지 절감으로 원예·특용작물 안정적 생산
  - 경기침체로 인한 화훼 및 원예작물 소비위축으로 가격하락 및 시설비 투자 감소
  - 현재 보조비율 50%를 60%로 상향조정 요망

#### ▶ 시책 4. 푸른 환경 '새용인 21'을 위한 환경친화적 도시기반 구축

### 4-1. 녹지공간 확보로 시민의 휴식처 제공

-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녹지 및 휴식공간 등에 대한 주민욕구가 집중되고 있어 시민의 욕구 충족 및 체력증진 도모
- 시기별 꽃길 조성을 통해 용인의 이미지 홍보는 물론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주요관광지 진입로 꽃길 조성
  - 기존 꽃박스를 설치하여 계절에 맞는 꽃식재
  - 기존 노선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꽃박스 설치, 꽃씨 파종 확대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수지 죽전리 체육공원 조성
  - 공공용지내 사유지 및 지장물 등 평가결과 보상액 과다소요
  - 공원조성 부지 내의 국유지에 대한 양여, 무상대여 등 소관 중앙 부처의 관리계획 승인의 지연
  -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된 인근 부지는 공원조성이 지대가 약 2m 정도 낮아지므로 강우시 침수피해와 생활불편 초래에 따른 추가매입 요구
  - 공원조성 예정부지와 연접한 하천기본정비 예정계획선 내에 위치한 사유지에 대한 지주들의 보상요구 예상
- 주요관광지 진입로 꽃길 조성
  - 꽃길조성 부지확보가 곤란하며 교통사고 등 시설물 파손이 용이함.
  - 사업완료 후 관리인원 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 미비

4-2. 수질오염의 총체적 관리체계 구축

- 환경문제의 중·장기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제반 환경실태 조사 및 미래예측을 통한 21세기 친환경도시 건설
-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 용역내용 전문가 검토 및 자문

- 세부집행계획 수립 시행
- 오염 총량 관리계획 수립
  - 용역 보고서 검토
  - 주민의견 수렴 및 계획보완 승인신청(3개월)
  - 세부집행계획 수립 시행

## 2)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오염 총량 관리계획 수립
  -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조기확보의 어려움
  - 환경부 승인절차의 어려움
  - 행위제한의 적용배제 불투명
  - 수질보전을 위한 행정규제 강화
-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 택지지구 및 공동주택 등 승인된 개발계획 인구가 제외되어 장래 계획 인구와의 오차 발생으로 기본계획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음.
  - 도시기본계획(안)의 인구계획 설정이 지연되어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립이 늦어짐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악화 가속화가 예상됨.

## 4-3.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실천

- 환경오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을 통해 깨끗한 물 살기 좋은 자연환경의 보전 도모
- 21세기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위한 의제 채택 및 실천을 통하여 '푸른환경 새용인21' 구현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마을하수도 오수정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 지속적인 오수정화시설의 운영 도모
- 환경교육장의 산 교육장 운영

#### 4-4.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적정 처리하여 토양오염을 방지
-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단화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경비 절감도모
- 타지역 의존없이 발생 쓰레기의 전량 자체처리 기반을 마련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생활쓰레기 2단계 소각시설 건설
  - 2003. 6~11 : 성능보존 시운전
  - 2004. 1 : 위탁관리
  - 2004. 1 : 정상가동개시
- 획기적인 쓰레기 수거체계개선
  - 용역결과 후 추후 수립
- 음식문화 개선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모범음식점 확대지정
  - 확대지정 및 간담회 개최
  - 인센티브 지급
  - 우수실천업소 중점관리
  - 좋은 식단체 이행업소 지도단속
  - 우수실천업소 시설개선 용자 지원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생활쓰레기 2단계 소각시설 건설
  - 포곡면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편중되어 피해의식이 팽배
  - 2단계 소각시설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포곡면 도시계획 일부 변경 등 획기적인 주민지원사업 요구
  - 소각시설 유해가스 방지시설을 유럽 등 환경선진국 이상으로 설치 요구
- 획기적인 쓰레기 수거체계개선



-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참여의식 저조
-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 재분류에 막대한 인력 낭비가 소요됨.
- 음식문화 개선
  - 모범음식점 지정 후 지위승계시 지정취소를 해야 하나 확인점검의 한계
  - 우수실천업소 시설개선 용자지원 후 시설변경으로 인한 사후관리 한계

## ▶ 시책 5. 체계적인 광역교통망의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5-1. 획기적인 도시교통망 확보

- 용인 경량전철건설 조기건설을 통해 급증하는 교통수요 해결 및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 수지지역의 주차난 해소, 차량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지구차빌당을 신축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용인 경량전철 건설사업 조기 추진
  - 민간사업자 지정(2002. 3)
  -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2002. 7)
- 수지구차빌당 신축
  - 유료화 준비 및 임시운영(2002. 1 ~ 2002. 3)
  -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권 이관(2002. 4)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용인 경량전철 건설사업 조기 추진
  - 재원조달(국비 771억원 확보방안) 미확정
  -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지연
- 수지구차빌당 신축

- 유료화로 인한 주민 거부감 해소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방안 필요
- 인접부지의 여성복지회관 건축공사와 유기적 연계가 요구됨.

## 5-2.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과 교통체계개선으로 차량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
- 교통질서의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교통안전시설 확충
  -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 15개소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4개소
- 건전한 교통질서의식 확립
  -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의 시민참여 적극 유도
  - 교통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 각종 단체의 교통질서계도에 대한 지원 확대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교통안전시설 확충
  -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 도로개설 등의 사유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부서 및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건전한 교통질서의식 확립
  - 시민의 교통질서의식 결여로 위법행위의 지속적 증가
  -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확대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 5-3.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우범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 도모
-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촌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살기 좋은 농촌건설로 농민의 삶의 질 향상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 70동 14억원
  - 농촌빈집정비사업 : 20동 600만원
-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추진계획
  - 사업량 : 2개소
  - 사업비 : 7억원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주거환경 개선사업
  - 경제여건 악화로 주택신축자금 마련이 어려워 포기자 속출
  - 대부분 관외소유자가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빈집을 소유하고 있어 철거동의가 비협조적임.
  - 철거비용 30만원 지원만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
-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오수처리시설 설치의 기피로 설치장소 설정의 어려움

#### ▶ 시책 6. 훈훈한 사랑이 넘치는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

### 6-1. 소외계층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생산적 복지사회 실현

-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건설 도모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복지 실현
  - 가정방문 등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욕구 해소
  - 생계보호비 등 법정지원금 적시지원을 통한 복지대상자 생활안정
  -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 도모
  - 장애인(생계, 교육, 의료비) 급여확대
  - 보훈기금을 통한 보훈사업추진 확대
  - 월남전 고엽제후유증환자전우회 지원 확대
- 함께하고 참여하는 자원봉사 추진
  - 우수자원봉사단체 사업비 지원 확대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확대
  - 자원봉사대회 개최
  - 자원봉사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 어린이 한마음 운동회
  - 향후 추진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
- 건전아동 육성
  - 건전한 아동지원 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경로우대사업 추진
  - 노인여가활동 지원 및 노인공경사업 지속 추진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복지 실현
  - 급증하는 복지업무로 '가정방문' 등 현장행정 추진의 어려움
- 함께하고 참여하는 자원봉사 추진
  - 자원봉사센터에 전자결재시스템이 없어 업무 지연

## 6-2.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

- 충효교실운영 활성화로 어린이 한문교육 및 충효정신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노인의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을 확산
-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급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상승에 따른 의료취약 소외계층 및 노령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충효교실운영 활성화
  - 충효정신의 계승·발전 및 노인의 여가선용 사회봉사활동을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 의약분업에 따른 노인건강증진 도모
  - 65세 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 무료진료 고혈압, 당뇨약
  - 65세 이상 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6-3.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

- 향후 2010년 수지지역 40만 시민의 정서함양과 여성의 교양, 문화의 요람이 될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의 복지증진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회관 건립
  -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완벽한 공사 실시
  - 2003. 8 : 시설공사 준공
  - 2003.10 : 여성회관 개관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잠재능력 개발
  - 다양한 여성참여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속 추진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여성에 대한 기존관념에서의 탈피의식 부족
-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 부족

#### 6-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가정 육성

- 건전여가활동 지원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정  
신문화 개발 도모
-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통한 건전가정 도모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진취적 청소년 육성 및 선도
  - 청소년 육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 추진
  -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지도단속 강화 추진
- 식품의 안정성 관리강화
  - 국민건강식품 관리강화 및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유해공중접객업소 근절 및 위생업소 단속
  - 공중접객업소 및 위생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방안 강구
- 가족보건사업
  - 임신부·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사업 및 암 검진사업의 지속  
추진
- 건강증진사업
  - 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전체의 의료혜택을 위한 시책 강구
- 시민홍보용 납골모형 전시
  - 납골모형 전시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실시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식품의 안정성 관리 강화
  - 다소비식품 수거시 수거비 부족으로 수거품목 한계 노출
  - 지도단속 인력부족으로 사전지도점검의 한계
  - 식품위생법 완화로 영업주의 경각심 부족
- 유해공중접객업소 근절 및 위생업소 단속

- 공중위생관리 영업자 임의변경으로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자 판단이 곤란
- 공중위생관리법의 준수사항 일부삭제로 위반자 처벌기준 모호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후 영업장 처벌기준 삭제로 단속의 한계가 있음.
- 가족보건사업
  - 의사의 예진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예방접종 요망
  - 일정에 관계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병원 위탁 요망
- 건강증진사업
  - 독거노인(거동불능자)에 대한 자원봉사의 지속성 한계

## 6-5. 다양한 계층의 문화복지욕구 충족

-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날로 다양해지는 시민의 문화·복지욕구 해소
- 노인의 여가·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문화·체육공간 제공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종합복지회관 건립
  - 조속하고 내실있는 공사 추진
  - 2003.10 : 종합복지회관 개관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종합복지회관 건립
  - 종합복지회관 업무를 추진할 전담인력 부족
  - 국·도비 지원없이 시비만으로 추진함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 ▶시책 7.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업 육성

### 7-1.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 첨단 농업을 위한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

- 하여 농축산 생산물의 청정화 도모
- 품질 고급화를 통한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추진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 우수 농특산물 홍보강화
  - 우리 시 농특산물에 대한 TV광고(6개월)를 통해 타 지역에 집중 홍보 추진
- 가축방역사업
  - 청정 고돈육 생산을 위한 사전예방의 방역체계 구축
-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
  - 지역특화 및 새기술 시범사업 확대 보급

### 2)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우수 농특산물 홍보강화
  - 국·도비 예산확보의 어려움
- 가축방역사업
  - 구제역 등 주요 전염병 발생시 공무원 및 방역인력 부족
  - 용인공동방역단 방역인력 부족으로 소독실시의 어려움
-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
  -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체계 실증시범 사료개발의 어려움
  - 조기이양에 따른 논뒷그루 사료 작물재배 기피현상

## 7-2.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구축

- 농업여건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능력 함양
- 새 기술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 위주의 기술과 벤치마킹기법 교육
-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의 고품질화 유도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고객만족 새기술 정보화 교육
- 기술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
- 일반농업기반 조성사업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고객만족 새기술 정보화 교육
  - 농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저하
  - 전문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많은 예산 소요

7-3. 친환경 생산체계 확립

- 친환경농법의 육성을 통해 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
- 고품질 다수성품종 확대 및 적기영농 추진으로 단위수량 증대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지속적인 확대 추진
- 고품질 '용인 백옥쌀' 안정생산
  - 새로 육성된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단위수량증대 및 안정생산 도모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고품질 '용인 백옥쌀' 안정생산
  - 기상재해로 인한 목표추진의 어려움이 내재

▶ 시책 8. 문화·관광·생활체육의 진흥을 통한 관광 휴양도시의 위상 정립

### 8-1. 21세기형 관광산업 육성

- 전통과 현대문화를 접목시킨 중·장기적인 관광정책 수립을 통한 21세기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 도모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용인관광비전21' 종합계획 수립
  - 용인관광비전21 계획을 토대로 관광객 유치 강화
- 서리상반 고려백자요지 발굴 및 관광상품화 계획
  - 서리 고려백자요지 2차 발굴
  - 요지토지매입 및 도자문화센터 건립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용인관광비전21' 종합계획 수립
  - 용인관광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전담요원 부족
-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 및 관광상품화 계획
  - 2001년 세계도자기 EXPO 관광객들의 관심여부가 불투명

### 8-3. 용인 실내체육관 건립

- 2000년대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할 용인시의 위상에 걸맞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기후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경기를 개최
- 동시에 시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의 제공을 통해 체육진흥 도모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용인 실내체육관 건립
  -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마무리 공사 및 준공

#### 2)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용인 실내체육관 건립
  - 계속사업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증액이 예상

### 8-3. 전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육성

- 시민들의 문화수준과 정서함양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에 따라 생활체육진흥사업을 확대·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체육발전에 기여

####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생활체육 활성화
  - 각종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회장기(배) 대회의 확대 개최
  -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의 알찬 운영
- 체육 꿈나무선수 육성
  - 기존 운영중인 초·중·고교별 운동부의 지원은 물론 초·중·고 연계 육성 가능한 종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 유소년 대회(현 2개종목)의 확대 운영

이상에서 용인시의 장기발전계획을 각부분에 걸쳐 살펴보았는데, 무릇 계획이란 것은 특히 장기발전계획은 먼 장래를 바라보고 세우는 것이라 장래에는 가변성과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우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다. 어찌되었건 모든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래를 충분히 예측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감안하되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환경을 고려치 않은 소위 '난개발'로 후세에 누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해 마지 않는다.

\*자료 : 시정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2001년도 2/4 분기) 기획예산담당관실

여

백

## 제5장 주요행정 현황



### 제1절 일반행정

#### 1. 시민본위의 현장행정 추진

##### 1) 2002년 2/4분기 추진실적

- (1)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 감사제도 - 공정율 50%
  - 2001년도 공개감사 실시.(포곡, 이동, 양지면)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3회
  - 시정소식지 게재 : 1회 100,000부
  -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 용인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신고 코너” 확대개편
  - 민원 부조리 신고 접수처리 : 4건
  - 시민감사 모니터요원 - 운영활성화

-제보 안내문방송 : 2회 60명

-제보 처리접수 : 2건

(2) 가스·전기 사용시설 정기검사 예고제 - 공정을 46%

○ 정기검사 사전 예고문 방송 : 715개 업체

○ 정기검사 운영 프로그램 구입 설치

(3) 시정 참여교실 확대운영 - 공정을 100%

○ 시정참여교실 운영.

-운영시기 : 2001년 5월 28일~6월 13일(12회)

-운영인원 : 기흥초등학교 외 15개교 1,425명

-운영내용 : 시정소개 및 환경 기초시설 견학

-운영효과 : 시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긍심 고취 및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정체성 함양

(4)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강화 - 공정을 13%

○ 생활기동 처리반 자재 구입 : 1,400만원

-전자식 자동점멸기 300개

○ 맨홀덮개 설치 : 100 만원

-기흥읍 신갈 4리와 6개소

(5) 모범 리·통장 선린지 견학 - 공정을 50%

○ 선린지 견학 실시

-기간 : 2001년 6. 28 ~ 6.29

-견학장소 : 삼성반도체 외 5개소

-참여인원 : 모범 리·통장 35명

(6) '우리고장 바로 알기' 시민운동 전개 - 공정을 10%

○ 2001년 예상인원 모집(760명)

○ 우리고장 자연탐방 실시 : 150명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1)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심사 제도-정상

-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기회교육 자료로 활용

### (2) 가스·전기사용시설 정기검사 사전 예고제-정상

- 정기검사 운용프로그램 설치 및 안내엽서 제작
- 정기검사 미실사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3) 시정참여 교실 확대 운영-완료됨

### (4)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강화-정상임

- 보안등 수리 등 주민불편 사항을 1일 평균 12건씩 원활히 추진하여 왔으나 2단지 3차 년도 구조조정에 의거 기동처리반이 해체됨에 따라 건설과(직제규칙 개정중)로 이관하여 가로등과 함께 통합 관리를 추진할 계획임.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구입.

### (5) 모범 리·통장 선진지 견학 - 정상

- 모범 리·통장 선정 발굴(35명)
- 리·통장들간 친목 및 화합도모

### (6) '우리고장 바로 알기' 시민운동 전개 - 정상

## 2. 고객만족을 위한 물적기반구축

### 1) 2001년 2/4분기 추진실적

- (1) 동부동 복합청사 신축 - 공정율 5%
- (2) 기흥면 복합청사 신축 - 공정율 5%

- (3) 문화복지 행정타운 - 공정을 5%
- (4) 시립도서관 시설보장 및 구내식당 운영개선 - 공정을 70%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1) 동부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는 착공되었으나 공사 다소 지연
- (2) 기흥읍 복합청사 신축
- (3) 문화복지 행정타운-정상
  - 기본계획 용역 완료
  - 기술심의를 얻어 평가공사 발주하여 2002년 2월 중 착공 예정

## 3. 행정조직 및 제도개선을 통한 조직안정 구축

### 1) 2001년 2/4분기 추진실적

- (1) 과대읍 특례적용을 통한 기구·적용 확대
  - 2단계 3차 년도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완료된 후 시행
- (2) 행정기구 설치기준 제도개선을 통한 기구보강 - 공정을 30%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시의 경우 5개 이내 실·국, 22개 이내의 실·과·담당관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 인구 30만 이상 40만 미만 시의 경우 5개 이내 23개 이내의 1 실·국, 실·과·담당관을 설치하고,
    - 인구 40만 이상 50만 미만 시의 경우 6개 이내의 실·국, 24개 이내의 실·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2001년 2월).
- (3) 5급 승무원의 승진심사제 운영 - 공정을 100%
  - 승진예정 선발대상 인원 산출 : 2월



- 5급 공무원 승진심사 선정위원회 개최
- 인사위원회 개최로 대상자 확정(3월)
- 행정 6급 4명, 농업 6급 1명, 토목 6급 1명

#### (4) 행정력 향상을 위한 인력 Bank 운영 - 공정을 50%

- 명예퇴직·조기퇴직자에 대한 개별 서한문을 발송하여 사업취지 설명 및 신청서 접수
- 노임단가 결정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29,490원)
- 퇴직자 11명 Bank화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1) 과대응 특례적용을 통한 기구·정원 확대 - 시기 미도래

- 조직의 합리적 운영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 및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나
- 2단계 3차 년도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금년 8월 이후에 기구·정원 확대 신청을 할 계획임.

### (2) 행정기구 설치기준 제도개선을 통한 기구 보강 - 정상

- 궤도 건의를 통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침체된 공직분위기 쇄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 상급기관의 입장은 2단계 3차 년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금년 하반기에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 (3) 5급 공무원의 승진심사제 운영 - 완료

- 공정한 승진 심사를 능력위주의 인사행정 구현
- 승진대상자에게 안정감 부여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
- 향후 제도보완을 위한 역기능 보완대책을 강구

(4) 행정력 향상을 위한 인력 Bank 운영 - 정상

- Bank화한 인력이 대부분 고령자 또는 중위직 공직자로서 전산 업무 능력저하 및 공직내부 갈등이 예상됨
- 따라서 Bank화 할 인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연속성 확보로 대민 신뢰도 제고

## 제2절 재무행정

### 1. 건전한 자주재원

#### 1) 건전한 자주재원의 확보

##### (1) 지방재정의 신뢰러다임 구축 - 공정율 50%

- 2001년 2월 5일 : 지방재정계획 수립
-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
  - 공개시기 : 2001년 3월 2일
  - 공개내용 : 예산개요 및 재정전망
  - 공개방법 : 인터넷

##### (2)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 강화 - 공정율 14%

- 년내 목표액 : 41,652,700원
- 장수액 : 26,460,800원

##### (3)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 공정율 100% 사업비 집행액 1,600만원

- 2001년 2월 19일 : PPA 구매계약 체결 (주)제이컴모벌피아
- 2001년 3월 27일 :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설치완료
-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예고
- 영치 및 예고대수 1,402대 금 110,800만원

##### (4) 시금고 예치금의 이자수입 증대 - 공정율 53%

- 목표액 : 60억원 중 43억원 예치
- 만기적금 2건 해지 및 매월 발생 예금이자 재예금 조치
- 제1관서 및 읍·면 등 자금배정 지출예정일 전일 배정함으로써 자금사장 예방

(5)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 - 공정을 50%

- 책임보험 및 자동차등록 프로그램 설치
- 세외수입 프로그램 보완 후 써버리기 업체 및 사양 결정
- 42개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 250여명 전산활용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1) 지방재정의 신뢰리다임 구축 - 정상

(2)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 강화-정상

- 완벽한 과세자료 정리에 의한 체계적 세원관리
-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 홍보 및 독려 강화

(3)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 완료

-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성화 기여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에 대한 계고를 통한 징수율 제고

(4) 시 금고 예치금의 이자수입 증대-완료

- 특별회계 및 기금 예금 최대화로 예금이자 증대도모
- 정기에금 발생이자 매월 자동이체로 환매체 예금조치

(5)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정상

- 세외수입 프로그램 보완 후 기간내 납품 완료

## 3.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의 소득감소와 부도 및 개인의 퇴직 및 실업 등으로 주변 경제여건이 악화

## 제3절 도시, 건설, 건축행정

### 1. 시대 변화에 능동적 대처

#### 1) 2000년 2/4분기 추진실적

##### (1) 생태도시 조성계획 수립 - 공정을 20%

- 2001년,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프로그램 방안 보고(하남시에 대하여)
- 2001년 2월, 생태도시 조성계획 추진방향 보고

##### (2) 신성지구 개발계획 수립 - 공정을 10%

- 2001년 1월 20일까지 지역주민 의견 수립
- 2001년 2월~3월, 주민의견 수렴 및 개발계획 수정
- 2001년 3월 5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결정 신청(용인시→경기도)
- 2001년 3월 23일, 국토이용 계획변경(안) 결정 요청 반려(경기도→용인시)
- 2001년 4월 25일, 용인도시기본계획이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 2001년 6월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성지구의 환경성 검토 심의 통과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1) 생태도시조성계획 수립 - 시기 미도래

- 경관형성기본계획의 성과분석과 환경보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의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계획재정비 결과 후 시범도시 지정 등에 관한 절차이행

(2) 신성지구개발계획 수립 - 정상

- 개발가능 용지내에서 주변현황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 수립
- 경기도에 승인 요청

(3)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 - 시기 미도래

-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제외되는 농촌취락지구로 계획수립 후 도로 등 공공시설 개설이 장기간 미집행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가중되므로 도시기본계획 확정되었으므로,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의견 및 타당성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1~2개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 2. 21C 개발전략과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

### 1) 2001년 2/4분기 추진실적

(1) 서북부지역 종합계획 수립 - 공정을 74%

-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선정작업
- 광역교통체계 구상
- 가용지 분석결과

(2) 용인도시계획 재정비 - 공정을 49%

- 지방건축위원회 색채심의 2회
- 아파트 색채심의 실적 3개 단지 2,692세대

(3)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기존 아파트의 재도장의 경우에는 비용부담 등 아파트 입주자의 동의여부에 따를 수 밖에 없고 우리 시에 색채심의를 받도록 강제할 수 없으나 아파트 권리주체를 통하여 색채이미지 형성계획에 참여하도록 권고

### 3. 재해 없는 완벽한 행정체계 구축

#### 1) 2001년 3/4분기 추진상황

##### (1) 재난·재해상황실 운영 - 공정율 50%

- 재난·재해상황실 운영 : 연중,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 시설물 점검 : 3회, 485개소  
- 전체시설물 1,385개소(중점관리 188개소, 재난위험 시설 7개소)

##### (2) 완벽한 수해복구사업 추진 - 공정율 100%

- 수해복구 공사 : 23건 769,000원
- 수해복구 공사 완료 : 52건(도로 2건, 하천 20건, 소하천10건, 수리시설 1건, 소규모 2건, 기타 17건)

##### (3) 우수유입방지사업 - 공정율 100%

- U형측구 : 798.5m 완료
- 경계석 : 694.5m 완료
- 우수관 : 97.5m 완료

##### (4) 조경사업 - 공정율 100%

- 실시설계완료
- 2001년 3월 22일 공사착공
- 2001년 4월 14일 공사준공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1) 재난·재해상황실 운영 - 정상

##### (2) 완벽한 수해복구사업 추진 - 완료

##### (3) 우수유입방지사업 - 완료

##### (4) 조경사업 - 완료

- 식재 후 병충해 방지 및 잡초 제거

## 4.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 1) 2001년 3/4분기 추진실적

#### (1) 교통시설 확충 - 공정을 42%

- 차선 재도색 공사(라이프아파트~운학초교)
- 노건봉 및 경광등 설치 - 3개소

#### (2) 건전한 교통질서의식 확립 - 공정을 50%

- 주정차 위반 단속 - 5,429건
-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요원 급식비 지원 - 12,100,000원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1) 교통안전시설 확충 - 정상

- 실시·설계 중인 사업은 조기 발주하여 3/4분기 내 마무리
- 교통안전시설물의 훼손, 파손 및 고장 등은 연간 단가본수 업체에 의뢰, 즉시 보수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 도모
-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 착수(3월 13일~5월 12일)
- 차선 재도색 공사(우당삼거리~경찰대입구) 착수(3월 27일~4월 15일)
- 노건봉 및 경광등 설치 실시설계 발주(3월 16일~4월 17일)
- 해빙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실시(2001년 3월 16일~3월 31일)

#### (2) 건전한 교통질서의식 확립 - 정상

- 주·정차 위반의 지속적인 단속강화
-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교통불편 개선
- 주정차 위반 단속 : 4,860건
- 법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155건/30,280,000원
- 교통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 : 31건



## 5.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 확충

### 1) 2001년 3/4분기 추진실적

- (1)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 - 공정을 10%
  - 2000년 4월 8일 : 실시설계 완료
  - 2000년 4월 30일 : 토지 27필지 58,231㎡ 매입
  - 2000년 9월 30일 : 환경영향조사 용역 완료
  - 실시설계중
  
- (2) 용인하수종말 처리시설 3-2단계 증설 - 공정을 10%
  - 2001년 1월 12일 : 공사 계약
  - 2001년 1월 18일 : 시설공사 착공
  - 2001년 3월 19일 : 전면 책임감리 착수
  
- (3) 모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정을 - 10%
  - 2001년 1월 : 용인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안) 작성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1)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 - 정상
  - 2001년 7월~8월 :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 2001년 8월 : 사업발주 및 착공
  - 2003년 12월 : 사업완료
  
- (2) 용인하수종말 처리시설 3-2단계 증설 - 정상
  - 2003년 9월 : 시험운전
  - 2003년 12월 : 시설공사준공
  
- (3) 모현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 정상
  -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 후 추진

- 2001년 8월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 2002년 2월 :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및 심의
- 2002년 3월 : 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환경부→용인시)
- 2002년 4월 : 시설공사 착공
- 2002년 12월 : 시설 완료

## 제4절 정보통신행정

### 1. 작고 효율적인 전자시정 구축

#### 1) 2001년 2/4분기 추진실적

##### (1)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 공정을 100%

- 사업비 집행액 6,500만원
- 실·과·소 및 읍·면·동별 담당자의 업무현황 및 이메일 정보 공개로 민원과의 1:1 커뮤니케이션 구축
- 각종 업무별 정보 및 민원편람 안내를 위한 사이트 구축
- 지역경제 및 농·축산물 토탈사이트를 구현하는 콘텐츠 개발
- 신속하게 처리 가능한 사이버 민원사이트 구축

##### (2) 초고속 통신망의 조기구축 지원 - 공정을 100%

- 사업주체 : 한국통신

##### (3)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기반 확립 - 공정을 50%

- 사업비 집행액 100만원(누계 600만원)
- 각종양식의 전자문서화 건수 : 50건
- 전자결재 사용실적

월	결재건수	전자결재건수
4월	17,568건	7,953건(45.3%)
5월	17,468건	8,128건(46.5%)
6월	14,732건	5,126건(34.8%)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1)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 완료

- 변동자료 및 정보의 지속적인 보완과 함께 신규 사이트의 개별

**확충**

- 자료관리 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여 생동감 있는 정보 제공

구분	자체전산 교육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송담대	정통부지정 학원(12개소)
계	200	60	90	895
4월	80	30	30	382
5월	60	30	30	293
6월	60	-	30	220

**(2) 초고속 통신망의 조기구축 지원 - 완료**

- 사업추진기관이 한국통신 등 외부기관이므로 초고속 통신망의 조기구축에 한계
- 간담회를 통한 독려나 가업을 촉구하는 홍보활동만으로는 미흡

**(3)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기반 확립 - 정상**

- 전자결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시스템 부하증가 및 용량부족으로 인한 속도저하로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어 전자결재 서버를 증설할 예정임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부족분 및 정부표준 전자문서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라이선스 구입 예정임

**2. 정보화마인드를 통한 신뢰시정 구현**

**1) 2001년 2/4분기 추진실적**

**(1) 정보화교육의 일원화 - 공정을 50%**

- 사업비 집행액 33만원(누계 4,900만원)
- 추진실적
  - 기간 : 2001년 4월 1일 ~ 6월 30일
  - 대상 : 주부, 노인(55세 이상)

-교육과정

## (2)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 공정율 15%

○ G.I.S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2001년 3월 6일

- 당면현안 및 문제점 해결방안 토의

○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기간 : 2001년 6월 20일~10월 17일

-사업예산 : 3,200(Poor예산)

-사업내용

- 용인시 G.I.S 사업추진방향과 총괄적 세부내용 등 실천계획 제시
- 용인시 G.I.S 관련사업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업수행의 지표제시
- 국가 NG.I.S 사업을 용인시에 적용함에 있어 문제점과 방안 제시

## (3) 지방행정 종합정보화사업의 확대 추진 - 공정율 40%

○ 2001년 1월 2일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실시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1) 정보화교육의 일원화 - 정상

### (2)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 정상

○ 분야별, 연차적 추진으로 예산부담 경감

-통합적 시스템 구성이 효율적이거나 많은 자체예산 소요로 연차적, 단위 업무별 추진

○ 사업추진에 앞서 필요성, 타당성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방향 모색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효율적 구축 방안 모색

○ 추진전담조직 변경방안 검토

-감사원 감사결과로 국가 지리정보체계 전담조직 부적절 지적

- 전산담당 부서에서 구축시 정확도 15% 미만으로 사업성과 기대 미흡

- 해당업무 부서 중심으로 G.I.S 추진조직 개편 방안 마련 조치

### (3) 지방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의 확대추진 - 정상

- 2000년 10월 완료된 1단계 10대 업무를 제외한 11대 업무(지역 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 행정, 재난재해, 호적, 수산)에 대한 개발추진
- 이들 21대 업무에 대한 자료의 안정성 확보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렬용 주전산기 도입

## 3. 논스톱 정보체계 구축·운영

### 1) 2001년 2/4분기 추진실적

#### (1) 보존문서 DB구축 사업 - 공정을 17%

- 사업비 집행액 2,500원(누계 3,000만원)
- 문서재분류, 재편철(본청)
  - 사업량 : 10,000권(영구·준영구 문서)
  - 실적 : 1,744권
  - 정리인력 : 16명(공공근로자 활용)
- 인감업무의 전산시스템 구축 - 공정을 61%
-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 공정을 20%
- 건축물대장 현황도 정비 및 전산화 - 공정을 60%
  - 총 118,314건 중 85,193건의 건축물대장 전수조사(공부확인) 완료
  - 마이크로필름 촬영(4/4분기) 추진

#### (2) 인감업무의 전산시스템 구축 평가결과 - 정상

- 당초,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년 6월 중 인감업무 전산시스템 시험운영을 거쳐 7월 이후 인감증명 온라인발급 예정이었으나, 금년 말까지 인감증명법을 개정하고 인감전산화 관련 S/W개발

및 개인별 인감의 화상입력작업이 2002년 상반기에 추진토록 변경되었고, 따라서 2002년 상반기에 인감화상입력지침 및 프로그램이 내려오는 대로 전산입력할 예정임

### (3)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평가결과 - 정상

- 지적관련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
- 읍·면·동에 설치한 민원 자동증명 발급기에도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민원 처리

### (4) 건축물대장 현황도 정비 및 전산화 평가결과 - 정상

- 건축물대장 전수조사 실시 후 현장확인, 관계법 검토, 현황도 작성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1) 보존문서 DB구축 사업 - 정상

- 문서 재편철(3/4분기) 및 문서 촬영 작업 추진(본청, 읍·면·동)

## 제5절 보건, 위생, 환경행정

### 1.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1) 2001년 2/4분기 추진실적

##### (1) 생활쓰레기 2단계 소각시설 건설 - 공정을 20%

- 사업집행액 169,600만원
- 2001년 4월 16일 :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 요청(용인시→경기도)
- 2001년 6월 27일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코오롱건설(주))

##### (2) 획기적인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 공정을 40%

- 쓰레기 수거 체계개설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을 위한 운전원 배치검토
- 음식물 분리수거 홍보물제작 배포 - 3000매

##### (3) 음식문화개선 - 공정을 50%

- 사업비 집행액 300만원
- 사업기간 : 2001년 4월 2일~6월 30일까지
- 추진실적
  -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 4개 동 일반음식점 영업주 645명
  - 시설개선 용자지원 : 20개소(64,500만원)
  - 우수실천업소 중점관리
    - 좋은식단제 이행업소 지도단속 : 391개소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1) 생활쓰레기 2단계 소각시설 건설 평가결과 - 정상



- 2001년 12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2004년 12월 : 공사준공 및 운전

**(2) 획기적인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과 평가결과 - 정상**

-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연구용역 발주
- 청소차량 운전원 재배치 : 연구용역 완료결과 - 정상
- 음식물 분리수거 전단, 현수막, 입간판 제작 홍보

**(3) 음식문화 개선 평가결과 - 정상**

- 지속적 관리로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과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
- 향후과제
  - 모범음식점 확대지정
    - 확대지정 및 간담회 개최 12개소, 1회(170명)
    - 인센티브 지급 : 180개소
  - 우수실천업소 중점관리
    - 좋은식단제 이행업소 지도단속 : 850개소

## 2. 수질오염의 총체적 관리체계 구축

### 1) 2001년 2/4분기 추진실적

**(1)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 공정율10%**

- 사업집행액 15,800만원
- 2001년 6월 15일(주)환경그룹과 계약체결
- 2001년 6월 15일 : 착공계 접수(계약금액 157,899,000원)

**(2)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 공정율10%**

- 2001년 1월 5일 : 5,000만원 예산추가 확정
- 2001년 6월 : 오염총량 관리계획 연구용역 계약의뢰 → 회계과

(3) 용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 공정을50%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1) 환경평가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평가결과 정상

- 중간보고회 개최
- 전문가 자문(의견 청취)
-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2)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평가결과 정상

- 2001년 6월 ~ 2002년 9월 : 오염총량계획 수립
- 기초조사를 통해 배출량 및 삭감량 결정
- 주민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인 관리계획 마련

(3)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평가결과 정상

-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처리장 및 하수도 정비) 추진에 업무량 증진에 따른 인력부족

## 3.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 1) 2001년 2/4분기 추진실적

(1) 용인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 공정을 39%

- 용지보상
- 도수관로 매설 시공량 450m
- 송수관로 매설 시공량 2,300m
- 정수장 구조물공 시공량 4,115m<sup>3</sup>
- 배수지 토공 54,147m<sup>3</sup>
- 배수지 구조물공사 3,596m<sup>3</sup>

**(2) 기흥 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 - 공정을 61%**

- 용지보상 완료
- 제3배수지 관량 장비반입, 구입 완료
- 제3배수지 슬라브 완료
- 구내배관 약 60% 완료
- 가압장 터파기 완료
- 용지보상
- 관로매설
- 진입도로 개설 작업
- 배수지 및 정수장 토공작업
- 배수지 및 정수장 구조물 작업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1) 용인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 정상
- (2) 기흥 상수도 배수지 확장 공사 - 정상

## 제6절 사회복지행정

### 1.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및 생산 복지화 실현

#### 1) 2001년 2/4분기 추진 상황

##### (1)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복지 실현 - 공정율 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 지원(2,070가구/3,884명 /113,20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보호비(17,40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녀학비 지원(468명, 6,000만원)
- 장애수당 지원(452명, 4,200만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166,500만원)
- 장애인재활작업장 증축(379.5㎡, 20,800만원)
- 보훈단체 지원(3,000만원)

##### (2) 함께 하고 참여하는 자원봉사 추진 - 공정률 50%

- 우수 자원봉사단체 사업비 일부지원(8개 단체 1,400만원)

##### (3) 어린이 한마음 운동회 - 공정율 -0%

- 시기 미도래

##### (4) 건전아동 육성 - 공정율 30%

- 저소득 및 무상보육료 2001년 1월~6월분까지 지원

##### (5) 경로우대사업 추진 - 공정율 66%

-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 대상자의 발굴 및 지속적인 지원
-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의 추진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1)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복지 실현 - 정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계획에 의한 적정지원
-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홍보 강화

### (2) 함께 하고 참여하는 자원봉사 추진 - 정상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추진(3/4분기)
- 청소년 자원봉사 방학프로그램 운영(3/4분기)
-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및 우수자원봉사 단체 선발시상(4/4)
- 자원봉사활동 중점 추진기간(자원봉사주간) 운영(4/4)

### (3) 어린이 한마음 운동회 - 시기 미도래

- 2001년 9월 : 관내 어린이집 원아 및 부모 3,000여명을 대상으로 9월경에 실시 예정

### (4) 건전아동 육성 - 정상

- 2001년 저소득 및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 지원

## 2.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

### 1) 2001년 2/4분기 추진상황

#### (1) 충효교실 운영 활성화 - 공정을 50%

- 동절기 방학을 통한 어린이 한문교육 및 충효교실 운영지원(3개소)

#### (2) 의약분업에 따른 노인건강 증진 도모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1) 충효교실 운영 활성화 평가결과 - 정상

○ 충효교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로효친사상 고취

(2) 의약분업에 따른 노인건강 증진 도모 평가결과 - 정상

### 3.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

#### 1) 2001년 2/4분기 추진상황

(1) 여성회관 건립 - 공정을 50%

-2001년 6월 12일 : 시설공사 착공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잠재능력 개발 - 공정을 50%

○ 여성사회(기능) 교육

-8과목 19개반 운영 중

### 4.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정보 제공

#### 1) 2001년 2/4분기 추진실적

(1) 취업정보센터 운영 - 공정을 50%

○ 구인등록 7,526명, 구직등록 7,620명, 취업알선 10,423명, 취업 5,675명

○ 고용정보 제공 : 24회 주간 《용인취업정보지》 발행

(2)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 실시 공정을 - 37%

○ 훈련계획 홍보 및 모집 접수 실시 : 2001년 1월 20일 ~ 2월 20일

○ 위탁인원 : 183명(중도탈락자 등 감안 30% 추가 위탁 인원임)

○ 훈련기관 : 16개소

**(3)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 공정율 50%**

- 추진기간 : 1월 8일~6월 30일
- 추진사업 :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외 54개 사업.
- 참여인원 : 1일 평균 559명(누계 52,120명)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1) 취업정보센터 운영 - 정상**

- 구인수요 일제조사를 통한(읍·면·동) 취업기회 확대 제공

**(2)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 실시 - 정상**

- 사업현장과 연계하여 각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 및 기능 인력중점 선발 실시
-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 점검 철저

**(3) 내실 있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 - 정상**

- 주민 숙원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예산 대체효과 거양
-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확대 추진

**(4) 가족보건사업 - 공정율 35%**

**3)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1) 진취적 청소년 육성 및 선도 - 정상**

- 청소년상담실 운영 ; 지역주민들에게 상담교육을 통한 자기계발과 평생교육

**(2) 식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 - 정상**

- 지속적 관리로 안전한 식품공급과 식중독예방 관리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

(3) 위해공중接客업소 근절 및 위생업소 단속 강화 - 정상

- 지속적 관리로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으로 위생수준향상 및 시민건강 증진 도모

(4) 가족보건 사업 - 정상

(5) 시민홍보용 납골모형 전시 - 완료

## 5. 다양한 계층의 문화복지 욕구충족

### 1) 2001년 2/4분기 추진상황

- 2001년 3월 : 문화복지행정타운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행정타운 조성과 병행추진
- 2001년 6월 : 사업위치, 총 사업비, 사업량, 주요시설 등 변경조정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정상

- 부지조성 : 2002년 2월~2003년 1월
- 건축착공 : 2003년 1월~2003년 12월
- 준공 : 2005년 6월
- 개관 : 2005년 6월



## 제7절 문화공보행정

### 1. 21세기형 관광사업 육성

#### 1) 2000년 2/4분기 추진상황

##### (1) '용인관광비전 21' 종합계획 - 공정율 100%

- 2001년 2월 16일 : '용인관광비전 21' 보고회 개최
- 2001년 5월 19일 : '용인관광비전 21' 의원설명회 개최
- 2001년 5월 22일 : '용인관광비전 21' 최종 보고회 개최
- 2001년 6월 20일 : '용인관광비전 21' 종합계획서 발간

##### (2) 서리상반 고려백자요지 발굴 및 관광상품화 - 공정율 50%

- 2001년 1월 7일~10월 : 서리상반 고려백자요지 발굴계획 수립  
완료
- 2001년 6월 29일 : 문화재청에 발굴 허가
- 발굴단 구성 : 기전문화재 연구원 9명(단장 장경호)
- 2001년 8월 10일~10월 31일 발굴현장 공개기간
- 주차장 및 전시대 설치 : 작업 중
- 안내 표시판 설치 : 서리중덕 외 4개소
- 상품화 계획 수립완료 : 이천 주 행사장에서 용인고려백자요지  
발굴현장 셔틀버스 운행으로 관광상품화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1) '용인관광비전 21' 종합계획에 의한 현실반영 - 정상

- '용인관광비전 21' 최종보고서 발간에 의한 실행 가능한 관광  
상품개발 우선 순위 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

(2) 서리상반 고려백자요지 발굴 및 관광상품화 - 정상

- 발굴현장 관람 가능토록 관망대, 관람통로 등 설치 : 7월 중
- 전시품목 전시완료 : 8월 10일까지
-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 세계도자기엑스포 관람자
  - 관내 에버랜드, 민속촌 관광객 유도
  - 도예가, 도자기 체험학습자, 문화예술인 등
  - 각급 학교 학생, 대학교의 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 2. 용인 실내체육관 건립

(1) 2001년 2/4분기 추진상황 - 공정율 11%

- 2001년 3월 30일 : 실내체육관 신축공사(건축) 계약
- 2001년 4월 2일 : 실내체육관 신축공사(통신) 계약 및 착공
- 2001년 4월 3일 :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전기, 소방) 계약 및 착공
- 2001년 5월 11일 :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 계약 및 착공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정상

-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건축, 전기, 소방, 통신이 계약 완료되어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2003년 4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공정 관리 철저

## 3. 전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육성

- 시민들의 문화수준과 정서함양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체육진흥사업을 확대·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체육발전에 기여

**(1) 2002년 이후 추진계획**

- 각종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회장기(배) 대회의 확대 개최
-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의 알찬 운영

**(2) 체육 꿈나무선수 육성**

- 기존 운영 중인 초·중·고교별 운동부의 지원을 물론 초·중·고 연계 육성 가능한 종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 유소년 대회(현 2개 종목)의 확대 운영

**4. 학교 및 학생수**

유치원 - 66개원 - 4,863명    초등학교 - 38개교 - 36,575명  
 중학교 - 16개교 - 11,738명    고등학교 - 8개교 - 8,276명  
 전문대학 - 1개교 - 4,245명    대학교 - 8개교 - 47,879명  
 대학원 - 17개원 - 3,515명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이나 전문대학까지는 전국적으로 볼 때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교·대학원에 있어서는 시단위에 대학교가 전국 162개 대학 중에 8개교를 점하고 있고, 학생수에 있어서도 47,879명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원수도 17개교

구분 학교명	단과 대학수	학과수	학생 수			교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44	92	47,879	31,821	16,058	1,042	911	131
명지대용인캠퍼스	11	1	11,677	9,490	2,187	204	176	28
용인대	4	19	5,331	3,140	2,191	161	138	23
경희대수원캠퍼스	9	-	16,667	12,248	4,419	308	278	30
강남대	9	28	6,432	2,892	3,540	169	139	30
외국어대용인캠퍼스	9	40	6,954	3,372	3,582	182	167	15
경찰대	·	2	473	425	48	16	16	1
칼빈대	1	1	123	91	32	8	6	2
루터신학대	1	1	222	163	59	8	7	1

대학원별	구분 대학원수	학과수		학 생 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17	124	39	3,147	2,458	689	368	272	96
명지대학원	3	50	31	873	677	169	345	256	89
용인대학원	6	30	4	630	439	191	16	11	5
경희대학원	3	25	2	451	346	105	2	2	-
강남대학원	4	18	2	258	130	128	5	3	2
총신대학원	1	1	-	935	866	69	-	-	-

로 학생수도 3,515명이나 된다. 가히 대학의 도시라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2000년 4월 1일자 각 대학별 단과대학 수 학생 수, 교원 수 등만 알아보기로 한다. 대학원은 2000년 4월 1일 현재 17개 대학원으로 석사·박사과정 학생 수를 알아보기로 한다. 대학원수는 용인대학교가 가장 많아 6개원이고 강남대학교가 4개원, 명지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각각 3개원, 총신대학교가 1개원이며 학생 수는 석사과정이 3,137명(남 2,458명, 여 689명)이고 박사과정이 368명(남 272명, 여 96명)이다.

다만 우리교육의 현실이 도덕과 인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은 유감되는 일로써 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교육의 일대혁신이 있어야 하는 만큼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에 치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제8절 지역경제 행정

###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도모

#### 1) 2001년 2/4분기 추진실적

##### (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공정을 35%

- 사업비 집행액 611,700만원(누계 1,424,200만원)
- 지원업체 수 : 21개 업체(누계 51개 업체)

##### (2)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 2000년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간 평가실시 : 2001년 6월 12일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평가결과 - 정상

- 매월 신청 접수하여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자금 조달에 일조함
- 담보능력 부족으로 운전자금 지원업체로 선정되어도 대출을 못 받는 사례가 있어 신용보증지원 확대 필요
- 지원업체 수 : 30개 업체

#####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평가결과 - 정상

- 유망업체 적극 참여를 위한 홍보 강화
- 기술개발 지원업체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 보완
-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2. 수도권 벤처산업의 기지화

### 1) 2001년도 2/4분기 추진실적 공정율 10%

- 사업비 집행액 2,200만원(누계 2,200만원)
- 2001년 6월 7일 : S/W지원센터 건축협약 실시
- 2001년 6월 8일 : 2001년 신규 지원센터로 선정(한국 S/W진흥원)
- 2001년 6월 15일 : 공사계약 의뢰(건축 전기)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평가결과 - 정상

- 추진상황의 정기점검과 비교분석 등 사업내실화 도모
- S/W지원센터 운영인력 확보 강화
- S/W지원센터 설치지원 최종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제출(한국 S/W진흥원)

## 3. 재래시장의 활성화 도모

### 1) 2001년 2/4분기 추진실적 - 공정율 10%

- 시장·접근성 확보 도시계획 도로 개설(실시설계 완료 후 용지 보상 중임)
-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계획 수립(정비용역계약 의뢰)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정상

- 재래시장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도로개설 추진사업과 환경정비를 통한 이미지 제고사업은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시장상인의 자구노력은 토지, 점포소유자, 입점상인 등 복잡한 구성요인과 적극적 해결의지 부족으로 미흡함

- 타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추진 비교분석 후 우리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 사업 추진이 바람직함

## 4. 에너지 절약 및 절약형 산업 구조 마련

### 1) 2001년 2/4분기 추진실적

- 공공기관 ESCO 사업추진 - 공정율 40%
  - ESCO사업추진 : 가로등 고효율 절전형 교체계획 수립
  - 고효율 기자재 설치 대상자 조사 : 4종 1939대
- 신축공공기관 축냉식 냉방기설치 - 공정율 100%
  - 2001년 3월 : 대상업체 선정 완료
  - 건물설계 반영 : 2개소
- 시설원예농가 난방기 지원 대책 - 공정율 50%
  - 2001년 5월 15일 : 사업대상자 확정(17농가)
  - 확정대수 : 19대
  - 사업비 : 176,720,000원(시비 53,010,000원, 자부담 123,690,000원) 하반기 지원예정
- 에너지 절감으로 원에 특용작물 안정적 생산 - 공정율 50%
  - 사업착수 및 완료 : 4월~
  - 하우스경보 일사감응시스템 1조 설치
  - 시설원예 환경조절재배 에어컨 15대 설치
  - 사업완료농가 보조금 지급 : 2개소 200만원
  - 시설원예 환경조절재배 1개소 150만원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공공기관 ESCO 사업추진 - 정상
  - ESCO업체 계약체결 추진 지도점검 및 평가실시
  - 향후 신축, 공공청사 및 관련시설은 에너지 절약 고효율기자재 사용의무화 추진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민간보급, 확대추진
- 신축공공기관 축냉식 냉방기설치 - 완료
  - 향후신축 공공청사 및 관련 시설은 에너지 절약 고효율 기자재 도입
  - 축냉식 냉방시설 설치는 설비공사와 연계추진
- 시설원예 농가 난방기 지원대책 - 정상
  - 동절기 난방비 절감으로 농작물, 경쟁력 및 농가소득 증대도모
  - 동절기 안정적인 수출물량 생산 및 에너지 수입 감소로 외화 절약
- 에너지절감으로 원예, 특용작물 안정적 생산 - 정상
  - 시설 설치 및 장목입식 활용 사업성과 분석 추진 및 농가교육장 활용



## 제9절 농축산 행정

### 1.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구축

#### 1) 2001년 2/4분기 추진상황

##### (1) 고객만족 새 기술 정보화교육 - 공정율 100%

- 품목별 상설교육 : 2개 품목 146명 / 3회(265,000원)
- 농업기계 이동순회수리 : 364대 / 48일

### 2.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 도모

#### 1) 2001년 2/43분기 추진상황

##### (1) 정주권 개발사업 - 공정율 30%

- 공사착공 : 5건
- 농지 및 산림협의 : 1건

#####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사업 - 공정율 62%

- 농가 옥외공간 가지기 사업 : 2,200만원
  - 농가에 어울리는 사업추진 : 청원설치 5호, 담장 설치 6호
- 생활과학기술교육 : 40만원
  - 한식조리사반 교육 : 540명 / 8회
  - 규방공예반 교육 : 96명 / 6회
  - 우리음식연구회 강좌 : 80명 / 2회
- 노인생활지도 마을 육성 : 2,050원
  - 농촌노인건강관리 사업(의료 및 건강기구 구입) : 9종 12대
  - 도시문화 체험 및 치매 예방교육 : 95명 / 2회

## 2) 평가의견 및 향후과제

### (1) 정주권 개발사업 - 정상

- 2001년 7월 : 공사착공 2001년 7월(1건)
- 공사진행(5건)
- 실시설계 완료 5건(마을회관 3개소, 용수로 정비 2건)
- 실시설계 진행 중(농로포장공사 1건)

###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사업 - 정상

-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사업
  - 농가별 사업시행 평가 및 농가에 어울리는 담장, 정원설치 지도
- 생활과학기술 교육
  - 양식조리기능사, 생활요리반, 전통요리반, 제과제빵반 교육 : 830명 / 30회
  - 우리음식연구회육성 강화
-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 노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교육내실화

## 제10절 포상

포상은 권선징악의 일환으로 공무수행에 있어 그 고장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모범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 공직자로서 인간적인 명예성 긍지를 갖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은 물론 가족 등에게 자긍심과 아울러 사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근자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 중에는 그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정·부패를 저질러 영어의 몸이 되었는가 하면 불명예 퇴직을 당하는 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가상히 여겨 높이 추켜세워 주어야 할 존재들인가 생각해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직자가 받는 상훈 가운데 가장 으뜸이 가는 것은 정부가 주는 훈포장이며 다음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및 각부장관 표창 그리고 도지사, 시장 표창 등이 있다.

### 1. 대통령 표창(1998년도~2000년도)

1998년도 포상자 : 계 15명					
포상일자	포상종류	포상기관	직위	성명	공적개요
6월 30일	대통령표창	대통령	지방행정주사	김유봉	정년퇴임
"	"	"	별정5급담당	박노창	"
9월 30일	"	"	지방농업주사	윤세룡	명예퇴직
"	"	"	"	박노섭	"
"	"	"	지방행정주사	이인영	"
6월 30일	포상	"	지방주이사관	최학현	정년퇴임
"	"	"	지방서기관	김완기	"
9월 30일	"	"	지방농업주사	이영웅	"
12월 22일	"	"	지방서기관	김학영	"
"	"	"	지방농촌지도관	이종학	"
"	대통령표창	"	지방행정주사	이경복	"
9월 30일	"	"	"	박노섭	"
12월 22일	"	"	지방농업주사	진연범	"
"	"	"	지방농업주사	조성균	"
"	"	"	지방환경사무관	조철행	"

1999년도 포상자 : 계 4명					
포상일자	포상종류	포상기관	직위	성명	공적개요
3월 31일		대통령	농업서기관	황창연	정년퇴임
6월 30일		"	농촌지도사	윤창의	"
12월 28일		"	지방서기관	조정희	우수공무원
12월 22일		"	지방이사관	예강환	국가사회발전

2000년도 포상자 : 계 6명					
포상일자	포상종류	포상기관	직위	성명	공적개요
6월 20일	대통령표창	대통령	지방농촌지도사	이장평	정년퇴임
6월 20일	"	"	행정사무관	이용만	우수공무원
6월 28일	"	"	지방행정주사	류태준	정년퇴임
6월 30일	훈장	"	서기관	윤경준	국가사회발전
6월 30일	포장	"	지적 5급	조철웅	"
12월 30일	대통령표창	"	행정사무관	임희장	정년퇴임

○상기 6명 중 서기관 윤경준과 지적 5급 조철웅은 국가사회발전의 공적으로 각각 훈장, 포장을 받음.

## 2. 국무총리 표창(1998년~2000년도)

1998년도 포상자 : 계 6명					
포상일자	포상종류	포상기관	직위	성명	공적개요
6월 30일		국무총리	지방건축주사	한대희	모범공무원
9월 30일		"	지방농업주사	백용현	명예퇴직
12월 22일		"	지방보건소기관	송재섭	"

1999년도 포상자 : 계 6명					
포상일자	포상종류	포상기관	직위	성명	공적개요
3월 31일		국무총리	기능10급	유근화	정년퇴직
8월 31일	메달	"	행정 6급	문제훈	모범공무원
11월 30일	"	"	지방행정 사무관	안송덕	국가사회발전
12월 18일	"	"	행정 주사	오세호	모범공무원
12월 22일	"	"	지방행정 사무관	안종운	국가사회발전
12월 28일	"	"	농업 주사	최희학	모범공무원

2000년도 포상자 : 계 8명

포상일자	포상종류	포상기관	직위	성명	공적개요
6월 20일		국무총리	기능직 10급	남상배	정년퇴임
6월 28일		"	행정 6급	허유행	국가사회발전
"	시계	"	"	양인환	"
"	"	"	"	김진배	모범공무원
12월 20일	"	"	행정 5급	박상무	국가사회발전
"		"	행정 6급	송변섭	모범공무원
12월 30일		"	토목 6급	이정춘	국가사회발전
12월 31일	메달, 시계	"	지방행정주사	윤득원	모범공무원

### 3. 각 부처장관 표창(1996년 ~ 2000년)

1996년도 포상자 : 계 26명

포상일자	포상종류	포상기관	직위	성명	공적개요
3월 14일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지방보건서기	한영애	결핵관리사업
3월 30일	"	내무부장관	지방행정주사	황덕수	공유재산관리유공
8월 28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지방행정주사	이승노	'95인구주택총조사
"	"	"	지방농업주사	조광희	"
9월 21일	"	내무부장관		김무응	민방위 유공
"	"	"	대장	유용주	"
11월 22일	"	"	지방토목주사보	최영만	지역사회발전
"	"	"	토목주사보	최영만	새마을유공(지역사회발전)
12월 9일	"	보건복지부장관	지방별정7급	한선숙	국민보건향상이바지
12월 20일	"	농림부장관	지방농업주사보	최희학	농정시책추진
"	"	"	지방농업주사	윤재용	농어촌복지향상농정발전
12월 27일	"	총무처장관		용인시	최우수기관
"	"	문화체육부장관	지방행정주사보	김상범	국민체육증진
12월 30일	"	농림부장관	농업주사보	고영재	농정시책추진유공
"	"	"	지방농업주사	이남근	'96쌀생산종합시책유공
"	"	"	농촌지도사	이 웅	농촌지도사업유공
12월 31일	"	내무부장관	행정 6급	최윤식	선거유공
"	"	"	동장	김득배	반사회
"	"	"	반장	정규남	"
"	"	"	세무주사보	백남정	지방세정유공
"	"	"	지방행정주사보	정광훈	내무행정발전
"	"	"	지방세무주사보	백남정	지방세정발전
"	"	"	지방행정주사	정광훈	우수공무원

1996년도 포상자 : 계 26명

포상일자	포상종류	포상기관	직위	성명	공적개요
"	"	"	지방행정주사보	김진배	깨끗한선거풍토조성
"	"	"	지방행정주사	박상돈	"
3월 15일	"	농촌진흥청장		농촌지도소	새해영농설계교육추진

1997년도 포상자 : 계 26명

포상일자	포상종류	포상기관	직위	성명	공적개요
5월 6일	표창	내무부장관		최창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5월 25일	"	"	행정 6급	김도연	세정발전
5월 27일	"	"	행정사무관	안중운	국토대청결운동
7월 1일	"	"	토목주사보	김윤선	우수공무원
7월 11일	"	농림부장관	농업 7급	현민용	농림시책유공
8월 5일	"	내무부장관	세무주사	김광열	우수공무원
8월 14일	"	재경련장관	농업서기	최은영	국유재산관리
9월 1일	"	내무부장관	행정주사	이의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10월 5일	"	"		정규옥	자연보호유공
11월 6일	"	"	토목주사보	양승영	새마을유공
12월 21일	"	"	"	채수철	재해대책유공
12월 24일	"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사무관	이연우	사회복지
12월 26일	"	농림부장관	지방농업서기	심재부	쌀자급기반확충, 농정발전
"	"	보건복지부장관	지방보건주사보	목준수	급성전염병관리
12월 31일	"	내무부장관	기계장	장복순	정년퇴임
"	"	"	운전 9등급	손돈식	"
"	"	"	행정주사	조병섭	주민등록유공
"	"	"	행정 7급	이종문	지방도관리
"	"	"	토목 7급	김봉희	"
"	"	"	토목 6급	김관지	"
"	"	"	지방운전원	송돈식	공직에 헌신, 국가사회발전
"	"	"	지방행정서기	조문희	지방세정발전
"	"	"	이장	문종덕	반상회 모범적으로 운영
"	"	"	지방토목주사보	최병호	내무행정발전
"	"	"	반장	최희준	반상회 모범적으로 운영
"	"	"	지방농업주사보	이종필	주민행복위조성과 지역공동체역량향
"	"	"	토목주사	강용구	주민복지증진
"	"	재정경제원장관	지방행정주사	박병선	국유재산관리업무
"	"	건설교통부장관	지방건축주사보	박영균	건설교통업무발전
"	"	"	지방건축서기	천우종	"
"	"	농림부장관	지방농업주사	전원구	농지관리업무유공
"	"	환경부장관	환경8급	이상찬	환경보전유공

## 1998년도 포상자 : 계 81명

포상일자	포상종류	포상기관	직위	성명	공적개요
1월 19일	표창	행정자치부장관	토목 7급	강동규	감사업무유공
1월 22일	"	내무부장관	지방지적주사	이철호	지적행정업무발전유공
4월 3일	"	농림부장관	지방농촌지도사	이기민	98새해영농설계교육추진
6월 30일	"	행정자치부장관	운전 8급	윤종인	정년퇴임
"	"	"	"	최중휘	"
"	"	"	조무 10등급		"
"	"	"	토목주사보	조성린	우수공무원
"	"	법무부장관	지방조무 10등급	강재정	국가소송업무수행유공
8월 1일	"	행정자치부장관	지방행정주사	한상의	지방세수증대
9월 7일	"	"		박태곤	공공근로사업추진
9월 15일		환경부장관	기능 10급	홍정표	국민의안보의식고취
"		행정자치부장관	행정 7급	최원호	국가사회발전
9월 18일		"	세무 7급	김태웅	세무조사사례발표
9월 30일		"	행정 7급	고희남	주민등록증일제경신사업유공
"		"	지방농업주사	장현석	명예퇴직
"		"	지방세무주사	민철기	"
"		"	지방행정주사	조한묵	"
"		"	지방보건주사보	배창식	"
"		"	지방행정주사	김규식	"
"		"	지방농업주사	안창노	"
"		"	지방지도원	신기호	국가사회발전
"		"	기능 10급	이발영	"
"		"	보건 7급	오인근	"
"		"	보건 7급	오의숙	"
"		"	"	김귀숙	"
"		"	임업 6급	허 성	"
10월 5일		환경부장관	환경 5급	김정곤	환경보전
"	시계	행정자치부장관	행정 6급	이의규	국가사회발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육군 제6869부대		자연환경보전유공
12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행정주사보	황규섭	새마을운동추진유공
12월 11일		농림부장관		박봉순	농지보전
"		"		홍종모	"
"		행정자치부장관	농업주사	이강은	명예퇴직
12월 13일		"	행정 7급	김학년	새마을운동
12월 18일	손목시계	보건복지부장관	간호 7급	김영애	국민보건향상
12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행정 7급	이한익	국가동원업무발전유공
12월 22일		"	전산 6급	정창균	행정종합정보화사업

1998년도 포상자 : 계 81명					
포상일자	포상종류	포상기관	직위	성명	공적개요
12월 30일	시계	행정자치부장관	기계 8급	이영복	행정자치부업무발전
"	"	"	토목 8급	박범수	건설과업무발전
"	"	"	농업 7급	민복선	농정발전
"	"	"	행정 8급	김홍진	지방재정업무발전
"	"	"	"	박태곤	공공근로사업추진
"	"	"	농업 6급	이동호	선거업무추진
"	"	"	농업 6급	송영희	"
"	"	"	"	허 완	"
"	"	장관	행정 6급	황선유	선거업무유공
"	"	행정자치부장관	"	박신자	지방세수확충
"	"	"	"	송경근	재해대책업무유공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기능직9등급	임대규	급성전염병관리유공
"		건설교통부장관	지방토목주사	이종만	건설교통업무발전유공
"		농림부장관	지방행정주사	황봉현	농정발전기여유공
"		"	"	최삼선	농정발전기여유공
"		"	지방농업사무원	오세용	"
"		농림부장관	지방행정주사보	장종찬	98쌀생산대책추진유공
"		"	지방농업주사보	정연용	농정발전기여유공
"		행정자치부장관	이장	김영선	반상회운영유공
"		"	"	장금옥	반상회기여유공
"		"	"	조용근	"
"		"	지방농업주사	문제영	공명선거품토조성유공
"		"	지방행정주사보	김영길	반상회운영유공
"		"	"	이기옥	주민등록업무추진유공
"		"	지방토목주사	김규택	지방행정발전기여유공
"		"	지방행정주사	이운구	불법광고물정비유공
"	손목시계	"	지방건축서기	이영기	재해대책추진유공
"	시계	"	지방토목서기	심학곤	셋강살리기소하천정비추진유공
"	"	"	지방행정주사	김윤기	행자부업무발전기여유공
"	"	"	지방전산주사보	이수현	지방세정발전지방세수확충기여
"	"	"	행정 6급	이원희	국가사회발전
"	"	"	"	유병익	"
"	"	"	토목 6급	강용구	"
"	"	"	지방보건주사보	김숙희	명예퇴직
"	"	"	지방농업주사	이강은	"
"	"	"	지방행정주사	양병일	"
"	"	"	지방운전원	최복규	"



## 1998년도 포상자 : 계 81명

포상일자	포상종류	포상기관	직위	성명	공적개요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농업주사	정 덕	명예퇴직
"		"	지방행정주사	홍영득	"
"		"	지방농업주사	박창순	"
"		"	지방통신 7급	양보현	"
"		"	지방보건주사보	한영자	"
"		"	"	김영옥	"
"		"	"	목준수	"

## 1999년도 포상자 : 계 36명

포상일자	포상종류	포상기관	직위	성명	공적개요
3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별정직	박지상	정년퇴임
6월 30일		"	농업주사	이기우	명예퇴직
"		"	기계원	박봉룡	"
"		"	농업주사	이희재	"
"		"	농촌지도사	강대균	"
"		"	"	김덕경	"
"		"	"	안효섭	"
"		"	"	장광석	"
"		"	행정주사	조성우	"
"		"	농업주사	이영섭	"
"		"	보건주사	구봉찬	"
"		"	행정주사	기동열	"
"		"	행정주사보	정광남	"
"	대통령표창	"	농촌지도사	윤창의	"
"	근정훈장	"	행정사무관	한복석	"
7월 3일		"	행정 5급	박상무	기구재정운영
8월 31일		"	건축 7급	우광식	모범공무원
9월 22일	시계	"	대장	홍순지	민방위유공
"		"	단체		민방위유공
9월 30일		"	기능 8급	이병재	퇴직표창
10월 5일		환경부장관	행정 6급	이재근	환경보존유공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보건주사	이성순	99보건복지비상대비업무발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의료기술주사보	허선수	국민구강건강증진
12월 22일		농림부장관	지방축산주사	김동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12월 29일		"	지방농업주사	이강서	99쌀생산 종합대책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행정주사보	윤군선	옥외광고물업무

1999년도 포상자 : 계 36명

포상일자	포상종류	포상기관	직위	성명	공적개요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이장	최영진	모범적인 통반운영
"		"	지방농업주사	안병화	평생공직에 헌신노력
"		"	지방행정주사	안현숙	"
"		"	"	양경환	"
"		"	지방기능 9급	이보덕	"
"		"	지방토목주사	이정표	99재해대책업무
"		"	지방행정주사	안병렬	지방세수확충과 납세자편의의 지방세정 운영
"		"	이장	최영진	모범적인 통반운영
"		"	지방행정주사	조병태	99년 지방도로개발사업
"		"	지방토목주사보	노형일	"

2000년도 포상자 : 계 22명

포상일자	포상종류	포상기관	직위	성명	공적개요
2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김경식 이정훈 이영기	재해대책업무종합평가 (우수)
3월 23일		"	건축 8급	이종환	공무원연금업무발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 7급	유영숙	결핵예방 및 퇴치발전
4월 1일		국방부장관	기능 7급	이병욱	예비군육성발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 9급	조정희	의료분야 Y2K문제해결유공
6월 30일	시계	행정자치부장관	행정 6급	양주석	국가사회발전
"	"	"	"	정해연	"
"	"	"	기능 8급	남기철	"
"	"	"	"	임병용	"
"	"	"	"	윤병은	"
"	"	"	"	김광태	"
"	"	"	"	노재민	"
"	"	"	"	이재선	"
"	"	"	행정 8급	최신구	행정자치부업무발전
"	근정훈장	총무처장관	지방농촌지도사	고영복	정년퇴임
"	근정포장	총무처장관	"	류중희	"
9월 30일	"	"	행정 7급	홍현미	주민등록중일제갱신사업유공
"	"	"	행정 8급	김윤주	"
12월 31일		행자부장관	행정 6급	송정호	국가사회발전
"		보건복지부장관	"	임교화	저소득층생활관란
"		"	사회복지 7급	김규호	"
"		"	"	문명순	"

## 4. 도지사·시장

도지사·시장 표창을 지면 관계로 대상 명단을 생략하고 1996년 시로 승격된 이후의 인원만 게재한다.

○도지사

○시장

년 도 \ 대 상	계	시민	공직자	학생	기관	비고
1996년	89	18	68	-	3	
1997년	89	19	63	2	5	
1998년	64	7	53	1	3	
1999년	47	9	37	-	1	
2000년	99	26	70	-	3	

년 도 \ 대 상	계	시민	공직자	학생	기관	비고
1996년	467	296	100	28	42	
1997년	728	387	133	176	32	
1998년	694	287	232	116	59	
1999년	388	225	92	29	42	
2000년	638	334	92	173	39	

## 제11절 읍·면·동 행정

### 1. 수지출장소

#### 1) 기본현황

##### ① 행정구역

구역별	면적(km <sup>2</sup> )	통수	대수	면적(km <sup>2</sup> )	통수
계	42.00	133			
풍덕천 1동	2.1	26	죽전 2동	2.7	12
풍덕천 2동	7.8	26	동천동	16.5	16
죽전 1동	3.1	16	상현동	9.8	37

##### ② 수지 인구현황

구분	면적(km <sup>2</sup> )	세대수(세대)	인구(명)	세대당인구(명/세대)
계	42.0	59,735	183,181	3.07
풍덕천 1동	2.1	12,819	38,194	2.98
풍덕천 2동	7.8	11,903	36,736	3.09
죽전 1동	3.1	5,998	18,371	3.06
죽전 2동	2.7	5,738	17,469	3.04
동천동	16.5	4,145	11,871	2.86
상현동	9.8	19,132	60,504	3.16

##### ③ 동장 정보

구분	동장
풍덕천 1동	박신자
풍덕천 2동	황덕수
죽전 1동	조병태
죽전 2동	김영명
동천동	윤득원
상현동	김남숙

## 2) 기타현황

학교수 : 26개교(초등 16개교, 중학 7개교, 고등 3개교)

기업체 : 100개 기업체

연구소 : 1개소

## 3) 행정여건

1996년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되면서 수지면에서 수지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수지지역은 용인시 서북권에 위치하여 수도권과 인접함으로써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현재 수지 1차, 2차 개발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죽전택지개발지구 및 상현리 취락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준농림지역에서 대단위 아파트건립, 입주 등으로 폭발적인 인구증가 및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신속한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에게 시정까지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현 행정체제를 수지출장소로 승격시키고 동(洞)체제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어 2002년에는 수지출장소와 풍덕천 1동, 풍덕천 2동, 죽전 1동, 죽전 2동, 동천동, 상현동 6개 동으로 전환되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 4) 역대 면·읍장 명단

최장수 면장으로는 3대 이영수로 8년 4월, 연이어 8대에 3년 11월, 도합 11년 재임하였으며 13대 심원빈이 8년 2월, 16대 박한철이 5년, 2대 한공교 4년 4월, 2대읍장으로 김명진이 3년간이고 여타는 모두 1년 이상 재임하였다.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5	이종민(李種敏)	1987. 2. 9. ~ 1990. 7. 16.	3년 5월
16	박한철(朴漢喆)	1990. 7. 21. ~ 1995. 7. 20.	5년
초대읍장	김필배(金弼培)	1995. 7. 21. ~ 1997. 7. 3.	96. 3. 1 읍 승격
2	김명진(金明鎭)	1997. 7. 4. ~ 2000. 6. 17.	3년
초대출장소장	김필배(金弼培)	2000. 6. ~현재	2001 12.24일자로 소장 임명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면장	이원준(李源俊)	1945. 8. ~ 1945. 12.	4월
2	한궁교(韓兢敎)	1946. 1. 15. ~ 1950. 5.	4년 4월
3	이영수(李英秀)	1951. 6. 1. ~ 1959.	8년
4	이택주(李宅周)	1959. ~ 1960.	4년
5	이도상(李道相)	1960. ~ 1961.	1년
6	이상의(李相儀)	1961. 6. 30. ~ 1962. 12. 11.	1년 5월
7	김국환(金國煥)	1963. 12. 12. ~ 1966. 2. 10.	2년 2월
8	이영수(李英秀)	1966. 4. 1. ~ 1970. 3. 12.	3년 11월
9	김기홍(金淇洪)	1970. 3. 13. ~ 1971. 9. 24.	1년 7월
10	김정식(金鼎植)	1971. 9. 25. ~ 1973. 5. 20.	1년 8월
11	홍순옥(洪淳玉)	1973. 5. 21. ~ 1975. 1. 9.	1년 7월
12	권혁성(權赫成)	1975. 1. 10. ~ 1977. 2. 9.	2년 1월
13	심원빈(沈遠彬)	1977. 2. 10. ~ 1985. 4. 9.	8년 2월
14	이수길(李壽吉)	1985. 4. 10. ~ 1987. 2. 8.	1년 10월

## 2. 기흥읍

### 1) 기본현황

인구수 : 96,870명

세 대 수 : 34,771세대

면 적 : 46.8km<sup>2</sup>

행정구역 : 11개 법정리, 93개 행정리

### 2) 기타현황

학교수 : 23개교(초등 13개교, 중학 5개교, 고등 2개교, 대학3개교)

기업체 : 96개 기업체      연구소 : 5개소

위락시설 : 한국민속촌, 도립박물관 1개소, 골프장 4개소

### 3) 행정여건

기흥읍은 읍 승격시 인구 27,092명, 32개 행정리, 그리고 7개계 51명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행정수요를 충족하여 왔으나 90년대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연평균 6.6%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현재는 84개 행정리에 인구가 74,909명으로 늘어나고 행정조직도 2과 9담당으로 개편되었으며 연지방 세수가 869억원인 중소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인구에 비례하여 행정수요도 폭증하고 있고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불편사항과 함께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불편 해소 및 다양한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확대개편과 함께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4) 역대 면·읍장 명단(85년 10월 1일 읍 승격)

16대 면장 이양구는 5년 3월, 초대면장으로 7년 9월 도합 13년간을, 15대 면장 김용구는 7년 2월간을, 4·5대 면장 오한영은 4대로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면장	김정한(金正漢)	1945. 8. 29. ~ 1946. 12. 31.	1년 4월
2	김지환(金知煥)	1947. 1. 1. ~ 1948. 12. 9.	2년
3	김학찬(金學瓚)	1948. 12. 10. ~ 1952. 7. 3.	3년 7월
4	오환영(吳桓泳)	1952. 7. 8. ~ 1954. 4. 7.	1년 9월
5	오환영(吳桓泳)	1954. 4. 17. ~ 1958. 3. 1.	4년
6	오환영(吳桓泳)	1958. 3. 27. ~ 1960. 9. 30.	2년 6월
7	최명호(崔明鎬)	1960. 10. 1. ~ 1961. 6. 29.	9월
8	김학래(金學來)	1961. 6. 30. ~ 1964. 9. 6.	3년 2월
9	오훈근(吳薰根)	1964. 9. 7. ~ 1965. 7. 8.	10월
10	김락홍(金洛泓)	1965. 7. 8. ~ 1966. 8. 31.	1년 1월
11	홍현태(洪顯台)	1966. 9. 1. ~ 1968. 7. 19.	1년 11월
12	한동희(韓東熙)	1968. 7. 20. ~ 1970. 11. 2.	2년 4월
13	김학찬(金學瓚)	1970. 11. 3. ~ 1972. 11. 24.	2년 1월
14	최효성(崔孝成)	1972. 11. 25. ~ 1973. 4. 30.	5월
15	김용구(金容九)	1973. 5. 1. ~ 1980. 7. 9.	7년 2월
16	이양구(李亮究)	1980. 7. 9. ~ 1985. 9. 30.	5년 3월
초대읍장	이양구(李亮究)	1985. 10. 1. ~ 1993. 6. 30.	7년 9월
2	윤진섭(尹鎭燮)	1993. 7. 1. ~ 1998. 2. 5.	4년 7월
3	한복석(韓福錫)	1998. 2. 6. ~ 1999. 1. 7.	1년
4	김진성(金鎭星)	1999. 1. 8. ~ 2001. 1. 27.	2년
5	안승덕(安承德)	2001. 1. 27. ~ 2002. 9. 12	1년 8월
6	오세동(吳世東)	2002. 9.17 ~ 현재	

1년 9월, 5대에 4년간 도합 5년 5월간 재임하였고 2대 읍장인 윤진 섭은 4년 7월간 재임하였다.

최단재임으로는 14대 최효성으로 4월간, 1년 미만은 7대 최명호가 9월, 9대 오훈근이 10월간 각각 재임하였다.

### 3. 구성읍

#### 1) 기본현황

(2001년 현재)

인구수 : 40,759명(남 20,712명, 여 20,047명)

세대수 : 13,277세대

면적 : 35,15km<sup>2</sup>(농지 7.3km<sup>2</sup>, 임야 19.9km<sup>2</sup>, 대지 2.2km<sup>2</sup>, 기타 5.75km<sup>2</sup>)

행정구역 : 법정리 7개리

#### 2) 기타현황

학교수 : 7개교(초등 4개교, 중등1개교, 대학 2개교)

기업체 : 127개 기업체

연구소 : 15개소

#### 3) 행정여건

수원, 분당 신도시 등과 인접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3개소의 택지개발지정 도시로 개발계획이 있으며, 수도권에 인접하여 중·소 업체가 산재해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2001년도 말에는 4,493세대 13,029여명이 입주예정이며 5,000세대의 아파트개발이 추가로 건립 중에 있고, 2002년도 말에는 약 63,000명에 이르는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있으며 공무원 1인당 1,70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2000년 9월 1일자로 구성면에서 구성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기흥, 수지와 더불어 읍이 되었다.

#### 4) 역대 면·읍장 명단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면장	홍명섭(洪明燮)	1946. 3. 15. ~ 1946. 9. 23.	6월
2	윤종원(尹棕源)	1946. 9. 24. ~ 1952. 5. 6.	5년 7월
3	윤종원(尹棕源)	1952. 5. 7. ~ 1953. 12. 31.	1년 8월
4	윤승오(尹承五)	1954. 1. 9. ~ 1958. 1. 8.	4년
5	박내기(朴來基)	1958. 1. 9. ~ 1960. 12. 27.	3년
6	박내기(朴來基)	1960. 12. 28. ~ 1961. 6. 19.	6월
7	최병필(崔秉弼)	1961. 6. 30. ~ 1961. 11. 30.	5월
8	한동희(韓東熙)	1962. 2. 23. ~ 1963. 6. 26.	1년 4월
9	지일선(池日先)	1963. 6. 27. ~ 1965. 7. 7.	2년
10	오훈근(吳薰根)	1965. 7. 8. ~ 1968. 7. 19.	3년
11	이상학(李相鶴)	1968. 7. 20. ~ 1971. 9. 24.	3년 2월
12	이하진(李河鎭)	1971. 9. 25. ~ 1975. 1. 10.	3년 3월
13	김기홍(金淇洪)	1975. 1. 11. ~ 1976. 8. 27.	1년 8월
14	이하진(李河鎭)	1976. 8. 28. ~ 1981. 3. 31.	4년 7월
15	박재혁(朴載赫)	1981. 4. 1. ~ 1987. 2. 6.	5년 10월
16	이수길(李壽吉)	1987. 2. 7. ~ 1994. 6. 30.	7년 5월
17	이강민(李康滿)	1994. 7. 5. ~ 1995. 12. 31.	1년 6월
18	한복석(韓福錫)	1996. 1. 1. ~ 1996. 7. 7.	6월
19	김동해(金東海)	1996. 7. 8. ~ 2000. 8. 31.	4년 2월
초대읍장	한익수(韓翼洙)	2000. 9. 1. ~ 2001. 9. 1	2000. 7. 1 읍승격
2	김동해(金東海)	2001. 9. 2 ~ 현재	

최장수 면장은 16대 이수길로 7년 5월, 다음이 15대 박재혁이 5년 10월, 2대 윤종원이 5년 7월, 14대 이하진이 4년 7월, 4대 윤승호가 4년간의 순으로 여타는 거의 다 1년 반 이상이고, 18대 한복석만 6월간 재임하였다.

## 4. 포곡면

### 1) 기본현황

인구수 : 26,927명(남 13,775, 여 13,152)

세대수 : 8,978세대

면적 : 41,78km<sup>2</sup>(농지 8.41km<sup>2</sup>, 임야 24.65km<sup>2</sup>, 대지 1.48km<sup>2</sup>, 기타 7.24km<sup>2</sup>)

행정구역 : 법정리 9개리, 행정리 39개리 145반

### 2) 기타현황

학교수 : 3개교(초등 1개교, 중등 1개교, 고등 1개교)

기업체 : 74개 기업체

위락시설 : 삼성에버랜드

### 3) 행정여건

최근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맞추어 아파트의 건립 및 입주로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가의 비율이 낮아 농사보다는 경공업과 상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 도시화 현상을 역력하게 보이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경안천이 포곡면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안개가 많고 중부권의 평균기온보다 낮으며 세계적인 테마파크인 에버랜드가 소재하고 있어 연간 7,800명의 관광객이 내방하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 4) 역대 면장 명단

6대, 7대, 8대에 걸쳐 7년간 재직한 심우승이 최장수이고 다음은 11대 성낙원이 6년 3월, 20대 박윤승이 6년, 17대 정인재가 5년 8월, 19대 정완재가 5년, 21대 정성교가 4년 9월인데 정성교는 25대로 2000년 3월 1일부터 재부임하여 근무 중이다. 최단시일은 13대 홍현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면장	윤승구(尹承九)	1945. 9. 1. ~ 1946. 8. 11.	1년
2	권형규(權衡圭)	1947. 10. 31. ~ 1949. 8. 13.	1년 9월
3	이규현(李奎鉉)	1946. 8. 12. ~ 1947. 8. 6.	1년
4	이기복(李起福)	1949. 8. 13. ~ 1950. 6. 23.	10월
5	안인승(安仁承)	1950. 10. 17. ~ 1953. 4. 21.	1년 6월
6	심우승(沈愚承)	1953. 4. 26. ~ 1957. 3. 5.	3년 10월
7	심우승(沈愚承)	1957. 4. 3. ~ 1960. 4. 3.	3년
8	심우승(沈愚承)	1960. 4. 3. ~ 1960. 5. 27.	2월
9	안인승(安仁承)	1960. 6. 23. ~ 1960. 12. 1.	5월
10	이기연(李起連)	1960. 12. 26. ~ 1961. 6. 19.	6월
11	성낙원(成樂元)	1961. 6. 30. ~ 1967. 10. 7.	6년 3월
12	이상학(李相學)	1967. 10. 7. ~ 1968. 7. 24.	10월
13	홍현태(洪顯台)	1968. 7. 24. ~ 1968. 11. 30.	4월
14	유인수(劉寅壽)	1968. 11. 30. ~ 1971. 9. 27.	2년 10월
15	홍성구(洪性九)	1971. 9. 27. ~ 1973. 5. 23.	1년 8월
16	김학조(金學朝)	1973. 5. 23. ~ 1974. 4. 16.	11월
17	정인재(鄭仁載)	1974. 4. 16. ~ 1979. 12. 20.	5년 8월
18	박재혁(朴載赫)	1979. 12. 26. ~ 1981. 4. 1.	1년 3월
19	정완재(鄭完載)	1981. 4. 1. ~ 1986. 3. 20.	5년
20	박윤승(朴允承)	1986. 3. 27. ~ 1992. 3. 26.	6년
21	정성교(鄭誠敎)	1992. 4. 1. ~ 1996. 12. 31.	4년 9월
22	장송순(張送淳)	1997. 1. 13. ~ 1998. 10. 16.	1년 9월
23	김진성(金鎭星)	1998. 10. 17. ~ 1999. 1. 7.	3월
24	유 경(柳 璟)	1999. 1. 8. ~ 2000. 2. 29.	1년 1월
25	정성교(鄭誠敎)	2000. 3. 1. ~ 현재	

태가 4월, 9대 안인승이 5월, 10대 이기연이 6월 등이며 1년 미만은 5명이 있다.

## 5. 모현면

### 1) 기본현황

인구수 : 19,295명(남 10,038명, 여 9,257명)

세대수 : 6,634세대

면적 : 50,41km<sup>2</sup>(농지 9.96km<sup>2</sup>, 임야 31.09km<sup>2</sup>, 대지 1.06km<sup>2</sup>, 기타 8.3km<sup>2</sup>)

행정구역 : 법정리 8개리, 행정리 32개리, 63개반

### 2) 기타현황

학교수 : 5개교(초등 3개교, 중등 1개교, 대학 1개교)

기업체 : 137개 기업체

위락시설 : 골프장 1개소

### 3) 행정여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서울근교의 영향으로 시설채소농이 성행하고 있다. 소규모 제조업체 및 대도시에서 이주하는 공장들이 많아 지역경제 발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세계적인 골프행사가 연중 열리는 서울 레이크사이트 C·C 및 등잔박물관, 정몽주 선생을 모신 충렬서원, 고인돌유적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과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환경으로 최근에는 성남, 서울 등지에서 전입해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4) 역대 면장 명단

최장수 면장은 10대 양한영으로 8년 5월, 9대 이홍열과 12대 윤석중은 각각 6년 2월씩이며, 2년 이상 재임한 면장이 6명이며 1년 미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면장	이종혁(李種赫)	1946. 8. 11. ~ 1948. 8. 20.	2년
2	이병곤(李秉崑)	1948. 8. 21. ~ 1950. 12. 4.	2년 3월
3	이병용(李秉龍)	1950. 12. 5. ~ 1953. 5. 11.	2년 5월
4	백구현(百九鉉)	1953. 5. 12. ~ 1953. 5. 25.	15일
5	이병찬(李秉瓚)	1953. 5. 26. ~ 1954. 10. 7.	1년 4월
6	오성환(吳成煥)	1954. 10. 8. ~ 1958. 8. 23.	3년 11월
7	이홍열(李洪烈)	1958. 8. 24. ~ 1961. 6. 10.	2년 9월
8	권영현(權寧現)	1961. 6. 11. ~ 1964. 7. 10.	3년 1월
9	이홍열(李洪烈)	1964. 7. 11. ~ 1971. 9. 24.	6년 2월
10	양한영(梁漢榮)	1971. 9. 25. ~ 1980. 3. 7.	8년 5월
11	이병화(李秉和)	1980. 3. 8. ~ 1984. 11. 4.	4년 8월
12	윤석중(尹錫重)	1984. 11. 5. ~ 1991. 1. 12.	6년 2월
13	장익순(張益淳)	1991. 1. 17. ~ 1993. 5. 16.	2년 4월
14	정동석(鄭東錫)	1993. 5. 17. ~ 1995. 10. 23.	2년 5월
15	남상규(南相珪)	1995. 10. 24. ~ 1996. 7. 7.	8월(사망)
16	남덕희(南德熙)	1996. 7. 15. ~ 2001. 1. 27.	4년 6월
17	온만표(溫萬杓)	2001. 1. 27.	

만은 사망으로 인한 15대 남상규의 경우뿐이다.

## 6. 남사면

### 1) 기본현황

인구수 : 7,411명

세대수 : 2,488세대

면 적 : 58.63km<sup>2</sup>(농지 18.39km<sup>2</sup>, 임야 1.04km<sup>2</sup>, 기타 8.84km<sup>2</sup>)

행정구역 : 법정리 11개리, 행정리 34개리 75개반

### 2) 기타현황

학교수 : 4개교(초등 3개교, 중등 1개교)

기업체 : 125개 기업체

### 3) 행정여건

현(縣)의 일부는 원래 수원부의 치인부곡이었으나 태조 6년 현이 되었으며, 태종 13년에 용구현과 합쳐 용인현이 되었다. 그 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당시 현내면, 도촌면, 서촌면, 남촌면 등 4개 면을 합쳐 남사로 불리워지고 있다. 용인시 남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동쪽으로 이동면, 서쪽으로 평택시, 남쪽으로 안성시, 북쪽으로 오산시와 접하고 있다. 시설채소단지 및 화훼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교적 관개시설이 잘 되어있는 미곡위주의 농업지대이다.

### 4) 역대 면장 명단

최장수 면장은 14대 홍순일로 무려 9년 11월(근 10년), 다음이 9대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면장	정완기(鄭完基)		
2	유진영(柳鎭永)		
3	홍우국(洪祐國)	1951. 6. 15.	
4	구자철(具滋喆)	1956. 8. 3.	
5	박세영(朴世永)		
6	유진영(柳鎭永)		
7	노재춘(盧載春)	1961. 6. 30. ~ 1962. 7. 30.	1년 1월
8	홍성구(洪性九)	1962. 8. 17. ~ 1963. 12. 2.	1년 3월
9	구자철(具滋喆)	1966. 1. 1. ~ 1974. 1. 23.	8년 1월
10	김기홍(金琪洪)	1974. 2. 1. ~ 1975. 1. 10.	11월
11	이하진(李河鎭)	1975. 1. 11. ~ 1976. 8. 27.	1년 6월
12	구자철(具滋喆)	1976. 8. 28. ~ 1977. 11. 23.	1년 3월
13	박재혁(朴載赫)	1977. 11. 24. ~ 1980. 2. 10.	2년 2월
14	홍순일(洪淳一)	1980. 2. 11. ~ 1990. 1. 6.	9년 11월
15	유홍열(柳洪烈)	1990. 1. 7. ~ 1992. 9. 7.	2년 8월
16	박정연(朴正淵)	1992. 9. 8. ~ 1997. 9. 7.	5년
17	남정건(南廷建)	1997. 9. 10. ~ 1998. 10. 16.	1년 1월
18	유봉석(柳鳳錫)	1998. 10. 17. ~ 2000. 2. 29.	1년 4월
19	온만표(溫萬杓)	2000. 3. 1. ~ 2000. 9. 7.	6월
20	심재국(沈載國)	2000. 9. 8. ~ 200. 12. 24	3월
21	류 린(柳 璘)	2000. 12. 25 ~ 현재	

구자철로 8년 1월, 16대 박정연이 5년으로 장수면장이 그리 많지 않으며, 19대 온만표는 6월 재임하였다. 초대 정완기 면장 외 5명의 면장의 재임기간은 자료를 찾지 못하여 기입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란다.

## 7. 이동면

### 1) 기본현황

인구수 : 13,508명

세대수 : 4,653세대(농가 1,113세대, 비농가 3,540세대)

면 적 : 76km<sup>2</sup>(시전체의 12.8%)

행정구역 :

### 2) 기타현황

학교수 : 4개교(초등 2개교, 중등 1개교, 고등 1개교)

기업체 : 149개 기업체

연수원 : 연구소 1개소, 연수원 1개소

위락시설 : 저수지 1개소, 용덕사(문화유적), 골프장 5개소

### 3) 행정여건

용인시 남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원삼면, 남쪽으로 안성시, 북쪽으로 중앙동과 접해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국토이용 관리법상 전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천리, 송전리, 어비리, 덕성리, 서리, 묵리 일부가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발전 잠재력을 갖춘 발전적인 지역이다. 또한 서리 고려백자요지가 본격적으로 연구와 발굴작업이 진행되면서 이천, 여주 못지 않는 도자기마을을 조성할 것이 예상되며, 100만 평에 달하는 송전저수지를 활용하여 바이오파크(생태공원)와 연계한 생태수변 유

원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위락명소로 새롭게 단장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45번 국도옆 입체화고속도로가 2003년 준공되면 교통의 요충지로 교통 또한 편리한 고장이 될 것이다.

#### 4) 역대 면장 명단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면장	송우식(宋牛植)	1945. ~ 1950.	5년
2	정철수(鄭哲秀)	1950. ~ 1955. 4. 3.	5년
3	신현정(申鉉鼎)	1955. 4. 4. ~ 1958. 10. 12.	3년 6월
4	이도영(李道寧)	1959. 3. 13. ~ 1961. 6. 19.	2년 3월
5	목장균(睦莊均)	1961. 7. 1. ~ 1975. 1. 10.	13년 6월
6	소진태(蘇鎭泰)	1975. 1. 10. ~ 1984. 11. 4.	9년 10월
7	김영인(金寧仁)	1984. 11. 5. ~	
8	박노창(朴魯昌)	1993. 7. 1. ~ 1998. 6. 30.	5년
9	유해용(柳海用)	1998. 7. 1. ~ 2001. 1. 27.	2년 7월
10	조길원(趙吉元)	2000. 1. 27. ~ 현재	

최장수 면장은 무려 13년 6월을 재임한 5대 목장균이고 다음은 6대 소진태가 9년 10월, 8대 박노창이 5년, 3대 신형정이 3년 6월, 9대 윤해용이 2년 7월 등 비교적 장기간 재임하였다.

## 8. 원삼면

### 1) 기본현황

인구수 : 7,428명(남 3,795명, 여 3,633명)

세대수 : 2,596세대

면 적 : 60,23km<sup>2</sup>(농경지 19.23km<sup>2</sup>, 임야 34.07km<sup>2</sup>, 대지 1.25km<sup>2</sup>, 기타 5.68km<sup>2</sup>)

행정구역 : 법정리 12개리, 행정리, 41개리, 74개반



## 2) 기타현황

· 학교수 : 3개교(초등 2개교, 중등 1개교)

· 기업체 : 43개 기업체

· 연구소 : 3개소

· 위락시설 : 골프장 2개소

## 3) 행정여건

원삼면은 1914년 죽산군 원일면, 양지군 목악면을 병합하여 원삼면이 되었으며 1972년 가좌리(3개 마을)가 외사면으로 편입되었다가 1983년 가재월 마을이 다시 본면으로 편입되었다.

원삼면은 수도권 정비계획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중소도시가 원거리에 위치하는데다 극동기상연구소가 소재하고 있어 건축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한 영향으로 시내의 다른 면들이 산업화 도시화되어 가는 것과는 달리 가축과 영농의 복합영농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 4) 역대 면장 명단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면장	백남규(百南圭)	1945. 8. 15. ~ 1947.	2년
2	신용철(申用撤)	1947. ~ 1948.	1년
3	윤치주(尹致周)	1948. ~ 1950. 11.	2년
4	신용철(申用撤)	1950. 11. ~	
5	신용철(申用撤)	~ 1955.	
6	오준영(吳峻泳)	1955. ~ 1958.	3년
7	이규남(李圭南)	1958. ~	
8	이규남(李圭南)	~ 1961.	
9	목성균(睦聖均)	1961. 5. ~ 1964. 6. 20.	3년
10	지일선(池日先)	1964. 6. 20. ~ 1964. 7. 20.	1월
11	이규남(李圭南)	1964. 7. 20. ~ 1971. 9. 25.	7년 2월
12	오훈근(吳薰根)	1971. 9. 25. ~ 1973. 4.	1년 7월
13	권혁성(權赫成)	1973. 4. ~ 1974. 9.	1년 5월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4	심원빈(沈源彬)	1974. 9. ~ 1976. 4.	1년 7월
15	임국재(任國宰)	1976. 4. ~ 1978. 3. 1.	1년 11월
16	박제원(朴濟源)	1978. 3. 1. ~ 1980. 7. 9.	2년 4월
17	임이택(任 澤)	1980. 7. 9. ~ 1990. 9. 27.	10년 3월(사망)
18	신응철(申應澈)	1990. 9. 28. ~ 1995. 10. 23.	5년 1월
19	박환신(朴煥新)	1995. 10. 24. ~ 1998. 6. 30.	2년 8월
20	온만표(溫萬杓)	1998. 7. 1. ~ 2000. 2. 29.	1년 8월
21	견광수(堅光洙)	2000. 3. 1. ~ 현재	

최장수 면장은 17대 임이택으로 10년 3월(90년 9월 27일 사망), 다음으로 11대 이규남은 7년 2월, 18대 신응철은 5년 1월, 19대 박환신으로 2년 8월 등으로 이어진다. 대개가 1년 반 내지 2년간 재직했다.

## 9. 백암면(구 외사면, 96. 3. 1. 시승격. 백암면으로 개명)

### 1) 기본현황

인구수 : 10,258명(남 5,163명, 여 5,095명)  
 세대수 : 3,608세대  
 면적 : 65.79km<sup>2</sup>  
 행정구역 : 13개리

### 2) 기타현황

학교수 : 4개교  
 기업체 : 61개 기업체  
 연구소 : 2개소

### 3) 행정여건

백암면은 본래 죽산군 근삼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백암 등 14개 동

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죽산군 근일면, 근삼면, 양지군의 마곡면, 고안면 등 용인군 바깥쪽의 4개 면을 합쳤다는 의미에서 외사면이라 칭하게 되었다. 이때 외사면은 12개 동리를 관할하게 되었고 면소재지를 백암리에 두게 되었다. 1973년에는 원삼면 가좌리를 편입시켜 13개 동리를 관할하게 되었고 1983년에는 가좌리의 일부를 가재월리라 하여 원삼면으로 다시 편입하였다.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되면서 외사면을 백암면이라 개칭하게 되었다. 용인시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백암면은 미곡생산 중심의 농촌지역이며, 특히 양돈업에 종사하는 전업농가가 많은 지역이고 면중심부를 남북으로 4차선 1번국도 동서로 329지방도가 관통하고 있는 도농복합형 전원적인 도시화현황을 보이고 있다.

#### 4) 역대 면장 명단

최장수 면장은 10년 3월 재임했던 10대 김진업으로, 다음이 15대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면장	박필선(朴弼善)	1945. 11. 15. ~ 1946. 10. 25.	11월(외사면)
2	김한규(金翰圭)	1946. 12. 21. ~ 1948. 10. 31.	1년 10월(외사면)
3	박보선(朴輔善)	1948. 11. 8. ~ 1950. 6. 21.	1년 8월(외사면)
4	임덕규(林惠圭)	1950. 6. 22. ~ 1952. 3. 22..	1년 9월(외사면)
5	임덕규(林惠圭)	1952. 5. 7. ~ 1952. 6. 10.	1월(외사면)
6	임덕규(林惠圭)	1952. 6. 24. ~ 1952. 12. 27.	6월(외사면)
7	강석영(姜錫英)	1953. 1. 2. ~ 1957. 2. 24.	7년 2월(외사면)
8	박완선(朴完善)	1957. 4. 2. ~ 1958. 9. 1.	1년 5월(외사면)
9	임덕규(林惠圭)	1958. 10. 24. ~ 1961. 6. 19.	2년 8월(외사면)
10	김진업(金鎭業)	1961. 6. 30. ~ 1971. 9. 24.	10년 3월(외사면)
11	황창선(黃昌善)	1971. 9. 25. ~ 1972. 10. 31.	1년 1월(외사면)
12	임국재(任國宰)	1972. 11. 1. ~ 1977. 2. 10.	4년 3월(외사면)
13	권혁성(權赫成)	1977. 2. 10. ~ 1980. 7. 1.	2년 5월(외사면)
14	박제원(朴濟源)	1980. 7. 9. ~ 1983. 1. 7.	2년 6월(외사면)
15	김달원(金達源)	1983. 1. 12. ~ 1992. 9. 1.	9년 8월(외사면)
16	오세동(吳世東)	1992. 9. 2. ~ 1993. 3. 1.	6월(외사면)
17	심준섭(沈俊燮)	1993. 3. 2. ~ 1997. 1. 10.	96. 3. 1(외사면) (시승격명칭변경백암면)
18	김근호(金根浩)	1997. 1. 13. ~ 현재	

김달원으로 9년 8월, 7대 강석영이 7년 2월, 12대 임국재가 4년 3월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타는 1년 내지 2년 정도로 비교적 장기간 재직하고 있다. 다만 5대 임덕규는 1월 재임했다가 6대에 가서 6월 재임하는 최단 재직을 나타내고 있다.

## 10. 양지면

### 1) 기본현황

인구수 : 13,146명  
세대수 : 4,480세대  
면적 : 58km<sup>2</sup>  
행정구역 : 10개리

### 2) 기타현황

학교수 : 5개교(초등 3개교, 중등 1개교, 대학교 1개교)  
연구소 : 4개소  
위락시설 : 골프장 2, 리조트 1개소

### 3) 행정여건

양지면은 용인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천시, 광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성종 원년(1470년) 양지현으로 갑오개혁 이후 1896년에는 양지군으로 승격하였고, 조선말까지 읍내면으로 불리었다. 1914년 일제시대 행정국역을 통폐 합하면서 주동면, 주북면, 주서면, 읍내면 일원 등 4개 면을 합쳐 내사면이 되었고 1996년 용인시 승격과 함께 양지면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양지리, 남곡리, 평창리, 제일리, 추계리, 정수리, 식금리, 대대리, 주북리, 송문리의 10개 리가 있고 고속도로와 국도가 있어 교

통의 요충지이며,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및 수도권 정비권역에 속해있고 골프장, 스키장, 연수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 4) 역대 면장 명단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면장	홍종욱(洪鐘旭)	1944. 5. 1. ~ 1949. 8. 12.	5년 3월
2	유정희(柳定熙)	1949. 8. 13. ~ 1952. 5. 6.	2년 9월
3	구자영(具滋榮)	1952. 5. 7. ~ 1955. 8. 16.	3년 3월
4	이병민(李秉珉)	1955. 8. 17. ~ 1956. 7. 6.	11월
5	최기성(崔氣星)	1956. 7. 7. ~ 1959. 7. 6.	3년
6	유기형(柳起馨)	1959. 7. 7. ~ 1960. 12. 25.	1년 6월
7	이영희(李英熙)	1960. 12. 26. ~ 1961. 6. 29.	6월
8	민동기(閔洞基)	1961. 6. 30. ~ 1962. 2. 27.	8월
9	민병일(閔丙一)	1962. 2. 28. ~ 1964. 8. 5.	2년 5월
10	이희남(李熙南)	1964. 8. 6. ~ 1965. 4. 12.	8월
11	김정식(金晶植)	1965. 4. 13. ~ 1966. 12. 31.	1년 8월
12	심원빈(沈遠彬)	1967. 1. 1. ~ 1975. 1. 10.	9년
13	홍순옥(洪淳玉)	1975. 1. 11. ~ 1982. 12. 31.	8년
14	양승대(梁承大)	1983. 1. 1. ~ 1991. 7. 4.	8년 6월
15	최기연(崔基淵)	1991. 7. 5. ~ 1996. 7. 4.	96.3.1 명칭변경 5년
16	유종열(柳鐘烈)	1996. 7. 8. ~ 1998. 10. 16.	1년 3월
17	송한식(宋漢植)	1998. 10. 17. ~ 2000. 6. 16.	1년 8월
18	이대령(李大寧)	2000. 6. 17. ~ 현재	

최장수 면장은 12대 심원빈으로 9년간 재임했고 다음은 13대 홍순옥으로 8년, 초대 홍종욱은 5년 3월, 15대 최기연은 5년, 3대 구자영은 3년 3월, 5대 최기성은 3년 등 비교적 장기간 재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대 이영희는 6월, 8대 민동기는 8월 간의 단기간 재임하였다.

## 8. 중앙동

### 1) 기본현황

인구수 : 22,901명(남 11,537명, 여 11,364명)

세대수 : 7,853세대(농가 5.4%, 비농가 94.6%)

면적 : 7.97km<sup>2</sup>(임야 4.45km<sup>2</sup>, 농지 1.7km<sup>2</sup>, 대지 0.9km<sup>2</sup> 기타 0.91km<sup>2</sup>)

## 2) 지역특성

- 팔당상수원의 발원지이며 도·농복합의 전형적인 도시지역
- 교통의 요충지로 물류 접근이 용이한 중심지역
- 상업시설이 집중된 경제 우선 지역
- (1) 지역경제 사회문화 등의 중심지로 수준 높은 도시
  - 국도 42번, 45번의 교차지역으로 사통팔달의 교통편리
  - 문화원, 문예회관 등 문화예술의 총람
- (2) 열린행정 및 교육의 요람
  - 공공행정기관(시청, 경찰서, 교육청 등) 6개소 1,808명 종사
  - 교육기관(학교, 학원 등) 72개소 1,114명 종사, 학생 14,335명
- (3) 용인의 상권을 대변하는 물류거점의 도시
  - 전통의 5일장 형성
  - 재래시장인 김량시장(점포 177개)
  - 경안천 및 금학천 등 하천의 친환경기능 관리
- (4)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룬 친환경 전원도시
  - 사업체수 2607개소, 종사자 11,872명
  - 친환경농업추진 10농가 6.3ha

## 3) 역대 동장 명단

초대 양면 동장은 2년 7월간이나 재직하였다.

대수	성명	재임기간	비고
초대면장	양면(梁勉)	1996. 3. 1. ~ 1998. 10. 16.	2년 7월
2	조길원(趙吉元)	1998. 10. 17. ~ 2001. 1. 27.	1년 3월
3	유해용(柳海用)	2001. 1. 27. ~ 2001. 9. 6.	8월
4	유중수	2001. 9. 7. ~ 현재	

#### 4) 용인면 · 읍장 명단

시 승격과 더불어 4개 동으로 분할된 용인읍(79. 5. 1.)을 용인면장, 읍장부터 기술한다.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면장	신현정(申鉉鼎)	1945. 8. 15. ~ 1946. 8. 26.	1년
2	최영진(崔泳鎭)	1946. 8. 27. ~ 1952. 5. 8.	5년 9월
3	최영진(崔泳鎭)	1952. 5. 9. ~ 1953. 7. 7.	1년 2월
4	라복용(羅福龍)	1953. 7. 11. ~ 1954. 5. 3.	10월
5	최영진(崔泳鎭)	1954. 5. 7. ~ 1956. 6. 26.	2년 1월
6	심재혁(沈在赫)	1956. 8. 3. ~ 1959. 8. 2.	선거, 3년
7	최영진(崔泳鎭)	1959. 8. 4. ~ 1960. 5. 18.	9월
8	송하동(宋夏東)	1960. 7. 11. ~ 1960. 12. 25.	5월
9	심재혁(沈在赫)	1960. 12. 26. ~ 1961. 6. 19.	6월
10	박창희(朴昌喜)	1961. 6. 30. ~ 1962. 1. 15.	6월
11	이창섭(李昌燮)	1962. 2. 23. ~ 1963. 6. 25.	1년 4월
12	한동희(韓東熙)	1963. 6. 27. ~ 1968. 7. 19.	5년 1월
13	오훈근(吳薰根)	1968. 7. 20. ~ 1971. 9. 24.	3년 2월
14	김진업(金鎭業)	1971. 9. 25. ~ 1979. 4. 30.	7년 5월
초대읍장	김진업(金鎭業)	1979. 5. 1. ~ 1983. 1. 11.	5년 7월-읍장
2	홍순옥(洪淳玉)	1983. 1. 12. ~ 1991. 2. 24.	8년 1월
3	이재승(李載勝)	1991. 2. 25. ~ 1995. 3. 25.	3년 9월
4	이용만(李容萬)	1995. 3. 27. ~ 1996. 2. 29.	96.3.1폐지 4개동분할

면장으로서의 최영진이 2·3대 연임으로 6년 11월간 재임했으며 김진업은 14대 7년 5월, 초대읍장으로 5년 7월로 도합 13년간 오래 재임하였고 2대 읍장 홍순옥은 8년 1월간 재임하였다. 이와 같이 장기간 근무한 자가 있는가 하면 8대 송하동, 9대 심재혁, 10대 박창희 처럼 5~6개월간 재임한 경우도 있다.

## 12. 역삼동

### 1) 기본현황

인구수 : 22,095명(남 11,256명, 여 10,839명)  
 세대수 : 7,214세대  
 면 적 : 52,48km<sup>2</sup>  
 행정구역: 27개통 172반  
 학교수 : 4개교(초등 2개교, 고등1개교, 대학 1개교)  
 기업체수 : 10개 기업체

## 2) 행정여건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으로써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학교 4개교와 삼군사령부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으며,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이고 행정타운 조성으로 용인시의 행정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 3) 역대 동장 명단

초대 갈경선 동장은 3년 2개월간 비교적 오래 근무했고, 2대 이용선 동장은 1년 11개월 재직했다.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	갈경선(葛慶善)	1996. 3. 1. ~ 1999. 4. 28.	3년 2월
2	이용선(李容善)	1999. 4. 29. ~ 2001. 3. 24.	1년 11월
3	이연우(李連雨)	2001. 3. 24. ~ 2001. 12. 23	9월
4	이현수	2001, 12. 24 ~ 현재	

# 13. 유림동

## 1) 기본현황

인구수 : 25,112명(남 12,914명, 여12,198명)  
 세대수 : 8,202세대(농가 3.57%, 비농가 96.43%)  
 면 적 : 13.62km<sup>2</sup>, 시 전체의 2.3%(농경지 3.61%km<sup>2</sup>, 임야 6.52km<sup>2</sup>.)



대지 0.45km<sup>2</sup>, 기타 3.04km<sup>2</sup>)  
 행정구역 : 21개통 77반

## 2) 기타현황

학교수 : 2개교(초등 1개교, 고등 1개교)  
 기업체 : 75개 기업체  
 종교시설 : 7개소  
 자선보호시설 : 1개소

## 3) 행정여건

영동고속도로와 45번 국도가 교차하고 용인톨게이트가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산업기반시설의 발달에 따른 교통 밀집지역이 형성되었으며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아파트·빌라단지가 조성되어 주거지역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 4) 역대 동장 명단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면장	안종운(安種雲)	1996. 3. 1. ~ 1998. 10. 16.	2년 7월
2	조무행(趙武行)	1998. 10. 17. ~ 2000. 2. 29.	1년 4월
3	심재국(沈載國)	2000. 3. 1. ~ 2000. 9. 8.	6월
4	유봉석(柳鳳錫)	2000. 9. 8 ~ 2001. 12. 24.	3월
5	윤의섭	2001. 12. 25 ~ 현재	

# 14. 동부동

## 1) 기본현황

인구수 : 11,971명(남 6,063, 여 5,908)

세대수 : 4,015세대  
면 적 : 23,51km<sup>2</sup>  
행정구역 : 23통 79반

## 2) 기타현황

학교수 : 3개교(초등 2개교, 대학 1개교)  
기업체 : 10개 기업체  
연수원 : 1개소(지적공사 연수원)  
위락시설 : 1개소(와우정사)

## 3) 행정여건

전형적인 도·농 복합지역  
팔당수질보전 특별대책 제2권역  
○ 지명유래

본래 양지군 주서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마남리·마북리·신평리·김량장리와 용인군 수여면 하리 일부가 합쳐져서 생겨났고, 마남·마북의 마자와 신평의 평자를 취해 마평리라 하였고 용인면에 편입, 용인시로 바뀌면서 마평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신점’이라는 지명은 ‘새술막’이라고 부르며 본래 양지군과 용인군을 나누는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는 대로상에 자리하고 있어 새로이 주막이 생겨 ‘새술막’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한자로 옮겨 ‘신점’이라 한다. 석담은 ‘돌무데기’라고 하는데 돌로된 담이란 뜻이며, 이와 같은 석담의 유래는 적석총이 남아 있는데서 비롯된 명칭이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 4) 역대 동장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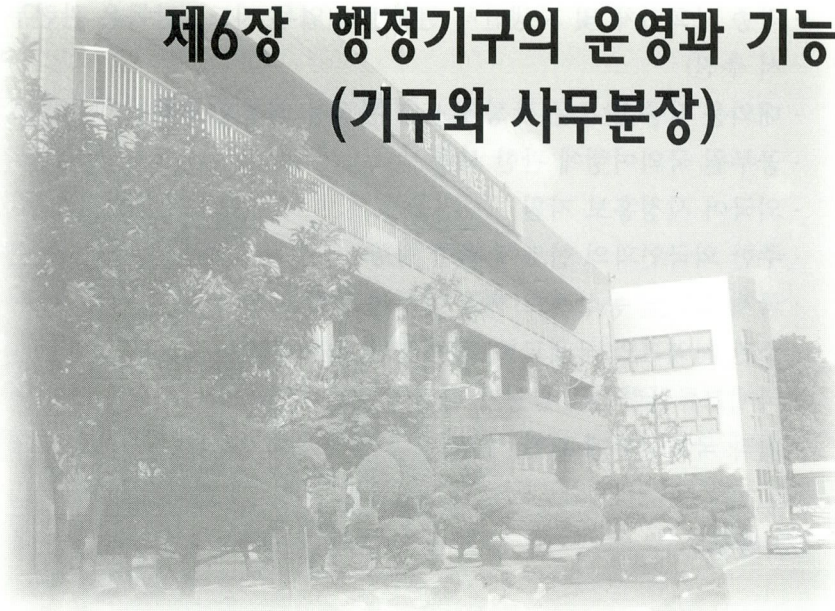
대 수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면장	이만우(李萬雨)	1996. 3. 1. ~ 2000. 2. 29.	3년
2	남정건(南廷建)	2000. 3. 1. ~ 2001. 1. 27.	11월
3	유 경(柳 璟)	2001. 1. 27. ~ 현재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등 4개 동은 시 승격(96. 3. 1)과 더불어 발족해서 일천한 관계로 동장도 3대 내지 4대에 그치고 있다. 중앙동 초대동장 양면은 2년 7월 재임했으며, 역삼동 초대동장 갈경선은 3년 2월, 유림동 초대동장 안종운은 2년 7월이고 동부동도 초대동장 이만우는 3년 등 비교적 장기간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백

## 제6장 행정기구의 운영과 기능 (기구와 사무분장)



### 제1절 본청

#### 1. 각실과

##### 1) 공보실 - 시장 직속

###### (1) 기획홍보

- 시정의 홍보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파, 유선보도매체 관련 보도지원 및 보도내용 분석
- 국·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 반공계몽(자유총연맹, 반공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보도내용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기자실 운영

- 각종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 현황관리(업무 지도·감독은 관련부서 추진)
- 대외용 각종 발표문 작성 활용(기관장용 연설문 포함)
-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 외국어 시정홍보 지원
- 주한 외국인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및 통상정보 제공 업무에 관한 사항
- 소관 지역과의 국제교류, 자매결연 업무 추진
- 국제교류관련 업무담당자 파견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2) 공보

-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시정홍보지, 용인소식, 시보 등)
- 방송실 운영과 등사진 촬영 및 시정뉴스 제작 등 시정 영상물 제작, 시정 주요활동 관련 사진촬영 및 기록유지
- 공고, 고시 및 공포업무에 관한 사항
- 시행정사 기록보전(각종행사, 사건, 주요업무, 일일업무 등)

## 2) 감사담당관실 - 부시장 직속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 산하기관 및 부서에 대한 감사업무와 진정·민원사항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감사분야에서는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기획감사로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과 아울러 민생분야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존중'의 열린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음.

조사분야에서는 공직내부의 비위, 비리 등에 대한 감찰과 부적합한 민원처리 신고사항에 대한 완벽한 조사 처리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1) 감사

- 각종 감사의 계획과 조정
- 자체감사의 실시
- 상부기관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
- 감사사항(비위사항)의 기초관리 및 통계분석
- 감사동향 파악 및 보고
- 민원서류의 검열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 징계의결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2) 조사

- 시 본청 및 산하 공무원에 대한 비위생조사 처리
- 비위생관련 주요 첩보 및 진정민원 사항, 보도사항 조사처리
- 공무원 복무기강에 확립에 관한 사항
- 기동감찰 및 감사정보 수집
-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및 다수인 진정 민원사항 관리
- 망실·훼손 사고처리

## 3) 기획실- 4개 담당관

### (1)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획, 예산 및 법무통계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① 기획

기획분야에서는 시정기획 종합수립, 시의회 관련 업무총괄 및 조정  
에 관한 사항과 시정 주요업무, 공약사업 및 각종 지시사항 등을

처리함으로써 용인시 시책의 기본 방향 설정 및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 시정기획종합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시정연구, 개발 및 제도개선
- 기본운영계획의 종합 및 분기별 심사분석
- 중장기계획 수립 및 통제
- 시정 제반시책의 수립조성 및 확인 평가
- 주요업무 보고회의 운영
- 시정현황 관리
-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 시정 주요업무 심사에 관한 사항
- 행정협의회 운영
- 제안 및 직무창안제도
- 지시사항(대통령, 총리, 지사, 시장) 처리 및 기록관리
- 시의회 관련 업무총괄(운영지원, 업무협의, 의결사항 검토, 제의 요구 등)
- 의회운영상황 및 행정사무조사, 감사 등과 관련한 동향관리
- 21C 발전위원회 운영
- 공약사항 종합관리
-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정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예산분야에서는 예산편성, 집행심사, 지방채 관리,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재정의 운영을 감독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고 있음.

- 예산편성 및 집행심사(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재정의 운영감독
- 지방채, 일반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
- 예산배정계획 및 예산운용
- 예산의 배정 및 통제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투·융자 심사
- 경영수익사업 지도
- 시설관리공단 관리, 감독

### ③ 법무통계

법무통계분야에서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 민사소송을 수행하며 주민행정서비스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함은 물론 각종 통계조사를 통하여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각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심사 및 공포와 법제사무 지도감독
- 무료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관련업무
- 시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수립 및 조정
-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각종 통계의 자료수집, 관리, 발간 및 행정 자료실 운영
- 통계조사, 분석, 공포에 관한 사항
- 행정지도의 제작
- 행정규제개혁 운영위원회 운영
- 규제개혁사무 총괄 관리

## (2) 사회복지여성 담당관실

### ① 사회복지

-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
- 의료보호 업무
- 장애인 복지
- 보훈

② 여성정책

- 요보호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선도보호
- 여성단체활동 지원
-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 여성지위향상 및 여성복지사업 추진

③ 가정복지

-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 증진사업
- 가정의례업소 관리
- 요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④ 청소년

- 청소년 종합대책수립 및 추진
- 청소년 보호 및 선도(상담실운영)
- 유해업소 단속 및 청소년 건전육성
-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 등록 및 지도감독

(3) 문화관광 담당관실

① 교육문화

- 시립도서관 업무협조 및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 문화정책 시행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 용구문화 예술제
-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무형 문화재 발굴
- 문화 및 예술단체 지도감독
- 문화재 지정, 해제 및 보호구역 관리
- 컴퓨터 게임작업 허가 및 지도단속
-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
- 향교 및 전통사찰 관리

- 교육문화 발전육성기금 지원
- 초·중등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고등학교·대학교의 육성지원 및 지역발전 협력에 관한 사항
- 시사편찬 및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 문예회관 활용과 향토사료관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

## ② 관광

-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관광실태 조사 연구 및 관광안내 홍보
-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
- 관광객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종합유원시설업, 기타 유기장업 허가 및 지도 단속

## ③ 체육진흥

- 체육지위행정
- 생활체육 활성화
- 엘리트 체육
- 직장경기부 및 직장체육 운영 및 관리
-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 등록체육시설업 등록 및 변경등록

## (4) 정보통신담당관

### ① 정보기획

- 지방행정정보화 계획수립 및 추진
- 인터넷 운영 지도
-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 정보화·전산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웹서버 운영관리

② 전산개발

-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
-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 행정업무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
-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
-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③ 정보통신

- 지방행정통신업무 및 추진계획
- 종합정보통신망 구축계획 및 추진
- 초고속종합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
- 인터넷 통신망 운영 관리
-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관리
- FAX기기운영 및 행정교환 업무

4) 행정국

(1) 행정과

① 총무

- 공인 및 문서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 문서 평가위원회 운영
- 각종 의전에 관한 사항
- 회의 및 청내행사
- 공무원 취미클럽 운영 등 사기양양 대책
- 공무원 당직명령 및 청사사무환경 개선
-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 공무원 직장교육 및 민간시설 위탁교육 등
- 행정사무관리 및 사무혁신운동 운영
- 적십자회비 관련 지원업무
- 종합발간실 운영

- 청사 자체방호 및 직장예비군, 직장민방위대 운영
- 기관장 인계·인수 및 부재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타실국 업무소관이 아닌 사항

## ② 시정

-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 리·통 행정 및 시범 읍·면·동 지도육성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협조
- 지역상황 관리 및 주민참여제도의 운영(동향, 반상회, 주민대화)
- 행정구역관리
- 읍·면·동 폐지(기능전화)와 관련된 업무
-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 각종위원회 정비 및 현황관리
- 각종시책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각종 자격시험(면허) 관리
- 북한 이탈주민에 관한 사항

## ③ 인사

- 공무원 인사관리(인명, 징계, 소청보수, 시험)
- 공무원의 후생관리(연금, 의료보험 공제회비)
-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
- 도·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 사무위임 및 전경에 관한 사항
- 일반 및 공무원 포상
- 공무원증·비밀취급 인가
- 지방이양사무 발굴
- 인사제도개선 및 충원계획
- 공무원 평정 및 조직진단
- 사회진흥일반

-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 자연보호, 자원봉사, 국토대청결운동, 새마을일반

## (2) 회계과

### ① 경리

-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 원천징수불입 및 공제금 수납
- 산하기관의 일상경비 교부
- 국비 및 도비 일상경비 출납

### ② 계약 관리

- 공사, 물품구매, 제조 및 용역에 관한 계약업무
- 물품의 정수관리, 재물조사와 물품 수급관리
- 물품의 출납, 보관 및 처분
- 관급자재 조달
- 정기 하자검사계획 수립

### ③ 재산 관리

-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 부소관 국유재산관리
- 도유잡종재산(폐천부지 제외)의 위임 관리
-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시유잡종재산(임야제외) 및 소관행정재산의 관리

### ④ 청사 관리

- 청사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 청사건축물 신·증축 및 유지관리
- 관사관리
- 본청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사무

### (3) 시민과

#### ① 주민등록

- 주민등록 관리
- 재증명, FAX민원, 전화민원, 재택민원
- 여권발급신청 접수
- 외국인 관리
- 행정사 관리
- 인감일반

#### ② 호적

- 호적신고 접수
- 호적 등·초본 발급
- 호적부 기재정리(편제 및 말소)
- 직권정정 및 기재허가

#### ③ 민원처리

- 일반민원사무 및 생활불편민원 접수
- 민원처리운영 및 민원행정쇄신
- 민원상담창구 운영
-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 기동처리반 운영

#### ④ 민방위

- 민방위 교육, 훈련실시
- 지역·직장민방위대 편성관리
- 인력동원 자원관리
- 주민자율방범대 및 주민신고망 관리
- 기타 민방위관련 업무

#### ⑤ 병무

- 현역, 공익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입영관
- 병력동원 및 전시업무 소집
- 병적부 관리
- 생계사유 병역감면 업무
- 공익근무요원 관리
- 기타 병무관련 업무

#### (4) 주민자치과

##### ① 주민자치

-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② 민원처리

- 민원서류의 수발 및 통제
- 민원 1회 방문처리 관련 업무
- 민원 1회 방문처리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 및 점검
- 민원 후견인제 운영
- 민원불편신고 관련 업무
- 민원행정채신에 관한 사무

##### ③ 민간협력

- 군민운동종합계획 수립시행
- 자원봉사활동 관련업무 및 관련단체 지원
- 국민운동 단체활동 지원
- 새마을 시설물 관리
- 새마을에 관한 사항(특별지원사업, 국민교육 단체활동 지원, 문고지원, 금고지도, 지도자관리 및 지도)
-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추진(포괄사업)



## 5) 경제산업국

### (1) 지역경제과

#### ① 지역경제

- 지역경제 활성화
- 소비자보호
- 물가, 대형점 개설, 시장관리
- 상거래 질서, 방문판매업, 계량기 검사
- 담배 소매인 지정

#### ② 공업행정

- 창업민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 창업승인, 중소기업지원, 벤처 및 공장등록
- 해외 통상 업무, 공장설립승인, 입지기준화
- 규모미만 공장 등록
- 공장등록 관리

#### ③ 직업안정

- 노정생정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근로자 복지와 관련한 사항
-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 기능장려 및 직업훈련 지원 업무
- 직업소개소 관리
- 노동조합설립 신고 및 관리
- 직업안정 및 노사안정시책
- 실업자 종합대책수립 및 추진(상황실 운영)
- 실업자 관리
- 공공근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④ 에너지 관리

- 도시가스 관리

- 에너지(가스, 석유), 건설업(가스난방)
- 승강기 행정관리
- 석유판매업, 연탄수급, 광업 관련 업무

## (2) 시세과

### ① 세청

- 세무행정의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시세 조례에 관한 사항
- 지방세목표 책정 및 전망분석
- 시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시세행정 소송관리
- 시세과 예산, 서무
- 농지세 필요경비율 조사결정
- 자동차세 부과, 감액
- 도축세 과세표준액 조사결정
- 사업소세 부과 및 자료정리
- 시세장세표 작성 및 보고
- 주행세 징수 결정
- 주민세 부과 및 감액
- 주민세 과오납환부 및 충당
- 담배소비세 징수결정

### ② 재산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의신청심사청구 접수처
- 부동산, 기타물건 과표조정
-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
- 시세심의위원회 운영
- 재산세 징수(감액) 결정
- 종합토지세 징수(감액) 결정

③ 시세징수

- 시세 공매처분
- 시세 징수유예
- 소세범처벌 및 위반사건처리
- 금융기관제재
- 지방세 제·증명 발급
- 관허사업 제한
- 시세(중) 가산금 조정징수 및 체납고지서 발부
- 차량 압류 및 말소
- 부동산, 예금, 기타채권 압류 및 말소
- 지방세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④ 자금관리

- 국비세입(보조금) 징수 및 결의
- 세외수입 목표책정 및 부과자료 조사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과오납금 환부 총당
- 자금배정 관리
- 채권에 관한 사무
-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 수입증지(표, 시) 관리
- 시금고 지도감독 및 검사
- 세외수입 징수 및 감면 결의
- 수입금 결산

(3) 도세과

① 취득세

- 도세징수목표 및 전망분석
- 취·등록세 과오납환부 및 총당
- 지목변경, 개인 취·등록세 자진신고
- 개인 취·등록세 감면

- 등기필 통지서 대사
- 취·등록세 미납분 부과
- 골프회원권 부과
- 세표관리
- 운전교습용차량 부과
- 중과대상차량 구조변경 징수결정
- 주유저장시설 징수결정
- 건축물 징수결정
- 건설계 부과
- 취·등록세 자진신고 및 징수결정
- 자동차 취·등록세 자납신고

② 법인

- 법인도세 이의신청 심사청구접수 처리
- 법인지목변경 부과
- 법인자진신고 미납분 부과
- 법인 도세부과 및 비과세 감면
- 법인 도세과오납환부 및 총당
- 면허세 부과
- 지역개발세 부과

③ 도세징수

- 징수유예
- 과오납 환부
- 체납세 징수 독려
- 결손처분
- 금융제재
- 교부청구 및 경매 배당금 수령
- 채권압류(부동산 및 기타)
- 카드납부 관리

④ 세무조사

- 법인세무조사
- 음성세원 발굴조사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
-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처리
- 조세법처리 및 위반사건 처리
- 사치성 재산 조사
- 세무조사 과세예고 및 징수(감액) 결정
-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4) 농 · 축산과

① 농업정책

- 농정심의회 및 농업발전계획
- 농업인 후계자 육성 사업
- 귀농, 농가도우미 사업
- 산업기능요원 관리
- 양정일반(추곡수매 및 정부약곡매출)
- 관광농원 육성사업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지원 사업
- 예산, 서무, 문서수발 및 관리

② 농업경영

- 농장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 화훼산업 육성사업
- 화훼, 채소, 수도작, 특작
- 농작물 재해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및 직접 지불제

③ 농지관리

- 농지전용 허가

- 토지이용 실태조사
- 농지원부 관리
- 직접지불제
- 농업진흥지역관리 및 이용계획
- 농지불법 단속
-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 유통지원

- 농산물직거래 추진사업
-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 유통구조 개선사업
- 축산물 유통일반

⑤ 축산

- 조사료
- 종축, 가축
- 축산자금 지원사업
- 축산단지 조성
- 수산

⑥ 가축위생

- 가축질병예찰
- 가축방역
- 축산분뇨처리 사업
- 축산물 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

(5) 녹지과

① 식수

- 조림, 육림, 벌채
- 영림계획

- 농특회계 용자
- 보전임지 전용허가
- 보안림 관리

② 보호

- 산림형질변경 허가
- 공유임야 관리
- 산림 병해충 방제
- 산불 예방

③ 공원녹지

- 공원조성 및 관리
- 가로수 관리
- 보호수 관리

6) 도시국

(1) 도시계획과

① 도시계획

- 국 업무 기획, 조정
- 과 업무 기획, 조정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도시기본계획 수립
- 도시계획(재정비) 수립
- 도시통계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② 시설계획

- 국토이용계획
- 수도권 정비 계획

-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
- 공공시설 입지 승인
- 개발행위 신고

③ 도시정비

-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허가
- 토지분할 허가
-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 개발제한구역 관리
- 단위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2) 도시개발과

① 도시개발

- 택지개발 사업
- 도시개발 구역관리
- 도시계획 도로사업(소로)
- 구획정리기구 관리
- 행정타운

② 기반조성

- 기반조성 업무
-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
-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 농지개량계 관리
- 관정양수기 관리
- 경지정리 사업
- 관개시설 개보수
- 농업기반 및 농로, 마을진입로 사업
- 농림수산부 국유재산 관리



- 환지 청산금 관리
- 농업용수원 개발(저수지, 관광)

### ③ 광고물 관리

- 과내 광고물 관리일반
- 옥외 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
- 옥외 광고물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 국민체육진흥 옥외광고물 관리
- 현수막 걸이대 및 벽보 유지관리 및 보수

## (3) 건축과

### ① 건축기획

- 건축행정 종합계획
- 농민 주택에 관한 종합조사 계획
-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주택용자금 관리
- 임대 사업자 관리
- 주택사업 특별회계

### ② 공동주택

- 공동주택사업 승인
- 주택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관리
-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 주택건설 촉진법 운용에 관한 사항

### ③ 일반주택

- 건축허가(공장, 제조장, 공장의 부족건축물 제외) 및 용도변경신청
- 건축협약에 관한 사항

- 건축신고(소규모 건축신고, 증축신고, 착공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 건축허가 통계, 건축물 착공통계
- 건축법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 건축조례 제·개정 및 운영
- 규제정비 및 허가제한 사항

#### ④ 건축지도

- 건축허가(공장, 제조장, 공장의 부속건축물 한합)
- 건축사 및 건설업자 지도감독
- 건축 관련 재해 위험구역 관리
- 주택자재 생산업 위험구역 관리
-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사무 대행업무 지도점검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및 신고
-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음성 나환자촌 건축물 관리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 7) 건설환경국

#### (1) 건설과

##### ① 건설행정

- 국유재산관리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대여업, 주기장 등
- 공채채취업 등록신청
- 용지보상

## ② 도로

- 도로공사

## ③ 도로관리

- 도로 유지 관리 및 도로점용허가
- 노점상 단속
- 가로등 설치

## ④ 방재

- 재해 및 재난 업무
- 소하천 및 준용하천 관리

## (2) 교통행정과

## ① 교통기획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도시교통정비 계획 수립
- 교통영향평가 및 관리
-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 도시교통대책 및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
- 교통애로구간 조사 및 관리
- 택시운송사업 면허 및 양도양수 인가
- 택시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책정
- 모범택시 운행계획 및 인가
- 수송동원
- 버스운송사업 면허 및 변경허가
- 버스노선 관리
-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 여객자동차 터미널 면허
- 화물터미널 면허
- 마을버스 면허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 버스, 택시 요금인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

## ② 교통지도

- 불편 주정차 단속
- 자동차정비업, 폐차업, 매매업 허가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 자동차대여 사업 등록
- 무단방치차량 관리
- 교통안전관리자 및 자동차정비관리자 관리
-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
- 불법 정비차량 행정지도 및 정비명령
-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창고업 신고
- 특별수송 대책
-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 자가용부제 운행

## ③ 교통시설

- 전철(경전철) 사업 추진
- 교통체제 개선 사업
- 공영주차장 설치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 삭도, 궤도면허
- 항공장애 등 설치

## (3) 환경과

### ① 환경관리

- 환경분야 정책, 기획업무

- 환경 관련 단체 대외적 업무
- 수변구역 업무 및 특별대책지역 관리
- 수질개선 특별회계
-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면허
- 지방의제21 추진
-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 업무
- 한강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전반
- 자연환경 보전 업무
- 기타 수질개선 사업
- 환경개선 부담금 전반

## ② 대기관리

- 대기보존 종합계획
- 대기관련 민원
- 대기배출시설 지도, 점검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지도, 점검
- 휘발성유기 화학물질 관리
-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 관리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 특정공사 사전신고
- 자동차 배출가스 행정처분
- 대치측정소 관리업무
-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

## ③ 환경지도

- 128 환경민원
- TMS 관리
- 수질기본 배출부과금 부과
- 폐수, 대기, 소음, 진동 등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특별대책지역, 일반지역)
- 유독물 등록



- 행정처분(특별대책지역, 일반지역)
- 토양오염 유발업소 신고
- 오·폐수배출시설 지도, 점검
- 토양오염 지도, 점검

#### ④ 환경시설

-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 수립
- 소각시설 위탁관리 및 시설공사 추진
- 반입폐기물 수수료 조정, 부과
- 쓰레기 위생매립장 매립, 복토
- 분뇨처리시설 설치추진
- 축산, 분뇨폐수 처리시설 설치추진

#### ⑤ 폐기물 관리

-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소 및 배출업소 지도, 단속
- 청소용역 대행계약
- 청소구역 조정관리
- 규격봉투제작 및 관리
- 재활용센터 관리
- 생활폐기물관련 민원 및 투기단속
- 폐기물관련 인·허가(처리업허가, 재활용신고, 시설설치 신고)
-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소 및 배출업소 지도, 단속
-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과태료 부과
- 음식물 감량화기기 설치신고 및 감량화사업장 지도, 점검
- 적환장 관리

#### ⑥ 오수관리

- 복합민원 사무
-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 및 오염도 검사
- 팔당호 상수원 특별종합대책 관련업무
-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

-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및 준공
-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및 관리
- 분뇨처리 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 등록 및 관리

#### (4) 상하수도과

##### ① 관리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계약지출, 일상경비 등)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 상수도사업 재산평가, 취득, 처분 및 관리
- 급수공사 대행업자등록 지정 및 지도감독
- 상하수도 검침업무 및 상하수도 요금부과징수(전산 입·출)
- 계량기철거, 부착 및 수리업무
- 부정급수 단속 및 처분, 정수처분
- 급수민원처리(명의변경, 가구분할, 휴전, 개전, 이의신청)
- 서무, 보안업무
- 상수도 통계관련 업무
- 지하수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② 공무

- 상수도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시행
-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급수구역조정 포함)
- 송·배수관 부설공사계획 수립시행
-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 소화전 관련업무
- 용수구 설치 관련
- 광역상수도 용수 수급 계획
- 시설확장에 따른 용지보상 업무
- 전용상수도 인가 및 관리

③ 급수시설

- 배수지 및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 가압장(유·무인) 신·증설 및 유지관리
- 배수지 정수공급 관리
- 상수도시설물 경계방호 및 보안업무
- 저수조 청소업 신고 및 저수조 관리
- 누수복구 사업 시행
- 노후배수관 교체, 갱생공사계획 수립 시행
- 유수율 향상 및 누수방지사업 추진
- 급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 급수공급 및 단수에 관한 사항
- 급수공사 및 급수장치에 관한 사항
- 급수전 및 급수관 관리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 중수도 관리
- 원수와 정수 수질검사 및 시험
- 간이상수도 종합계획 수립시행
- 먹는물 공동시설 설치(약수터) 관리

④ 하수시설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시행
-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및 시행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 하수도대행업자등록 지장 및 지도감독
- 오·우수분류 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배수설비 설치신고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 음식물감량화 기기 설치신고 및 감량화 사업장 지도, 점검
- 적환장 관리



## 제2절 직속기관

### 1. 보건소

#### 1) 보건위생과

##### (1) 보건행정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 보건소의 예산운영 및 일상경비 관리
-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 총괄
-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의 복무에 관한 사항
- 공중보건 의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각종 보건통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 소관 총무계획 및 동원업무

##### (2) 예방의약

- 법정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의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 급·만성 전염병환자 관리
- 음용수(공동정호) 소독관리
- 위생해충 구제사업
- 기생충 관리
-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 나병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나정착촌)
- 소독업 허가 및 지도
- 병원 감염관리 및 의료서비스 개선
-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처리 및 지도단속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관리

- 무허가 및 무면허 부정의약품자 단속 고발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 (3) 위생관리

- 식품 및 공중위생 종합계획 수립
-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업무
- 이·미용사 조리면허 발급에 관한 업무

### (4) 위생지도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관련 업무
- 식품위생 유해업소 정화에 관한 업무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의 관련 업무
- 식품 및 공중위생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업무
- 음식문화개선 추진 업무
-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 학교주변의 공중위생업소 정화에 관한 업무

## 2) 의료지원과

### (1) 가족보건

- 각종진단서 및 제·증명발급
-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 소관 의료장비 관리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계획수립
- 임신부 산전 산후관리 및 응급처리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 부인과 질병에 관한 사항

- 성교육 및 성상담에 관한 사항
- 과 사무에 관한 사항

## (2) 진료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일반, 치과, 한방) 및 청구
- 결핵관리 사업
- 성병환자 관리

## (3) 검사

-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조사 및 실험연구 사업
- 방사선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건강진단에 필요한 검사
- 민간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 기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4) 건강증진

-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업(구강, 영양개선, 농민보건, 방문보건 등)
- 정신보건 사업(정신보건시설관리)
- 장애인 재활사업
-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의료지원봉사에 관한 업무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 2. 농업기술센터

## 1) 사회지도과

### (1) 지도기획

- 농촌지도사업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평가
- 소재 서무, 인사, 예산, 회계, 공인 관리
- 농촌지도공무원 자질향상 및 지도인력 관리
- 물품관리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 지도
- 농촌진흥시책 및 업적홍보
- 농업기술 인쇄물 교재 발간 및 활용
- 농업방송 신문보도

### (2) 경영상담

- 농업경영 개선지도
- 농·축산물 소득조사
- 농업회사 법인 운영실태조사 분석
- 농업진흥 전산활용 업무
-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
- 농업기술 경영상담
- 농림사업 추진

### (3) 인력육성

- 4-H 조직육성
- 농업인 육성지도
- 농촌지도사, 농업전문경영인, 명예지도사 육성
- 쌀 전업농 육성 지도
-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한국농업전문학교 육성지도
- 영농기계화 지도 및 훈련
- 농기계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촌여성 소득사업
- 가정경영 및 합리적 소비 생활지도
-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
- 노인생활지도 및 가족관계 지도
- 생활개선회 조직육성
- 농촌생활문화 전승 추진
- 농촌마을 환경사업 추진
-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 우리농산물 소비확대 및 농업인 건강증진사업
-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정보화 추진

## 2) 기술지도과

### (1) 식량작물

- 벼농사 재배기술 및 시범사업지도
- 밭농사 재배기술 및 시범사업지도
-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실시
- 병충해 예찰답 운영 및 기상관측
- 식량작물 생력화 기술지도

### (2) 경제작물

- 시설원예재배 기술지도
- 채소·과수·화훼·특용작물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육성
- 소득개발 특화사업 기술지도
- 산채특재배 기술지도
- 소득개발 특화사업 지도
- 경제작물지도에 관한 사항

- 원예, 특작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 (3) 축산

- 우량가축 보급지도
- 가축사양 관리 기술지도
- 초지조성 및 방역 기술지도
- 가축위생 및 방역 기술지도
- 특수가축 사육 기술지도

### (4) 기술개발

- 현장애로 농업인 기술개발
- 현장애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개발
-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현장애로 기술개발
- 종합검정실 운영
- 새로운 품종에 대한 연락 시험
- 과학영농시설의 운영
- 지역특화작목의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업환경 개선대책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 기타기술개발 및 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 3. 환경사업소

- 환경사업소에는 관리담당, 시설운영 1담당, 시설운영 2담당의 3개팀이 있음
- 하수 및 분뇨·축산폐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 하수 및 분뇨·축산폐수처리 공정의 각종실험
- 방류수의 수질관리
- 하수 및 분뇨·축산폐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 전기·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 기타 하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 4. 시립도서관

-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집 및 정리
-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
-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협조
-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
-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5.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등록(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저당권 설정
- 자가용화물차사용(신규, 변경, 폐지)
- 자동차 구조변경신고처리
- 자동차관계 제증명 발급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촉구확인 및 안내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법 위반자 고발
- 자동차 관련 타 기관 업무협조
- 자동차 압류 및 해제

이

백



## 제7장 사법, 치안, 소방



### 제1절 사법

#### 1. 용인시 사법제도 연혁

##### 1) 삼국시대의 사법

삼국시대의 용인은 무려 500여년간 백제의 통치 영역이었기 때문에 백제의 율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고구려 통치 하에서는 율령체제가 확립되어 그 당시에는 각 성(城)의 장인 처려근지(處閭近支)가 율령체계를 중심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중대범 일 경우 옥살(褥薩)에서 처리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라시대에는 진흥왕대에 이미 율령체제가 거의 완비되었다.

이상과 같은 삼국시대의 전제국가에서 사법제도의 성격은 개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군주의 절대적 권력을 옹호하며 지배체제를 유지·존속시켜 현 체제를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 2) 고려시대

고려 초에는 광주에 예속되어 광주목사에 의하여 사법기능이 수행되었으나 명종대에 감무를 두어 현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균현재 안에서 사법의 기능도 촌주의 자의적인 전란에서 벗어나 공정한 국가체제 안에서 재판권을 받게되어 용인도 중세사회의 발전에 참여하게 된다.

## 3)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현령이 파견되어 일차적 사법기능을 수행하였고 경기관찰사에 의해 2차적 심판이 이루어졌다.

## 4) 한말

1894년 갑오개혁시 전면적으로 개편,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여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얻어냈다. 그러나 실체는 고등재판소와 한성재판소 뿐이며 순회재판소는 한번도 개설되지 못하였고 지방재판소는 각도의 감영(監營) 등에, 개항장(開港場)재판소는 감리서(監理署)에 각각 합설했으며, 관찰사·목사·감리 등이 판사(判事)를 겸임했고 전임을 두지 못했다.

한말의 사법제도는 사법관, 경찰관 이외는 범인을 체포할 수 없게 되었고 재판소도 1심과 2심 재판소가 처음 열리게 되었다.

1896년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의 결의안에 의하여 1907년 대심원, 향도원, 지방재판소 등 3심제를 채택하였으나 일제의 침략으로 그것은 명목상으로 존재했을 뿐이었다. 용인은 1895년에 현(縣)에서 군(郡)으로 승격되어 군수가 파견되었다. 그리하여 용인군수는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가지고 소송을 처리하였다. 그런데 군수의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고, 또 지방재판소에

불복이 있으면 고등재판소에 상소하였다.

1904년 경기재판소가 수원에 설치됨에 따라 행정권자의 재판에서 벗어나 독립된 사법부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되어 지배층의 사사로운 감정이 많이 삽입된 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 5) 일제하 용인지방의 사법

일제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한국민에 대한 지배와 수탈을 위해 사법제도를 고쳐나가 사법사무에 대한 본격적인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사법기관은 초심재판소인 한성재판소 및 종심재판소인 평리원(平理院) 외에는 지방행정청에 병치(併置)되어 재판관은 대개 지방행정관이 겸임하였던 관계로 1907년에 사법사무를 행정사무에서 분리시켜 일본의 제도를 모방해서 대심원(大審院), 공소원(控訴院), 지방재판소 구재판소의 명칭을 습용하여 4계급 3심제의 재판소를 개설하고 검사국을 병치하여 일본인을 임명하였다.

그 후 1912년에 지방법원, 복심법원 및 고등법원의 3계급 3심제로 고치고 1944년 2월 종전 임박해서 재판소령 전시특혜로써 2심제가 채택된 채 해방을 맞았다. 1910년 10월 1일자로 총독부 재판소로써 사무를 개시하였는데, 당시 용인에서는 수원구 재판소의 관할 군으로 독립된 재판소는 갖고 있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사법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이 시기의 사법기구는 일제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제도였다. 수많은 독립운동가 및 애국지사들이 일제사법기구의 재판을 받고 투옥된 것이 이를 입증하였다.

(자료: 용인구지편찬위원회 1990 《용인구》 281~289쪽)

## 2. 용인시 법원

### 1) 연혁

년도	구분	내역	비고
1977. 1. 1.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용인순회심판소	대법원 규칙 제619호(73.12.1)에 의거 순회심판소 개소
1979. 9. 1.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용인순회심판소	명칭변경
1991. 7. 1.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용인순회심판소	현 청사준공 및 이전
1995. 9. 1.		수원지방법원 용인군법원	개원
1996. 3. 1.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명칭변경

1977년 1월 1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용인순회 심판소로 개소한 후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순회심판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1년 7월 1일 현 청사로 이전되고 1995년 8월 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군법원에서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2) 관내 개요

(1) 관할구역: 경기도 용인시일원

(2) 관내현황

- 면적: 592km<sup>2</sup>
- 인구: 395,005명
- 특징: 신도시개발로 유입인구 급격한 증가

(3) 구역내

- 1출장소: 수지출장소
- 2개읍: 기흥읍, 구성읍
- 7개면: 모현면, 포곡면, 원삼면, 이동면, 남사면, 백암면, 양지면

- 10개동: 고림동, 김량장동, 남동, 마평동, 삼가동, 역북동, 유방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 3) 인원 및 업무 내용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판사	전총환	시 법원판사
법원주사	최병희	재판참여, 사건 및 문건접수, 공탁 및 행정업무 총괄
법원서기	최금수	서무 보존 조정 및 화해 공탁접수 전산입력보조
법정경위	노무신	소액참여보조
운전원	한기화	지급명령, 협의이혼, 운전
서무원	예선해	서무보조, 신청보조, 타자

### 4) 민사사건 현황

#### (1) 소액사건 처리현황

년 도	구 분	전년미제	접 수	처 리	미 제	비 고
2000		543	2,132	2,263	407	
2001		407	1,391	1,376	422	

월평균 198건 접수, 일평균 8건 매주 재판(신건 45건)

#### (2) 조정사건 처리 현황

년 도	구 분	전년미제		접 수		접 수		처 리		비 고
		신청	회부	신청	회부	신청	회부	신청	회부	
2000		6	9	17	107	21	110	2	6	
2001		2	6	16	32	9	36	9	2	

#### (3) 제소 전 화해사건 처리현황

년 도	구 분	전년대비	접 수	처 리	미 제	비 고
2000		3	15	17	1	
2001		1	10	9	2	

(4) 독촉사건 처리현황

년도 \ 구분	전년대비	접수	처리	미제	비고
2000	0	2,804	2,804	0	
2001	0	1,633	1,633	0	

(5) 신청사건 처리현황(가압류 사건)

년도 \ 구분	전년대비	접수	처리	미제	비고
2000	0	1,956	1,956	0	
2001	0	916	916	0	

월평균 131건 접수(일평균 5.2건)

(6) 협의이혼사건 처리 현황

년도 \ 구분	전년대비	접수	처리	미제	비고
2000	0	170	170	0	
2001	0	134	134	0	26% 증가

협의이혼사건이 2001. 7.31 현재 26%나 증가함은 주목할 일임.

(7) 공탁사건 처리현황

(단위 : 원)

년도 \ 구분	전년미출금액	접수	출급회수	미출금액	비고
2000	10,078,069,616	6,624,128,560(239건)	10,302,702,810(266건)	6,399,495,366	
2001	6,339,495,366	372,044,354(76건)	827,990,977(48건)	5,883,548,743	

(8) 즉경사건 처리현황

년도 \ 구분	전년대비	접수	처리	미제	비고
2000	0	2,776	2,776	0	
2001	0	2,690	2,690	0	

(자료 : 용인시 법원)

### 3.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

#### 1) 연혁

1914년 5월 1일에 경성지방법원 용인출장소로 개칭하여 용인군 12개면을 관할하였고 1931년 11월 1일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에 청사를 준공하였다. 1947년 1월 1일 이후 서울지방법원 관할이었던 것이 1979년에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1991년 7월 1일 현 청사로 준공되었으며 이전되어 시무 중이다.

직 급	명 칭	성 명
1914. 5. 1	경성지방법원 용인출장소	개칭(용인군 12개면)
1931. 11. 1	경성지방법원 용인출장소	청사 준공(김량장리300-9)
1947. 1. 1	서울지방심리원 김량장등기소	명칭변경
1948. 6. 1	서울지방법원 김량장등기소	명칭변경
1961. 9. 1	서울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명칭변경
1963. 7. 1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명칭변경
1975. 1. 16	서울지방법원 용인등기소	구 청사 준공

#### 2) 관할

- 면적: 용인시 일원 592km<sup>2</sup>
- 인구: 418,800명(2001. 7. 31 기준)
- 행정구역: 10개동 3개읍 7개면
- 10개동: 고림동, 김량장동, 남동, 마평동, 삼가동, 역북동, 유방동
- 7개면: 모현면, 포곡면, 양지면, 백암면, 원삼면, 이동면, 남사면
- 2개읍: 기흥읍, 구성읍
- 1출장소: 수지출장소

### 3) 등기사건 연도별 대비

#### (1) 등기 신청 사건

년 도	구 분	등기 신청건수 (부동산, 상업 등)	전 년 대 비	
			증감	증감율(%)
1999		127,803	33,280	35.2
2000		120,729	-7,074	-5.5
2000. 1. 1 ~ 2000. 7. 31		69,025	15,283	4.5
2001. 1. 1 ~ 2000. 7. 31		84,308		

#### (2) 등기부 등·초본(열람 등) 발급

년 도	구 분	통 수				전 년 대 비	
		등·초본	열람	인감	계	증감	증감율(%)
1999		777,910	11,656	78,798	868,364	113,861	15
2000		664,249	10,367	70,810	745,426	-122,938	-14.2
2000. 1. 1 ~ 2000. 7. 31		421,917	6,608	42,176	470,701	27,542	5.9
2001. 1. 1 ~ 2000. 7. 31		448,134	6,216	43,893	498,243		

#### (3) 1인당 일일평균 처리건수

구분	총건수	일일처리건수	1인당 처리건수
부동산 등기	81,799	454	151
상업 등기	2,509	14	14
등·초본 열람등	215,056	1,195	150

(자료: 수원시 지방법원 용인등기소)



## 제2절 치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방면에 걸쳐 불안정, 침체, 복잡화에 따라 치안수요는 점차 증가추세에 놓여 있다.

### 1. 용인경찰서 및 파출소 현황

#### 1) 본서

(단위: 평, 98. 8. 3 현재)

구분	건물 계	본관	부속건물				관사		비고
			민원실	응의관	사처관	차고	서장	과장	
대지	1,803	876		149	88	147	326	217	
건평	671	343	48	46	45	47	28	114	

- 본관: 183평(2층) 68년 12월 신축
- 강당: 160평 84년 12월 신축, 52평 89년 증축

#### 2) 파출소

구분	대지	건평	건축일자	비고
파출소 계	3,295	836		
중앙	151	40	83. 9	
동부	94	45	88. 12	
신갈	65	50	95. 8	
고매	150	45	90. 12	
백암	334	45	97. 12	
수지	263	35	80. 12	
남사	147	45	93. 7	
구성	256	45	96. 7	
원삼	135	35	81. 8	
이동	124	45	96. 12	
모현	326	42	85. 7	
포곡	402	45	92. 10	
양지	203	45	89. 12	

파출소 \ 구분	대지	건평	건축일자	비고
토월	177	50	97. 12	
방순대	562	224	91. 6	

※ 벽지 숙사 4동, 동당 10평 = 40평(포곡, 원삼, 남사, 수지)  
 무기고 3동 13평(양지, 모현, 수지)

### 3) 연혁

연도별	연혁 내용
1920. 4. 10	웅인헌병대 파견대에서 웅인경찰서로 승격
1946. 6. 18	제일관구 제17구경찰서로 개칭
1968. 12. 28	현청사(구관) 신축 대지 1,477평 건평 183평(2층 스투브)
1978. 12. 1	라급에서 3등급서로 조정
1983. 4. 16	경기 제3기동중대 웅인서배속
1985. 4. 10	강당신축 건평 : 160평(2층 스투브)
1986. 8. 1	대공과 신설
1987. 12. 21	대공3계 신설
1988. 12. 1	고매파견소 개소
1989. 1. 18	동부파출소 신설
1989. 12.15	고매지서 신설

### 4) 역대 서장 명단

대수	계급	성명	출신도	재 임 기 간	비고
1	경부	이우중		1945. 10. 21 ~ 11. 20	
2	경부	최진철		1945. 11. 20 ~ 12. 1	
3	경감	이중호		1945. 12. 1 ~ 1948. 4. 20	
4	경감	이양훈		1948. 4. 20 ~ 1949. 5. 10	
5	경감	김기도		1949. 5. 11 ~ 1950. 8. 1	

대수	계급	성명	출신도	재 임 기 간	비고
6	경감	오창순		1950. 8. 2 ~ 1951. 11. 29	
7	경감	권영준		1951. 11. 29 ~ 1953. 1. 1	
8	경감	임창식		1953. 1. 1 ~ 1953. 11. 6	
9	경감	최중옥		1953. 11. 7 ~ 1954. 4. 10	
10	경감	김계주		1954. 4. 11 ~ 1955. 10. 13	
11	경감	이은행	경기	1955. 4. 12 ~ 1956. 8. 29	
12	경감	이정겸	평남	1956. 8. 29 ~ 1957. 2. 4	
13	경감	이택선	경기	1957. 2. 4 ~ 1958. 9. 13	
14	경감	탁홍진	함북	1958. 9. 13 ~ 1959. 5. 13	
15	경감	김인진	경기	1959. 5. 13 ~ 1959. 9. 18	
16	경감	이만행	경기	1959. 9. 18 ~ 1960. 5. 12	
17	경감	김두용	경기	1960. 5. 12 ~ 1960. 5. 30	
18	경감	김조행	평남	1960. 5. 30 ~ 1960. 10. 14	
19	경감	정두왕	평남	1960. 10. 14 ~ 1961. 6. 16	
20	경감	박창진	경기	1961. 6. 16 ~ 1961. 9. 26	
21	경감	김영두	경기	1961. 9. 26 ~ 1962. 12. 26	
22	경감	윤경운	경기	1962. 12. 26 ~ 1964. 10. 1	
23	경감	김문준	평북	1964. 10. 1 ~ 1966. 3. 15	
24	경감	김용기	강원	1966. 3. 15 ~ 1967. 9. 22	
25	경감	지의택	충북	1967. 9. 22 ~ 1968. 7. 1	
26	경감	윤상중	충남	1968. 7. 1 ~ 1971. 1. 18	
27	경정	이재성	평남	1971. 3. 2 ~ 1971. 8. 18	
28	총경	김한윤	함북	1971. 8. 18 ~ 1973. 6. 27	
29	총경	정한교	경북	1973. 6. 27 ~ 1975. 6. 28	
30	총경	윤주익	경기	1975. 6. 28 ~ 1976. 4. 10	
31	총경	정만섭	전북	1976. 4. 10 ~ 1977. 8. 13	
32	총경	이상점	평북	1977. 8. 13 ~ 1979. 2. 20	
33	총경	이종석	제주도	1979. 2. 20 ~ 1980. 7. 22	
34	총경	김정환	서울	1980. 7. 22 ~ 1982. 6. 2	
35	총경	조성빈	경남	1982. 6. 3 ~ 1983. 12. 11	
36	총경	이강만	경기	1983. 12. 11 ~ 1986. 1. 28	
37	총경	김원석	전남	1986. 1. 28 ~ 1987. 1. 15	
38	총경	서영호	충남	1987. 1. 15 ~ 1988. 6. 3	
39	총경	남용호	인천	1988. 6. 3 ~ 1989. 6. 7	
40	총경	김선호	함남	1989. 6. 7 ~ 1991. 1. 3	
41	총경	아성춘	전남	1991. 1. 3 ~ 1992. 7. 29	
42	총경	박종구	경남	1992. 7. 29 ~ 1993. 11. 8	
43	총경	권영국	경북	1993. 11. 8 ~ 1994. 11. 2	

대수	계급	성명	출신도	재 임 기 간	비고
44	총경	송동익	경북	1994. 11. 3 ~ 1995. 12. 21	
45	총경	권재환	경남	1995. 12. 21 ~ 1997. 7. 3	
46	총경	박한중	충남	1997. 7. 4 ~ 1998. 7. 1	
47	총경	유태열	경기	1998. 7. 1 ~ 1999. 9. 27	
48	총경	양성철	전남	1999. 9. 28 ~ 2000. 7. 5	
49	총경	박중환	충북	2000. 7. 5 ~ 2001. 12. 26	
50	총경	윤종옥	경북	2001. 12. 26 ~ 2002. 2. 2	
51	총경	주기주	전남	2002. 5. 2 ~ 현재	

1대부터(45. 10. 21.) 49대까지 서장의 재임기간을 보면 3대 이종호 경감과 28대 김한윤 총경, 29대 정한교 총경과 36대 이강만 총경 등이 만 2년 재직할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1년을 채 넘기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단기간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 2. 용인시 치안·교통행정

### 1)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범죄 총 발생 건수는 93년에 3,770건, 94년에 5,057건으로 늘었고 95년에는 4,469건으로 558건이 감소했다가 시로 승격된 96년에는 2,312건이 늘은 후, 97년은 7,936건, 98년 8,967건, 99년에는 10,398건으로 대폭 증가해서 93년에 비해 2.76배나 증가되었다. 범죄 종별로 보면 96년이후 강도, 절도, 폭력범, 지능범 기타 형사범의 범죄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특별범이 99년말 7,314건으로 전체 범죄건수의 70%나 점하고 있는 바 검거도 98.2%나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는 점차 지능화·폭력화·흉악화 및 국제화 등의 성격을 가져와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있어야 사회안정을 가져와 주민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년범죄에 있어서는 93년에 232건, 94년에 125건으로 줄었다가 95년에는 다시 늘어 366건, 시로 승격된 96년에는 435건으로 97년 480건, 98년 683건, 99년에 607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중에는 특별범이 357건으로 가장 많아 58.8%를 점하고 있으며 폭력범이 134건으로 2위, 강력범·지능범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일반범죄나 소년범죄의 대강을 살펴보았지만 범죄건수는 날로 흉악화·지능화 해가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이의 예방책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 등으로 가정, 직장, 사회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범죄 발생 및 검거 상황

구분 년도	총계		강도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형사범		특별범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1993	3,770	4,973	31	19	42	42	317	354	120	117	3,218	4,424	42	17
1994	5,057	5,253	46	54	127	137	453	498	1,926	2,014	2,477	2,531	28	19
1995	4,469	3,917	27	23	106	98	447	439	661	495	130	132	3,098	2,730
1996	6,781	6,427	50	41	142	122	676	660	954	865	162	152	4,797	4,587
1997	7,936	7,636	55	51	134	129	659	641	944	863	194	180	5,950	5,772
1998	8,967	8,540	66	61	409	219	705	704	1,131	1,052	240	229	6,416	6,275
1999	10,398	10,163	77	73	233	176	951	958	1,552	1,513	271	260	7,314	7,183

#### ○소년범죄

구분 연별	총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마약범	특별범	기타
1993	232	8	133	91	-	-	-	-
1994	125	-	79	32	5	-	-	9
1995	366	46	84	101	10	-	119	6
1996	435	20	86	117	19	-	187	6
1997	480	14	64	170	19	-	206	7
1998	683	25	162	171	9	-	310	6
1999	607	17	77	134	15	5	357	2

## 2) 교통사고 발생 및 검거

먼저 교통사고의 발생을 가져오는 자동차수를 보면, 93년에 31,841대, 94년에 40,225대, 95년에 56,356대로 점증해오다가, 시로 승격된 96년에는 70,689대로 14,333대가 늘었고 97년에는 84,299대로 13,610대가 증차되었고, 98년에 88,347대 99년에 105,107대로 16,760대가 늘는 등 4년간에 13,000~16,700대가 증차되었다.

사건 발생건수는 93년에 2,023건이었던 것이 99년에는 2,186건인 바, 96년 시 승격년도에 가장 많아서 3,214건이나 된다. 사망자는(인구 10만명당) 93년에 65명이었던 것이 99년에는 84명으로 시 승격년도인 96년도에는 가장 많아서 99명에 이르고 있다. 부상자는 93년에 1,958명이었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99년에는 2,959명으로 1,001명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단속 및 처리는 93년 총건수 112,027건이 99년에 134,421건으로 22,394건이나 증가(1.19배) 되었는데, 99년 통계를 보면 그중 속도위반이 76,535건으로 약 57%이고 기타가 45,565건으로 약 34%가 되며, 신호위반이 6,069건으로 약 4.5%이며 기타 차선위반 주정차 위반 무면허 등이다.

또한 차종별로 보면 버스가 99년 현재 17,486대, 승용차가 94,463대, 화물차 19,489대이다. 단속 및 처리에 있어서는 입건이 2,633건, 즉심 3,781건, 통고처분 112,983건, 기타 15,024건 등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조치에 있어 적당히 흐지부지 넘어 갈 것이 아니라 엄격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이상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은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일생 동안 불구의 몸으로 지내야하는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는 속도위반, 음주운전, 차선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특히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취중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교통피해발생 최

상위권의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및 단속 현황

구분 연별	등록 자동차수	인구수	발생 건수	자동차 1만대 당	사 망 자	인구 10만 명당	부상자	인구 10만 명당	사고 유형별					자동차 유형별					
									차 대 사 람	차 대 차	차 량 단 독	철 도 건 널 목	기 타	승용	버 스	화 물 차	특 수	이 륜 차	기 타
1993	31,841	191,629	2,023	635.3	65	33.9	1,958	1,021.8	628	891	504			426	226	427	79	426	439
1994	40,225	209,682	2,077	516.3	49	23.4	2,012	959.5	861	765	451			636	212	426	78	229	496
1995	56,356	244,763	2,480	440.1	55	22.5	2,282	932.3	-	-	-			-					
1996	70,689	272,177	3,214	454.7	99	36.4	2,650	973.6	592	2,357	265			1,807	421	735		172	79
1997	84,299	302,564	1,841	218.4	90	29.7	2,269	749.9	-	-	-								
1998	88,347	320,166	2,958	334.8	81	25	2,360	737.1	569	1,349	160	880							
1999	105,107	359,406	2,186	208.0	84	23	2,959	823.3	219	1,888	79								

(자료:용인경찰서)

## 제3절 소방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관(fireman)에 대한 희생적인 정신과 용감한 행동은 존경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외국(미국)에 비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에 관한 관심과 보수가 미흡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화재현장에서의 희생과 용맹심 발휘의 살신성인의 정신에 대하여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 1. 용인소방서 및 파출소 현황

#### 1) 용인소방서 연혁

1946. 5. 1 - 용인군 의용소방대 발족

1982. 4. 2 - 용인군 중 기흥읍 수원소방서 관할 편입(대통령령 제 10809호, 82. 4. 30)

1984.10.12 - 수원소방서 기흥파출소 개소(경기도 소방서 조직규칙 제1617호)

1987.11.20 - 수원소방서 용인파출소 개소(경기도 소방서 조직규칙 제1843호)

1992. 9. 9 - 수원소방서 관할구역 확대조정(수지읍, 구성면) (경기도 소방서 규칙 제2328호)

1992. 9.27 - 수원소방서 수지파출소 개소

1995. 3. 9 - 용인군 7개면 수원소방서 관할 편입(경기도 소방서 조직규칙 제2575호)

1995.11. 6 - 용인소방서 설치조례 개정공포(경기도 소방서 설치조례 제2605호)

1995.12.13 - 용인소방서 개서(경기도 소방서 설치조례 제2605호)

1996. 9. 3 - 양지파출소 설치승인(내무부 소방 13800-325, 96. 9. 3)

1999. 4.27 - 용인소방서 · 양지파출소 개소(경기도 규칙 2804호)



2000. 1.27 - 용인소방서 119구조대 발대(경기도 지방공무원 정  
원규칙 및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1946년 용인군 의용소방대로 발족하여 82년 4월 2일 이래 95년  
11월 6일까지 수원소방서 관할에 속해 있다가 95년 12월 13일 용인  
소방서로 개서되었고 96년 9월 3일 양지파출소가 설치되었으며,  
2000년 1월 17일자로 용인소방서 119 구조대가 발대되었다.

## 2) 조직편제

- 기구- 2과 6팀, 1구조대, 4파출소(6개 파견소)
- 관할- 면적 591.61km<sup>2</sup>(4동 3읍 7면 390,304명 129,281세대)
- 인력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기능직
131	1	2	5	7	19	39	57	1

- ①소방공무원: 114명(현원 114명)
- ②공공, 공익근무요원: 35명(공공 20명, 공익요원 15명)
- ③의용소방대원: 26개대 780명
- 장비

계	고가	굴절	펌프	화학	물탱크	구급	구조	지휘	순찰	조명	기타
41	1	1	17	1	4	8	1	1	1	1	5

- ①소방차량: 38대
- ②화재진압, 구조, 구급장비 81종 667점
- ③무선통신시설 위치정보시스템, 유무선 35회선
- 소방용수시설- 26개소(비상소화전 31개소)
- 소방대상물 현황: 3,001개소

계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지상소화장치함
362	234	26	2	31

※ 특수장소

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아파트 및 기숙사	교육연구시설	공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기타
4,759	1,664	3	131	191	170	1,349	12	22	128	124	965

① 대형화재 취약대상: 20개소

구분	위락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관광휴게	공장	교육연구	기타
20	2	2	3	2	5	2	4

② 위험물시설: 1,165개소(제조소 10개소)

계	제조소	취급소					
		주유취급소	석유판매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취급소	이동판매취급소	저장취급소
1,165	10	166	68	46	632	227	16

③ 대중이용시설: 2,596개소

계	유흥	단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게임제공업
2,596	116	86	1,777	272	194	16	135

④ 취약지역: 3개소

⑤ 고층건물(11층 이상): 65단지 395개동

⑥ 지하공동구: 4개소 2.4km

· 2001년 예산규모- 4,188,090,000원

인건비: 2,181,071,000원

경상비: 1,766,014,000원

사업비: 241,005,000원(VHF기지국3개소 신설 등)

3) 역대 소방서장 명단

대수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공병의	1995. 11. 21. ~ 1998. 5. 14.	2년 6개월
2	전신용	1998. 5. 15. ~ 1999. 7. 1.	1년 2개월
3	송병일	1999. 7. 2. ~ 2001. 7. 8	1년
4	한상대	2001. 7. 9 ~ 현재	

## 2. 화재발생 현황 및 피해규모

### 1) 화재발생 규모

화재발생은 93년에 137건이었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시 승격 연도인 96년에 311건으로 최고율을 접한 후 97~98년까지는 줄었던 것이 다시 99년에는 320건으로 늘었다.

발생내역을 보면 실화가 가장 많아, 역시 시로 승격한 96년에 가장 많아 251건이었던 것이 점차 줄어서 99년에는 174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방화는 25건, 기타가 121건(99년)이나 된다.

### 2) 피해규모

연별	계	발 생			소 실			피 해 액			인 명 피 해			이재민 수	구원 인원
		실화	방화	기타	동수	이재가구수	면적	계	부동산	동산	계	사망	화상		
1993	137	112	7	18	103	19	19,349	762,940	119,985	642,955	15	6	9	74	
1994	186	156	7	23	145	6	17,707	1,193,554	236,837	956,717	18	8	10	-	
1995	206	178	8	20	185	10	36,089	1,963,410	704,792	1,258,618	76	40	36	41	43
1996	311	251	11	49	218	6	17,752	979,657	84,117	895,540	30	12	18	14	
1997	298	243	10	45	217	3	28,995	1,378,380	443,540	934,840	17	6	11	11	
1998	280	169	14	97	191	-	27,255	1,795,850	680,040	1,115,810	22	2	20	-	
1999	320	174	25	121	203	1	24,039	2,249,480	651,860	1,597,620	18	7	11	5	

재산피해는 부동산·동산 합해서 2,249,480원이고, 인명피해는 사망이 7명, 화상이 11명(99년) 등이다.

## 3. 소방구급 및 구조활동

### 1) 소방구급

96년의 3,082건이 97, 98, 99년 3년 동안 점증하여 99년에는 신고건수가 7,257건, 이송건수가 4,745건에 이르고 있다.

구분 연대	구급활동(명)															
	신고 건수	이송 건수	계	구급환자 유형별								이송 병원별				
				만성 질환	급성 질환	임산 부	사고 부상	약물 중독	화상 환자	교통 사고	기타	계	의원	일반 병원	종합 병원	소계
1996	3,082	1,854	1,938	282	507	33	489	81	18	384	144					297
1997	4,229	2,836	2,996	484	787	50	753	90	26	542	264	2,996	2,873	42	81	478
1998	5,293	3,337	3,515	551	958	56	948	148	21	635	197	3,515	1,382	674	1,459	622
1999	7,257	4,745	4,637	726	1,510	65	1,163	156	24	482	511	5,014	944	1,600	2,470	1,002

## 2) 구조대 활동

구분 연대	출동건수			구조인원												
	처리		미처리	사상별				사고별 구조인원								
	인명 구조	기타 활동		계	사망	부상	기타	계	화재	교통 사고	수난 사고	건물 사고	폭발 사고	기계 사고	산악 사고	기타
1996				155				155	2	57	1	1		14		80
1997	138	32	308	210	17	99	94	210		99	13	8		18	1	71
1998	197	76	349	353	32	86	235	253	3	83	4	25		16	1	221
1999	237	131	634	436	15	187	234	436		126	9	31		12		256

구조대 활동상황을 보면 99년 237건의 인명구조 활동을 벌인 바 있는데, 사·상별로 보면 사망이 15명, 부상이 187명, 기타가 234명으로 되어 있고, 사고별로는 기타가 258건으로 가장 많으며 교통사고가 126건으로 되어 있다. 119구조대는 2000년 1월 17일 발대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상에서 용인소방서의 대강을 살펴보았는데, 기구는 2과 6팀, 1구조대, 4파출소(6개 파견소), 소방공무원 114명, 공공·공익근무가 35명이고, 의용소방대가 26개대 780명의 대원으로 되어 있다.

장비로는 소방차량 38대, 화재진압, 구조·구조장비 81종 667점, 무선통신시설 35회선 등을 갖추고 있다.

(자료: 용인소방서)

## 제4절 용인 우체국(정부기관)

### 1. 연혁

- 1911.9.16 용인우편소 개소
- 1950.1.12 용인우체국으로 국명 개칭
- 1974.9.2 신갈우체국 민속촌분국 개국
- 1976.4.10 자연농원 출장소 개소
- 1984.11.15 용인우체국 경희대분국 개국
- 1986.9.10 용인우체국 명지대분국 개국
- 1987.9.10 용인우체국 한국외국어대분국 개국
- 1989.9.11 용인우체국 강남대학분국 개국
- 1990.10.22 용인우체국 경찰대학분국 개국
- 1997. 7. 1 업무과 · 관리과 · 지도실 신설

지금으로부터 90년전인 1911년에 용인우편소로 개소 90년 1월 12일에 용인우체국으로 국명 개칭, 1974년부터 1990년 간에 민속촌분국의 4개분국을 설치하고 76년에는 자연농원에 출장소를 개소하였다.

### 2. 역대 우체국장 명단

순위	직 위	성명	재 임 기 간	비고
1	11급~2급	大藤久	1911. 9. 16. ~ 1942. 3. 18.	31년
2	5급~4급	馬郡英俊	1942. 3. 18. ~ 1945. 9. 28.	2년 6월
3	4급	남기호	1945. 9. 28. ~ 1950. 10. 21.	5년
4	행정주사	이민영	1950. 10. 21. ~ 1972. 7. 18.	22년
5	행정사무관	남궁동	1972. 7. 18. ~ 1973. 2. 20.	7월
6	행정사무관	정연택	1973. 2. 20. ~ 1974. 9. 27.	1년 7월
7	행정사무관	박원의	1974. 10. 10. ~ 1976. 6. 7.	1년 8월
8	행정사무관	이종호	1976. 6. 7. ~ 1977. 8. 8.	1년

순위	직 위	성명	재 입 기 간	비고
9	행정사무관	김택신	1977. 8. 8. ~ 1978. 7. 1.	1년
10	행정사무관	민병길	1978. 7. 1. ~ 1981. 5. 12.	3년
11	행정사무관	김진선	1981. 5. 12. ~ 1982. 6. 28.	1년
12	행정사무관	현영송	1982. 6. 29. ~ 1984. 1. 12.	1년반
13	행정사무관	최현욱	1984. 1. 12. ~ 1985. 7. 13.	1년반
14	행정사무관	이윤수	1985. 7. 13. ~ 1986. 7. 16.	1년
15	행정사무관	이광돈	1986. 7. 16. ~ 1990. 2. 1.	3년반
16	행정사무관	권석진	1990. 2. 1. ~ 1992. 1. 7.	2년
17	행정사무관	신종록	1992. 1. 8. ~ 1994. 6. 30.	1년반
18	행정사무관	최동현	1994. 7. 1. ~ 1997. 6. 30.	3년
19	행정사무관	박기성	1997. 7. 1. ~ 2000. 7. 1.	3년
20	행정사무관	임양정	2000. 7. 1. ~ 2002. 6. 30	2년
21	행정사무관	이정근	2002. 7. 1 ~ 현재	

(자료 : 용인우체국)

1·2대는 일제시대로 일본인이 국장으로 재직하던 바 초대소장인 대 등구(大藤久)는 1911년 개소와 더불어 취임하여 1942년까지 30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근무하였고, 2대 마군영준(馬郡英俊) 역시 1942년부터 1945년까지 2년 6개월이나 근무한 바 있다. 최근의 공직자들이 1년 내지 2년간 단기간 근무하는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없지 않다.

### 3. 우편물 취급내역

93년에 7,046건 접수와 9,641건 배달이 96년(시승격년도)에 와서 10,675건 접수와 15,232건 배달로 증가되었고, 1999년에는 12,438건 접수와 26,387건 배달에 이르고 있다. 접수건수 보다 배달건수가 많은 것은 용인우체국에 접수한 것 이외에 타지역에서 접수하여 용인우체국에 온 것까지 배달하기 때문이다.

읍·면·동별로 보면 99년의 경우 중앙동이 단연 많아서 접수가 8,575건에 배달이 8,859건이었고, 기흥읍의 경우 접수가 1,973건, 배달이 13,772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자료 : 제5회 용인통계연보).

제3편  
**경제**

이

백



## 제1장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 제1절 지역내총생산

#### 1. 용인시 지역내총생산 추이 및 비교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1년 동안 각 지역별 생산액, 단가,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한 종합경제지표라 할 수 있다. 1998년도 용인시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불변가격(1995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6조 3,822억원에 이른다. 같은해 경기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70조 7,862억원인데 이를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등 21개 시, 군이 속한 경기남부와 의정부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등 10개 시, 군이 속한 경기북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기남부가 59조 7,308억원, 경기북부가 11조 55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1>은 1993년 이후의 시·군 단위 지역총생산을 경기도와 경기남부(용인시 포함), 용인시 및 경기북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표 1)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규모(1995년 불변 가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경기도	경기남부	용인시	경기북부
1993	50,168,706 -	41,233,254 -	3,323,618 -	8,935,453 -
1994	54,349,572 (8.33)	45,011,885 (9.16)	3,850,585 (15.86)	9,337,687 (4.50)
1995	61,622,154 (13.38)	51,651,010 (14.75)	4,986,862 (29.51)	9,971,144 (6.78)
1996	66,752,272 (8.33)	55,842,104 (8.11)	5,176,837 (3.81)	10,910,169 (9.42)
1997	73,655,039 (10.34)	62,319,720 (11.60)	5,768,659 (11.43)	11,335,319 (3.90)
1998	70,786,247 (-3.89)	59,730,836 (-4.15)	6,382,150 (10.63)	10,055,411 (-2.47)

자료 : 경기도, 《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1999, 2000.

〈표-1〉에서 우리는 용인시의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199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93년도 3조 3,236억원에서 1995년도에는 4조 9,869억원으로 다시 1998년도에는 6조 3,822억원에 이른 것이다. 1998년도 용인시의 지역총생산 규모가 경기도 전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인데, 이는 수원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이다. 용인시의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인근의 성남시와 의왕시, 광명시 3개 시의 생산규모를 합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참고로 지역총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경기도내 시·군의 순위를 살펴보면 1997년도에 이어 1998년도에도 수원시가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수원시의 지역내총생산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1997년 9조 3,722억원을, 1998년에는 7조 9,32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수원시 다음으로는 용인시, 안산시, 부천시, 이천시 등의 순서인데 이들 도시는 모두 경기남부에 속해 있어 경기남부와 경기북부간의 경제력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경제력은 1993년도 4.6 : 1에서 1995년에는 5.2 : 1, 그리고 1998년에는 5.4 : 1로 점차 확대됨을 알 수 있다. 경기북부에 속하는 시·군은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

평균인데 지역내총생산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양시가 2조 6,232 억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파주시의 1조 6,208억원,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군, 포천군, 동두천시, 구리시, 가평군, 연천군 순으로 특히 연천군의 경우 총생산액이 3,794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원인은 수원시와 용인시에는 영상, 음향, 반도체 및 통신장비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있고, 안산시는 전국 최대의 국가공단인 반월공단이 입지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1998년도 평균 총생산액 규모(불변가격 기준)를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의 시·군별 평균은 2조 2,834억원이고, 남부지역의 시·군별 평균은 2조 8,443억원, 북부지역의 시·군별 평균은 1조 1,055 억원으로 지역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 2. 지역내총생산의 개념

①총산출	<table border="1"> <tr> <td>비용자보수</td> <td>영업잉여</td> <td>순간접세 (간접세-보조금)</td> <td>고정자본소모</td> <td>중간투입</td> </tr> </table>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간접세 (간접세-보조금)	고정자본소모	중간투입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간접세 (간접세-보조금)	고정자본소모	중간투입						
②지역내총생산	<table border="1"> <tr> <td>비용자보수</td> <td>영업잉여</td> <td>순간접세 (간접세-보조금)</td> <td>고정자본소모</td> </tr> </table>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간접세 (간접세-보조금)	고정자본소모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간접세 (간접세-보조금)	고정자본소모							
③지역민총생산	지역외로부터의 순요소소득	<table border="1"> <tr> <td>비용자보수</td> <td>영업잉여</td> <td>순간접세 (간접세-보조금)</td> <td>고정자본소모</td> </tr> </table>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간접세 (간접세-보조금)	고정자본소모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간접세 (간접세-보조금)	고정자본소모							
④지역민소득(분배)	지역외로부터의 순요소소득	<table border="1"> <tr> <td>비용자보수</td> <td>영업잉여</td> </tr> </table>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⑤지역내총지출	<table border="1"> <tr> <td>민간최종 소비지출</td> <td>정부최종 소비지출</td> <td>지역내 총자본형성</td> <td>이출-이입</td> </tr> </table>				민간최종 소비지출	정부최종 소비지출	지역내 총자본형성	이출-이입		
민간최종 소비지출	정부최종 소비지출	지역내 총자본형성	이출-이입							

◀ 그림1  
지역소득(생산·지출·분배)지표의 포괄범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은 생산측면의 부가가치를 파악한 것으로, 각 시·군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은 그해 물가를 기준으로 한 정상이격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불변가격(1995년도 물가로 고정)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은 해당 도청에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은 통계청에서 각각 발표하고 있는데 추계결

과를 비교할 때, 기초자료와 추계방법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총생산액에는 약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내총생산에는 지역별 추계가 곤란한 국방부문 생산액과 수입제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과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한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추계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은 한 지역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이다. 지역소득에는 국민소득과 마찬가지로 주민(거주자)개념과 지역내개념 두가지 개념이 있어서 어느 것을 기초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크기가 달라진다. 주민개념에 의한 지역소득을 지역민총생산(GRP: Gross Regional Product)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에 대응하는 지역단위 개념으로, 해당 지역주민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지역의 총생산에 포함시킨다. 이에 반해 지역내총생산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지역내총생산에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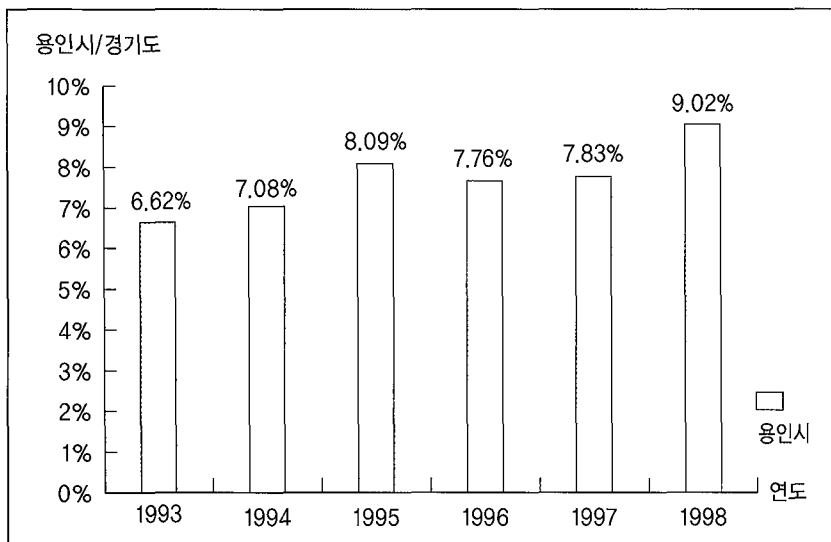
### 3. 지역내총생산 추계목적 및 필요성

지역내총생산은 지역경제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로서 지역관련정책이나 계획수립 및 지역관련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단위 경제개발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통계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인데, 지역총생산은 이러한 지역통계자료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지역내총생산을 통해 국민경제에서의 각 지역경제의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상호 간의 비교분석과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개발모델 설정 등이 가

능하다. 한편, 지역내총생산 통계는 각종 지역단위총계를 기초로 작성되므로 지역내총생산추계를 통하여 체계적인 지역통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4. 용인시 경제성장률

〈표-1〉의 수치 중 괄호안은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총생산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인시의 경제성장률은 1996년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와 경기남부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8년의 경우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이 -3.89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10.63%의 성장률을 시현함으로써 IMF 위기 속에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과시하였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이 증가한 지역은 이천시(41.96%), 동두천시(37.14%), 용인시의 순서이고, 감소한 지역은 의왕시(-20.37%), 평택시(-18.77%), 김포시(-17.32%)의 순서이다. 같은 해 수원시의 경우 -15.37%라는 급속한 경기위축세를 기록하였으며 그 외에도 안산시가 -11.60%의 경제성장률 감소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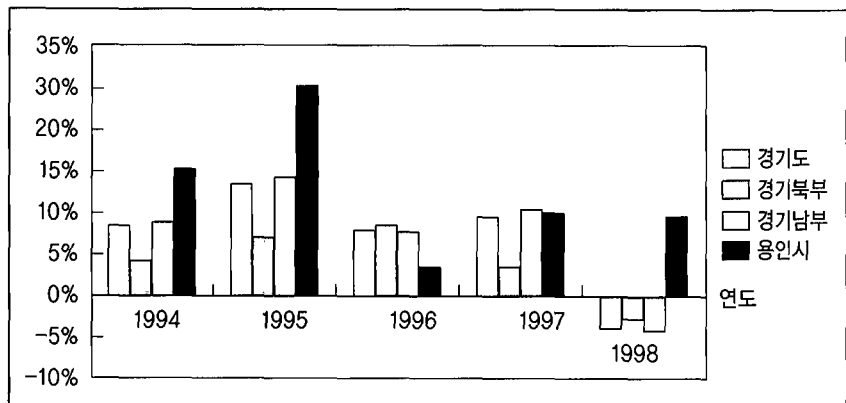


◀ 그림2  
용인시 지역내총생산액 비중추이도  
(1995년 불변가격)

이러한 성장률 격차의 지역별 원인을 살펴보면,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특히 이천시와 용인시는 현대전자와 삼성반도체의 성장세에 영향을 받았다. 동두천시는 생연지구와 송내지구의 택지개발로 건설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의왕시와 평택시, 김포시는 전반적인 제조업체의 생산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경기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30%이다. 이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기남부가 같은 기간 연평균 7.89%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반해, 경기북부는 4.43%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다. 경기남부에 속한 용인시의 경우 지난 5년간 연평균 14.25%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경기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100% 상회하였으며 이천시와 동두천시에 이어 도내 경제성장률 3위를 차지하였다.

용인시의 지역총생산액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는 <그림-2>과 같다. 한편 1998년도 경기도의 산출액 규모(생산액과 달리 중간소비를 포함)는 214조 8,106억원으로, 규모가 큰 시·군은 부가가치, 즉 지역내총생산과 마찬가지로 수원시가 24조 7,281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용인시(21조 8,826억원), 안산시(19조 7,137억원)의 순서이고, 규모가 작은 시·군은 연천군(8,522억원), 양평군(8,762억원), 가평군(9,456억원)의 순서이다. 전년 대비 산출액이 증가한 지역은 이천시가 56.0%로 가장 높고 다음이 동두천시(43.1%), 용인시(28.9%) 순서이며 감소한 지역은 평택시(-14.5%), 여주군(-11.9%), 의왕시(-11.5%) 순서이다. 평균 산출액 규모를 보면



▶ 그림3  
경제성장률 비교

경기도 전체의 시·군별 평균은 6조 9,294억원이고, 남부지역의 시·군별 평균은 8조 8,427억원, 북부지역의 시·군별 평균은 2조 9,114억원으로 나타났다.

〈표-2〉는 용인시 지역내총생산 주요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표-2〉는 경제성장률을 산업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농림어업부문의 증가율이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의 해인 1998년도의 경우 광공업 제외 전 부문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광공업 부문이 23%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전체 경제성장률 10.63%라는 건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광공업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도에는 반도체 부문의 호황에 따라 34.06%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다음해인 1996년에는 1.42%로 저조한 증가세를, 다시 1997년에는 11.94%, 1998년에는 22.89%라는 양호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 5. 1인당 지역내총생산

〈표-2〉의 1인당 총생산액은 지역내총생산액을 인구수로 단순하게 나눈 값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인시의 인구는 1998년 현재 약 31만 1,370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약 3.61%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인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에 있으며, 이는 수도권 팽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대비 3.61%의 인구로 9%가 넘는 총생산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용인시의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1인당 총생산액을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용인시의 1인당 평균 총생산액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1998년도에 약 2,050만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전체 평균 1인당 총생산액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높은 액수이다.

(표 2) 용인시 지역내총생산 주요지표

구분	단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지역내총생산 (경상가격)	십억원	2,971.8	3,663.4	4,986.9	5,213.1	6,200.6	7,974.4
(1인당총생산)	백만원	15.87	18.26	21.95	20.17	21.58	25.61
(도대비 구성비)	%	6.59	7.19	8.09	7.51	7.84	9.64
지역내총생산 (불변가격)	십억원	3,323.6	3,850.6	4,986.9	5,176.8	5,768.7	6,382.1
(1인당총생산)	백만원	17.75	19.19	21.95	20.03	20.07	20.50
(도대비 구성비)	%	6.62	7.08	8.09	7.76	7.83	9.02
경제성장률(불변)	%	-	15.86	29.51	3.81	11.43	10.63
농림어업		-	1.37	0.57	-15.34	-21.04	-3.48
광공업		-	19.85	34.08	1.42	11.94	22.89
(제조업)		-	19.88	34.06	1.72	11.65	23.05
전기 가스 수도업		-	48.02	35.73	-5.81	-14.31	-21.80
건설업		-	4.04	39.87	2.60	15.66	-17.49
서비스업		-	15.70	16.14	17.79	14.27	-9.85
정부민간 비영리 서비스		-	5.99	7.51	15.88	3.01	0.56
인구	천명	187.22	200.66	227.22	258.47	287.37	311.37
(도대비 구성비)	%	2.75	2.81	3.00	3.23	3.44	3.61

자료 : 경기도, 《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1999, 2000

도 대비 시·군별 부가가치 규모(경상가격) 및 인구 구성비를 살펴 보면 경기남부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이 85.10%에 인구비중은 75.33%로 전항에서 후항을 빼면 + 9.77%p가 된다. 이는 부가가치 규모와 인구 구성비의 차이로서 지역내 노동생산성의 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경기북부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이 14.90%에 인구 구성비는 24.67%를 차지, 전항에서 후항을 뺀 노동생산성 지표는 -9.77%p를 기록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이 경기도 대비 9.64%, 인구 구성비가 3.61%로 노동생산성 지표가 6.02%p를 기록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다. 상위 시·군은 용인시(6.02%p), 이천시(4.99%p), 화성군(2.69%p) 순서이고 하위 시·군은 고양시(-4.91%p), 성남시(-4.16%p), 광명시(-2.07%p) 순서이다. 용인시, 이천시, 화성군 지역에는 삼성반도체, 현



대전자, 기아자동차 등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제조업체가 있어서 그 지역의 인구 규모보다는 부가가치 규모를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의 경우에는 서울에 인접한 위성도시로써, 그 지역 자체의 생산시설에 참여하는 인구보다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지역총생산 구성비가 높은 상위 3개 시·군과 낮은 하위 3개 시·군을 나열하면 상위는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순서이고 하위는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순서이다. 경기도 대비 인구구성비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성남시(10.8%), 수원시(9.6%), 부천시(9.1%)가 상위 3개 지역을 점하고 있으며, 하위 3개 지역은 연천군(0.64%), 가평군(0.66%), 과천시(0.83%) 순서이다.

1인당 생산수준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액을 해당 시·군의 연중인구(전년인구와 금년인구의 산술평균)로 나눈 단순지표로 정의한다면 시·군별 1인당 생산수준이 높은 지역은 이천시, 용인시, 화성군 순이며, 이들의 특징으로는 광공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1인당 생산수준이 낮은 지역은 고양시, 하남시, 구리시 순서이며 이들의 특징은 광공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생산기반시설은 서울에 있고 단지 출퇴근만 하는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표 3) 각종 지표로 본 상위 3개 지역과 하위 3개 지역

지표	지 역			
	순위	1위	2위	3위
노동생산성	상위	용인시	이천시	화성군
	하위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
지역총생산 구성비	상위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하위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경기도 대비 인구구성비	상위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
	하위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

## 6. 지역내총생산의 거래주체

지역소득과 같이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취급하는 계정체계에서는 수

많은 경제주체를 소수의 동질 집단으로 집약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개별주체를 집단화하여 경제주체로 구분하는 것이 거래주체이다. 이 경우 경제주체를 구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분류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 소비 및 자본형성 등 실물거래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는 그 활동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경제활동별로 분류한다. 한편, 소득의 분배와 처분, 자금의 조달 및 운영 등 자금거래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는 의사결정주체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제도부문별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방법에 따르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즉 실물거래를 다루는 지역내총생산 체계에서는 경제활동의 성격과 목적을 감안하여 거래주체를 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및 가사서비스생산자로 분류한다.

산업: 산업은 건물, 기계설비, 토지 등을 가지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생산활동자금을 조달하는 거래주체이다. 이러한 경제주체들은 통상 생산비용을 웃도는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기 때문에 각종 재료비, 급여, 감가상각비, 세금 등 생산비용을 차감하고도 영업잉여가 발생한다. 산업은 생산주체의 핵심으로서 정상적인 생산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체로 구성되는 것이다. 산업은 민간기업의 사업체가 중심이 되지만 정부기업 중에서도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속한 철도, 체신사업 등과 같은 정부기업은 원재료의 투입 구조와 생산기술이 민간기업과 유사하다. 그리고 가격이 비록 생산비용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판매되는 재화, 서비스의 양과 질에 비례하고, 이의 구입이 구입자의 의사에 따르는 등 민간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산업에 분류된다.

- 주로 기업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 가게 및 민간비영리단체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주택
- 가게, 민간비영리단체, 정부의 주택 및 비주거용건물의 자기건설

정부서비스생산자: 정부서비스란 공공행정, 국방, 치안, 교육, 문화 등 각종 사회복지활동과 기술개발활동 등을 말하는데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지 않으므로 정부 이외에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사회공공서비스이다. 정부서비스생산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사회보장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나 단체 등 특정 비영리단체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특정 비영리단체란 주로 정부에 의해 자금이 공급되고 통제를 받는 조직으로서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는 사립학교, 사립대학 및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 종교단체, 장학단체, 노동단체 등과 같이 가계에 대하여 교육, 의료, 종교, 문화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자발적인 단체이다. 이들의 활동은 정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두거나 행정에 위임해 두면 사회적 수요에 따라 적시 공급이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서비스를 가계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자금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나 개인, 기업, 정부로부터의 기부금, 보조금, 재산소득 등에 의해 주로 조달된다. 그러나 민간의 자발적인 단체라 하더라도 소규모 친목단체로서 상용종업원이 1명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계에 포함시킨다.

가사서비스 생산자: 활동별 분류에서 가계를 생산주체 및 소비주체로 분리하여 전자를 가사서비스 생산자라 하고 후자를 가계라 한다. 가사서비스는 한 가계가 다른 가계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사서비스생산자는 생산주체이기는 하지만 자본형성주체는 아니며 가사서비스생산자의 생산비는 오로지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7.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의 구성

**총산출:** 총산출은 일정기간 중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화폐평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각 생산주체별로 비용구조와 산출형태가 같지 않으므로 총산출의 정의도 생산주체별로 다르다. 정부서비스생산자 및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경우는 공급하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서비스 평가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총산출은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의 생산비로 정의하고, 중간소비,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및 간접세의 합계로 그 평가액을 구한다. 총산출은 재화의 경우 생산시점에서, 서비스의 경우 제공시점에서 각각 기록한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시점, 즉 재화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이 기록시점이 된다. 총산출에 계상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가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는 실제 시장판매된 것 뿐만 아니라 시장화되지 않고 재고로 남은 것도 포함된다.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총산출에 포함되는 것에는 원시생산자(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종사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생산한 원시상품과 비원시생산자가 자가투입을 위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 총산출은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생산자가격은 현금판매가격을 의미하고 구매자에게 배달되는데 소요되는 운수 또는 보관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소비:** 중간소비는 생산과정에서 원재료, 연료, 간접비 등으로 소비되는 내용년수 1년 이하의 비내구재 및 서비스이다. 고정자산의 유지보수비, 연구개발조사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정부서비스생산자의 중간소비에는 군사목적용을 위해 취득한 내구재가 포함된다. 중간소비는 산업의 경우 재화와 용역이 생산에 투입되는 시점에서, 정부서비스생산자나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중간소비는 재화와 용역이 구입되는 시점에서 각각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한다.

**부가가치:** 부가가치란 생산활동에 의하여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써 총산출에서 중간소비를 뺀 것으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세와 보조금(공제)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2절 물가

### 1. GRDP 디플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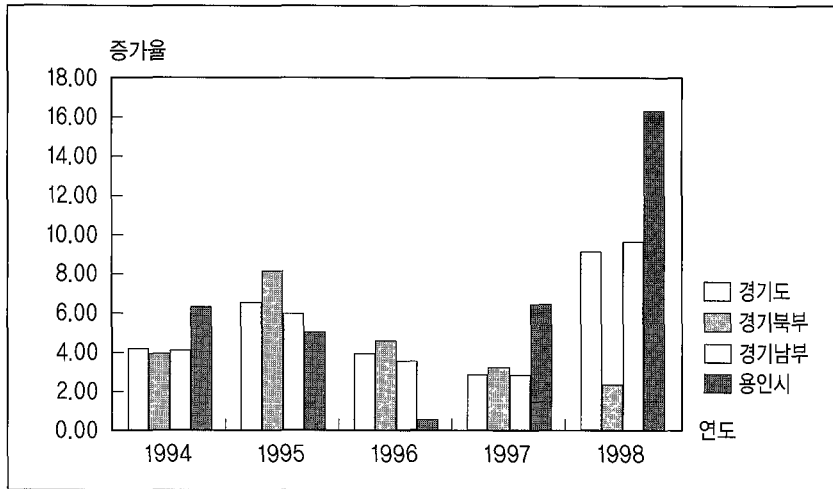
〈표-4〉는 용인시의 지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경 상가격으로 표시된 시계열지표에서 가격상승에 따른 명목상의 증가 분을 제거하여 실질금액을 구할 때 사용하는 가격지수를 디플레이터 라고 한다. 이 경우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 등 특정가격지수가 될 수도 있으나, 사후적으로 구해지는 것이 보편 적이다. 즉, 실질화의 대상이 되는 구성항목별로 디플레이터를 작성 하여 실질치를 구하며, 전체로서의 디플레이터는 (명목치) / (각 구성 항목의 실질치 합계)로 표시한다.

지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는 매우 광범위하여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에 관련된 가격지수는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기타 가격지수까지도 디플레이 터로 이용한다.

(표 4) 지역내총생산 디플레이터(1995년 불변 가격) (1995=100, 단위:%)

구 분	경기도	경기남부	용인시	경기북부
1993	89.83 -	90.10 -	89.42 -	88.60 -
1994	93.72 (4.33)	94.01 (4.34)	95.14 (6.40)	92.32 (4.20)
1995	100.00 (6.70)	100.00 (6.37)	100.00 (5.11)	100.00 (8.32)
1996	104.03 (4.03)	103.88 (3.88)	100.70 (0.70)	104.80 (4.80)
1997	107.43 (3.27)	107.20 (3.19)	107.49 (6.74)	108.68 (3.71)
1998	116.88 (8.80)	117.87 (9.96)	124.95 (16.24)	111.49 (2.59)

자료 : 경기도, 《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1999, 2000



◀ 그림4.  
물가상승률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1998년도 용인시의 물가상승률은 16.24%로, 이는 경기도의 물가상승률 8.8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경기도의 물가상승률을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북부의 경우 2.59%를 기록한데 반해 남부의 경우 9.96%를 기록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 5년간 연평균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경기도 전체의 경우 5.43%였으며, 경기북부는 4.72%, 경기남부는 5.55%로 지역 간에 비교적 큰 차이는 없었다.

용인시는 지난 5년간 연평균 7.04%의 물가상승률을 기록, 물가상승률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였다. 1998년도 경기도내 지역별 물가상승률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수원시(19.03%), 부천시(17.31), 시흥시(16.59%), 용인시 등의 순서였으며, 동두천시(-5.05%), 연천시(-2.28%), 양평군(-1.01%), 가평군(-0.42%) 등은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이 도시가구의 소비생활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일상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지출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토지, 주택구입비 등의 투자지출은 제외된다. 또한 소비지출 중

물가의 변동만을 측정하므로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고급상품의 구입이나 자녀의 성장, 가족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비의 추가지출분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통계청은 1995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조사항목별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총소비지출액의 1/10,000 이상이 되는 항목 중 동종 상품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고, 시장에서 계속적인 조사가 가능한 509개 품목을 선정하여 그 가격변동을 가중평균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는데, 시·군별 조사대상에는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의정부시, 고양시, 부천시가 포함되어 있다.

## 2. 전국, 경기도, 인근 지역 물가 추이

2000년도 우리나라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1995=100)는 121.5로서 전년에 비해 2.3% 상승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수가의 현실화로 보건의료서비스가 13.9% 올랐고, 대학납입금 등 각종 납입금이 7.5% 상승, OPEC의 감산합의에 따른 국제원유가 인상으로 석유류가 11% 상승,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 영향으로 축산물이 7.6% 상승했다. 그외 지방재정 압박에 따른 요금 현실화로 상·하수도료, 시내버스료,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이 8.9% 상승했다.

반면에 작황호조 및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농산물이 0.2%로 크게 안정된 수준을 보였고, 특별소비세 인하로 가구내구재는 2.7% 하락했으며, 외식은 0.8% 상승하는데 그쳤고, 집세는 0.5% 하락했다.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1970년대 중반에는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1980년대 초반에는 정치 및 사회불안으로 20%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는 국제 3저 현상과 강력한 물가안정정책에 힘입어 2~3% 수준의 매우 안정된 추세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반에 식료품 및 집세가 크게 오르는 등 다소 불안한 움직임을 보인 뒤 연 5%대의 안정된 추세를 보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7.5%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했



**(표 5) 전국, 경기도, 용인시 인근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1995=100, %)

연도	총지수(All items)					
	전국	전년(동월)비	경기도	경기도		
				수원	성남	부천
가중치		1000	1000	1000	1000	1000
품목수		509	509	509	509	509
1990	74.0	8.6	72.7	72.4	72.7	72.6
1991	80.9	9.3	79.3	78.9	78.9	79.9
1992	86.0	6.2	85.1	84.5	85.1	85.7
1993	90.1	4.8	89.5	89.3	89.2	90.0
1994	95.7	6.3	95.0	95.2	94.3	95.2
1995	100.0	4.5	100.0	100.0	100.0	100.0
1996	104.9	4.9	105.7	106.2	106.0	105.1
1997	109.6	4.5	110.4	111.0	111.3	109.4
1998	117.8	7.5	118.2	118.6	119.5	117.6
1999	118.8	0.8	119.3	119.5	120.4	118.7
2000	121.5	2.3	122.2	122.6	122.4	122.1

자료 : 통계청, 《2000물가연보》

**(표 6) 2000년 주요등락 품목** (전년비, %)

품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가구	출판물	석유 석탄	집세	의료 서비스	지방공 공요금	외식	납입금
등락률	0.3	7.6	1.5	-0.8	-2.7	5.5	11	-0.5	13.9	8.9	0.8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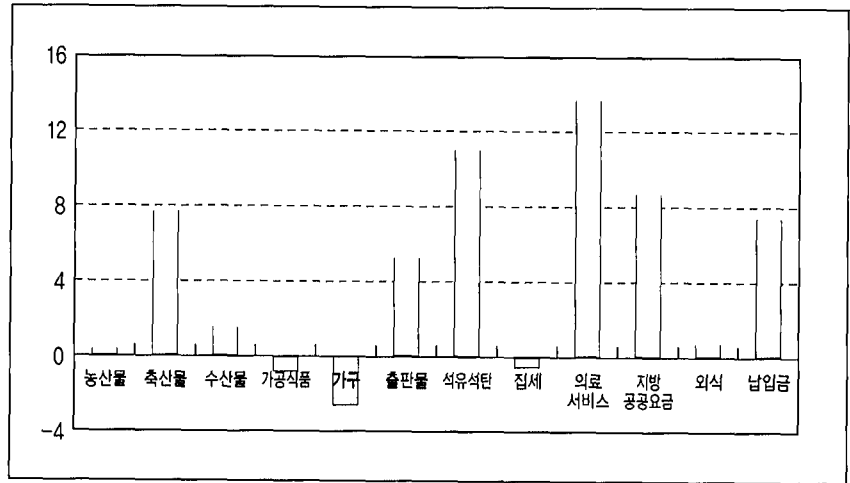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0년 물가연보》

다가 1999년에는 0.8%, 2000년에는 2.3%의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도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인천이 2.8%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서울, 경기, 전북, 전남이 2.5%로 전국 평균 2.3%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이 0.9%로 가장 적게 올랐고, 경북 1.4%, 강원 1.7%, 경남, 울산이 1.8%, 부산, 대구, 광주, 충북이 2.0%, 제주 2.1%, 대전 2.2%로 전국평균보다 적게 올랐다.

▶ 그림5  
2000년 주요 등락 품목 비교



## 제3절 고용

한 나라의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틀어 경제활동인구 혹은 노동력(labor force)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학생이나 주부, 일할 능력이 없는 노약자, 환자 등을 뺀 인구를 말한다. 경제활동인구의 대상을 15세 이상으로 잡은 것은 중학교교육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일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 한다. 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한다.

(표 7)

전국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연도	15세이상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실업율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1991	31,422	19,048	18,612	436	12,374	60.6	2.3
1992	31,898	19,426	18,961	465	12,472	60.9	2.4
1993	32,400	19,803	19,253	550	12,597	61.1	2.8
1994	32,939	20,326	19,837	489	12,614	61.7	2.4
1995	33,558	20,797	20,377	419	12,761	62.0	2.0
1996	34,182	21,188	20,764	425	12,994	62.0	2.0
1997	34,736	21,604	21,048	556	13,132	62.2	2.6
1998	35,362	21,456	19,994	1,461	13,906	60.7	6.8
1999	35,765	21,634	20,281	1,353	14,131	60.5	6.3
2000	36,139	21,950	21,061	889	14,189	60.7	4.1
2001.1	36,333	21,267	20,286	982	15,066	58.5	4.6
2	36,358	21,265	20,196	1,069	15,092	58.5	5.0
3	36,382	21,763	20,728	1,035	14,619	59.8	4.8
4	36,405	22,352	21,504	848	14,053	61.4	3.8
5	36,433	22,559	21,779	780	13,874	61.9	3.5
6	36,466	22,493	21,748	745	13,973	61.7	3.3
7	36,500	22,520	21,760	760	13,980	61.7	3.4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http://www.nso.go.kr>

\* 15세 이상의 인구중 군인, 전투경찰, 방위병,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진다. 취업자란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나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가구주의 사업을 도와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가족종사자로 정의된다. 전업주부들이나 학생들은 원래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이다. 그러나 파출부와 같이 가사를 돌보면서 부수입을 올리는 일을 하거나 학생이면서도 신문배달을 한다면 경제활동인구로 잡혀 취업자로 분류된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를 빼면 실업자 수가 된다. 실업자 수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실업률(unemployment rate)이라 한다. 종전에 취업하고 있던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경제활동인구에 들어 있지 않던 사람이 일자리를 찾으러 나서면 실업률은 증가한다.

〈표-7〉은 전국 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낸 표이다. 2000년 현재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총 3,614만명,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2,195만명에 이르며 취업자가 2,106만명, 실업자가 89만명임을 알 수 있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경제활동참가

(표 8) 경기도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구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1990	4,312	2,665	2,598	67	1,647	61.8	2.5
1991	4,567	2,813	2,760	53	1,754	61.6	1.9
1992	4,810	2,983	2,917	67	1,827	62.0	2.2
1993	5,066	3,162	3,087	75	1,903	62.4	2.4
1994	5,336	3,370	3,303	67	1,966	63.2	2.0
1995	5,563	3,550	3,496	54	2,013	63.8	1.5
1996	5,836	3,738	3,676	62	2,099	64.1	1.7
1997	6,103	3,901	3,786	115	2,202	63.9	2.9
1998	6,373	3,917	3,594	323	2,456	61.5	8.2
1999	6,630	4,092	3,808	284	2,539	61.7	6.9
1사분기	6,533	3,890	3,515	376	2,642	59.5	9.7
2사분기	6,597	4,129	3,835	293	2,469	62.6	7.1
3사분기	6,663	4,149	3,897	252	2,515	62.3	6.1
4사분기	6,727	4,199	3,985	214	2,528	62.4	5.1

자료: 경기도, 《경기통계연보》, 1999, 2000, 경기도, 《경기사회지표》, 2000.

율은 60.7%로 집계되었으며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6.8%로 정점을 이루다가 점차 낮아져 2000년 현재 4.1%를 기록하고 있다.

〈표-8〉은 경기도 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낸 표이다. 1999년 현재 경기도의 15세 이상 인구는 총 663만명,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409만명에 이르며 취업자가 381만명, 실업자가 28만명임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집계되었으며,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8.2%로 정점을 이루다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표-9〉는 용인시 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내고 있다. 용인시의 총 인구는 2000년 현재 39만 5,028명인데 이 수치는 경기도 전체인구의 4.3%이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14만 3,820명, 1차 산업 종사자는 3만 1,887명, 2차 산업 종사자는 6만 8,822명, 3차 산업 종사자는 4만 3,111명으로 집계되었다. 용인시의 총 세대수는 13만 599세대이고 여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전출입이 잦아 평균전입률이 경기도 평균인 23.6%를 상회하는 29.9%에 이른다.

(표 9) 용인시 경제활동인구 (단위: 명)

구분	용인시총인구수	경제활동인구	산업별 취업인구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2000년	395,028	143,820	31,887	68,822	43,111
	(경기도의 4.3%)	100%	22.17%	47.85%	29.98%

자료: 용인시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나 취업, 실업의 구분 등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권하는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이는 통계작성상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뒤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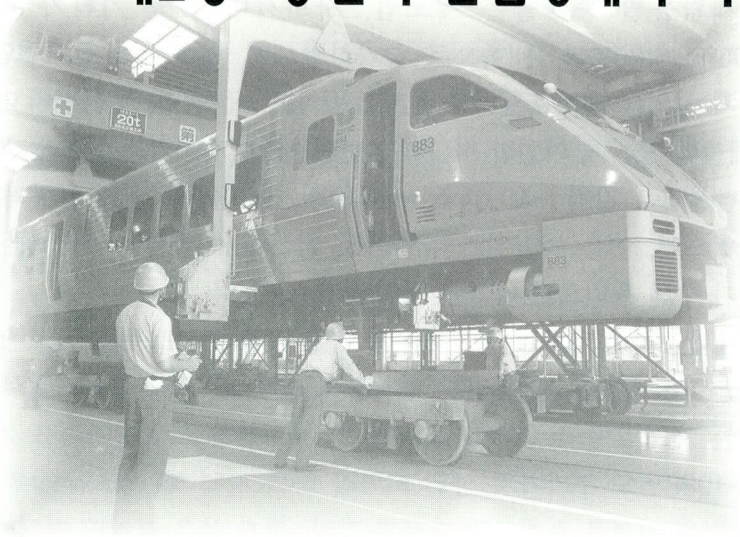
첫째, 임시로 고용되거나 파트 타임으로 일하면서 정식 고용을 원하는 사람이 취업자로 잡혀 실업통계에서 빠진다. 1주일에 단 한 시간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한 임시 근로자는 나머지 시간을 대부분 구직활동에 할애하더라도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인 것이다. 임금을 받고 고용된 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 1개월 미만

이런 임시고용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 중에서도 임시로 고용된 불안전취업자들이 많을 것이다.

둘째,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아다닌 끝에 지쳐서 당분간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보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업통계에서도 빠진다. 경기침체에 취업가능성이 낮아 당분간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ILO 기준의 실업통계에 나오는 실업률은 실제 실업률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 제2장 용인시 산업경제의 특성



### 제1절 산업구조의 특성과 추이

#### 1. 경제활동별 생산구조

〈표-10〉은 1995년 불변가격으로 계산한 용인시 경제활동별 지역 내총생산액을 정리한 것이다. 용인시의 경우 1998년도 부가가치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제조업(4조 5,63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건설업(6,199억원)과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4,279억원)의 순으로 나타났고, 규모가 가장 작은 산업은 광업(56억원), 전기가스 수도업(261억원), 통신업(282억원)의 순서이다.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체의 1998년도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규모를 살펴보면 부가가치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제조업(42조 7,37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건설업(9조 8,288억원)과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8조 4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고, 규모가 가장 작은 산업은 광업(1,464억원), 통신업(1조 681억원), 음식숙박

업(1조 3,822억원)의 순서이다.

경제활동별 증가율은 제조업, 사회서비스 및 기타가 각각 23.05%, 6.86%씩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의 증가원인은 반도체 산업의 경기호황으로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매출액 증가에 기인한 바 크다. 반면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 건설업은 각각 -40.04%, -21.80%, -17.93%, -17.49%씩 감소하였으며, 이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건설경기 부진과, 소비성향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구성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으로 1998년도 경기도의 경우 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51.7%에 이른다. 참고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1998년도 부가가치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 및 제조업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경기도 전체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수치이다.

- 부가가치 상위 지역 : 수원시(12.0%), 용인시(9.6%), 안산시(8.2%), 부천시(8.0%), 이천시(7.0%)
- 제조업 상위 지역 : 용인시(13.9%), 수원시(13.7%), 이천시(11.4%), 안산시(10.7%), 부천시(8.4%)
- 부가가치 하위 지역 : 연천군(0.48%), 양평군(0.51%), 가평군(0.51%), 하남시(0.62%), 과천시(0.80%)
- 제조업 하위 지역 : 과천시(0.01%), 양평군(0.03%), 가평군(0.05%), 연천군(0.07%), 의정부시(0.15%)



(표10) 용인시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1995=불변가격)  
(괄호안은 증가율) (단위: 백만원, %)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지역내총생산	3,323,618 -	3,850,585 (15.86)	4,986,862 (29.51)	5,176,837 (3.81)	5,768,659 (11.43)	6,382,152 10.63
농림어업	154,817 -	156,943 (1.37)	157,831 (0.57)	133,627 (15.34)	105,513 (-21.04)	101,837 -3.48
광업	6,411 -	6,941 (8.27)	9,702 (39.77)	-	9,374 (-)	5,620 -40.04
제조업	2,031,640 -	2,435,626 (19.88)	3,265,310 (34.06)	3,321,583 (1.72)	3,708,658 (11.65)	4,563,446 23.05
전기가스 수도업	20,566 -	30,441 (48.02)	41,316 (35.73)	38,914 (-5.81)	33,347 (-14.31)	26,079 -21.80
건설업	435,077 -	452,667 (4.04)	633,132 (39.87)	649,625 (2.60)	751,345 (15.66)	619,940 -7.49
도소매업	100,788 -	109,526 (8.67)	122,988 (12.29)	137,605 (11.88)	154,0204 (12.06)	129,548 -15.99
음식 숙박업	45,453 -	43,787 (-3.66)	51,073 (14.64)	56,641 (10.90)	58,630 (3.51)	48,997 -16.43
운수 창고업	31,279 -	39,771 (27.15)	41,527 (4.41)	47,513 (14.41)	62,505 (31.55)	57,459 -8.07
통신업	14,701 -	15,451 (5.10)	18,732 (21.24)	22,070 (17.82)	34,308 (55.72)	28,205 -17.93
금융 보험업	60,620 -	80,616 (32.98)	98,971 (22.77)	115,496 (16.70)	114,565 (-0.81)	100,086 -12.64
부동산임대및 사업서비스업	226,349 -	252,461 (11.54)	308,754 (22.30)	386,591 (25.21)	466,768 (20.74)	427,886 -8.33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04,793 -	139,015 (32.66)	142,676 (2.63)	162,635 (13.99)	170,063 (4.57)	162,513 -4.44
일반공공행정	30,508 -	30,562 (0.18)	31,067 (1.65)	33,510 (7.86)	39,228 (17.06)	38,012 -3.10
사회서비스 및 기타	42,246 -	45,547 (7.81)	47,128 (3.47)	45,48 (-4.41)	45,815 (1.70)	48,958 6.86
민간비영리 서비스 생산자	62,280 -	67,015 (7.60)	75,678 (12.93)	99,758 (31.82)	98,635 (-1.13)	97,740 -0.91
금융 귀속 서비스	-43,910 -	-55,786 (27.05)	-59,028 (5.81)	-73,780 (24.99)	-84,357 (14.34)	-74,176 -12.07

자료: 경기도, 《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1999, 2000

## 2. 부문별 생산구조

〈표-11〉은 경제활동을 농림어업, 광공업 및 기타부문으로 대별하여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군별 생산구성 비율을 경상가격으로 나타내고 있다. 1998년도 경기도 전체의 생산구조 규모(경상가격)는 농림어업이 2조 1,456억원이고, 광공업이 42조 8,838억원,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이 37조 7,023억원인데, 용인시의 경우 경기도 농림어업 생산액의 4.59%, 광공업의 13.83%, 기타 부문의 5.16%를 차지하고 있다.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광공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수원시와 이천시가 용인시에 이어 각각 2위와 3위를 점하고 있다. 산업구조상 용인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광공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며 이러한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표-11〉에서 알 수 있듯이 광공업의 경우 용인시가 경기도에서 점하는 비중은 1996년도의 10.62%에서 다음해인 1997년도에는 10.75%로 0.13%p 상승하더니 1998년도에는 13.83%로 무려 3.08%p나 급증하였다. 용인시의 광공업 생산규모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광공업 생산액(6.58%)에다 광명시(1.23%), 과천시(0.01%), 오산시(1.71%), 의왕시(1.04%), 하남시(0.20%), 안성시(1.65%), 여주군(0.51%), 광주군(1.46%), 양평군(0.04%)의 생산액을 합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광공업과 달리 용인시의 농림어업 부문은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농림어업의 경우 용인시가 경기도에서 점하는 비중은 1996년도의 5.91%에서 다음해인 1997년도에는 4.93%로 0.98%p 감소하더니, 1998년도에는 4.59%로 0.34%p 하락하였다. 용인시의 농림어업 부문 생산규모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지역은 포천군(4.28%), 연천군(4.04%), 양주군(3.86%) 등이다.

기타부문의 경우 용인시가 경기도에서 점하는 비중은 1996년도의 4.92%에서 다음해인 1997년도에는 5.26%로 0.34%p 상승하였다가 1998년도에는 5.16%로 0.10%p 하락하였다. 용인시의 기타 부문 생산규모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지역은 평택시(5.12%), 안산시

(표 11)

## 생산구조 구성비 : 경기도 대비(정상가격)

(단위 : %, %P)

구분	농림어업				광공업				기타부문			
	96년	97년	98년	차이	96년	97년	98년	차이	96년	97년	98년	차이
경기도	1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10.0	100.0	100.0	-
경기남부	68.29	70.91	73.39	2.47	91.45	92.80	93.42	0.62	77.73	77.33	76.30	-1.03
수원시	1.05	1.21	0.88	-0.33	1.20	15.02	13.65	-1.38	10.71	10.65	10.72	0.07
성남시	0.35	0.49	0.51	0.02	2.47	2.43	3.76	1.33	9.99	10.06	10.14	0.08
안양시	0.07	0.06	0.13	0.06	4.53	4.34	3.77	-0.57	7.05	6.75	6.86	0.11
부천시	0.60	0.55	0.51	-0.05	6.66	6.41	8.38	1.97	8.38	7.79	7.97	0.18
광명시	0.43	0.61	0.52	-0.09	2.10	1.71	1.23	-0.48	2.88	2.84	2.80	-0.05
평택시	10.00	10.75	13.05	2.30	6.38	5.78	3.97	-1.81	5.36	5.66	5.12	-0.54
안산시	1.29	1.53	1.11	-0.42	1383	12.76	10.68	-2.07	6.76	6.37	5.79	-0.58
과천시	0.28	0.37	0.41	0.04	0.01	0.01	0.01	0.00	1.74	1.72	1.73	0.01
오산시	0.68	0.60	0.42	-0.18	1.57	1.70	1.71	0.02	1.20	1.35	1.24	-0.10
시흥시	2.31	1.97	1.72	-0.25	5.24	4.95	5.11	0.16	3.22	3.20	3.33	0.13
군포시	0.27	0.19	0.17	-0.02	3.33	2.96	2.49	-0.46	2.00	1.91	2.01	0.11
의왕시	0.36	0.35	0.33	-0.02	1.60	1.43	1.04	-0.39	1.23	1.35	1.28	-0.07
하남시	0.62	0.37	0.50	0.14	0.32	0.29	0.20	-0.09	1.19	1.12	1.10	-0.02
용인시	591	4.93	4.59	-0.34	10.62	10.75	13.83	3.08	4.92	5.26	5.16	-0.10
이천시	8.98	9.12	8.01	-1.10	6.93	7.97	11.33	3.36	2.00	2.13	2.04	-0.09
안성시	6.29	7.30	8.63	1.33	1.96	1.64	1.65	0.01	1.51	1.51	1.51	0.00
김포시	4.37	5.08	5.50	0.42	2.49	2.29	1.78	-0.51	1.76	1.69	1.57	-0.11
여주군	6.84	6.63	7.34	0.70	1.04	0.76	0.51	-0.24	1.30	1.35	1.25	-0.10
화성군	12.32	13.75	13.26	-0.50	7.37	7.88	6.80	-1.07	2.04	1.97	1.99	0.02
광주군	1.27	1.47	2.29	0.82	1.75	1.66	1.46	-0.20	1.53	1.76	1.81	0.06
양평군	4.00	3.57	3.51	-0.06	0.05	0.06	0.04	-0.02	0.96	0.90	0.87	-0.03
경기북부	31.71	29.09	26.61	2.47	8.57	7.20	6.58	-0.62	22.28	22.67	23.70	1.03
의정부시	0.53	0.51	0.37	-0.14	0.21	0.17	0.15	-0.02	3.31	3.69	3.78	0.09
동두천시	0.62	1.15	0.84	-0.31	0.30	0.22	0.22	0.00	1.14	1.14	1.63	0.49
고양시	3.35	3.19	3.04	-0.14	1.07	0.75	0.56	-0.19	6.66	6.77	7.19	0.42
구리시	0.45	0.58	0.47	-0.11	0.32	0.26	0.17	-0.09	1.86	1.83	1.79	-0.05
남양주시	3.76	2.97	2.30	-0.66	1.05	0.74	0.67	-0.07	2.59	2.61	2.85	0.23
파주시	7.71	6.43	5.74	-0.68	1.95	1.98	2.26	0.28	2.00	1.95	1.87	-0.08
양주군	3.68	4.23	3.86	-0.38	1.99	1.85	1.56	-0.29	1.25	1.19	1.24	0.05
연천군	4.10	4.30	4.04	-0.26	0.10	0.09	0.07	-0.02	0.84	0.78	0.75	-0.02
포천군	5.21	3.92	4.28	0.37	1.51	1.05	0.86	-0.19	1.64	1.69	1.65	-0.04
가평군	2.30	1.81	1.66	-0.15	0.07	0.08	0.06	-0.02	0.99	1.03	0.96	-0.07

자료 : 경기도, 《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1999, 2000

(5.79%), 안양시(6.86%) 등이다.

시·군별로 농림어업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괄호 안은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비중이 큰 지역 : 화성군(13.3%), 평택시(13.1%), 안성시(8.6%)
- 비중이 작은 지역 : 안양시(0.13%), 군포시(0.17%), 의왕시(0.33%)

시·군별로 광공업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괄호 안은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비중이 큰 지역 : 용인시(13.8%), 수원시(13.7%), 이천시(11.3%)
- 비중이 작은 지역 : 과천시(0.01%), 양평군(0.04%), 가평군(0.06%)

시·군별로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괄호 안은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비중이 큰 지역 : 수원시(10.7%), 성남시(10.1%), 부천시(8.0%)
- 비중이 작은 지역 : 연천군(0.75%), 양평군(0.87%), 가평군(0.96%)

이를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구별하여 시·군별 생산구조를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의 부가가치는 남부지역이 70조 4,055억원(85.1%), 북부지역이 12조 3,262억원(14.9%)이고, 농림어업은 남부지역이 1조 5,746억원(73.4%), 북부지역이 5,710억원(26.6%)이고, 광공업은 남부지역이 40조 627억원(93.4%), 북부지역이 2조 8,211억원(6.6%)이고,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은 남부지역이 28조 7,682억원(76.3%), 북부지역이 8조 9,341억원(23.7%)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1998년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생산규모 면에서 농림어업 분야는 8위, 광공업 부문은 1위, 기타부문은 6위를 점하고 있다.

### 3. 시·군의 생산구조

〈표-12〉는 각 시·군의 생산규모를 100으로 놓았을 때 산업부문별 생산액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의

(표 12)

## 생산구조 구성비 : 경기도 대비(정상가격)

(단위 : %, %P)

구분	96년			97년(A)			98년(B)			증감(B-A)		
	농림어업	광공업	기타부문	농림어업	광공업	기타부문	농림어업	광공업	기타부문	농림어업	광공업	기타부문
경기도	3.44	44.78	51.78	2.90	47.10	50.0045	2.59	51.83	45.57	-0.31	4.73	-4.43
경기남부				2.44	51.7756	79	2.24	56.90	40.86	-0.20	5.13	-4.93
수원시	0.34	47.32	52.34	0.28	91	42.81	0.19	59.04	40.77	-0.09	2.13	-2.04
성남시	0.19	17.57	82.24	0.23	18.52	81.25	0.20	29.63	70.17	-0.03	11.11	-11.08
안양시	0.04	35.69	64.26	0.03	37.73	62.23	0.06	38.47	61.46	-0.03	0.74	-0.77
부천시	0.28	40.61	59.11	0.23	43.54	56.22	0.17	54.36	45.48	-0.07	10.81	-10.75
광명시	0.61	38.40	60.99	0.79	35.82	6338	0.70	33.09	66.21	-0.09	-2.73	2.83
평택시	5.76	47.82	46.43	5.32	46.45	48.23	7.16	43.51	49.34	1.84	-2.95	1.10
안산시	0.45	63.59	35.95	0.48	65.04	34.48	0.35	67.49	32.16	-0.13	2.45	-2.32
과천시	1.05	0.59	98.36	1.21	0.60	98.18	1.32	0.44	98.24	-0.11	-0.16	0.05
오산시	1.73	52.21	46.06	1.17	53.67	45.16	0.74	60.60	38.66	-0.43	6.93	-6.50
시흥시	1.94	57.35	40.71	1.43	58.42	40.15	1.06	62.87	34.07	-0.37	4.45	-4.08
군포시	0.36	58.80	40.83	0.23	59.23	40.54	0.20	58.38	41.42	-0.03	-0.85	0.89
의왕시	0.91	52.39	46.70	0.75	49.59	49.66	0.75	47.82	51.43	0.00	-1.77	1.77
하남시	2.73	18.26	79.01	1.51	19.34	79.14	2.11	17.0074	80.89	0.59	-2.34	1.74
용인시	2.71	63.35	33.94	1.82	64.59	33.59	1.23	36	24.41	-0.59	9.77	-9.18
이천시	6.94	69.79	23.27	5.20	73.85	20.95	2.96	83.76	13.27	-2.23	9.91	-7.68
안성시	11.52	46.79	41.70	12.19	44.37	43.45	12.68	48.4451	38.88	0.50	4.07	-4.57
김포시	6.89	51.19	41.92	7.12	52.15	40.74	8.01	75	40.25	0.89	-0.40	-0.49
여주군	17.10	33.86	49.04	15.74	29.19	55.07	18.55	25.92	55.53	2.81	-3.27	0.46
화성군	8.86	69.03	22.11	7.82	72.80	19.38	7.19	73.81	19.00	-0.63	1.01	-0.38
광주군	2.71	48.44	48.85	2.50	45.94	51.56	3.61	46.11	50.28	1.11	0.17	-1.28
양평군	20.99	3.33	75.68	17.72	5.14	77.15	17.88	4.29	77.83	0.16	-0.84	0.68
경기북부				5.42	21.78	72.81	4.63	22.89	72.48	-0.78	1.11	-0.33
의정부시	1.00	5.18	93.82	0.76	4.23	95.02	0.53	4.34	95.13	-0.23	0.11	0.11
동두천시	2.87	18.23	78.90	4.74	14.94	80.2	2.48	13.21	84.1	-2.26	-1.72	3.99
고양시	2.85	11.81	85.35	2.41	9.24	88.35	2.17	7.93	89.91	-0.24	-1.31	156
구리시	1.37	12.89	85.74	1.59	11.64	87.78	1.33	9.55	89.12	-0.26	-2.09	2.35
남양주시	6.67	24.29	69.05	4.95	19.90	75.15	3.51	20.29	76.20	-1.43	0.39	1.05
파주시	12.20	40.16	47.63	8.90	44.57	46.54	6.85	53.97	39.17	-2.04	9.41	-7.36
양주군	7.60	53.42	38.98	7.74	54.89	37.37	6.79	54.92	38.29	-0.95	0.03	0.82
연천군	22.80	7.27	69.94	22.52	7.53	69.95	21.63	7.63	70.74	-0.89	0.11	0.78
포천군	10.50	39.73	49.77	7.82	34.19	58.00	8.50	34.09	57.41	-0.68	-0.09	-0.59
가평군	12.60	5.35	82.05	8.66	6.25	85.08	8.43	5.71	85.85	-0.23	-0.54	0.77

자료 : 경기도, 《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1999, 2000

생산구조는 농림어업이 2.6%, 광공업이 51.8%,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이 45.6%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살펴보면,

- 비중이 큰 지역 : 연천군(21.6%), 여주군(18.6%), 양평군(17.9%)

- 비중이 작은 지역 : 안양시(0.06%), 부천시(0.17%), 수원시(0.19%)

시·군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살펴보면,

- 비중이 큰 지역 : 이천시(83.8%), 용인시(74.4%), 화성군(73.8%)

- 비중이 작은 지역 : 과천시(0.44%), 양평군(4.29%), 의정부시(4.34%)

시·군에서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살펴보면,

- 비중이 큰 지역 : 과천시(98.2%), 의정부시(95.1%), 고양시(89.9%)

- 비중이 작은 지역 : 이천시(13.3%), 화성군(19.0%), 용인시(24.4%)

전년대비로 경기도 전체의 생산구조 격차는 농림어업이 -0.3%p 감소하였고, 제조업은 4.7%p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은 -4.4%p 감소하였다. 시·군별 전년대비 농림어업의 구성비 격차가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은 각각 여주군(2.81%p)과 동두천시(-2.26%p)이고, 제조업의 격차가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은 각각 성남시(11.11%p)와 여주군(-3.27%p)이고, 서비스 및 기타 부문의 격차가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은 각각 동두천시(3.99%p)와 성남시(-11.08%p)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1998년도를 기준으로 농림어업의 생산액이 전체의 1.23%, 광공업이 74.36%, 기타 부문이 24.41%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인 1997년도와 비교하면 농림어업은 0.59%p가 감소한 반면, 광공업은 9.77%p 급증하였고 기타 부문은 9.18%p 감소하였다. 1996년도 이후 광공업의 증가 추이와 농림어업 및 기타 부문의 감소 추이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용인시의 농림어업 비중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광공업의 비중은 이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구성비율이며, 기타 부문은 위에서 소개한 대로 이천시와 화성군에 이어 세 번째로 그 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 제2절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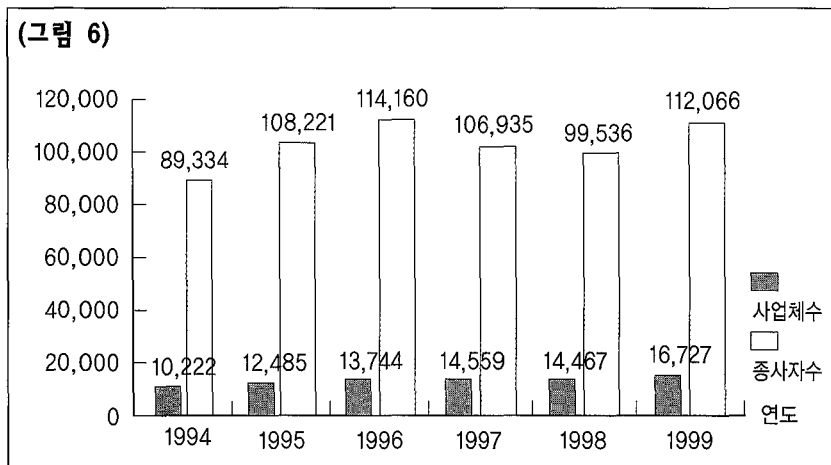
〈표-13〉과 〈그림-6〉은 용인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1999년 12월말 현재 용인시 사업체수는 16,727개이며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112,06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98년과 비교하면 사업체수는 2,260개(15.6%), 종사자수는 12,530명(12.6%)이 각각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인 97년과 비교하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표 13) 용인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개, 명, %)

연도	사업체수	증감률		
		사업체수	종사자수	종사자수
1994	10,222		89,934	
1995	12,485	22.1	108,221	20.3
1996	13,744	10.1	114,160	5.5
1997	14,559	5.9	106,935	-6.3
1998	14,467	-0.6	99,536	-6.9
1999	16,727	15.6	112,066	12.6
평균	13,701		105,142	

자료 : 용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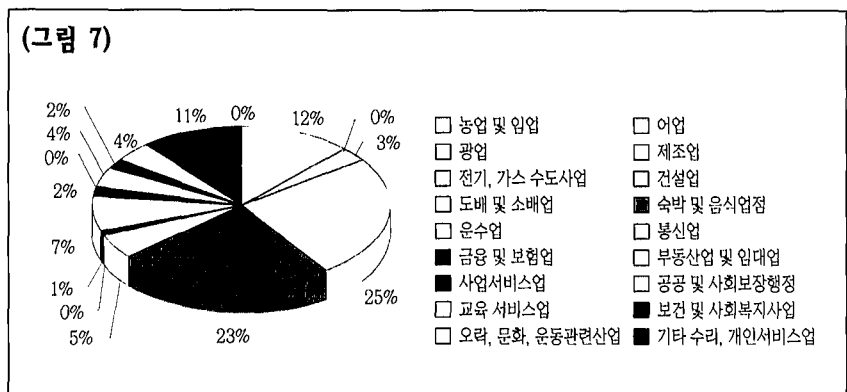
있다.

〈표-14〉와 〈그림-7〉은 용인시 사업체수를 산업대분류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다. 사업체수로 볼 때 1999년 현재 도매 및 소매업체수

(표 14) 용인시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단위: 개, %)

구분	사업체수		증감		구성비	
	1998	1999	사업체수	증감률	1998	1999
전산업	14,467	16,727	2,260	15.6	100.00	100.00
농업 및 임업	6	9	3	50.0	0.04	0.05
어업	1		-1	-100.0	0.01	0.00
광업	5	5		0.0	0.03	0.03
제조업	1,761	2,089	328	18.6	12.17	12.49
전기, 가스 수도사업	6	10	4	66.7	0.04	0.06
건설업	451	486	35	7.8	3.12	2.91
도매 및 소매업	4,271	4,186	-85	-2.0	29.52	25.03
숙박 및 음식점업	3,478	3,811	333	9.6	24.04	22.78
운수업	628	857	229	36.5	4.34	5.12
통신업	31	26	-5	-16.1	0.21	0.16
금융 및 보험업	164	167	3	1.8	1.13	1.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943	1,101	158	16.8	6.52	6.58
사업서비스업	112	321	209	186.6	0.77	1.92
공공 및 사회보장행정	56	47	-9	-16.1	0.39	0.28
교육 서비스업	535	683	148	27.7	3.70	4.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70	308	38	14.1	1.87	1.84
오락, 문화, 운동관련산업	567	724	157	27.7	3.92	4.33
기타 수리, 개인서비스업	1,182	1,897	715	60.5	8.17	11.34

자료 : 용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가 전체 업체수의 25%를 차지해 가장 구성비가 높으며, 그 다음이 숙박 및 음식업, 제조업, 기타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순서이다. 산업별 총생산액과 비교하여 검토해 볼 때, 용인시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체당 생산액은 제조업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업체수 증가율을 알아보면 사업서비스업이 187%로 가장 높고 전기, 가스 수도사업이 67%, 기타 수리, 개인 서비스업이 61% 순이다. 반면 통신업, 공공 및 사회보장행정업 등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15〉는 용인시 산업체 종사자수를 대분류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다. 종사자수로 볼 때 1999년 현재 제조업이 전체 종사자의 39%를 차지해 가장 구성비가 높으며, 그 다음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순서이다. 98년 대비 99년의 종사자수 증가율을 보면 사업서

(표 15) 용인시 산업대분류별 종사자수 (단위: 명, %)

구분	사업체수		증감		구성비	
	1998	1999	사업체수	증감률	1998	1999
전산업	99,536	112,066	12,530	12.6	100.00	100.00
농업 및 임업	27	48	21	77.8	0.03	0.04
어업	2		-2	-100.0	0.00	0.00
광업	83	85	2	2.4	0.08	0.08
제조업	40,391	43,214	2,823	7.0	40.58	38.56
전기, 가스 수도사업	85	127	42	49.4	0.09	0.11
건설업	2374	3,794	1,420	59.8	2.39	3.39
도매 및 소매업	12,008	11,905	-103	-0.9	12.06	10.62
숙박 및 음식점업	8,315	9,782	1,467	17.6	8.35	8.73
운수업	4,576	5,239	663	14.5	4.60	4.67
통신업	455	431	-24	-5.3	0.46	0.38
금융 및 보험업	2,383	2,415	32	1.3	2.39	2.15
부동산업 및 임대업	9,895	3,082	-6,813	-69.9	9.94	2.75
사업서비스업	520	8,059	7,539	1,449.8	0.52	7.19
공공 및 사회보장행정	1,706	2,706	1,000	58.6	1.71	2.41
교육 서비스업	6,140	7,717	1,577	25.7	6.17	6.8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468	2,579	111	4.5	2.48	2.30
오락, 문화, 운동관련사업	5,291	5,160	-131	-2.5	5.32	4.60
기타 수리, 개인서비스업	2,817	5,723	2,906	103.2	2.83	5.11

자료: 용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비스업 종사자수가 1,450%에 이르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타 수리, 개인서비스업이 103%, 농업 및 임업이 78%, 건설업 및 공공, 사회보장서비스업이 약 6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어업, 부동산 및 임대업, 통신업 등은 감소세이다.

〈표-16〉은 용인시 산업체 종사자수를 읍·면·동별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다. 종사자수로 볼 때 1999년 현재 기흥읍이 33,160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0%를 차지해 구성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수지읍, 구성면, 중앙동 순서이다. 읍·면·동별 종사자수 증가율을 알아보면 동부동이 39%로 가장 높고 모현면이 35%, 수지읍이 28%, 중앙동이 23% 순서이다.

(표 16) 읍·면·동별 종사자수 (단위: 명, %)

구분	사업체수		증감		구성비	
	1998	1999	종사자수	증감률	1998	1999
전체	99,536	112,066	12,530	12.6	100.00	100.00
기흥읍	30,233	33,160	2,927	9.7	30.37	29.359
수지읍	10,894	13,972	3,078	28.3	10.94	12.47
포곡면	6,352	6,910	558	8.8	6.38	6.17
모현면	3,391	4,571	1,180	34.8	3.41	4.08
구성면	12,264	11,891	-373	-3	12.32	10.61
남사면	4,203	4,573	370	8.8	4.22	4.08
이동면	4,588	5,064	476	10.4	4.61	4.52
원삼면	1,874	1,835	-39	-2.1	1.88	1.64
백암면	3,228	2,787	-441	-13.7	3.24	2.49
양지면	3,861	4,443	582	15.1	3.88	3.96
중앙동	9,648	11,872	2,224	23.1	9.69	10.59
역삼동	3,451	3,672	221	6.4	3.47	3.28
유림동	3,377	4,290	913	27	3.39	3.83
동부동	2,172	3,026	854	39.3	2.18	2.7

자료: 용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 제3장 용인시 첨단산업 현황과 분석



### 제1절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표-17〉은 용인시 첨단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첨단산업이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리고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면 1999년 현재 첨단산업의 사업체수는 225개이며 종사자수는 18,175명에 이른다. 첨단산업이 용인시 전체 사업체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1.35%인 반면 종사자수는 16.2%에 이른다. 1999년 현재 전년대비 사업체수 증가율은 19%로 전체 산업의 사업체수 증가율 15.6%를 상회하고 있으나 종사자수의 증가율은 7.6%로 전체 산업의 종사자수 증가율 12.6%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표-18〉은 용인시 첨단산업의 읍·면·동별 입지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용인시 첨단산업의 대부분은 기흥읍에 입지해 있는데 기흥읍의 경우 삼성전자를 포함한 55개 첨단 사업체에 13,404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7) 용인시 첨단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

			1997	1998	1999
전체산업	전산업	사업체수	14,559	14,467	16,727
		종사자수	92,113	99,536	112,066
	증감률	사업체수		-0.6	15.6
		종사자수		8.1	12.6
	구성비	사업체수	100	100	100
		종사자수	100	100	100
첨단산업	첨단산업전체	사업체수	183	189	225
		종사자수	5,499	16,886	18,175
	증감률	사업체수		3.3	19.0
		종사자수		207.1	7.6
	구성비	사업체수	1.26	1.31	1.35
		종사자수	5.97	16.96	16.2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사업체수	85	93	86
		종사자수	1,788	1,243	1,608
	증감률	사업체수		9.4	-7.5
		종사자수		-30.5	29.4
	구성비	사업체수	0.58	0.64	0.51
		종사자수	1.94	1.25	1.43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사업체수	66	49	86
		종사자수	3,184	14,830	15,713
	증감률	사업체수		-25.8	75.5
		종사자수		365.8	6.0
	구성비	사업체수	0.45	0.34	0.51
		종사자수	3.46	14.90	14.0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사업체수	32	47	53
		종사자수	527	813	854
증감률	사업체수		46.9	12.8	
	종사자수		54.3	5.0	
구성비	사업체수	0.22	0.32	0.32	
	종사자수	0.57	0.82	0.76	

자료 : 용인시, 《사업체기초통계연보》, 1998, 1999, 2000.

(표 18) 용인시 첨단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전체	첨단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제조업		전기변환장치	영상, 음향 및	광학기기 및
				제조업	통신장비제조업	시계제조업
용인시	사업체수	2,089	225	86	86	53
	종사자수	43,214	18,175	1,608	15,713	854
기흥읍	사업체수	356	55	17	25	13
	종사자수	18,268	13,404	280	12,927	197
수지읍	사업체수	272	29	12	10	7
	종사자수	2,273	282	84	172	26
포곡면	사업체수	102	13	7	1	5
	종사자수	2,858	697	313	116	268
모현면	사업체수	323	27	8	11	8
	종사자수	2,309	279	88	149	42
구성면	사업체수	247	32	9	13	10
	종사자수	2,744	316	77	169	70
남사면	사업체수	88	8	2	4	2
	종사자수	3,073	1,188	113	1,008	67
이동면	사업체수	148	7	3	2	2
	종사자수	3,290	176	64	89	23
원삼면	사업체수	58	5	4	1	
	종사자수	860	168	43	125	
백암면	사업체수	80	4	2	1	1
	종사자수	1,157	102	33	61	8
양지면	사업체수	108	16	4	10	2
	종사자수	2,197	714	19	557	138
중앙동	사업체수	115	10	9	1	
	종사자수	326	34	18	16	
역삼동	사업체수	39	2	2		
	종사자수	472	343	343		
유림동	사업체수	88	12	4	6	2
	종사자수	2,931	426	106	311	9
동부동	사업체수	65	5	3	1	1
	종사자수	456	46	27	13	6

자료 : 용인시, 《사업체기초통계연보》, 2000.

(표 19)

용인시 첨단산업체 현황

(2001 현재)

회사명	위치	주요생산제품	기타
경북산업기계 (주)	이동면	전자동 세탁 탈수기(컴퓨터식) 자동회전 건조기 하부 배출식 원심분리기	특허, 실용신안등록 (제0213807호, 제0194635호, 제0194636호)
고원기술(주)	유방동	LED Lamp Chip LED Lamp High Intensity LED Lamp	연매출액 150억, 종업원수 135명
(주)기가텍	모현면	접속부품 접속부품(Cable Assembly)	종업원수 60명 1997년 - ISO9002, 100PPM 품질인증.
남북전기(주)	삼가동	조명탑 및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고압방전램프 및 안정기 방폭전기기기	상업안전공단(KOSHA) 및 UL등에서 품질인증획득
(주)대륙	포곡면	회로보호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매출액 220억, 당기순이익 5,013백만원, 종업원수 155명, 수출액 120억
대우전자(주)	남사면	패키지에어컨 분리형에어컨 창문형에어컨	전세계 주요 지역에 60개의 생산 및 R&D, 판매기지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구축.
대웅전기산업 (주)	고림동	전기압력보온밥솥(모닝컴) 대웅홍삼증탕기(힘빔다) 대웅약탕기 젓병소독기(까공)	1985년 세계최초로 2년에 걸쳐 10억원이상 투자, 97년 매출액 300억원 넘어섬. 지속적 개발.
(주)동아일렉콤	양지면	정류기, 컨버터 Board Mounted Power Module 전원감시시스템	연매출액 812억, 매출총이익 190억원, 종업원수 307명.
동영씨엔엠에스	백암면	그래픽 판넬 및 자동제어 컴퓨터주변기기	
삼성전자(주)	기흥읍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액정표시 장치	2000년 6조1천억원의 영업이익
삼화텍콤(주)	원삼면	스위치트랜스포머, 로타리트랜스포머, 라인필터	4억3천만불의 매출기록, 총종업원수 약7천명
세원메카(주)	구성읍	관형휴즈(Fast-Acting High Voltage Fuses) 관형휴즈(Normal Blow Glass Tube Fuses) 관형휴즈(Time-Delay Glass Tube Fuses) 관형휴즈(Long Timelag Fuse Links)	

(표 19)

## 용인시 첨단산업체 현황

(2001 현재)

회사명	위치	주요생산제품	기타
(주)알에프텍	원삼면	충전기, 핸드프리 MP3, DLA/DLC	연간매출액 330억, 직원수 200명, 경상이익 5억3천만원.
(주)알파정밀	기흥읍	Oil Damper Pick-up Roller Vibration Proof Rubber O-Ring	
언야더월드 (주)	이동면	Another EYE2000 Another I's PC용 Another I's TV용	입체영상 및 가상현실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
유니테크	남사면	통신케이블용 열수축관	
재경전광산업 (주)	이동면	특수백열전구(PAR38) 특수백열전구(BR30, BR40) 적외선전구(IR40)	연간매출액은 3,100백만원, 종업원수 30명, 연간수출액 3백만달러.
제디아(주)	이동면	Rack System Audio Mixer Power Amplifier(Music용) Public Address Amplifier	1999년 매출액은 8,916백만원, 당기순이익은 78백만원, 종업원수 76명.
진광이엔씨 (주)	남사면	SF6가스절연부하개폐기 SF6가스절연 Sectionalizer 가스절연 부하개폐기(지상형) 철탑추락방지 안전장치	매출액 220억원, 종업원수 83명 당기순이익 5억원
(주)K.P조명	모현면	매입프리즘 매입파라보릭 공조등	연간매출액 5,762백만원, 종업원수 30명
(주)한국디지털 한국베일런스(주)	포곡면 남사면	형상 아트 CD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주)휴맥스	유방동	위성방송수신기/무료방송수신기 위성방송수신기/유료방송수신기 디지털 지상파 방송수신기 디지털 케이블 방송수신기	매출액 541억, 당기순이익 94억
녹십자 수의약품(주)	기흥읍	페니실린-주 DHPPL 백신 이도제나빌-주	21세기 초우량 동물약품회사 구현
녹십자 의료공업(주)	포곡면	혈액백 혈액투석액 페리토졸(복합투석액) 그린아이브이카데터	국내제약사 가운데 투자비율 1위, 2005년까지 1,320억원 R&D에 투자, 신약개발.

(표 19)

용인시 첨단산업체 현황

(2001 현재)

회 사 명	위 치	주요생산제품	기 타
(주)수산이엔씨	남사면	하이프로-에스(병원살균제) 폐수정화처리장치	
에어트랙의과학 연구원	포곡면	목 디스크 치료기 허리 디스크 치료기(440) 허리 디스크 치료기(501)	2001.1월 Airtrac MSI Ins.(USA)설립, 2001 4월 일본 발명특허 획득(제3180047호)
영동제약(주)	이동면	영동 뇨검사 시험지 유리스캔 뇨분석기-프로, 옵티마 영동 글루코텍 혈당검사지와 혈당측정기 영동 PREG-Q 조기 임신진단 시약	
일양제약(주)	기흥읍	원비-디 영비천	차세대 위궤양 치료제 IY-81149, 간장질환 치료제 G009등 신약개발에 주력.
청계약품(주)	구성읍	미야비엠정 씨-메이저정 라벤다크림 포롱액	
(주)티엔엘	구성읍	석고봉대 대체품 부목 대체품	2000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산업기술진흥협회), 수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중소기업청),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선정(경기도)



## 제2절 용인시의 첨단산업체

〈표-19〉는 용인시에 소재한 대표적인 첨단산업체의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이 표는 회사명과 위치, 주요생산제품, 기타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 각 사업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경북산업기계(주) - 경북산업기계는 원심분리기, 세탁기와 탈수기, 드라이 클리닝기의 개발(특허, 실용신안등록) 제작 및 서비스를 통해 후생복지의 향상에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다.  
\*실용신안등록 제 0213807호 \*실용신안등록 제 0194635호 \*실용신안등록 제 0194636호
- 고원기술(주) - 미국 나스닥 상장회사인 Kopin Corporation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디지털 캠코더에 사용되는 LCD Panel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완비하여 삼성전자(주)에 납품을 하게 되었고 LCD용 Back-Light도 개발에 성공하여 생산을 하고 있다. 또한 고원기술(주)는 월 2천4백만 개의 LED를 생산할 수 있는 LED Lamp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 1천5백만개의 LED Lamp를 국내가전 3사 및 미국,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연간 수출액 1000만달러이다.
- (주)기가텍 - 1990년 초반 정보 통신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RF CONNECTOR 사업을 통해 통신시장에 기여하겠다는 일념으로 1980년대에 시계부품 생산업체에서 1992년 RF CONNECTOR 및 CABLE ASSEMBLY 생산업체로 전환하였다. 제품 개발단계부터 완성품까지의 전 공정을 철저한 품질관리 체제 하에서 생산함으로써 국내외 최상위급 회사 제품들과 비견할 만한 수준을 인정받아 국내 굴지의 회사인 삼성, 현대, LG정보통신 등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1997년도에는 ISO 9002 품질 인증 및 100PPM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2000년 5월에는

COEX 이동통신 박람회에 자사제품을 출품해 호평을 받았다.

- 1980. 10. 13 홍익사 설립
- 1992. 1 정보통신기기 RF CONNECTOR 및 CABLE HARNESS 생산
- 1994. 7. 1 GIGATECH 상호변경
- 1997. 12. 4 ISO 9002 품질 시스템 인증 획득
- 1997. 12. 20 100 PPM 품질 인증 획득
- 2000. 6. 1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됨
- 2000. 6. 15 기술연구소 설립
- 2000. 9. 30 제11회 용인시 산업평화대상(경영부문) 수상

- 남북전기(주) - 1974년 설립한 이래 산업용 등기구 및 방폭 전기기 기등 특수 산업용 조명기구를 개발·생산하면서 관련산업 분야에서 크게 주목을 받아왔다. 생산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정부로부터 KS표시 인증을 받았고 특수 방폭 전기기기 분야는 산업안전공단(KOSHA) 및 UL 등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안정성을 입증받았다.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지역에서 사용되는 특수 조명기구를 연구 개발해 수입대체를 실현하여 제품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대량생산 및 ISO9001 품질시스템에 의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추진하여 향후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21세기를 주도하는 산업용 조명기기 제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 (주)대륙 - 1977년 10월 설립하여 국내 최초로 배선용 차단기(MCCB)핵심 부품인 O.D.P의 자체개발에 성공하여 국내 대기업 및 유수업체에 공급하여 왔으며, 1988년 4월 과학기술처로부터 인가를 받아 자체 연구소를 설립,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로 회로보호형차단기(CP)를 개발하였다. 1986년부터는 생산공정의 자동화 추진 및 QM제도, 사내표준화제도의 도입실시로 KS규격과 UL 규격 등을 취득하였고, 1995년 9월에 배선용차단기 완제품을 [DACO]라는 독자 브랜드로 국내외 시장에 출시하여 19년간의 축

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차단기 전문 생산, 판매업체로서의 기반을 굳혀가고 있다. 연간 매출액은 220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5,013백만원이고 수출액은 120억이다. 2001년 현재 종업원수는 155명이다.

- 대우전자(주) - 대우전자는 전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가전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가전전문기업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중시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있어서 세계 수준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현지 소비자의 요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세계 주요 지역에 60여 개의 생산 및 R&D, 판매기지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현재 새로운 세기와 함께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명실상부한 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현재의 가전전문기업에서 건실한 수익구조의 종합가전 및 멀티미디어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총체적 Restructuring을 추진하고 있다. 비주력·비수익 사업의 매각 또는 통폐합, 사업장 재배치 및 유희자산의 매각, 인력구조 개선 및 조정, 전사적 원가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존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 전략과 제휴를 통해 디지털 멀티미디어 사업을 고수익·고성장의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육성, 국내에서는 컬러TV와 VCR,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제품별 연구소와 반도체 및 디지털기술, 영상 디스플레이기술, TMA, HDTV, PDP TV, DVD, Digital VHS VCR, 영상회의시스템, 멀티미디어, 자동차전장 등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는 첨단 제품 연구소를 비롯해 품질경영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디자인센터 등 전문분야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계지역별, 분야별 R&D 체제구축을 위해 미국과 일본에는 TV연구소 및 첨단 기술 연구소, 일본과 프랑스에 디자인 연구소, 그리고 프랑스에 종합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 대웅전기산업(주) - 85년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기치 아래 전기약탕기, 젓병소독기, 샌드위치 토스트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였다. 세계최초로 2년에 걸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우리 고유의 가마솥 밥맛을 낼 수 있고 생선찜, 고기찜, 죽 등 각종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기, 즉 한국형이면서 서구형인 그리고 특히 외제 전기밥솥에 앞서 한국적 밥맛에 승부를 걸고, 전기 압력보온밥솥인 “모닝컴”을 개발하여 97년 매출액은 약 300억원을 넘어섰다. 1997년형 신 모델(707H)부터 생산되는 제품에는 기존의 기능에 한 단계 더 추가하여 보온시 75℃의 미지근한 상태에서 재가열 기능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짧은 시간 안에 온도를 급상승시켜줌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새로 지은 밥처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98년 신 모델에 이어 99년에는 지금까지의 모델과는 차별화된 기존 용량과 동일한 신 모델과 소형모델(120E - 마법의성), 수출형 모델(77E)을 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홍삼액으로 만들 수 있는 대용 홍삼증탕기를 개발하여 2000년 매출목표 4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동아일렉콤 - 1976년에 창업한 동아일렉콤은 Energy System 전문기업으로 Converter, Rectifier, BMP, RMS 등 Power 관련 모든 제품의 Solution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한국의 통신산업 발전의 주역으로써 TDX(한국형 전전자교환기) 개발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ATM교환기,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CDMA방식의 이동 전화시스템(Cellular, PCS) 및 IMT-2000용 Energy System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특수장비 및 위성통신용 Power도 개발하고 있다. 한국시장에서는 5400만 회선의 유선, 무선 및 DATA 통신용 Energy system 수요의 85%를 개발·공급하고 있는 동아일렉콤은 세계 24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SP-30 전자 교환기용 DC/DC Converter를 개발하고 베트남 VNPT로부터 국가표준제품으로 선정되었으며, 호주에서 개최된 제27회 시드니올림픽에 맞추어 다량의 CDMA방식 이동통신용 Energy System을 공급하여 단 1건의 장애도 없이 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의 기술력이 인정되어 Lucent사 및 세계 굴지

의 통신 시스템 제조회사로부터 제품개발을 의뢰 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년매출액은 812억이며, 매출총이익은 190억이다. 2000/10 베트남 SPT사와 경영협력 계약, 2000/ 6 CENIX 지분 참여 (6백만불), 2000/ 4 싱가포르에 SLD Telecomm 설립하였다.

- 삼성전재(주) - 반도체는 정보통신, 디지털 미디어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3대 핵심 사업으로 2000년,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TFT-LCD 분야에서 매출액 136억불을 기록, 8년 연속세계 메모리 시장, 3년 연속 TFT-LCD시장 정상제패라는 역사적 기록을 수립, Memory, System LSI 그리고 TFT-LCD 사업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세계 최고의 Semiconductor Solution Provider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 삼성전자는 6조 1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이는 우리 나라 전체 상장제조업체 496사의 이익규모와 맞먹는 액수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금액의 약 80%가 반도체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삼성은 선진국에 비해 반도체 사업에 늦게 뛰어들었지만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로 세계 반도체 업계를 주도하고있으며 이미 94년과 96년 세계 최초로 256M와 1G DRAM을 개발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입증하였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 및 TFT-LCD산업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였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만 약 8조 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삼화텍콤(주) - 1956년 이래로 삼화는 전자제품의 주요부품 및 관련품을 생산하는 전자재료 및 부품의 세계 최대 제조업체 중의 하나로 4억 3천만불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지에서 생산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가 고객과 더욱 가까이 있고 세계시장에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사무소들을 두고 있다. 삼화는 한국 및 세계에 약 7천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해외에 생산시설 및 마케팅 기지들을 운영하고 있다.

- (주)알에프텍 - (주)알에프텍은 이동통신 단말기 부가제품, EMBEDDED SYSTEM, MP3 RECORDER, LOW-END 이동통신 단말기의 4개 사업군을 갖추고 세계적 수준의 종합 정보통신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은 HANDS FREE KIT, 충전기, 배터리, DLA, DLC등 이동통신 단말기 부가제품과, ADSL, CABLE MODEM, HOME PNA 등의 EMBEDDED SYSTEM 기기, MP3 RECORDER, PRINTER MEC-CARRIAGE, 이동통신 단말기 모듈 등의 정보통신 제품이다. 연간 매출액 330억원 임직원 200명에 경상이익은 5억 3천만원이다. 판매현황을 보면 한국 SONY 전자가 가장 많은 40% (26억원)이며, H.K 수출 및 기타가 30% (19억5천만원)이고 삼성전기, 전자LG의 판매가 15%(9억7천만원), 기타내수가 15%(9억7천만원)이다.
  
- (주)언어더월드 - <http://www.anotherworld.to> - 하드웨어부문 PC 와 TV를 통하여 입체영상을 구현 할 수 있는 유·무선 LCD안경을 포함한 관련 하드웨어 Solution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부문은 각종 O/S 및 Application용 입체 가상현실 지원 드라이버, VRML 97 포맷을 실시간 입체영상으로 전환하는 VR Scape 를 포함한 입체영상 제작을 위한 다수의 툴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입체영상 및 가상현실 기술이 필요한 시스템 구축 사업과 기존의 영상관련 SI 사업을 하고 있다. 입체영상 및 가상현실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은 혁신적인 정보전달 시스템, 다양한 현실감 구현, 첨단 인터넷, 공간구현 기법과 흥미롭고 편리한 사용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이다.
  
- 재경전광산업(주) - <http://www.jaekyung.co.kr> -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재경전광산업(주)는 1994년 2월에 설립된 이래 특수전구(BR38)를 생산하여 연간 300만불의 수출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디지털 피아노용 전자건반 Mechanism의 국산화개발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동 제품의 수입대체 및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의욕이 넘치는 기업으

로서 매년 30~50%의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제품의 품질면에서도 GE Lighting사의 68품질조건 및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년 그 시장을 확장하고 있고 ISO 9000의 품질관리 system을 도입해 품질인증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럽시장에서 필요한 CE, CSA 마크도 보유하고 있다. 1997년 12월 수출 300만불을 달성하였고 1998년 12월 12일 ISO 9002를 인증획득하였다. 주사업분야는 수출 수입 제조이며 자본금 200백만원에 연간매출액은 3,100백만원 이고, 종업원수는 30명으로 연간수출액은 3,000,000달러이다.

- 제디아(주) - <http://www.jedia.com> - 제디아(주)는 음향·영상 시스템의 설계, 제조, 시공은 물론 이와 관련되는 공간연출(인테리어)을 전문으로 하는 우량업체이다. 전 임직원들이 [창의도전]·[인화단결]·[성실완벽]이란 사훈 아래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추진해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내외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계 초 일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자본금 10억원에 76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주요제품은 Power Amp, Rack Type, Mixer, Speakers, Wireless,, Auto Console 등이다.
- 진광이앤씨(주) - <http://www.jinkwang.co.kr> - 전기보호기기의 국산화개발과 해외시장개척을 목표로 설립한 연구개발투자벤처기업으로서 전기보호장치의 국산화 개발과 신제품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여 가스절연부하개폐기의 개발을 시작으로 고장구간자동개폐기, 고장구간자동 검출개폐기, 공사용개폐기, 고장구간자동 차단기 등 10여종에 이르는 제품을 국산화하여 국내는 물론 동남아시아, 중동지역 및 중남미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아울러 제품개발과 함께 품질만족을 최우선하여 ISO 9001 국제품질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EM마크, EQ마크, KT마크를 획득한 우수제품 생산, 연구개발 및 생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보호기기 전문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직원 83명에 2001년 12월 31일 예상 매출액은 220억

원이며 당기순이익 5억원이다. 주요제품으로는 가공용 배전기기 가스절연 부하개폐기,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옥내용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고장구간 자동검출 개폐기, 리크로저, 고장구간 자동차단기, 지중용 배전기기 다회로 개폐기, 다회로 차단기, 송변전 기자재 C-GIS, 철탑 추락방지 안전장치(E-Rail), 항공장애등, 스페이서 댐파, 승강기 레일, 변압기 이상가스 감지장치, Locking Spring Nut 기타 FCI(고장구간 표시기), IPC(절연관통 콘넥타), 이질금속 슬리브, 탄성접촉판, 냉환수관, 방수제(Radcon#7) 등이 있다.

- (주)K·P조명(주식회사금풍조명) - <http://www.kplighting.co.kr> - 1992년 11월 5일 설립, 종업원수 30명, 자본금 2억원으로 연간매출액 5,762백만원이며, 자연농원(현재 에버랜드)으로 잘 알려진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527-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생산품목은 조명기구(형광등기구)이며, 제품사용처는 빌딩 및 오피스텔, 일반주택에 사용하고 있다. 주요납품처로는 (주)대우건설, (주)신한, 주광전기정보통신(주), (주)승도기업 등이다.
- (주)휴맥스 - <http://www.humaxdigital.com> - 1989년에 설립된 휴맥스는 디지털 기술이 미래 정보화 사회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초기부터 과감하고 지속적인 R&D투자를 추진하였다. 1990년 R&D센터가 과학기술처로부터 연구소로 지정된 이후, 디지털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기에는 '비디오 믹스' 제품을 출시하여 주문형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가정용 노래방기기인 VCDO를 출하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동화상 가요 CD반주기는 국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였다. 1996년 이후 현재까지 디지털 방송수신기(Set-Top-Box:STB) 등 세계에서 세번째로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휴맥스가 개발한 디지털 셋탑박스(STB)는 차세대형 정보가전 단말기로 디지털 방송수요가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의 중심 제품이 되었으며 1997년 영국에 해외



생산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유럽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용인 공장의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월10~12만대의 생산규모를 갖추어 북아프리카, 중동, 러시아와 동남아 등에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셋톱박스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시장인 미국진출을 본격화(삼성전자와 미국Joint Venture회사 CrossDigital 설립)하고 있다.

- 녹십자수의약품(주) - <http://www.gcvp.co.kr> - 21세기 초우량 동물약품회사 구현, 녹십자수의약품(주)는 30년간 축적된 기술에 새로운 생물공학기술을 도입하여 한층 더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에 주력해 인류와 동물의 건강증진, 양축가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물을 위하여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녹십자의료공업(주) - <http://www.greencross.com> - 녹십자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의약품(Biopharmaceutical) 분야를 이끌어 온 국내의 대표적 연구개발 중심기업으로 1967년 창립 이래 녹십자가 걸어 온 발자취를 살펴보면, 1970년 국내 최초로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혈액분획제제 사업을, 1973년에는 뇌졸중 치료제인 유로키나제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어 녹십자의 R&D 쌍크랭크인 목암생명공학연구소와 종합연구소를 중심으로 1983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B형간염백신 개발에 성공, 국민보건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1988년에는 세계 최초로 유행성출혈열백신, 1993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두백신, 1987년 국내 최초로 AIDS진단시약 등을 개발해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차별화된 노하우와 경쟁력을 지닌 국제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지난 30여년 동안 생명공학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는 정성으로 정진한 결과 녹십자는 총매출에서 바이오의약품 비중이 70%를 넘는 유일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창립 이래 국내 업계 최고 수준인 매출액의 7% 정도를 매년 R&D에 투자해 오고 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녹십자는 1999년 기준으로 12월 결산 497개 상장법인 중 특허취득을 위한 투자 1위 기업(228억원), 총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상위 15개사에 오른 유일한 제약회사다. 녹십자는 2000년에도 158억원을 R&D에 투자해 국내 제약사 가운데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9.5%)에서도 단연 1위를 기록했다. 녹십자는 향후 2005년까지 1,320억원을 R&D에 집중 투자해 국제적 신약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에어트랙의과학연구원 - <http://www.airtrac.co.kr> - 1995년 9월 서부중앙병원에서 환자 진료 중에 휴대용 견인치료기 개발이 시작되어 1996년 1월 국내 발명 특허 출원하여 1996년 6월 17일 용인시 공장에서 연구개발을 시작했다(창립기념일). 1997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용구 제조업 허가, 의료용구 제조품목 허가(경부용 및 요부용), 제조 관리자 승인서를 획득 했다. 2001년 1월 Airtrac MSI Inc. (USA) 설립하여 2001년 4월 13일 일본 발명특허를 획득(제3180047호)했다.
- 일양제약(주) - <http://www.ilyang.co.kr> - 1946년 창업한 일양약품은 지난 55년 동안 “인간존중의 사명을 갖고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다”라는 기업이념 속에 보다 완벽하고 우수한 의약품의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 일양약품은 1957년 첫 발매한 한국인의 소화 위장약 『노루모』, 71년 국내 최초로 발매한 정통 고려인삼 드링크 『원비디』, 85년 발매한 영지버섯 드링크의 대명사 『영비천』을 비롯하여 간질환 및 장질환 치료제, 항진균제 및 항생제, 노인성 및 갱년기 질환 치료제, 혈액순환 개선제, 고혈압 치료제, 이노제, 감기·호흡기질환 치료제, 진통·해열·소염제, 종합영양 수액제, 소화 및 제산제, 안질환용제, 항히스타민 진통제, 정신신경용제, 진단시약, 비타민 및 자양강장제, 건강음료, 살충제 등 200여종의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전세계 주요 30여 개국에 각종 완제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현지에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 및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의

약품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질병 없는 아름답고 건강한 2000년대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차세대 위궤양 치료제 IY-81149』, 『간장질환 치료제 G009』 등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하는데 노력하는 기업이다.

- (주)티앤엘 - <http://www.tnl.co.kr> - (주) T&L은 고분자 기술 중심의 제품 생산업체로서 '자연을 생각하는 창조적인 정신으로 인간의 풍요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기업이 되자' 는 이념 아래 1998년 6월 9일 경기도 용인에서 설립하여 폴리우레탄 소재를 중심으로 정형외과용 Casting tape과 Splint, 고기능성 수지 및 환경친화 수지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주 생산품인 Cast와 Splint는 중국, 이란, 파키스탄, 이집트 등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오페수 처리용의 미생물 담체용 PU Form, 투습방수포용 건식무공형 폴리우레탄 수지, D/C 코팅용 수성 폴리우레탄 수지, Lamination용 수성 PU 수지, Hybrid type의 수성 Resin, 접착용 수성 PU 수지, 특수용도의 습식 합성 피혁용 폴리우레탄 수지, 등의 기능성 폴리우레탄 수지와 Elastomer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다. 또한 2000년 5월 4일 에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고(산업기술진흥협회), 2000년 5월 27일에는 수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중소기업청)되었으며 2000년 6월 15일에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경기도)된 바 있다.

☞ 허윤(서강대 교수)

이

백

## 제4장 용인시 첨단산업 현황과 분석



### 제1절 농업의 역사

농업은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물을 얻어내는 활동으로 구석기시대에 이미 보리를 재배하였던 흔적을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1만~1만 2천년 전의 원시민족인 호서인(湖棲人)의 유적에서도 인류가 작물을 가꾸었던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신석기 시대인 기원전 5000~4000년경에는 밀·보리·조·아마 등의 작물이 재배되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2700년경인 신농시대(神農時代)에 이미 5곡이 재배되었다. 그러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게 되고 천연적·기상적인 재해 등에 의한 자연채취 자원의 부족이 자주 발생하면서 더 많은 동식물 생산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농업과학이 고도로 발달하여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증대하면서 동식물의 고차원적인 육성과 취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의 조상들은 신석기시대에 대륙으로부터 한반도로 이동해 왔다고 하며, 세계적으로는 신석기시대에 이미 농경이 시작되었고, 인접국인 중국 대륙이 세계농업의 기원지(起源地)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어 한국농업의 기원은 선조들의 이주 당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목시대를 거치지 않고 원시적인 농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한시대에 이미 보리·기장·피·콩·참깨 등 5곡의 재배뿐만 아니라 뽕나무를 길러 누에를 치고 명주를 짜는 방법도 알려져 있었다. 또한 김해의 패총에서는 소·말의 뼈와 함께 탄화된 쌀 덩어리가 나오고 이와 함께 한(漢)나라의 고전(古錢)도 출토되고 있어 중국의 전한(前漢)시대에 해당하는 삼한시대에 이미 벼도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국시대에 들어서는 농업이 현저히 발달하여 고구려에서는 1세기 초에 미개시대를 특징짓는 원예 및 식량작물이 재배되었고 짐승으로 쟁기를 끄는 단계에 이르렀다. 백제는 5곡과 함께 과일·채소·삼·뽕나무·약용식물 등이 재배되었고 양조(釀造)·가축사양·직물 등도 발달하였으며, 양잠법·직조법·염색법·재봉법 등이 일본에 전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신라와 더불어 논농사가 급격히 발달하여 관개수리에 관한 농업기술이 발달하였다. 신라에서도 5곡의 재배 외에 뽕나무의 재배와 견직물이 발달하였고 목축에도 힘을 썼으며 축력을 농경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서기 114년(신라 지마왕 3) 및 139년(신라 일성왕 6)의 기록에 의하면, 보리·콩은 1년 1작 또는 1년 2작의 작부형식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수서(隨書)》에 의하면, 논에 보리를 재배하는 2모작 형태의 농업이 이루어졌고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24~56년에 쟁기의 원형이 나타났고, 지증왕·문무왕시대에는 축력쟁기·쇠가래·괭이·낫·호미 등이 제작되었다고 한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각종 식용작물·섬유작물·유료작물(油料作物)·약용작물과, 과수·채소·관상식물 등이 재배되었으며, 농기구도 철제화하였고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토지는 공전(公田)으로 규정하였으나 후기에는 토지의 사유화가 성행하였고 농민계급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는 여러 곳의 제방과 보를 수축 및 개축하여 관개농업의 발전을 도모하였고 세제 혜택을 주어 토지개간사업을 실시하는 등 토지개발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벼농사가 상당히 보급되어 쌀의 경제적인 위치가 매우 높아져 986년(성종 5)까지 국가의 저장곡물이 조[粟]였던 것이 이때에 처음으로 쌀을 저장하는 기관으로서 의창(義倉)을 창설하는 동시에 쌀과 조를 공조(公租)의 수납곡물로 하였다. 한편, 1356년(고려 공민왕 5) 문익점(文益漸)에 의하여 목화가 도입되었고, 닳나무·배나무·밤나무·대추나무 등도 재배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토지공유제가 확립되고 집권봉건적인 토지 지배관계가 완성되어 고려 초기에는 전시과가 확립 실시되었으나 후기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공전제를 원칙으로 토지경제의 합리화를 위한 권농정책을 펴서 농사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집권 봉건주의 시대를 이루었다. 농경지를 조사하여 조세의 자료로 하는 동시에 치산치수와 더불어 벼농사를 권장하였으며 농사기술에 대한 농서(農書)인 《농사직설(農事直說)》, 《금양잡록(衿陽雜錄)》,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을 출간하여 권농을 하였다. 조선 초기부터 벼의 직파법과 이앙재배법이 개발 실시되었으며 건답법과 윤답법도 고안 실시되었고, 측우기가 개발되는 등 기상학도 발달하였다. 토마토·담배·고구마·감자 등도 도입 재배하게 되었고, 농작물의 품종분화도 점차 이루어졌으며 토양개량이나 시비법 등 농업기술과 맥류와 두류의 돌려짓기, 벼와 보리의 1년 2작 등도 보편화되었고, 2년 3작의 작부방식도 15세기경에 북서지방에서 보편화되었다. 이때에는 쟁기·쇠스랑·씨레·두레·가래 등의 농구가 보편화되었고, 비료로서 산야초·인분·구비·재 등이 이용되었다.

조선 말기인 1900년(광무 4)에는 잠업시험장이, 1904년에는 농사시험연구기관인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과 현대식 농업교육기관으로서의 농상공학교의 발족을 보게 되었고, 이로부터 1906년에 농림학교가 분리 발족됨으로써 근대적인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일제의 지배하에서는 식민지 농업정책에 의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고 토지를 정비하여 근대적인 토지소유제도를 확립시켰으나, 봉건제도 하의 경작농민을 근대적인 영세농으로 전락시켰다. 1918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수행된 산미증식계획(産米増殖計畵)으로 한국의 농업은 벼농사 중심으로 바뀌었고 토지개량사업을 통한 수리시설이 대규모로 확충되었으며 목화재배도 확대되었다. 품종개량과 농업기술의 개량 및 제조기와 탈곡기의 보급 등이 추진되었으나 농민들은 노동력·농산물·농토 등을 계속 착취당하였다.

8·15광복 이후에는 농업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 입안 수행되어 왔다. 1949년에는 토지개혁법에 의한 토지개혁이 실시되었고 농촌 및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농촌진흥법, 축산협동조합법 등이 차례로 수립 시행되어 왔으며, 1962년 이후에는 6차례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농업증산 또는 식량증산계획과 새마을운동의 실시와 더불어 괄목할 만한 농업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여 이른바 녹색혁명을 통하여 쌀의 자급을 달성하게 되었다. 1993년부터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계기로 개방에 직면한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여러 가지 정책이 입안 추진 중에 있다.



## 제2절 용인시 농업환경

### 1. 공간적 위치

용인시는 경기도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이천시와 광주군 서쪽은 수원시와 화성군 남쪽은 평택시와 안성시, 북쪽은 성남시의 분당과 인접하고 있다. 평균 해발고도가 85.7m로 인접 지역보다 비교적 높으며, 여름철에는 기온이 인접지역에 비하여 2~3℃가량 높고 겨울철에는 2~3℃ 가량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용인의 서북지역인 기흥읍, 수지출장소, 구성읍 지역은 인근 도시인 수원, 성남의 분당과 접하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소비 문화의 생활권이 수원 및 서울로 형성되고 최근 대단위 APT단지와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인구가 급증하는 소비 형태의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다. 동남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농축산물이 생산되는 농촌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용인시는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각종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시책에 따른 택지개발로 인하여 경지면적과 농가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 농업의 비중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 2. 지역농업의 지형 및 지세

기흥읍, 수지출장소, 구성읍이 위치한 서북부지역은 오산천과 탄천이 흐르며, 수원시 및 분당신도시와 접하여 대단위 APT와 택지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도시화 현상으로 경지율이 20%미만의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도시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동부지역은 경안천의 발원지인 팔당상수원의 최상류지로서 시청 소재지인 4개동(중앙,역삼,유림,동부)과 양지면, 포곡면, 모현면이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산맥이 기복하여 각처

에 구릉지대 및 계곡을 형성하고 있어 경지율이 20% 미만인 중·산간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동면은 경지 이용율이 20% 미만인 중간지대지만 일부 지역이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등 수리안전답이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남사면은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오산천 상류지역으로서 오산시 및 평택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송전저수지의 수리 시설을 이용한 대단위 집단농지가 분포되어 있는 등 경지율이 30% 이상인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원삼면, 백암면은 분지 형태의 지형으로서, 수리 시설이 완비된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폭이 좁은 곡간답이 경지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평야지로 형성되어 있다.

### 3.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1998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농가호수는 141만 3,017호이며, 농가인구는 439만 9,643명이다. 경기도의 경우 총 농가호수는 15만 5,240호이고 농가인구는 약 440만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같은 수치는 <표-1>에서 보듯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용인시의 총 농가호수는 8,735호이며 농가인구는 3만 3,211명으로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모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변화 (단위: 호, 명, %)

구분	전국	경기도		용인시		
	농가수	농가인구	농가수	농가인구	농가수	농가인구
1990	1,767,033	6,661,322	202,595	825,807	10,699	44,455
1992	1,640,853	5,706,793	187,554	730,482	9,971	39,851
1993	1,592,478	5,407,024	184,556	712,893	10,059	39,895
1994	1,557,989	5,167,420	182,084	694,277	9,883	38,269
1995	1,500,745	4,851,080	160,581	599,800	9,369	35,474
1996	1,479,602	4,692,040	161,456	603,112	9,596	36,153
1997	1,439,676	4,468,172	156,119	574,078	8,912	33,861
1998	1,413,017	4,399,643	155,240	572,098	8,735	33,211
증감률98/95	-5.8	-9.3	-3.3	-4.6	-6.8	-6.4

자료: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1999

용인시의 경우 1990년에 비해 농가호수는 18.4%, 농가인구는 25.3% 감소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각각 23.4%, 30.7% 감소율을 기록한 경기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은 편이다.

#### 4. 농경지 면적

용인시의 토지구성을 보면 1999년 현재 경지면적이 9,893ha인데 이 중 밭면적이 64.9%인 6,418ha이고 논면적은 35.1%인 3,475ha를 차지한다. 용인시의 전체면적은 59,655ha로 논과 밭이 16.6%를 점하고 있다. 1999년의 경지면적은 1990년의 1만 3,367ha에서 약 30%가 감소한 상태이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1990~1999년의 평균 경지면적은 1만 2,803ha로서 논이 66%인 8,446ha이고 밭이 34%인 4,357ha이다. 또한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1.32ha로서 논이 65.9%인 0.87ha이고 밭은 34.1%인 0.45ha이다.

주요국가의 농가호당 경지규모를 보면(1998년 기준) 일본 1.53ha, 영국 27ha, 미국 82ha, 캐나다 303ha, 호주 373ha 등인데 용인시

(표 2) 경지면적의 변화 (단위 : ha)

구분	경지면적			가구당 경지면적		
	합계	논	밭	합계	논	밭
1990	13,367	9,093	4,274	1.2	0.8	0.4
1991	12,827	8,701	4,126	1.2	0.8	0.4
1992	12,614	8,486	4,128	1.3	0.9	0.4
1993	12,477	8,240	4,237	1.24	0.82	0.42
1994	12,177	8,058	4,119	1.23	0.82	0.42
1995	11,280	7,423	3,857	1.2	0.79	0.41
1996	10,930	6,885	4,045	1.14	0.72	0.42
1997	9,805	6,310	3,495	1.1	0.71	0.39
1998	9,856	6,399	3,457	1.13	0.73	0.4
1999	9,893	6,418	3,475	1.18	0.77	0.41
평균	12,803	8,446	4,357	1.32	0.87	0.45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의 경우 농가구당 경지면적이 일본의 수치에도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농가구당 경지규모는 논이 많은 전북이 1.58ha로 가장 크며, 강원 1.52ha, 제주 1.51ha, 충북 1.46ha이며 경기도의 경우 1.42ha로 전국 1.36ha보다 높은 편이다. 용인시 읍면동별 농경지 분포를 면적이 큰 순서부터 살펴보면 백암면, 원삼면, 남사면, 이동면, 양지면, 모현면 순이며, 농가호수의 경우 백암면, 남사면, 원삼면, 이동면, 모현면, 포곡면 순이며, 농가인구의 경우 백암면, 이동면, 원삼면, 포곡면, 남사면의 순으로 나타났다.

## 5. 농업기상

농업은 기후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는다. 특히 기온, 바람, 강수량, 일조시수, 무상기일 등은 농업의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1) 기온

용인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기온이 11.0℃로 평균 최고기온은 19.1℃, 평균 최저기온은 3.9℃이다. <표-3>의 연도별 평균기온을 보면 1995년의 평균기온이 가장 낮았으며, 이후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강수량

농업기상 자료 중에서 강수량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용인지역의 1999년 강수량은 1,533mm이며 7~9월 사이에 내린 강수량이 1년치 강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90년으로 이 때의 강수량은 2,094mm를 기록하였고 강수량이 최저인 해는 1992년으로 1,113mm를 기록하였다.

(표 3) 기온 관측현황 &lt;단위: °C&gt;

연별 및 월별	평균기온	평균최고	평균최저
1990	12.0	17.2	6.2
1991	11.0	17.3	4.7
1992	11.3	17.3	5.5
1993	11.0	16.8	5.2
1994	11.7	18.1	5.7
1995	10.1	16.9	4.2
1996	10.6	17.0	4.7
1997	11.2	18.1	5.4
1998	12.0	19.4	6.8
1999	11.8	19.6	5.9
연평균	11.3	17.8	5.4
1월	-2.5	4.5	-8.5
2월	-0.7	8.3	-7.1
3월	4.8	15.2	-2.5
4월	12.2	22.6	4.3
5월	16.3	25.8	8.8
6월	21.8	29.4	16.2
7월	24.2	32.2	20.7
8월	24.3	32.4	20.9
9월	22.2	27.3	17.3
10월	13.2	19.7	7.0
11월	6.3	12.6	0.3
12월	-0.7	5.2	-6.7
월평균	11.8	19.6	5.9

자료: 용인시,《용인통계연보》, 각 호.

(표 4) 연도별 강우량 &lt;단위: mm&gt;

연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0	2,093.5	82.5	74.0	64.5	69.0	113.0	419.0	361.5	223.5	606.0	4.5	58.0	18.0
1991	1,222.0	16.0	39.5	23.0	58.0	106.0	118.0	456.5	94.0	226.5	24.5	25.0	35.0
1992	1,113.0	7.0	8.0	11.2	79.5	109.6	42.5	211.5	304.0	167.5	59.0	48.5	64.7
1993	1,154.5	0.2	45.5	22.0	50.5	104.2	154.0	421.0	131.0	116.8	20.7	65.5	23.1
1994	1,285.3	6.6	8.1	45.3	29.5	129.2	122.5	79.8	541.1	49.2	225.0	27.4	21.6
1995	1,504.5	26.3	3.4	37.5	32.0	48.5	54.0	317.7	902.4	23.5	18.2	32.0	9.0
1996	1,188.5	31.2	8.8	106.1	57.7	20.5	362.0	313.0	111.0	9.6	81.5	53.6	33.5
1997	1,329.6	15.7	44.3	28.0	58.5	235.5	132.5	301.0	321.6	39.0	26.0	75.0	52.6
1998	1,855.3	21.3	32.5	51.5	105.5	105.0	274.0	390.5	577.5	207.0	29.5	51.0	10.0
1999	1,533.0	11.0	1.0	61.0	91.0	102.0	85.0	324.0	266.0	465.0	99.0	20.0	8.0

자료: 용인시,《용인통계연보》, 각 호.

## 6. 농업기계화

〈표-5〉는 용인시 농기계 보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유 농기계수는 경운기, 양수기, 이앙기, 트랙터 등의 순서이다. 농기계 보유 현황의 연도별 변화형태는 영농패턴이나 규모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인력농업에서 동력농업으로 전환되었

(표 5) 농기계 보유 현황 (단위: 대)

연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양수기	탈곡기	건조기	파종기
1990	4,863	416	1,346	3,055	968	351	31
1991	4,738	627	1,570	3,672	773	354	43
1992	4,690	735	1,614	2,979	644	496	47
1993	4,588	860	1,789	2,188	191	664	642
1994	4,655	925	1,946	2,233	91	815	504
1995	4,895	1,012	2,190	2,241	63	880	591
1996	4,921	1,092	2,175	2,280	60	612	67
1997	4,434	1,098	2,033	2,970	37	1,022	97
1998	4,623	1,320	2,386	2,621	30	866	81
1999	4,661	1,403	2,363	2,399	8	765	55
평균	4,707	949	1,941	2,664	287	683	216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연별	수확기			동력방제기				
	계	바인더	콤바인	주행식 분무기			분무기	살분무기
				계	과수전용	수도일반용		
1990	653	178	475					
1991	749	144	605					
1992	778	111	667					
1993	803	65	738	2,890	9	127	2,137	617
1994	827	43	784	2,849	10	104	2,068	667
1995	855	17	838	2,730	12	100	1,975	643
1996	862	14	848	2,587	41	184	1,938	424
1997	768	18	750	2,420	17	148	1,897	358
1998	820	30	790	1,575	21	172	1,073	309
1999	861	21	840	1,356	18	198	924	216
평균	331	64	734	1,134	18	148	1,716	462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음을 보여준다. 경운기는 10마력 정도의 중간 규격으로 경운·정지·운반작업에 주로 이용하는데, 지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대부분의 농가가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 보유대수도 매년 변화하였는데, 10년(1990년~1999년) 간의 연평균 보유대수는 경운기 4,707대, 트랙터 949대, 이앙기 1,941대, 양수기 2,664대, 탈곡기 287대, 건조기 683대, 파종기 216대, 수확기 332대, 주행식분무기 1,134대이다. 경운기의 수는 1993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나 9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탈곡기, 바인더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7. 비료

비료의 생산수급을 보면 화학비료의 생산량은 자급도를 훨씬 초과하여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으나 1980년대 말 이후에는 생산량의 증가가 별로 없으며 소비량도 증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큰 변동이 없다. 농약의 생산량 및 출하량도 계속 증대되어 왔으며 특히 수도용 농약의 사용량이 계속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원료생산이 자

(표 6)

비료공급

〈단위: M/T〉

연별	성분별					종류별								
	계	질소질	인산질	가리질	기타	계	유안	요소	과석	중과석1)	용성인비	염화가리2)	복합비료	용과린
1990	3,511	1,797	814	900		6,897	68	1,914		13	29	175	4,651	47
1991	3,368	1,745	785	838		6,616	101	1,842		14	28	122	4,479	30
1992	3,365	1,771	749	845		6,708	136	1,862		15	19	121	4,541	24
1993	6,522	1,745	704	826	3,247	6,522	97	1,839			22	112	4,432	20
1994	6,235	1,529	711	816	3,179	6,235	202	1,426	38		139	133	4,297	
1995	6,053	1,613	472	762	3,006	6,053	98	1,653			21	78	4,179	24
1996	5,502	1,490	576	689	2,747	5,502	73	1,551			15	68	3,781	14
1997	5,619	1,504	575	700	2,840	5,619	79	1,529			19	54	3,916	22
1998	6,076	1,598	597	729	3,152	6,076	76	1,601			22	51	4,323	3
1999	6,386	1,657	605	752	3,372	6,386	87	1,625			10	50	4,608	6

주1) 중과석란에는 토양개량제 입력

주2) 염화가리에 황산가리 포함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급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원자재와 합성원료를 수입하고 있다. <표-6>은 지난 10년간 용인시 비료공급을 성분별,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 제3절 용인시 농산물 생산현황

농작물은 대체로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과실류 등으로 구분되며, 용인지역의 작물별 생산량을 연도별로 총괄하면 <표-7>과 같다. 식량작물은 1990~1999년 평균 식부면적 8,095ha에서 3만 6,632M/T가 생산되었고, 채소류는 식부면적 822ha에서 1만 6,848M/T가, 특용작물의 경우 626ha에서 548M/T, 과실류의 경우 식부면적 113ha에서 2,505M/T가 생산되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 7) 연도별 농작물 생산고 (단위 : ha, M/T)

구분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과실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0	9,555	40,781	318	6,583	1,273	924	140	2,365
1991	6,434	41,146	321	7,030	1,140	1,886	105	10,422
1992	8,915	38,612	335	7,544	1,017	703	122	1,322
1993	7,811	36,210	216	4,687	904	600	110	1,376
1994	8,291	36,577	155	3,418	802	570	94	1,301
1995	8,062	36,331	1,213	16,198	379	279	109	1,297
1996	7,745	37,708	1,689	37,885	362	260	114	1,413
1997	6,763	33,574	1,677	37,313	115	80	119	1,914
1998	6,750	31,774	1,722	25,860	112	77	109	1,815
1999	6,725	33,610	577	21,963	157	105	109	1,829
평균	8,095	36,632	822	16,848	626	548	113	2,505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1. 식량작물

1999년 현재 용인지역 식량작물 식부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6,725ha와 3만 3,610M/T이다. <표-8>은 식량작물의 연도별 식부면적과 생산량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다. 표에 따르면 식량작물 생산량의 대부분은 미곡임을 알 수 있다. 1999년의 경우 미곡 생산량은 3만 1,306M/T인데, 이는 식량작물 생산량의 93%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맥류는 1990년 16ha에서

32M/T를 수확하였는데, 1994년 이후에는 경작농가가 없어 통계에서 빠졌다. 잡곡류는 65ha에 187M/T을, 두류는 542ha에서 815M/T을 서류의 경우 79ha에서 1,302M/T을 생산하였다. 이상에서 기술한 식량작물 중 두류를 제외한 모든 작물이 근년으로 올수록 면적과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대 변화에 따라 식량작물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1) 미곡(쌀)

(표 8)

용인시 식량작물 생산량

〈단위 : ha, M/T〉

구분	합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0	9,555	40,781	8,800	36,696	16	32	66	161	506	754	168	3,138
1991	9,434	41,146	8,726	37,085	3	7	34	94	495	662	176	3,298
1992	8,915	38,612	8,405	36,562			24	65	405	522	81	1,463
1993	8,711	36,210	8,025	32,903	2	4	57	145	492	625	135	2,533
1994	8,291	36,577	7,703	33,893			53	140	427	605	108	1,939
1995	8,062	36,331	7,490	33,705			51	131	414	560	108	1,935
1996	7,745	37,708	7,147	34,663			54	135	419	580	125	2,330
1997	6,763	33,574	6,118	30,341			49	129	451	611	145	2,493
1998	6,750	31,774	5,986	28,706			60	169	582	881	122	2,018
1999	6,725	33,610	6,039	31,306			65	187	542	815	79	1,302
평균	8,095	36,632	7,444	33,586			51	136	473	661	125	2,245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한반도에서 쌀이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3천년이 넘는다, 그후 오랜 세월 동안 쌀은 우리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자리잡아 왔다. 쌀과 관련된 속담이나 풍속이 유별나게 많은 민족이 우리이다. 이렇듯 미곡(쌀)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이고 전체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는 기본산업으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서 미곡은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소득과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경제작물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벼농사정책은 증산을 위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최대의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쌀 생산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

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UR협상의 타결로 1997년 이후 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한 수입이 개방되면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쌀시장이 완전개방되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즉 생산비를 가장 적게 투입하여 최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원칙에 입각한 재배기술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겠다.

1990~1999년 용인지역의 평균 미곡 재배면적은 7,354ha이고 생산량은 3만 3,586M/T이었다. 10ha당 생산량은 1990년 417kg이었던 것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518kg이 되었다. <표-9>에서 알 수 있듯이 논벼의 재배면적은 지난 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에 있다.

1990년 8,800ha에 이르던 면적은 1999년 현재 6,039ha로 무려 31%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생산량 또한 15% 감소하였다. 면적 감소분에 비해 생산량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 즉 토지생산성이 같은 기간 증가했기 때문이다.

## 2) 맥류(보리)

(표 9) 미 곡 〈단위 : ha, M/T〉

연별	합계		논벼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kg/10a
1990	8,800	32,696	8,800	32,696	417
1991	7,826	37,085	8,726	37,085	425
1992	8,405	36,562	8,405	36,562	435
1993	8,025	32,903	8,025	32,903	410
1994	7,703	33,893	7,703	33,893	440
1995	7,490	33,705	7,490	33,705	450
1996	7,147	34,663	7,147	34,663	485
1997	6,118	30,341	6,118	30,341	496
1998	5,986	28,706	5,986	28,706	780
1999	6,039	31,306	6,039	31,306	518
평균	7,354	33,586	7,444	33,586	486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맥류는 근래에 와서 식량으로서의 비중과 소득성 저하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재배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1990년 이후 용인지역의 맥류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맥류의 재배면적이 거의 없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식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생산성이나 소득이 높은 대체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3) 잡곡

1990~1999년 용인지역의 평균 잡곡 재배면적은 51.3ha이고 생산량은 135.5M/T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수의 경우 1991년 이후 조, 메밀은 1997년 이후 미곡증산과 식생활 개선에 따라 농가에서 자가소비조차 하지 않게 되어 1997년 이후에는 거의 재배되지 않고 있다. 잡곡 중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옥수수인데 옥수수의 경우 1970년부터 축산업의 발달과 함께 재배가 늘어났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1988년 옥수수 수입량은 전국적으로 500만M/T를 상회한 바 있다. 용인시의 경우 1997년 이후 옥수수의 생산량이 급증하여 1999년 식부면적 44ha에서 161M/T를 생산하였다.

(표 10) 잡 곡 (단위 : ha, M/T)

연별	합계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0	66.0	161.0	0.2	0.4	0.7	1.5	64.9	159.1				
1991	34.0	94.0	3.0	3.0			30.0	90.0	1.0	1.0		
1992	23.9	64.5	2.1	2.1			19.2	59.9	2.6	2.6		
1993	57.0	145.0	5.0	5.0			35.0	116.0	3.0	3.0	14.0	21.0
1994	53.0	139.4	4.0	4.0			31.0	110.4	4.0	4.4	14.0	20.6
1995	50.8	131.1	4.0	4.0			28.8	102.2	4.0	4.4	14.0	20.5
1996	54.0	135.0	4.0	4.0			30.0	107.0	5.0	6.0	14.0	18.0
1997	49.0	129.0					29.0	100.0			20.0	29.0
1998	60.0	169.0					40.0	140.0			20.0	29.0
1999	65.0	187.0					44.0	161.0			21.0	27.0
평균	51.3	135.5					35.2	114.6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4) 두류

된장, 간장, 콩나물, 두부 등 콩을 이용한 전통식품의 비중이 우리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콩을 이용한 식품들이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우리나라의 콩 소비량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소비하는 실정이다. 콩은 발작물로서 전국적으로 맥류 후작인 윤작상태로 재배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작물의 후작으로 재배되고 있다. 특히 콩은 소득성이 낮다 하더라도 발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량하여 줄 뿐만 아니라 경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배할 가치가 있는 작물이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용인지역의 평균 두류 재배면적은 470ha이고 생산량은 701M/T이다. 두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콩의 경우 지난 10년간 평균 재배면적 305.8ha에서 514M/T을 생산하였고, 팥은 68ha에서 65M/T, 녹두는 13ha에서 16M/T를 생산하였다. 기타 작물은 52.1ha에서 61.3M/T를 생산하였다. <표-11>에서 우리는 용인시의 경우 콩과 팥, 녹두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두 류 &lt;단위 : ha, M/T&gt;

연별	합계		콩		팥		녹두		기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0	506.0	754.0	491.1	737.0			10.9	12.5	4.0	4.5
1991	495.0	662.0	100.0	568.0	75.0	71.0	5.0	5.0	15.0	1.8
1992	404.6	521.9	275.5	385.37	60.3	56.9	10.8	10.8	16.5	19.9
1993	492.0	625.0	310.0	425.0	70.0	66.0	10.0	10.0	102.0	124.0
1994	427.0	1,032.7	294.0	461.6	61.0	56.1	7.0	8.0	65.0	88.0
1995	413.6	560.1	280.3	416.5	61.0	57.6	7.3	8.0	65.0	78.0
1996	419.0	580.0	267.0	419.0	80.0	74.0	7.0	7.0	65.0	79.0
1997	419.0	580.0	290.0	441.0	84.0	81.0	17.0	19.0	60.0	70.0
1998	582.0	881.0	385.0	667.0	100.0	96.0	30.0	41.0	67.0	77.0
1999	542.0	815.0	365.0	62.02	89.0	86.0	26.0	38.0	61.0	71.0
평균	470.0	701.2	305.8	514.1	68.0	64.5	13.1	15.9	52.1	61.3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5) 서류

고구마의 원산지는 멕시코에서 남아메리카 북부에 이르는 지역으로 추정되며 원종(原種)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약 2,000년 전부터 중·남아메리카에서 재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신대륙을 발견한 당시에는 원주민들이 널리 재배하였는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서 에스파냐에 전해졌고 그 뒤 필리핀, 중국의 푸젠성(福建省)에 전해졌으며 차차 아시아 각국에 퍼졌다. 우리나라는 1763년(영조 39) 조엄이 일본 대마도로부터 처음 도입하여 구황작물로 재배되었다. 주로 아시아·아프리카에서 재배하며 서양에서는 생산량이 적으며, 중국·인도네시아·한국·브라질 등지에서 많이 재배한다. 용인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평균 재배면적 196ha에서 2,239M/T의 서류를 생산하였다. 이 가운데 고구마는 평균 재배면적 44.6ha에서 828M/T을 생산하였고, 감자의 경우 80ha에서 1427M/T을 생산하였다. 1999년의 경우 고구마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1,026M/T에 이른 반면 감자는 같은 기간 67%나 감소한 377M/T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표 12) 서 류 〈단위: ha, M/T〉

연별	합 계			고구마			감자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생서	정곡		생서	정곡		생서	정곡
1990		3,138.0		34.7	725.0		133.3	2,413.0	
1991	168.0	3,298.0	751.0	40.0	836.0	259	135.0	2,462.0	492
1992	176.0	1,463.4	340.0	21.4	430.1	133.3	59.9	1,033.3	206.7
1993	813.0	2,531.0		60.0	1,206.0		75.0	1,325.0	
1994	135.0	1,942.1		33.0	619.1		75.0	1,323.0	
1995	108.0	1,935.0		31.9	597.6		75.8	1,337.4	
1996	107.7	2,330.0		50.0	962.0		75.0	1,368.0	
1997	125.0	2,330.0		60.0	983.0		85.0	1,510.0	
1998	125.0	2,018.0		56.0	896.0		66.0	1,122.0	
1999	122.0	1,404.0		59.0	1,026.0		20.0	377.0	
평균	79.0	2,239.0		44.6	828.1		80.0	1,427.1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2. 채소류

채소는 비타민과 철분, 칼슘, 칼륨 등과 같은 무기질이 풍부하고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균형있는 식단구성과 건강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채소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채소류는 부식, 간식, 후식으로 애용될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호박, 완두, 강낭콩 등의 경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채소는 통상 생육기간이 짧으며 고추·마늘·양파 등 몇몇 종류를 제외하면 장기 저장이 힘들고 신선한 상태로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계절 생산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배적기가 아닌 때에도 재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노동력,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용인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에 인접해 소비시장이 크고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현재 용인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채류는 수박·참외·딸기·오이·토마토 등이며, 엽채류는 배추·시금치·상추·양배추, 근채류는 무·당근, 조미채소로는 고추·파·양파·생강·마늘 등을 꼽을 수 있다. 1998년 이후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8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90년 318ha에서 6,582M/T이 생산되었으나 1999년 현재 67%감소한 105ha에서 2,896M/T이 생산되었다.

엽채류의 49%를 차지하는 배추의 경우 지난 5년 간의 평균면적은 155ha에 생산량은 1만 7,200M/T이다. 배추의 생산량은 1996년 급증하였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이다. 근채류는 무우가 당근에 비해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조미채소인 고추의 경우 1995~1999년까지 평균 443ha에서 179M/T, 파인 경우 255ha에서 2,350M/T이 생산되었다. 지난 10년간 용인지역 채소류 생산량은 다음 표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13)

채 소 류

〈단위 : ha, M/T〉

연별	과 채 류										
	계		수박			참외			딸기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1990	318	6,582	105	1,971	1,877	40	668	1,690			
1991	321	7,030	97	2,152	2,216	33	586	1,776			
1992	335	7,544	78	1,632	2,087	25	417	1,681			
1993	216	4,687	59	1,197	2,028	15	257	1,606			
1994	155	3,418	32	628	1,943	9	135	1,498			
1995	160	3,332	50	967	1,946	9	130	1,477	1	10	1,111
1996	328	7,316	87	1,696	1,949	12	179	1,492	2	23	1,150
1997	324	7,256	90	1,756	1,951	12	195	1,625	1	11	1,100
1998	670	3,389	52	1,138	2,200	13	200	1,538	2	16	1,000
1999	105	2,896	5	116	2,218	9	178	2,092	2	30	1,500
평균	293	5,345	66	1,325	2,042	18	294	1,648	2	18	1,172

연별	과 채 류								
	오이			호박			토마토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1990	134	3,045	2,274	25	462	1,827	15	437	2,993
1991	143	3,331	2,323	36	620	1,727	12	341	2,965
1992	174	4,217	2,425	67	622	1,654	21	656	3,109
1993	107	2,546	2,384	29	497	1,729	6	190	3,026
1994	78	1,784	2,296	33	517	1,590	4	106	2,789
1995	53	1,354	2,535	42	725	1,718	5	146	2,863
1996	124	3,301	2,662	92	1,752	1,904	11	365	3,318
1997	116	3,031	2,613	94	1,867	1,987	11	396	3,600
1998	561	1,228	2,200	37	629	1,700	5	178	3,300
1999	66	2,020	3,188	17	352	2,133	6	200	3,526
평균	156	2,586	2,490	44	804	1,797	10	302	3,149

연별	엽 채 류													
	계		배추			시금치			상추			양배추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1995	110	2,571	33	1,402	4,313	25	346	1,384	22	40	1,823	30	783	2,610
1996	482	21,790	208	16,072	7,727	110	1,773	1,612	89	1,870	2,101	75	2,075	2,768
1997	494	21,304	199	15,168	7,622	127	2,151	1,694	112	2,345	2,094	56	1,640	2,929
1998	321	15,875	149	13,203	8,861	53	582	1,1081	105	1,580	1,500	14	510	3,600
1999	362	17,473	186	13,926	7,476	46	794	,653	91	1,677	1,995	39	1,076	2,782
평균	354	15,803	155	11,954	7,200	72	1,129	1,490	84	1,502	1,903	43	1,217	2,938



연별	근채류							
	계		무우			당근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1995	64	1,872	59	1,781	3,018	5	91	1,750
1996	512	18,904	499	18,663	3,740	13	241	1,854
1997	290	11,780	279	11,541	4,137	11	239	2,173
1998	219	9,524	209	9,350	4,474	10	174	1,800
1999	253	9,990	246	9,880	4,025	7	110	1,594
평균	268	10,414	258	10,243	3,879	9	171	1,834

연별	조미채소																	
	계			고추			파			양파			생강			마늘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1995	879	8,423	958	485	913	188	268	6,502	2,481	-	-	-	-	-	-	126	1,005	795
1996	998	8,779	880	525	877	167	283	6,549	2,314	-	-	-	-	-	-	190	1,353	712
1997	859	8,753	-	406	684	168	291	6,772	2,327	-	-	-	-	-	-	162	1,297	801
1998	731	6,596	902	375	667	178	214	4,941	2,309	-	-	-	-	-	-	142	988	696
1999	795	6,931	872	426	821	193	219	5,069	2,318	-	-	-	-	-	-	150	1,041	694
평균	852	7,896	355	443	792	179	255	5,967	2,350							154	1,137	740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3. 과실류

1999년 현재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과실류를 생산량 순으로 살펴 보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등의 순서이다. 지난 10년간(1990~1999) 평균 과수 재배면적은 113ha이고 생산량은 1,095M/T이다. 이중 사과는 연평균 생산면적 53ha에서 1,651M/T를 생산하고, 배의 경우 28ha에서 1,860M/T 생산하고 있다. 연도별 과실류의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14>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과와 배는 1992년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기타 과실류는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든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과실류의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식생활 패턴이 서구식으로 바뀌고 과실을 이용한 각종 음료수 판매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과실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과

실류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 토종 과실류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영농방식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수량위주의 생산방식을 탈피하고 품질향상과 다양한 가공형태, 수출상품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 14) 과 실 류 <단위 : ha, M/T>

연별	합계		사과			배			복숭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1990	140	2,365	71	1,242	1,742	24	519	2,209	11	144	1,272
1991	105	10,422	53	9,541	1,797	22	551	2,504	11	83	754
1992	122	1,322	60	683	1,138	27	323	1,217	11	85	752
1993	110	1,376	60	570	1,200	28	636	2,000	9	72	770
1994	94	1,301	49	637	1,268	25	477	1,907	9	79	883
1995	109	1,297	50	608	1,211	29	425	1,602	8	77	967
1996	114	1,413	50	686	1,400	27	478	1,750	8	61	756
1997	119	1,914	49	1,022	2,193	32	622	1,936	8	54	679
1998	109	1,815	43	1,004	2,357	34	578	1,725	8	54	679
1999	109	1,829	46	1,004	2,200	35	608	1,752	8	59	744
평균	112.96	1,095	53.15	1,700	1,651	28	522	1,860	92	77	826

연별	사과			자두			감			기타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1990	33	460	1,380							0.1	800	0.8
1991	18	247	1,341									
1992	24	231	976									
1993	13	98	790									
1994	11	108	985									
1995	18	147	810				3	30	1,000	1	10	1,000
1996	18	117	648				3	27	850	7	44	629
1997	19	147	785				3	17	555	8	352	646
1998	19	145	778	1	1	1,000	3	15	600	1	18	1,314
1999	20	159	802									
평균	19	186	930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4. 특용작물

특용작물은 크게 유료작물(참깨·들깨·땅콩·유채·해바라기·아주까리), 섬유작물(목화·대마·저마·완초·골풀·수세미·양마·청마), 전분·당료작물(구약감자·율무·마·구아·사탕무·단수수·스테비아·감차), 향료·향신료작물(박하·길초·와사비·겨자), 기호료작물(담배·차나무·호프·치커리), 약료작물(맥문동·오비자·두충·사삼·작약·산약), 수지료작물(옷)로 구분된다.

용인지역의 특용작물은 대부분 유료작물로 참깨와 들깨 및 땅콩으로 대표된다. 1998년 현재 참깨의 경우 54ha에서 63M/T을 생산하였는데, 1990~1999년 평균재배면적 309ha에 비해서는 재배면적이 줄어든 편이다.

들깨 역시 1999년 현재 92ha에 79M/T로 지난 10년 평균 재배면적 300ha에 비하면 경작면적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땅콩의 경우 1999년도에는 재배하는 농가가 없다. 이유는 중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와 농가에서 가격경쟁력 저하로 작물 생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연도별 특용작물 생산량의 집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5) 특용작물 (단위: ha, M/T)

연별	참깨			들깨			땅콩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면적	생산량	(M/T)
1990	669	431	64	560	420	75	44	74	154
1991	530	348	64	554	424	76	56	114	168
1992	505	271	55	475	363	76	37	69	185
1993	470	264	56	429	326	75	5	10	182
1994	367	244	66	428	313	73	7	14	193
1995	191	118	62	177	136	77	11	24	222
1996	180	110	61	172	127	73	10	23	230
1997	55	34	63	59	44	74	1	2	400
1998	54	34	63	58	42	70	0	1	300
1999	65	32		92	73	79			
평균	309	189	50	300	227	75	115	126	139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5. 추곡수매실적

용인지역 추곡수매실적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UR협상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수매실적을 보면 199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급별로 보면 1등급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종자나 교환양곡이 아닌 모두 일반매입이다.

(표 16)

추곡수매실적(정곡)

(단위 : kg)

연별	실적	등급별				종류별			
		1등	2등	동외	잠정동외	일반매입	종자	교환양곡	기타(회수)
1990	3,150,720	2,835,320	305,040	10,360		3,450,720			
1991	6,315,720	5,835,880	469,240	10,600		3,615,720			
1992	8,769,400	7,980,560	766,360	22,480		8,769,400			
1993	10,646,840	9,293,280	894,120	234,680		10,464,840	840		
1994	11,439,680	10,562,560	876,560	560	42,760	11,439,680	60		
1995	8,172,120	7,007,640	1,140,680	23,800		8,172,120			
1996	5,696,840	5,524,200	172,640			5,696,840			
1997	6,760,080	6,520,680	233,360	6,040		6,760,080			
1998	3,781,699	3,565,526	201,917	14,256		3,781,699			
1999	3,863,000	3,686,000	157,000	20,000		3,863,000			
평균	6,841,410	6,281,165	521,692			6,871,410			

자료 : 용인시, &lt;용인통계연보&gt;, 각 호.

## 제4절 기타

### 1. 농업진흥지역

용인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필지수는 1999년 현재 38,301필지이며 면적은 6,101ha이다. 이 중 농업진흥구역이 23,603필지에 4,096ha이며, 농업보호구역이 14,698필지에 2,004ha에 이른다. 참고로 용인시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수는 1999년 현재 29,707명이며 예산액은 226억에 이른다. 농지개량조합의 혜택면적은 16,663ha이다.

### 2. 농지전용허가현황

1998년 867건에 2,185,122m<sup>2</sup>였으나 1999년에는 건수면에서 33% 상승한 1,302건에 1,985,572m<sup>2</sup>인 것을 알 수 있다.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의 농지전용허가가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이 1998년 43건에서 1999년 41건으로 줄어든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 같은 기간 706건에서 1,135건으로 38% 증가한데서 기인하였다. 민간부문의 경우 공장시설과 주거시설은 전용건수가 늘어났다.

(표 17)

농업진흥지역 지정

〈단위 : ha〉

연별	합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Field Number	Area	Field Number	Area	Field Number	Area
1994	37,366	5,903	22,645	3,899	14,721	2,004
1995	37,409	5,915	22,699	3,915	14,710	2,000
1996	37,409	5,915	22,699	3,915	14,710	2,000
1997	37,404	5,914	22,694	3,914	14,710	2,000
1998	37,872	6,099	23,162	4,099	14,710	1,999
1999	38,301	6,101	23,603	4,096	14,698	2,004

자료 : 용인시,《용인통계연보》, 각 호.

(표 18) 농지개발조합 <단위: ha, 천원>

연별	해택면적 Related area	조합원수 Uniton numbers	예산액 Budget	농업보호구역		
				면적	10a당(원)평균	총액
				Area	Per 10a(Won)	Total
1995	19,236	29,374	14,566,726	16,271	5,711	919,932
1996	16,864	29,575	29,995,599	16,813	5,951	1,000,532
1997	18,697	29,681	23,572,411	16,677	6,150	1,033,497
1998	17,011.1	29,284	12,317,652	16,415.9	6,000	1,026,376
1999	16,663	29,707	22,608,055	16185	6,300	798,174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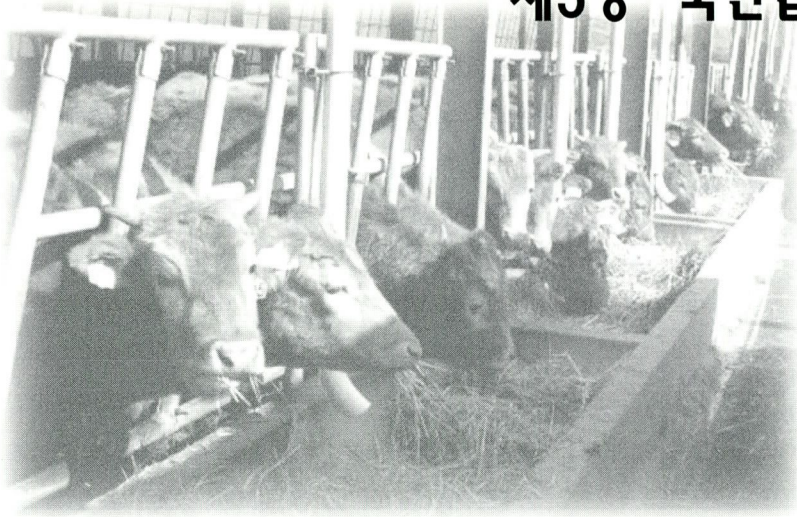
(표 19) 농지전용허가현황 <단위: ha, 천원>

연별	총계		허가, 협의전용					
			공공부문					
			소계		도로		기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998	867	2,185,122	43	543,543	30	471,383	13	73,160
1999	1,302	1,985,572	41	413,697	21	209,566	20	304,131

연별	허가, 협의전용										신고전용		임의전용	
	공공부문													
	소계		공장시설		주거시설		농업용시설		기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998	706	1,531,715	75	115,730	337	847,916	18	55,938	276	512,131	114	100,992	4	7,872
1999	1,135	1,479,772	248	508,858	493	463,690			394	507,224	126	92,103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제5장 축산업



### 제1절 용인시 가축사육 추이

용인시의 가축사육 가구호수 및 마리 수를 보면, 1999년 현재 한우의 경우 594사육가구에서 8,232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젓소는 111사육가구에서 4,394마리를, 돼지는 351사육가구에서 27만 2,192마리를, 닭은 306사육가구에서 약 227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1>은 용인시 가축사육 가구호수 및 마리 수를 가축별로 나누어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정리한 것이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1999년 현재 한우, 젓소, 돼지, 닭의 사육호수는 감소추이를 보이는 반면 사육 마리 수는 그대로이거나 돼지의 경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용인시의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가축들의 경우 마, 산양, 면양, 사슴, 토끼, 오리, 칠면조, 꿀벌 등의 사육호수와 마리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

용인시 가축사육 추이 및 현황

(단위 : 가구, 마리)

연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마필		산양		면양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1990	1,855	6,969	375	6,054	969	157,597	621	2,547,035	2	37	28	103	1	7
1991	1,539	4,982	346	5,355	834	168,568	354	1,412,428	2	56	12	292	2	8
1992	1,331	6,035	308	5,681	745	180,527	284	2,165,672	4	34	23	537	1	9
1993	1,225	7,032	277	5,735	617	188,225	218	1,757,357	3	45	48	641	1	3
1994	1,192	8,174	243	5,554	566	221,473	338	2,667,278	7	73	64	1,336	1	4
1995	1,085	8,689	274	5,243	519	241,298	282	2,776,386	5	66	66	1,682	1	3
1996	1,123	10,261	191	4,949	468	251,700	307	2,773,156	6	43	76	1,607	1	3
1997	860	9,877	164	5,028	439	272,220	305	2,446,678	8	91	59	1,895	2	11
1998	715	9,561	130	4,401	377	251,578	236	2,038,828	7	115	59	996	3	29
1999	594	8,232	111	4,394	351	272,192	306	2,268,229	11	121	48	1,264	2	25
평균	1,152	7,981	242	5,239	589	220,538	325	2,285,305	6	68	48	1,035	2	10

연별	사슴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		꿀벌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1990	106	1,886	44	1,590	1,303	13,268	37	3,670	7	43	11	30	176	2,780
1991	113	1,806	42	1,514	6,093	13,494	67	24,694	3	9	25	117	119	2,043
1992	122	1,965	67	1,876	5,301	14,618	57	28,297	8	40	13	83	88	1,679
1993	118	1,978	74	2,295	5,036	12,513	49	34,994	14	58	10	34	91	2,193
1994	151	2,277	74	6,793	6,457	13,847	69	49,316	6	15	14	44	79	2,266
1995	123	2,184	38	5,703	5,084	14,961	51	51,245	6	22	18	48	73	2,266
1996	138	2,333	68	5,282	4,605	18,464	82	216,081	3	9	20	60	69	2,048
1997	139	2,289	65	8,827	4,749	20,683	88	128,175	6	16	20	60	94	2,275
1998	139	2,302	84	6,510	4,271	17,857	75	111,573	6	22	10	42	104	2,932
1999	148	2,396	87	10,767	4,151	17,759	106	160,689	10	45	10	21	108	4,017
평균	130	2,142	64	5,116	4,705	15,746	68	80,873	7	28	15	54	100	2,450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표 2)

경기도 대비 용인시 가축사육 비중(1999년)

(단위 : 가구, 마리)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마필		산양		면양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경기도	14,080	189,098	5,773	202,993	3,397	1,971,835	22,662	24,632,461	68	2,048	1,236	27,530	3	30
용인시	594	8,232	111	4,394	351	272,192	306	2,268,229	11	121	48	1,264	2	25



	사슴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		꿀벌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사육 호수	마리수
경기도	2,120	30,190	1,038	164,264	105,665	337,575	1,469	1,082,912	107	3,885	191	2,214	1,839	59,295
용인시	148	2,396	87	10,767	4,151	17,759	106	160,689	10	45	40	21	108	1,017

자료 : 경기도, 《경기통계연보》2000, 용인시, 《용인통계연보》2000.

〈표-2〉는 1999년을 기준으로 경기도와 용인시의 가축사육호수와 마리 수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용인시가 경기도 내에서 차지하는 가축별 마리 수의 비중이 10%가 넘는 것은 면양, 오리, 돼지로 나타났다. 특히 면양의 경우 도내 사육호수 3곳 가운데 2곳이, 전체 30마리 가운데 25마리가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한육우는 마리 수 기준으로 경기도의 4.4%, 젓소는 2.2%, 닭은 9.2%를 용인시가 사육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구조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점은 사육호수의 감소와 사육두수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수의 사육농가에 의한 전업적 사육 현상이 일정 사육규모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생력이 강하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사육규모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조정과 경영규모의 정착을 위한 전략선택이 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들 규모를 중심으로 선진기술도입에 의한 경영관리 촉진, 경쟁력이 있는 경영관리체제의 구축, 단지화·전문화로 생산·가공·유통·분뇨처리시설의 연대이용체계 구축, 시설자동화를 갖춘 전업화, 생산자조직을 주축으로 사육·사료·생산·가공·판매를 연계하는 계열화사업의 적극 전개, 시설자동화 등 고정자본재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 인력난 극복을 위한 인력양성과 노동의 전문화를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 1. 한우 사육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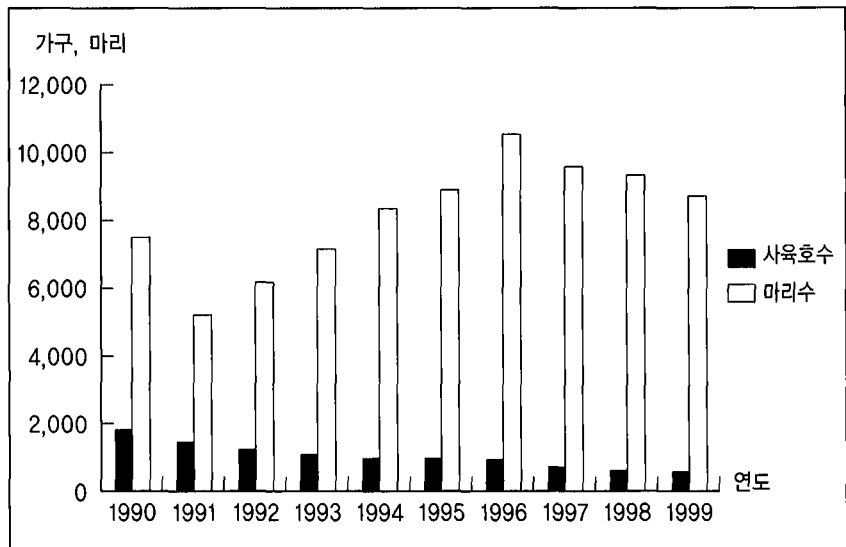
〈표-3〉과 〈그림-1〉은 용인지역 한우 사육호수와 마리 수의 변화를 도표와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사육호수의 감소와 1 가구당 사육 마리 수의 증가로 집약할 수 있다. 1990년의

1,855 사육가구에서 1999년 594 사육호수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가구당 사육 마리수는 같은 기간 4마리에서 14마리로 350% 증가했다.

(표 3) 한우 사육현황 (단위: 가구, 마리)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사육호수	1,855	1,539	1,331	1,225	1,192	1,085	1,123	860	715	594
마리수	6,969	4,982	6,035	7,032	8,174	8,689	10,261	9,877	9,561	8,232
1가구당	4	3	5	6	7	8	9	11	13	14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그림1 한우 사육호수 및 마리수

UR협상 타결 이후 우리나라 축산물시장의 개방이행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구조변화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대거 탈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수의 감소와 자급도 하락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사료가격의 양등, 환경오염의 규제강화, 금융여건의 악화, 품질개선과 기술개발 지연, 안전성 강화, 신경영체제 개발과 경영지도 부진 등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축산물 수입자유화과정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수준은 세계 30위권에 불과하면서 세계 6번째 쇠고기 수입국임과 동시에 5번째 돼지고기 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특히 미국의 육류 주요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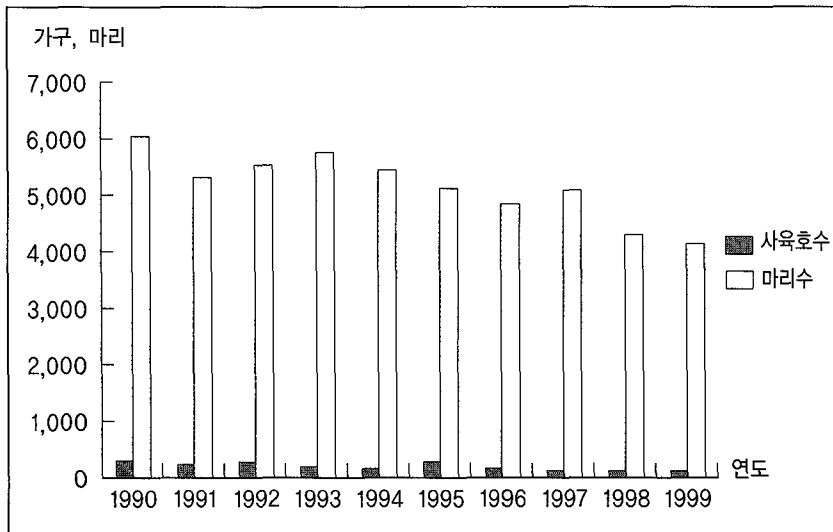
출대상국으로 자리잡은 우리나라는 쇠고기의 경우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에 이어 7번째, 돼지고기는 3번째로 미국의 황금육류시장이 되었다. 이는 곧 수입량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의 소득원을 축산농가들이 잃어버리는 셈이 된다.

## 2. 젓소 사육현황

(표 4) 젓소 사육현황 (단위 : 가구, 마리)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사육호수	375	346	308	277	243	274	191	164	130	111
마리수	6,054	5,355	5,681	5,735	5,554	5,243	4,949	5,028	4,401	4,391
1가구당	16	15	18	21	23	19	26	31	34	40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그림2  
젓소 사육호수 및 마리수

〈표-4〉와 〈그림-2〉는 용인지역 젓소 사육호수와 마리 수의 변화를 도표와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변화의 가장 큰 특징 또한 사육호수의 감소와 1 가구당 사육 마리 수의 증가로 집약할 수 있다. 1990년의 375사육가구에서 1999년 111사육호수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가구당 사육 마리수는 같은 기간 16마리에서 40마리로 250% 증가했다.

한우와는 달리 젖소의 경우 사육 마리 수 자체도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는데, 1990년 6,054마리에서 1999년에는 4,391마리로 약 1,650마리나 감소하였다.

정부는 축산물시장의 완전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응정책의 추진과 투·융자 자금을 투입하여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축산물시장 완전개방 이후 21세기를 지향한 우리 축산업은 축종에 따라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와 정책대안들은 국내·외적 축산환경, 경쟁의 정도, 농가경제에 있어서의 비중, 축산농가와 정책당국의 의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의 기본목표로 국내 축산물의 생산비를 수입축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1997년까지 축산업구조개선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에 4조 6천억을 투입하였으나 생산비의 절감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액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축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대책과 투·융자 정책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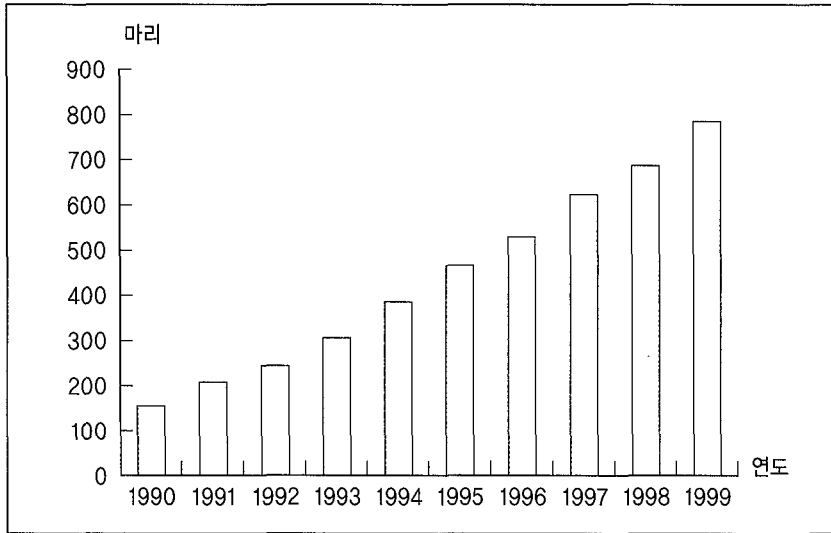
### 3. 돼지 사육현황

〈표-5〉와 〈그림-3〉은 용인지역 돼지 사육호수와 마리 수 및 가구당 사육수의 변화를 도표와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 사육호수의 급감과 사육 마리 수의 꾸준한 증가, 그리고 1가구당 사육 마리 수의 급증으로 그 변화추이를 집약할 수 있다. 1990년의 969사육가구에서 1999년 351사육호수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가구당 사육 마리수는 같은 기간 163마리에서 775마리로 480% 증가했다. 젖소의 경우와는 달리 돼지는 사육 마리 수 자체도 절대적으로 늘어났는데, 1990년 15만 7,597마리에서 1999년에는 27만 2,192마리로 약 173% 증가하였다.

(표 5) 돼지 사육현황 (단위: 가구, 마리)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사육호수	969	834	745	617	566	519	468	439	377	351
마리수	157,597	168,568	180,527	188,225	221,473	241,298	251,700	272,220	251,578	272,192
1가구당	163	202	242	305	391	465	538	620	667	775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그림3  
가구당 돼지 사육수 변화

## 4. 닭 사육현황

〈표-6〉와 〈그림-4〉는 용인지역 닭 사육호수와 마리 수 및 가구당 사육수의 변화를 도표와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표와 그래프에서 우리는 닭 사육호수의 감소와 사육 마리 수의 유지 그리고 1 가구당 사육 마리 수의 증가를 알 수 있다. 1990년의 621사육가구에서 1999년 306사육호수로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사육 마리수는 같은 기간 4,102마리에서 7,413마리로 증가했다. 한편 사육 마리 수는 199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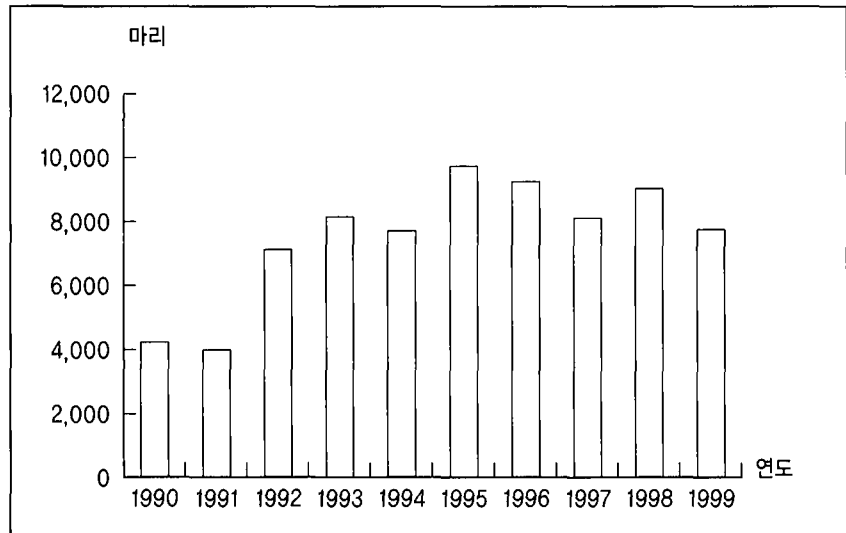
(표 6)

닭 사육현황

〈단위: 가구, 마리〉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사육호수	621	354	284	218	338	282	307	305	236	306
마리수	2,547,035	1,412,428	2,165,672	1,757,357	2,667,278	2,776,386	2,773,156	2,446,678	2,038,828	2,268,229
1가구당	4,102	3,990	7,626	8,061	7,891	9,845	9,033	8,022	8,369	7,413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그림 4  
가구당 닭 사육수 변화

## 제2절 가축위생 및 방역

### 1. 용인시 가축전염병 발생

용인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동향은 돈콜레라, 뉴캐슬병, 추백리, 기타 전염병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표-7>에서 보듯이 용인시에서 가장 심각한 가축전염병은 돈콜레라와 추백리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가축전염병의 발생동향을 보면 돈콜레라, 돼지 설사병 등은 감소 추세이나, 돈오제스키병, 닭 뉴캐슬병 등이 다소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물 수출금지 등 축산업 전반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구제역을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보완·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와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축위생 및 방역, 축산물검사, 가축방역, 축산물생산·가공·유통시설개선 등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나 21세기를 향한 선진형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실제로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상태에 관한 소비자들의 이의제기와 언론매체들의 현장고발에 따른 해당 축산물의 급격한 소비감소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물의 위생수준은 기존도축장, 수송, 정육점 등 소매단계의 실천적 개선과 종사원의 정신타개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높은 수준의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최근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축산물의 안전성 수준을 세계적인 식품위생 기준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에 대한 연구와 준용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표 7)

가축전염병 발생

(단위 : 마리)

연별	기종저	돈콜레라	광견병	뉴캐슬병	추백리	기타
1990				6,050		
1991		11		546		
1992		74		15,000		
1993		14				

연별	기종저	돈콜레라	광견병	뉴캐슬병	추백리	기타
1994		150				50
1995					12,000	
1996		950			1,100	12,900
1997		224				493
1998		40			1,605	1,583
1999		1,683		300		7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2. 가축예방주사

가축방역의 일부인 가축예방주사는 국가적 또는 자율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만일 예방주사가 안되거나 부실하다면 악성 전염병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예방주사는 수의사가 시술하게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가축예방주사는 용인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수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이다.

용인지역의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가축예방주사현황을 보면, 탄저·기종저의 예방주사는 줄어든 반면, 돈콜레라, 광견병, 기타의 예방주사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돈콜레라 예방주사의 증가는 용인시 돼지경쟁력사업에 따른 돼지사육수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를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수입자유화에 의한 국제자유거래와 사육환경이 열악하여 가축질병 발생의 높은 확률과 해외질병유입에 의한 생산기반의 와해 등 막대한 피해에 비해 투자와 지원이 수준미달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방역과 검역담당 인력과 장비부족, 낮은 보수 등은 방역과 검역업무 관리에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가축질병관리를 효율화하고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며, 축산물의 검역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방역과 검역발전대책 등을 확대하고 소요예산을 최대화하여 관련기자재와 전문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표 8) 가축전염병예방주사실시** <단위: 마리>

연별	우역	탄저·기종저	돈콜레라	광견병	기타
1990		7,881	14,720	3,597	14,464
1991		8,447	9,295	5,292	10,816
1992		6,886	7,850	9,009	22,671
1993		7,328	20,781	11,206	23,750
1994		5,940	10,820	9,833	27,566
1995		8,441	45,588	15,650	58,006
1996		8,139	13,347	13,676	59,287
1997		8,162	408,681	17,663	6,690,416
1998		8,306	429,880	20,099	6,939,538
1999		5,280	876,881	15,389	7,392,162
평균		7,481	183,784	12,141	2,123,868

주 : 1994년부터 닭(병아리)예방주사 포함됨.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제3절 용인시 축산업 지원성과

용인시는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1992년에서 1998년까지 약 421 억원을 투자하였다. 구조개선의 골자는 한우, 젖소, 돼지, 닭의 경쟁력 제고, 축산단지 조성, 가축 계열화 사업, 분뇨처리시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 가공, 유통의 통합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단지화, 계열화의 촉진 결과 축산 경영구조의 안정화를 이루었으며, 축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의 전업화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었고, 축산농가의 개별시설과 법인, 단지 등의 공동시설에 대한 축산 분뇨 처리시설 지원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환경이 개선되었다.

(표 9) 용인시 연차별/부문별 투융자실적 총괄('92~'98)

사 업 명	투자계획 (백만원)	투자실적(백만원)			
		계	중앙	도	시
○ 축산업 구조개선	44,757	42,140	42,140		
·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3,120	3,120	3,120		
·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3,094	3,094	3,094		
· 돼지경쟁력 제고사업	13,369	13,369	13,369		
· 닭경쟁력 제고사업	3,778	3,778	3,778		
· 축산단지조성	1,400	1,400	1,400		
· 가축계열화사업	6,906	6,906	6,906		
· 축산분뇨처리시설	13,090	10,473	10,473		

자료 : 용인시, 《농업·농촌 발전계획서》.

(표 10)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지원실적 <단위: 개소>

구 분	계	'91까지	'92~'93	'94~'95	'96~'97	'98	비고
한우경쟁력 사업	93	5	6	57	24	-	
소경쟁력 사업	92	12	13	37	30	-	
돼지경쟁력 사업	202	14	31	64	91	2	
닭경쟁력 사업	34	4	5	12	13	-	
축산단지 조성	1	-	1	-	-	-	
가축계열화	2	-	1	1	-	-	
축산분뇨처리	365	1	13	203	120	28	

자료 : 용인시, 《농업·농촌 발전계획서》.

(표 11) 축산시설 설치 증가 (단위: 개소)

구 분	낙농		양돈		양계		비육우	
	'91	'98	'91	'98	'91	'98	'91	'98
자동화축사	12	80	14	188	4	30	5	87
축산 단지	-	-	-	1	-	-	-	-

자료: 용인시, 《농업·농촌 발전계획서》.

(표 12) 호당 평균경영 규모의 확대 (단위: 명)

구 분	단위	'91년	'98년	증 감	비율(%)
한 우	두	4	14	10	350
젖 소	두	16	34	18	212
돼 지	두	202	668	466	330
닭	수	4,000	8,640	4,640	216

자료: 용인시, 《농업·농촌 발전계획서》.

(표 13) 배합사료생산 (단위: M/T)

	합계	양계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용	기타
1990	276,811	176,567	100,244	25,800	25,810	3,001
1991	253,755	156,769	96,986	26,279	28,468	3,201
1992	277,227	171,587	105,640	28,621	33,599	6,827
1993	349,183	172,949	100,842	32,055	37,519	5,818
1994	379,415	202,568	86,701	39,743	43,433	6,970
1995	425,969	243,958	73,156	55,843	43,160	9,852
1996	405,263	203,951	73,767	66,979	48,573	11,993
1997	398,655	209,614	70,682	49,290	60,634	8,435
1998	351,798	190,313	67,411	46,990	45,571	1,513
1999	370,996	147,912	76,670	94,036	50,797	1,581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1996, 2000..

용인시는 유능한 인력을 선발하여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 시설장비, 기술정보, 경영기법을 갖추어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영농의 규모화와 농업 구조개선을 이룩하였는데, 경영규모의 변화로 호당 평균 경영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한편 경쟁력 제고의 또 다른 축은 생산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사료비의 절감이다. 특히 사료비 가운데 농후사료의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농후사료원료의 효율적 구매와 사료산업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생산비가 절감되어야 한다. 농후사료의 생산은 수입사료곡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전술은 사료비절약 핵심일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사료곡물의 수급동향, 국제사료곡물의 시황, 곡물가격의 시계열적 변동 등을 분석 평가하여 가장 저렴하게 사료곡물을 도입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구사할 수 있는 전문 팀의 구성과 이를 위한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특히 규모화된 농가들이 필요한 사료를 자가배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도관리 체제를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축하고 원료곡물의 공동구입을 통해 알곡공급을 대행하도록 하고, 저비용 자가사료 배합시설을 개발 보급하거나 투융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가 배합사료의 제조·이용·지원 등에 정부의 정책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표-13>은 용인시 배합사료 생산을 나타내고 있다.

## 제6장 임업



### 제1절 임업의 일반 현황

#### 1. 임업의 개념

임업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초기에는 천연림(天然林)을 벌채하여 생산된 목재를 이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원시적인 약탈활동을 의미하였으나 중기에는 산림을 인공적으로 조성 및 보육하여 임산물의 영속적인 수확을 꾀하는 육성적인 토지 생산활동을 의미하였다. 현대에 와서 임업이란 산림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업이란 산림을 조성 및 보육하여 주산물(主産物), 부산물(副産物) 등 임산물의 영구적인 보속생산(保贖生産)을 꾀하고 생산하되, 임산물을 국민의 소비생활 및 상공업 방면의 산업활동에 공급하여 유용한 역할을 하게 하는 한편, 산림이 가지는 복리 작용, 즉 국토보존작용, 수원함양작용, 관광휴양(觀光休養)

을 위한 자원적 가치와 기타 여러 종류의 효용을 유지·증진시켜 나가는 활동이다.

임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토지에 대한 요구도가 농업보다 낮아서 기후, 지세 등 여러 조건이 농업에 부적합한 토지라도 임업에서는 능히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임목의 생육기간이 매우 길고 물리적인 성숙기 및 수확기가 불분명하다. 셋째, 생산장소인 산림면적이 방대하고, 임목자본의 구성상태가 복잡하며 거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넷째, 국토 보존, 수원함양, 관광 휴양 등 산림이 가지는 공익기능으로 임업경영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 다섯째, 임목을 벌채에 이용한 후 재생산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수요에 대한 융통성이 적다.

## 2. 임야면적

(표 1)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 ha〉

연별	합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산림처소 관	타부처소 관	계	시(도)유림	구시(군)유림	
1993	33,174	1,622	846	776	481	87	394	31,071
1994	33,002	1,604	840	764	493	99	394	30,905
1995	32,819	1,589	825	764	493	99	394	30,737
1996	32,708	1,575	811	764	493	99	394	30,640
1997	32,672	1,574	810	764	493	99	394	30,605
1998	32,540	1,566	802	764	493	99	394	30,481
1999	32,267	1,565	801	764	493	99	394	30,209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용인시의 산림면적은 1999년 현재 32,267ha이고 이 중에 국유림은 1,565ha(4.85%), 공유림은 493ha(1.5%), 사유림 30,209ha(93.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국유림은 산림처 소관과 타부처 소관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유림은 도유림(道有林), 군유림(群有林), 면유림(面有林)과 같은 산림을 말한다. 한국의 산림법 제3조 제2호는 공유림을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 임상별 임야면적

〈단위 : ha〉

연별	합계	임목지				무임목지			
		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계	미임목지	황폐지	제지
1990	24,083	23,131	19,435	2,656	1,040	952	120	7	825
1991	33,266	32,068	19,318	2,554	10,196	1,198	120	226	852
1992	33,230	33,156	12,650	12,627	7,879	74	9		65
1993	33,174	33,005	12,670	12,512	7,823	169	99		70
1994	33,002	33,885	12,679	12,405	7,801	117	40	2	75
1995	32,819	32,713	12,658	12,277	7,778	106	14		92
1996	32,708	32,569	12,639	12,181	7,749	139	43		96
1997	32,672	32,498	12,629	12,146	7,723	174	56		118
1998	32,540	32,348	12,586	12,059	7,703	192	68	5	119
1999	32,267	32,078	12,457	11,919	7,702	189	69		120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표-2〉는 임야면적을 임상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용인시의 임야면적은 199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임목과 임지를 합하여 산림이라고 하는데, 산림법 제2조에서는 농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 다포, 양수포, 하천, 제방, 구거(溝渠: 개골창), 유�휴지(遊休地) 등에 생육하고 있는 임목, 죽(竹)을 제외하고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임목, 죽과 그 토지 및 그 토지 내의 암석지(岩石地)와 소택지(沼澤地), 임도(林道)까지 포함하여 산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산림은 이용개발의 유무에 따라 원시림, 시업림(施業林)으로 나눌 수 있고 산림의 성립조건에 따라 천연림, 인공림 그리고 수종의 혼합상태에 따라 단순림, 혼효림으로 나눌 수 있다. 임목의 종류에 따라 침엽수림, 활엽수림으로 나뉘어지며, 임목의 연령에 따라 동령림, 이령림, 노령림, 장령림, 유령림으로 나뉘고, 임목의 성숙상태에 따라 과숙림, 성숙림, 미숙림으로 나눈다. 임관(林冠)의 구성상태에 따라 단층림, 복층림, 연속층림으로, 토지의 조건에 따라 산악림, 평지림, 구릉림으로 나뉜다. 그리고 지리적 분포에 따라 열대림,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으로 나뉘고 경영의 목적에 따라 용재림, 연료림, 풍치림, 방제림, 시험림으로 나뉘어지고, 소유권에 따라 국유림, 공유림,





분포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임산물 생산량

임산물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 죽재, 목탄, 굴취한 수목 및 수근(樹根), 생지(生枝), 수질(樹實), 수피(樹皮), 수지(樹脂), 생엽(生葉), 낙엽, 이끼류, 초본류, 덩굴류, 떼, 토석, 버섯류 등을 말한다. 사실상 산림에서 산림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임산물이라 할 수 있다.

특수 임산물은 임산물 중에서 주산물을 제외한 부산물을 가리킨다. 특수 임산물은 식용(食用), 약용(藥用), 공업원료, 제조가공업원료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용도도 여러 가지이다. 식용으로는 밤, 잣, 호두, 도토리, 산채(山菜), 죽순, 차, 버섯 등이 있고, 약용으로는 두

(표 4) 임산물 생산량

연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용재(m³)	3,043	3,169	4,499	5,562	3,894	5,071		4,353	6,285	16,189
죽재(속)										
연료(M/T)	2,970	1,235	1,080	385	291	193		90	32	74
농용자재(t)						3,285	2,677	1,961	1,628	1,576
종실(kg)	611,540	707,802	789,394	424,819	568,285	621,260	406,739	542,571	478,700	79,652
버섯(kg)	13,855	15,392	30	31,240	19,753	8,624	31,433	37,779	63,547	47,566
섬유원료(kg)										
수지(kg)										
탄닌원료(kg)										
약용(kg)	8,904	9,075	8,185	183	22	1,034	1,039	1,020	979	1,026
죽순(kg)										
산나물(kg)	22,782	2,514	40,568	47,740	53,320	11,414	34,430	9,827	10,229	16,729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충, 작약, 모란, 비자, 산초, 후박, 은행, 대추 등이 있으며, 섬유용으로는 삼지닥나무, 산닥나무, 닥나무, 칩 및 안피와 수피가 있다. 유지용으로는 동백, 유동, 비자나무의 열매 및 송지(松枝)가 있으며, 공업

용으로는 오배자(五倍子), 옷칠, 장뇌(樟腦), 코르크 등이 있다.

〈표-4〉는 용인시 임산물의 연도별 각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용재의 양은 1990년 3,043m<sup>3</sup>의 생산량에서 1999년 16,189m<sup>3</sup>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연료는 1990년 2,970M/T생산량에서 1999년 74M/T로 감소하고 있다. 이유는 목재를 사용하는 연료기계보다는 가스나 연유를 사용하는 연료기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버섯은 1999년 생산량이 47,566Kg으로 용인시의 특산물인 만큼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용인시의 특산품은 팽이버섯, 이수자반상, 옥로주, 소리고을 청동오리쌀, 순지오이, 포곡상추, 전통한지, 백암순대를 들 수 있다.

## 제2절 목재 공업

### 1. 목재의 개념

목재란 수목이 성장함에 따라 형성층(形成層)세포의 분열증식에 의해 형성층 내측에 형성되는 목질 부분이며, 리그닌화한 무수한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는 수목의 뿌리, 줄기, 가지등 나무 전체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목재로 이용되는 부분은 수간(樹幹)이다. 목재는 침엽수재, 활엽수재로 크게 구별하여 침엽수재를 연재(軟材), 활엽수재를 경재(硬材)라 하기도 한다. 한대, 온대산재는 나이테가 형성되어 있고, 수간의 중심부는 심재(心材), 그 외부는 변재(邊材)로 구성되어 있다. 침엽수재는 헛물관, 유세포(柔細胞), 수지구(樹脂溝), 방사조직(放射組織)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엽수재는 물관, 목섬유, 유세포, 방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조직은 수간의 종축에 직각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고, 기타 조직은 종축에 평행하게 배열하고 있다. 침엽수에서는 조직의 대부분을 헛물관이 차지하고, 활엽수에서는 물관이 10~20%, 목섬유가 40~70%를 차지한다.

### 2. 목재 공업

목재 공업에는 제재공업, 합판공업, 삭편(削片), 칩생산공업, 목재 보존공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합판공업을 필두로 한 한국 목재공업은 1960년대 초부터 상당기간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합판수출량이 절정을 이루었던 1977년을 고비로 목재공업의 쇠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그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원인으로서는 원목 확보난, 그에 따른 원목가격상승, 원목생산국들의 목재공업화촉진, 한국의 기술개발 노력 부족, 한국 노동자의 3D산업기피경향 등을 들고 있다.

용인의 목재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1998년 규모가 5~9명인 사업체수는 22개인 반면, 1999년에는 5개가 줄어들어 17개가 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규모가 큰 업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 규모가 10~29명인 사업체수는 13개였으나 1999년에는 3개 업체가 줄어들어 10개가 되었고 규모가 20~49명인 경우 또한 2개 업체가 줄어들었다. 50~99명 규모인 경우에만 1998년과 1999년에 동일한 업체 수를 유지하고 있다.

(표 5)

## 규모별 생산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규모별	5-9		10-19		20-49		50-99	
	1998	1999	1998	1999	1998	1999	1998	1999
사업체수	22	17	13	10	7	5	2	2
월평균종사자수	216	187	78	70	82	59		
연간급여액(퇴직금제외)	2,309	2,625	675	818	913	728		
생산액	19,432	18,603	5,113	6,057	9,375	4,623		
출하액	19,042	18,689	5,048	6,037	9,305	4,666		
연말재고액	1,160	472	175	164	459	124		
주요생산비	10,336	12,311	2,672	3,848	4,690	3,064		
부가가치	9,096	6,292	2,441	2,209	4,685	1,559		
유형고정자산연말잔액	5,190	5,574	1,990	2,120	1,908	854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용인시의 읍, 면, 동별 목재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표-6>과 같다. 목재 및 나무제품의 경우 모현면이 사업체 수 10개, 종사자 수 61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수지읍이 사업체 수 9개, 종사자수 46명, 기흥읍이 사업체 수 8개, 종사자 수 29명 순서이다. 제재 및 목재가공업의 경우에도 모현면이 사업체수 4개, 종사자수 2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무, 코르크 및 조물 제품은 수지읍이 사업체 수 7개, 종사자수 42명으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기흥읍, 모현면, 이동면 순이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은 이동면이 사업체 수 31개, 종사자수 671명, 모현면이 사업체 수 26개, 종사자 수 142명, 구성면이 사업체 수 25개, 종사자 수 306명으로 집계되었다. 판지제품은 모현면이 사업체수 7개, 종사자 수 40명이 종사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종

이는 이동면이 사업체수 26개, 종사자수 519명, 그 다음이 구성면, 남사면, 포곡면 순으로 종사자 수가 많다.

(표 6)

산업소분류 및 읍,면,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개, 명〉

산업분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재 및 목재가공업	나무,코르크 및 조물 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판지제품	기타 종이제품
용인시	사업체수	60	13	47	161	23	138
	종사자수	311	75	236	2,260	137	1,943
기흥읍	사업체수	8	1	7	12	1	18
	종사자수	29	15	14	129	4	125
수지읍	사업체수	9	2	7	10	3	7
	종사자수	46	4	42	68	21	47
포곡면	사업체수				13		13
	종사자수				224		224
모현면	사업체수	10	4	6	26	7	19
	종사자수	61	24	37	142	40	102
구성면	사업체수	6	3	3	25		25
	종사자수	25	9	16	306		306
남사면	사업체수	1		1	10	1	9
	종사자수	4		4	270	10	260
이동면	사업체수	6	1	5	31	5	26
	종사자수	77	10	67	671	152	519
원삼면	사업체수				2		2
	종사자수				33		33
백암면	사업체수	3		3	8	2	6
	종사자수	12		12	129	22	107
양지면	사업체수	3		3	7	3	4
	종사자수	17		17	99	63	36
중앙동	사업체수	4		4			
	종사자수	7		7			
역삼동	사업체수	2		2	1		1
	종사자수	2		2	3		3
유림동	사업체수	2	1	1	6		6
	종사자수	13	11	2	138		138
동부동	사업체수	6	1	5	3	1	2
	종사자수	18	2	16	48	5	43

자료: 용인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00년.

용인시 전체로 보면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로 볼 때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기타 종이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순서이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의 경우 161개 사업체에서 2,260명이 일하고 있고 기타 종이제품은 138개 업체에 1,943명이, 목재 및 나무제품은 60개 업체에 311명이 종사하고 있다.

## 제3절 임업구조개선사업과 산림보호

### 1. 임업구조개선사업

(표 7) 임업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

구분	단위	계	'91까지	'92~'93	'94~'95	'96~'97	'98
영림계획	ha	19,373	2,080	8,320	6,000	2,373	600
산림병해충방제	ha	7,040	1,840	2,270	1,340	1,075	515
조림사업	ha	1,783	983	261	336	154	49
육림사업	ha	10,363	1,318	3,184	2,587	2,504	770
임도시설	ha	36	5	4	12	11	4
표고재배사시설지원	km	37,500		5,000	12,500	13,500	6,000
조경수생산지원	ha	7.9		1	3.5	1.4	2
분재생산지원	ha	6		1	2	2	1
단기소득임산물생산	m <sup>2</sup>	15,000			5,000	5,000	5,000
임산물저장장소	개소	3		2	1		

자료 : 용인시, 《농업·농촌발전계획서(안)》.

(표 8) 임업시설 설치증가

구분	단위	'91년	'98년	증감	
				31	비율
임도시설	km	5	36	31	620
표고재배사	ha		66.7	66.7	
임산물저장시설	개소		3	3	

자료 : 용인시, 《농업·농촌발전계획서(안)》.

영림계획의 편성목적은 산림자원의 배양과 생산량의 증대 및 국토의 보존, 국민의 복리증진에 있다. 영림계획 작성대상 산림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라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구별없이 매 5년마다 한번씩 작성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영림계획 작성단위는 산림의 현황과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읍, 면 단위 영림구(營林區)별로 작성하는데, 영림구는 국유림 영림구, 공유림 영림구, 사유림 영림구로 대별하고, 사유림 영림구는 다시 일반 영림구, 협업 영림구, 산업비림 영림구로 구별한다. 영림계획의 작성 절차는 도지사로

부터 지역 산림계획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장, 군수는 2개월 이내에 산림 소유자에게 영림계획의 작성을 지시한다. 영림계획 작성의 지시를 받은 산림소유자는 3개월 내에 시장, 군수에게 그 뜻을 신고해야 하며 영림계획 작성지시를 받은 산림소유자 및 산림 조합은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영림계획의 작성지시를 받은 산림 소유자가 3개월 내에 그 뜻을 신고하지 않고, 또 1년 내에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 군수는 산림조합에 영림계획작성을 지시하고 그 뜻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시장, 군수가 영림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는 2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영림계획에서 제외되는 산림은 보안림, 채종림,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 사방지, 천연보호림, 문화재보호구역, 초지조성 지구, 낙종지대, 도시계획구역, 공업단지 및 전원개발 사업지역이 있다.

조림의 목적은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량한 산림을 조성하여 이익을 얻는데 있다. 따라서 사유림(私有林)에서는 임산물의 생산에 의하여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유림과 공유림에서는 임산물의 생산 외에 토양침식방지, 홍수 방지, 수원함양(水源涵養), 환경보존, 국민휴양 등 공익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산림을 조성하는 경우도 많다. 임지에 직접 종자를 뿌리고 묘목을 심거나 또는 천연하종(天然下種)과 맹아갱신(萌芽更新)에 의하여 산림을 조성한 후 시비(施肥) 밀깎기, 제벌(除伐), 가지치기, 간벌(間伐), 병충해 방제 등 육림(育林)을 위한 사후 관리작업까지 포함시켜 조림이라고 하는 경우와 종자를 뿌리고 묘목을 심는 것만을 조림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넓은 뜻의 조림이라고 하고, 후자를 좁은 뜻의 조림이라고 한다. 조림방법은 인공조림과 천연갱신(天然更新)으로 구분한다. 인공조림은 식수조림, 삼목조림, 파종조림으로 대별하고, 이 중 식수조림이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천연갱신은 천연하종, 맹아, 포기나누기, 땅속줄기에 의한 갱신으로 구분되나 이 가운데 주요한 것은 천연하종갱신과 맹아갱신이다. 각종 조림수종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적합한



조림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조림의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다. 특히 고려하여야 할 특성의 인자는 종자결실능력, 종자비산능력, 종자발아능력, 꺾꽂이순의 발근능력 등을 들 수 있다.

〈표-7〉과 〈표-8〉은 용인시 임업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임업시설 설치증가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용인시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결과, 산림자원의 다목적 이용도를 높였으며, 시설의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2년에 비해 임도시설이 늘어났고 임산물 저장시설 또한 3개소가 새로 설치되었으며 표고재배사 면적도 늘었다. 합리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생산성이 높아졌으며, 시기별 출하량을 조정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였다. 용인시는 표고재배농가에 대하여 저장시설과 재배시설 등 기반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선진재배 기술습득을 위하여 교육과 간담회 등을 수시로 실시한 바 있다.

## 2. 사방사업

사방공사 또는 사방사업(砂防事業)이라고도 한다. 사방공사는 주로 토목적 방법과 조림적(造林的) 방법, 또는 양자의 병행으로 실시하고, 시공장소에 따라 산지사방, 야계사방(野溪砂防), 해안사방으로 대별한다. 산지사방은 임지(林地)의 표면 침식, 붕괴, 산사태 등에 의한 황폐화의 예방, 복구이고, 야계사방은 유거수량(流去水量)에 의한 야계(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천)의 계상침식(溪床浸蝕)과 흙, 모래, 자갈의 유출 및 퇴적의 예방 및 복구이며, 해안사방은 사구(砂丘)의 이동, 비사(飛砂) 및 해안의 침식 등을 예방 및 복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사를 말한다.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표-9〉는 용인시의 연도별 사방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1996년까지 사방사업이 산지 및 해안사방과 야계사방 그리고 사방댐이 진행되어 왔지만 1997년부터는 사방사업이 줄어들고 있다.

1997년에는 야계사방으로 공사비는 1ha에 128,003천본 들었으며, 사방댐은 1개소로 공사비가 88,387천본 들었다. 전체 공사비는 216,393천본이 들었다. 1999년 산지 및 해안사방공사가 1ha를 면적으로 공사비는 60,270천본 들었다. 1996년까지는 많은 면적의 사방사업이 이루어졌지만 1997년 이후로는 황폐한 개천에 대한 수로정리와 침식방지를 위해서 야계사방과 사방댐 위주의 사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9)

연도별 사방사업

〈단위 : ha, 천본〉

연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면적		2.04	225.94	12.7	13.4	1.7	0.3		1
	식재본수		9	509	51	52	6	1.3		4
	공사비	126,629	4,047	530,000	322,58	432,53	251,787	178,377	216,393	226,35
산지및										
해안										
사방										
야계	면적		2.04	225.94	9	9	1.7	0.3	8	1
	식재본수		9	509	12.7	13.4	6	1.3		4
	공사비		4,047	530,000	51	52	35,545	13,532		60,270
사방	연장	1.96			540.25	249,473	1.6	1.5	1	1
	공사비	89,298			4	2.5	153,654	164,845	128,006	128,573
사방댐	개소	1			2	183,066	1		1	
	공사비	37,431			82,335		62,588		88,387	97,785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3. 산림보호

산림보호는 삼림보호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산림은 목재 등의 자원을 제공하고 산사태를 막아주는 직접적인 효용성 외에 관광 및 휴양지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효용성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번 훼손되거나 파괴된 산림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는 수십 년에 달하는 생육기간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산림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상적인 산림은 활엽수와 침엽수가 섞인 혼합림으로 각기 수령이 다른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

다. 이러한 산림으로 가꾸고 각종 재해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산림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산림에 일어나기 쉬운 재해로는 무계획적인 벌채와 이로 인한 기상 재해, 동물이나 병충해에 의한 훼손, 산불 등이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적합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먼저 산림의 마구잡이 벌채가 산사태나 눈사태 등 기상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벌채 구역을 분산시키거나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였다. 이는 법으로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적당한 시기에 가지치기를 해주거나 뿌리부분의 토양을 복돋워줌으로써 냉해나 설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표-10〉은 용인의 산림피해를 나타낸 것이다. 1990년의 경우 산림피해 건수가 전체 14건으로 피해면적이 24ha, 피해액이 64억

(표 10)

## 산림피해

〈단위 : ha, 천원〉

연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건수	14	21	24	29	8	15	13	25	32	19
	면적	24	11	6	3.42	2.71	4.17	1.76	3.86	4.54	3.5
	피해액	6,433,350	18,414,780	934,150	629,710	1,368,000	3,775	1,193	34,119	1,677	
도별	건수										
	면적										
	피해액							3		4	
무허가 벌채	건수		1		4			2	1		0.25
	면적							586			
	피해액	13	30,000		183,950	5		894	21	32	15
산림 훼손	건수	1.98	19	24	25	0.38	7	9	1.98	4.54	3.25
	면적	6,408,350	10.81	4.74	3.42	47,000	1.07	1.06	32,033	1,677	
	피해액	1	15,229,780	934,150	445,760	3		99	1	1	
산불	건수	22.5	1			2	5		0.84		
	면적		0.46	1.5		321,000	3.1	0.7	1,500		
	피해액						3,775	200			
기타	건수						3	1			
	면적						0.21				
	피해액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3,335만원에 이르렀다. 이후 산림피해 건수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산림피해가 가장 심했던 해는 1993년으로 전체 29건을 기록했다.

1999년의 경우 산림피해가 19건으로 내용별로는 무허가벌채가 4건, 산림훼손이 15건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산림피해의 대부분은 산림훼손에 의한 것이었다. 산불은 지난 10년간 총 12건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면적을 냈다. 산불은 삼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큰 피해를 주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전담기구를 두어 진화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방화선의 설비 강화 및 산불 조기발견 체제를 정비한 바 있다. 또 과실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폐기물 소각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었으며, 산림내 화기 반입을 금지하고 벌칙을 강화하였다.

산림의 경우 동물이나 병충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데, 해충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주변으로 급속히 확산된다는 점에서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이 경우 천적 또는 살충제를 이용하거나 피해나무를 베어내는 등 종합적인 방제책이 사용된다. 산림경영의 집약화, 환경오염, 외국수종의 도입, 목재수입 등으로 병원체의 종류는 다양해져 가고 그 피해도 확대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병해도 많다. 병원체의 세계적인 분포를 보면 곰팡이류가 8,000여종, 박테리아류가 180여종, 바이러스류가 500여 종이나 되며, 수백 종의 선충(線蟲)이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수목에 피해를 주는 병해는 대략 200여종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의 주요 산림병해로는 잘록병, 녹병, 마름병, 잎말이병, 흑병, 낙엽병, 가지끝마름병 등이 있다.

☹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제7장 광공업



### 제1절 광업

광업은 농업과 함께 인간문명 발전의 기간을 이루는 2대 산업이다. 농업이 인간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음식을 제공해 준다면, 광업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자재, 원료, 연료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돌, 시멘트, 철과 같은 건축자재, 구리, 철, 납, 아연, 황, 흑연과 같은 공업용 원료,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 칼륨, 인산, 질소와 같은 비료 원료, 금, 은, 다이아몬드, 루비, 청옥과 같은 보석류 그리고 우라늄과 같은 핵분열 물질 등을 인간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

#### 1. 사업체 및 종사자

용인시의 광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살펴보자.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인시의 광업 사업체수는 1995년을 제외하고는 5개 업체이다. 종사자수 또한 90명 전후인데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20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광업이 용인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무시할 정도이다.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기흥읍에 2개, 수지출장소에 1개, 그리고 동부동에 2개 업체가 위치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광업 사업체와 종사자 <단위: 개, 명>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사업체수	5	7	5	5	5	5
종사자수	99	111	111	101	83	85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표 2) 읍, 면, 동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개, 명>

읍면동별	기흥읍	수지출장소	동부동
사업체수	2	1	2
종사자수	10	24	51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표 3) 전산업 대비 광공업 비중 <단위: 개, %>

구분	연도	전산업	광업
사업체수	1998	14,467	5
	1999	16,727	5
사업체수증감	사업체수	2,260	0
	증감률	15.6	0
종사자수	1998	99,536	83
	1999	112,066	85
종사자수증감	사업체수	12,530	2
	증감률	12.6	2.4
사업체수구성비	1998	100	0.03
	1999	100	0.03
종사자구성비	1998	100	0.08
	1999	100	0.04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표-3>은 용인시 전산업 대비 광업의 비중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1999년 용인시의 총 사업체수는

16,727개로 전년대비 15.6%(2,260개)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또한 1998년 99,536명에서 1999년 112,066명으로 12.6%(12,530명)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광업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광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현재 사업체를 기준으로 0.03%, 종사자를 기준으로 0.04%를 기록하고 있다.

## 2. 광업 총생산

(표 4) 지역내 총생산과 증가율(불변가격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지역내 총생산	3,323,618	3,850,585	4,986,862	5,176,837	5,768,659
총생산 증가율		15.86	29.51	3.81	11.43
광업 총생산	6,411	6,941	9,702		9,734
광업 증가율		8.27	39.77		

자료: 경기도, 《시·군 단위 지역내 총생산》, 2000.

<표-4>는 용인지역 총생산과 광업 총생산액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1993년 지역내총생산 3조 3,236억원에서 1997년 5조 7,68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광업 총생산액은 1997년까지 100억원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표-5>는 용인시 광업에 관한 연도별 통계치이다. 1999년 광업의 사업체수는 5개, 월평균 종사자수는 81명, 연간 급여액은 퇴직금을 제외하고 12억 9,300만원, 생산액은 114억 6,400만원, 출하액 114억 5000만원, 연말재고액 4,500만원, 부가가치 71억 8,900만원, 유형고정자산 연말잔액은 건설가계정을 제외하고 128억 5,200만원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광업의 월평균 종사자수와 부가가치액은 줄어드는 추이에 있다.

우리나라의 광업은 발전을 거듭하여 1980년대에는 석탄과 석회석이 연간 2,000만톤과 4,000만톤을 넘어섰고, 규석과 규사가 100만톤 내외, 철광과 고령토가 60여 만톤, 아연·흑연·규조토 등이 각각 5~8만톤이 생산되었다. 1970년대 이후, 서남해안의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를 위한 시추작업과 탐사작업, 그리고 해외 유전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1977년부터 우라늄·유연탄·아연 등에 대해 해외광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980년 이후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탄 소비감소와 채광장 심부화(深部化)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되자, 정부에서는 1987년부터 영세한 비경제탄광을 정비하고 경제탄광의 건전육성을 위한 석탄 합리화사업을 실시하여 1988년도에 347개이던 탄광을 1989년도에 202개로 정비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그 수를 정비한 바 있다. 정부는 광업의 효율성 제고와 광산개발의 기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표 5) 연도별 광업 통계표 〈단위: 개, 명, 백만원〉

연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사업체수	3	5	5	5	4	5
월평균종사자수	101	116	112	114	81	81
연간 급여액(퇴직금 제외)	1,247	1,487	1,777	1,468	1,441	1,293
생산액	9,689	15,133	14,956	15,273	11,047	11,464
출하액	9,807	15,085	14,959	15,267	10,850	11,450
연말재고액	91	151	228	26	217	45
주요생산비	1,967	3,452	3,202	5,286	3,942	4,275
부가가치	7,722	11,681	11,754	9,987	7,105	7,189
유형고정자산 연말잔액(건설가계정제외)	1,405	1,680	1,960	9,889	10,965	12,852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2000.



## 제2절 제조업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공장이나 가내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동력기계를 사용하거나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단순한 상품의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이란 제1차 산업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공하는 제2차적 생산을 수행하는 산업으로, 광업, 건설업과 함께 제2차 산업에 분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발전하면서 점차 중화학공업의 비중을 높여 나간다. 한국의 경우도 초기의 경제개발단계에서는 경공업에 두어졌던 중심이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공업으로 전환되었다. 예를 들면 면방직, 견사 등의 섬유공업의 사양화와 함께 조선업, 제철업 등의 중공업 분야가 세계수준급으로 급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은 이와 같은 중화학공업화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수 30명 미만의 중소기업 내지 영세기업을 광범위하게 남겨 놓고 있어 경제의 2중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제조업 자연물 또는 원료를 가공하여 변형·변질시켜 그 제품을 판매하는 산업이므로 생산에 필요한 각종 원료·연료의 입수 및 가공조건, 제품을 소비지에 공급하는 조건 등의 우열이 재산상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조건은 가공지, 즉 입지지점(立地地點)이 원료의 생산지 및 제품의 소비지에 대하여 어떠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는지, 또 그 입지지점의 가공단계에 있어서의 생산조건이 다른 지점에 비하여 어떠한지 등 원료의 입수에서부터 제품의 판매에 이르는 모든 생산과정에 걸친 지역적 조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규정된다. 이와 같은 공장의 입지조건은 제조업의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용인시는 삼성전자 등 1천여 개의 주요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도농복합형의 도시이며, 관광명소와 위락시설이 잘 되어 있는 관광도시로서 변화·발전해가고 있다. 용인은 경기도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 중 하나로 수도권, 중부권, 영동권, 호남권 각 지역을 1시

간~4시간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중심 위치에 있으며, 또한 기흥IC, 오산IC, 용인IC 등 각 고속도로 IC에서 진입할 수 있어 동과 서남을 잇는 중심지에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여건 때문에 최근들어 용인과 양지에 제조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토지 비용이 저렴하고 공업용수 등 시설 조건이 갖춰져 있고, 서울과의 거리도 40분 정도로 교통여건이 제조업이 발달하기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인과 양지 부근 도로를 확장하고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돼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제조업기반 첨단업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변이 번잡하지 않아 연구하기에 좋은 환경이며, 공기와 자연환경 역시 좋은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다. 회사 관리비면에서도 대도시에 비해 대폭 절약할 수 있으며, 주차공간이나 주차비도 서울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하다.

## 1.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와 추이

〈표-6〉은 1998년도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경기도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그리고 용인시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비교한 것이다.

1998년 현재 용인시의 사업체수는 14,467개, 종사자수는 99,546명이다. 전국을 100%으로 볼 때,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수의 15.3%(425,043개), 종사자수의 16.4%(2,036,899명)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을 100으로 했을 때 용인시는 도 전체 사업체수의 3.40%, 종사자수의 4.8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생산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표-7〉은 용인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인시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9년 현재 용인시의 사업체수는 16,727개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전년도에 비해

**(표 6)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교** <단위: 개, 명, %>

구분	98년 사업체수	구성비	98년 종사자수	구성비
전국	2,785,659	100.0	12,416,558	100.0
경기도	425,043	15.3	2,036,899	16.4
용인시	14,467	3.40	99,536	4.89

자료: 경기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1999.

**(표 7)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감률** <단위: 개, %>

연도	사업체수	증감률	종사자수	증감률
1994	10,222		89,934	
1995	12,485	22.1	108,221	20.3
1996	13,744	10.1	114,160	5.5
1997	14,559	5.9	106,935	-6.3
1998	14,467	-0.6	99,536	-6.9
1999	16,727	15.6	112,066	12.6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2000.

15.6% 증가하였다. 1999년 종사자수 또한 전년도에 비해 12.6%가 증가하여 112,066명을 기록하고 있다. <표-8>은 읍·면·동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및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1999년 현재 용인시의 사업체수는 16,727개이고 지역별 분포를 보면 기흥읍에 3,207개, 수지읍 3,120개, 중앙동 2,607개, 구성면 1,144개 등의 순서이다. 이들 4개지역의 사업체수는 용인시 전체 사업체수의 60.3%를 차지하고 있다. 기흥읍은 신갈을 비롯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인터체인지를 바탕으로 교통의 중심지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용인시에서 가장 제조업이 발달했다. 기흥읍은 종사자수 3만 3,160명으로 전체의 구성비중 사업체수는 19.2%, 종사자수는 29.6%에 이른다. 수지읍은 종사자수 1만 3,972명으로 전체 구성비 중 사업체수는 18.7%, 종사자수는 12.5%로 용인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동은 종사자수 1만 1,872명으로 전체 구성비 중 사업체수는 15.6%, 종사자수는 10.6%로 세 번째의 비중을 차지하고, 구성면은 종사자수 1만 1,891명으로 사업체수는 6.8%, 종사자수는 10.6%로 네 번째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제 제조업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표-9〉는 용인시의 연도별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정리한 것이다. 용인의 제조업 사업체수는 1999년 현재 2,089개이고 종사자수는 4만 3,214명에 이른다. 제조업 사업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4년 1,825개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6년 2,080개에 이르렀으나 그 후 감소하다가 1999년에서야 1996년의 사업체수를 회복하였

(표 8) 읍·면·동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개, 명)

읍,면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구성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16,727	112,066	100.0	100.0
기흥읍	3,207	33,160	19.2	29.6
수지읍	3,120	13,972	18.7	12.5
포곡면	959	6,910	5.7	6.2
모현면	967	4,571	5.8	4.1
구성면	1,144	11,891	6.8	10.6
남사면	343	4,573	2.1	4.1
이동면	642	5,064	3.8	4.5
원삼면	334	1,835	2.0	1.6
백암면	531	2,787	3.2	2.5
양지면	643	4,443	3.8	3.9
중앙동	2,607	11,872	15.6	10.6
역삼동	960	3,672	5.7	3.3
유림동	500	4,290	3.0	3.8
동부동	770	3,026	4.6	2.7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2000.

다. 종사자수 또한 1994년 4만 9,509명에서 다음해 5만 5,566명으로 증가하였다가 그 후 계속 감소하다가 1998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1994년에 비해 1999년 현재의 사업체수는 264개 늘어난 반면 종사자수는 6,295명 줄어든 상태이다.

〈표-10〉은 읍, 면, 동별 제조업 사업체수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기흥읍으로 356개 업체에 종사자수가 18,268명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모현면으로 사업체수 323개, 종사자수 2,309명이고 수지읍이 272개의 사업체와 2,273명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다. 제조업체 사업체수가 가장 적은 곳은 역삼동으로 사업체수 39개, 종사자수 472명에 불과하다.

**(표 9)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개, 명)

연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4	1,825	49,509
1995	1,965	55,566
1996	2,080	53,835
1997	1,950	31,370
1998	1,761	40,391
1999	2,089	43,241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2000.

용인의 제조업 사업체는 사업체 형태에 따라 단독 사업체, 공장과 지사, 본사와 본점으로 나눌 수 있다. 용인시 제조업 사업체수 2,089개 중에서 단독사업체가 1,921개로 가장 많고, 공장과 지사 형태의 사업체수가 117개, 본사와 본점이 51개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표 10) 읍·면·동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개, 명)

읍·면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기흥읍	356	18,268
수지읍	272	2,273
포곡면	102	2,858
모현면	323	2,309
구성면	247	2,744
남사면	88	3,073
이동면	148	3,290
원삼면	58	860
백암면	80	1,157
양지면	108	2,197
중앙동	115	326
역삼동	39	472
유림동	88	2,931
동부동	65	456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2000.

(표 11)

## 제조업 형태별 사업자수, 종사자수

〈단위: 개, 명〉

읍,면,동별		제조업	단독사업체	공장,지사	본사,본점
용인시	사업체수	2,089	1,921	117	51
	종사자수	43,214	21,961	17,943	3,310
기흥읍	사업체수	356	327	23	6
	종사자수	18,268	4,417	13,322	529
수지읍	사업체수	272	264	6	2
	종사자수	2,273	1,611	597	65
포곡면	사업체수	102	92	9	1
	종사자수	2,858	1,734	1,121	3
모현면	사업체수	323	310	12	1
	종사자수	2,309	2,131	160	18
구성면	사업체수	247	238	7	2
	종사자수	2,744	2,273	74	397
남사면	사업체수	88	75	10	3
	종사자수	3,073	1,470	717	886
이동면	사업체수	148	138	1	9
	종사자수	3,290	2,700	24	566
원삼면	사업체수	58	42	8	8
	종사자수	860	281	340	239
백암면	사업체수	80	59	11	10
	종사자수	1,157	468	452	237
양지면	사업체수	108	91	15	2
	종사자수	2,197	1,661	505	31
중앙동	업체수	115	112	1	2
	종사자수	326	265	16	45
역삼동	업체수	39	37	2	
	종사자수	472	466	6	
유림동	사업체수	88	75	11	2
	종사자수	2,931	2,196	590	145
동부동	사업체수	65	61	1	3
	종사자수	456	288	19	149

자료 : 용인시,《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00년.

별로 살펴보면 기흥읍은 제조업 사업체수가 356개인데, 이 가운데 단독 사업체가 91.85%(327개), 공장과 지사 형태가 6.46%(23개), 본사와 본점 형태가 1.69%(6개)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사업

체수가 많은 모현면은 제조업 사업체수 323개 가운데 단독 사업체 96%(310개), 공장과 지사 3.71%(12개), 본사와 본점 0.30%(1개)이다. 세 번째로 사업체수가 많은 수지읍은 사업체수 272개로 단독 사업체 97%(264개), 공장과 지사 2.2%(6개), 본사와 본점 0.8%(2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12〉는 용인시 전체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1999년 현재 용인시 사업체 종사자의 23.6%는 5명 미만의 작업장

(표 12)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단위: 명, %)

구분	종사자수		증감		구성비	
	1998	1999	대규모종사자수	증감률	1998	1999
전체	99,536	112,066	12,530	12.6	100	100
*1~4명	22,820	26,428	3,608	15.8	22.9	23.6
*5~9명	15,585	19,685	4,100	26.3	15.7	17.6
*10~49명	12,096	15,610	3,514	29.1	12.2	13.9
*50~99명	8,994	10,177	1,183	13.2	9	9.1
*100~299명	13,577	14,232	655	4.8	13.6	12.7
300명 이상	26,464	25,934	-530	-2.0	26.6	23.1

자료: 용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에서 일하고 있으며 17.6%가 5명 이상 10명 미만, 13.9%가 10명 이상 50명 미만, 9.1%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 12.7%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그리고 23.1%가 300명 이상의 사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수는 1만 2,530명이 늘어난 11만 2,06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1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수가 29.1%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사업체 종사자수가 26.3% 증가하였다. 반면 300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수는 530명이 감소하였다.

〈표-13〉은 용인시 사업체의 조직형태별 종사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사업체의 종사자수는 1998년 3만 4,142명에서 1999년 4만

2,093명으로 7,951명이 증가하여 23.3%의 비교적 높은 증가률을 보인다. 법인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1998년 6만 5,394명에서 1999년 6만 9,673명으로 4,579명 증가하여 7.0%의 증감률을 보인다. 법인 사업체에서도 회사법인 사업체수는 1998년 54,105명에서 1999년 58,379명으로 7.9%(4,274명) 증가하였고, 회사 이외의 법인 사업체수는 1998년 11,298명에서 1999년 11,594명으로 2.7%(305명)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1999년 용인시의 모든 사업체수는 16,727개로 전년 대비

**(표 13)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단위: 명, %>

구분	종사자수		증감		구성비	
	1998	1999	종사자수	증감률	1998	1999
전체	99,536	112,066	12,530	12.6	100	100
법인 사업체	65,394	69,673	4,579	7.0	65.7	62.4
* 회사법인	54,105	58,379	4,274	7.9	54.4	52.1
* 회사이외의법인	11,298	11,594	305	2.7	11.3	10.3
개인사업체	34,142	42,093	7,951	23.3	34.3	37.6

자료: 용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표 14) 제조업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연도	전산업	제조업
사업체수	1998	14,467	1,761
	1999	16,727	2,089
사업체수증감	사업체수	2,260	328
	증감률	15.6	18.6
종사자수	1998	99,536	40,391
	1999	112,066	43,214
종사자수증감	종사자수	12,530	1,420
	증감률	12.6	7
사업체수구성비	1998	100	12.17
	1999	100	12.49
종사자수구성비	1998	100	40.58
	1999	100	38.6

자료: 용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15.6%(2,260개) 증가되었으며, 그 중 제조업의 사업체수는 1999년 2,089개로 전년대비 18.6%(328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제조업의 사업체수 증가율이 전산업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전산업의 종사자수는 11만 2,066명으로 전년대비 1만 2,530증가했으며 제조업의 종사자수는 1999년 4만 3,214명으로 1998년 4만 0,391명에 비해 2,823명이 증가했다. 전체 사업체수의 제조업 구성비는 12.49%이고 종사자비 구성비는 38.6%이다.

## 2. 업종별 현황

〈표-15〉는 용인시 제조업의 현황을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고 있다. 용인시 제조업의 월평균 종사자수는 반도체 경기가 호황을 누렸던 1995년 4만 8,521명으로 정점에 달하였다가 외환위기의 해인 1998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산출액은 199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그러나 원자재 등 주요생산비의 증가로 인하여 부가가치 규모는 1996년의 규모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5)

제조업 현황과 추이

〈단위 : 개, 명, 백만원〉

연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사업체수	965	1,043	1,063	900	843	987
월평균종사자수	46,181	48,521	47,137	46,406	40,067	41,855
연간 급여액(퇴직금 제외)	507,149	653,364	659,775	648,487	592,447	810,084
산출액	7,179,192	11,815,998	11,620,167	8,845,319	9,547,292	12,824,743
출하액	7,113,404	11,298,153	11,281,118	8,953,452	9,829,055	12,679,581
연말재고액	456,610	997,751	865,928	872,236	633,807	729,291
주요생산비	2,077,284	2,749,621	2,691,029	3,246,217	3,145,244	4,281,138
생산액(부가가치)	5,101,905	9,066,377	8,929,138	5,599,102	6,402,048	8,543,605
유형고정자산 연말잔액(건설가계정제외)	1,779,358	3,675,295	3,757,457	5,989,520	9,268,411	9,193,888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표 16)

## 1999년 제조업 중분류별

〈단위 : 개, 명, 백만원〉

분류	사업 체수	월평균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퇴직금제외)	산출액	출하액	연말 재고액	주요 생산비	생산액; 부가가치	유형고정 자산
제조업	987	41,855	810,084	12,824,743	12,697,581	729,291	4,281,138	8,543,605	9,193,888
음식료품	54	2,266	31,250	685,652	685,537	22,639	457,687	227,965	178,129
섬유제품	67	2,392	34,516	321,147	320,565	23,304	209,597	111,550	85,943
봉제의복	5	134	1,101	12,635	12,602	1,197	5,124	7,511	2,134
가죽, 신발	11	413	7,297	90,667	90,530	8,843	70,017	20,650	42,447
나무제품	17	187	2,265	18,603	18,689	472	12,311	6,292	5,574
종이제품	101	2,037	28,202	263,398	262,014	9,228	161,602	101,796	90,277
기록매체	27	446	4,771	42,340	42,256	633	25,357	16,983	13,042
코크스, 석유정	2	-	-	-	-	-	-	-	-
화학제품	53	3,473	59,073	1,000,254	1,002,173	77,045	356,403	643,851	446,688
고무, 플라스틱	123	2,762	34,930	303,580	303,722	9,673	185,147	118,433	93,735
비금속 광물	47	1,032	15,499	218,785	219,766	8,867	130,364	88,421	171,100
제1차금속	11	533	9,561	103,386	102,921	8,871	59,399	43,987	19,525
조립금속	93	1,786	26,090	236,913	237,782	12,465	136,720	100,193	129,958
기타기계 장비	58	1,922	26,735	245,626	243,450	17,200	143,137	102,489	82,925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10	220	2,928	17,463	17,463	98	10,954	6,509	4,861
기타전기 기계	52	2,526	40,679	363,480	360,646	18,537	224,214	139,266	139,941
전자, 통신 장비	47	15,812	473,783	8,497,222	8,380,015	476,111	1,890,513	6,606,709	7,561,398
의료, 정밀 기기	23	828	10,467	85,881	85,347	14,063	48,354	37,527	41,935
자동차 및 트레일러	28	1,144	13,827	116,616	115,180	7,936	77,232	39,384	48,682
기타운송장비	3	84	1,276	13,516	14,052	584	3,519	9,997	2,575
가구 및 기타제품	125	1,740	21,010	181,596	175,878	11,432	69,379	112,217	32,020
재생용가공 원료생산업	3	29	272	1,351	1,361	6	609	742	762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1.

〈표-16〉은 용인시 제조업을 중분류에 의해 나누고 각 업종별 주요 항목을 1999년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업체수와 월평균 종사자수, 연간급여액(퇴직금제외), 산출액, 출하액, 연말재고액, 주요생산비, 생산액(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을 나타낸 것으로 제조업의 중분류는 다음과 같다.

음식료품,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가죽과 가방 및 신발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및 종이제품, 출판과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코크스와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전자부품과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과 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체로 125개, 고무와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123개, 종이제품제조업이 101개인 반면 사업체수가 가장 적은 제조업체는 코크스, 석유정제품 제조업체로 2개이다. 월 평균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사업체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1만 5,812명으로 사업체수 47개에 비하여 많은 종사자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 업종은 산출액 8조 4,972억원, 주요생산비 1조 8,905억원, 유형고정자산 7조 5,613억원으로 다른 업종보다 제조업

(표 17) 연도별 지역내 총생산(불변가격)과 증가율(불변가격) <단위: 백만원, %>

종사자수		1993	1994	1995	1996	1997
지역내총생산	총생산	3,323,618	3,850,585	4,986,862	5,176,837	5,768,659
	증가율	-	15.86	29.51	3.81	11.43
제조업	총생산	2,031,640	2,435,626	3,265,310	3,321,583	3,708,658
	증가율	-	19.88	34.06	1.72	11.65

자료: 용인시, 《시·군 단위 지역내 총생산》, 2000.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표-17〉은 용인시 지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인시의 경우 제조업의 총생산 증가율은 지역내총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5년의 경우 반도체 경기의 영향으로 제조업 증가율이 34%에 이르자 전체 지역내총생산액의 증가율도 30%에 육박하였다. 용인시는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중 가운데서도 첨단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이다.

## 제3절 용인시 주요 제조업체

아래의 표들은 용인시 주요 제조업체들의 현황을 업종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제조업체들의 명단과 위치, 주요 생산제품 및 기타 참고사항들을 직접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만들었다. 아울러 용인시 소재 주요기업들의 소개의 글을 첨부하였다.

### 1. 주요 식품업체 현황

회사명	위치	주요생산제품	기타
대상식품	기흥읍	마요네즈, 케찹, 감치미, 맛나	매출액 1조 1천억원 종업원수 2,700명 국내외 25개의 자회사와 함께 글로벌경영
동성식품	유방동	생면류, 숙면류, 냉면류, 떡류	매출액 95억원 종업원수 100여명
동희	남사면	해마을 물엿, 해마을 전통엿, 해마을선식	
마니커	고림동	삼계탕, 닭불고기, 너겟(케이준맛) 데코바베큐	1997년 I.S.O 9002 인증 획득 2002년 12월 코스닥 벤처기업으로 등록
삼양농수산	기흥읍	위생고추가루, 볶은 참깨 후추가루, 마늘가루	농가로부터 천연원료를 직수입가공하여 선도 높은 각종 향신료를 생산, 공급
상촌식품	백암면	된장, 고추장, 간장	장식품과 관련하여 장아찌도 함께 생산
영미산업	마평동	옥수수기름, 식용유(콩기름) 고추맛기름, 국수(건면)	1968년 창업 옥수수식용유 전문제조업체
울엄마식품	수지출장소	바다소리 소해태, 바다소리 재래식탁김, 바다소리 멸치가루, 바다소리 다시마가루	수산물 가공품 전문업체
유천양조원	백암면	옥로술	무형문화재 제 12호옥로주 제조업체
이내식품	백암면	순대, 족발등 절임류	농림부지정 전통식품(백암순대)가공업체, 옛맛의 비법을 전 수, 계승하고 현대식 기술을 접목시킴, 과학적 이고 위생적인 생산
일동후디스	성읍	후디스아기밀업그레이드 후디스트루맘, 아기밀베이비쥬스, 후디스초유밀	30년 전통의 영,유아식 전문 메이커
하이젤	이동면	의약품 젤라틴, 식품용 젤라틴, 산업용 젤라틴	젤라틴 제조 및 무역
해표푸드 서비스	이동면	영너겟, 팝콘치킨, 치크치크(닭다리살로 만든 구운 제품), 요글로(닭다리살로 만든 튀김 제품)	신선육 및 계육 가공품전문

### 대상식품(주)

대상(주)은 1956년 설립 이래 약 반세기동안 세계 3대 발효전문기업 및 국내 최대의 종합식품회사로써 매출액 약 1조 1천억원, 2700명의 종업원과 국내외 25개의 자회사와 함께 글로벌 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발효기술로 개발한 “발효조미료”는 세계적으로 새로운 식품문화를 선도했고 각종 아미노산, 감미료, 향생제 등을 국제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정착시켰으며, 바이오테크놀로지 사업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믿음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식품브랜드인 청정원 제품은 최상의 물류서비스로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옥수수를 가공하여 각종 제빵, 제과 음료 등의 식품 원료인 전분당과 제지용 원료인 전분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E-Business, 환경, 건강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21세기형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지난 40여년간 우리 식탁에 새로운 맛의 문화를 창조하고 식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조미료의 대명사 발효조미료 ‘미원’을 비롯하여 종합조미료 ‘맛나’ · ‘감치미’와 전통장류, 조미식품, 냉동식품, 농수산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대상은 신선한 원료와 위생적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상은 ‘청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마케팅전략, 적극적인 판촉활동, 고객 지향적인 신제품 개발 등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식품브랜드로 육성하여 고객과의 뿌리깊은 신뢰를 구축하는데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동성식품(주)

(주)동성식품은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류, 떡류 및 소스류 전문 제조업체로서 사장 외 100여명의 임직원에 2000년 기준 연간 매출실적 95억원에 이르고 있다.

### (주)마니커

주식회사 마니커는 1985년 9월 (주)대연식품으로 설립되었으며, 도계육 생산 및 영업을 주요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완벽한 사양관리를 통해 우수 종란을 생산하고 부화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신선하고

위생적인 닭고기와 함께 영양이 뛰어나고 모든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육가공제품을 생산하며 냉채인화된 유통망을 통해 이들 제품을 적기, 적소에 공급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90년대 전반기는 유계계열화 사업체로서의 기반을 확충한 시기였다. 1996년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1997년에는 I.S.O 9002인증을 획득하여 완벽한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998년 대상마니커를 인수하여 (주)마니커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인수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경쟁력 확보로 매출의 신장 및 수익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2000년 12월 코스닥에 벤처기업으로 등록하였을 만큼 튼실한 회사가 되었다.

#### 삼양농수산(주)

기흥읍 구갈리에 위치한 삼양농수산(주)는 1975년 2월 1일날 설립하였고 식품가공업 식료품판매업, 식용유지제조판매업, 해조류가공판매업을 주로하며, 농가로부터 천연원료를 직접 구입 가공하여 건마늘, 고춧가루, 생강, 후춧가루, 참기름 등 선도 높은 향신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 그 품질을 농어촌개발공사가 보증하고 있다. 아울러 모회사인 삼양식품(주)의 라면 스프에 소요되는 20여종의 농수산물 원료를 적기에 구입, 위생적으로 가공처리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맛과 영양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상촌식품(주)

백암면의 물 맑고 공기 좋은 곳, 1만여평의 대지 위에서 우리 전통 장맛의 계승과 발전 및 농촌의 번영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마을에서 직접 생산해 내는 원재료에 우리의 전통방식 그대로 정성을 다해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든 장류 및 장아찌류를 생산해 내는 국가지정 전통식품업체이다. 1995년 설립 초기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잃지 않고 정직과 성실, 근면, 노력으로 제품에 정성을 쏟은 결과, 1999년 전통 식품품질 인증서를 획득하여 품질에 대한 공식 인정을 받았고, 각종 매스컴의 소개는 물론, 1998년 농수산식품 대축제 금상 및 1999년 경기도 농어민 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과 2000년 2월 현대백화점 명

품에 선정됨으로써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 이내식품

용인시 백암지역은 예로부터 토속음식 중의 하나인 순대로 명성이 잦았다. 그 명성을 빌려 ‘백암순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많은 상인들이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만 백암순대의 전통의 맥과 옛 맛을 계승시킨 제품이 드물 뿐이다. 백암순대는 죽성에서 숙주, 두부, 콩나물을 넣어 만들어 먹던 음식이다. 돼지를 도축한 후 내장을 버리기보다는 이용하려는 방편으로 시작되었다. 백암에서 열리는 5 일장을 통해 오랫동안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지금도 장이 열리면 곳곳에서 순대를 볼 수 있다. 신동선씨는 위생적인 순대 생산을 위해 1997년에 공장을 설립하였다. 백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순대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은 보편화되어 있어 기술 습득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백암 이내식품은 백암순대 옛 맛의 비법을 전수·계승하고 거기에 현대식 기술을 접목시켜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내식품은 그 동안 관능검사(시식회)를 통해 서울 녹색 시대에 여러 번 출품하였으며 많은 홍보 효과를 보았다. 또 99년 3월 일본 식품박람회 FOODEX99에 출품하였고, 코엑스에서 열리는 우리 농림 수산 식품 대축제에 참여했다. 일본사람들이 순대라고 하면 모르지만 KOREAN 소시지라고 하면 금방 이해한다. 그러나 이내식품은 전통 명칭을 고수하기 위해 ‘KOREAN 소시지’가 아닌 ‘순대’로 출품하였다. 일본의 자스크로라는 유통업체에서 모방하려고 샘플을 떠갔지만 얼마 후에 흉내도 못 내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기후나 풍토가 달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일본에 검역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검역이 통과되면 공식적으로 수출을 하려 하고 있다.

### 일동후디스(주)

일동 후디스는 30년 전통의 영, 유아식 전문 메이커로 1970년 창업 이래 한국형 이유식 아기밀을 비롯해 베이비 주스, 아기용 이온음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등 2세 건강을 위한 이유식 문화 창달에 선



도적 역할을 다해 온 남양산업을 60여년 전통의 민족 제약기업 일동 제약이 인수하여 탄생한 회사이다. 일동후디스는 최고급 품질의 식품개발을 위해 “인간존중, 합리경영, 가치창조”라는 경영이념 아래 일동 중앙연구소의 의약품 연구개발, 품질관리, 생산 노하우를 식품 개발에 접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식품 개발로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는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2. 생활용품 주요업체 현황

회사명	위치	주요생산제품	기타
대림유리	모현면	유리잔(24%레드크리스탈), 유리잔(세미크리스탈) 유리잔(24%이중칼라크리스탈), 유리잔(이중칼라세미크리스탈)	1984년에 설립, 유럽13년, 미국 10년등 국제시장 으로 진출하여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많이 알려짐 매출액 1,614,000,000원, 종업원수 47명
두원시계공업사	모현면	괘종시계, 원목시계	다양한 종류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킴
벨로체	고림동	디지털피아노(EU-520), 디지털피아노(EU590) 디지털피아노(DP-210), 디지털피아노(DP-220)	매출액 922,42억원, 종업원수 100명 단기순이익 3,69억원
부산관 상여사료	해곡동	맛기차하나로, 맛기차, 맛기차비트, 맛기차플레이크	관상여 사료전문 제조업체
삼본퍼프	고림동	분첩, 화장품주머니, 화장용가방	여러모양과 기능의 분첩 및 화장품 가방제조업체
성우전자	모현면	안마의자(웅상), 첼로형CD장식장, 바이올린형CD장식장, 하프형CD장식장	지압전문 마사지기로 안마의자 제조 및 각종 CD 장식장제품 제조업체
씨·월드	포곡면	글자놀이(가옥형)볼텐드, 글자놀이(육각)볼텐드 글자놀이사각텐드	어린이 용품 전문제조업체
에넥스	폭곡면	부엌가구노블7001메이플 스페셜5002화이트 스페셜5002라이트그레이 스페셜3005코디	부엌 가구 전문회사 2000년 산업자원부산하 기술표준원 주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선정 산업자원부 장관상, 우수디자인업디자인(GD) 마크 획득 및 환경디자인상 수상
에이아이테크	양지면	자동식 소화기, 축합식 소화기	각종 소화기 전문제조업체
원앤원스포츠	남사면	엑스필핸들, 원액트핸들, 원액트림,트리거셋트	양궁장비 생산업체
이수자반상	이동면	철죽교자정교자, 백합교자정교자, 선비상, 귀부인차상	반상제조업체 실용신안등록 제 03925호 제2족색지대 민속공예품부문은상, 농림수산부장관상수상, 용인시장 감사패수상

회사명	위치	주요생산제품	기타
에이테크 엔지니어링	모현면	휴대용 숯불 바비큐그릴, 숯불바비큐그릴, 대용량 숯불 바비큐그릴	숯불구이 바비큐 그릴 전문제조업체
자연과아이들	모현면	고깔서랍장, 고깔책꽂이퍼즐장, 안전책상과의자, 안전책상(10인용)	유아 및 초등용 가구전문제조업체
챌린저 크리스탈	양지면	크리스탈화병, 크리스탈홈바, 크리스탈와인잔, 크리스탈ढ고래	크리스탈류 제품 제조업체
컬러보이	모현면	교육용악기, 팬시용품, 알루미늄문구, 사무용품	'98년 기준 매출액 40억원, '98년 기준 종업원수 30명, 교육용 악기제품제조업체
태서전기	양지면	석유난로(TS-77), 석유난로(TS-2000), 석유난로(TSG-1), 석유난로	ALPACA라는 브랜드로 제품의 최고를 지향 석유난로 및 석유 곤로제조
태평양	기흥읍	설화수자음생크림, 헤라화이트프로그래 아이오페레티놀2500인텐시브 아이오페파워리프팅플루이드	창업이래 시장점유율1위를 고수하며, 한국화장품의 대표적인 브랜드 '99년 기준 매출액 6,480억원 1978년 경기도 용인시에 동양최대규모의 기술연구원설립
한국 비엔에이	백암면	유아용일자형기저귀(소,중,대) 성인용 펄프매트 및 일자형기저귀, 원단매트 및 산모패드, 꼬리패드	1986년 창립이후 기저귀업계의 선두주자로 유아용에서 성인용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보다저렴한 가격에 위생적인 품질로 생산하여 소비자만족도 향상에 힘씀
해동	유방동	슈퍼란스 야망, 슈퍼임팩트 워리어스, 리버스톤골드클라스	낚시대 전문 제조업체
화동 인터내셔널	기흥읍	살균전동칫솔	칫솔살균기와 전동칫솔이 결합된 세계 최초의 아이디어 상품

대림유리

대림유리는 1984년에 설립되어 35년 간의 풍부한 경험과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로 결실을 맺은 브랜드로써 17년간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 13년, 미국 10년 등 국제시장으로 진출하여 세계 여러나라의 제품들과 경쟁하여 우위를 지키고 있으며, 국내보다는 외국에 더 많이 알려진 회사이다. 국내에서는 많은 기술을 개발하여 여러 건의 특허 획득 및 출원 중에 있으며 수십 종의 의장등록도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취약점인 광고부족 및 소비자들의 유명메이커 선호에 밀려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매출증가에 고전한 적도 있으나 서서히 품질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 (주)벨로체

(주)벨로체는 대우전자(주)의 전자 악기 사업부에서 1998년 5월 1일부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여 9년 연속 국내판매 1위의 디지털 피아노인 벨로체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생산량이 연간 120억으로 50% 이상을 악기의 본고장인 미국, 유럽 등지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전자악기 전문회사이다. 디지털피아노 생산 제조뿐만 아니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지역 최고의 음악교육전문학원이다.

### 에넥스

에넥스는 부엌가구의 선두주자이자 주부들의 오랜 좋은 친구로서 인간중심의 아름답고 편리한 부엌을 지향하고 있으며, 인체 공학과 미학, 과학을 접목한 차세대 첨단 부엌문화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에넥스는 상장기업으로서 지난 28년간 부엌가구만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생산, 판매해온 전문기업으로 21세기 세계 5대 브랜드 진입 및 세계 속의 초 우량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ENEX VISION 21C를 선포하고 첨단과학과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환경정화사업에 돌입했다. 환경정화사업은 인간생존을 위협하는 각종 공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21세기를 주도할 획기적인 사업으로서 에넥스는 기체레이저와 전자빔을 이용한 유해가스 정화장치(LEGR)를 개발했으며, 이를 1차적으로 소각로에 적용하여 시판할 계획이다. 에넥스는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첨단 부엌가구사업과 LEGR 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환경정화 사업을 양대 축으로 하여 21세기 세계 속의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 태서전기

(주)태서전기는 1968년 설립된 이래 석유 및 곤로의 부품제조업체로 출발하여 선두적인 완성품 업체로 발전하여 왔다. 태서전기 제품은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을 보다 윤택하고 편안하게 하여 고객들에게 항상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술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ALPACA라는 브랜드가 붙은 모든 태서의 제품은 최고를 지향한다. 회사 창립 이후 꾸준히 기술혁

신과 최고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주)태서전기는 항상 보다 나은 제품 생산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주)태서전기의 경영철학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제품 생산' 이라고 한다.

**태평양**

화장품 사업은 (주)태평양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대표적인 사업 부문이다. (주)태평양은 화장품회사로 설립되었고 창업이래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최고급 브랜드인 헤라와 설화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의 대명사인 아이오페와 남성브랜드 미래파, 오딧세이 등은 여전히 소비자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주)태평양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최고의 기술을 통한 상품개발을 위해 (주)태평양은 1978년에 경기도 용인시에 동양 최대규모의 기술연구원을 설립하였다. 기술연구원이 개발하는 최신 기술들은 태평양을 한국 최고 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beauty & health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태평양 기술연구원은 고객만족을 위한 기술적 가치 창조, 강한 상품 개발 및 연구생산성 극대화를 통해 21세기 초우량 기업의 비전을 현실화해 나가고 있다.

**3. 주요 기계중장비부품업체 현황**

회사명	위치	주요생산제품	기타
(주)광장엔지니어링	원삼면 맹리	전자동 권취기, 선별기, 소자 테이핑기, 포밍테이핑기	태국, 브라질 등 해외 각국에 3000대의 기계를 수출
(주)나래나노텍	이동면 화산리	수직형권선기, 수평형권선기, CY Coil계측기	1999. 08 - 국내최초 DY권선기국산화개발
(주)남북	모현면 초부리	드릴탭핑센터, 레디알 드릴링 머신, 직접드릴과 탭핑머신, 자동드릴과 탭핑머신	
(주)대동플랜트	남사면 봉명리	알루미늄 벨트 콘베어, 프로플로우 콘베어	
(주)대일시스템	원삼면 맹리	제진대, 진공배관부품, 광학부품	1997. 10. 31 ISO 9002 품질시스템 인증획득
로체시스템즈 (주)	고림동	대기용로봇, Glass기관, 카세트스테이션, 웨이퍼, 카세트스테이션	자본금 17억원, 매출액 100억
부국개발(주)	양지면 남곡리	전문가공 Diamond 공구, 수공공구	
유일반도체(주)	기흥읍 고매리	PC level test Handler, Module Test Handler	1996년 세계 최초로 메모리 모듈 오토로딩 시스템 개발

회사명	위치	주요생산제품	기타
(주)정엔지니어링	양지면 남곡리	전자유량계	1999년 장영실상 수상
(주)지트	양지면 남곡리	레이저마크System, 테스트 핸들러, 테이핑머신	1998.2 ISO 9001 인증 획득
(주)케이엠티	기흥읍 고매리	6축 자동선반	
태주실업(주)	이동면 시미리	다이아몬드에지휠, 다이아몬드컵휠	
(주)파카코리아	기흥읍 하갈리	에어실린더, 솔레노이드 밸브, Air Filter	

### 광진엔지니어링

(주)광진엔지니어링은 1985년에 설립하여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브라질, 스페인, 멕시코 등 해외 각국에 3천여대의 기계를 수출하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은 전자동 권취기, 선별기, 소자테이핑기, 포밍테이핑기 등이 있다.

### (주)나래나노텍

(주)나래나노텍은 1930년 1월에 설립된 회사로서 일본 SEIWA 제작소와의 판매 대리점계약 및 일본 NITTOKU 엔지니어링과의 판매대리점 계약 체결을 하여 DY & FBT권선기 수입 판매를 하였다. 1995년 5월 나래엔지니어링(주)와 일본 NITTOKU 엔지니어링과의 합작계약체결(자본금 14억원)로 회사를 키우고 꾸준한 기술개발로 1999년 8월 (주)나래 본사를 준공하였다. 국내최초로 DY권선기 국산화개발을 하였으며, 1999년 10월에는, '99 한국기계전에 참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우수 자본재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자기자본금 40억원에 매출액 130억원(2000년)을 올리고 있고, 사업분야 역시 기계제조·판매·무역 등을 모두 하고 있다.

총 종업원 수는 80명이지만 2000년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등 매우 유망한 회사이다.

### (주)대일시스템

(주)대일시스템은 신기술 벤처 지정업체로서, 자본금 5억 5천만원에

종업원 30명의 반도체 관련 장비 및 광학 관련 장비(광학 테이블, 제진대, 진공배관부품, 광학부품 등) 제작 업체이며, 1984년 2월 6일에 설립되었다. 이후 1989년 제진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고, 이후 1995년 9월에는 실용신안 등록을, 1997년 10월 31일에 ISO 9002 품질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주요 고객으로는 삼성, 현대, 한국전자, 아남 등 대기업이 많고 주로 주문생산을 한다.

#### 로체시스템즈(주)

1997년 11월에 설립된 로체시스템즈주식회사는 반도체 및 TFT-LCD 제조업체에 반도체용 Clean Robot을 비롯하여 LCD용 Clean Robot, Indexer, Laser를 이용한 Glass Cutting System등의 첨단 고기능의 장비를 개발, 공급하고 있다. 자본금 17억원의 이 회사는 매출액 100억(2000년), 230억(2001년(예정))이고 종업원 수는 71명이다.

#### 유일반도체(주)

유일반도체(주)는 1996년 세계최초로 메모리 모듈 오토로딩 시스템을 개발하여 과학기술처로부터 IR52 장영실상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상을 수상하였으며, 1998년에는 메모리 모듈 테스트 핸들러를 개발하여 미국, 동남아, 유럽등 판매지역을 다양화하면서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해외시장 개척부문 경기도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1년여에 걸쳐 5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PC level Test Handler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 장비는 반도체 칩 모듈을 실제 PC 환경과 동일하게 검사하는 장비로 매년 400억 이상의 매출 효과가 기대되는 첨단 제품이다. 또한 ISO9001을 획득하여 확고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미국의 FCC 마크, 유럽의 CE 마크 등을 획득함으로써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입증받고 있다.

#### (주)정엔지니어링

(주)정엔지니어링은 대기오염측정 분야(굴뚝배출가스 측정 분야),

수질오염측정 분야(상수 폐수처리 분야), 유량측정 분야 등을 측정하는 전자유량계를 만드는 회사이다. 1979년 창업하면서 Stack Sampler 국산개발에 성공하고, 1994년 4월에는 Magnetic Flowmeter 과학기술처 국산 신기술 인정마크(K마크)를 획득하였다. 이후 독일의 SIEMENS사와 기술제휴를 하고 G-7 Project 굴뚝자동측정기 개발 완료하여 굴뚝자동측정기 신기술 인증마크(NT마크) 획득하였다. 1999년에 이르러서는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고, 전자유량계 KT마크 지정을 받는 등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이다.

#### (주지트

1996년 12월에 설립된 회사로서 1997년 11월 병역 특례업체로 지정(전문 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되고 1998년 11월에는 미국 LMT사와 기술교류 협약을 하는 등 레이저마크 시스템과 테스트 핸들러, 테이핑 머신 분야에서는 우량 중소기업이다. 또한 1998년 2월 ISO 9001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으며, 전체 종업원수 72명 중 18명이 연구원일 정도로 기술분야를 신경쓰고 있다.

#### (주케이엠티

(주케이엠티는 자동선반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6축자동선반을 주로 생산하고 태주실업(주)은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다이아몬드에지휠, 다이아몬드컵휠, 다이아몬드코아드릴 등이 있다. (주파카코리아는 산업설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에어실린더, 솔레노이드 밸브, Air Filter 등을 생산한다.

### 4. 주요 플라스틱 · 미생물업체 현황

회사명	위치	주요생산제품	기타
남강화성	남사면 통삼리	나일론 호스, 산업용수지고압호스, 폴리우레탄호스, 자동차용 에어브레이크호스	2001.8 미국 자동차회사 부품 수출을 위한 QS9000/ISO9002 인증획득
세화정밀(주)	남사면 북리	난연 플라스틱 컴파운드, 고충격 플라스틱 컴파운드, 음향기기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Cable & Tube용 컴파운드	
(주)엘.씨.아이	구성읍 상하리	살균소독제	자동화된 자체타정설비를 이용하여 생산
(주)케이아이비씨	이동면 어비리	액티노그린, 태취컨트론, 바이오컨트롤, 그린케어	1997.8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KVI 벤처기업 1호
코멕(주)	남사면 방아리	주형용에폭시수지, 자기용착바니쉬, 폴리우레탄 동선에나멜바니쉬	
(주)현대비니루	이동면 덕성리	PVC경질시트(비닐)/장식용, 식품및의약품 포장용, 일반포장용, 인쇄용	

#### 남강화성

남강화성은 1984년 2월 창립된 회사로서 자본금 3억 6천만원, 연  
간매출액 15억의 회사다. 프랑스 “Ato Chem”사와 기술제휴 및 원  
료공급 계약을 하여 1986년 이래로 이제까지 연료 라인 호스를 기아  
자동차에 공급하여 왔으며, 1987년 이후로는 Din 74323, SAE J  
844 사양에 따라 개발한 코일 에어 브레이크 튜브(A&B 유형)를 쌍  
용, 현대, 대우 자동차에 공급해 오고있다. 1991년 1월에는 통상산업  
부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1992년 2월부터는 자동차  
“Air-Brake” 나일론 11-코일 호스를 홍콩에 수출하고 있다. 2001  
년 8월 자동차(미국 3대 메이커) 회사 부품 수출을 위한  
QS9000/ISO9002 인증획득을 하였다.

#### 세화정밀(주)

세화정밀(주)는 합성수지 생산업체로서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난연  
플라스틱 컴파운드, 고충격 플라스틱컴파운드, 음향기기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등이 있다.



**(주)엘.씨.아이**

(주)엘씨아이는 1980. 10 동양우레탄이란 이름으로 설립하여 회사의 발전과 함께 1998. 12월 Lee Chemical Industry 설립하였다. (주)엘씨아이는 무기 염소계와 유기 염소계 살균소독제를 자동화된 자체타정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있다. 물을 이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깨끗한 수질과 오염 방지의 역할을 하게 될 LC Clean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용상의 기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물리, 화학적 물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며, 품질 개선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주)케이아이비씨**

(주)케이아이비씨 1997년 8월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KVI 벤처기업 1호로 정부공인 벤처기업이며, 경기도 용인에 환경생명공학 최신설비를 겸비한 첨단 생산 공장을 준공하고 양산체제를 갖추었다. 이후 1997년 12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승인(경기도)을 받았고, 독성화학 농약에 의한 환경 오염 및 생태계 파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항공팡이 첨단 미생물제제를 개발하고 다수의 발명특허와 국산 신기술을 획득하였으며, 98년 충북 발명왕/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특별상과 98년 한국산업기술대전 은상을 수상하고 첨단 환경생명공학 기술의 선도로 세계 제일을 자부하는 미래 첨단기술 지식집약형 벤처기업이다.

**코멕(주)**

에폭시수지와 자기융착바니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 생산제품은 주형용에폭수지, 자기융착바니쉬, 폴리우레탄 동선에나멜바니쉬 등이 있다.

**(주)현대비니루**

PVC시트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장식용 비닐이나 식품 및 의약품 포장용 비닐, 일반포장용 비닐, 인쇄용 비닐 등을 생산한다.

## 5. 주요 자동차수송부품업체 현황

회사명	위치	주요생산제품	기타
(주)동우	포곡면 금어리	자동차용 오일필터, 승용차용 연료필터, 에어 클리너	자산 196억, 종업원수 190명 수출액 연 250만불
서보실업(주)	원삼면 미평리	화물자동차, 웹슬링, 라운드 슬링	
신기엔지니어링	구성읍 중리	무궤도열차, 꼬마궤도열차	1995년 전문기술력으로 무궤도열차 개발
신성특장(주)	기흥읍 공세리	압축진개차, 암롤트럭, 롤업자동차스거트럭, 암롤박스	
(주)아팩	유방동	자동차용 오일필터, 에어필터, 연료필터	1999.12 QS 9000 & ISO 9001 획득
영동산업(주)	이동면 덕성리	오일필터	1999.3 ISO 9002 인증 획득
유성산업(주)	이동면 묵리	자동차용 튜닝 머플러 및 팁, 자동차용 프론트 가드, 에어 인테이크 파이프	
홍림산업(주)	모현면초부리	차량운송용냉동기	
(주)흥진크라온	이동면 서리	헬멧	2000년 무역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 (주)동우

(주)동우는 1983년 1월에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 196억원, 직원 190명의 회사이다. 주요수출국은 미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호주 등이고 연간 매출액은 약 \$2,500,000이다. 1983년부터 현대자동차(주) 현대서비스 OIL FILTER, FUEL FILTER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 CHRYSLER(미국)에 OES용 OIL FILTER, FUEL FILTER를 수출하고, 1987년에는 품질관리 2등급 업체 지정(공업진흥청)이 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발전 끝에 1995년 12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00PPM 품질인증을 획득하였고 1996년 6월 100PPM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1999년 12월 QS-9000 인증을 획득하였다.

## 서보실업(주)

서보실업(주)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주요 생산제품은 화물자동차와 웹슬링, 라운드슬링 등이 있다.

## 신기엔지니어링

신기엔지니어링은 1995년 8월에 설립되어 자산 8억 2천 5백만원,

직원 12명이 있다. 유원시설업의 유기기구 생산업체인 신기엔지니어링은 1996년 6월에 공장등록을 하였다. 20년간 자동차정비 전문업체로 성장하여 오던 중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외국을 답사하였다. 그 와중에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무궤도열차라는 제품이 눈에 띄어 개발에 착수코져 1995년도에 전문제조 공장은 경기도 용인에 설립하여 자체기술력으로 개발에 성공하였다. 실용신안 1건, 의장등록 2건 등 완전 국산화에 성공하여 전국 대단위 유희시설 및 공원 등지에 납품하고 있고, 장차 수출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이다

#### 신성특장(주)

특장차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압축진개차, 암롤트럭, 톱밥자동수거트럭, 암롤박스 등을 생산한다.

#### (주)아팩

(주)아팩은 1988년 12월에 설립된 자동차용 필터류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1994년 7월에는 오만에 오일필터를 수출하였고, 1996년 8월에는 인도네시아에 오일필터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또한 1999년 12월에 QS 9000 & ISO 9001을 획득하였다. 최근 세계 각지의 여러 곳으로 수출하고 있다.

#### 영동산업(주)

1978년 3월 영동필터 공업사로 설립된 자본금 6억, 사원 85명의 기업이다. 자동차 오일필터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1986년 6월 현대자동차 서비스(주)와 거래개시를 하였고 1986년 12월 한국무역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999년 3월에 ISO 9002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00년 6월 Honeywell(Allied Signal CO.,LTD.)와 기술제휴를 맺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제37회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을 하였고 12월에는 QS 9000,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동차 부품 제조 메이커로 발전하기 위해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최고의 품질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불량률 제로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필터 개발을 위해 신기술과 IE(Industrial Engineering) 및 VE(Value Engineerign)기법을 도입하여 더욱 향상된 필터를 양산할 계획이고 환경 친화 제품, 제품 및 부품의 표준화와 공용화를 바탕으로 한 신제품 개발과 특허 출원으로 Oil Filter, Ful Filter, Air Filter로의 종합 Filter 제품 개발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유성산업(주)**

유성산업(주)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요 생산제품은 자동차 튜닝 머플러 및 팁, 자동차 프론트 가드, 에어 인테이크 파이프 등을 생산한다.

**홍림산업(주)**

자동차 냉동공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차량운용냉동기, 컨테이너운송용냉동기 등이 있다.

**(주)홍진크라운**

홍진기업은 1971년에 창설(헬멧내장재 납품/수출)된 업체이다. 직원수 280명에 주 생산품은 오토바이용 헬멧이다. 이 기업은 1983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지도업체로 지정받았으며, 1989년에는 우량중소기업(중소기업은행)으로 지정되고 1992년 6월에는 대통령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2000년에는 제37회 무역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여 경쟁력을 두루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라 하겠다.

## 6. 주요 건설자재업체

회사명	위치	주요생산제품	기타
동산콘크리트 산업(주)	고림동	호안블럭, 특수S블럭, 조정블럭, 자중식 옹벽블럭	한국 산업규격 K.S 표시 허가 취득(KS F4419, KS F4004)
동일세라믹스	포곡면	Ceramic Backing Material(8061,8063A,600,600G)	세계최고의 CBM 생산 기술력·경쟁력 입증, 국내최초 용접용 Back Up Tape 국산화 성공
(주)대흥수지	유방동	스치로폴	
(주)리프텍	남사면	수퍼스파이더, 스파이더, 미드스파이더, 다운스파이더	유망중고기업, 벤처기업등록 국내최초 고속형 리프트 개발
삼신공영	남사면	조립식 건물, 철구조물, 공장산축	
석영메탈	남사면	standard형Expended Metal,Grating형 Expended Metal,Grating튐날형	
(주)세진대리석	원삼면	대리석, 화강석	자본금:70억원 인원현황:149명 (사무,기술직:76명. 생산직:73명)
세한후렉시블(주)	양지면	이동식 배기호스, 알루미늄 후렉시블 덕트, 타포린 후렉시블 덕트	ISO 9002 인증 UL 규격 획득
와이엔 에스	포곡면	절수형 꼭지, 절수 자동밸브, 수도꼭지	월 수만 세트 생산
(주)태동폴리텍	이동면	에어덕트용 후렉시블 방음덕트,T-FLEX DUCT,라미네이트 덕트,제연덕트	
한국스파이로(주)	구성면	사각덕트, 원형덕트	
한국프라임(주)	남사면	내화보드, 내화 PUTTY, 내화 SEALANT, 전선 Cable 연소방지도료	
한양특수곡면 유리	백암면	쇼케이스용 곡면유리, 건축창호용 곡면강화유 리, 평면강화유리	

### 동산콘크리트

1989년 3월 동산건재로 창업한 동산콘크리트는 1999년 3월 (주) 동산콘크리트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0년 경기도 시멘트가공업 협동조합 가입함과 동시에 한국 산업규격 K.S 표시 허가 취득(KS F4419, KS F4004)하였다. 주요생산제품으로는 호안블럭, 인터로킹블럭, 콘크리트경계블럭, 원통 및 사각하수도 맨홀, 통신용 맨홀,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 환경친화형 녹화블럭 등이 있다.

### 동일세라믹스

세계최고의 CBM 생산 기술력·경쟁력을 입증받았으며, 국내 최초로 용접용 Back Up Tape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일본 사무소 운영을 통해 현지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주)동일세라믹스는 용접용 Back Up Tape 전문생산업체로 국내 최초로 용접용 Back Up Tape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동일이 개발한 CBM은 조선, 해양, 플랜트, 철구조물 제작등에 적용되고 있는 용접부재로써 CO<sub>2</sub>반자동 용접, 자동용접 등 One Side Welding 기법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 (주)리프텍

1991년 11월 동우정공으로 설립되어 2000년 상호를 리프텍으로 변경하였다. 용인 주북공장을 1993년에 준공하였으며, 1997년 건설업 비계구조물 해체 면허를 취득하였다. 건설용 LIFT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1999년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다. 2000년 용인 남사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였고 같은 해 국내 최초 고속형 리프트 개발(세계 네 번째)에 성공하였다. 2001년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었으며 고속형 리프트를 출시하였다. 중속형 리프트도 개발하였고 국내 최초 인승용 리프트를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용, 산업용, 특수형 리프트 제조 판매 및 임대, 고소작업대(workplatform), 무인자동운행장치, 안전도아 제조 판매, 리프트 설치, 해체, 수리, 장비 운영관리 업무 전산화, Tower Crane, Jib Crane 임대, 설치, 해체, 수리, 관리운영, 리프트 부속 안전장치 제작·판매 등이 있다.

### (주)세진대리석

주식회사 세진대리석은 30여년간 양질의 석재를 생산하는 석산과 최신가공설비를 보유하고 높은 가공기술과 우수한 시공기술로 국내 석재 산업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기업으로 자본금은 70억원이다. 종업원수는 총149명(사무,기술직:76명 생산직:73명)이며, 미려하고

건실한 석재문화를 재현 발전시켜온 세진은 30여년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석재와 연계된 인테리어 및 종합 인테리어, 시설물·유지·관리 등이 포함된 리모델링업계에까지 진출하였다.

#### (주)세한후렉시블

(주)세한후렉시블은 1994년에 설립된 이래 다양화, 고급화되는 시장 추세에 맞춰 수많은 Flexble Air Duct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업계를 선도하였고, 1987년 해외수출을 개시한 후 30여개의 생산라인으로부터 고품질의 제품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바, 1990년 실용실안 특허를, 1996년엔 ISO 9002 인증을 각각 획득하였다. 1999년 4월에는 세계적 품질검사인 UL규격을 취득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정기적인 사후관리로 제품의 품질유지 및 향상을 기하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이동식 배기호스, 알루미늄 후렉시블 덕트, 타포린 후렉시블 덕트 등이 있다.

#### 와이엔에스(Y&S)

1989년 6월 은성금속공업사로 시작한 와이엔에스는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번호: 제7663, 10807호)를 인증받았으며, 절수기, 수도꼭지,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한 개 레바식 온냉수 혼합꼭지를 월 2만 세트, 두 개 핸들식 온냉수 혼합꼭지를 월 1만여 세트, 단독꼭지를 월 3만 세트 생산하고 있다.

## 7. 기타 주요 업체 현황

회사명	위치	주요생산제품	기타
경인상사(주)	원삼면	크레파스, 그림물감, 연필깎기, 원형수출용파스	매출액 연 680억원, 종업원 649명
(주)경방	포곡면 삼계리	그레이사, 메란사, 직물	연 매출 680억, 연간 방적 880만kg, 직포 522만m 생산
경훈산업(주)	이동면 화산리	Polyethylene Tubes	
국일제지(주)	이동면 천리	제지류, 식품용지	
대안화학 (주)	모현면 매산리	폴리에틸렌 필름백(고,저밀도), 화물운송용 에어백, 패션백, 쇼핑백	매출액 연 50억원, 종업원 39명 연간 생산량 3천톤
(주)동성산업	고림동	연포장	
대한은박지공업(주)	기흥읍 고매리	알루미늄호일, 은박가정용품, 통신용전선, 담배포장재	매출액 918억, 종업원 406명, 자본금 50억원
부국금속공업(주)	이동면 더성리	알루미늄튜브 및 캔, 알루미늄캔	
(주)신우	포곡면 금어리	고급지함상자, 지관포장, 팬시, 선물용상자, 쇼핑백	
성림제지공업(주)	이동면 천리	화장실용 두루마리 화장지, 점보물티슈,페이퍼타울, 복사용지(A4, B4)	종업원 100명
(주)영부바이오세라믹	모현면 동림리	원적외선방사소재(플라스틱용, 섬유용, 화장품용, 벽지/장판용)	
(주)파컴텍스	모현면 일산리	분당, 코팅원단	
(주)카파맥스	남사면 창리	연필깎기, 서랍장, 파일	
(주)칸나	고림동	칸나고급가족앨범, 칸나갤러리앨범, 칸나매 모리앨범, 칸나PP앨범	
(주)한미레이블	구성읍 상하리	Woven Label	매출액 연 500억, 종업원 60명 ISO 9002/14001

## (주)경방 용인공장

1919년 '경제자립으로 자주독립을 이루자'란 선각자의 뜻을 모아 출발한 기업인 경방은 변혁의 파고를 창업정신으로 헤치며 80년 전통의 탑을 쌓아올린 민족기업이다. 경방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1974년에 건설된 용인공장은 경방의 최대공장으로서는 정방기 9만여 추와 면직기 3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로 수출용 면제품과 혼방 직물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경고등학교와 기숙사를 비롯한 레저 스포츠시설 등의 후생복지시설은 또 하나의 자랑이다. 주요 생



산제품은 그레이사, 메란사, 직물이고 생산량은 연간 방적 880만 kg, 직포 522만m이다. 연간 매출액만도 680억원에 이르고 있다.

#### 대안화학(주)

1992년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10억 3,700만원에 연간 매출액 50 억원이다. 종업원 수는 39명이고 연간 수출액이 22만 6천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 영국, 멕시코 등이며,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폴리에틸렌 필름백(고, 저밀도), 화물운송용에어백, 패션백, 쇼 핑백 등을 들 수 있다. 주거래은행은 기업은행이고 연간 생산량은 3천 톤이다.

#### 대한은박지공업(주)

유통, 수출, 수입, 제조업체인 대한은박지공업(주)은 1971년에 설립되었다. 자본금 50억원에 자산총액이 619억원, 부채가 396억원, 연간 매출액이 919억원에 이른다. 406명의 직원이 단합하여 연간 약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이 2만 5천톤이다. 1973년 생산제품 알미늄 박 및 알미늄 접합지 KS 허가에 이어 1986년에는 은박 가정용품 Q마크를 획득, 1996년에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주요 생산제품은 알루미늄호일, 은박 가정용품, 통신용전선, 담배포장재 등이다.

#### (주)한미레이블

(주)한미레이블은 자체공장에서 제품 DESIGN 및 생산, 국내 납품은 물론 미국, 홍콩 등지로 직수출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2001년 1월 업계최초로 품질 및 환경 경영관리 시스템 인증(ISO9002/14001)을 획득한 국내 최대의 WOVEN LABEL 전문 제조업체이다. (주)한미레이블은 1988년 9월 서울근교인 현위치에 대지 1,500여평, 연건평 1,000여평 규모의 공장 및 사옥을 건립하여, 현재 DESIGN용 최첨단 컴퓨터 6대, 스위스 물러사의 레피아 직기 21대, 국내 유일의 NEEDLE직기 7대, 최고급 연사기 3대, 정경기, 초음파 컷팅기 등 국내 최고, 최대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스위스에

서 기술이전 받은 전문 엔지니어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LABEL생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미는 현재 종업원 60여명, 연간 매출액 50억원(대미수출100만불 포함)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주요거래처로 국내 유명 브랜드사는 물론 세계적인 J.C.PENNEY, U.S LABEL, ALKAHN, K-MART, WALL MART 등과 전속거래를 하고 있다.

## 제8장 건설업



### 제1절 일반 현황

#### 1. 사업체수와 생산액

1999년 현재 용인시의 건설업 사업체수는 486개로 전년 대비 35개 (7.8%)가 증가하였다. 건설업 종사자수는 3,794명으로 전년 대비 1,420명(59.8%)이 늘어난 수치이다. 건설업이 전산업의 사업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이고 종사자수의 경우 3.39%이다. <표-1>은 용인시 전체 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수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 4%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표-2>에서 보듯이 생산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건설업의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건설노동은 작업장소가 옥외이고 항상 이동해야 하며 중노동이 많을 뿐 아니라 기능공 등은 주로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하고 있어 임시

(표 1)

건설업 사업체수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증감		종사자수 증감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1998	1999	1998	1999	사업체수	증감률	종사자수	증감률	1998	1999	1998	1999
전산업	14,467	16,727	99,536	112,066	2,260	15.6	12,530	12.6	100	100	100	100
건설업	451	486	2,374	3,794	35	7.8	1,420	59.8	3.12	29.1	2.39	3.39

자료: 용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9.

일용(臨時日傭)이나 계절적 고용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특징이다. 위험작업이 많아 산업재해도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기능공의 경우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신규인력의 양성이 어려워 기능공의 부족이나 고령화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1993년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액 3조 3,236억원중 건설업의 총생산액은 4,351억원으로 전체의 13.09%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은 지역내총생산도 29.51%증가하였고 건설업의 총생산액 또한 39.87%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7년 지역내총생산은 5조 7,687억원이며, 이중 건설업의 총생산액은 7,513억원이다.

(표 2)

지역내총생산(불변가격)

〈단위: 백만원, %〉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지역내 총생산	총생산	3,323,618	3,850,585	4,986,862	5,176,837	5,768,659
	증가율		15.86	29.51	3.81	11.43
건설업	총생산	435,077	452,667	633,132	649,625	751,345
	증가율		4.04	39.87	2.6	15.66

자료: 경기도, 《시·군 단위지역내총생산》, 1999.

건설업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 · 특수건설업 ·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경기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업자라고 하고, 면허는 5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건설업은 시장구조면에서 주문생산적 기업, 즉 수주산업(受注産業)이다. 건설업자는 발주자(發注者)나 건설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 활동에 착수하고, 구조물·건축물 등을 완성하여 인도하게 된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규격화·제품화한 시장생산, 예정생산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재고품이 허용되지 않는 등 기업운영상 탄력성이 없다. 또한 발주자측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발주자란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민간기업체나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하다. 건설업이 정치·경제적인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것은 이와 같은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 2. 건축허가 현황

1999년 건축허가는 1,988동으로 외환위기의 해인 1998년 739동에 비해서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연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전년도 48만㎡에서 92만㎡로 배 이상 증가하였다. 허가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근철골조의 경우 1993년 656동에 비하여 1999년 1,557동으로 901동이 증가하였고, 조적조는 1999년 91동으로 1993년 160동에 비하여 69동이 감소하였다. 목조는 1993년 1동에 비해 1999년 74동으로 73동이 증가하였고, 기타의 경우 1993년 159동이 1999년 266동으로 107동이 증가하였다.

〈표-4〉는 용도별 건축허가를 나타내고 있다. 1999년의 경우 주거용이 1,147동, 연면적 851만 9,56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상업용으로 453동에 연면적 26만 8,531㎡에 이른다. 광공업용으로는 213동, 연면적 14만 5,577㎡이고 공공용은 13동, 연면적 6,382㎡, 문교용으로 15동, 연면적 2만 9,793㎡, 사회용으로 74동, 연면적 6만 1,631㎡, 기타 63동, 연면적 11만 6,803㎡를 차지하고 있다.

〈표-5〉는 아파트 건립허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1998년 198동에서 1999년 521동이 늘어난 719동을 기록하였다. 건립허가 가구수는

(표 3) 건축허가 현황 <단위: 동, m²>

연별		합계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1993	동수	976	656	160	1	159
	연면적	953,221	870,704	32,337	212	49,968
1994	동수	1,356	996	205	5	150
	연면적	1,273,373	1,171,769	44,554	393	56,657
1995	동수	1,742	1,547	185	9	1
	연면적	1,274,478	1,228,660	42,247	1,974	1,597
1996	동수	1,783	1,354	188	12	229
	연면적	2,613,471	2,252,765	43,522	4,063	312,581
1997	동수	1,842	1,168	188	85	401
	연면적	2,739,424	2,482,032	38,108	21,137	198,147
1998	동수	739	433	98	29	233
	연면적	480,148	407,539	12,619	5,683	54,307
1999	동수	1,988	1,557	91	78	266
	연면적	9,155,011	9,054,177	14,684	13,574	72,576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2000.

(표 4)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단위: 동수, m²>

연별		합계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주거용	동수	1,147	963	73	65	46
	연면적	8,519,568	8,490,896	9,978	12,745	5,949
농림 수산업용	동수	10	5	1		4
	연면적	6,726	4,968	193		1,565
광공업용	동수	213	159	1		53
	연면적	145,577	125,842	824		18,911
상업용	동수	453	290	12	3	148
	연면적	268,531	222,298	2,565	547	43,121
공공용	동수	13	11	1		1
	연면적	6,382	5,625	659		98
문교용	동수	15	13			2
	연면적	29,793	29,008			785
사회용	동수	74	62		6	6
	연면적	61,631	60,360		282	989
기타	동수	63	54	3		6
	연면적	116,803	115,180	465		1,158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2000.

1998년 1만 1,755 가구에서 3만 3,077가구가 늘어나 1999년 4만 4,832가구가 되었다. 규모별 가구수로는 1998년 133~166㎡의 규모에서 2,742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1999년도 역시 133~166㎡의 규모에서 1만 1,182개로 다른 규모보다 많은 가구수가 분포하고 있다. 1998년에는 33㎡미만의 가구수는 없었는데 비하여 1999년에는 16가구가 존재한다.

(표 5)

## 아파트 건립허가

〈단위: 개수〉

연별	동수	가구수	규모별가구수						
			33㎡미만	33~66㎡	66~99㎡	99~133㎡	133~166㎡	166~199㎡	199㎡이상
1998	198	11,755		1,039	3,967	1,880	2,742	1,708	419
1999	719	44,832	16	24	3,093	16,681	11,182	7,911	5,925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2000.

(표 6)

## 아파트 층수별 가구수 현황

〈단위: 개수〉

연별	층수별 가구수									
	합계		5층이하		6~9층		10~19층		20층이상	
	동수	가구수	동수	가구수	동수	가구수	동수	가구수	동수	가구수
1998	198	11,755	41	810			142	9,705	15	1,240
1999	719	44,832			3	96	292	19,241	424	25,495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2000.

건립허가된 아파트의 층수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1998년도에는 10~19층의 아파트 동수가 142개로 가장 많고 가구수 역시 9,705개로 가장 많았으나 1999년 이후 20층 이상의 아파트가 비중이 커짐으로써 고층아파트 건설이 용인시에서 주종을 이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설업은 생산대상이 특수성·개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가표준(原價標準)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업종이다. 건설업은 그 생산대상이 공사의 종류·내용·규모·지역·공사기간 등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개별주문생산·단품생산(單品生産)에 의존하므로 제조업의 경우와 같은 일정한 원가표준의 설정이 어렵다. 용도별·규모별·구조별로 다종다양할 뿐만 아니라 같은 용도, 같은 규모, 같은 구조의 건설물이라 할지라도 건설장소의 지반, 인접지의 조건, 공기(工期),

계절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공사단위별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은 또 생산 기본구조가 복잡적이기 때문에 하도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건설업자가 자체적으로 모든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갖출 수가 없으므로 전문기술이나 기능·장비·노동력 등을 외부의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건설업을 종합산업 또는 종합가공업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하면 철강재나 시멘트 등의 자재는 제조업자로부터 조달하고, 조적·미장·철근·설비·수도공사 등은 각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하게 하며, 노무자는 노동조합이나 인력공급업자로부터 알선받아 고용한다. 건설업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관리하여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또한 고정자산에 투입되는 설비투자의 비중이 낮고 공사의 시공에 있어 철강이나 화학 등의 장치산업(裝置産業)과 달리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설업을 노동집약형 산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건설장비의 개발에 따른 기계화 시공의 확대 보급에 따라 건설업의 노동집약적인 색채는 점차 없어져 가고 있다.

건설업은 그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발주자의 주문조건이나 공사의 종류·규모에 따라 그 생산기간이 1개월 미만에서 수 년이 걸리는 것까지 천차만별이며, 공사규모가 대형화함에 따라 공기도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결정되어 있는 판매가격, 즉 도급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자재의 조달, 인력의 공급, 건설기계의 투입 등에 있어 계획·시행·관리의 효율화가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공기의 단축, 시공능률의 향상, 공사원가의 절감 등을 실현하여야 한다.



## 제2절 용인시 택지개발사업

용인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택지 지구를 고려할 경우 현재 35만 명인 지역 인구가 2006년에는 약 8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입지가 대부분 준농림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 기반 시설이 없더라도 토지만 확보하면 쉽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준농림지 제도는 수도권의 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 개발 가능지의 부족에 따라 도입되었다. 정부는 1990년대 초까지 유지되어 온 관리 중심의 토지 정책을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1994년에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토지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도농 통합지역의 토지 공급을 늘이기 위하여 국토이용의 기본구조를 보전과 개발의 두 가지로 단순화하고 준농림지라는 완충적 성격의 용도지역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1994년에서 1999년 사이에 30여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었고 100km<sup>2</sup>의 공장 용지가 제공되는 등 총 400여 km<sup>2</sup>의 개발 용지가 공급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준농림지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준농림지에서 8.8만호가 건설·입주중이며 8.1만호는 사업 신청 중에 있다. 또 5개 신도시 이후 20만평 내외의 중소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경기도는 그 중의 약 80%인 1,520만평, 38만호가 건설되었다.

### 1. 택지개발 확대 원인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전체 인구의 45.9%가 몰려 있어서 과밀에 따른 개발 압력이 상존하는 곳이어서 서울에 인접하고 있는 시와 군 지역들은 거의 모두가 자생적 개발보다는 서울에서 넘쳐나는 개발 수요를 받아서 정리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용인은 서울에 인접하고 있는 입지적 여건 이외에도 교통과 산업적으로 주변의 다른 시와 군들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먼저 용인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하고 교차하는 교통의 결절지로 여타 지역과의 연계 효과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용인 지역에는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의 공장 및 연구소가 많이 몰려 있으며 강남대, 용인대, 명지대를 비롯한 수 개의 대학들이 벨트를 형성하면서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용인은 산학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의 잠재력이 높으며 생산 유통 기지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한마디로 용인은 여건만 갖추어진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개발이든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된 서울의 주변 도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체적이고 도시 관리적인 계획과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7>은 용인시 용도지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 2. 택지개발 현황

(표 7) 용인시의 용도지역 현황 (단위 : km<sup>2</sup>, %)

행정구역 면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591.6	81.662	13.8	55.978	9.5	271.032	45.8	182.906	30.9

<표-7>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인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다. 이미 언급한 준농림지역이 그 다음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순서이다.

용인시의 택지 개발 추세를 보면 1990년 이전에는 계획 개발이 없었으나 199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용인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현황에 따르면 평균 개발 면적은 지구당 903km<sup>2</sup>이며 지구당 평균 세대수는 5,800세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아닌 민간 개발의 경우에는 개발의 규모가 작아질 뿐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같은 회사에 의한 분할 개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별 택지 개발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진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변경 면적은 1992년에 35km<sup>2</sup>로 가장 많았다. 다른 년도에는 보통 6만에서 7만km<sup>2</sup> 정도에 머물고 있다. 건수는 총 536건으로 199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들 국토이용의 변경 목적을 보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변경이 건수에서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한 사례가 전체 건수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용인은 전체 536건의 국토이용 변경 중 123건을 차지하여 단일 시와 군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22.95%) 최근의 공동 주택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8) 용인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현황

지구명	시행자	지정 일자	진척	면적 (1,000m <sup>2</sup> )	호수	면적/호수 (m <sup>2</sup> )
기흥 구갈	토지공사	1998. 12. 21	준공	217	2,319	935.75
기흥 영덕	주택공사	1998. 12. 21	준공	116	640	181.25
용인 수지	토지공사	1998. 10. 14	준공	949	9,363	101.35
용인 역북	용인군	1993. 11. 08	준공	59	882	66.89
용인 김량	용인군	1993. 11. 08	준공	59	808	73.02
용인 수지2	토지공사	1993. 11. 08	준공	965	6,581	146.63
기흥 구갈2	토지공사	1994. 03. 10	준공	648	3,399	190.64
기흥 상갈	주택공사	1994. 10. 05	준공	330	3,759	87.79
용인 신봉	토지공사	1995. 08. 29	시행중	447	2,722	164.22
용인 동천	토지공사	1995. 08. 29	시행중	213	1,928	110.48
기흥 구갈3	경기도	1996. 04. 24	시행중	957	4,912	194.83
용인 동백	토지공사	1997. 02. 07	시행중	3,267	17,381	187.85
용인 죽전	토지공사	1998. 10. 07	시행중	3,583	18,541	193.25
기흥 신갈	주택공사	1998. 10. 07	시행중	404	3,702	109.13
용인 보라	주택공사	1999. 12. 20	시행중	988	7,600	130.00
용인 구성	주택공사	1999. 12. 20	시행중	1,252	9,150	136.83
계 (평균)				14,452 (903.25)	93,687 (5,855.43)	(188.11)* (137.81)**

주: \*는 전체 평균, \*\*는 1990년대 평균. 노태욱(2000).

1999년에 용인시가 허가된 주택 건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단지 수

(표 9) 경기도 국토이용 변경 현황(1990~1999)

시군별	건수		변경 면적	
	건	%	m <sup>2</sup>	%
용인시	123	22.95	39,725,644	6.90
기타 시 계	196	36.57	342,00,156	59.39
군 계	217	40.49	194,150,668	33.71
경기도 총계	536	100.00	575,966,468	100.00

자료 : 노태욱(2000)

는 170개이나 실제로 개발 허가를 얻은 건설 회사는 65개이다. 용인의 서북부 지역(수지, 기흥 및 구성)의 전체 면적은 124.6km<sup>2</sup>로 용인시 전체 면적의 21%에 불과하나 인구는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죽전, 동백, 수지 지구 등 18곳에 13만 가구 규모의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이 완료되는 2000년대 말에는 약 80만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0) 용인시 주택 건설 자료

단지별	번호	사 업 주 체	면적	건축연면적	총세대수	개별세대수	착공	준공
구성읍	1	서희건설(주)	45,490	117,954	390	322/68	9	2
	2	삼성물산(주)	126,642	234,990	360	114/60/186	9	1
	3	상영화학공업(주)	185,424	464,307	942	674/60/208	9	2
	4	(주)경성	64,698	187,484	377	237/140	1	2
	5	(주)푸른건설턴트	73,546	174,816	476	260/216	0	2
	6	동일건설(주)	190,968	565,983	757	462/176/119	0	2
	7	신일건설	100,488	272,643	510	152/168/190	1	2
	8	군인공제회	342,244	712,884	795	122/357/177/139	0	2
	9	삼오건설(주)	411,524	1,105,008	1,240	194/340/390/316	0	2
	10	동진산업(주)	228,090	580,440	1,219	274/705/240	0	2
	11	한원건설(주)	70,002	156,632	456	234/222	0	2
	12	신일2·3·4주	102,495	257,043	591	30/471/90	1	2
	13	(주)공평공영	16,524	45,768	146	106/40	0	2
고림동	14	(주)신성건설	55,394	112,488	408	90/318	9	2
	15	(주)인우드하우징	20,069	56,156	392	392	9	2
	16	에이원건설(주)	88,200	205,092	470	136/220/114	9	2
	17	(주)대동건설	52,228	125,480	428	308/120	9	2

단지별	번호	사 업 주 체	면적	건축연면적	총세대수	개별세대수	착공	준공
수지출장소	18	(주)일레븐건설	28,685	94,964	383	224/159	9	2
	19	성원건설(주)	232,113	572,061	1,160	608/392/160	9	2
	20	(주)늘푸른주택	179,664	470,176	819	332/487/	9	2
	21	(주)동훈	511,648	1,301,100	1,234	474/320/320/120	9	2
	22	(주)무영건설	174,897	425,010	511	144/259/108	9	1
	23	(주)대육기업	174,897	425,010	511	144/259/108	9	1
	24	(주)흥부기업	58,330	160,262	375	285/90	9	1
	25	정안산업개발(주)	58,330	160,262	375	285/90	9	1
	26	현대산업개발(주)	95,934	237,495	400	226/68/110	9	2
	27	성우종합건설(주)	91,626	227,181	336	94/170/72	9	2
	28	우림건설(주)	91,626	227,181	336	94/170/72	9	2
	29	(주)흥부기업	58,330	160,262	375	285/90	9	1
	30	정안산업개발(주)	58,330	160,262	375	285/90	9	1
	31	수지현대지역조	25,907	64,677	498	498	9	2
	32	현대산업개발(주)	25,907	64,677	498	498	9	2
	33	상운종합건설(주)	101,133	278,595	528	308/182/38	9	2
	34	롯데건설(주) 외	231,004	674,796	992	360/232/240/160	9	2
	35	삼호건설(주)	571,173	396,483	520	118/330/72	9/0	2
	36	한독건설(주)	158,967	400,626	532	194/264/74	9	2
	37	(주)동보건설	2,214	4,863	41	41	0	2
	38	성원산업개발(주)	36,606	92,072	302	232/70	0	2
	39	명진건설산업(주)	280,002	720,243	956	396/440/120	0	2
	40	경오건설(주)	399,720	850,552	1,600	880/400/160/160	0	2
	41	부림건설(주)	194,409	459,294	680	264/148/268	1	2
	42	수지동천현대연	21,663	61,474	436	436	1	2
	43	수지2차현대연	90,536	312,210	1,128	36/1092	1	2
	44	용인시수지성원	62,286	151,538	554	40/514	0	2
	45	(주)일레븐건설	234,064	519,608	553	80/318/76/79	0	2
	46	경오건설(주)	399,720	850,552	880	400/160/160/160	0	2
	47	(주)일레븐건설	22,954	26,794	96	96	0	2
	48	국방3군1-5·6차	60,434	154,574	438	160/278	0	2
	49	(주)이원공영	41,006	135,202	310	120/190	0	2
	50	(주)일레븐건설	63,697	158,615	264	264	0	2
	51	(주)이원공영	41,006	135,202	410	270/140	0	2
	52	(주)일레븐건설	191,091	475,845	674	264/270/140	0	2
	53	한미건설(주)	372,728	658,732	520	120/200/120/80	0	2
기흥읍	54	(주)신창건설	282,076	723,196	926	80/231/339/27	9	2

단지별	번호	사 업 주 체	면적	건축연면적	총세대수	개별세대수	착공	준공
기흥읍	55	현대건설(주)	25,757	56,181	584	584	9	1
	56	우림개발(주)	256,890	585,390	849	119/502/148/60/20	9	2
	57	영남건설(주)	257,205	482,187	724	112/384/228	0	2
	58	신갈주공연립재	46,446	173,634	381	175/88/118	0	2
	59	한신공영(주)	46,446	173,634	381	175/88/118	0	2
	60	한미건설(주)	44,692	107,002	326	176/150	0	2
이동면	61	(주)일화	189,193	356,577	874	180/240/202/252	0	2
보라리	62	다한개발(주)	323,268	642,508	1,112	396/404/176/136	0	2
삼가동	63	진우개발산업	9,900	23,693	180	180	0	3
	64	신대우합자	9,900	25,226	180	180	0	3
모현면	65	신안종합건설	35,640	83,444	320	236/74	0	2
	66	(주)신안	85,623	201,696	540	40/352/148	2	2
계			9,229,699		37,934			
(평균1)			(141,995)		(583.6)			
(평균2)			(54,292)		(223.1)			

자료 : 노태욱(2000), 주: 평균1은 단일 회사, 평균2는 개별 단지의 평균을 나타냄. 착공과 준공에서 9는 1999년을, 0은 2000년, 1은 2001년 그리고 2는 2002년을 의미.

(표 11) 택지 개발에 따른 용인시의 예상 인구 증가

연도	1998	2000	2004	2006
인구	160,726	205,000	423,000	850,000

용인시는 사회간접자본의 대폭적인 확충과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건설수요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규모의 대형화·복합화에 따른 기술집약화·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토지·골재(骨材)·기능인력 등 가용자원의 부족문제와 이에 대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요구받고 있다. 아울러 지방화와 환경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정보통신, 컴퓨터 기술, 로봇, 인공지능기술 등과 건설기술의 접목에 의한 인텔리전트 빌딩의 건설이 증가할 것이며 지하 위락시설이나 첨단 도로교통체계 등의 수요로 질적 고도화라는 방향으로 향후 건설업은 발전될 것이다. 3D 기피로 인한 기능공 부족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시공의 기계화·자동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할 전망이다. 골재의 부족에 대비하여 경량

(輕量) 콘크리트의 개발, 포장재료의 재활용 기술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 협상 및 정부조달 확장협정에 따라 민간 건설시장은 1995년부터, 공공건설시장은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설산업 구조를 개편하여 건설업이 건설산업의 조사·설계로부터 시공·감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총괄하는 종합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건설업 면허제도, 입찰계약제도 등을 선진화하고,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건설관련 관행을 혁신하여야 한다. 건설기업은 기술인력의 고급화와 기능인력의 양질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며, 원·하도급자 간의 분업 및 협업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건설업의 전문화·계열화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허윤(서강대 교수)

이

백



## 제9장 상 업



상업을 천시하던 농경사회의 역사적인 배경과 사농공상이라는 봉건적인 계급의식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건전한 상인문화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개항과 일제 통치기에 침투한 일본 상업자본이 우리나라의 상업계를 장악하고 독점한 결과 상업은 제대로 발전할 길을 찾지 못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문화의 한 양태로써 생겨나야 할 상업윤리가 해방과 6.25사변 그리고 사회격변기의 과정에서 그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생산제일주의에 입각한 산업자본 형성위주의 정책으로 상업자본의 영세성이 고착되었고, 1970년대 이후 거대 재벌독점 산업자본의 부분적 상업자본화로 인하여 건전한 경쟁적 상업자본의 발달을 저해하였다.

## 제1절 용인의 시장분포

(표 1) 연도별시장분포 (단위 : 개소, m<sup>2</sup>)

연별		1996	1997	1998	1999	
총계	개소	4	6	6	6	
	면적	부지면적	18,818	41,307	43,663	43,732
		건물연면적	12,543	70,315	70,315	76,222
정기 시장	개소	1	1	1	2	
	면적	부지면적	12,456	12,456	12,456	14,872
		건물연면적	-	-	-	-
일반 시장	개소	3	4	4	3	
	면적	부지면적	6,362	4,718	7,074	4,727
		건물연면적	12,543	19,999	19,999	25,906
대형점	개소	-	1	1	1	
	면적	부지면적	-	24,133	24,133	24,133
		건물연면적	-	50,316	50,316	50,316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2000.

정기시장과 가축시장이 중앙동과 백암면에서 열리고 있으나, 수원시와 성남시에 있는 상설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크다. 현재 장터로는 김량장, 백암장, 용인장이 있다. 김량장동은 용인의 한 지역으로 옛날에 김량이라는 장수가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이 장수는 어려서부터 용맹스러웠고 지략이 뛰어나 훗날 여러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고 한다. 그후 이곳에 장이 서면서 김량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김량장은 5일, 10일자에 열리며 백옥쌀, 옥로주가 유명하고 백암면 백암리에서 1일, 6일자에 열리는 백암장은 백암순대로 유명하다.

중앙동은 용인시 중앙부에 자리잡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2000년 현재 면적 7.96km<sup>2</sup>, 인구 2만 2968명으로 중앙부를 금학천이 동쪽으로 흐르면서 경안천에 합류한다. 지형은 남쪽이 높고 북쪽은 비교적 평탄하다. 조선시대에는 충주부 용인군 관할이었다. 1914년 경기도 용인군 수여면 김량장리·남리라고 하였다가, 1938년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남리로 바뀌었다. 1979년 용인읍 관할로 되었다

가 1996년 용인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용인읍을 폐치하고 신설한 동 중 하나이다. 행정동인 이 동은 법정동인 김량장동과 남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자연마을로는 은덕굴·대촌·신기·옥현·평옥 등이 있다. 용인시청, 용인경찰서, 용인전화국,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과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가 있다. 42번 국도와 45번 국도가 교차하며, 용인인터체인지와 인접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문화재로는 유가사지론(권17: 국보 241호)과 집별행록 절요병입사기(보물 1148호)가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백암면은 용인시 남서부에 있는 면으로 1999년 현재 인구 1만 456명이고 면적은 65.79km<sup>2</sup>에 이른다. 이 곳은 봉서정, 안희중 효자정문, 박곡리 절터, 백봉리 절터, 백봉리 3층석탑·석불좌상, 가창리 미륵입상, 유형원선생묘(지방기념물 32) 등의 문화재가 있으며, 13개리로 이루어져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지명인 외사면(外四面)으로 개명되었던 것을 1996년 3월 고유지명인 백암면으로 환원하였다. 동쪽은 이천시 모가면(暮加面)·일죽면(一竹面), 서쪽은 원삼면(遠三面), 남쪽은 안성시 삼죽면(三竹面), 북쪽은 이천시 마장면(麻長面)·호법면(戶法面)과 접한다. 백암면은 청계천에 의해서 남서부와 북동부로 나뉜다. 남서부의 면계와 북동부의 면계 근처에는 산이 험하나 중앙부는 넓은 충적층과 낮은 구릉성 산지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평탄하다. 구봉산(九峰山:465m)·대덕산(大德山:309m)·수정산(水晶山) 등이 솟아 있고, 청계천과 그 지류들이 흐른다. 주요농산물은 쌀·보리·콩·채소 등이며 그 밖에 인삼도 널리 재배된다. 청계천을 따라 남동부에서 북부로 지방도가 지난다.

과거 쌀, 보리, 콩, 담배, 낙화생, 인삼, 고치 등의 생산지로 알려져 있던 용인시가 현재 관광휴양지로 더욱 유명해짐으로써 한국 민속촌 내에서 열리는 용인장은 지역의 큰 명물로 통할 정도로 유명하다. 향시 사람들로 붐비는 이 장터에서는 인절미며 증편 따위의 고유 떡과 파전, 도토리묵, 식혜, 빈대떡 등 한국 고유의 갖가지 음식이 팔리고 있다. 담근 동동주도 맛볼 수 있다. 승용차로는 영동고속도로에서 용인 I.C로 들어서 우회전하면 바로 나타나고 버스를 타고 오려면 강

남고속버스터미널→용인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용인버스터미널 (10분 거리)로 오면 된다.

〈표-1〉은 용인시의 시장분포를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용인은 1999년 정기시장이 2개가 열리고 그 부지면적이 1만 4,872㎡이다. 일반시장은 3개로 부지면적은 4,727㎡이고 건물연면적은 25,906㎡이다. 용인은 대규모 소매점인 백화점과 쇼핑센타가 없고, 대형점은 1개로 부지면적은 24,133㎡, 건물연면적 50,316㎡를 차지한다. 1998년 정기시장이 1개 열리는 것에 비해 1999년에는 1개가 늘어 2개가 열리고 일반시장은 1998년 4개인 전년도에 비해 1999년에는 1개가 줄어들어 3개가 되었다.

시장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흥읍이 일반시장이 3개, 부지면적 4,727㎡, 건물 연면적 25,906㎡으로 다른 지역보다 시가장 많다. 구성면은 재래시장보다는 대형점이 1개로 부지면적 24,133㎡, 건물

(표 2)

읍·면·동별 시장분포

〈단위 : 개소, m²〉

읍면동별	총계			정기시장			일반시장			대형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기흥읍	3	4,727	25,906				3	4,727	25,906			
수지출장소												
포곡면												
모현면												
구성읍	1	24,133	50,316							1	24,133	50,316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1	2,039		1	2,039							
양지면	1	12,833		1	12,833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자료 : 용인시,〈용인통계자료〉.

연면적 50,316㎡이다. 백암면은 정기시장이 한번 열리고 부지면적은 2,039㎡이고, 양지면도 정기시장이 한번인데 백암면의 6배 정도 되는 12,833㎡의 부지면적을 차지한다.

## 제2절 도소매업 현황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시키지도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소매업이란 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판매점,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 소비자협동조합, 경배소 등에서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부분의 소매상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팔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표 3)

도소매업체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종사자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1998	1999	1998	1999	사업체수	증감률	사업체수	증감률	1998	1999	1998	1999
전산업	14,467	16,727	99,536	112,066	2,260	15.6	12,530	12.6	100	100	100	100
도소매업	4,271	4,186	12,008	11,905	-85	-2	-103	-0.9	29.52	25.03	12.06	10.62

자료: 용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용인시의 도소매업 사업체수는 1998년 4,271개에서 1999년 현재 전년 대비 2%(85개)가 줄어든 총 4,186개이다. 전체 사업체수에서 도소매업의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9.52%에서 1999년에는 25.03%로 줄어들었다. 전산업의 종사자수는 1998년 9만 9,536명에서 12.6%(1만 2,530명) 증가하여 1999년에는 11만 2,066이며, 이 중 도소매업 종사자수는 1998년 1만 2,008명에서 0.9%(103명)가 줄어들어 1만 1,905명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인시의 도소매업은 사업체수에 비해 종사자수가 적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99년 현재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2.84명으로 가족중심의 경영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도소매업의 비중은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할 때 25.03%,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10.62%이다. 이를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도소매업의 총생산(부가가치) 비중과 비교하면 사업체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계산할 수 있다.

(표 4) 지역내총생산(불변가격) <단위: 백만원, %>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지역내 총생산	총생산	3,323,618	3,850,585	4,986,862	5,176,837	5,768,659
	증가율	-	15.86	29.51	3.81	11.43
도소매업	총생산	100,788	109,526	122,988	137,605	154,204
	증가율	-	8.67	12.29	11.88	12.06

자료: 경기도, 《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2000.

<표-4>에서 보듯이 용인지역 도소매업 총생산 증가율은 10% 내외로 비교적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제일 높았던 해는 1995년으로 이 때 도소매업의 증가율도 다른 해보다 높다. 1997년 도소매업의 증가율은 12.06%로 1996년의 11.88%보다 0.18% 증가하였다. 1997년의 경우 도소매업 총생산액 1,542억원을 도소매사업체수 4,186으로 나눠주면 도소매 사업체생산성 즉 도소매 사업체당 부가가치액이 3,684만원임을 알 수 있다. 사업체당 3,700만원에 못 미치는 부가가치액은 사업의 영세성을 입증하고 있다. 같은 해 도소매업 총생산액 1,542억원을 도소매 사업체 종사자수 1만 1,905명으로 나눠주면 도소매 노동생산성 즉 도소매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액이 1,295만원임을 알 수 있다. 1인당 연 1,3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부가가치액은 노동의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 제3절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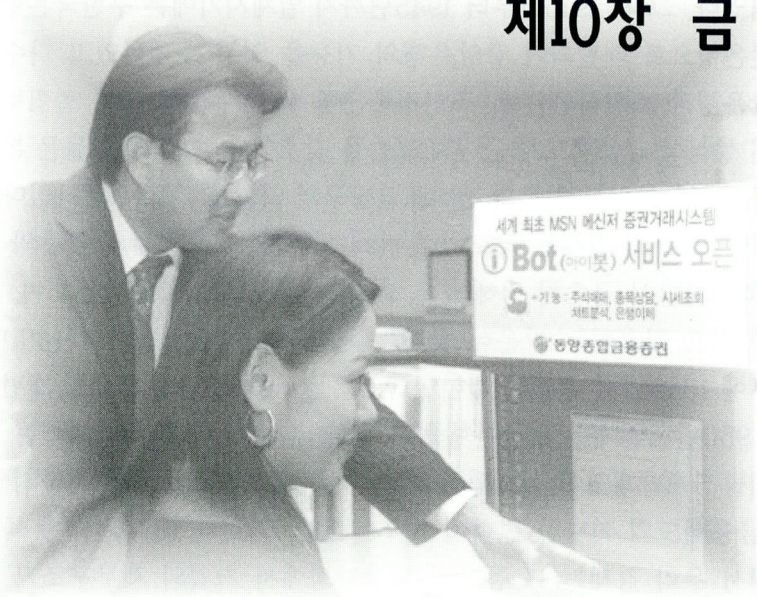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소매업은 2003년 도매업 220조원, 소매업 188조원, 총 408조원의 시장으로 커져 GDP의 약 12%를 차지할 전망이다. 2003년까지 도매업은 연평균 11.5%, 소매업은 9.9%씩 성장하여 전체적으로 매년 10.7%씩 성장할 전망이다. 용인시의 경우 도소매업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여 향후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른 대형화, 고도화의 추세에 밀려 소규모 점포수와 고용인구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래시장은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성장에 따라 그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매업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소형점포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위치한 점포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구도심지역의 점포들은 상당기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잔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용인시 도심 주택가의 구멍가게형 소형점포들이 편의점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편의점은 앞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상당수 구멍가게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의 경우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보였던 연 20%의 고도성장은 앞으로 실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진국 백화점의 매출비중이 점차 하락추세인 반면 국내 백화점 매출비중은 아직까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0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2.6%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향후 성장이 가장 빠른 형태는 할인점이나 무점포판매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급속히 성장할 전망이다. 할인점은 2003년까지 연평균성장률 32%를 보이며 소매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현재의 8%대에서 11.3%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제10장 금융



### 제1절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금융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유통, 화폐의 대차(貸借), 구체적으로는 대부증권에 의한 자금의 대부나 참가증권(參加證券)에 의한 자금의 출자를 말한다. 금융제도는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법규와 관행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 중 오늘날 경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생산금융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재래 금융시장이라 할 수 있는 객주·여각과 상호신용인 계 그리고 시변제도 등을 통해 자금의 예수대출과 어음할인 등이 이루어지다가, 강화도조약(1876)의 체결을 계기로 1878년 6월 일본 제일국립은행 부산지점이 설치되면서 근대적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이 처음 도입되었다. 이러한 일본계 은행의 국내진출에 자극을 받아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민족자본으로 조선은행(1896), 한성은행(1897), 대한천일은행(1899)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으며, 1909년에는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인 구한국은행이 설

립되었다. 그 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시기에는 구한국은행이 조선은행으로 개편되어 중앙은행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고 다수의 일반은행과 조선식산은행, 조선저축은행 등 특수은행 등이 설립됨으로써 형식상 금융제도가 근대적 모습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들은 본연의 금융기능보다는 일본의 전비조달창구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다.

해방 후 우리 경제는 극도의 혼란에 처하게 되고 일본의 철수와 함께 축적기반이 급속히 와해되고, 화폐가 과잉으로 발행되었으며, 양자가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물가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때문에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서둘러 금융제도를 개편하여 1950년 6월에는 한국은행을 창립하였다. 이후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제도의 커다란 변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는 그 동안의 성장과정에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부실해지고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적자, 세계 경제여건 악화로 국제수지적자가 확대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2년 8.3경제 긴급조치를 시행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신설·정비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는 1990년대에 본격화 되었다. 금융부분에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 원리가 도입되지 않고서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와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국민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그 배경이다. 우리 경제의 국제적 지위상승으로 선진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가중된 점도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주요원인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1997년말에 IMF라는 이름의 금융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금리자유화 및 개방화의 효과가 금융기관의 부실 누증, 단기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 등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 결국은 국가부도의 위기까지 갔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98년과 1999년에는 강도 높은 금융구조조정이 추진되어 상당수의 부실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합병 또는 퇴출되었고 현재에도 몇몇 금융기관은 다국적 투자은행과의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2001년 6월말 현재)

			기관수 <sup>1)</sup>	비고
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11(-)	
		지방은행	6(-)	
		외은지점	44(1)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1(-)	
		한국수출입은행	1(-)	
		중소기업은행	1(-)	
		농업협동조합	1(-)	
		수산업협동조합	1(-)	
은행신탁		34(-)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	종합금융회사		4(△6)	
	상호신용금고		125(△21)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1,280(△37)	
		새마을금고	1,770(△47)	
		상호금융	1,468(△132)	
	투자신탁운용회사		29(2)	
우체국예금		1(-)		
증권회사	증권회사		64(1)	외국사 지점 19 포함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23(-)	외국사 지점 2 포함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16(1)	외국사 지점 5 포함
		재보험회사	2(1)	외국사 지점 1 포함
		보증보험회사	1(-)	
	우체국보험		1(-)	
기타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50(△2)	
	증권금융회사		1(-)	
	증권투자회사		92(19)	
	선물 회사		14(-)	
	자금중개회사		2(-)	
	투자자문회사		140(10)	

1) 인가기준(가교금융기관제외)

자료 : 한국은행. ()내는 2000년 12월말 대비 증감기관수.

〈표-1〉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을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2001년 6월말 현재 시중은행 11개, 지방은행 6개, 외국은행지점 44개 등 총 60여개의 일반은행이 있고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

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5개 특수은행이 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기구, 투자신탁운용회사, 우체국 등이 있는데 이 중 신용협동기구의 수가 압도적이다. 증권회사는 국내 증권사 45개와 외국사 지점 19개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23개 생명보험회사, 19개 손해보험회사와 우체국 보험이 있다. 기타 금융기관은 여신전문사 50개와 증권투자회사 92개, 투자자문사 140개 등이 있다.

## 제2절 용인지역의 금융기관

### 1. 금융기관 현황

(표 2) 용인지역 통화금융기관 (단위: 개소)

연별			시중은행								
	계	한국은행	소계	조흥	한일	한국상업	제일	한국주택	서울	한국외환	국민
1994	28	-	-	3	5	5	1	-	-	1	2
1995	33	-	-	3	5	4	3	3	1	1	3
1996	46	-	-	3	5	6	3	3	2	7	4
1997	57	-	-	3	5	6	5	4	2	7	4
1998	45	-	39	3	5	6	3	4	2	7	4
1999	42	-	37	3	9	-	3	4	2	5	5

연별					특수은행				기타		
	신한	한미	하나	평화	중소기업	농업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한국산업	수출입	외국은행
1994	2	-	-	1	-	3	-	-	-	-	-
1995	2	-	-	1	1	3	-	-	-	-	-
1996	3	-	-	1	1	5	-	-	-	-	-
1997	3	-	-	1	1	5	-	-	-	-	-
1998	3	1	-	1	1	5	-	-	-	-	-
1999	3	1	-	1	1	4	-	-	-	-	-

자료 : 한국은행수원지점

※1996년부터는 출장소가 포함된 수치임

용인지역의 금융기관은 1999년 현재 시중은행이 37개소에, 특수은행이 5개소에 지점과 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업은행과 통합한 한일은행이 한빛은행으로 개명하여 9개소로 용인시내 가장 많은 지점과 출장소가 있고, 다음으로는 한국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5개소의 지점과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현황을 보면 1997년까지는 시중 금융기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1997년 IMF이후 용인지역의 금융기관 수가 계속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읍면 동별					특수은행				기타		
	신한	한미	하나	평화	중소 기업	농업 중앙회	수협 중앙회	축협 중앙회	한국 산업	수출입	외국 은행
기흥읍	2	-	-	1	-	1	-	-	-	-	-
수지읍	1	1	-	1	-	1	-	-	-	-	-
포곡면	-	-	-	-	-	-	-	-	-	-	-
모현면	-	-	-	-	-	-	-	-	-	-	-
구성면	-	-	-	-	-	-	-	-	-	-	-
남사면	-	-	-	-	-	-	-	-	-	-	-
이동면	-	-	-	-	-	-	-	-	-	-	-
원삼면	-	-	-	-	-	-	-	-	-	-	-
백암면	-	-	-	-	-	-	-	-	-	-	-
양지면	-	-	-	-	-	-	-	-	-	-	-
중앙동	-	-	-	-	1	-	-	-	-	-	-
역삼동	-	-	-	-	-	-	-	-	-	-	-
유림동	-	-	-	-	-	-	-	-	-	-	-
동부동	-	-	-	-	-	-	-	-	-	-	-

자료 : 한국은행수원지점, 1999.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동별로는 기흥읍이 15개소, 수지읍이 14개소, 중앙동이 9개소의 은행지점을 가지고 있다. 농협은 기흥읍과 수지읍, 중앙동과 역삼동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은 중앙동에 1개 지점만을 운영하고 있다.

### 3. 금융기관별 동향

#### 1) 국내 금융동향

1999년 중 금리시장은 상반기까지 금리의 하향안정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환율도 3월 이후 외환의 공급우위를 바탕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대우그룹의 지급불능이 표면화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였고, 상당기간 시장금리가 오르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하락하였으며 환율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정부 및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시장안정 노력에 힘입어 11월 이후에는 시장참여자의 불안심리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다시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재유입되었으며 환율도 하락하였다. 또한 연중 시중자금은 주가동향과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금융권간, 금융상품간 이동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신탁회사 수신이 감소로 돌아서고 금전신탁과 종합금융회사의 수신도 부진을 면치 못한 반면 은행과 주식시장은 비은행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탈한 자금의 유입으로 호조를 보였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단기금융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시중자금의 단기유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은행대출은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에서 이탈한 자금의 유입에 힘입어 은행들이 대출확대에 노력하면서 대출금리도 낮은 결과 꾸준히 증가하였다. 은행들의 대출증가로 신용경색이 거의 해소되고 매출증가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호전된데다 주식시장이 활황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사정은 원활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부도기업수가 크게 줄어들고 어음부도율도 하락하였다.

## 2) 용인시 금융동향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을 합친 전체 예금액 총계를 1994년 이후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전까지는 예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8년 IMF 외환위기의 해를 맞이하여 예금총액은 9조 4,801억원에서 1조 7,349억원으로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 모두 급감했음을 알 수 있다. 대출액 또한 1998년 이후 8,294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대출액의 급감은 기존대출금의 상당금액이 부실화됨으로써 기업 대출요건을 강화하고 담보가 확실한 가계 대출에만 치중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였다. 저축성예금의 경우 약 6조 4천억원의 수신고가 감소하였고, 요구불예금 또한 감소액이 1조 4천억에 육박하였다. 대출액은 1997년 8조 2,196억원에서 1998년에는 무려 약 7조 4천억원이 줄어든 8,294억을 기록하였다. 이후 수신고와 대출액은 다시 회복되고 있으나 1999년의 증시활황 등으로 예전수준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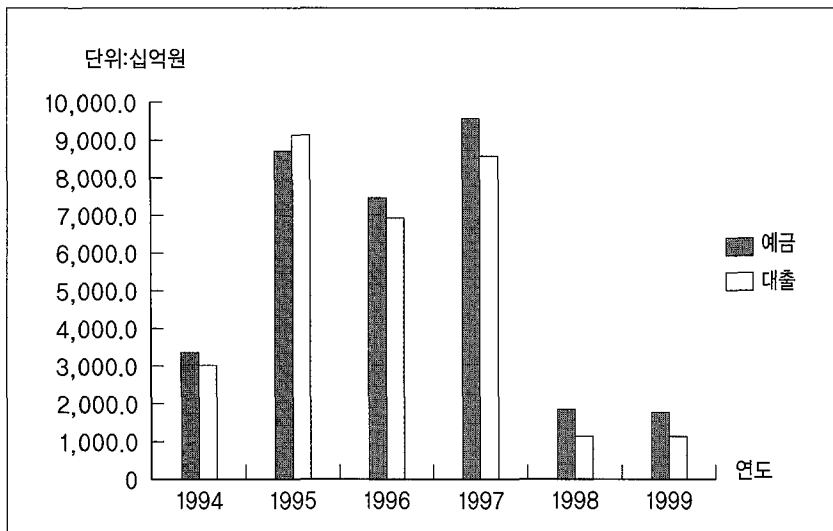
(표 4)

## 용인시 여·수신 동향

〈단위: 십억원〉

연별 월별	예금총계	저축성예금						요구불 예금	대출
		계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저축예금 예금	기타		
1994	3,626.0	2,860.0	665.0	306.0	440.0	475.0	974.0	766.0	3,199.0
1995	8,903.0	6,983.0	2,381.0	1,258.0	1,123.0	829.0	1,392.0	1,920.0	9,269.0
1996	7,541.0	6,063.0	889.0	1,062.0	1,345.0	861.0	1,906.0	1,478.0	6,715.0
1997	9,480.1	7,967.1	1,814.4	1,314.5	2,411.4	-	2,426.8	1,513.0	8,219.6
1998	1,734.9	1,597.5	369.4	94.0	223.1	-	911.0	137.4	829.4
1999	1,524.3	1,332.3	559.8	103.2	328.5	-	340.8	192.0	1,161.0
1월	1,052.2	930.7	370.0	97.5	232.6	-	230.6	122.0	834.4
2월	1,077.2	961.4	378.4	100.2	238.1	-	244.7	115.8	841.0
3월	1,135.7	1,013.3	429.8	100.7	258.1	-	224.7	122.4	855.5
4월	1,153.7	1,016.8	429.9	98.1	206.2	-	228.6	136.9	868.7
5월	1,145.8	1,020.7	435.8	97.7	255.7	-	231.5	125.1	898.0
6월	1,187.7	1,058.2	464.8	98.3	263.6	-	231.5	129.5	933.3
7월	1,188.0	1,078.6	482.2	99.7	274.8	-	221.9	109.4	947.8
8월	1,265.8	1,130.0	504.4	98.5	281.5	-	245.6	135.8	988.9
9월	1,325.9	1,184.9	516.5	112.4	299.5	-	256.5	141.0	1,024.2
10월	1,362.5	1,186.2	530.8	105.7	300.2	-	249.5	176.3	1,080.5
11월	1,391.1	1,240.3	552.8	111.4	298.3	-	277.8	150.8	1,155.2
11월	1,524.3	1,332.3	559.8	103.2	328.5	-	340.8	192.0	1,161.0

자료: 용인시, 《용인시 통계연보》 1999. 내부자료 인용.

◀ 그림2  
용인시내 여수신동향

(표 5)

## 용인시 어음부도율

〈단위 : 십억원〉

연별 월별	어음교환				
	장수 (천장)	금액	장당평균금액 (천원)	부도액	부도율(%)
1994	-	-	-	-	-
1995	564.0	3,760.0	57,023.0	-	-
1996	-	-	-	-	-
1997	-	-	-	-	-
1998	39,777.3	36,328.6	913.3	424.3	1.2
1999	-	-	-	-	-

자료 : 용인시, 〈용인시 통계연보〉, 1999. 내부자료 인용.

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표-5〉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연도별 어음발행 및 부도율을 보면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모두 3,978만장의 발행어음이 부도나 부도율이 1.2%로 당시 어음의 결제가 원활치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기타 금융기관 동향

#### (1) 생명보험

상부상조의 정신을 합리적으로 제도화시킨 생명보험은 사람의 일생에서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 상해, 사망, 퇴직 등 각종위험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저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제제도이다. 1999년은 IMF이후 위축됐던 경기가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접어든 해였으며, 생명보험산업은 점진적인 보험상품의 자유화와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철폐로 공정경쟁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환경 하에서 기존의 저축성 보험 중심의 영업을 탈피하여 보장성 보험의 다양한 상품개발로 종신보험, 상해보험 등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인터넷 및 Tele-Marketing 등으로 판매채널을 다양화하여 모집조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초저가 인

터넷상품을 개발하는 등 틈새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다.

## (2) 상호신용금고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신용질서 확립에 기여함은 물론, 불특정 다수 금융거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3) 새마을 금고

새마을금고는 1963년 재건국민운동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한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써 경남지역에서 태동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이는 1997년 42,436개를 정점으로 꾸준히 영세, 부실금고의 정비 및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을 통해 1999년 말 현재 금고 수는 3,063개에 회원 수 9,204천명, 총자산 17조 1,434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경기도는 340개의 금고 수에 회원 수 947천명, 총자산 1조 7,794억원이고, 용인시는 4개의 금고 수에, 회원 수 3만 4,029명, 총자산 1,476억원으로 경기도 대비 회원수는 3.6%, 총 자산은 8.3%를 차지하고 있다.

용인시 새마을금고의 경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고 수가 급격히 줄었다. 1995년 15개였던 금고수가 1999년에는 4개소가 되었다. 반면 회원수는 꾸준하고 총자산이나 수심 및 여신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늘어났다.

향후 새마을금고는 회원이 주인임을 깊이 자각하고 민주적인 경영과 혁신을 지향하는 발전적 사고로 인간존중의 풍요로운 생활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사업의

(표 6) 용인시 새마을 금고 &lt;단위: 개, 천명, 억원&gt;

구분	금고수	회원수	총자산	수신	여신	
95년	전국	2,969	9,789	206,153	156,158	114,919
	경기도	315	1,035	20,998	17,829	12,632
	용인시	15	28	651	558	243
96년	전국	2,863	10,707	255,118	216,282	136,640
	경기도	300	1,237	26,077	21,999	15,147
	용인시	15	36	867	716	298
97년	전국	2,743	11,696	296,802	222,327	164,247
	경기도	292	1,359	30,075	22,301	18,497
	용인시	13	34	1,244	875	391
98년	전국	2,590	10,861	328,445	269,832	156,997
	경기도	265	1,430	35,215	28,797	17,908
	용인시	10	28	1,276	1,077	291
99년	전국	3,063	9,204	171,343	144,822	99,773
	경기도	340	947	17,794	15,492	11,100
	용인시	4	34	1,476	1,293	464

자료: 《새마을금고연합회 경기도지부》, 《용인시 통계연보》  
용인시의 자료는 천명, 억단위에서 반올림 하였다.

다각화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회원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21세기 선진 종합금융으로 발전하여 제2 금융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4) 신용협동조합

서민층을 주고객으로 하여 저축심을 고양하면서 자율적 운영과 문턱 낮은 금융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참 은행이 바로 신용협동조합이다. 지역 주민간의 경제적인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조합원 중심의 교류와 문화활동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가진 신용협동조합은 그 궁극적인 목표를 복지사회건설에 두고 있다.

99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1,366개 조합에 총 조합원 525만 3,552명이 가입하고 있는 신협은 주된 업무영역은 여수신 영역과 공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신협의 다양한 수신상품은 각종비과세 혜택과 이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장점이 있어, IMF위기를 겪으

면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서민층에게 좋은 저축수단이 되고 있다.

### (5) 증권사

주식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기업의 영업실적이 호전되면서 엔화강세, 해외증시 상승세 및 외국인 주식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등 대외 요인이 가세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활황 국면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불안으로 주가가 약세로 돌아섰고 이 같은 추세가 1999년 연말까지 이어졌다. 코스닥 시장은 같은 기간 연중정보통신산업 및 인터넷 관련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미국 나스닥 시장의 활황 등을 배경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 제3절 용인시 금융산업 추이

용인시 금융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살펴보자. 산업분류상 금융산업을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 정의하면 용인시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표-7>과 같다.

(표 7) 연도별 금융산업 현황 <단위: 개, 명>

산업분류	1997 용인시		1998 용인시		1999 용인시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금융및 보험업	165	2,318	164	2,383	167	2,415
금융업	100	1,404	87	1,192	90	1,188
보험및 연금업	55	868	59	1,067	52	915
금융및 보험관련서비스업	10	46	18	124	25	312

자료: 용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8,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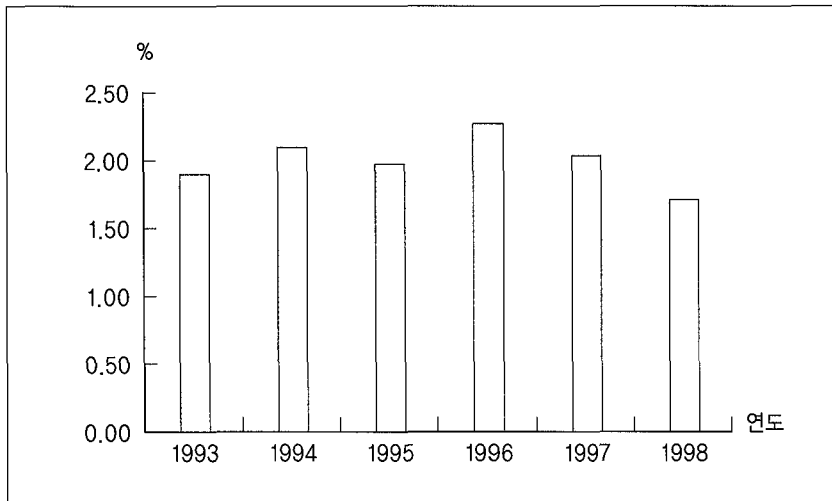
(표 8) 용인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단위: 백만원>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지역내 총생산	3,323,618	3,850,585	4,986,862	5,176,837	5,768,659	6,382,150
총생산 성장률	-	15.86	29.51	3.81	11.43	10.63
금융 보험업	60,620	80616	98,971	115,496	114,565	100,086
금융보험업 성장률	-	32.98	22.77	16.70	-0.81	-12.64
지역내금융업의비중	1.82	2.09	1.98	2.23	1.99	1.57

자료: 경기도, 《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1999, 2000.

1999년 현재 용인시 금융산업(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체 수는 167개이고 종사자 수는 2,415명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인시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산업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 추이상의 큰 변화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업의 경우 구조조정과 실적악화로 인하여 사업체 수가 1998년에는 13개나 줄어든 87개가 되었고 다음해인 1999년에는 3개소가 늘어난 90개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보험 및 연금업의 경우 외환위기의 해인 1998년에 오히려 사업체 수가 4개 증가하였으며, 다음해인 1999년에 7개소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업의 경우에도 1998년도에 8개 사업체가 늘어났으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보험이나 연금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그림3  
용인시 금융산업의 비중

이제 지역내총생산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자. 한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사업체수나 종업원수 보다 더욱 명확한 지표가 부가가치이다. 부가가치란 총산출액에서 중간소비액을 차감한 것으로 각종 생산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표-8>은 용인시 지역내총생산과 금융산업(금융 및 보험업)의 총생산액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총생산액은 부가가치액을 말한다. 용인시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1997년에 이어 1998년도에도 10%가 넘는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금융산업의 경우 같은 기간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의 유지 내지는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12.64%라는 급격한 생산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조짐은 외환위기 발생의 해인 1997년에도 감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반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용인시의 금융산업은 평균 23%가 넘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용인시 금융산업은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이

는 사업체 수나 종업원 수의 기준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사실이다.

용인시 전체 산업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3>과 같다. <표-8>과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인시의 경우 금융산업의 비중이 1996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1999년 현재 용인시 전체 산업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1.57%에 불과하다. 이는 용인시에서 금융산업이 성장할 잠재력이 여전히 크며 이를 위한 다양한 금융기법의 개발과 지역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하다는 것을 역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 제11장 교통·물류



용인시는 동경127도, 북위37도인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시청 소재지인 중앙동은 서울로부터 직선거리 약 42 Km, 수원 및 성남으로부터 각각 12Km, 1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및 주변 대도시와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리적인 특성상 주변에 대도시와 연결하여 있기 때문에 서울, 수원, 성남시 등이 용인시의 경제권에 해당된다.

1968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와 1972년 개통된 영동고속도로가 용인시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유·출입 지점인 I.C는 5개소(경부고속도로: 수원I.C, 기흥I.C 총 2개소, 영동고속도로: 마성I.C, 용인I.C, 양지I.C 총 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간 교통체계를 살펴보면, 서울과 충북지방을 연결하는 국도 45호선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수원과 원주를 잇는 국도 17호선이 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서측으로 나란히 개설되어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이 현재 용인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용인시 남사면을 거쳐 안성시(국도 45호선)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장래 용인시 서측 지역간 교통의 일부를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1절 교통시설 현황

### 1. 도로

용인시 도로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총 도로 연장은 약 330,228m 이고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도가 약 139,030m, 고속도로가 42,790m, 일반국도가 86,608m, 시·군도가 61,800m를 구성하고 있다.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완전 포장되었고, 지방도는 93.89%가 포장되어 850m가 비포장 상태이고, 시·군도의 경우는 70.55%의 포장률에 18,200m가 비포장이다. 또한 인구당 도로면적(Km/인)은 1994년 1.40에서 1999년 0.92로 0.48이 떨어졌고, 차량당 도로면적(Km/대) 역시 1994년 7.29에서 3.09로 4.2가량 떨어졌다.

한편, 용인시 주요 가로망 현황을 살펴보면 동서축으로 5개 노선, 남북축으로 6개 노선이 개설되어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서축으로 국도 42호선과 남북축으로 국도 45호선, 국도 17호선, 국도 43호선 등이 용인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밖에 관내 개설도로 중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이 33.5Km로 가장 긴 구간에 걸쳐 개설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국도 42호선, 국도 45호선이 28.1Km와 25.6Km의 연장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용인시 연도별 도로시설 현황

구분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인구(인)	209,682	244,763	272,177	302,564	320,166	359,406	
자동차대수(대)	40,225	56,356	70,689	84,299	88,347	106,913	
면적(km <sup>2</sup> )	592.19	591.56	591.58	591.62	591.61	591.61	
도로면적(km <sup>2</sup> )	11.97	12.82	13.13	13.39	13.53	13.53	
합계	계	293,369	257,726	330,175	329,383	330,228	330,228
	포장	293,369	248,226	301,675	300,883	303,528	303,528
	미포장	0	9,500	82,500	28,500	26,700	26,700
	미개통	13,170	31,900	50,000	50,000	50,000	50,000
	포장율	100.00	96.31	91.37	91.35	91.91	91.91

구분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고속도로	42,790	42,790	42,790	42,790	42,790	42,790	
일반국도	계	87,000	87,036	87,085	86,293	86,605	86,608
	포장	87,000	87,036	87,085	86,293	86,608	86,608
	미포장	0	0	0	0	0	0
	미개통	0	0	0	0	0	0
	포장율	100	100	100	100	100	100
지방도	계	58,079	61,000	138,500	138,500	139,030	139,030
	포장	58,079	52,500	130,000	130,000	130,530	130,530
	미포장	0	8,500	8,500	8,500	5,800	8,500
	미개통	1,970	23,200	47,500	47,500	47,500	47,500
	포장율	100.00	86.07	93.86	93.86	96.89	93.89
시군도	계	105,500	66,900	61,800	61,800	61,800	61,800
	포장	105,500	65,900	41,800	41,800	43,600	43,600
	미포장	0	1,000	20,000	20,000	18,200	18,200
	미개통	11200	8,700	2,500	2,500	2,500	2,500
	포장율	100.00	98.51	67.64	67.64	70.55	70.55
인구당도로면적(km/인)	1.40	1.05	1.21	1.09	1.03	0.92	
차량당도로면적(km/대)	7.29	4.57	4.67	3.91	3.74	3.09	
도로율(%)	2.02	2.17	2.22	2.26	2.29	2.29	

자료 : 용인시, 《용인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2001.

(표 2) 용인시 주요 가로망 현황

축	가로명	기점	종점	연장(km)	차로수(편도)	비고
동서축	국도42호선	기흥읍 영덕리	양지면 추계리	28.1	2	인천~동해
	국지도44호선	유림동 국도42호선	양지면 정수리	9.8	1	용인~양평
	국지도82호선	이동면 송천리	남사면 북리	6.9	1	화성~음성
	지방도343호선	구성면 상하리	기흥읍 서천리	7.9	2	정남~상하
	시도3호선	역삼동삼가삼거리	구성면 구성사거리	3.5	1	어정~북동
남북축	국도17호선	양지면 양지사거리	백암면 고안리	19.9	2	여천~용인
	국도43호선	수지읍 상현리	모현면 능원리	12.7	2	연기~고성
	국도45호선	모현면 일산리	이동면 어비리	25.6	1~2	서산~가평
	국지도23호선	수지읍 동천리	남사면 원암리	21.7	1~3	천안~파주
	국지도57호선	모현면 일산리	원삼면 목신리	33.5	1	대천~안양
지방도329호선	백암면 가창리	백암면 석천리	10.3	1	삼죽~도척	

자료 : 용인시, 《용인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2001.

## 2. 주차시설

(표 3) 주차 형태별 설치 현황

구분		개소	면적(m <sup>2</sup> )	주차면수
공영부설주차장	무료	15	6,867	597
	유료	1	1,725	150
노상주차장	-	24	62,456	5,178
노외주차장	무료	19	95,088	8,266
민영주차장	유료	18	108,241	3,798
	무료	24	29,131	2,533
에버랜드	무료	9	420,915	35,040
양지리조트	무료	5	19,205	1,624
계	-	115	743,628	57,186

자료 : 용인시, 《용인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2001.

(표 4) 지역내 총생산과 증가율(불변가격기준) <단위 : 백만원, %>

종명	인구	자동차대수	주차면수	면/100대
기흥읍	61,648	17,981	7,184	39.95
수지읍	102,068	31,682	1,217	3.84
구성읍	26,028	8,484	342	4.03
포곡면	24,310	5,360	36,011	671.84
모현면	18,160	5,360	64	1.19
남사면	7,662	2,283	334	14.63
이동면	13,405	3,909	478	12.15
원삼면	7,505	2,130	182	8.54
백암면	10,530	3,256	369	11.33
양지면	12,530	3,873	1,744	45.03
중앙동	22,630	6,788	7,324	107.90
역삼동	20,896	5,601	1,640	29.28
유림동	20,320	5,554	300	5.40
계	347,692	102,261	57,186	53.49

자료 : 용인시, 《용인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2001

용인시의 주차장 설치현황은 115개소, 743,628m<sup>2</sup>에 57,186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일 시설물인 에버랜드가 35,040면으로 가장 많은 주차장을 보유

하고 있었고, 부설주차장은 16개소 747면, 노상주차장 24개소 5,178면, 민영주차장 등을 포함한 노외주차장은 75개소, 51,261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

이밖에 동별 주차장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포곡면을 제외한 지역 중에는 용인시청이 위치한 중앙동이 85,179㎡의 면적에 7,324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기흥읍이 136,309㎡의 면적에 7,184면이 확보되어 있다.

또한 주차장의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6년 공영주차장은 53개소에서 1999년 98개소로, 민영은 5,004개소에서 5,999개소로 각각 주차장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인시(2001)가 추정한 주차수요는 다음과 같다.

(표 5) 연도별 주차장 현황 <단위: 개, 소, ㎡>

연별	건설물부설			건설물부설		건설물부설		건설물부설	
	개소	공영	민영	공영	민영	공영	민영	공영	민영
1996	5,057	53	5,004	22	0	15	42	16	4,962
1997	5,065	91	4,974	23	0	52	12	16	4,962
1998	6,097	98	5,999	25	0	57	15	16	5,984
1999	6,097	98	5,999	25	0	57	15	16	5,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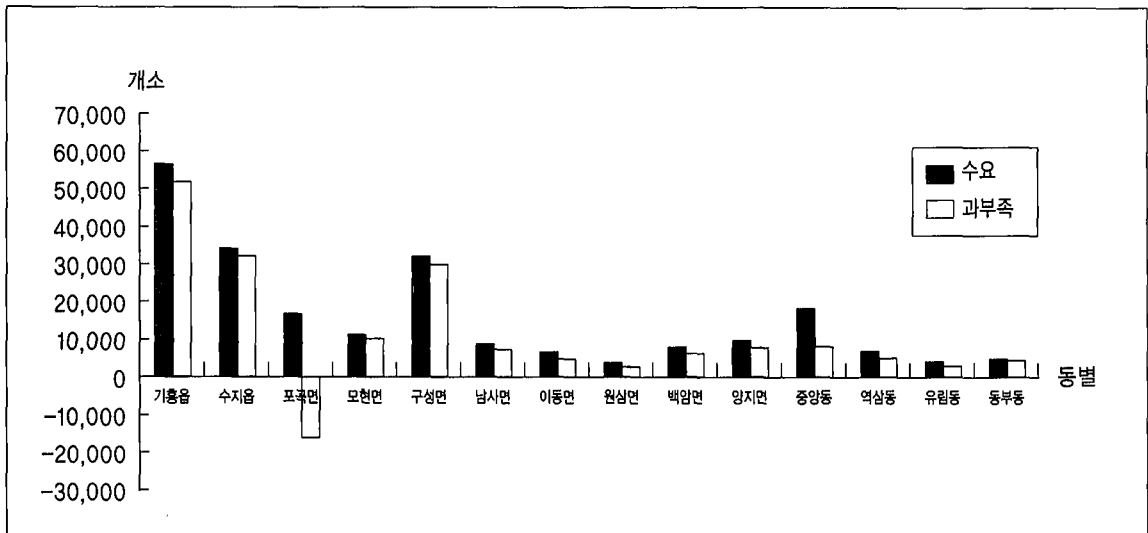
자료: 용인시, 《용인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2001

지금 용인시의 주차운영상태를 보면 단기간의 도시화에 따른 차량 증가로 주차 수요에 비해 공급의 부족현상과 함께 다핵 구조의 넓은 도시구조로 용인지역, 신갈지역, 수지지역 등 시가지구역에 대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등 지역에 따른 주차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기능의 저하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교통질서 문란을 초래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단기적으로 공영 및 노외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주차장 확충방안과 장기적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주차장 확충과 대중교통수단의 정비를 통한 통행억제책을 쓴다는 계획이다.

(표 6) 용인시 지역별 주차수요 전망

구분	공급현황	2010년		2010년		2010년		2010년	
		수요	과부족	수요	과부족	수요	과부족	수요	과부족
기흥읍	7,184	21,440	14,256	32,522	25,338	46,401	39,217	57,827	50,643
수지읍	1,217	11,904	10,687	17,060	15,843	26,633	25,416	34,223	33,006
포곡면	36,011	7,783	-28,258	9,989	-16,022	13,136	-22,875	16,313	-19,698
모현면	64	3,929	3,865	5,198	5,134	6,736	6,672	8,434	8,370
구성면	342	10,732	10,390	16,607	16,265	25,248	24,906	33,795	33,453
남사면	334	3,783	3,449	5,015	4,681	6,372	6,038	7,790	7,456
이동면	475	3,607	3,132	4,633	4,158	5,864	5,389	7,158	6,683
원삼면	182	2,499	2,317	3,028	2,846	3,743	3,561	4,447	4,265
백암면	369	4,674	4,305	5,699	5,330	6,944	6,575	8,132	7,763
양지면	1,744	5636	3,892	7,174	5,430	9,394	7,650	11,643	9,899
중앙동	7,324	7,928	604	10,692	3,368	14,924	7,600	19,184	11,860
역삼동	1,640	3344	1,704	4,368	2,728	6,035	4,395	7,848	6,208
유림동	300	2,168	1,868	2,957	2,657	3,968	3,668	5,141	4,841
동부동	-	2,468	2,468	3,188	3,188	4,288	4,288	5,447	5,447
계	57,186	91,865	34,679	128,130	70,944	179,686	122,500	227,382	170,196

자료 : 용인시, 《용인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2001



▲ 그림1  
2010년 동별 주차수요 및 과부족분석

### 3. 기타 교통시설

그 밖의 교통시설로는 141개의 교량과, 1개의 보도육교, 2,600개의 가로등이 있다.

(표 7) 연도별 교량현황

연별	합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가설		미가설		가설		계		가설		미가설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1990	110	3,370	0	0	17	635	29	885	29	885	0	0
1991	110	3,370	0	0	17	635	29	885	29	885	0	0
1992	107	3,411	0	0	17	635	30	911	30	911	0	0
1993	84	2,730	0	0	0	0	30	911	30	911	0	0
1994	88	2,875	0	0	0	0	30	911	30	911	0	0
1995	123	5,643	0	0	50	2,878	28	1,419	28	1,419	0	0
1996	125	5,725	0	0	50	2,878	28	1,419	28	1,419	0	0
1997	142	6,669	0	0	50	2,878	28	1,419	28	1,419	0	0
1998	142	6,669	0	0	50	2,878	28	1,419	28	1,419	0	0
1999	141	6,575	0	0	45	2,230	32	1,419	32	1,419	0	0

연별	지방도						시군도					
	계		가설		미가설		계		가설		미가설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1990	29	850	29	850	0	0	35	1,000	35	1,000	0	0
1991	29	850	29	850	0	0	35	1,000	35	1,000	0	0
1992	25	865	25	865	0	0	35	1,000	35	1,000	0	0
1993	22	828	22	828	0	0	32	991	32	991	0	0
1994	22	828	22	828	0	0	36	1,136	36	1,136	0	0
1995	25	528	25	528	0	0	20	818	20	818	0	0
1996	25	528	25	528	0	0	22	900	22	900	0	0
1997	43	1,414	43	1,414	0	0	21	958	21	958	0	0
1998	43	1,414	43	1,414	0	0	21	958	21	958	0	0
1999	42	1,336	42	1,336	0	0	22	1,036	22	1,036	0	0

자료 : 《용인시 통계연보》 및 내부자료 인용, 용인시, 1999.

(표 8) 연도별 도로시설물

연별	보도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고가도로		
	개소	연장	면적	개소	연장	면적	개소	연장	면적	개소	연장	면적
1993	1	30	90	-	-	-	-	-	-	-	-	-
1994	1	30	90	-	-	-	-	-	-	-	-	-
1995	1	30	90	-	-	-	-	-	-	-	-	-
1996	1	30	90	-	-	-	-	-	-	-	-	-
1997	1	30	90	-	-	-	-	-	-	-	-	-
1998	1	30	90	-	-	-	-	-	-	-	-	-
1999	1	16	35	-	-	-	-	-	-	-	-	-

연별	차도육교			지하상가			터널			가로동(개소)
	개소	연장	면적	개소	연장	면적	개소	연장	면적	
1993	-	-	-	-	-	-	-	-	-	1,566
1994	-	-	-	-	-	-	-	-	-	1,796
1995	-	-	-	-	-	-	-	-	-	1,796
1996	-	-	-	-	-	-	-	-	-	1,796
1997	-	-	-	-	-	-	-	-	-	1,796
1998	-	-	-	-	-	-	-	-	-	1,796
1999	-	-	-	-	-	-	-	-	-	2,600

자료 : 《용인시 통계연보》 및 내부자료 인용, 용인시, 1999.



## 제2절 교통수단 현황

### 1. 자동차 등록현황

우리나라는 1903년에 자동차가 처음으로 들어왔다. 당시 고종이 미국에서 4기통 캐딜락을 1대 들여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업은 1950년대의 시발 승용차의 조립에서 시작되었다. 본격화된 것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1962년부터이고, 이후 1970년대 후반을 고비로 차량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85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자동차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하였고, 1987년 초에는 승용차만 해도 대략 70만대에 육박하였다. 이처럼 해마다 증가된 자동차의 수는 1995년 12월을 기준으로 승용차 606,300대, 승합차 612,600대, 화물차 1816,600대로 850만대를 넘었고, 2001년 6월말 현재 전국 자동차등록대수가 12,481,749대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0년 12월 말 12,059,276대와 비교할 때 422,473대의 증가와 3.5%의 증가율을, 전년 동기인 2000년 6월 말(11,599,872대)에 비해서는 등록대수는 881,877대 늘어나고 증가율은 7.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8년도에는 전년에 비하여 56,172대(0.5%), 99년도에는 전년에 비하여 694,129대(6.6%), 2000년도에는 895,548대(8.0%)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최근의 경기동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증가세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자동차 구성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종별로는 승용차 8,460,000대(67.8%), 승합차 1,358,000대(10.9%), 화물차 2,625,000대(21.0%), 특수차 38,000대(0.3%)로 집계되었고, 승용차는 전년도인 2000년 6월말의 7,950,000대(68.5%)보다 점유율이 0.7%p 감소한 반면, 승합차는 2000년 6월말 1,204,000대(10.4%)보다 점유율이 0.5%p 증가하여 승합차의 인기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용도별로는 자가용 11,785,000대(94.4%), 영업용 645,000대(5.2%), 관용 51,000대(0.4%)이며, 이중 자가용 승용차는

8,166,000대로 전체 자동차의 65.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2,607,000대(20.9%), 서울 2,497,000대(20.0%), 부산 838,000대(6.7%)의 순이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등록대수는 5,776,000대로서 전체의 46.3%를 차지하고 있어 98년 말(46%) 이후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활동의 증대로 인해 승용차의 소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용인시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

구분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대)					대/천인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기타	
1991	172,510	19,226	10,377	2,844	5,805	200	111.45
1992	182,806	25,038	14,407	3,157	7,135	339	136.96
11993	191629	31,867	19,400	3,652	8,447	368	166.16
1994	209,682	40,225	25,747	4,111	9,978	389	191.84
1995	244,763	56,356	39,371	4,765	11,840	380	230.25
1996	272,177	70,689	51,107	5,536	13,665	381	259.72
1997	302,564	84,299	62,558	6,305	15,028	408	278.62
1998	320,166	88,347	65,267	6,915	15,790	375	275.94
1999	359,406	106,913	77,838	10,533	18,178	364	297.47
연평균 증가율	9.61	23.92	28.64	17.78	15.34	7.77	13.06

자료 : 용인시,《용인시 통계연보》, 각 호.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용인시 자동차 등록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3.92%로 나타났으며, 특히 승용차의 연평균 증가율이 28.6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 천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역시 1991년 111.45대에서 1999년에는 297.47대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년간 용인시 자동차 등록대수의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용차가 약 7배, 승합차가 3.5배, 화물차가 3배 증가하였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수지읍이 31,682대로 가장 많으며, 남사면이 2,283대로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천명당 보유대수는 구성면

이 325.96대로 가장 높다. 또한 수지읍, 백암면, 양지면 등이 3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삼동이 268.04대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10) 읍면동별 자동차등록현황

구분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대/천인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기타	
기흥읍	61648	17,981	13,334	1,7212	2,888	47	219.67
수지읍	102,068	31,682	26,406	2,618	2,654	4	310.4
포곡면	24,310	6,654	4,535	759	1,359	1	273.71
모현면	18,160	5,360	3,408	608	1,343	1	295.15
구성읍	26,028	8,484	6,276	792	1,406	10	325.96
남사면	7,662	2,283	1,350	243	689	1	297.96
이동면	13,405	3,909	2,478	457	966	8	291.61
원삼면	7,505	2,130	1,227	202	699	2	283.81
백암면	10,530	3,256	1,509	331	1,245	171	309.21
양지면	12,530	3,873	2,393	415	1,050	15	309.1
중앙동	22,630	6,788	4,511	947	1,279	51	299.96
역삼동	20,896	5,601	4,193	530	854	24	268.04
유림동	20,320	5,554	4,023	578	930	23	273.33
동부동	11,714	3,358	2,195	341	816	6	286.67
계	359,406	106,913	77,838	10,533	18,178	364	297.47

자료 : 용인시,《용인시 통계연보》, 2000.

## 2. 택시

용인시의 택시면허 총대수는 649대이고 이 중 법인택시가 212대이고, 개인택시가 437대로 택시 1대당 인구는 약 553.8명이다. 용인시 택시의 67.3%는 개인택시이며 법인택시 중에서는 한진교통이 보유대수 68대로 가장 많다. 신갈운수, 용인운수, 용진운수는 모두 48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용인시에서 운행 중인 택시 55대를 대상으로 택시 영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택시의 평균주행거리는 410.8Km에 평균영업거리 160.5Km로 영업율 39.19%로 나타났으며, 용인시의 영업율은 인접시인 수원 48.69%, 성남 49.8%, 안산 58.6% 등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11) 용인시 택시운행현황

업체명	차량대수	택시1대당 인구
신갈운수	48	553.8
한진교통	68	
용인운수	48	
용진운수	48	
개인택시조합	437	
계	649	

평균주행거리	평균영업거리	실차율(%)	일평균수입
410.8 km	160.5 km	93.19	188,225원

자료 : 용인시, (용인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2001.

용인시(2001)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로는 도농통합형 도시에 따른 도심지의 분산으로 택시이용을 저조와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들의 택시이용 외면, 택시이용인구의 자가용으로 수단 전환, 용인시 지형적 특성에 따른 단거리승객 승차거부 빈발과 일률적인 요금 정책과 획일적인 영업으로 택시에 대한 메리트 미비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점의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자질 향상 및 처우개선 및 모범택시의 점진적 확대시행, 콜택시제도의 활성화로 택시서비스 제고 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택시의 완전 고급화와 택시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택시종류의 다양화로 자가이용자의 택시이용 전환 유도 등이 있을 수 있겠다.

### 3. 버스

용인시는 6개의 일반 시내버스업체와 2개의 마을버스업체가 용인 관내 주요노선을 운행 중이다. 현재 용인시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121개 노선이고 629대의 차량이 일일 3,318회 운행하고 있다. 경남 여객이 시내버스와 지선버스를 합하여 55개 노선에 137대의 차량으로 일일 743회 운영하고 있어 용인시 대부분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타 업체가 용인시와 여타 시·군을 연결하는 분당, 서울 등으

(표 12) 용인시 버스운행 상황

구분	업체명		노선수	운행회수	차량대수
노선버스	경남여객	시내버스	28	644	137
		지선버스	27	99	
	성산교통		9	249	52
	수원여객		10	412	58
	대원고속		13	323	122
	경기고속		12	691	193
	경기교통		2	135	30
마을버스	수성교통		8	435	16
	한별교통		12	330	21
합계			121	3,318	629

자료 : 용인시, 《용인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2001.

로의 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용인시는 시군 통합에 따른 도농복합형 도시의 형태로써 시가지 형성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기 보다는 기존 통합이전 시가지 중심형태로 발전해 다핵도시 형태로 구성되어 버스노선의 형태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를 따라 간선도로 위주로 노선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선버스가 시내버스의 보완노선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내버스 노선이 시내교통 노선이라기 보다는 타사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현재의 지선버스 운행만으로는 시내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든 상태이다.

용인시는 시내교통에 대한 최대 문제점으로는 노선체계의 불합리화를 들 수 있다. 이는 노선의 도시집중화와 용인 시내교통 수요에 대한 노선 공급 미비 및 지역간 노선망에 노선 집중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이고, 또한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체계 서비스의 미비로 광역교통체계가 마련되기 전에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도시 개발에 따라 유기적 교통시설을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승용차 교통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밖에 버스서비스의 낙후를 들 수 있는데, 정류장 시설 미흡과 차량시설 및 청결상태 불량과 무정차 통과 등 침두시간대의 승차난이 매우 심각하고 운행시간 조기 단절에 따른 이용시민의 불편 등을 들 수 있다.

개선방안으로 용인시(2001)는 단기적으로는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 승객 한 사람이 차지하는 도로공간을 줄여서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노선체계의 합리화를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버스서비스의 개선과 부대시설을 개선시키고 버스의 고급화를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 제3절 용인시 물류산업 현황

현대 산업경제에서 차지하는 물류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표-13>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를 맞이하여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또한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물류산업은 공급자중심에서 고객중시로, 기능별 물류에서 통합형 물류로, 실물기반과 인력중심에서 인터넷기반과 기술중심으로, 소품종대량, 보관형 물류에서 다품종소량, 무재고형 물류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표 13)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과거]		[현재 및 미래]		
비 용 경 쟁	· 공급자중심 물류	→ → → → → →	· 공급자중심 물류	비 용 경 쟁
	· 기능별 물류		· 기능별 물류	
	· 실물기반 물류		· 실물기반 물류	
	· 인력중심의 물류		· 인력중심의 물류	
	· 소품종대량 물류		· 소품종대량 물류	
	· 보관 물류		· 보관 물류	

자료 : 정종석(2000)

우리나라는 최근 산업 및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이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물류비 부담은 약 16%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 내외인 선진국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물류산업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 법률 하에서 물류산업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표-14>와 <표-15>는 물류산업의 범위를 제시하면서 그 현황 및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고 있다.

국내물류산업은 크게 운송업, 물류시설 관련업, 항만관련업 및 운송관련업, 기타로 대별할 수 있다. 시스템상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물류업체가 대부분이고, 이들 사업체 중 화물차 운송업체가 물류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종합물류서비스, 컨설팅서비스, 물류공동화(복합)서비스, 포워

(표 14) **현행 법률하에서의 물류산업 범위**

운송업	물류시설 관련업	항만관련업	운송업관련업·기타
○화물자동차운송업 - 일반화물 - 개별화물 - 용달화물 (화물차운송사업법) -보세운송업 (관세사법) - 국제특송업 (관세법) ○철도운송업 - 철도화물운송업 - 철도소운송업 ○해상운송업 - 외항화물 - 내항화물 ○ 항공화물운송업	○창고보관업 - 일반창고업 - 냉동냉장창고업 - 위험물창고업 (화물유통촉진법) - 보세창고 (관세사법) ○화물터미널운영업 ○컨야적장(CY)업 ○내륙기지업	○항만하역업 ○항만운송업 ○검수·검량업 ○항만용역업 ○도선사 ○예선업 ○항만부두운영업 ○해운대리점업	○화물차운송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통관업(관세사) ○화물경비업 ○하역노무공급업 - 철도, 항만 ○물류정보업 ○컨임대업 ○도매배송업

딩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물류업체가 등장하였으며, 이들 기업은 하주기업의 특성 및 거래관계에 따라 택배업(제조업체 → 제조·유통업체로의 수배송, 제조·유통업체 → 일반고객으로의 배송 등 물류활동의 주체가 기업인 경우), 도매물류업, 공동물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방식을 영위하고 있는 중이다.

물류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환경변화와 소비자 욕구변화에 대하여 상거래 및 물류 등 유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류소비자(하주)가 요구하는 다양하고도 품질 높은 물류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및 기반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 원인으로 는 과거 물류정책이 정부에 의해 규제일변도로 추진되어 왔으며, 일반 서비스산업으로 간주되어 정책적 지원이 미흡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유통단계의 전 과정을 통하여 물적 유통의 표준화 및 호환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물류기능의 적절한 배분과 공동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15) 물류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산업구조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업종 극세분화</li> <li>· 혁신주체의 부재</li> <li>· 영세업체 난립</li> <li>· 전략적 제휴의 미흡</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물류위주의 시장</li> <li>· 산업합리화의 지연</li> <li>· 출혈가격경쟁</li> <li>· 중복투자 발생</li> </ul>
내부역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마인드체계 부재</li> <li>· 물류기술장비열악</li> <li>· 물류전문인력 부족</li> <li>· 재무구조의 영세성</li> <li>· 컨설팅능력 미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비용 서비스</li> <li>· 서비스 품질수준 낙후</li> <li>· 신규서비스 개발 미흡</li> <li>· 신규투자 저조</li> <li>· 맞춤형물류서비스 곤란</li> </ul>
지원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령 대기화</li> <li>· 실질적인 지원 미흡</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산업 합리화 지연</li> <li>· 낮은 수익률→투자감소</li> </ul>
소프트 물류기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표준화 저조</li> <li>· 물류정보화 미흡</li> <li>· 물류공동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관/연계수송 곤란</li> <li>· 정보단절→재고증가</li> <li>· 물류비 절감효과 둔화</li> </ul>
SOC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항만·철도시설 부족</li> <li>· 물류거점시설 확충 미흡</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비용/저품질 서비스</li> <li>· 정시/즉시 수배송 곤란</li> </ul>
수요기반 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물류 고수 경향</li> <li>· 합리적 외주 결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산업 성장성 둔화</li> <li>· 전문기업의 확산 저해</li> </ul>

국내 물류시장은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이를 극복할 만한 내부역량이 부족하며 지원체계나 SOC, 수요기반이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류업종의 지나친 세분화, 혁신주체의 부재, 영세업체의 난립, 전략적 제휴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물류산업의 구조가 매우 취약한 편이다. 물류기업 자체도 거의 대부분 혁신마인드·체계의 부재, 물류기술·장비의 열악, 물류전문인력의 부족, 재무구조의 영세성, 물류컨설팅능력의 미비 등으로 인해 고비용의 물류서비스, 서비스 품질수준의 낙후, 신규서비스의 개발 미흡, 신규투자의 저조, 맞춤형물류서비스의 미흡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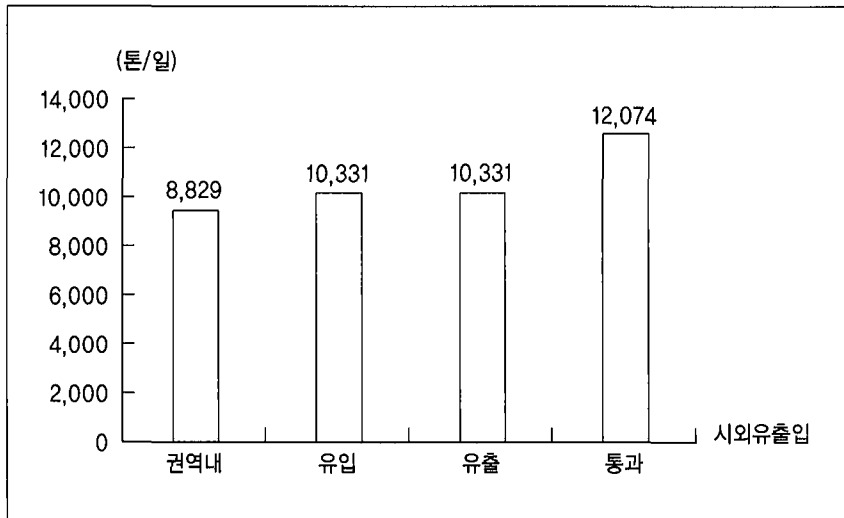
## 1. 용인지역 화물 물동량

용인시(2001)에 따르면 용인시 화물 물동량의 경우, 용인 시민에

(표 4) 지역내 총생산과 증가율(불변가격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물동량(톤/일)	구성비(%)
권역내	8,829	21.23
시외유출입	유입	10,331
	유출	10,331
	통과	12,074
계	41,566	100.00

자료 : 용인시, <용인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2001.



▶ 그림2  
화물물동량 현황

의한 총 물동량은 13,022.6톤/일로 1인당 0.0362톤/일 규모이고, 이 중 권역내 물동량은 8,829톤/일로 시민에 의한 물동량의 67.8%이며 시민 및 비시민을 포함한 화물물동량 중 유입, 유출은 각각 10,331.4톤/일, 통과는 12,074.2톤/일로 통과교통이 많은 용인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 2. 화물차 등록현황

1997년 현재 용인지역의 화물차 등록대수는 전국의 0.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용도별로 나눠보면 자가용이 10,711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영업용, 그 다음이 관용으로 나타났다.

### 3. 물류시설

(표 17) 용인시의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합계	영업용	자가용	관용
1997	15,028	1,438	13,423	167
1995	13,665	1,294	12,214	157
1993	11,840	1,004	10,711	125

현재 수도권지역에는 800여개의 물류시설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용인지역에는 대략 80~90개 정도의 물류시설이 입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류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물류기능 배분의 적정화, 물류활동 시스템 효율화 및 물류지원 시스템의 효율화가 절실하다.

(표 18) 용인지역내 물류시설 소유업체

강동냉장	문구조합	엘지전자
거평	미원통상(미니스톱)	영문구
경기냉장	바른손	옥시
고려냉장	보광(훼미리마트)	용마유통
금강개발산업	삼성전자	우성타이어
금호타이어	삼양유통	유상냉장
기아자동차서비스	삼일농수산	윤성산업
나산	상아종합판매	장미벽지
녹십자	선경유통	정식품
농심가	선일냉장	제일제당
뉴스킨코리아	성도어패럴	중앙개발
대상기업	세반유통	진로
대현	신무림제지	태평양
동서배송운수	신세계백화점	한국물류센터
동아냉장	아가방	한양유통
동아연필등	애경산업	한화유통
동양냉장	에넥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엘지유통	현대종합목재

자료 : 정종석(2000)

제조, 도매, 소매간 물류기능의 배분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매물류업의 육성과 함께 물류표준화와 정보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 제12장 통 신

### 제1절 정보통신의 의미

#### 1. 통신의 의의

통신(通信, communication)이란 인간의 의사·지식·감정 또는 각종 자료를 포함한 정보를 격지(공간적) 사이에서 주고받는 작용·작위(作爲) 또는 현상을 말한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지점 간의 정보의 전달, 정보 전달 수단 또는 방법에 따라 크게 인편(人便)에 의한 통신, 봉화(beacon fire)와 수기(手旗) 등 가시적 신호에 의한 통신, 우편(mail system)에 의한 통신, 전자 또는 전자기적 신호에 의한 전기 통신(telecommunication)으로 분류된다. 역사적으로 대체로 위 순서로 발전되어 왔는데 용인에서는 견지산과 석성산에 봉수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듯 통신은 정보의 전송에 관련되는 다양한 방법과 절차, 기구와 장치, 중간 매체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넓은 뜻으로는 교통의 일부로서 인체와 재화(財貨)의 위치적 이동을 의미하는 운수(transportation)에 대응해서, 서신을 대상으로 하는 우편, 전기에너지(전류·전파)를 매체로 하는 전기통신, 공간과 수중을 통한 음향통신, 빛·연기·수기(手旗) 등을 통한 시각통신 등으로 대별할 수가 있으나, 좁은 뜻으로는 우편과 전기통신만을 지칭한다.

우편은 통보문을 기록한 편지와 엽서 또는 한정된 인쇄물을 운수 기관(육해공)을 통하여 주고받는 제도이다. 전기통신은 통신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매개로 하는 유선통신과 공간을 전파(傳播)하는 전파(電波)를 매체로 하는 무선통신으로 분류되는데, 어느 것이나 통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 또는 객체인 통신내용(통보 또는 정보)과 그것을 탑재하는 전류·전파 등 매체 및 수수(송수) 작용을 행하는 주관(의도)적 주체가 필수적 요소이다.

국가가 영역·국민 및 주권에 의하여 형성되고, 일정한 영역에서 국민이 원하는 주권에 의하여 통합되는 것과 같이 통신도 수요자(주체)의 의도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가 주어진 매체를 통하여 수수되는 작용 또는 현상이다. 결국 통신은 요소의 공존과 유기적 결합으로 상호보완적 복합이 되어야 하며, 또 이것이 통신형성의 선행조건이 된다. 한편 전기통신은 그 역무(役務) 형태로서 전신·전화·데이터통신·화상통신 또는 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정보통신의 중요성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 지식기반사회란 국가·사회·기업·개인 등 국가 조직 전반의 활동들이 고도화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로, 사회의 성장과 발전이 국토의 넓이, 돈과 자원의 많고 적음 따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창출 및 유통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바뀌게 되면 사회의 경쟁력 원천도 자연히 산업사회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산업사회가 도로, 항만, 항공 등을

기본 인프라로 삼아 철강, 기계, 화학산업 등이 사회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다면,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대표되는 통신네트워크가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되고,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등이 사회 성장을 이끌고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주도산업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변화 전망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동인은 바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있다는 점이다.

(표 1) 산업사회와 지식기반사회와의 비교

구분	산업사회	지식기반사회
주도국가	유럽→미국→일본	미국
발생요인	기계기술혁신, 물질적 풍요 추구	정보기술혁신, 경제 소프트웨어화진전
경제활동무대	실제공간(토지, 건물, 공장)	가상공간(정보통신 네트워크)
주도산업	철강, 기계, 자동차, 화학	정보통신기기, 정보서비스
발전형태	과학기술발전이 일반적으로 산업사회 구조를 변화	정보화에 의한 기술혁신과 산업사회의 상호작용
인프라사회구조	교통네트워크(도로, 항공, 항만)	통신네트워크(정보고속도로)
	생산자 중심, 수직적 피라미드형	소비자 중심, 네트워크형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정보통신기술은 국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원 스톱(One Stop) 민원처리, 흡 닥터, 전자가정교사 등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현재보다 국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은 정보통신기술뿐인 것이다. 미국은 이미 교육분야에서 NSF, ARPA, NASA를 중심으로 디지털 도서관, 온라인 원격교육 등 질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의료분야에서는 국립 의학도서관이 MEDLINE을 인터넷에 접속시켜 각종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장 선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은 무선통신/인터넷/디지털TV 등 신산업 창출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토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속적인 정보통신기술개발을 통해 99년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은 98년 대비 15% 성장한 100조원 규모로 GDP대비 23.5%를 차지하

여 우리나라 전체 산업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신규 고용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특히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앞으로 막대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렇듯 향후 사회성장과 고용문제를 책임질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전세계 주요국가들은 사활을 걸고 정보통신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 제2절 용인시 통신업의 산업구조적 특성

이 절에서는 용인시 통신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부가가치액)을 중심으로 통신업이 용인시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자.

1999년 현재 용인지역 전체산업 종사자 11만 2,066명 가운데 통신업 종사자는 431명이다. 1998년의 455명에 비하면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종사자수 기준으로 볼때에 외환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업종이라 할 수 있다. 용인시 전체 사업체수 1만 6,727개의 중에서 26개의 통신업체가 용인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시 199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표 2) 용인시 통신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개, 명>

구분	1997		1998		1999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통신업	21	444	31	455	26	431
우편업	14	233	23	267	21	253
전기통신업	7	206	8	188	5	178

자료: 용인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표 3) 통신업의 비중:종사자수 <단위: 명, %>

구분	종사자수		증감		구성비	
	1998	1999	종사자수	증감률	1998	1999
전산업	99,536	112,066	12,530	12.6	100	100
통신업	455	431	-24	-24	0.46	0.38

자료: 용인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다.

〈표-3〉은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용인시에서 통신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1998년 전산업 종사자수의 0.46%가 통신업에 종사하였으며, 이듬해인 1999년에는 그 비중이 감소하여 0.38%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 용인시에서 통신업이 차

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4〉는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용인시에서 통신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1998년 전산업 사업체수의 0.21%가 통신업에 종사하였으며, 이듬해인 1999년에는 그 비중이 감소하여 0.16%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용인시에서 통신업이 차

(표 4) 통신업의 비중:사업체수 (단위: 개, %)

구분	사업체수		증감		구성비	
	1998	1999	사업체수	증감률	1998	1999
전산업	14,467	16,727	2,260	16	100	100
통신업	31	26	-5	-16.1	0.21	0.16

자료: 용인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지하는 비중 또한 무시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용인지역 통신업의 총생산액은 1998년을 기준으로 전산업 생산액 6조 3,822억원 중에서 약 0.4%인 282억 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1994년 이후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약 18%나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사업체수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는 용인시 통신업이 외환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지 않게 보이나 생산액(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997년에는 연 성장률이 55.7%에 이르렀던 것을 감안하면 외환위기로 인한 통신업의 위축정도를 가늠할

(표 5) 용인시 통신업 총생산액 (1995년 불변가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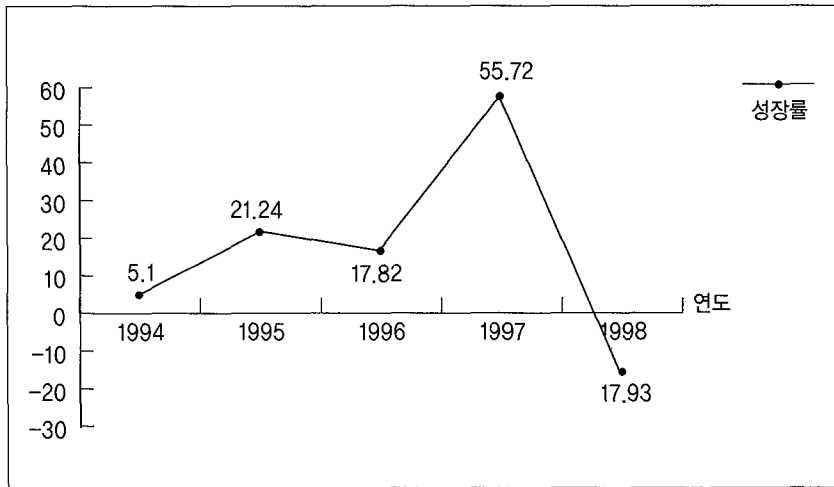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총생산	3,850,585	4,986,862	5,176,837	5,768,659	6,382,150
통신업	15,41	18,732	22,070	34,386	28,205
성장률	5.1	21.24	17.82	55.72	-17.93
비중	0.4	0.38	0.4	0.6	0.4

자료: 경기도, 《시·군 단위 지역내 총생산》, 2000.

수 있다.

통신업은 그 특성상 사회간접자본적 성격이 짙다. 따라서 통신업

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순히 부가가치액 혹은 생산액의 비중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통신업은 외부경제적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즉, 통신업은 자체에서 내부화할 수 없는 긍정적인 생산성 증대효과를 여타 산업에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그림1  
울산시 통신업 성장률

## 제3절 용인시 정보통신업의 현황

### 1. 지역통신부문

#### 1) 우체국

우체국은 우편업무를 맡아보는 정부기관으로서 우편·체신 업무, 즉 편지나 전보·소포 등을 모아 배달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 전국의 시·군·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되어 있다. 한국 우체국의 기원은 1884년(고종 21)에 설치된 우정총국(郵政總局)이다. 우정총국의 설립으로 기존의 역참제에 의해 이루어지던 전근대적인 통신업무가 사라지고 근대우편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국 17일 만에 갑신정변의 발발로 우정총국은 폐쇄되고 이후 10년 동안 다시 역참제에 의한 통신업무가 계속되었다. 그후 1895년(고종 32) 6월 통신국 소속으로 24개의 우체사(郵遞司)가 설치됨으로써 근대적인 우편업무가 다시 시작되었다. 1900년에는 그 수가 38개소에 이르렀으나, 1905년 강압에 의해 일본과 한일통신합동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제에게 통신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 3년 동안은 미군정에 의해 우편제도가 운영되었다. 1949년 정부조직법이 제정되고 지방체신관서설치법이 공포됨과 함께 명칭이 우체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여 1면(面) 1국(局)의 원칙 하에 우체국의 숫자는 급속히 증가되었다. 우체국은 정보통신부 소속으로서 2000년 현재 우체국을 관할하는 체신청은 전국에 8개(서울, 부산,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강원, 제주) 있으며, 우체국 총수는 2,807개국이다.

주요업무는 우편·체신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사업도 포함된다. 예금·적금·대출·신용카드·보험 등의 금융상품 이외에도 공과금 수납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특산품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특산품 우편주문 판매도 하고 있다. 전화·팩시밀리·컴퓨터 등의 첨단통신시

설이 대중화되면서 우체국 고유의 우편업무는 갈수록 그 의미가 줄어들고 대신 전국 분포망을 이용한 금융업무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체국의 장은 국장으로 서기관·행정사무관의 직위이나 규모가 작은 우체국은 행정주사를 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우체국은 일반우체국과 별정우체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우체국은 국가가 설치·운영하며, 별정우체국은 개인 부담으로 청사와 기타 시설을 갖추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국가의 위임 하에 체신업무를 수행한다.

용인시 정보통신행정은 용인시 일원을 관할하는 용인우체국 및 그 밖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용인지역 우체국은 1일 평균 9만 9천 통의 우편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민원우편, 내용증명, 우편주문판매, 전자우편 등의 국내우편업무, 국제등기, 소포, 국제특급 등의 국제우편업무, 우편환, 우편대체, 자기앞수표, 체신예금, 체신보험, 타행온라인송금, 체신금융업무, 간이무선국 허가에 의한 전파업무, 공중전화카드판매, 각종 복권판매, 제세공과금 수납 등의 수탁업무 등이다.

(표 6)

## 우편물 현황

〈단위: 천통〉

구분 연도	총계	접수				배달			
		계	보통	특수	소포	계	보통	특수	소포
1990	18,160	6,547	6,205	313	29	11,613	11,147	428	38
1991	18,813	6,990	6,586	371	33	11,823	11,297	479	47
1992	19,498	7,339	6,886	414	39	12,159	11,541	561	57
1993	16,995	7,215	6,706	468	41	9,780	9,091	626	63
1994	18,117	7,528	6,982	507	39	10,589	9,679	767	143
1995	21,398	7,813	7,150	609	54	13,585	12,603	895	87
1996	26,259	10,802	9,991	742	69	15,457	14,270	1,085	102
1997	32,543	10,329	9,304	947	78	22,214	20,781	1,315	118
1998	36,488	11,106	10,080	931	95	25,382	23,884	1,389	109
1999	39,083	12,569	11,363	1,079	127	26,514	24,810	1,575	129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용인시는 1999년 현재 22개소의 우체국, 175개의 우표판매소, 173명의 직원, 79명의 집배원, 202개의 우체통, 50개의 사서함, 6

대의 자동차, 78대의 이륜차 등의 우편시설을 갖추고 있다.

〈표-6〉은 용인시 우편물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용인시의 우편물 접수건수는 1999년 현재 1,256만 9천통이고 배달건수는 2,651만 4천통으로 외부에서 용인시로 들어오는 우편물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접수건의 약 90%는 보통우편물이고 나머지가 특수우편물, 소포이다.

이같은 비중은 배달에서도 유사하다.

용인시는 국내우편업무에서 1,243만 8천 통을 접수하고, 2,638만 7천 통을 배달하였으며 국제우편업무에서 13만 1천통을 접수하고, 12만 7천통을 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7〉은 용인시 우편물 요금수입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우편요금수입은 국내, 국제우편으로서 충당하고 있다. 1999년 현재 국내우편수입은 39억 4,922만 7천원인 반면 국제우편업무는 4억 6,489만 9천원의 수입을 가져 왔다. 약 90%의 우편요금 수입이 국내 우편업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우편물 요금수입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총계	접수				배달			
		계	보통	특수	소포	계	보통	특수	소포
1990	745,243	672,446	494,490	135,191	42,765	72,797	57,320	2,249	13,228
1991	871,782	805,300	587,036	169,149	49,115	66,482	47,563	2,218	16,701
1992	976,932	882,436	613,900	207,112	61,424	94,496	64,068	4,670	25,758
1993	1,122,206	999,691	657,502	274,585	67,604	122,515	82,320	5,248	34,947
1994	1,330,336	1,206,917	733,388	398,622	74,907	123,419	85,302	4,019	34,098
1995	1,871,590	1,721,392	1,029,268	549,393	142,731	150,198	70,739	7,238	72,221
1996	2,929,145	2,772,289	1,765,839	796,388	210,062	156,856	46,520	11,039	99,297
1997	3,039,387	2,832,469	1,582,828	1,021,613	228,028	206,918	39,359	29,170	138,389
1998	3,636,349	3,318,352	1,919,117	1,130,154	269,081	317,997	46,862	80,726	190,409
1999	4,414,096	3,949,197	2,193,223	1,403,921	352,053	464,899	61,575	223,959	179,365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우체국 신설은 전국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용인시가 속한 경기지역도 1998년에 438개소였던 우체국수가 448개소로 10개

소가 증설되었고, 일반우체국수도 5개소가 신설되었지만 업무영역이 좁은 별정우체국, 우체국분국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다.

(표 8) 우체국현황 (단위: 개소)

구분 연도	지역	우체국	일반우체국	별정우체국	우체국분국
1997	전국	3,596	1,556	777	428
	서울	453	218	-	47
	경기	430	180	83	52
1998	전국	3,610	1,569	775	364
	서울	457	218	-	40
	경기	438	181	83	46
1999	전국	3,662	1,589	774	346
	서울	470	218	-	40
	경기	448	186	82	42

자료: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통계연보》, 1999.

우체국은 신속, 정확한 우편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송달기준 이행율을 계획하고 있다. <표-9>에 따르면 2002년 보통우편은 98.5%, 빠른우편은 95.5%의 이행률을 목표로 삼고 이행률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표 9) 국내우편물 송달기준 이행율 (단위: %)

구분	1999	2000	2001	2002
보통우편	95%	97.5%	98%	98.5%
빠른우편	92%	92.1%	93.5%	95.5%

자료: 우정산업본부

우편업무의 관련기관으로서 용인우체국 외 17개소의 우체국이 용인지역의 우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개소의 우체국이 강남대학교를 비롯하여 대학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의 금융업무 및 우편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밖의 12개소의 우체국들도 용인지역 각 읍, 면, 동의 각종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관련기관

명칭	위치	전화번호
용인우체국	용인시 김량장동 128-2번지	031-335-2000
강남대우체국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산 6-2번지	031-282-3002
경찰대우체국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88번지	031-281-6668
경희대우체국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번지	031-283-2355
구성우체국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317번지	031-283-2105
남사우체국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441-10번지	031-336-6000
명지대우체국	용인시 남동 산 82-2번지	031-332-2474
모현우체국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803-6번지	031-332-2454
민속촌우체국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107번지	031-283-2205
백암우체국	용인시 백암면 백암리 374-3번지	031-332-4205
송전우체국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 690-11번지	031-336-7205
수지우체국	용인시 수지출장소 풍덕천리 96번지	031-262-3890
신갈우체국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63-9번지	031-283-2005
양지우체국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445-2번지	031338-3005
용인대우체국	용인시 삼가동 산 117-6번지	031-336-1105
원삼우체국	용인시 원삼면 고당동 산 59-1번지	031-332-8000
포곡우체국	용인시 포곡면 삼계리 479-20번지	031-332-5000
제505 군사우체국	용인시 역북동 산 3번지	031-332-0025

자료 : 용인시청

## 2) 전화국

전화국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체제 하에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공중 전기통신시설의 설치·유지보수·운용이고, 공중 전기통신에 관한 영업과 연구 및 실용화에 힘쓰고 있으며, 소요 인력양성을 위한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지원 등 외국과의 협력과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용인지역전화국은 1999년 현재 6만 5,473건의 국내 전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요즘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보 사용의 감소 추세를 볼 수 있다. 용인시 전화국의 국내 전보 취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 국내 전보 취급 현황

〈단위: 건〉

연도	총계	착신			착신		
		계	유료	무료	계	유료	무료
1990	84,345	33,654	32,114	1,540	50,691	49,932	759
1991	100,864	38,088	36,581	1,507	62,776	62,132	644
1992	87,317	29,067	27,394	1,673	58,250	47,746	504
1993	61,817	21,636	20,774	862	40,181	39,460	421
1994	83,982	15,736	15,634	102	68,246	68,227	19
1995	2,093,586	1,756,451	1,756,294	157	337,135	337,133	2
1996	2,233,034	1,880,672	1,880,374	298	352,362	253,140	222
1997	17,820	15,691	15,390	301	2,129	1,742	387
1998	1,824,895	1,493,083	1,493,061	22	331,812	331,767	45
1999	33,502	1,531	1,531	0	31,971	31,969	2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전화시설 및 가입자수는 1999년 용인, 동수원전화국 통계기준으로 시설수는 27만 7,022회선, 총가입자수는 23만 7,425명이다. 이 중 업무용 가입자가 5만 7,031명, 주택용 가입자가 9만 1,487명, 사업용 가입자가 1,986명, 공중전화는 6,848회선으로 나타났다.

〈표-12〉에서 알 수 있듯이 1997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동전화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따른 적절한 자원배분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지난 10년간의 전화사용, 전화시설 및 가입자수 추이를 살펴보자. 1999년 라인(line) 단위 기준 국내전화 도수는 일반전화사용이 22만 5,257건이고, 공중전화사용이 2만 2,449건인 반면 국제전화 도수는 760건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요금액 또한 국내전화 1,114만 7천원, 국제전화 127만 1천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요금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이동전화의 통신망 사용료 확대에 따른 수입증가로 충분히 보전되고 있다.

(표 12) 전화시설 및 가입자수 추이

구분 연도	전화국수	시설수	가입자수			공중전화
			계	업무용	주택용	
1990	2	0	47,457	10,156	37,301	1,126
1991	2	44,544	37,390	6,875	30,515	740
1992	2	79,244	64,970	11,110	53,860	1,464
1993	2	87,044	71,242	13,517	57,725	1,546
1994	2	101,044	82,867	13,491	69,376	1,729
1995	2	279,416	241,340	50,147	191,193	4,519
1996	2	312,176	271,619	58,765	212,854	5,064
1997	2	235,276	194,946	51,512	143,434	5,084
1998	2	166,476	135,127	33,889	101,238	4,197
1999	2	277,022	148,518	57,031	91,487	6,848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표 13) 전화사용 (단위 : 도수, 건, 천원)

구분 연도	국내전화			국제전화		
	일반전화	공중전화	요금	일반전화	공중전화	요금
1995	1,510,594	183,005	67,743	1,242	130	6,538
1996	1,535,248	213,046	68,071	1,743	262	8,658
1997	1,121,678	151,993	54,515	1,619	443	7,871
1998	843,000	97,188	43,000	3,623	783	5,391
1999	25,257	22,449	11,147	760	68	1,271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2. 행정통신 부문

### 1) 행정통신 운영

용인시는 이미 시청기준 1인 1PC, 1인 1전화의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해 다양한 행정장비가 보급되고 있다. 용인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전산 장비는 1999년 기준 일반업무용 주전산기 2대, 통신장비 44대, 개인용 컴퓨터 1,021대 중 행정전

산망용 120대, 일반업무용 877대, 교육용 24대에 이른다. 또한 용인 지역내에 1999년 기준 변복장치 28대, 베이스장치 4대, 조립장치 4대, 망연결장치 6대와 전용선 4회선, 구내 350회선, 데이콤망 15회선의 통신장비 및 통신회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기 및 통신회선, 통신장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4)

행정전산 장비 보유현황

〈단위: 대, 회선〉

구분 연도	주전산기						개인용컴퓨터						
	계	행정전산망용				일반 업무용	계	행정전산망용				일반 업무용	교육용
		소계	주민	자동차	부동산			소계	주민	자동차	부동산		
1996	0	0	0	0	0	0	478	96	89	3	4	362	20
1997	1	0	0	0	0	1	671	99	91	4	4	549	23
1998	1	0	0	0	0	1	756	96	85	7	4	643	17
1999	2	0	0	0	0	2	1,021	120	98	15	7	877	24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표 15)

통신장비 현황

〈단위: 대, 회선〉

구분 연도	통신장비(대)										온라인통신회선			
	합계	변복조 장치	베이스 장치	조립 장치	관리 장비	변복조 장치	장비	장비	패킷 장비	망연결 장치	합계	전용	구내	데이 콤망
1996	29	28	0	0	0	0	0	1	0	-	135	28	92	15
1997	80	28	4	18	2	6	16	1	0	5	176	31	130	15
1998	43	28	4	4	0	0	0	1	0	6	369	4	350	15
1999	44	28	4	4	0	0	1	1	0	6	369	4	350	15

자료: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 2) 행정의 전산화

행정 전산망이란 국가 행정기관들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기간 전산망을 가리킨다. 1984년부터 정부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구축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은 1987년 행정전산망 종합계획을 확정함과 동시에 시작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제1차 행정전산망 사업기간 중에 전국 15개 시도에 전산본부와 160대 주전산기를 설치했으며, 일선 행정기관에 4,300여 대의 PC를 보급했다.

**용인시 URL(Rniform Resource Locaters)**

초기화면	메뉴	구성내용
홈페이지 초기화면  용인시 "믿음주는 시정 살고싶은 용인"	시정종합안내	· 용인소식 · 용인시 소개 · 시정 자료실 · 시정 안내 · 해외자매도시
	사이버 민원 서비스	· 시정 민원 안내 · 민원 도우미 ·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서비스 · 재택 민원서비스 · 유관기관 민원 안내
	사이버 용인 탐구	· 문화/관광 정보 · 사회 복지 시설 · 관광 편의 시설 이용 · 레저 시설 · 학교 및 연수 시설 · 기관 안내 · 지역 별 안내
	산업 경제 정보	· 기업정보 · Work-net · 소비자 물가 정보 · 농업정보 · 경제동향
	여성 및 청소년 정보망	· 여성 정보망 · 청소년 정보망
	생활 정보	· 지방세 · 시민 건강 · 용인시 교통정보 · 생활 법률 · 취미 생활 · 시설 관리 공단 · 편의 생활 · 보건소 · 환경/재활용
	시민 참여 광장	· 시정 게시판 · 사이버 시정 · 시민 신고 센터 · 동호회 · 추천 사이트
	용인 인터넷 방송국	· 용인시 인터넷 뉴스 · Media Space

자료 :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행정전산망은 정부의 행정기관들을 단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향상과 능률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각종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각종 생활정보도 제공하며,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대민행정과 직결되는 지방세, 민원행정 등의 주요 업무를 단계적으로 전산화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지방과 중앙, 지방과 지방 간을 연결하는 지방행정 종합정보망도 구축, 지역간 정보격차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행정전산망은 41개 프로젝트를 전산화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중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통관관리, 고용관리와 경제통계업무등을 6대 우선 추진사업으로 확정하였다.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추진된 주민등록 관리업무는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방대한 핵심사업이다. 주민등록 관리 전산망사업은 전국민의 성명, 주소 등 11개 분야 78개 필수항목을 종합, 전산화하고 전국 3,600여 읍·면·동사무소와 유관 부처 및 공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정부는 1997년 9월, 21세기 멀티미디어 정보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1995년 3월부터 추진해 오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을 수정·보완한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제4절 정보통신 발전계획과 과제

### 1. 정보통신 발전계획: 중앙정부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고도화를 통한 창조적 지식기반국가의 전환'이라는 정책 비전을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정보기반 구축(2004년까지 1,000배 빠른 인터넷 기술개발로 50% 향상기여)과 정보통신대국 달성(2004년 1,0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정보통신 핵심부품기술, 원천 기초기술의 2대 기반분야를 중심으로 6대 중점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1) 차세대 인터넷 기술

개발 2004년까지 1,000배 빠른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 구축, 운용, 관리 및 장비 기술 개발은 정보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 등 민간이 수행하고, 정부는 보안분야 등 기반기술 개발에 집중투자하며, 전자상거래 지원기술, 인터넷기반 S/W기술 등 인터넷 응용분야는 민간주도의 산·학·연 공동개발형태로 추진한다.

#### 2) 광통신 기술개발

2004년까지 전 광통신망(All Optical Network)에 대비한 개방형 및 광교환기술을 확보하고, 핵심부품인 테라비트 광통신소자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환기술, 광전송기술은 대용량화 및 고속화를 추구하여 정부와 통신사업자, 산업체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구내망 관련기술은 향후 성장성이 매우 높은 유망한 기술분야이나 본격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고속 Home networking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체와 출연(연)이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광부품 소자기술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산업체 주도하에 출연(연)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 3)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2004년 방송수신 중 원하는 음악이나 그림 또는 물건들을 입체적으로 청취·관람할 수 있는 입체 음향 및 영상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송망·서비스 및 전송·송출기술은 정부,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산업체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방송단말, 방송신호처리 기술 등 시장선점 효과가 큰 분야는 산업체 주도로 개발하되, 초기 연구개발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을 취한다.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기술개발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과 연계추진하여 기술개발 결과물이 곧바로 방송용 콘텐츠로 사용되도록 한다.

### 4) 무선통신 기술개발

2004년 IMT-2000에 이어 등장할 것으로 예견되는 무선이동멀티미디어 기초기술을 확보하여 무선통신분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말분야는 산업체 중심으로 개발하고, 시스템 분야는 산업체와 사업자 주도로 개발하되, 출연(연)과 대학이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미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거나, 우리가 아직 자체확보하지 못한 부품, 전파, 위성기술 등의 분야는 출연(연) 주도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5)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디지털방송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할 디지털콘텐츠 자체 제작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기술, 부호화 및 압축기술 등 소프트웨어 기반분야는 출연(연)을 중심으로 산업체와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인터페이스 기술, 정보관리기술 등은 산업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되,

3~4년 후를 대비한 휴먼인터페이스분야 등은 출연(연)이 개발하여 민간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게임, 영상 등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제작분야는 빠른 시간 내에 기술확보가 가능하도록 국제 공동연구 형태로 기술개발을 수행한다.

## 6) 컴퓨터 기술개발

2004년까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휴대정보단말 및 각종 복지단말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C관련 분야는 지속적으로 민간이 담당하되, 중대형 서버, 휴대정보단말, 멀티미디어 단말 등 기업이 애로를 겪는 분야는 산업체 주도하에 출연(연)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 형식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현재 기술확보가 꼭 필요하나 상대적으로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복지단말과 시스템 S/W기술 분야는 출연(연)이 주도하는 공동연구개발로 추진한다.

소요재원 총 4조1,442억원 중 정부는 출연 1조 1,947억원 및 용자 2조 4,510억원 등 3조 6,457억원을 투자하고, 민간부문은 각 기술개발 분야에 Matching Fund 방식으로 참여하여 약 4,9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대 기반분야인 부품 및 원천 기초기술분야에 대한 출연투자는 2004년까지 약 5천억원(부품:3,500억원, 원천:1,500억원)으로 6대 중점사업에 대한 투자의 약 40% 정도에 달하며, 이와 같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우리 정보통신산업이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인 핵심부품의 해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Matching Fund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산업체의 수요제기 시점에서 과제가 생성될 수 있도록 탄력적(flexible)인 기술개발과제 발굴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인력양성, 표준화, 정보통신 관련 정책연구의 강화 및 기술정보 유통체계의 개선 등을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기관들의 자체 연구개발 활동만으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기술수준을 추격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Global system 하에서 최단기간에 세계 수준의 기술을 소



화하여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도록 향후 선진 연구기관들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전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약 48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22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현재 인터넷보다 1,000배 빠른 세계 최고수준의 지식정보기반이 구축됨으로써 국가정보화의 수준이 현재보다 50% 이상 향상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5,0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품 국산화율이 현재의 40%에서 80%로 향상되어 부품 및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 2. 정보통신 발전계획: 용인시

### 1) 지역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의 배경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물질 속에 21세기는 정보화 수준이 국가 발전과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용인지역 정보통신 발전계획은 지역주민의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보장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정보화를 통한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용인시 고도 정보 사회의 비전과 목표를 뚜렷이 하여 지역특성과 실천 가능성을 고려한 정보화 촉진전략 및 정책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용인시의 지역 정보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용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의 효율성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생활, 산업, 행정부분으로 나누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가로 네트워크 기본계획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보통신의 발전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용인시의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의 기간은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정보화 촉진 2단계 사업기간에 맞추어 2005년까지이다. 용인시의 지역정보화 기

본계획을 발췌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은 계획의 배경, 지역 정보화 현황에 대한 진단, 지역 정보화의 목표, 추진전략, 전략별 추진과제, 추진주제별 역할, 기대효과 분석 등 종합계획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을 포함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인시의 미래모습인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선진 도시』에 맞는 각종 지역개발 계획을 정보화와 연계하여 용인시 지역 정보화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용인시 지역 정보화 장기 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화 과제 및 사업계획은 생활 정보화, 산업정보화, 행정정보화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 2) 용인시 지역 정보화 목표

지역정보화는 지역이나 광역자치지역과 같은 일정의 단위지역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지역의 주민생활, 산업경제, 행정처리 분야에서의 정보화를 실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려고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지역 정보화의 비전을 제시하여 용인시의 정보화 전략을 실현하는 것이 용인시 지역정보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표 16) 부문별 정보화 사업

구분	정보화 과제	세부과제	발전방향
생활정보화 부문	유용한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정보 시스템 구축</li> <li>·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li> <li>· 농촌 1마을 1PC 보급</li> <li>· 정보이용 센터 구축</li> <li>·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및 홍보</li> <li>· 지역균형발전</li> </ul>
	자연환경 정보화 측면 건강 및 복지 정보화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정보 시스템 구축</li> <li>· 대기 및 수질 오염관리 시스템 구축</li> <li>· 사회복지 데이터베이스 구축</li> <li>·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환경의 선진화</li> <li>· 환경 및 자연자원의 확보와 보전</li> <li>· 사회복지와 의료정보 체계 확립</li> <li>·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정비</li> </ul>
산업정보화 부문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정보시스템 구축</li> <li>· 중소기업,벤처사업 육성</li> <li>· 전자시장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li> <li>· 산업정보화 기반 마련</li> <li>· 제조업부문의 CALSE/EC도입</li> </ul>

부문	구분	정보화 과제	세부과제	발전방향
		균형적인 산업 정보체계 강화	· 농림축산 정보 시스템 구축 · 관광정보망 구축 · 도,농 교류정보 시스템 구축 · 유통 및 물류 정보 시스템 구축	· 농축산업의 활성화 · 관광 정보화 체계 확립 · 유통물류의 지역 산업 정보화 구축
산업정보화 부문		첨단지식 산업 정보화 조성	· 첨단지식산업 육성 · 실버타운 조성강화	· 정보통신과 첨단기술면에서의 지식 기반 산업 육성 · 첨단 수준의 사회복지 확충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정보화기반 조성측면	· 시청내 정보기반 구축 · 시,군,읍,면 단위의 정보기반구축 ·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 행정 전산화 기반 구축 · 효율적 행정 서비스 행정연계 극대화
		행정자치 역량 극대화	·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 행정업무 데이터 베이스 구축	· 행정업무의 정보화 · 정보활용 능력 향상
행정정보화 부문		지역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 One/Noe-Stop행정시스템 구축 · PC통신에『용인열린마당』운영	· 안방민원 처리 구현시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즉시 전파 · 투명한 행정 실현

자료 : 용인시, 《용인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1999.

지역 정보화는 지역 정보화 추진체제 정비와 정보 시스템 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농촌 지역의 정보화 교육실시와 다양하고 정확한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용인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정정보 통신 기반 구축과 정보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목표가 있다.

### (1) 생활 정보화부문

지역 정보화 추진 기반시설로 생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인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전산교육 실시와 농촌마을 정보화 촉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용인시가 지니고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과 자연을 보전함으로써 용인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용인시 내의 다양한 문화와 위락 시설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정보화하여 다양한 관광자원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2) 산업 정보화부문

용인시는 도, 농복합 도시로 현재 제조업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향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가 생산과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 되며, 정보화의 정도가 산업을 평가하는 주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 용인시의 지역 정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물류 및 유통의 정보화, 정보통신 산업, 첨단지식 산업 등 용인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산업의 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 (3) 행정 정보화부문

행정업무 처리의 혁신과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 전산망 구축으로 정보 시스템 활용을 제공하고 행정업무 간 상호연결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열린행정 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열린 용인시정을 구축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행정 서비스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 3) 부문별 정보화 사업

### (1) 기대효과

#### ① 생활정보화부문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등의 정보화를 통하여 용인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주민의 정보이용 효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용인시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증대시키고 농촌의 정보화 촉진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정보화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교통정보 시스템 및 센터를 구축하여 용인시 지역의 첨단화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산림 및 도시환경에 대

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후대를 위한 미래의 숲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 시스템과 원격의료 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용인시 지역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생활 정보화는 환경을 생각하며 복지 및 문화, 교육분야의 정보화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선진도시 구축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② 산업정보화부문

산업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역 산업체가 우선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시하여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CALS/EC도입·추진으로 인하여 지역 산업체와 제품홍보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농림분야의 정보화를 구축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근교시설 농업 및 특화상품에 대한 판촉홍보에 목적을 두어 지역 농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의 남부지역 중추 도시라는 이점을 살린 유통 및 물류 분야에 정보화를 활성화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유통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첨단지식산업단지 구축과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과 같은 미래산업 기반 조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용인시에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가 지향하는 첨단 산업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행정정보화부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 기반구축으로 효율적 행정 서비스를 위한 기반마련과 시청 전 공무원에게 전자메일 사용을 의무화하여 정보의 수신과 발신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전자 문서 관리체계 확립과 더불어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시청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세제경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One/Non Stop 행정시스템 구축은 민원 1회 신청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지역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어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체에

게 있어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용인 열린 마당』 운영은 PC통신을 활용한 시와 시민과의 직접적인 대화통로를 개설함으로써 열린 정부, 투명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고, 행자부가 2000년에 용인시가 제공하는 10대 업무와 2002년에 제공하는 업무로 일반행정 자동화와 자체개발과 용역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 4) 부문별 지역 정보화 계획

##### (1) 생활 정보화

생활 정보화는 정보기술을 이용해 지역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정보 서비스, 환경정보 서비스, 보건정보 서비스, 복지정보 서비스 등과 같은 생활정보 서비스와 각 정보에 대한 공간마련 등의 정보화를 포함한다.

생활정보화는 지역주민이 신속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생활정보 영역을 제공한다. 주 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을 영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발전시키고, 쾌적한 용인시 환

(표 17) 생활정보화 우선순위

구분	정보화사업	우선순위
생활	농촌 1마을 1PC	1단계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1단계
	생활정보 시스템	1단계
	정보이용 센터	2단계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1단계
환경	산림정보 시스템 구축	1단계
	대기 및 수질 오염 관리 시스템	2단계
건강 및 복지	주민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2단계
	사회복지 데이터베이스	2단계
	원격의료 기반사업	3단계

자료: 용인시, 《용인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1999.

경 및 깨끗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며,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한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으로 한다.

## (2) 산업정보화

산업정보화란 지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정보화를 통하여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이 있는 산업발전을 촉진시키며, 지역내의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전반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산업정보의 지능화를 갖게 하는 지식기반의 산업 정보화를 조성하는 것 등의 정보화 행위를 의미한다. 산업정보화는 지역의 산업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산업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 및 관리 등의 요인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21세기에는 국가 경쟁력의 강약을 판가름하는 최대의 변수로 산업 정보화를 주목하고 있다. 산업에 대한 정보화 투자는 기업 및 산업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러한 정보화 투자를 계기를 직접적으로 용인시 내의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산업 정보화 지원 내용 및 과제의 도출은 용인 시내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을 주요대상

(표 18) 산업 정보화 우선순위

구분	정보화사업	우선순위
산업	산업정보 시스템 구축	1단계
	기업체 홈페이지 구축지원	1단계
	산업정보 서비스 확대	2단계
	물류 및 유통의 전자 상거래 조성	3단계
	중소, 벤처사업 육성	2단계
관광	관광정보 시스템 구축	1단계
	관광정보 서비스확대	1단계
	관광 키오스크 설치	2단계
농림축산	농축산 정보 시스템 구축	1단계
	도,농 교류 정보 시스템 구축	2단계
미래산업	첨단지식 산업 조성	2단계
	실버산업 조성	

자료: 용인시, 《용인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1999

으로 하고 용인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산업을 선정하여 육성, 발전시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농축산 산업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고려하여 산업정보화를 이룩하려 하고 있다.

(3) 행정 정보화

행정 정보화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업무처리를 개선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 정보화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재설계를 전제로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행정의 효율화와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고도화되는 국민의 행정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행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정보화는 지역단위 중심의 행정 정보화라는 관점에서 추진전체가 지역사회의 행위자이며, 정보통신 기술과 지방자치 단체의 혁신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객 지향적인 정부이며, 열린 정부이자 전자정부의 구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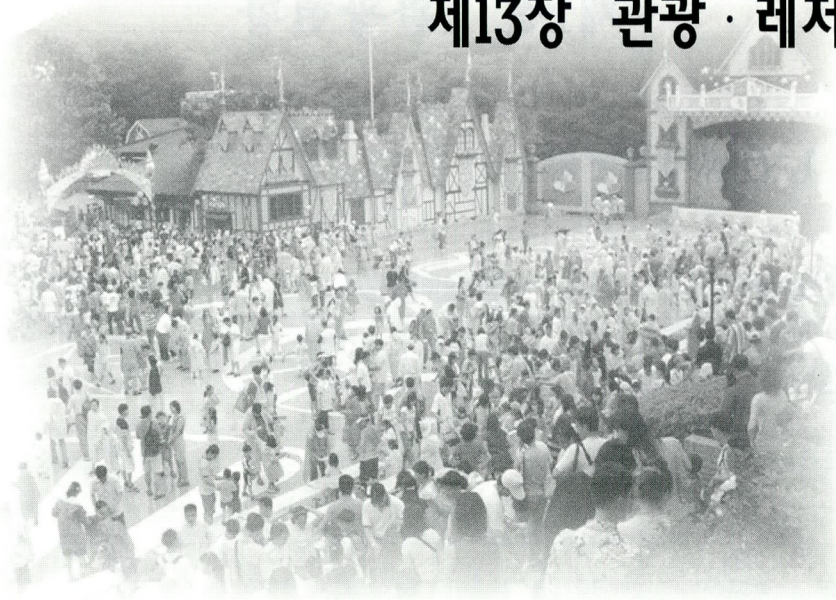
(표 19) 정보화 추진 대상

업무유형	업무내역	처리형태	기반구조
시군구 전국 공통 업무	시·군·구 유형과 관계없는 전국 시·군·구 공통업무 - 주민, 토지지적, 차량, 재세정, 건축, 보건 복지, 환경, 지역산업, 민원 등	- 분산된 다수 데이터베이스 접근 - 각 시도, 광역단체, 시·군·구 간에 정보이동 - 대량의 트랜잭션 발생 - 온라인처리 - 다수가 이용	3계층 클라이언트 /서버구조 3계층 또는 2계층 C/S 구조 웹 서비스
지역 시군구 내부 업무	- 시·군·구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 무 및 시·군·구 내의 내부업무 - 내부행정	- 지역 시·군·구내에서만 사용 - 지역 시·군·구내의 단순한 트랜잭션 - 사용자가 한정 - 소수의 데이터베이스 사용	
민원 서비스 업무	- 장소, 시간에 구애 받지 않은 민원행정서비스 - PC통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서비스	- 전국적인 사용자 - 여러 데이터베이스 접근 - 온라인 처리, 조회위주 - 신속한 응답시간 요구 - 보안 요구	

자료 : 용인시, 《용인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1999.



## 제13장 관광·레저



면적 592.05km<sup>2</sup>에 인구 39만 5,028명인 용인시는 3읍 7면 4동(574통리 2,44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소재지는 용인시 김량장동 286번지이다. 지형은 기복이 심하고 고도가 높은 편인데 동북부에 광주산맥과 중남부에 차령산맥이 뻗어있고 산간계곡에 작은 하천이 발달하였다. 서쪽 의왕시와 수원시 경계에는 바라산, 백운산, 광고산, 형제봉 등 400m 이상의 산이 험차게 솟아 있으며, 그 동쪽에는 남한산성에서 뻗어내린 법화산, 무푸레고개, 성산, 부아산, 함봉산이 길게 이어진다. 동쪽 이천시와의 경계에는 발리봉, 노고봉, 정광산, 태화산, 정수산, 형제봉, 쌍령산 등이 솟아 있고, 이 산릉의 동쪽에 비교적 높이가 낮은 건지산, 수정산이 있다. 남북으로 달리는 이 산지들 사이로 하천들이 역시 남북 방향으로 흘러 침식저지대와 충적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군의 동남부에는 남한강으로 유입하는 청미천이 동남으로 흐른다. 서북부쪽의 급속한 개발로 인구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동남부쪽은 전원적인 환경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전원적 휴양관광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고장이다.

## 제1절 관광현황

### 1. 관광시설현황

(표 1) 관광업체현황

연도	구분	여행업		
		일반	국외	국내
1990		-	-	2
1991		-	1	4
1992		-	1	4
1993		-	1	3
1994		-	1	5
1995		-	2	6
1996		-	4	8
1997		-	5	8
1998		-	4	8
1999		-	6	10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표 2) 관광숙박업체 등록현황

연도	구분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국민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	
		호텔수	객실수	호텔수	객실수	호텔수	객실수	호텔수	객실수	호텔수	객실수
1990		-	-	-	-	1	250	-	-	-	-
1991		-	-	-	-	1	250	-	-	-	-
1992		-	-	-	-	1	250	-	-	-	-
1993		-	-	-	-	2	350	-	-	-	-
1994		-	-	-	-	2	350	-	-	-	-
1995		-	-	-	-	1	350	-	-	-	-
1996		-	-	-	-	3	652	-	-	-	-
1997		-	-	-	-	3	652	-	-	-	-
1998		-	-	-	-	3	652	-	-	-	-
1999		-	-	-	-	3	652	-	-	-	-

자료 : 용인시, 《용인통계연보》, 각 호.

용인지역에는 1999년 기준 국내 전문 여행업체 10개가 영업 중이고, 국외 여행업체 6개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1년 5월 기준 관광호텔업 4개소(450실), 가족호텔업 1개소(227실), 콘도미니엄 2개소(211실)가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용인시는 각종 숙박업체,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객 편의 시설업, 유원 시설업, 체육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지난 10년간 용인지역 관광업체 및 숙박업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개, 명)

구분	1997		1998		1999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숙박 및 음식점업	3,395	8,044	3,478	8,315	3,811	9,782
숙박업	118	422	120	442	123	466
음식점업	3,277	7,622	3,350	7,873	3,688	9,316

자료: 용인시, 《사업체 기초통계 보고서》, 각 호.

(표 4) 종사자수 증가율 (단위: 명, %)

구분	종사자수		증감		구성비	
	1998	1999	종사자수	증감률	1998	1999
전산업	99,536	112,066	12,530	12.6	100	100
숙박 및 음식점업	8,315	9,782	1,420	59.8	2.39	3.39

자료: 용인시, 《사업체 기초통계 보고서》, 각 호.

(표 5) 사업체수 증가율 (단위: 개, %)

구분	사업체수		증감		구성비	
	1998	1999	사업체수	증감률	1998	1999
전산업	14,467	16,727	2,260	16	100	100
숙박 및 음식점업	3,478	3,811	333	9.6	24.04	22.78

자료: 용인시, 《사업체 기초통계 보고서》, 각 호.

## 2. 관광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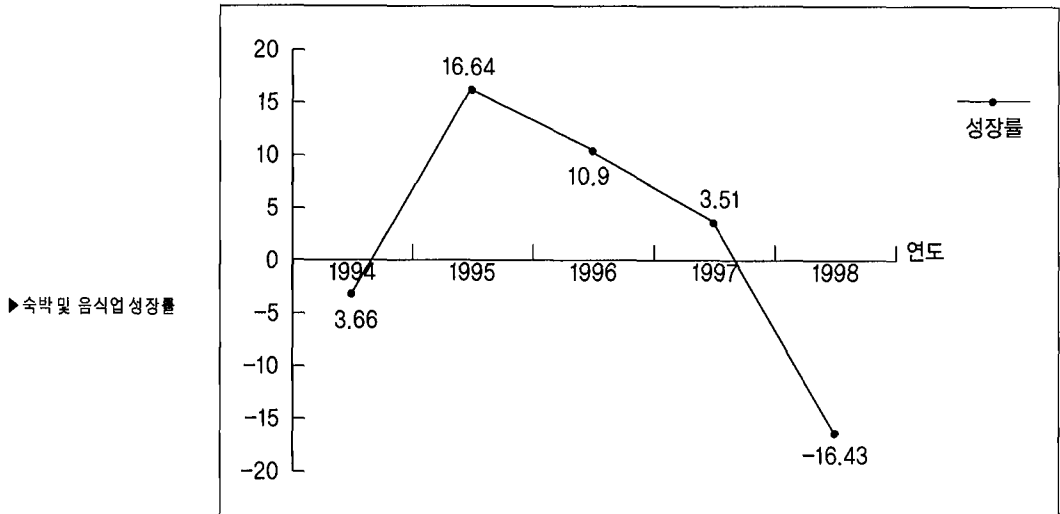
1999년 기준 용인지역 전산업 종사자 수 11만 2,066명 가운데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는 9,782명으로 나타났으며, 16,727개의 전체 사업체 중에 3,811개가 숙박 및 음식업체로 조사되었다.

이를 숙박업과 음식점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숙박업의 경우 1997년 이후 꾸준히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종사자 수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이다. 음식점업은 매년 약 10%씩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의 경우 종사자 수가 전년에 비해 무려 1,400명 이상 증가하였다. 숙박 및 음식점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1999년 현재 약 4%이고 사업체수는 무려 23%에 이르고 있다.

(표 6) **숙박 및 음식업 총생산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전체산업	3,851,585	4,986,862	5,176,837	5,768,659	6,382,150
음식숙박업	43,787	51,073	56,641	58,630	48,997
성장률	-3.6	16.64	10.9	3.51	-16.43
비중	1.1	1	1	1	0.7

자료: 경기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각 호.



용인지역 내 숙박 및 음식업 총생산은 용인지역 전체산업 총생산 6조 3,821억 5천만원의 약 0.7%를 차지하는 489억 9,700만원의 수치를 보였다. 1994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1998년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전년도에 비해 생산액이 약 16%가 줄어들었다. 용인시 숙박 및 음식업은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사업체 수의 비중에 비하여 생산액(부가가치액)의 비중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업체당 생산액을 계산해보면 1,286만원으로 월 평균 약 107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 3. 기본여건

용인시의 역사를 보면 삼한시대 마한의 자리모로국과 모수국 사이에 있던 것으로 온조왕의 위례성 도읍설에 따라 처음에는 백제국에 속해 있다가 뒤에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 이때까지도 독립된 행정 구역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475년(장수왕 63)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고구려 영토에 예속됨으로써 비로소 구성현이 설치되었다. 551년(성왕 29) 백제는 용인을 수복하였으나, 553년(진흥왕14) 다시 신라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삼국이 통일되었을 때 용인은 한주의 속현이 되었고, 현의 명칭이 거서로 고쳐졌다. 고려시대에는 태조가 즉위한 뒤 940년(태조 23) 거서현을 용구현으로 고치고 광주목의 임내에 두었다가 1172년(명종 2) 광주목에서 분리하여 감무를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1413년(태종 13) 용구현과 처인현을 합쳐 용인현이라 하였고 용인현은 수원진관 소속이 되었다. 근대시대에는 갑오개혁 이후 용인군이 되었다. 1914년 충청도의 양지군 전역과 죽산군의 근일면, 근이면, 근삼면, 원삼면을 용인군으로 편입하였으며, 이때 용인군은 12개 면으로 확정되었다. 현대에는 1979년 용인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5년에는 기흥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96년 3월 1일 수지면이 읍으로 승격, 용인군이 '시'로 승격되었다. 2000년 구성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수지읍이 다시 출장소로 승격되었다.

용인의 문화 행사를 살펴보면 매년 고유 민속의 날을 기하여 실시 하나 대개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용구문화제가 있다. 행사 내용은 민속마당놀이로 타막놀이, 송파산놀이, 취타대시연, 농악시범 등과 민속경연으로 각 면 대항 농악경연과 용인장사선발 씨름경기, 부녀자들의 그네뛰기 시합이 있다. 이 고장의 중요한 민속 놀이로 줄다리기와 <타작노동요>를 들 수 있다. <타작노동요>는 예로부터 이동면 묘봉리와 백암면 석천리 등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농사를 지을 때 주민들의 단합과 친목, 그리고 농물을 올리기 위하여 가락을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것이다. 동제는 유래가 약 2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원삼면 맹리 맹골마을에서는 뒷산인 건지산의 산신제를 매년 음력 10월 중에 택일하여 밤 9시경에 지내고 있다. 제물은 낮에 제단에 미리 차려놓고, 밤에 제관만 올라가서 제를 지내는 것이 특이하다.

용인시의 교통은 서울과 충청북도를 연결하는 한말 국도가 중앙을 남북으로 통과하고 수원과 원주를 잇는 국도가 지나며, 남북으로 17km의 경부고속도로와 동서로 23km의 영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신갈인터체인지 등 관내에만 7개의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서울까지 5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고속버스들이 20분 간격으로 배치되고 수원과는 수시로 버스가 연결되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주요 관광지로는 삼성에버랜드, 호암미술관, 한국민속촌, 양지파인리조트, 세종옛돌박물관, 교통박물관, 경기도박물관, 한국등잔박물관, 신세계상업사박물관, 태평양박물관, 한국미술관, 한화리조트, 골드훼미리리조트, 신갈저수지, 어비리저수지 등이 있다.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관광은 1999년 기준 전국에 약 4억명의 관광객이 있었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6.2%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약 3,200만의 관광객이 있었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5.7% 성장을 해왔다. 용인시의 경우에는 약 1,1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 갔고 최근 10년간 평균 12.4%의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다.

## 제2절 관광자원

용인시는 자연관광자원으로 산악관광자원과 수변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문관광자원으로는 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청소년수련시설, 도시공원, 관광농원, 특산품, 향토음식과 재래시장, 연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산악관광자원으로는 광고산, 백운산, 구봉산 등 26개가 있으며 저수지 22개고, 문화재 204종, 박물관·미술관·식물원 총 11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9개소, 도시공원 48곳, 관광농원 1개소, 특산물, 향토음식 29종, 재래시장 3곳, 연수시설 34곳 등이 있다.

(표 7) 관광자원 현황 (2001년 5월 기준)

구분	개소(종)	비고
산악관광자원	26	광고산, 백운산, 구봉산 등
수변관광자원(저수지)	22	이동, 신갈, 용담저수지 등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126 국보(42), 보물(83), 사적(1)
	지방지정문화재	26 유형(10), 무형(3), 기념물(12), 민속자료(1)
	문화재자료·향토유적	52 문화재자료(12), 향토유적(39), 전통건조(1)
박물관·미술관·식물원	11	경기도박물관, 호암미술관, 한택식물원 등
청소년 수련시설	9	수련원(3), 아영장(2), 유스호텔(4)
도시공원	48	어린이공원(40), 근린공원(8)
관광농원	1	황새울관광농원
특산물·향토음식	29	이수자반상, 옥로주, 백암순대 등
재래시장	3	용인장, 백암장, 이동장
연수시설	34	삼성, 기아, 현대, 대한항공, 태광 등

자료 : 용인시

### 1. 테마파크형 관광자원

〈한국민속촌〉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동남쪽으로 3km지점,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민속촌은 33만여 평의 넓은 계곡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꾸며 놓은 야외박물관으로 TV 사극의 단골무대이다. 이곳에는 관아, 중부지방, 제주지방 민가와 양반집 등 전국 각지에서 옮겨온 270여 동의 조선시대 가옥과 3만 2천여 점의 각종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민속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매일 두 차례씩 농악놀이, 광대놀이, 전통혼례식 등이 공연된다.

팔도 민속음식과 생활용품을 파는 장터에서는 장국밥, 빈대떡 등 토속음식을 맛볼 수 있다.

#### 〈에버랜드〉

용인시 포곡면 가실리에 위치한 총규모 14.85km의 용인자연농원을 새로운 감각에 맞춰 새롭게 조성한 에버랜드는 일년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는 놀이공간이다.

에버랜드는 각종 놀이시설이 있는 ‘페스티벌 월드’, 자동차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겨울철에도 눈을 맞으며 수영을 할 수 있는 ‘캐리비언베이’ 등 3개 테마파크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종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호암미술관, 겨울에 개장하는 눈썰매장이 있다.

#### 〈페스티벌 월드〉

상상을 초월하는 스릴을 맛볼 수 있는 놀이시설이다. 대규모의 쇼핑몰, 1천석 규모의 실내공연장, 계절별 꽃축제와 각종 행사장인 입체정원 톨립원, 사자, 호랑이 등 맹수와 각종 초식동물이 뛰노는 사파리를 차로 돌아보는 사파리 월드 등이 있다.

#### 〈캐리비언 베이〉

스페인풍의 건물과 아열대 식물 등으로 꾸며진 중남미 카리브해안을 연상케하는 워터파크로 23m 높이의 슬라이드 워터톱슬레이, 인공으로 만들어진 강한 파도에서 즐기는 서핑 라이더, 실외 파도풀장, 실내외를 넘나드는 570m의 유수풀, 사우나, 선댄룸 등의 다양한 시설이 있다. 여름에는 물론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속에서 야외수영장



을 즐길 수 있다.

####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국내 유일의 카레이스 전용 경기장으로 총 길이 2.14km, 코스폭 평균 11m로 자동차 경주를 구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자기차로 전용경기장을 달려볼 수 있다(일반인 패밀리 주행). 또 필기, 실기시험을 거쳐 하루만에 딸 수 있는 스포츠주행 라이선스를 받으면 레이싱을 체험할 수도 있다.

#### 〈에버랜드 눈썰매장〉

매년 12월초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개장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눈썰매장으로 스키썰매 2코스, 눈썰매 2코스, 4인승 리프트기를 갖추고 있다.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탈 수 있는 가족코스도 있고 눈놀이 광장에서는 눈싸움과 눈사람 만들기도 할 수 있다.

## 2. 스포츠형 관광자원

#### 〈양지리조트 스키장〉

서울에서 승용차로 40분 거리인 용인시 양지면 남곡리에 있는 양지리조트는 서울에서 야간스키를 즐기기에 적합한 곳으로 빌라, 리조트, 실내외 수영장, 사우나, 헬스센터, 볼링장, 록카페, 식당, 눈썰매장 등의 부대시설이 있다. 야간조명이 잘 되어 있는 골프장은 각종 연수코스로도 이용되며, 스키장에는 국내 최장의 봅슬레이코스로 운영하고 있다.

#### 〈지산리조트 스키장〉

용인시 원남면 좌향리 지산컨트리클럽과 나란히 있는 스키장으로 계곡과 능선이 적절하게 어울린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린 스키장이다. 서울에서 가까워 야간스키를 즐기는 사람들로 시즌내내 붐빈다. 부대 시설로는 리프트 3기와 렌탈하우스, 식당, 정상휴게소 등이 있다.

〈신갈 승마장〉

30여두의 마필수와 잘된 조련상태, 총 5,000여평의 대지에 1,500평과 650평 규모 등 2개의 마장이 시설되어 있으며, 말 35마리와 마필 수송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신갈승마장은 회원제(회원권 3,000,000원)로 운영, 회원가입후 20,000원/1회당을 지불한다.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지곡리 256번지(민속촌에서 차량으로 10분거리) (0331) 286-6490~1

〈용인 금강목장(경기)〉

보유하고 있는 마필은 포니 2필, 조랑말 2필, 마장마술 시합용, 장애물시합용, 기초 승용마 등을 고루 보유하고 있다. 이 목장에서선 푸른 초원의 자연을 즐기며 초원 시승도 가능하다. 시승시간은 약 1~1시간 30분 정도이다. 강습비용은 20,000원/1회이며, 초보자와 중급자 모두 동일하다. 양지리조트에서 10~15분 거리/ 0335-334-9872, 011-350-2510(전광인 원장)

〈양지승마클럽〉

양지승마클럽은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어떤 스포츠에서도 맛볼 수 없는 생명체인 말과 함께하는 레저스포츠의 꽃, 승마를 즐기실 수 있다.

전통승마를 기본으로 한 국가대표출신 교관들의 철저한 개인 레슨을 통해 안전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맛보지 못한 승마의 진수를 느낄 수 있으며, 국내최초의 원형실내마장에서는 전천후로 대형거울을 통하여 안정된 자세, 보다 품격높은 승마를 익힐수 있다.

〈골드컨트리클럽〉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산 18번지에 위치한 골드컨트리클럽은 기흥관광개발(주)의 소유로 1986년 9월 17일에 개장했다. 연습장은 15타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클럽하우스의 규모는 1,600평(지하 1층, 지상 3층)이다. 숙박시설로는 유성웨미리콘도가 있으며 스포츠

센터, 연수실, 수영장, 눈썰매장, 피칭코스, 퍼브릭 코스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코스의 특징은 아기자기한 마스터 코스와 크고 작은 연못으로 구성된 챔피언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까다로운 홀이 서너곳 있어 쉽게 도전할수 없는 코스이다. 031) 286-8111~3

#### 〈남부컨트리클럽〉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1-35번지에 위치한 남부컨트리클럽은 금보개발(주)가 소유하고 있다. 1992년 1월 10일에 개장했다. 3,792평의 넓은 클럽하우스를 가지고 있다. 부대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이 아쉽다. 코스의 특징은 골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성한 분위기를 들 수 있으며 낮은 지역의 코스는 인위적으로 난이도를 높였으며, 높은 지역은 편안한 페어웨이 지역으로 처리하여 조화를 이루었다. 031) 286-8603~4

#### 〈신원컨트리클럽〉

(주)일신레저 소유로 1992년 9월에 개장하였다. 골프연습장이 부대시설로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 49-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코스의 특징은 용덕저수지를 안고 수려한 산들로 둘러쌓여 도심과 완벽하게 분리된 자연경관과 산의 정상부분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미려한 스카이라인을 살린 채 자연 그대로 엮어 놓은 코스 설계를 들 수 있다. 국제 규격의 클럽으로서 코스마다 개성있는 테마로 설계하여 라운딩마다 새로운 스틸을 느낄 수 있다. 031) 333-1800

#### 〈은화삼컨트리클럽〉

용인개발(주) 소유로 1993년 6월에 개장했으며 경기도 용인시 남동 산 118-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리나라 특유의 기후, 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골퍼들의 명예와 품위를 대변하고 있는 본 클럽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도전적인 느낌의 절묘한 코스로 한홀 한홀마다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지며 플레이시 섬세한 기량과 전략적인 어프로치를 필요로하는 묘미있는 코스이다. 대표 031) 335-8255 예약 : 336-3600/1

〈양지파인골프클럽〉

(주)파인리조트가 운영하고 있고 양지면 남곡리 34-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상태의 경관이 우수하며 골프장이 조성된 지 30여년으로 소나무, 전나무, 단풍나무 등의 대형수목이 많아서 혹서기에도 시원한 골프를 즐길 수 있으며, 단지내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의 시설이 완비된 수도권의 유일한 종합리조트이다. 골프 코스 내 남코스에 야간조명시설이 완비되어 야간에도 골프경기가 가능하다. 서울영업소 02) 542-8700 양지:031)338-2001

〈화산컨트리클럽〉

화산개발주식회사 소유로 1996년 9월 개장하였다.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 산2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통 프라이빗 코스 체제를 고집하면서 시설 하나하나를 회원의 입장에서 검토 조성하였으며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룬 자연중심 설계로, 각 홀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강한 모험과 도전을 시도할 수 있으며 안전한 우회라인을 배치하여 다양한 공격루트를 가지게 함으로써 프로페셔널 골퍼는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아마추어 골퍼는 즐겁고 재미있는 골프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031)329-7114

〈태영컨트리클럽〉

(주)태영레저가 1993년 8월에 개장하였다. 퍼블릭골프장(9홀)으로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산 38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빠른 Green과 깊은 Rough는 국내 최정상급 프로들도 두려워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필드를 갖추고 있어 태영에서만 느낄수 있는 정통 골프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세계적인 조형예술가 Douglas Nickels가 빚어낸 코스는 각 홀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조형의 아름다움과 함께 퍼팅의 묘미를 100%만족시키는 One Green으로 조형되었다.

031) 330-9723, 예약문의 : 031) 334-5051

〈88컨트리클럽〉

88관광개발(주)에서 1988년 7월 개장한 골프장으로 용인시 구성

읍 청덕리 80-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광활한 산악지형에 쾌적하고 시원하게 코스를 배치, 야심찬 골퍼에게 도전의욕과 함께 각 홀마다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전략적 코스로 정평이 높다. 사계절의 감각을 체험으로 느낄 수 있게 설계된 36홀의 코스는 도전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동코스와 아기자기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가미한 서코스가 부채꼴모양으로 나누어져 있어 누구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031) 282-0881~3

#### 〈프라자컨트리클럽〉

한화국토개발(주)에서 1980년 7월에 개장한 36홀의 골프장이다.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257-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어 조림해 놓은 수목을 솟아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숲이 우거져 속세와 동떨어져 있는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다. 남성적인 타이거(18홀) 코스는 자연을 최대한 살려 설계함으로써 넓고 길며, 난이도가 높아 누구나 공략이 어려워 꼭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지는 코스이며, 라이언(18홀)코스는 아늑하고 조용하며 짧아 여성적 취향으로 여성 골퍼나 초보자에게 인기가 높다. 031) 332-1122

#### 〈레이스힐스컨트리클럽〉

회사명: 용송개발(주)  
대표이사: 박 용 건  
개장일: 1998년 6월 3일  
클럽하우스: 3,618.54m<sup>2</sup>  
전화번호: 대표 031) 336-8350

#### 〈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

회사명: (주)서울레이크사이드  
대표이사: 윤 맹 철  
개장일: 1997년 9월 9일  
클럽하우스: 9,762.06m<sup>2</sup>  
전화번호: 대표 031) 334-2111

### 3. 산악관광자원

#### 〈광교산〉

광교산은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산경표(신경준)에 의하면 한남금북정맥의 한남정맥에 속하는 산으로 이 정맥에서 높이가 가장 높은 산이다. 한남정맥은 속리산에서 뻗어나온 산맥이 서북향하여 올라오다가 안성의 칠장산에서 서북으로 내쳐 흐른 정맥이 강화도까지 이어진 것을 말한다. 칠장산에서 서남으로 방향을 바꾼 금북정맥은 청양 일월산, 오서산, 보개산, 수덕산을 거쳐 태안반도까지 이어진다.

광교산은 자락을 넓게 벌리고 수원을 북에서 싸안고 있는 형세를 한 수원의 진산이다. 주위에 큰 산이 없는 평야지대에 위치한 수원이라 광교산은 어찌면 수원사람들에게 물을 대주는 역할을 해온 고마운 산일지도 모른다. 광교산은 산의 높이에 비해서는 인근의 백운산과 함께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덩치가 큰 산이다.

높이: 582미터

산의 특징: 육산

산행특색: 소나무능선산행

식생: 능선엔 송림이 많은 편, 계곡안은 활엽수림.

조망: 능선 산행 중 남으로는 수원시가 간혹 보임, 시루봉에서는 수지면일대와 분당 등이 보임

산행시간: 4시간 30(최대한 여유있게 산행)

#### 〈백운산〉

높이는 567m로, 백운저수지의 뒤편에 솟아 있다. 바라산(428m)·광교산과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종주 산행을 즐길 수도 있다. 정상에 오르면 북서쪽으로 모락산과 수리산(475m)이 보이고, 북쪽으로 멀리 관악산이 보인다. 의왕과 안양 시내도 훤히 내려다보인다. 산행은 고천리, 상광교동, 백운저수지에서 시작한다. 고천리에서 출발하면 백운사를 거쳐 560봉을 지나 정상에 오르며 고분재를

거쳐 학의 2리로 하산하는데, 약 10.4km 거리로 3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 상광교동에서 출발하는 코스는 주능선을 따라 안부에 오르  
고 560봉을 거쳐 정상에 도착한다. 하산은 고분재와 관음사를 거쳐  
내려가는데, 약 10.2km 거리로 3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임도로  
오르면 백운저수지에서 산행을 시작한다. 저수지 남단 삼거리에서  
학의동교회를 지나면 소나무 숲이다. 이곳을 거쳐 임도를 타고 고분  
재의 남쪽 봉우리에 오르고 이어 정상에 도착한 다음 북서쪽 능선을  
따라 공원묘지, 철탑을 지나 하산하며, 3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  
백운저수지는 1953년 9월에 준공된 인공호수로, 규모가 크다. 숙박  
시설을 비롯한 유원지 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

경기도 시흥시·수원시·용인시에 걸쳐 있는 산.

위치 : 경기도 시흥시·수원시·용인시 수지면

높이 : 567m

#### 〈구봉산〉

경기도 용인의 구봉산은 속리산에서 뻗어 나온 한남금북정맥 선상  
에 위치하고 있다. 산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봉우리로 이루어진  
구봉산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예전 구봉산 자락인 용  
인군 원삼면 일대가 도읍지가 될 자리였는데 당시 1백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구봉산이 어느 날 큰 홍수로 끝봉우리가 떨어져 나갔고 이  
로 인해 이곳이 도읍지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 구봉산 산행은 산의  
동북쪽 끝인 외사면 근창리 창동에서 시작된다. 등산로는 잡목이 가  
득 차 있어 등산로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만 인적이 적은 만큼 호  
젓한 산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소로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뾰족한 봉우리는 414봉이  
다. 정상은 여기에서 건너편 산줄기를 1시간 30분 정도를 더 걸어야  
만날 수 있다. 정상에서는 고삼저수지와 주변의 너른 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 4.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표 8) 용인지역 박물관, 미술관 현황

구분 종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박물관	경기도 박물관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번지	031-288-5300
	삼성 교통 박물관	용인시 포곡면 유운리 292번지	031-320-9900
	세종 옛돌 박물관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산6-2번지	031-321-7001
	신세계한국상업사 박물관	용인시 남사면 창리 356-1번지	031-339-1234
	태평양 박물관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314번지	031-285-7215
	한국동산 박물관	용인시 모현면 농원리 258-9번지	031-334-0797
미술관	한국 미술관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73-1번지	031-283-6418
	호암 미술관	용인시 포곡면 가실리 204번지	031-320-1801,2

자료 : 경기도, 《시·군 단위 지역내 총생산》, 2000.

### 〈경기도 박물관〉

경기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에 위치한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의 역사와 고고, 미술, 민속자료를 종합 전시한 곳으로 전시규모는 약 1,100여평이다. 자연사실, 고고미술실, 문헌자료실, 민속생활실, 서화실, 기증유물실 등 6개의 상설전시실과 박물관이 자체 기획한 유물·유적을 선보이는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900여평의 야외전시장에는 백제 온돌주거지를 비롯해 14개의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의 팔각정과 인공폭포 물레방아 등을 복원하여 아름답게 꾸며 놓았다.

또한 수원화성을 축조할때 사용했던 거중기와 석재, 전돌 및 선사시대의 고인돌 등을 전시하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원형극장, 놀이마당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각 전시실별로 터치스크린을 설치,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역사자료를 안내받을 수 있다. 화상정보 검색실을 통해 각종 자료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자료 : 경기도 박물관 총무과 진광재 님 제공

### 〈삼성교통박물관〉

삼성교통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교통전문박물관으로 경기



도 용인시 에버랜드 인근의 1만여평에 지상 2층, 연면적 3천평 규모의 전시장과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인 삼성화재 교통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인류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역동적인 교통수단의 역사와 과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학습장이자 선진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장으로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문화사업을 통하여 공익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곳이다. 세계각국의 명차들과 자동차의 메카니즘이 한 자리에 모인 곳으로서 삼성교통박물관에는 국내·외의 희귀하고 특색있는 자동차 32대와 오토바이, 자전거, 마차 등 각종 교통수단의 실물과 모형, 관련부품, 장식품, 자동차 용품, 기념품, 예술품 등 총 7백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와 선박의 발달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연표와 방문객들의 직접 체험을 위한 다양한 작동 전시물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장은 크게 로비전시장, 주전시장, 야외전시장 등으로 나뉜다.

자료 : 삼성교통박물관 한윤희 님 제공

### 〈세종 옛돌 박물관〉

세종옛돌박물관은 6천여점의 다양한 전통 석물들을 체계적으로 연구, 보존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에 개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세종옛돌박물관은 5천여 평의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실내전시관을 포함하여 테마별로 모두 1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실물로 전시된 우리 고유의 돌조각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예술감각을 느낄 수 있고, 나아가 자연의 활력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다. 왕릉과 사대부가의 묘에서 땅자의 혼을 지키고 위안하던 문인석, 무인석을 비롯한 석수, 마을 수호신으로서 마을에 들어오는 악귀와 외적을 막아주던 장승과 벽수 등의 지킴이, 높은 장대 위에 올라 마을의 안위를 살피던 솟대, 귀여운 모습으로 지나가던 나그네의 발길을 붙잡던 동자석, 제주의 상징이 된 돌하루방, 아들을 낳기 위해 지성을 드리던 신당과 남근석, 그리고 우리 불교의 심오한 뜻을 알 수 있는 불상

과 석탑, 생활도구로 사용되는 연자방아, 맷돌, 다듬이돌, 우물돌, 돌솔 등, 우리 민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6천여점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우리의 옛 돌 조각품들에는 우리 민족이 수천년 이 땅에서 살아온 숨결과 애환이 담겨 있다. 이들 돌 조각품들은 그 표정 하나 하나에서 우리 민족의 삶과 애환, 신앙 등을 생생히 읽을 수 있는 문화의 결정체로서 옛 돌 조각의 실물전시를 통해 선인의 숨결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자연스런 역사체험의 장이 되게 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료 : 세종 옛돌 박물관 제공

#### 〈신세계한국상업사박물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상업과 유통에 관련된 각종 유물, 모형 영상물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매직비전(특수 영상물), 터치TV 등 최첨단 시설과 다양한 모형을 통해 시각적, 청각적인 효과를 곁들여 관람객이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상업의 발전사를 사회경제사적인 시대구분을 통해 동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자료 : 신세계한국상업사박물관 배정균 님 제공

#### 〈태평양 박물관〉

태평양박물관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전문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주)태평양이 1970년대초 설립에 착수하여 1979년 12월 약 10여년간 준비 끝에 개관된 전문사립박물관이다. 총100여평의 전시면적으로 한국의 전통 여성생활상을 주제로 세계 유일한 화장박물관인 화장사관과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다예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1전시실인 화장사관은 우리나라 화장사와 관련된 자료(화장품 용기, 용구, 제조용구, 장신구, 여성생활용구) 약 550여점 전시되어 있으며, 제2전시실인 다예관은 전통차와 관련된 자료(다구, 다기, 다서, 다화 등)를 중심으로 약 150여 점이 시대별 용도별 전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박물관이다.

전시된문화재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궁중용에서 서민용에 이르는 유물로 상시 700여점이 상설 전시되어 있으며, 새로

운 문화제는 수시 교체, 진열하여 공개하므로 관람자는 새로운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 : 태평양박물관 박창용 님 제공

### 〈한국등잔박물관〉

1997년 9월 28일 개관한 한국등잔박물관은 우리 곁에서 점차 사라져 가는 등잔의 역사를 보전하고 재현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설립 박물관이다. 김동휘 관장이 평생을 모아온 각종 등잔 3백여점을 테마별로 구분하여 전시하는 한편, 휴식공간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잔박물관은 연건평 2백7십여평에 수원성을 본뜬 형태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어, 제1~4전시실인 '생활 속의 등잔'에서는 등잔과 관련된 선조들의 생활상을 재현해 내고 있고, 제5전시실 '역사 속의 등잔'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등잔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6전시실 '아름다움 속의 등잔'에서는 소박하고 정교한 각종 등잔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또 건물 3층에는 특별계획전시실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지하 1층 상우당에서는 무대공연, 미술전시, 심포지움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 한국등잔박물관 김수영 님 제공

### 〈한국미술관〉

한국미술관은 1983년 3월 가회동에 처음 설립된 후 현재의 위치로 옮기기까지 한국현대미술에 큰 관심을 갖고, 현대미술의 발전과 대중을 위한 미술문화보급에 힘쓰고 있다.

제1전시실 및 소전시실, 그리고 실내조각전시장과 600평에 가까운 야외조각전시장이 있고 미술관련자료를 항시 열람할 수 있다.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 특별전과 상설전시가 있으며, 회원들을 위한 미술이론 및 실기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 : 용인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이규한 님 제공

### 〈호암미술관〉

호암미술관은 삼성그룹의 창설자이자 삼성문화재단의 설립자이신 고 이병철 회장께서 40여년에 걸쳐 수집한 한국미술품 1,167점을 바탕으로 1982년에 개관하였다. 미술관은 그간 15,000여점으로 늘어나 소장품을 중심으로 매년 상설품 교체전과 특별기획전을 열어 왔으며 다양한 해외전을 개최하여 미술을 통한 국제교류에 앞장서 왔다. 또한 호암미술관은 〈문화유산의 해〉와 개관 15주년을 맞이하여 전통문화 계승 및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전통정원 “희원”을 개원하였다. 4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완성된 전통정원 희원은 지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한국 전통정원의 멋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호암미술관이 수집해 온 신라시대의 석탑을 비롯하여 이름없는 석공들이 만들어 낸 불상, 벽수, 석등, 물확 등 귀중한 석조물들과 옛 선비들이 정신수양으로 삼았던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등 사군자를 포함한 자생 화초들을 정원 곳곳에 적절히 배치하였다. 호암미술관이 정성을 기울여 새로 가꾼 전통정원 “희원”은 전통문화계승의 산 교육장이자 최고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서, 자연의 순수함과 멋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자리이다.

자료 : 호암미술관 고미술 운영실 신유경 님 제공

### 〈한택식물원〉

한택식물원은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상산부락 산 15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396,300m<sup>2</sup>이다.

한국에서 자생하는 특산 식물, 법정보호식물, 희귀식물을 보존·증식하는 전문식물원이다. 초본과, 나무류, 도입식물 등 약 6,000여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 : 한택식물원 제공

## 5. 문화재

용인시의 문화재는 크게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로 대별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과 사적으로 나뉘

는데, 보물로는 서봉사지 현오국탑사지, 오명항 초상 등이 있으며 사적으로는 서리 고려백자 요지가 대표적이다.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로 나뉘며 시지정문화재는 향토유적과 회화로 구분된다. 부록에는 이들 문화재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표 9) 문화재 현황

지정문화재	종류	보물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서봉사지 현오국탑사지, 오명항 초상, 유수 초상, 양무 공신 교서
	사적	서리 고려백자 요지
도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삼곡서원, 총렬서원, 체제공선생 위문비, 문수산 마애보살상, 현수제승법수
	무형문화재	옥로주, 악기장 최태순, 자수장 황순희
	기념물	정공주선생묘, 민영환선생묘, 유형원선생묘, 전음애이자고택, 저현 이석형묘 및 신도비, 심대장군묘, 모현지석묘, 처인성, 문정공비 조광조선생묘 및 신도비, 체제공선생묘, 이종무장군묘, 오윤경선생묘, 음애이자묘역
	문화재자료	양지향교, 미평리약사여래입상, 옥신리석조여래입상, 정응두, 정옥형신도비, 공세리오층석탑, 주북리 지석묘, 분청사기도요지, 문간공 김세필묘역 일원, 어버리삼층석탑, 창리선돌, 맹리지석묘, 이주국장군 고택
시지정 문화재	향토유적	용인향교, 오달제선생묘 및 대낭장비, 이주국장군묘 및 신도비, 남구만선생묘, 사암리입석, 총렬서원선생안, 최유경묘역, 양천허씨노비분재기, 이한응 열사 묘, 두창리 선돌, 운학동 돌무지, 정윤복, 정호선묘 및 신도비, 조중회묘, 오명항선생묘, 연안부부인 전씨묘, 화산리웅기요업지, 가창리부도, 진화묘, 오희운묘, 흥계희묘, 이경중 신도비 및 묘, 황림묘, 운학동 돌방무덤, 서리 상반백자 요지, 풍창부부인조씨묘, 두창리삼층석탑, 이일장군묘, 총렬서원중수록, 이에.경산공주묘, 이재선생묘, 남양흥씨 시정공파 무관 묘역, 유복립정려각, 운학동 돌무지군, 사은정
	회화	남구만초상, 유순정영정, 허적초상, 정몽주영정, 유흥영정, 오도일영정, 허계.허선초상

자료: 용인시

## 제3절 용인지역관광 발전계획

### 1. 추진 배경

용인시는 2001년 5월 「용인관광비전 21 종합계획안」을 통하여 용인시 관광산업 종합 발전계획을 구체화한 바 있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역내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선진국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용인시 관광의 경제적 생산가치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관광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화, 건강, 교육, 환경 중심 생활양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가치가 더욱 부여됨에 따라 관광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각종 행정 규제가 완화되고 관광산업 육성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행정이 활성화 되고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레저업에 지방정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인시의 발전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2. 추진전략별 진흥계획

#### 1) 지역밀착형 테마관광자원 개발계획

지역 주민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연자원, 산업, 역사/문화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 공간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이미지 개선, 농외소득원 창출, 지역 불균형 해소, 새로운 위락공간 조성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개발여건은 한국적 농산어촌 풍경 및 수변, 산악, 농촌 자원 보유, 인구 2천만명의 수도권 배후시장, 고속도로, 국도 등 접근성, 다양한 문화자원 및 높은 주민의식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편이다. 개발전략은 지역주민, 지역자본이 주체

가 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심의 개발(최소한의 토지이용 계획 수반)과 함께 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농촌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마을 단위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다. 사업추진방안으로는 『용인시 지역밀착형 테마관광자원개발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 지원그룹 형성, 육성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한다는 것으로 시예산, 지방채, 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지역인식 제고, 이벤트 및 체험 프로그램, 인터넷, 대중매체 활용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발효과로는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보유자원 이용 효율 극대화, 도시민관의 교류 증가 효과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 2) 보유관광자원 매력도 증진계획

다양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주변 경관, 접근성, 법적 문제 등 매력도 제고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비/활성화 사업 대상을 5개 유형 12개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12개 사업 매력도 증진전략은 <표-10>과 같다.

(표 10) 유형별 관광자원 매력도 증진 전략

유형	주요관광자원	정비/활성화	주요전략
테마파크형	에버랜드	정비	에버랜드와 경안천 연계 정비
	한국민속촌	활성화	한국민속촌 주변 경관 정비
스포츠형	골프장	활성화	프로그램, 이벤트, 중심의 SW 확충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상품화 전략 용인시 축제와의 연계 전략
	리조트	활성화	
	승마장	활성화	
수변형	고거리계곡	정비	시인의 계곡으로 정비
	신갈저수지	정비	지역주민의 여가문화공간으로 정비
문화형	박물관·미수관	활성화	박물관 연계 관광상품화 계획 재래시장의 관광자원화를 조례 제정 남구만선생 생가, 처인성지복원사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	
	주요 역사유적	활성화	
생태형	한택식물원	활성화	생태형 에듀테인먼트 공간으로 활용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상품화 전략
	황새울관광농원	활성화	

자료 : 용인시, 《용인관광비전 21 종합계획안》, 2001.

## 3) 지역 문화축제 관광자원화 계획

(표 11)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전략

구분	내용
용인 처인성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한민족 항쟁의 역사 이야기..."</li> <li>• 개최장소: 처인성지, 도립박물관, 용인문예회관</li> <li>• 개최시기: 매년 10월</li> <li>• 행사내용: 처인성지 영상쇼, 김윤후출전식, 용인명품거리축제, 몽골의복 및 전쟁장비 전시 등</li> </ul>
용인 막사발 가마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물, 불, 흙, 백자의 청초함을 찾아서"</li> <li>• 개최장소: 서리상반도요지, 고안리, 이동면 옹기요지등</li> <li>• 개최시기: 매년 4월</li> <li>• 행사내용: 진흔제, 제작체험, 학술심포지엄 및 세미나, 도자기 만들기 대회 등</li> </ul>
용인 애니-사이버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Dream in Cyber world..."</li> <li>• 개최장소: 전대리 일대, 삼성반도체 주변 등</li> <li>• 개최시기: 매년 12월</li> <li>• 행사내용: 가상현실체험, 게임/애니메이션 체험, 소프트웨어 전시, 관련 학술대회 및 부대행사 등</li> </ul>
동양 선(禪)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신과 인간세계의 만남."</li> <li>• 개최장소: 할미산성 주변, 한국민속촌, 도립박물관 등</li> <li>• 개최시기: 매년 7월</li> <li>• 행사내용: 전통굿, 국제사머니즘 전시회, 무속 심포지엄, 사이버 점, 꿈 해몽, 운세보기 등</li> </ul>

자료 : 용인시, 《용인관광비전 21 종합계획안》, 2001.

인지도 있는 지역 문화 축제가 전무하여 지역 특유의 문화적 소재 활용이 절실하다. 관광자원화 전략으로는 용구문화예술제를 용인처인성문화제로 발전시켜 기존 축제를 정비하고 세계막사발가마축제를 용인막사발가마축제로 지역사업화하여 기존 축제를 활성화하고 용인 애니-사이버 축제, 동양 선(禪) 축제 등의 새로운 축제를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민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확립(기획, 홍보, 예산, 관계기관협조, 협찬사, 섭외 등)함과 동시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공연장을 관리하며, 숙박/접객업체를 정비하고 행사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4)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계획

용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차별적 관광상품을 공급하고 기존 관광 자원과 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관광 코스 상품을 개발한다.

(표 12) 관광코스 상품 개발

구분	내용
자연/휴양림 체험 관광코스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외생태관람, 수변자원체험, 자생식물 곤충관찰</li> <li>• 주요 관광코스 지역: 용담호수 밤익는마을, 한택식물원, 황새울관광농원, 생태공원 등</li> </ul>
역사/문화 체험 관광코스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체험, 도자와 문화체험, 전통과 첨단 문화체험</li> <li>• 주요 관광코스 지역: 처인성지, 용인향교, 서리고려백자요지, 한국민속촌 등</li> </ul>
레저/스포츠 체험 관광코스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상 레포츠 체험, 골프 승마체험, 오락형 테마파크 체험</li> <li>• 주요 관광코스 지역: 이동호수, 승마장, 골프장, 에버랜드 등</li> </ul>
전원/먹거리 체험 관광코스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체험, 전통공예체험, 먹거리 체험,</li> <li>• 주요 관광코스 지역: 생명의 마을, 황새울 관광농원, 밤익는 마을, 농도원 목장 화훼농가 등</li> </ul>

자료 : 용인시, 《용인관광비전 21 종합계획안》, 2001.

(표 13) 용인의 특산물

품명	생산지	대표자	특징	전화번호
옥로주	백암면 박고리 169	유천양조원 유민자	경기무형문화재 제12호/경기명주지어	031)333-0335
순지오이	남사면 진목리 654	용인남사순지작목반	(1시 1명품)	031)332-6352
크리스탈킨	모현면 매산리 193-1	대림유리 김영국	맑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명품으로 인정	031)332-2350
백송상	남사면 전궁리 266-2	백송공예 이수자	4대에 걸쳐 전수	031)333-3962
백옥쌀	백암, 원삼, 남사, 이동면	농협중앙회	용인시 특산물	031)332-2181

자료 : 용인시

박물관별 캐릭터 상품(꽃, 돌, 등잔, 붓 등)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기념품(도자기, 만화 등) 개발을 지원하고 향토지적재산의 관광기념품화(용인쌀, 옥로주 등)를 적극 추진한다.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체계 개선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판



## 6) 관광기반시설 선진화 계획

관광기반시설을 선진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예를 들면 경전철(신갈-에버랜드, 21.3km)이나 관광셔틀버스 등을 도입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가도, 로맨틱가도, 전원가도, 환상가도 등 관광테마가도를 구상할 수 있다. 관광종합터미널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용버스터미널을 리모델링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경안천, 신갈 저수지 주변 등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으며, 교통안내체계 확립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상설 1개소, 임시 및 보조 10개소), 종합관광안내도(신규 8개소 등), 관광지 표지판, 보행인 표지판, 관광관련 간행물 등을 재정비하고 연계 관광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용인시 관광전용 정보제공 웹사이트, 공동표준숙박예약시스템 구축, 영세관광사업체 홈페이지 개설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에버랜드 주변 항공대 부지를 활용하여 2천실 규모로 중저가 숙박시설을 조성하며, 테마가 있는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테마마을 중심의 민박촌 및 전원주택촌을 활용한 펜션형 민박지구 조성, 용인투어텔 제도를 통한 유희 숙박시설 활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5) 관광기반 선진화 전략

구분	교통 인프라	안내 인프라	숙박인프라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자원간 연계체계 구축</li> <li>다양한 관광교통시설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안내서비스 수단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박 공급량 확충 및 차별적 숙박시설 공급</li> </ul>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내/관광교통체계 개선</li> <li>고나광자원간 접근체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내체계 확립, 안내인력 확보, 정보시스템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박시설 확충, 차별화된 숙박시설 확대</li> </ul>
사업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수도권 교통개선계획과 연계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관광정보 DB구축 사업과 연계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투어텔제도, 문광부사업과 연계 추진</li> </ul>

자료: 용인시, 《용인관광비전 21 종합계획안》, 2001

관광산업은 환경친화적 산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관광산업의 진흥은 자체적인 효과 외에도 여타 산업, 영역으로 외부경제효과를 미친다. 직접적인 경제 효과로는 고용창출 효과, 소득증대 효과, 지방세수증가 효과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외부적인 효과(external

effect)로는 유발수요의 창출, 지역 생활환경의 개선 및 지역 이미지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또 관광산업은 비교우위의 원천이 특정자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자원의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려한 자연환경, 우수한 인력, 대규모 자본, 독특한 지역문화, 특정 산업 등의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만 경쟁력을 가져도 충분히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 김용준(신용보증기금 보증과장)

## 제14장 산업경제 발전전략



용인시의 발전전략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산업구조상 여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R&D 기능의 활성화, 중소기업 협동화, 임대형 공업단지의 개발 등을 추진한다. 둘째, 유통·물류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종합물류전문사업체들이 입주하기 용이한 여건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존중되고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사회·문화적인 효과를 고려하는 관광개발전략이 절실하며, 이를 위하여 기존 테마파크와 휴양·위락시설을 이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및 마을 단위의 문화상품 개발, 그리고 인접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순환관광루트의 개발 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용인시는 선계획-후개발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공간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용인시는 무분별한 택지개발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의 메카, 물류·유통의 중심기지, 관광의 명소, 안락한 주거환경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제1절 산업구조

용인지역은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중심이었던 제조업이 첨단산업형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이나 기계조립업으로의 전환이나 지역산업간 연계를 유도하는 정책방향이 요청된다. 특히 용인-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과 R&D기능을 적극 육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첨단산업과 벤처산업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과의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용인지역은 산업구조상 첨단산업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이다. 용인지역은 첨단산업의 결집지로서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용인시와 인근의 수원시, 평택시는 첨단산업 및 연구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기존의 첨단업종과 연관된 업종을 유치할 경우 산업연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 대학, 연구소, 기업체, 지방정부 등이 산·학·연 연계체계를 활성화할 경우 R&D의 개발이나 기술인력의 양성이 용이한 지역이다.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물적 기반시설이 풍부한 지역으로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도로, 인접 항만 등의 물리적 기반시설도 풍부하다. 고속도로, 전철 등은 물론 국도 등이 잘 구축되어 있고, 평택항이 인접해 있어 물류비용상 우위에 있는 지역이다.

### 첨단산업의 육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최적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므로 전자, 통신은 물론 생명공학, 첨단 멀티미디어 등의 미래형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인다. 용인시는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전후방연관효과, 성장성, 입지경쟁력, 공업집적도,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영상, 음향, 통신기기, 전기, 기계, 생명공학 등이 유망한 업종이라 할 수 있다. 계열화와 협동화, 그리고 집단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 R&D 기능의 활성화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R&D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첨단산업을 많이 입지해 있으므로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첨단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첨단기술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산업기술대학을 유치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R&D 결과가 사업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첫째, 창업지원 전담 창구의 설치 운영과 둘째, 창업관련 정부의 정책지원제도의 현황을 제공하고 셋째, 세무, 법률, 시장조사 등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넷째, 창업절차,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다섯째, 양질의 창업지원 자금을 유치, 운용할 필요가 있다. 용인시는 도로여건이 양호한 편이며 수원시와 연결된 첨단산업벨트를 적절히 연계할 경우 집적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기흥, 구성지역에 첨단공단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10개), 연수원(31개), 연구소(33개) 등이 밀집해있는 R&D 집적지역임을 감안하여 산·학·연 연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소기업 협동화

유관업종의 중소기업간 협동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들과 수직적인 하청계열관계 중심의 현행 구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유사업종 혹은 이업종들간의 수평적인 협동관계 구축을 통한 범위의 경제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수평적 협동화와 수직적 계열화, 그리고 종합적 집단화는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다.

### 임대형 공업단지 개발

재산가치보다는 사용가치 중심으로 공업입지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전략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입주시킬 수 있는 임대형 공업단지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개별입지를 집단적 계획입지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도농복합형 도시계획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공업배

치 및 용도지구제를 운영한다.

#### 농업법인체 규모화

농축산업의 경우, 농업법인체의 활성화와 규모화에 의한 경쟁력 제고가 가장 절실하다. 즉, 농업법인체를 활성화하여 미곡생산의 규모화와 효율화를 추구하고 기계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함께 대외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기본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규모가 큰 용인시의 경우 농업법인체의 규모화 및 경영전문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경영효율을 높이고 전업농을 육성시켜야 한다. 농가 및 농가인구의 변화 특성을 보면 WTO 체제 출범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 등의 급증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농경지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며, 단순한 쌀 생산 등 경종농업은 쇠퇴하고 채소·화훼 등 원예 분야 근교농업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실시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로 파손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및 노후시설 보수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기계 구입현황 파악 및 농기계 구입 확인대장 비치로 무분별한 기계구입을 사전에 예방하여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과잉투자를 방지가 필요하다. 또한 보조금지급에 대하여 농가의 자율책임 경영을 확립하는 용자지원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농업경영 종합자금제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기계 보관창고 확대 설치로 농업기계 이용도 증진 및 농기계의 안전보관, 농업기계 사후수리 봉사체계 확립으로 고장을 예방하여 사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 양축농가 합리화

양축농가들은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 외에는 시장개방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다. 경영의 합리화라고 하면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사양관리, 판매, 구매기술을 개선하며 생산기반의 정비, 규모의 적정화, 시설 및 작업의 기계화, 유통개선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시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균형 있게 잘 조화시



킴으로서 경영의 최고효과를 이룩할 수 있다. 첫째, 축사, 사료급여 시설, 급수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시설과 기계의 근대화, 둘째 생산기술요인 즉, 사료요구율, 증체율, 출하체중, 출하일령, 산자수, 모축회전율, 육성을 등에 대한 기술의 개선, 셋째, 번식경영, 비육경영, 일관경영, 계열화체제 등 경영조직의 적정화, 넷째, 사료비, 가축비, 사육노동비, 규모화 등 생산비절감이다. 생산비 절감이나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국내산 식육가격의 적정 하향유지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동시에 도축·가공·수송·저장·판매과정에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유통개선으로 유통비용의 절감과 공급체계의 확립으로 국내산 육류소비 촉진을 성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생산자단체나 협동조합에 의한 생산·유통의 통합체제이다. 따라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은 합당한 대안이므로 사업추진을 관리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축산물종합처리장권내 기존 도축장들의 정비 혹은 권외로 이전통합, 소매망의 콜드체인화 등을 포함한 활성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축산업의 지원 방향은 ①생산자 회원들의 소득향상, ②생산자를 위한 시장접근의 개선, ③생산자의 축산경영관리나 관리능력의 증진 지원, ④가격형성의 정확성 진작, ⑤경영효율과 조정개선, ⑥생축유통, ⑦도축·가공·분배의 생산·유통의 계열화된 육가공사업, ⑧가축배설물의 유기자원화로 환경보전, ⑨총체적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원예업 고급화

원예업의 경우 첨단원에 수출단지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수, 화훼, 시설채소 등 첨단 원예 수출단지로 육성하고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시설면적을 확대시키며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용인시의 경우 360ha에 이르는 시설채소생산 기존면적(1996년 기준)을 2002년까지 477ha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용인시의 시설화훼면적 또한 현재의 79.5ha규모에서 올 2002년까지는 121ha로 화훼시설면적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장미, 백합, 국화 등을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다. 단기소득 임산물 주산

단지를 확대하여 조성하고 인근 지역에 임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유통을 보강할 계획이다. 단기소득 임산물 주산단지는 표고, 산채, 산약초, 산과일, 밤 등을 생산하고 임산물 직판장에서 이를 판매하도록 한다.

## 제2절 유통·물류

용인시는 수도권 집중 물류의 1차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유통·물류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무역 컨테이너 물류의 50% 이상이 경인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사실과 용인시의 물류단지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용인시의 유통·물류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용인시의 물동량은 약 1천 2백만톤으로 경기도 남부임해권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물류단지에 대한 총 수요면적은 약 20만평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지구모가 큰 용인시는 농업경영 전문화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곡생산 외에 시설채소나 화훼면적을 확대함과 아울러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 및 유통시설을 확보하여 수도권 지역의 농업생산물 가공 처리 및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내의 거대한 물동량을 흡수하기 위하여 평택항과 안산시를 거점으로 하는 물류시설을 설치하고, 수도권 남부의 물류유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종합유통단지를 건설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용인시는 전국에서 기업체 소유의 물류단지가 가장 많이 집적해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도 수지구에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물류단지가 3개 입주할 예정에 있고 용인중부공영화물터미널이 계획 중에 있다. 교통체계상 차량과 교통망을 연결시키는 결절점인 화물터미널은 용인시 외사면과 기흥읍에 중부공영화물터미널(부지면적: 55,981m<sup>2</sup>), 용인화물터미널(부지면적: 70,000m<sup>2</sup>)이 조성되었다.

물류부문의 환경변화는 심각하다. 소비자들의 수요는 날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은 세분화되고 수요주기가 단축되며 소량다빈도 배송이 늘고 있다.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유통채널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구조조정과 함께 전자상거래를 확산시키고 있다. 외국기업의 진출이 가시화되었으며 신규업체의 진입이 늘어나면서 사업영역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

용인시는 물류산업의 핵심 주력업종으로서 종합물류전문업체를 육성시켜야 한다. 종합물류전문업체는 원자재 구매에서부터 완제품

수송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과 정보의 공간적·시간적 흐름을 최적화하는 사업자이다. 미국의 경우 이 시장의 규모가 2000년 현재 약 7,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들을 이용하는 제조업체들은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경영의 유연성이 향상되었으며 고객서비스가 개선 등 전반적인 생산성 상승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물류전문시장의 선도업종으로 성장하고 있는 택배업, 물류자회사, 도매배송업, 공동물류업의 기존 업체들과 신규 물류업체들의 경쟁촉진과 아울러 전통적인 물류업종(운송업체, 창고업체 등)의 종합물류전문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정비를 추진함과 아울러 구조적으로 물류산업내 세부업종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서비스의 추가를 어렵게 하는 현행 물류관련 규제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물류산업의 고도화·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물류산업이 종합물류전문업체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용인시가 종합물류전문업체들이 입주하길 가장 선호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

## 제3절 관광·문화

용인시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지역 여건을 활용하여 인근 도시민의 전원생활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의 과소화를 방지할 수 있는 농촌형 관광 휴양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높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향토문화행사는 그 규모가 지역단위에 머물러 있어 이벤트·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강화,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관광의 계절성을 극복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용인시는 또한 증가하는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내 각종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와 문화시설의 확충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민간 예술단체 및 문화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내 기업체의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중앙정부의 관광산업 진흥정책이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개성있게 담아내지 못하고 유사한 관광지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은 주목할 만하다. 관광자원의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되었고 유입된 외부자본이 개발이익을 다시 외부로 유출시켰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한 획일적인 관광개발업무나 단순한 인허가 업무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써 지방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추진 능력을 무력화하였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존중되고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사회문화적인 효과를 고려하는 관광개발전략이 절실한 것은 이 때문이다.

용인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욕구 충족, 지역주민의 복지, 여가수요 충족 및 지역주민의 개발욕구 등의 균형된 사회적 마케팅과 각 세분시장을 기초로 관광공간을 보다 필요로 하는 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략시장을 선정하고 시장에 따른 차별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수도권 관광·위락 상품 개발

에버랜드, 민속촌 등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일일 혹은 주말을 이용한 수도권 주민들의 휴양 및 위락공간으로 용인시를 적극 육성한다.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이들 테마파크와 공동으로 관광가이드를 훈련하고 지도하여 차별화된 전문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차별적 관광상품을 공급하고 기존 관광 자원과 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1일, 3일 혹은 1주일 다양한 품질의 관광코스 상품을 개발한다.

#### 마을 단위 문화상품 개발

역사문화자원과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촌형 관광 휴양형태로 개발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도시근로자의 방문 및 지역 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동호인 또는 클럽의 유도를 위한 다양한 농촌 자원 개발 프로그램의 개발과 먹거리의 상품화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그린 투어리즘이 도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환경과의 조화와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세부전략은 지역주민, 지역기업이 주체가 되어 마을 단위별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문화 축제가 전무하다. 몇몇 지역 문화 축제가 있으나 관광자원화하기에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따라서 문화 축제를 마을단위에서 개발하고 재정비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가 공연장을 관리하며 숙박/접객 업체를 정비하고 행사 홍보와 예산 등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순환관광루트의 개발

용인시는 인공 테마파크와 내수면형 관광자원을 연계한 내륙형 관광체계를 구축하고, 타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순환관광루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안산시, 화성군의 임해 관광 자원,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군 등지에 산재한 내륙형, 내수면형 관광자원, 수원성, 효행공원, 용주사와 같은 인근 지역내의 문화유적, 온천개발지 등을 연계한 일일, 주말, 주중의 가족단위의 4계절 종합 휴양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 제4절 공간구조

용인은 우리나라 중심 산업축의 하나인 서울-안양-수원-평택으로 이어지는 경부산업축을 포함하는 주요한 거점 지역으로 지속적인 산업시설의 입주와 도로와 철도망을 비롯한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한반도 중심 산업·유통지역으로서의 그 중요성이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서울-수원-평택의 개발축은 물론 안산-수원-용인축과 인근 안산-평택-안성의 동서축에 서해안 개발축까지 연결되는 '정(井)' 자형 개발축이 형성되어 지역개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은 서울과의 지역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 개발여력 수용기반을 조성하기에 용이하며, 자연적 지형여건을 감안한 전원주택, 소규모 공단, 유원지의 적정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용인시는 도농복합시로 도시계획구역을 대폭 확장하여 기존 시가화구역과 도시주변지역을 일체적으로 개발 관리하여야 한다.

용인시는 도농 통합에 따른 광역정주체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도시를 지향하며 인간과 환경이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도시육성을 목표로 하고 단계별 발전계획을 수립하

용인시 단계별 개발계획

(단위: km<sup>2</sup>)

구분	1996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997~2001)	(2002~2006)	(2007~2011)	(2011~2016)
계	79,096	397.017	397.017	397.017	397.017
시가화구역	9.85	17.05(7.2)	45.77(28.72)	52.68(6.91)	56.40(3.72)
주거용지	7.88	14.60(6.72)	26.00(11.40)	30.21(4.21)	32.27(2.06)
상업용지	0.90	1.38(0.48)	2.46(1.08)	2.86(0.40)	3.05(0.19)
공업용지	1.07	1.07(-)	2.71(1.64)	2.71(-)	2.71(-)
개발예정용지	-	0	14.46(14.46)	16.60(2.44)	18.37(1.47)
녹지	69,246	379,967	351,247	344,337	340,617
시가화율(%)	12.40	4.30	11.50	13.30	14.20

주: 0은 신규개발용지임  
자료: 용인시, 《2016 용인도시기본계획》, 2001.



고 있다. 용인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생활권별 위계별 특성에 따라 기본 정주체계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인구를 배분하고 2016년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수지생활권은 인구 50만, 신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용인생활권에 29만 배분, 남이, 백원 생활권에 각각 4만, 2만 배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용인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한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 가능지 분석을 토대로 가용지에 개발용도를 구분하여 4단계에 걸쳐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개발 압력이 집중되고 있는 용인시의 경우 선계획-후개발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간구조적인 측면에서 용인은 개발요건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의 메카, 물류·유통의 중심기지, 관광의 명소, 안락한 주거환경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서영(단국대 강사)

1990년에 『용인군지』가 발간된 이후 어느덧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용인은 군에서 시로 승격(1996년 3월 1일)되는 한편,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발맞춰 2005년 10월 행정구역이 기흥·수지·처인 등 3개의 구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용인의 인구는 2006년 3월 현재 약 70만 6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2008년에는 약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은 경기도를 이끌어갈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용인이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용인에 관한 역사·문화·시정 등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하는 기관이 없던 차에 다행히 용인시사편찬위원회가 발족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용인시사편찬위원회는 용인에 관한 각종 역사문화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하여 용인시사총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고려시대의 용인』(1권), 『용인의 옛 절터』(2권), 『용인의 도요지』(3권), 『용인의 옛 성터』(4권), 『용인의 마을의례』(5권), 『용인의 역사지리』(6권), 『용인의 불교유적』(7권), 『용인의 분묘문화』(8권),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재조명』(9권), 『용인 처인성』(10권), 『처인성 주변지역 지표조사 보고서』(11권) 등이 그 결과물입니다. 지금까지 발간된 용인시사총서는 용인의 역사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은 물론이거니와 용인의 역사문화를 연구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인의 각종 역사문화 자료들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이러한 작업의 지속을 통해 용인지역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1990년에 『용인군지』가 발간된 바 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용인에는 급격한 변화와 발전의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그간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 『용인시사』의 발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이른바 ‘난개발’이 자행됨으로 인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화두가 등장하였고, 서울의 인구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도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이

슈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용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흔히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과거의 일들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미래에 현명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인시사』의 발간을 바탕으로 그간 용인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자연친화적으로 균형 발전하는 도·농 복합 일등도시 'ACE 용인'의 비전을 조망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되돌아보면 집필진의 선정에서부터 편집 인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미진한 점들이 눈에 띕니다. 원고를 집필하는 도중 용인의 행정구역이 재조정되고 명칭에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우선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나 용인의 역사를 지극히 통사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말았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나 『용인시사』가 8권으로 간행될 수 있었던 데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용인시사』는 용인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제공해 주신 분들과 집필위원, 그리고 교정과 편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땀방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용인시와 용인문화원의 관계자분들의 헌신적인 행정적 뒷받침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용인시사』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용인시사』가 책장에 진열되어 먼저만 가득한 책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끔이라도 펼쳐 용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미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조그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2006년 5월  
용인시사편찬위원회

## 집필진(제5권 현대사회 I)

제1편	정치	박수형(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유영록(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허석재(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2편	행정	윤기영(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회원)
제3편	경제	허 윤(서강대 교수) 허동훈(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웅준(신용보증기금 보증과장) 이서영(단국대 강사)

##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정문 용인시장(전임 예강환)
부위원장	홍재구 용인문화원장(전임 이인영)
감수위원	이달순 수원대 교수 최홍규 전 경기대 교수 조유전 토지박물관 관장 서광일 한신대 교수 양훈도 경인일보 논설위원
편찬위원	김종경 용인신문사 편집주간 김순경 용인시의회 의원 김재열 삼성미술관 리움 부관장 김춘남 용인대 교수 박상돈 용인시청 문화복지국장 안영희 용인시의회 부의장 윤한택 경기문화재단 전통문화실장 이인영 전 용인문화원장
상임위원	양정석 · 이정호
상임연구원	김현주 · 신선훈 · 이현대
간사	오세호 용인시청 문화관광과장(전임 박관택 · 김명진 · 조병태)
서기	이동무 용인시청 문화정책담당(전임 한상의 · 박상섭 · 최희면 장태영 · 조병섭)

## 편집 및 디자인

편집 · 교정 총괄	양정석
교열 · 교정위원	강미순 · 금병윤 · 김동관 · 김윤정 · 김정례 · 김현주 · 노은경 박찬수 · 백구주 · 신선훈 · 서효승 · 이인영 · 이인정 · 이재원 이현대 · 조은정 · 최민정 · 최정은 · 황철호

## 편집기획

(주)웅지기획원 · 중부출판	
아트디렉터	육인영
편집디자인	김미화 · 김선옥 · 심진영 · 이재은 · 김선영 · 이강철 · 오진환

## 龍仁市史 제5권 현대사회I

발행인 • 2006년 5월

발행처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번지 문화복지행정타운  
전화 : (031) 324-2064(문화관광과)

편 집 • (주)웅지기획원 · 중부출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번지  
대표전화 : (031) 230-2114, Fax : (031) 233-3011  
Home Page : [www.joongboo.com](http://www.joongboo.com)

인 쇄 • 경인일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1번지  
대표전화 : (031) 231-5114, Fax : (031) 232-0339  
Home Page : [www.kyeongin.com](http://www.kyeongin.com)

여

백

